

발 간 등 록 번 호

11-1421000-000002-10

중소기업 연차보고서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021. 8.



목 차

Contents

1부 중소기업 일반현황 및 경기동향

제1장 중소기업 일반현황	3
1. 중소기업 일반현황	3
2. 중소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	7
제2장 중소기업 경기동향	9
1. 업종별 동향	9
가. 제조업	9
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17
2. 분야별 동향	18
가. 창업 및 부도	18
나. 수출	19
다. 금융	21
라. 인력	22
마. 기술	23

2부 중소기업 육성시책

제1장 혁신 창업·벤처국가 조성	27
제1절 민간역량을 활용한 혁신 창업	27
1. 신설법인 현행	27
2. 창업저변 확대	29
가. 창업교육	29
나. 기업가정신 확산	30
다. 도전 K-스타트업	32
라. 창업기업지원서비스 싸우처	34
마. 지역거점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34

목 차

Contents

3. 기술 창업 활성화	36
가. 청년창업사관학교	36
나. 글로벌창업사관학교	39
다.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40
라.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48
마. 예비창업패키지	50
바. 초기창업패키지	51
사. 창업도약패키지	52
아. 혁신분야창업패키지	54
자.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55
차. 마기유니콘200 육성 프로그램	56
4. 창업지원 인프라 운영	58
가.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운영	58
나. 창업보육센터(BI) 운영	59
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61
라.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63
마. 메이커 활성화 지원	67
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69
5. 1인 창조기업 활성화	71
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71
나.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	72
제2절 벤처열기 확산을 통한 혁신벤처국가 실현	73
1. 벤처기업 육성 및 성장	73
가. 벤처기업 성과	74
나. 벤처기업 지원현황	75
2. 벤처투자 현황	78
3. 벤처투자 확대	80
가. 모태펀드 운영	80
나. 엔젤투자 활성화	81
4. 회수시장 활성화	84

목 차

Contents

제3절 제도전 환경 조성	87
1. 신속한 중소기업 재기지원	87
가. 재창업교육	88
나. 재창업 자금 및 제도개선공패키지 지원	89
다. 경영위기기업의 발굴 및 회생 지원	90
라.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촉진	91
2. 제도전 친화적 제도 개선	94
가. 연대보증 폐지 등 실패부담 완화	94
나. 신속한 회생 지원	95
다. 신용회복 및 부정적 신용정보 관리 체계 개선	96
제2장 고용 친화적 중소기업 성장촉진	98
1. 근로자 임금상승 및 근로환경 개선	98
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운영	99
나.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도입 및 확산	100
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102
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103
2.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105
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105
나. 기술사관 육성	106
다.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	107
라.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108
마. 국립 공업고등학교 육성	109
바. 기업인력애로센터 운영	111
사. 중소기업 인식개선	112
아. 중소기업 연수원 운영	112
제3장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114
1.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	114

목 차

Contents

1. 중소기업 기술혁신 현황	114
2.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119
가. 중소기업 기술개발(R&D)지원	119
3.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육성	150
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150
나. 소재·부품·장비 상생협의회 출범(상생모델 발굴)	151
4.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153
가.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153
나. 정부 주도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154
다. 민간 주도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155
라. 스마트공장 보급 성과	155
마.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AMP) 구축	156
5.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158
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예산 확대	158
나.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수립	162
다. 후려중소기업 육성	164
6. 기술활취 근절 및 기술보호 역량 강화	167
가. 중기 기술활취 근절 및 기술보호 역량강화 지원	167
나.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172
제2절 혁신금융 공급 및 금융안전망 강화	175
1. 금융시장 동향 및 중소기업 자금사정	175
2. 정책자금 지원	177
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정의 및 운영 현황	177
나. 2020년 정책자금 운용성과	178
3. 신용보증 공급	181
가. 보증지원 규모 확대	181
나. 창업 및 미래성장동력산업 지원 강화	183
4. 매출채권보험 운용	185
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확대	185
나. 정책보험 역할 강화	186
다. 고객 중심의 신상품 도입	186

목 차

Contents

제3절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	187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187
2. 중소기업제품의 국내 판로 촉진	189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190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192
다.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194
라.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조항참여 허용	194
마. 직접생산확인제도	195
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196
사.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제도	197
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197
자.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200
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200
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운영	201
파. 공공구매지원관리자 및 모니터링	202
3.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204
가. 온라인시장진출	204
나.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설치·운영	205
다.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206
라. 공영홍소점(재설영 : 공영소밍)을 통한 판로지원	208
4. 비대면 서비스 판로 확대 지원	210
제4절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212
1. 수출 현황	212
2.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214
가. 수출지원기반활용	214
나.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	219
3. 수출기업 지원 및 해외교류 인프라 확충	224
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	224
나.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225
4. 국제협력 추진	229
가. 양자협력 활동	229

목 차

Contents

나. 다자협력 활동	232
다. 기업인 출입국 지원	236
제4장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238
제1절 상생협력 촉진 및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238
1.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추진배경 및 경과	238
2.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240
가. 자성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발굴·확산	240
나. 성과공유제 및 협력이익공유제	242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243
라. 상생결제제도	244
마.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	245
바.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248
3. 기업간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250
가.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250
나. 납품대금 결제 한월 및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251
다. 수·위탁 분쟁조정	253
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254
마. 의무고발 요청제도	254
바. 상생조정위원회 운영	255
4.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257
가. 사업조정 제도	257
나. 적합업종	258
제2절 협업을 통한 혁신역량 발전	260
1. 중소기업 간 협업 유도	260
가. 기업간 교류협력 활성화	260
나. 기술혁신센터 지원	262
2. 포용적 동반성장 확대	264
가. 여성기업 육성 정책	264
나.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	267

목 차

Contents

제3절 지역 중소기업 육성	275
1. 지역 중소기업 현황	275
가. 지역 경제동향	275
나. 지역 중소기업 현황	277
2. 규제자유특구 확대를 통한 신사업 추진 기반 마련	284
가. 규제자유특구 추진배경 및 필요성	284
나. 2020년도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285
다. 2020년도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286
라. 향후 계획	289
3. 지역 특화산업 육성	290
가. 지역특화산업육성(R&D)	292
나.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293
다. 지역특화산업육성+(R&D)	294
4. 국가융복합단지연계 지역기업상용화 R&D	296
5. 지역특구를 통한 균형발전 도모	298
가. 지역특구 지정절차	298
나. 지역특구 지정 및 운영현황	299
다.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및 활성화	299
6.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301
제5장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303
제1절 소상공인·자영업 활력 생태계 촉진	303
1. 소상공인 현황	303
2. 준비된 창업 유도	308
가. 소상공인 정보제공	308
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314
다. 생활혁신형창업지원사업	315
라.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316
마.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316
바. 소상공인 보증 지원	317

목 차

Contents

3. 재기지원 및 생업안정망 확충	323
가. 소상공인 재기지원	323
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324
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325
제2절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및 혁신역량 제고	326
1.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326
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온라인 지원 도입	326
나.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보급	327
2. 소상공인 성장 지원	328
가. 소상공인 경영교육	328
나. 소상공인 역량강화	329
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329
라. 중소슈퍼 지원	332
마.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	333
바. 중소유통공동매출유선센터 건립	334
사. 백년기계 육성	335
3.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347
제3절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활력 제고	352
1. 전통시장 현황	352
2. 특성화 시장 육성	354
가. 지역선도형시장	354
나. 문화관광형시장	354
다. 특성화첫걸음시장	355
3. 시장경영혁신 지원	357
가. 시장경영버우쳐지원	357
나.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	358
다.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 관리 강화	359
라. 문누리상품권 발행	361
마. 디지털 전통시장	362
바. 전국우수시장박람회	363

목 차

Contents

4. 삼권 활성화	364
제6장 규제·행정 혁신 및 기업애로 지원	368
1.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368
2. 중소기업정책상의회	371
3. 적극행정	372
4. 정책정보 제공 및 원스톱 기업애로 지원	374
가. 온라인정책정보 제공 서비스 '기업마당'	374
나.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376
다. 비즈니스지원단 운영	378
5. 중소기업 읍부즈만 운영	380

목 차

Contents

3부 부처별 육성시책 추진실적

제1장 기획재정부	385
제2장 교육부	389
제3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4
제4장 문화체육관광부	413
제5장 농림축산식품부	419
제6장 산업통상자원부	422
제7장 보건복지부	428
제8장 환경부	430
제9장 고용노동부	435
제10장 국토교통부	441
제11장 해양수산부	450
제12장 금융위원회	453
제13장 방송통신위원회	455
제14장 공정거래위원회	457
제15장 식품의약품안전처	459
제16장 국세청	462
제17장 관세청	467
제18장 조달청	470
제19장 방위사업청	472
제20장 특허청	478
제21장 기상청	482
제22장 병무청	484
제23장 산림청	486
제24장 농촌진흥청	488

목 차

Contents

4부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원활동

제1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93
제2장 기술보증기금	530
제3장 소심공인시장진흥공단	545
제4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90
제5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627
제6장 창업진흥원	640
제7장 한국벤처투자(주)	680
제8장 (사)중소기업유동센터	692
제9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704
제10장 (주)공명홍소핑	715
제11장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723
제12장 중소기업중앙회	733
제13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764
제14장 신용보증기금	778
제15장 금융감독원	786
제16장 대한상공회의소	789
제17장 중소기업은행	797
제18장 한국수출입은행	815
제19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21
제20장 한국무역보험공사	852
제21장 한국무역협회	861
제22장 한국생산성본부	888
제23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96
제24장 산업연구원	908
제25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919
제26장 한국디자인진흥원	934
제27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941
제28장 중소기업융합중앙회	973
제29장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988
제30장 한국인터넷진흥원	1006

표목차

Contents

표 1-1-1-1	연도별 중소기업 추이	3
표 1-1-1-2	주요국의 중소기업 현황(2018년 기준)	4
표 1-1-1-3	기업규모별 기업수 및 종사자 현황	4
표 1-1-1-4	지역별 중소기업 현황 추이	5
표 1-1-1-5	2018년 기준 소상공인 기업수 및 종사자수 현황	5
표 1-1-1-6	지역별 소상공인의 기업수 현황	6
표 1-1-1-7	업종별 소상공인 기업수 및 종사자수 현황	6
표 1-1-1-8	자영업자수 변동 현황	6
표 1-1-1-9	중소기업 종사자수 추이	7
표 1-1-1-10	제조업 부가가치 증감 및 기여율	7
표 1-1-1-11	제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제발전 기여율	8
표 2-1-1	연도별 중소제조업 생산 추이	9
표 2-1-2	2020년 월별 중소제조업 생산 추이	9
표 2-1-3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10
표 2-1-4	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지수 증감 추이	10
표 2-1-5	중소제조업 임금 및 근로시간 현황 추이(5~299인)	10
표 2-1-6	중소기업 취업자 및 고용률, 실업률 현황	11
표 2-1-7	원자재 구매액 및 원산지별 구매액 구성비	11
표 2-1-8	원자재 구매대금 지급상황	12
표 2-1-9	원자재 구매대금의 어음 지급기일	12
표 2-1-10	판매형태별 제품판매액 구성비	13
표 2-1-11	제품판매대금 결제상황	13
표 2-1-12	제품판매대금의 어음 수취기일	14
표 2-1-13	성장성 지표	14
표 2-1-14	수익성 지표	15
표 2-1-15	안정성 지표	16
표 2-1-16	생산성 지표	16
표 2-1-17	소상공인 경기동향 BSI(Business Survey Index)	17
표 2-1-18	전통시장 경기동향 BSI(Business Survey Index)	17
표 2-1-19	신설법인수(전국 기준)	18
표 2-1-20	창업기업수(전국 기준)	18
표 2-1-21	연도별 중소기업 수출 현황	19
표 2-1-22	기업 규모별 수출 현황	19

표목차

Contents

표 -2-1-23 중소기업 수출 상위 10개국	20
표 -2-1-24 중소기업 수출 상위 10대 품목	20
표 -2-1-25 기업 대출전액 현황	21
표 -2-1-26 기업대출 연체율 현황	21
표 -2-1-27 중소기업 인력부족률 추이	22
표 -2-1-28 중소기업의 직종별 인력부족률(2019년)	22
표 -2-1-29 중소기업의 기업규모별 인력부족률 추이	22
표 -2-1-30 R&D 수행 중소기업체 추이('15 : 5인 이상, '16~'19 : 5억원 초과)	23
표 -2-1-31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및 소속 연구원 수	23
표 -2-1-32 중소기업의 R&D 투자 규모 추이	24
표 -2-1-33 세계 최고수준 대비 기술능력 수준	24
표 II -1-1-1 연도별 신설법인수	27
표 II -1-1-2 업종별 신설법인수	27
표 II -1-1-3 연형별 신설법인수	28
표 II -1-1-4 성별 신설법인수	28
표 II -1-1-5 창업예비 성과현황	29
표 II -1-1-6 실전창업교육 교육생 현황	30
표 II -1-1-7 비즈콜 운영실적	31
표 II -1-1-8 대학기업가센터 연도별 지원성과	31
표 II -1-1-9 도전 K-스타트업 주요 추진 성과	33
표 II -1-1-10 2020년 지원대상 선정결과	34
표 II -1-1-11 2021년 로컬크리에이터 선정 현황	35
표 II -1-1-12 청년창업사관학교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개요	38
표 II -1-1-13 청년 CEO 양성 규모	38
표 II -1-1-14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성과	39
표 II -1-1-15 운영사 및 보육공간 현황	42
표 II -1-1-15 국내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 성과	49
표 II -1-1-17 해외 유망 창업기업 국내유치 지원성과	50
표 II -1-1-18 예비창업패키지 주요실적 및 성과	51
표 II -1-1-19 초기창업 패키지 주관기관 현황 (40개)	52
표 II -1-1-20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지원성과 (추경 포함)	52
표 II -1-1-21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지원성과(사업화 기준)	53
표 II -1-1-22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지원 체계도	53
표 II -1-1-23 2020년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현황	54

표목차

Contents

표II-1-1-24	2020년 새내벤처 운영기업 및 새내벤처팀(기업) 현황	55
표II-1-1-25	2020년 새내벤처 선정 운영기업 현황	56
표II-1-1-26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구축 전후의 법인설립 절차 및 기간 비교	58
표II-1-1-27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이용현황	59
표II-1-1-28	최근 5년간 창업보육센터 사업 운영현황	59
표II-1-1-29	창업보육센터 주체별 지정 현황	60
표II-1-1-30	창업보육센터 지역별 지정 현황	60
표II-1-1-31	창업보육센터 보육공간 확충 및 환경개선 지원 현황	60
표II-1-1-32	창업보육센터 운영성과	61
표II-1-1-33	지식산업센터 운영현황(2020.6)	62
표II-1-1-34	건립중인 지식산업센터 현황	62
표II-1-1-35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주요기능	65
표II-1-1-36	창조경제혁신센터 주요 성과(20.12월말 누적)	66
표II-1-1-37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현황(18~20년 누적)	67
표II-1-1-38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주요성과(2020)	70
표II-1-1-39	2020년 1인 창조기업 자원센터 지역별 운영 현황	71
표II-1-1-40	1인 창조기업 자원센터 주요 지원 내용	71
표II-1-1-41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요 지원 내용	72
표II-1-1-42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실적	72
표II-1-2-1	유형별 벤처기업수(2020년)	74
표II-1-2-2	연도별 벤처전역기업 현황	75
표II-1-2-3	연도별 신규 벤처캐피탈투자(VC) 규모	78
표II-1-2-4	연도별 신규 벤처투자조합 결성 현황(20년말 기준)	79
표II-1-2-5	모태조합 조성 현황	80
표II-1-2-6	모태조합 자조합 결성 및 투자 현황(20년 말 기준)	80
표II-1-2-7	엔젤투자 소득공제 현황	81
표II-1-2-8	연도별 창업기획자 투자현황	83
표II-1-2-9	엔젤투자 실적(신규)	83
표II-1-2-10	벤처투자 회수 규모(2019년)	84
표II-1-2-11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주요내용	85
표II-1-3-1	2020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 결과(21.5)	87
표II-1-3-2	재창업 애로사항(21.4, 창업진흥원)	88
표II-1-3-3	'18~'20년 재창업기업 참여자 설문조사(21.4, 창업진흥원)	88
표II-1-3-4	재창업자금 지원제도 개요	89

표목차

Contents

표II-1-3-5 재창업자금 연도별 지원 실적	89
표II-1-3-6 사업전환의 유형	92
표II-1-3-7 사업전환 지원 추진실적	92
표II-1-3-8 연대보증 면제제도 도입 경과	94
표II-1-3-9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면제제도 활용 실적	95
표II-1-3-10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내용	96
표II-2-1-1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상용근로자 임금수준	98
표II-2-1-2 채용지원사업 경쟁률 현황	102
표II-2-1-3 중소기업 정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절차	103
표II-2-1-4 연도별 추천실적	104
표II-2-1-5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지원 현황	105
표II-2-1-6 중소기업특성화고 맞춤형 취업을	106
표II-2-1-7 기술사관 육성사업 추진현황	107
표II-2-1-8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 사업 추진 현황	108
표II-2-1-9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현황	109
표II-2-1-10 국립공고(마이스터고) 일반현황	109
표II-2-1-11 국립공고(마이스터고) 육성 예산	110
표II-2-1-12 국립공고(마이스터고) 취업을	110
표II-3-1-1 R&D 수행 중소기업제조업체 추이('16부터 종사자수에서 매출액기준으로 변경)	114
표II-3-1-2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및 소속 연구원 수	114
표II-3-1-3 중소기업의 R&D 투자 규모 추이	115
표II-3-1-4 세계 최고수준 대비 기술능력 수준	115
표II-3-1-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지정 현황	116
표II-3-1-6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실적	116
표II-3-1-7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지정 현황	117
표II-3-1-8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실적	118
표II-3-1-9 연도별 중소기업 R&D 기획지원 추진실적	120
표II-3-1-10 연도별 R&D기획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추진실적	121
표II-3-1-11 2020년 공학컨설팅센터별 지원실적	122
표II-3-1-12 2020년 지역별 지원실적	123
표II-3-1-13 기술혁신개발 지원실적	124
표II-3-1-14 연도별 창업성장기술개발 지원 현황	125
표II-3-1-15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 현황	125
표II-3-1-16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 업종별 현황	127

표목차

Contents

표II-3-1-17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129
표II-3-1-18	연도별 전략협력사업 추진실적	130
표II-3-1-19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131
표II-3-1-20	2020년 산학연collabo R&D 사업 지원 실적	132
표II-3-1-21	2020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지원실적	133
표II-3-1-22	연구기관활용사업 실적 현황(2020년)	133
표II-3-1-23	지원 조건	134
표II-3-1-24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추진 경과	134
표II-3-1-25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실적	135
표II-3-1-26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조성 현황(누계)	135
표II-3-1-27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조성업체(2020년)	136
표II-3-1-28	지원 조건	137
표II-3-1-29	2020년 기술규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138
표II-3-1-30	2020년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139
표II-3-1-31	운영기관별 참여기업 신청 및 선정 현황	140
표II-3-1-32	중소기업 기술역량분석 추진실적	140
표II-3-1-33	연도별 중소기업 맞춤형 R&D 자원 추진실적	140
표II-3-1-34	2020년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지원실적	141
표II-3-1-35	2020년 기술자주회사 차회사 R&B지원사업 지원실적	142
표II-3-1-36	지원 조건	143
표II-3-1-37	2020년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144
표II-3-1-38	2020년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상용화지원기관 지원실적	144
표II-3-1-39	지원 조건	145
표II-3-1-40	2020년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145
표II-3-1-41	지원 조건	146
표II-3-1-42	2020년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146
표II-3-1-43	지원 조건	147
표II-3-1-44	2019-2020년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147
표II-3-1-45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현황	148
표II-3-1-46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149
표II-3-1-47	세계 산업용 인공지능 상위 11개 기술 및 지원계획	149
표II-3-1-48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100개사) 지역별 분포 현황	150
표II-3-1-49	사업종류별 '20년 강소기업 지원 현황 (54개사)	151
표II-3-1-50	민간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현황	154

표목차

Contents

표II-3-1-51 정부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실적(중소벤처기업부)	154
표II-3-1-52 스마트공장 지원 성과('14~'18년 7,903개 지원기업 대상)	155
표II-3-1-53 2020년 인공지능 제조 컨설팅 및 실증 연계 지원과제 현황	157
표II-3-1-54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예산 현황	158
표II-3-1-55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R&D 지원예산 현황	159
표II-3-1-56 KOSBIR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 추이	160
표II-3-1-57 KOSBIR 시행기관별 중소기업 R&D 지원 현황	160
표II-3-1-58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추진경과	163
표II-3-1-59 기술로드맵 전략기술 도출현황	163
표II-3-1-60 뿌리산업 관련 추진경과	164
표II-3-1-61 자동화 첨단화 지원사업 지원성과	165
표II-3-1-62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사업 추진실적('20.12월말 기준)	172
표II-3-1-63 중소기업 분야별 정보화 수준(100점 기준, 2020년)	173
표II-3-1-64 연도별 정보화 수준(100점 기준)	173
표II-3-1-65 연도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실적	174
표II-3-2-1 중소기업 대출잔액 및 대출금리(한국은행, 2019년)	175
표II-3-2-2 2019 기업 규모별 자금조달 현황(금융감독원)	176
표II-3-2-3 2019 중소기업 경기변동 실적 SBHI(Small Business Health Index) (중기중앙회)	176
표II-3-2-4 연도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실적	177
표II-3-2-5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 및 조건(2020년)	180
표II-3-2-6 연도별 기관별 보증 지원실적	182
표II-3-2-7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 현황	182
표II-3-2-8 연도별 보증 사고율 등 추이	183
표II-3-2-9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중점분야 지원실적	184
표II-3-2-10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운용 현황	185
표II-3-3-1 연도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187
표II-3-3-2 연도별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현황	187
표II-3-3-3 연도별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188
표II-3-3-4 연도별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188
표II-3-3-5 공공구매제도 도입 경과	190
표II-3-3-6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추진경과	191
표II-3-3-7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192
표II-3-3-8 2021년도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구매계획	192

표목차

Contents

표II-3-3-9 연도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수	193
표II-3-3-10 중기간 경쟁제품의 득과점 현황	193
표II-3-3-11 연도별 직격조합 현황	194
표II-3-3-12 연도별 직접생산 확인 현황	195
표II-3-3-13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현황	196
표II-3-3-14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추진 경과	198
표II-3-3-15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현황	199
표II-3-3-16 성능인증 발급 현황	199
표II-3-3-17 성능보험 계약 현황	199
표II-3-3-18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 현황	200
표II-3-3-19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이용자 현황	202
표II-3-3-20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202
표II-3-3-21 연도별 공공구매제도 이행 모니터링 결과	203
표II-3-3-22 온라인 시장진출 실적(20.12월기준)	205
표II-3-3-23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아일소핑) 운영현황(20.12월기준)	206
표II-3-3-24 중소기업 공동A/S지원 추진경과	207
표II-3-3-25 중소기업 공동A/S 지원실적	208
표II-3-3-26 공영출소핑 판로지원 실적	209
표II-3-3-27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분야	210
표II-3-4-1 2020년 수출바우처사업 개편현황	216
표II-3-4-2 수출성장단계별 지원성과	217
표II-3-4-3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현황	218
표II-3-4-4 수출컨소시엄 파견실적	219
표II-3-4-5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실적	220
표II-3-4-6 온라인쇼핑몰 판매실적 현황	221
표II-3-4-7 자사몰 판매실적 현황	222
표II-3-4-8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현황	223
표II-3-4-9 수출지원센터 인력 현황('19.12)	224
표II-3-4-10 수출지원센터 운영 실적	225
표II-3-4-11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현황	226
표II-3-4-12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설치 현황	227
표II-3-4-13 수출인큐베이터 수출실적	228
표II-4-1-1 <자상한 기업 협약체결 현황(2020.12월말 기준)>	241
표II-4-1-2 성과공유제 시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243

표목차

Contents

표II-4-1-3 상생협력기금 조성현황	244
표II-4-1-4 상생결제제도 운용현황	245
표II-4-1-5 상생결제제도 기업 규모별 실적현황	245
표II-4-1-6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 결과	247
표II-4-1-7 2020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결과	249
표II-4-1-8 수·위탁거래 실태조사결과 범행위반기업 현황	250
표II-4-1-9 위탁기업의 납품기업에 대한 대금결제 비중	251
표II-4-1-10 연도별 아음 납품대금 평균 결제기일	252
표II-4-1-11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현황(2005~2020)	253
표II-4-1-12 사업조정 처리 현황(09.1.~20.12.)	257
표II-4-1-13 연도별 사업조정 처리현황(신청일 기준)	258
표II-4-2-1 중소기업 한마음대회 현황	261
표II-4-2-2 중소기업 융합대전 현황	261
표II-4-2-3 기업지원 사업내용 및 '19년 실적	262
표II-4-2-4 협력 R&D 연계지원 실적	263
표II-4-2-5 교류 프로그램 운영실적	263
표II-4-2-6 여성기업 현황	264
표II-4-2-7 여성기업 주요 업종별 현황(2018년)	264
표II-4-2-8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265
표II-4-2-9 연도별 여성기업 확인현황	265
표II-4-2-10 여성기업 R&D, 정책자금, 보증 지원 현황	267
표II-4-2-11 연도별 장애인 현황	267
표II-4-2-12 장애인 경제활동 동향	268
표II-4-2-13 장애인기업 업종별 분포	268
표II-4-2-14 장애인 고용률 현황('20년 말 기준)	269
표II-4-2-15 연도별 장애인 창업지원 현황	270
표II-4-2-16 창업점포지원 사업수혜업체와 일반사업체 비교	271
표II-4-2-17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개요	271
표II-4-2-18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센터 현황	272
표II-4-2-19 연도별 장애인기업 확인현황	273
표II-4-2-20 연도별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액 현황	273
표II-4-2-21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추진 프로세스	274
표II-4-3-1 지역별 지역내 총생산(GRDP, 명목)	275
표II-4-3-2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276

표목차

Contents

표II-4-3-3 지역별 실업률	277
표II-4-3-4 지역별 중소기업 사업체수	278
표II-4-3-5 지역별 중소기업 종사자수	279
표II-4-3-6 지역별 신설법인 수	280
표II-4-3-7 지역별 벤처기업 수	281
표II-4-3-8 지역별 중소기업 매출액	282
표II-4-3-9 지역별 중소기업 수출액	283
표II-4-3-10 지역산업육성정책 추이	290
표II-4-3-11 지역주력산업현황	291
표II-4-3-12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내역사업별 추진내용	292
표II-4-3-13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성과현황	292
표II-4-3-14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내역사업별 추진내용	294
표II-4-3-15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성과현황	294
표II-4-3-16 지역특화산업육성+(R&D)사업 순산규고용효과	295
표II-4-3-17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지역간 비교	296
표II-4-3-18 14개 시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현황	297
표II-4-3-19 지역특구 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	298
표II-4-3-20 연도별 지역특구 지정현황	299
표II-4-3-21 지역별 지역특구 지정현황	299
표II-4-3-22 '20년 지원기업 수행 프로그램	302
표II-4-3-23 '20년 사업성과	302
표II-5-1-1 연도별 소상공인 추이	303
표II-5-1-2 2019년 업종별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304
표II-5-1-3 주요국의 소상공인 현황	304
표II-5-1-4 지역별 소상공인 사업체수·종사자수 현황	305
표II-5-1-5 자영업자수 변동 현황	305
표II-5-1-6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사회복지분야 공익채널 선정결과	308
표II-5-1-7 2020년 방송 플랫폼별 소상공인방송 송출 현황	309
표II-5-1-8 2020년 송출사별 소상공인방송 송출 현황	309
표II-5-1-9 2020년 소상공인방송 신규 제작 프로그램	310
표II-5-1-10 2020년 영상 카드뉴스 주요 이미지	311
표II-5-1-11 소상공인방송 VOD 이용 현황(유튜브, 네이버TV)	311
표II-5-1-12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실적 추이	312
표II-5-1-13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추이(온라인조사)	312

표목차

Contents

표Ⅱ-5-1-14	종합정보시스템 이용실적 추이	313
표Ⅱ-5-1-15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전국 체험점포 현황(20.12월 기준)	315
표Ⅱ-5-1-16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실적	317
표Ⅱ-5-1-17	총 보증공급 대비 소상공인 보증현황	317
표Ⅱ-5-1-18	업종별 보증공급 현황	318
표Ⅱ-5-1-19	금액별 보증공급현황	318
표Ⅱ-5-1-20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예산 및 실적	329
표Ⅱ-5-1-21	연도별 소상공인협동조합 사업추진현황	330
표Ⅱ-5-1-22	지역별 소상공인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현황(2020년도 12월말 기준)	330
표Ⅱ-5-1-23	연도별 나들가게 지원 실적	332
표Ⅱ-5-1-24	나들가게 선도지역 선정현황	332
표Ⅱ-5-1-25	수준평가 연계지원 내용	334
표Ⅱ-5-1-26	시도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현황(2020.12)	335
표Ⅱ-5-1-27	건립중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현황	335
표Ⅱ-5-1-28	시도별 백년가게 선정현황(2019.12)	336
표Ⅱ-5-1-29	전국 백년가게 지정정보(2020.12)	336
표Ⅱ-5-1-30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내역(2020.12월말 기준, 중복제외)	348
표Ⅱ-5-1-31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현황(2020.12월말 기준)	348
표Ⅱ-5-1-32	공동기반시설 연계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현황(2020.12월말 기준)	350
표Ⅱ-5-1-33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지원 현황(2020.12월말 기준)	351
표Ⅱ-5-1-34	연도별 시장수-점포수-상인수 비교	352
표Ⅱ-5-1-35	전국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2019년)	353
표Ⅱ-5-1-36	연도별 지원실적	354
표Ⅱ-5-1-37	연도별 지원실적	355
표Ⅱ-5-1-38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중점지원사항 변경내역	355
표Ⅱ-5-1-39	연도별 지원실적	356
표Ⅱ-5-1-40	청년몰 조성 연도별 지원실적	358
표Ⅱ-5-1-41	청년몰 활성화 확장 연도별 지원실적	359
표Ⅱ-5-1-42	청년상인 도약지원 연도별 지원실적	359
표Ⅱ-5-1-43	전통시장 화재안전 점검현황	359
표Ⅱ-5-1-44	전통시장 화재일람시설 설치 유형별 지원내역 및 한도	360
표Ⅱ-5-1-45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예시(1년 주계약 기준)	360
표Ⅱ-5-1-46	2020년도 은누리상품권 주제별 구매비율	361
표Ⅱ-5-1-47	상권활성화 지원 현황(2016년)	365

포목차

Contents

표 II-5-1-48 상권르네상스(상권활성화 사업) 지원 현황(2020년)	366
표 II-6-1-1 연도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실적	369
표 II-6-1-2 최근 3년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대표사례	370
표 II-6-1-3 중소기업정책정보전달시스템(기업마당) 정보제공 현황	375
표 II-6-1-4 1357 중소기업 콜센터 상담 현황	377
표 II-6-1-5 비즈니스지원단 현황('20)	378
표 II-6-1-6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실적	378
표 II-6-1-7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라닉 실적	379
표 II-6-1-8 규제애로 분야별 발굴 현황	381
표 II-6-1-9 규제애로 유형별 처리 현황	381
표 III-7-1-1 2019년도 실용화 성과	428
표 IV-1-1-1 창업기업지원자금 집행실적(2020년)	495
표 IV-1-1-2 신성장기반자금 지원실적(2020년)	496
표 IV-1-1-3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2020년)	496
표 IV-1-1-4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지원실적(2020년)	497
표 IV-1-1-5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지원실적(2020)	498
표 IV-1-1-6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지원실적(2020년)	498
표 IV-1-1-7 재도약지원자금 지원실적(2020년)	499
표 IV-1-1-8 재기자원 상담실적(2020년)	499
표 IV-1-1-9 수출바우처사업 수출 성과(2020년)	501
표 IV-1-1-10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상담 및 수출계약 실적(2020년)	502
표 IV-1-1-11 청년글로벌마케터사업 지원실적(2020년)	502
표 IV-1-1-12 수출인큐베이터 설치지역 및 입주규모(2020년)	503
표 IV-1-1-13 코리아스타트업센터 개소현황(2020년)	504
표 IV-1-1-14 해외협력기반 실적(2020년)	504
표 IV-1-1-15 해외지사화사업 지원실적(2020년)	505
표 IV-1-1-16 해외기술교류단 운영실적(2020년)	506
표 IV-1-1-17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 지원실적(2020년)	508
표 IV-1-1-18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지원 사례(2020년)	509
표 IV-1-1-19 중진공 인력양성사업 분야(2020년)	510
표 IV-1-1-20 중소벤처기업 인력지원 체계도	511
표 IV-1-1-20 사업별 주요 추진실적(2020년)	511
표 IV-1-1-22 중소벤처기업 구인수요 발굴 및 취업매칭 실적(2020년)	514
표 IV-1-1-23 공제가입실적(2020년)	515

표목차

Contents

표Ⅳ-1-1-24	공기업-지자체와 내일재용공제 간 연계 협업 실적(2020년, 누적)	516
표Ⅳ-1-1-25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체계(2020년)	518
표Ⅳ-1-1-26	중소기업 혁신비우치 세부지원 프로그램(2020년)	519
표Ⅳ-1-1-27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 지원현황(2020년)	521
표Ⅳ-1-1-28	진로제사안선택팅 처방 현황(2020년)	521
표Ⅳ-1-1-29	화생컨설팅 지원실적(2013~2020년)	522
표Ⅳ-1-1-30	정책중계 추진절차	523
표Ⅳ-1-1-31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분야 주요 개선사례	523
표Ⅳ-2-1-1	연도별 보증지원 실적	531
표Ⅳ-2-1-2	TECH 벨리 보증지원 현황	534
표Ⅳ-2-1-3	굿잡(Good-Job)보증 신규보증 지원현황	535
표Ⅳ-2-1-4	기술평가의 범위	536
표Ⅳ-2-1-5	기술평가의 종류	536
표Ⅳ-2-1-6	기술평가 운용 조직체계	536
표Ⅳ-2-1-7	기술평가 인력현황	537
표Ⅳ-2-1-8	지식재산(IP) 관련 보증지원 실적	538
표Ⅳ-2-1-9	R&D 보증공급 실적	539
표Ⅳ-2-1-10	녹색인증 신규평가건수	540
표Ⅳ-2-1-11	기술거래 및 IP인수보증 실적	540
표Ⅳ-2-1-12	기술보호 시스템	541
표Ⅳ-2-1-13	지식재산공제제도 가입현황	542
표Ⅳ-2-1-14	보증연계투자 주요내용	542
표Ⅳ-2-1-15	보증연계투자 투자실적 및 투자수익	543
표Ⅳ-2-1-16	주요 투자연계보증 개요	543
표Ⅳ-2-1-17	기보벤처창업교실 추진현황	544
표Ⅳ-3-1-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전국 체험경로 현황('20.12월 기준)	547
표Ⅳ-3-1-2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실적 추이	549
표Ⅳ-3-1-3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추이(온라인조사)	550
표Ⅳ-3-1-4	소상공인컨설팅 제도 도입 경과	551
표Ⅳ-3-1-5	연도별 자원예산 및 실적	552
표Ⅳ-3-1-6	연도별 지원성과	552
표Ⅳ-3-1-7	연도별 자원예산 및 실적	553
표Ⅳ-3-1-8	지역별 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인프라 구축 지원현황	554
표Ⅳ-3-1-9	연도별 나들가게 자원실적	556

표목차

Contents

표Ⅳ-3-1-10 연도별 지역별 나들가게 전환 지원실적	556
표Ⅳ-3-1-11 연도별 중소기업 협업화 지원실적	557
표Ⅳ-3-1-12 사업 지원내용	561
표Ⅳ-3-1-13 연도별 지원실적	562
표Ⅳ-3-1-14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563
표Ⅳ-3-1-15 2015년~2017년 구축 공동인프라 현황(10개소)	564
표Ⅳ-3-1-16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현황(30곳)	565
표Ⅳ-3-1-17 연도별 지원실적	570
표Ⅳ-3-1-18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571
표Ⅳ-3-1-19 전통시장 실태조사 연도별 일반 현황	572
표Ⅳ-3-1-20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평가	572
표Ⅳ-3-1-21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573
표Ⅳ-3-1-22 유형별 지원내역 및 한도	576
표Ⅳ-3-1-23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환 예시(1년 주계약 기준)	577
표Ⅳ-3-1-24 청년몰 조성 연도별 지원실적	578
표Ⅳ-3-1-25 청년몰 활성화·확장 연도별 지원실적	578
표Ⅳ-3-1-26 청년상인 창업지원 연도별 지원실적	579
표Ⅳ-3-1-27 청년상인 도약지원 연도별 지원실적	579
표Ⅳ-3-1-28 연도별 지원실적	580
표Ⅳ-3-1-29 연도별 지원실적	581
표Ⅳ-3-1-30 연도별 지원실적	582
표Ⅳ-3-1-31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중점지원사항 변경내역	582
표Ⅳ-3-1-32 연도별 지원실적	583
표Ⅳ-3-1-33 종합정보시스템 이용실적 추이	584
표Ⅳ-3-1-34 그간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표본수 변화	586
표Ⅳ-3-1-35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 추이	586
표Ⅳ-3-1-36 연도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실적	588
표Ⅳ-3-1-37 2020년 성장기반자금 집행실적	588
표Ⅳ-3-1-38 2020년 경영안정자금 집행실적	589
표Ⅳ-4-1-1 연도별 중소기업 R&D 기획지원 추진실적	592
표Ⅳ-4-1-2 연도별 R&D기획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추진실적	593
표Ⅳ-4-1-3 2020년 공학컨설팅센터별 지원실적	594
표Ⅳ-4-1-4 2020년 지역별 지원실적	595
표Ⅳ-4-1-5 기술혁신개발 지원실적	596

표목차

Contents

표IV-4-1-6 연도별 창업성장기술개발 지원 현황	597
표IV-4-1-7 공작품질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599
표IV-4-1-8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600
표IV-4-1-9 연도별 전략협력사업 추진실적	601
표IV-4-1-10 2020년 산학인collabo R&D 사업 지원 실적	602
표IV-4-1-11 2020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지원실적	602
표IV-4-1-12 연구기변활용사업 실적 현황(2020년)	603
표IV-4-1-13 지원 조건	604
표IV-4-1-14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추진 경과	604
표IV-4-1-15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실적	605
표IV-4-1-16 인·관광동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조성 현황(누계)	605
표IV-4-1-17 인·관광동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조성업체(2020년)	606
표IV-4-1-18 지원 조건	607
표IV-4-1-19 2020년 기술규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608
표IV-4-1-20 연도별 예비과제형 기술개발사업 지원 현황	609
표IV-4-1-21 2020년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610
표IV-4-1-22 운영기관별 참여기업 신청 및 선정 현황	611
표IV-4-1-23 중소기업 기술역량분석 추진실적	611
표IV-4-1-24 연도별 중소기업 맞춤형 R&D 지원 추진실적	612
표IV-4-1-25 2020년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지원실적	613
표IV-4-1-26 지원 조건	615
표IV-4-1-27 2020년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615
표IV-4-1-28 지원 조건	617
표IV-4-1-29 2020년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617
표IV-4-1-30 지원 조건	618
표IV-4-1-31 2019-2020년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618
표IV-4-1-32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현황	619
표IV-4-1-33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620
표IV-4-1-34 세계 산업용 인공지능 상위 11개 기술 및 지원계획	620
표IV-4-1-35 민간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현황	621
표IV-4-1-36 정부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실적(중소벤처기업부)	621
표IV-4-1-37 스마트공장 지원 성과('14-'18년 7,903개 지원기업 대상)	622
표IV-4-1-38 2020년 인공지능 제조 컨설팅 및 실증 연계 지원과제 현황	624
표IV-4-1-39 중소기업 분야별 정보화 수준(100점 기준, 2020년)	625

표목차

Contents

표Ⅳ-4-1-40 연도별 정보화 수준(100점 기준)	625
표Ⅳ-4-1-41 연도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실적	626
표Ⅳ-5-1-1 연도별 총 보증공급 대비 소상공인보증 현황	628
표Ⅳ-5-1-2 업종별 보증공급 현황	629
표Ⅳ-5-1-3 금액별 보증공급 현황	629
표Ⅳ-5-1-4 기업규모별 보증공급 금액	629
표Ⅳ-5-1-5 지역재단의 지정 수 현황(20.12월 기준)	638
표Ⅳ-5-1-6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638
표Ⅳ-5-1-7 신용보증재단 운영 현황	639
표Ⅳ-6-1-1 비즈쿨 운영실적	641
표Ⅳ-6-1-2 대학기업가센터 연도별 지원성과	642
표Ⅳ-6-1-3 실전창업교육 교육생 현황	642
표Ⅳ-6-1-4 창업에듀 성과현황	643
표Ⅳ-6-1-5 창업에듀 강좌 구성(예시)	643
표Ⅳ-6-1-6 도컨 K-스타트업 주요 추진 성과	645
표Ⅳ-6-1-7 행사 참가규모(최근 3년)	646
표Ⅳ-6-1-8 비대면 청년창업 콘테스트 추진 성과	647
표Ⅳ-6-1-9 창업조사 연구 연도별 운영실적	647
표Ⅳ-6-1-10 최근 3년간 K-스타트업 이용실적	648
표Ⅳ-6-1-11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구축 전후의 법인설립 절차 및 기간 비교	649
표Ⅳ-6-1-12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이용현황	649
표Ⅳ-6-1-13 2020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 선정절차	650
표Ⅳ-6-1-14 예비창업패키지 단계별 창업교육 내용	651
표Ⅳ-6-1-15 예비창업패키지 주관기관 지정현황(20년 기준)	652
표Ⅳ-6-1-16 초기창업 패키지 주관기관 현황 (40개)	653
표Ⅳ-6-1-17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지원성과 (주경 포함)	653
표Ⅳ-6-1-18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지원성과	654
표Ⅳ-6-1-19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지원 체계도	654
표Ⅳ-6-1-20 국내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 성과	655
표Ⅳ-6-1-21 그린뉴딜 유망기업 지원성과	656
표Ⅳ-6-1-22 20년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현황	657
표Ⅳ-6-1-23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 사업 구조(TIPS)	657
표Ⅳ-6-1-24 운영사 및 보육공간 현황	659
표Ⅳ-6-1-25 대전 TIPS타운 조성 개요	665

표목차

Contents

표Ⅳ-6-1-26	2020년 사내벤처 운영기업 및 사내벤처팀(기업) 현황	666
표Ⅳ-6-1-27	2020년 사내벤처 선정 운영기업 현황	667
표Ⅳ-6-1-28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현황(18~20년, 누적)	669
표Ⅳ-6-1-29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주요성과(2020년)	672
표Ⅳ-6-1-30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현황	672
표Ⅳ-6-1-31	2020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역별 운영 현황	673
표Ⅳ-6-1-32	비즈니스센터 주요 지원 내용	673
표Ⅳ-6-1-33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요 지원 내용	674
표Ⅳ-6-1-34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요 지원 내용	674
표Ⅳ-6-1-35	판교 창업존 누적 지원실적	675
표Ⅳ-6-1-36	2020년 판교 창업존 보육프로그램 지원실적	675
표Ⅳ-6-1-37	스타트업 파크 조성지 현황	676
표Ⅳ-6-1-38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지	677
표Ⅳ-6-1-39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선정현황	678
표Ⅳ-6-1-40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분야	678
표Ⅳ-6-1-41	전국 화상회의실 선정현황	679
표Ⅳ-7-1-1	모태펀드 운용 체계	681
표Ⅳ-7-1-2	모태펀드 조성규모	681
표Ⅳ-7-1-3	전체 신규벤처펀드 조사업(결성규모)	683
표Ⅳ-7-1-4	모태펀드 출자 계정별 펀드 결성 현황	683
표Ⅳ-7-1-5	벤처캐피탈 시장현황	684
표Ⅳ-7-1-6	국내 유니콘 기업 수 현황(누적)	685
표Ⅳ-7-1-7	모태펀드 취약분야 지원 현황(결성일 기준)	686
표Ⅳ-7-1-8	해외VC 글로벌 펀드 조성 현황	688
표Ⅳ-7-1-9	엔젤투자매칭펀드 조성 현황	690
표Ⅳ-7-1-10	엔젤투자매칭펀드 투자 집행현황	690
표Ⅳ-7-1-11	엔젤투자자 및 전문엔젤 수 누적 현황(엔젤협회, 엔젤본부)	691
표Ⅳ-7-1-12	엔젤투자 현황(소득공제 기준)	691
표Ⅳ-8-1-1	백화점(목동판매장) 판매지원 현황	694
표Ⅳ-8-1-2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IM Shopping) 운영 현황 (2020년)	694
표Ⅳ-8-1-3	출소망사업 판매지원 현황	695
표Ⅳ-8-1-4	마케팅 판로지원사업별 주요 지원현황 (2020년)	697
표Ⅳ-8-1-5	공공구매지원제도 제도별 주요 지원현황 (2020년)	699
표Ⅳ-8-1-6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최근 5개년 운영 현황 (2020년)	699

표목차

Contents

표Ⅳ-8-1-7 공공구매촉진대회 유공자포상 현황 (2020. 11. 12)	700
표Ⅳ-8-1-8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카테고리별 세부지원사업 현황 (2020년)	700
표Ⅳ-8-1-9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별 주요 지원현황 (2020년, 중복포함)	703
표Ⅳ-9-1-1 2020년 정책연구 추진 현황	706
표Ⅳ-9-1-2 2020년 「중소기업 포커스」 발간 현황	707
표Ⅳ-9-1-3 2020년 「중소기업 정책연구」 주제 및 논문 구성 현황	708
표Ⅳ-9-1-4 2020년 학술세미나 및 정책토론회 수행 실적	711
표Ⅳ-9-1-5 통합관리시스템 정책정보 제공건수/페이지뷰 및 기업아담 활용 현황	712
표Ⅳ-10-1-1 공영소품 채널의 판매지원 현황	716
표Ⅳ-10-1-2 창의혁신 제품 판매지원 현황	717
표Ⅳ-10-1-3 판매지원 중인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창의혁신 상품물	717
표Ⅳ-10-1-4 우수상품 판매지원 육성 현황	718
표Ⅳ-10-1-5 온라인 채널의 판매지원 현황	718
표Ⅳ-10-1-6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현황	719
표Ⅳ-10-1-7 고정 판매방송 프로그램 운영 현황(20년 생방송 기준)	720
표Ⅳ-11-1-1 연도별 창업교육 수료생 수	724
표Ⅳ-11-1-2 '20년 혁신성장 선도사업 기술교육 현황	725
표Ⅳ-11-1-3 창업보육실 현황	728
표Ⅳ-11-1-4 장애인기업 등록절차	731
표Ⅳ-11-1-5 연도별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액 현황	732
표Ⅳ-11-1-6 등록 장애인기업 현황	732
표Ⅳ-12-1-1 중소기업협동조합 현황	734
표Ⅳ-12-1-2 중소기업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 지원 현황	736
표Ⅳ-12-1-3 산성장기투자금(협동화자금) 추천 현황	736
표Ⅳ-12-1-4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특징	737
표Ⅳ-12-1-5 단체표준 등록 및 인증현황(20년 12월말 기준)	738
표Ⅳ-12-1-6 산업위원회 현황	747
표Ⅳ-12-1-7 공제사업기금 조성내역	752
표Ⅳ-12-1-8 공제사업기금 대출 현황	753
표Ⅳ-12-1-9 연도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건수 및 부금조성 현황(누계기준)	754
표Ⅳ-12-1-10 중소기업보증공제 운영현황(2020.12.31, 누계기준)	755
표Ⅳ-12-1-11 연도별 손해공제 가입 현황	755
표Ⅳ-12-1-12 연도별 유효계약 보유 현황	756
표Ⅳ-12-1-13 중소기업인력개발원 교육운영 현황	757

표목차

Contents

표IV-12-1-14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계획	758
표IV-12-1-15 직접생산확인 주요연혁	759
표IV-12-1-16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현황	760
표IV-13-1-1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협력기금 조성 현황(2020년도 말 기준)	765
표IV-13-1-2 해외동반진출 지원 현황(2020년도 말 기준)	766
표IV-13-1-3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사업 참여 현황(2020년도 말 기준)	767
표IV-13-1-4 성과공유 확인제 현황(2020년도 말 기준)	768
표IV-13-1-5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조성현황	769
표IV-13-1-6 2020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사용용도별 출연규모	769
표IV-13-1-7 지원 범위별 프로그램 등록 현황(2020년도 말 기준)	770
표IV-13-1-8 지원 분야별 프로그램 등록 현황(2020년도 말 기준)	770
표IV-13-1-9 상생결재제도 운용현황(2020년도 말 기준)	771
표IV-13-1-10 부처별 정책 추진현황(2020년도 말 기준)	772
표IV-13-1-11 연도별 동반성장 주간 개최 현황(최근 5개년)	773
표IV-13-1-12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 실적(2020년도 말 기준)	773
표IV-13-1-13 업종별 지원 현황(2020년도 말 기준)	774
표IV-13-1-14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현황(2020년도 말 기준)	774
표IV-13-1-15 중소기업 기술보호 사업 지원현황(2020년도 말 기준)	775
표IV-13-1-16 2020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권고 현황(2020년도 말 기준)	776
표IV-13-1-17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고시 현황(2020년도 말 기준)	776
표IV-13-1-18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현황(2020년도 말 기준)	777
표IV-14-1-1 최근 3년간 신용보증 현황	779
표IV-14-1-2 신용보험 보험 인수 및 보험금지급 현황	784
표IV-14-1-3 산업기반(인프라)신용보증 현황	785
표IV-15-1-1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 현황	787
표IV-17-1-1 자금조달 현황	798
표IV-17-1-2 자금공급 실적	799
표IV-17-1-3 지원대상별 대출실적	799
표IV-17-1-4 자원별 대출실적	800
표IV-17-1-5 금융자금 대출실적	800
표IV-17-1-6 용도별 대출실적	801
표IV-17-1-7 산업별 대출실적	802
표IV-17-1-8 투자실적	803
표IV-17-1-9 시책별 중소기업자금 지원실적	804

포목차

Contents

표IV-17-1-10	온렌딩자금 지원실적	804
표IV-17-1-11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자금 지원실적	805
표IV-17-1-12	중소기업대출 잔액 및 점유비	805
표IV-17-1-13	일자리창출 사업 주요 실적	807
표IV-17-1-14	IK창공(創工) 육성기업 지원 현황	810
표IV-18-1-1	중소·중견기업 여신지원 규모	816
표IV-18-1-2	하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지원현황	817
표IV-18-1-3	해외 온렌딩 프로그램 지원현황	818
표IV-18-1-4	상생금융 프로그램 지원현황	818
표IV-19-1-1	지사화사업 연도별 주요실적	822
표IV-19-1-2	해외 공동물류센터 연도별 주요실적	823
표IV-19-1-3	buyKOREA.or.kr의 서비스 제공 내용	823
표IV-19-1-4	바이코리아 사이트 운영실적	824
표IV-19-1-5	해외 마케팅 추진성과	824
표IV-19-1-6	무역사절단 최근 추진성과	825
표IV-19-1-7	전시회 한국관 참가 현황	825
표IV-19-1-8	국내전시회 바이어 유치지원 사업 결과	826
표IV-19-1-9	해외시장조사서비스 지원 현황	826
표IV-19-1-10	해외비즈니스출장 사업 지원 현황	827
표IV-19-1-11	개별 방한 바이어 지원 현황	827
표IV-19-1-12	GP사업 계량 실적 현황	833
표IV-19-1-13	글로벌 역량진단(GCI테스트) 제공 건수	833
표IV-19-1-14	이동 KOTRA 서비스 제공 건수	834
표IV-19-1-15	온오프라인 무역투자상담 서비스 제공 건수	834
표IV-19-1-16	신규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참가 업체 지원현황	834
표IV-19-1-17	로드맵에 기반한 해외 마케팅 지원유형	835
표IV-19-1-18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원 유형	838
표IV-19-1-19	글로벌 M&A 지원사업 절차	839
표IV-19-1-20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운영 지역	841
표IV-19-1-21	교육과정 운영 현황(2020년 기준)	842
표IV-19-1-22	연도별 핵심 투자유치 프로젝트 관리 현황	844
표IV-19-1-23	연도별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 유형별 동향 (5개년)	845
표IV-19-1-24	투자종합상담실 종합행정지원서비스	846
표IV-19-1-25	IKP 인큐베이터 실적	846

표목차

Contents

표IV-19-1-26 글로벌 인재 유치지원 절차	848
표IV-19-1-27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	848
표IV-19-1-28 국내인력 해외취업 지원 절차	848
표IV-19-1-29 주요 사업내용 및 '20년 실적	850
표IV-19-1-30 2020년 KOTRA KSP 사업 주요국 수행내역	851
표IV-20-1-1 연도별 중소·중견기업 지원 현황	854
표IV-20-1-2 보험(중)료 지원 운영내역(서울시 및 무역협회)	855
표IV-20-1-3 환변동보험 지원실적 및 환차손 보험금 지급내역	858
표IV-22-1-1 생산성 향상 유공자 시상 현황	890
표IV-22-1-2 생산성 통계 발간 현황	891
표IV-22-1-3 생산성경쟁체제 보급 현황	891
표IV-22-1-4 컨설팅 지원 현황	894
표IV-22-1-5 교육 및 훈련실적	894
표IV-22-1-6 세미나 개최실적	895
표IV-22-1-7 정보기술자격인증 실적	895
표IV-23-1-1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900
표IV-23-1-2 한국생산기술연구원-파트너기업 운영 현황	901
표IV-23-1-3 맞춤형(기술지도/상담) 지원 실적	902
표IV-23-1-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R&D지원 사업 현황	902
표IV-23-1-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요기술 현황	903
표IV-23-1-6 공공연 연구인력 지원 실적	904
표IV-23-1-7 기업현장출장 지원 실적	905
표IV-23-1-8 중소기업 전용 연구시설 현황	905
표IV-23-1-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개방형 실험실 현황(47개)	905
표IV-23-1-10 개방형실험실 장비활용 실적	906
표IV-23-1-11 기술이전 실적	907
표IV-23-1-12 기술커뮤니티 운영 현황	907
표IV-25-1-1 KISTI 정보서비스 보유자원 현황	920
표IV-25-1-2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주요 제공 연구데이터	922
표IV-25-1-3 ScienceON 정보 제공 유형별 서비스 내용	924
표IV-25-1-4 NTIS 주요 제공 정보	926
표IV-25-1-5 지역별 패밀리기업 및 지식연구회 운영 현황	931
표IV-25-1-6 중소·중견기업 슈퍼컴퓨팅 M&S 기술지원사업 현황	932
표IV-26-1-1 연도별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실적	935

포목차

Contents

표IV-26-1-2	연도별 우수 디자인 전문회사 선정실적	936
표IV-26-1-3	연도별 전문회사 보유 현황 및 지원 과제 수	936
표IV-26-1-4	우수디자인상품 선정 현황	939
표IV-26-1-5	최근 5년간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출품 현황	940
표IV-27-1-1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개요	943
표IV-27-1-2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프로세스	944
표IV-27-1-3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역별 참가 현황(2021년도)	944
표IV-27-1-4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성과	944
표IV-27-1-5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개요	945
표IV-27-1-6	센터의 창업보육실 입주프로세스	946
표IV-27-1-7	보육실 입주여성기업 현황	947
표IV-27-1-8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성과	948
표IV-27-1-9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개요	948
표IV-27-1-10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성과	949
표IV-27-1-11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사업 개요	950
표IV-27-1-12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사업 개최 현황	951
표IV-27-1-13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사업 지역별 개최 내역	951
표IV-27-1-14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사업 성과	952
표IV-27-1-15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 개요	952
표IV-27-1-16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 성과	953
표IV-27-1-17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사업 개요	954
표IV-27-1-18	수출교육 개요	954
표IV-27-1-19	수출기업화 사업	954
표IV-27-1-20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개요	955
표IV-27-1-21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사업 주요성과	956
표IV-27-1-22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개요	956
표IV-27-1-23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성과	957
표IV-27-1-24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 개요	958
표IV-27-1-25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 성과	958
표IV-27-1-26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	959
표IV-27-1-27	TV홍소핑 입점지원 사업 개요	959
표IV-27-1-28	TV홍소핑 입점 지원 사업성과	961
표IV-27-1-29	인증브랜드 여운 운영 추진내용	961
표IV-27-1-30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 개요	963

표목차

Contents

표IV-27-1-31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 프로세스	963
표IV-27-1-32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성과	964
표IV-27-1-33	여성경제인 DESK 신청 및 상담 분야	964
표IV-27-1-34	연도별 여성경제인 DESK 상담실적	966
표IV-27-1-35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개요	966
표IV-27-1-36	2020여성기업 일자리허브 성과	968
표IV-27-1-37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지원사업 개요	969
표IV-27-1-38	여성기업 여성경제연구소 운영	971
표IV-27-1-39	여성경제연구소 실적	972
표IV-28-1-1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현황	974
표IV-28-1-2	중소기업 한마음대회 현황	974
표IV-28-1-3	중소기업 융합대전 현황	975
표IV-28-1-4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현황	977
표IV-28-1-5	기업지원 사업내용 및 '20년 실적	978
표IV-28-1-6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사전기획지원 현황	979
표IV-28-1-7	네트워크 기획지원 프로그램 구성	980
표IV-28-1-8	'20년도 기업지원 프로그램 실적	986
표IV-28-1-9	전국 화상회의실 구축현황	987
표IV-29-1-1	2020년 이노비즈기업 정밀실태조사 주요 결과	991
표IV-29-1-2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운영 실적('14년~'20년)	993
표IV-29-1-3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확산 사업의 지원 실적('17년~'20년)	994
표IV-29-1-4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 지원 실적('20년~'21년)	995
표IV-29-1-5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실적('16년~'20년)	996
표IV-29-1-6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 실적('18년~'19년)	997
표IV-29-1-7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실적('20년)	998
표IV-29-1-8	이노-마이스터 채용연계 실적(1기~9기)	998
표IV-29-1-9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실적('13년~'20년)	999
표IV-29-1-10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사업('17~'20년)	1000
표IV-29-1-11	IT-SW 우수 강소기업 청년일자리 창출사업('20년)	1001
표IV-29-1-12	융·복합기술교류촉진사업 실적 ('14년~'20년)	1002
표IV-29-1-13	해외전시회 이노비즈 공동관 지원 실적('19~'20년)	1004
표IV-29-1-14	해외전시회 이노비즈 공동관 지원 실적('20년)	1004
표IV-29-1-15	'20년 글로벌연수사업 운영현황	1005

그림목차

Contents

그림 1	2021년도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현황	37
그림 2	글로벌창업사관학교 3-Layers 패키지방식 창업지원체계	39
그림 3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 사업 구조(TIPS)	40
그림 4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전담기업 및 특화기능 현황	64
그림 5	연도별 벤처기업 주이(단위 : 개)	73
그림 6	미국의 벤처투자 성공사례 : 페이스북	78
그림 7	내일채움공제	100
그림 8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사업 추진체계	111
그림 9	중소기업 기술보조 역량점수(중소벤처기업부, 2020)	167
그림 10	2015~2019년 중소기업 수출 현황	212
그림 11	2020년 중소기업 수출 10대 국가 현황	213
그림 12	2020년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 현황	213
그림 13	동반성장지수 기본 구조	246
그림 14	동반성장지수 인센티브	248
그림 15	중양회의 구성 및 현황(2020년)	260
그림 16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추진체계	291
그림 17	지역특화산업육성+(R&D)사업내용	295
그림 18	소상공인실태조사(2019년) 주요 결과	307
그림 19	상권정보시스템 주요서비스	312
그림 20	소상공인마당 로그인 및 회원가입 화면	314
그림 21	지원 내용	323
그림 22	공통사업 우수사례	331
그림 23	판로지원 우수사례	331
그림 24	유통형태별 매출 주이	353
그림 25	지역선도시장 2020년 우수사례	354
그림 26	문화관광형시장 2020년 우수사례	355
그림 27	특성화첫걸음시장 2020년 우수사례	356
그림 28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예시	365
그림 29	기업마당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 화면	375
그림 30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중소기업종합상담)	376
그림 31	One Call 통합 상담 서비스	377
그림 32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우수사례(성남식품제조센터)	563
그림 33	창업교육 프로세스	724

그림목차

Contents

그림 34	창업멘토링 프로세스	725
그림 35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프로세스	726
그림 36	모의크라우드 펀딩 자료	726
그림 37	창업지원 프로세스	727
그림 38	창업보육실 프로세스	728
그림 39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추진 프로세스	729
그림 40	수출역량강화 프로세스	729
그림 41	판로지원사업 프로세스	730
그림 42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731
그림 4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요 연혁	896
그림 4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요역할	897
그림 45	지역본부를 활용한 지역 미래(특화)산업 육성 지원	899
그림 46	파트너기업 선정절차 및 내용	901
그림 47	중소기업테크건축센터 지원 절차	902
그림 4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역조직 및 기술분야 현황	903
그림 49	기업현장출장 지원절차 및 내용	904
그림 50	파트너기업 기술커뮤니티 지원	907
그림 51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서비스 개념도	921
그림 52	ScienceON 서비스 개념도	922
그림 53	ScienceON 서비스 방향	923
그림 54	NTIS 서비스 개념도	926
그림 55, 56	전국 15개 ASTI 지역협의회, 고객정의 및 지원전략	930
그림 57	2020 디자인코리아 전시장 전경	938
그림 58	2020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전시장면	939
그림 59	2020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주요성과	939
그림 60	제55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시상식 및 전시 (2020.11)	940
그림 61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프로세스	949
그림 62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사업 프로세스	950
그림 63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 프로세스	953
그림 64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사업 프로세스	955
그림 65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프로세스	957
그림 66	여성기업제품 홍보사이트 운영	958
그림 67	TV홈쇼핑 입점 지원 프로세스	960
그림 68	인증브랜드 선정절차	962

그림목차

Contents

그림 69	여성경제인 DESK 프로세스	965
그림 70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플랫폼 개념도	967
그림 71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홈페이지(http://www.ijarhub.or.kr)	968
그림 72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홈페이지	970
그림 73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협력 유형	979
그림 74	'20년도 공동교육프로그램 교육	981
그림 75	'20년도 사업홍보 활동	982
그림 76	'20년도 온라인 취업박람회 업종 별 릴레이 특강	982
그림 77	'20년도 현장교청숙련인력양성사업 현장교청	983
그림 78	'20년도 공공활용지원 프로그램	985
그림 79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화면	992
그림 80	2020년 제21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주요 스틸 컷	993
그림 81	한-러 혁신플랫폼 우수사례	1003
그림 82	글로벌 인수사업	1005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중소기업 일반현황 및 경기동향

제1부

제1장 중소기업 일반현황

제2장 중소기업 경기동향

제1장

중소기업 일반현황

1

중소기업 현황

통계분석과 정책진

2018년도 기준으로 중소기업수는 6,638천개, 종사자수는 17,103천명으로 전체 기업의 99.9%, 전체 고용의 83.1%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대비 기업수는 342천개, 종사자수는 414천명이 증가하였다.

표 1-1-1-1 | 연도별 중소기업 추이

구분		(단위: 개, 명, %)		
		2017년	2017년	2018년
기업수	전체	6,085,434	6,301,013	6,643,756
	중소기업	6,080,914	6,296,210	6,638,694
	비중	(99.9)	(99.9)	(99.9)
종사자	전체	19,635,071	20,094,913	20,591,641
	중소기업	16,361,586	16,689,525	17,103,938
	비중	(83.3)	(83.1)	(83.1)

자료 : 중소기업기본통계(통계청, 기업통계동향부 채번·가공)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24.9%), 부동산업(16.8%), 숙박 및 음식점업(12.0%), 운수 및 창고업(8.9%), 제조업(8.6%) 순으로 비중이 높고,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제조업(19.6%), 도매 및 소매업(19.2%), 숙박 및 음식점업(10.3%)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와 비교해보면 중소기업 비중은 한국 및 영국이 99.9%, 미국, 일본, 대만이 97.7% 순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 비중은 한국 83.1%, 대만 78.7%, 일본 68.8% 등이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미국 및 영국은 각각 47.1%와 60.7%로 비교적 낮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표 1-1-1-2 | 주요국의 중소기업 현황(2018년 기준)

구분	기업수천개		종사자수천명	
	중소기업	비중(%)	중소기업	비중(%)
한국	6,339	99.9	17,104	83.1
일본	3,589	99.7	46,790	68.9
대만	1,491	97.7	9,054	78.7
미국	5,977	99.7	60,556	47.1
영국	5,973	99.9	16,836	60.7

주 : ① 국가별 기준연도(일본 2016년, 미국 2017년, 대만, 영국 2019년)

② 한국은 매출액 기준, 일본·대만·영국·미국은 종사자 기준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해외주요국중소기업동계

기업 규모별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전체 기업수의 98.5%(6,540천개)와 전체 종사자수의 64.3%(13,247천명)를 차지하였으며, 중기업은 각각 1.5%(97천개)와 18.7%(3,856천명)를 차지하고 있다.

표 1-1-1-3 | 기업규모별 기업수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연도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소기업		중기업	소계	
			소상공인	소기업			
기업수	2017년	6,301,013	5,875,091	6,203,186	93,024	6,296,210	4,803
		(100.0)	(93.2)	(98.4)	(1.5)	(99.9)	(0.1)
	2018년	6,643,756	6,199,980	6,540,865	97,829	6,638,694	5,062
		(100.0)	(93.3)	(98.5)	(1.5)	(99.9)	(0.1)
종사자수	2017년	20,094,913	8,535,841	12,834,033	3,856,492	16,690,525	3,405,388
		(100.0)	(42.5)	(63.9)	(19.2)	(83.1)	(16.9)
	2018년	20,591,641	8,969,291	13,247,685	3,856,253	17,103,938	3,487,703
		(100.0)	(43.6)	(64.3)	(18.7)	(83.1)	(16.9)

주 : 1. 소기업은 소상공인을 포함하며, 중소기업 소계는 소기업과 중기업의 합계임

2. ()안은 전체에 대한 구성비

2018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이 전체 사업체수의 51.0%(3,388천개)를 차지하고, 영남권은 24.3%, 중부권과 호남권은 10.0%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로는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54.0%(9,236천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남권은 23.9%, 중부권은 9.9%, 호남권은 8.7%를 차지하고 있다.

표 1-1-4 | 지역별 중소기업 현황 추이

(단위 : 개, 명, %)

구분	기업수				종사자수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도권	3,084,173 (50.7)	3,192,051 (50.7)	3,388,458 (51.0)	6,785,341 (53.6)	8,981,597 (53.8)	9,236,436 (54.0)
영남권	1,517,990 (25.0)	1,569,027 (24.8)	1,614,481 (24.3)	3,963,152 (24.2)	3,966,005 (23.8)	4,014,888 (23.5)
중부권	606,806 (10.0)	632,371 (10.0)	666,663 (10.0)	1,595,586 (9.8)	1,645,758 (9.9)	1,691,778 (9.9)
호남권	533,115 (9.8)	620,197 (9.9)	660,523 (10.0)	1,407,256 (8.8)	1,442,838 (8.6)	1,490,411 (8.7)
기타 (강원, 제주)	278,830 (4.6)	292,584 (4.6)	306,589 (4.6)	630,201 (3.9)	653,327 (3.9)	670,427 (3.9)

주 : () 안은 중소기업 전체에 대한 구성비

소상공인 기업수는 2018년 기준으로 6,199개(중사업체의 93.3%)이며, 그 중 47.2%는 수도권(서울 21.3%, 경기 24.2%, 인천 5.1%)에 위치하고 있다. 소상공인 종사자수는 453만 명(50.6%)이다.

표 1-1-5 | 2018년 기준 소상공인 기업수 및 종사자수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기업수	6,643,756	6,199,960	93.3	6,540,666	98.5	97,829	1.5	6,638,694	99.9
종사자	20,591,641	8,969,291	43.6	13,247,685	64.3	3,866,253	18.7	17,113,938	83.1

자료 : 중소기업기본통계(통계청, 기업등록등록부 채번·가공)

표 1-1-1-6 | 지역별 소상공인의 기업수 현황

(단위 : 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기업수	1,319,534	403,400	286,964	318,288	164,637	161,610	117,201	29,239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01,152	193,309	184,467	250,133	226,394	236,200	318,366	393,398	97,579

자료 : 중소기업기본통계(통계청, 기업등록등록부 재반·가공)

한편, 소상공인 기업수는 도·소매업(24.9%), 부동산업(17.7%), 숙박·음식점업(11.8%)의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는 등 서비스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표 1-1-1-7 | 업종별 소상공인 기업수 및 종사자수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기업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전(全) 산업	6,199,980	100.0	8,969,291	100.0
도·소매업	1,544,986	24.9	2,196,366	24.5
부동산업	1,097,853	17.7	1,177,725	13.1
숙박·음식점업	734,324	11.8	1,238,983	13.8
제조업	495,674	8.0	1,199,198	13.4
기타	2,326,943	37.6	3,157,019	35.2

자료 : 중소기업기본통계(통계청, 기업등록등록부 재반·가공)

전체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감소한 가운데 2020년 자영업자¹⁾는 2년 연속 감소했으며, 특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감소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소폭 상승했다.

표 1-1-1-8 | 자영업자수 연동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취업자수	전체 자영업자 (만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만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만명)	
		전년대비 증가율	전년대비 증가율	전년대비 증가율	전년대비 증가율		
2016년	26,409	5,614	△0.1	1,684	△1.6	4,030	0.4
2017년	26,725	5,682	1.2	1,608	1.5	4,074	1.1
2018년	26,822	5,638	△0.8	1,661	2.7	3,987	△2.1
2019년	27,123	5,606	△0.6	1,538	△6.9	4,068	2.0
2020년	26,904	5,531	△1.3	1,372	△10.8	4,159	2.2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경제활동인구조사

1)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거나 자기 혼자 또는 부가가치세납세자와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

2

중소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

2018년 중소기업 고용은 전체 기업 고용(20,591천명)의 83.1%에 해당하는 17,103천 명을 차지하여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1-1-1-9 | 중소기업 종사자수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기업수(A)	19,259,827	19,635,071	20,094,913	20,591,641
중소기업(B)	16,032,404	16,361,595	16,689,525	17,103,938
비중(B/A)	(83.2)	(83.3)	(83.1)	(83.1)

자료 : 중소기업기본통계(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재판·가공)

우리나라 종사자수 10인 이상 제조업의 부가가치 기여율을 보면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이 전체 증가분의 20.7%를 차지하였다.

표 1-1-1-10 | 제조업 부가가치 증감 및 기여율

(단위 : 조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증감액(2018-2017년)
		(a)	(b)	(c)	(b-a)
전체 증감액	8.5	39.2	23.6	△10.4	52.6
- 중소기업	5.1	3.2	4.7	3.0	10.9
(기여율)	(60.0)	(8.2)	(19.7)	(△28.8)	(20.7)
- 대기업	3.4	36.0	19.1	△13.4	41.7
(기여율)	(40.0)	(91.8)	(80.3)	(128.8)	(79.3)

주 : 1. 중소기업은 전체 총액액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음.

2. 00,00,00은 직전년도 대비 증감액임

3. 2016~9년은 10차 산업분류 결과에서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을 제외하여 작성

4. 기여율은 전체 부가가치 증감분에 대한 중소기업(대기업) 증감분의 백분비(%)임

자료 : 통계청, 관업·제조업조사(경제총조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를 연대별로 비교해 보면, 1970년대에는 대기업 위주의 중화학공업 성장정책으로 고용, 부가가치 증가의 절반 이상을 대기업이 담당했다.

그러나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강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 기여율이 82.0%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2010년 이후에는 부가가치 기여율이 처음으로 대기업을 앞서는 시작했다.

중소기업의 고용 기여율은 2000년대 118.3%, 2010년 이후 79.4%로 나타나 고용 증가의 중심축에 중소기업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소기업 부가가치 기여율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이후에는 중소기업 기여율이 63.1%로 대기업을 앞서는 상태에 있다.

표 1-1-1-11 | 제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제발전 기여율

(단위 : %)

구분			1970년대 (73-79)	1980년대 (80-89)	1990년대 (90-99)	2000년대 (00-09)	2010년 이후 (10-19)
사업 체수	기 여 율	중소기업	96.2	99.3	160.9	101.6	88.4
		대기업	4.8	0.7	△80.9	△1.6	1.6
종사 자수	기 여 율	중소기업	49.4	62.0	△26.3	118.3	79.4
		대기업	50.6	18.0	△73.7	△18.3	20.6
부가 가치	기 여 율	중소기업	34.0	46.7	47.9	48.2	63.1
		대기업	66.0	53.3	52.1	51.8	36.9

- 주 : 1. 중소기업 기준(종사자 10~299인), 대기업 기준(종사자 300인 이상)
 2. 1973-1999년은 광·제조업 결과(9차 산업분류), 1980-2018년은 제조업 결과(9차 산업분류)
 3. 2016-#턴은 10차 산업분류 결과에서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을 제외하여 작성
 4. 기여율은 전체 증감분에 대한 중소기업(또는 대기업) 증감분의 백분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경제총조사)

제2장

중소기업 경기현황

1

업종별 동향

통계분석과 정책현황

가. 제조업

1) 생산

2020년 중소제조업 연간 생산지수는 전년대비 3.7% 감소한 96.1로 나타났다.

표 1-2-1-1 | 연도별 중소제조업 생산 추이

(2015=100기준)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생산지수	106.3	103.5	99.8	96.1
전년대비 증감률	3.1	△2.6	△3.6	△3.7

주 : 중소기업은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인 기업을 의미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2020년 중소제조업 월별 생산은 전반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다.

표 1-2-1-2 | 2020년 월별 중소제조업 생산 추이

(2015=100기준)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생산지수	90.5	81.3	102.7	94.2	87.2	94.5	96.9	87.2	100.2	97.9	101.4	106.7
전년동월 대비증감률	△10.6	7.7	△0.7	△8.9	△15.8	△4.1	△4.6	△7.2	7.3	△5.1	0.4	0.7

주 : 중소기업은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인 기업을 의미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한편 2020년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8.7%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4.7%p 하락하였다.

표 1-2-1-3 |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단위 :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4	2/4	3/4	4/4	전체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73.1	73.0	73.3	70.0	66.7	68.1	69.9	68.7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2020년 전체 제조업 및 중소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각각 전년 대비 2.0%, 4.0% 감소하였다.

표 1-2-1-4 | 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지수 증감 추이

(2015=100기준)

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지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4	2/4	3/4	4/4	전체
전체	102.5 (1.0)	102.4 (△0.1)	102.2 (△0.2)	96.2 (0.9)	94.9 (△7.8)	100.7 (△1.4)	106.8 (0.2)	100.2 (△2.0)
중소기업	105.9 (2.4)	103.0 (△2.7)	99.9 (△3.0)	93.8 (△2.3)	91.5 (△11.0)	95.0 (△1.7)	103.4 (△0.8)	95.9 (△4.0)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고용

2020년 중소제조업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589천원이며, 전년 대비 0.8% 증가하였다.

2020년 중소제조업 월평균 근로시간은 175.7시간으로 전년 대비 3.9시간 감소하였다.

표 1-2-1-5 | 중소제조업 임금 및 근로시간 현황 추이(5-200인)

(단위 : 천원, 시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중소제조업 전체임금총액	3,290	3,435	3,501	3,589
중소제조업 전체근로시간	183.7	181.0	179.6	175.7

주 : 조사대상이 1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18.6)되었으나 시계열 유지를 위해 5-200인 자료 기재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20년 중소기업의 취업자 수는 24,232천명으로 전년대비 297천명이 감소하였다. 2020년 실업률은 4.0%로 전년 대비 0.2%p 증가하였으며, 15-64세 고용률은 65.9%로 전년 대비 0.9%p 감소하였다.

표 1-2-1-6 | 중소기업 취업자 및 고용률, 실업률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취업자수(300인 미만)	24,251	24,209	24,529	24,232
고용률	66.6	66.6	66.8	65.9
실업률	3.7	3.8	3.6	4.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원자재 구매 및 제품 판매

가) 원자재 구매

2019년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매는 201조원으로, 구매처별 원·부자재 구매비율은 국내구매가 87.4%, 해외구매가 12.6%로 나타났다.

표 1-2-1-7 | 원자재 구매액 및 원산지별 구매액 구성비

(단위 : 억원, %, %P)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년대비 증감률
중소제조업	2,909,423	2,916,754	2,911,891	△0.2
- 국내산	90.3%	88.2%	87.4%	△1.8
- 외국산	9.7%	10.8%	12.6%	1.8

주 : 국내에서 1차 가공된 수입원자재는 국내산으로 봄

자료 : 2017~2019년 기준 중소기업실대조사

2019년 중소기업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구매대금 지급은 현금이 97.9%, 어음이 2.9%로 현금(현금성 결제 포함)지급 비중이 전년(96.4%)대비 0.9%p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소기업은 현금 97.9%, 어음 2.1%로 나타났으며, 중기업은 현금 92.7%, 어음 7.3%로 소기업이 중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금 지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8 | 원자재 구매대금 지급상황

(단위 : %)

구분	원금			어음		
	2017년	2018년	2019년	2017년	2018년	2019년
중소제조업	93.3	96.4	97.5	6.7	3.6	2.5
- 소기업	93.8	97.0	97.9	6.2	3.0	2.1
- 중기업	87.0	88.6	92.7	13.0	11.4	7.3

- 주 : 1. 기업채당 구매총액 대비 지급금액 비율(%)임.
2. 현금지급에는 순수현금결제와 어음대제용 현금성 결제가 포함됨.

자료 : 2017~2019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2019년 중소기업이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어음으로 구매한 경우 구매대금의 어음 평균 지급기일은 30.9일, 결제기일은 76.0일, 지급기일과 결제기일을 합한 총 지급기일은 106.9일로 전년(109.3일)대비 2.4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규모별 구매대금 어음 총 지급기일은 소기업이 2.6일, 중기업이 1.8일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9 | 원자재 구매대금의 어음 지급기일

(단위 : 일)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증감
총 지급기일(1+2)	102.9	109.3	106.9	△2.4
- 지급기일(1)	33.0	34.7	30.9	△3.6
- 결제기일(2)	69.9	74.6	76.0	1.4
- 소기업	102.7	110.5	107.9	△2.6
- 중기업	104.3	105.0	103.2	△1.8

- 주 : 1. 지급기일은 원자재를 구매한(납품받은) 날로부터 어음을 지급한 날까지의 평균 소요기일.
2. 결제기일은 지급한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평균 소요기일.
3. 총지급기일은 어음의 평균 지급기일과 지급어음의 평균 결제기일을 합한 총 기일.

자료 : 2017~2019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나) 제품 판매

2019년 중소기업의 제품판매총액은 599조원으로 나타났다.

판매액 중 내수 비중은 89.6%(‘18)에서 91.2%로 1.6%p 증가했으며, 수출 비중은 10.4%(‘18)에서 8.8%로 감소했다.

표 1-2-1-10 판매형태별 제품판매액 구성비

(단위 : 억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중소제조업 (전년비 증감율)	5,802,531 (6.4%)	5,980,457 (2.0%)	5,985,162 (0.1%)
-수출	10.6	10.4	8.8
-내수	89.4	89.6	91.2

자료 : 2017~2019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2019년 중소기업 판매대금의 결제는 현금성 결제가 91.4%, 어음 결제가 8.6%로 나타났으며, 현금성 결제는 전년(88.8%)대비 2.6%p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소기업은 현금성 결제가 92.0%, 어음결제가 8.0%로 나타났으며, 중기업은 현금성 결제 84.4%, 어음결제 15.6%로 나타나 중기업의 현금결제 비중이 소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11 제품판매대금 결제상황

(단위 : %)

구분	현금			어음		
	2017년	2018년	2019년	2017년	2018년	2019년
중소제조업	64.5	68.8	91.4	15.5	11.2	8.6
-소기업	85.1	89.3	92.0	14.9	10.7	8.0
-중기업	78.2	82.9	84.4	21.8	17.1	15.6

주 : 1. 업체당 평균 수취금액 비율(%)임

2. 현금은 순수현금결제이외에 위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현금성결제 포함됨

자료 : 2017~2019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2019년 중 중소기업이 제품판매 후 판매대금을 어음으로 수취하는데 소요된 기일과 어음 결제기일을 합한 총 수취기일은 104.5일로 전년(107.4일)대비 2.9일 감소했다. 이를 받은 어음의 수취기일과 결제기일로 구분하면 수취기일은 전년대비 1.7일, 결제기일은 1.2일 감소했다.

기업 규모별로 소기업은 전년대비 2.9일 감소했고, 중기업은 2.2일 감소했다.

표 1-2-1-12 | 제품판매대금의 어음 수취기일

(단위 : 일)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총수취기일(1+2)	105.7	107.4	104.5
· 수취기일(1)	32.9	32.5	30.8
· 결제기일(2)	72.8	74.9	73.7
- 소 기 일	105.2	107.8	104.9
- 종 기 일	109.4	103.8	101.6

- 주 : 1. 수취기일은 제품을 판매한(납품한) 날로부터 어음을 받은 날까지 평균 소요기일
 2. 결제기일은 받은 어음의 현금해결제일)까지의 평균 소요기일
 3. 총수취기일은 어음의 평균 수취기일과 수취어음의 평균 결제기일을 합한 총기일

자료 : 2017~2019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4) 재무구조

가) 성장성

2019년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2.89%)은 전년대비 0.03%p 하락하였다.

반면, 유형자산 증가율(5.97%), 총자산 증가율(6.82%), 유동자산 증가율(7.24%)은 전년대비(0.83%p, 0.82%p, 1.04%p) 상승하였고, 자기자본 증가율(8.07%)은 전년대비(△0.86%p) 하락하였다.

표 1-2-1-13 | 성장성 지표

(단위 :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액 증가율	3.83	3.01	5.69	2.92	2.89
유형자산 증가율	7.73	6.77	5.71	5.14	5.97
총자산 증가율	7.85	7.92	6.49	6.00	6.82
유동자산 증가율	7.18	8.46	6.81	6.20	7.24
자기자본 증가율	11.11	10.72	9.20	8.93	8.07

주 : 2016년 이후 조사부터는 모집단 구축기준(종사자수→매출액) 변경으로 이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음.

자료 : 2015~2019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

나) 수익성

2019년 중소기업의 총자산세전순이익률은 4.11%, 총자산순이익률은 3.50%로 전년대비 하락했다.

기업의 재무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018년 326.34%에서 319.87%로 6.47%p 하락했다.

한편, 금융비용 대비 매출액 비율은 2018년 1.58%에서 2019년 1.61%로 상승했다.

표 1-2-1-14 | 수익성 지표

(단위 : %)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총자산세전순이익률	4.97	4.92	4.48	4.43	4.11
총자산순이익률	4.36	4.20	3.87	3.82	3.50
자기자본세전순이익률	12.72	11.99	10.79	10.61	9.87
매출액영업이익률	5.23	5.54	5.35	5.16	5.15
매출액세전순이익률	4.51	4.94	4.36	4.46	4.30
매출액순이익률	3.95	4.22	3.76	3.65	3.66
이자보상비율	336.43	364.61	373.72	326.34	319.87
금융비용 대비 매출액 비율	1.58	1.52	1.43	1.58	1.61
차입금 평균 이자율	4.16	3.84	3.78	3.99	3.86

- 주 : 1. 2019년 이후 조사결과는 모집단 구축기준(총자산→매출액) 변경으로 이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음
 2. 총자산 세전순이익률 = (세전순이익/총자산)×100, 3. 총자산 순이익률 = (당기순이익/총자산)×100
 4. 자기자본 세전이익률 = (세전순이익/자기자본)×100, 5. 매출액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100
 6. 매출액 세전순이익률 = (세전순이익/매출액)×100, 7. 매출액 순이익률 = (당기순이익/매출액)×100
 8.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100, 9. 금융비용 대 매출액비율 = (이자비용/매출액)×100
 10. 차입금 평균이자율 = (이자비용/차입금(장·단기 차입금+회사채))×100

자료 : 2015-2019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

다) 안정성

2019년 중소제조업은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총부채/자기자본)은 2018년 136.60%에서 141.17%로 상승했으며, 비유동 비율(비유동자산/자기자본)은 2018년 126.42%에서 130.05%로 상승했고,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은 2018년 42.27%에서 41.46%로 하락했다.

또한, 기업의 단기채부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은 2018년 145.93%에서 147.56%로 상승했다.

차입금의존도((장·단기차입금+회사채)/총자산)도 2018년 39.06%에서 39.92%로 상승했다.

표 1-2-1-15 | 안정성 지표

(단위 :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유동비율	137.44	138.22	142.76	145.93	147.56
비유동비율	132.53	128.79	126.02	126.42	130.05
자기자본비율	39.67	41.55	42.07	42.27	41.46
부채비율	152.09	140.65	137.72	136.80	141.17
차입금의존도	41.00	38.78	38.60	39.06	39.92

주 : 1. 2016년 이후 조사부터는 모집단 구축기준(중사자수→매출액) 변경으로 이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음
 2.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3. 비유동비율 = (비유동자산/자기자본)×100
 4.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100, 5. 부채비율 = (총부채/자기자본)×100
 6. 차입금의존도 = (차입금(장·단기 차입금+회사채)/총자산)×100

자료 : 2015~2019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

라 생산성

2019년 중소기업의 총자본투자효율(자본생산성)은 2018년 27.13%에서 2019년 25.89%로 하락했다.

한편, 노동소득분배율(인건비/부가가치)은 2018년 63.45%에서 2019년 63.41%로 전년 대비 0.04%p 하락했다.

부가가치율(부가가치/매출액)도 2018년 27.33%에서 27.05%로 하락했다.

표 1-2-1-16 | 생산성 지표

(단위 :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자본투자효율	29.12	27.16	27.37	27.13	25.89
부가가치율	26.43	27.24	26.64	27.33	27.05
노동소득분배율	62.72	61.85	63.19	63.45	63.41

주 : 1. 2016년 이후 조사부터는 모집단 구축기준(중사자수→매출액) 변경으로 이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음
 2. 총자본 투자효율(자본생산성) = (부가가치/총자본)×100
 3.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매출액)×100, 4. 노동소득분배율 = (인건비/부가가치)×100

자료 : 2015~2019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1) 소상공인 경기동향

2020년 소상공인 체감경기는 3월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 1-2-1-17 | 소상공인 경기동향 BSI (Business Survey Index)

구분	202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체감경기	67.3	41.5	29.7	73.8	88.3	82.6	68.1	67.6	54.9	78.0	79.9	51.6
예상경기	84.1	87.1	94.1	95.0	99.5	98.9	89.4	93.2	94.1	95.2	96.6	95.9

구분	202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매출	68.7	40.8	29.3	73.4	88.5	82.4	68.1	67.4	54.2	77.5	78.8	51.3
자금사정	67.5	44.4	31.3	73.2	87.0	81.8	67.4	68.8	55.2	78.8	79.8	52.3
재고	99.5	99.0	105.8	98.1	102.4	101.3	100.7	98.3	102.3	100.3	100.2	101.3
고용	98.1	96.5	98.4	96.5	99.5	99.8	98.5	99.3	99.8	99.6	99.8	99.8

*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2) 전통시장 경기동향

2020년 전통시장의 체감경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급락한 후,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던 5월 반등하여 100을 상회하였다. 추석 명절을 기점으로 개선 흐름을 보였으나 연말 재차 하락하였다.

표 1-2-1-18 | 전통시장 경기동향 BSI (Business Survey Index)

구분	202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체감경기	71.7	23.9	28.4	80.0	109.2	79.2	66.7	49.2	66.1	73.3	78.5	44.8
예상경기	89.5	79.1	95.0	94.8	104.5	103.2	86.6	88.8	95.2	93.3	99.5	89.1

*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2

분야별 동향

가. 창업 및 파산

2020년 신설법인 수(전국 기준)는 123,305개로 2019년(109,520개) 대비 12.6% (13,785개) 증가하였고, 부도법인수 대비 신설법인수를 나타내는 창업배율은 부도법인과 신설법인이 증가함에 따라 115.3배를 기록하였다.

표 1-2-1-19 | 신설법인수(전국 기준)

(단위 : 개, 배)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
				1/4	2/4	3/4	4/4	
신설법인수	97,549	102,372	109,520	33,972	31,706	30,090	27,447	123,305
파산법인수	839	806	931	252	270	293	254	1,069
창업배율	139.6	127.0	117.6	134.8	117.8	102.7	108.1	115.3

자료 : 파산법인은 법원행정처(법원통계실보), 창업배율 = 신설법인수/부도법인수

2020년 창업기업 수(전국 기준)는 148.4만개로 2019년(128.5만개) 대비 15.5% (19.9만개) 증가하였고, 그 중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수는 22.9만개로 전체 창업기업의 15.4%를 차지하였다.

표 1-2-1-20 | 창업기업수(전국 기준)

(단위 : 만개)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	
			1/4	2/4	3/4	4/4		
창업기업수	134.4	128.5	46.3	34.7	34.3	33.2	148.4	
영대별	법인	10.2	11.0	3.4	3.2	3.0	2.7	12.3
	개인	124.2	117.6	42.9	31.5	31.3	30.4	136.1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수	21.2	22.1	5.9	5.7	5.8	5.5	22.9	
영대별	법인	4.0	4.1	1.2	1.1	1.2	1.0	4.5
	개인	17.2	18.0	4.7	4.6	4.6	4.5	18.4

자료 : 통계청 및 중소벤처기업부

나. 수출

중소기업 수출액은 2016년 995억 달러(20.1%), 2017년 1,032억 달러(18.0%), 2018년 1,052억 달러(17.4%), 2019년 1,009억 달러(18.6%), 2020년은 전년 대비 0.2% 하락한 1,007억 달러(19.7%)를 기록하였다.

수출 중소기업은 2016년 91.9천개, 2017년은 92.3천개, 2018년은 94.2천개, 2019년은 95.2천개, 2020년은 94.9천개로 전년 대비 0.3% 감소하였다.

표 1-2-1-21 | 연도별 중소기업 수출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개사,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수출액	495,426	573,694	604,860	642,233	612,498
중소기업수출액	99,524	103,209	105,195	100,928	100,712
(비중)	(20.1)	(18.0)	(17.4)	(18.6)	(19.7)
수출기업수	91,855	92,287	94,162	95,229	94,900

2020년 기업 규모별 수출은 전년 대비 전 규모에서 감소하였다. 대기업의 감소폭이 7.5%로 가장 컸으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4.2%, 0.2% 감소하였다.

표 1-2-1-22 | 기업 규모별 수출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개사, %)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률	증감률
	수출 기업수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 기업수	비중	수출액	비중		
중소기업	95,229	96.6	100,928	18.6	94,900	98.7	100,712	19.7	△0.2	
중견기업	2,371	2.4	93,218	17.2	2,330	2.4	89,325	17.4	△4.2	
대기업	984	1.0	347,089	64.0	823	0.9	321,200	62.7	△7.5	
전체	98,584	100.0	542,233	100.0	98,153	100.0	512,498	100.0	△5.5	

* 전체 수출액은 기타(개인, 비영리법인 등)를 포함하였으며, 전체 수출기업수는 기타 제외

2020년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을 살펴보면, 감염병 확산에 따른 대외 수요 감소로 상위 10개국 중 7개국에 대한 수출이 2019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하지만, 유럽으로의 수출이 확대되면서 독일이 상위 10대 수출국에 진입하는 등 수출시장 구조가 다변화되기도 하였다.

표 1-2-1-23 | 중소기업 수출 상위 10개국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2019년			2020년			
	국가	수출액	비중	국가	수출액	비중	증감률
1	중국	23,248	23.0	중국	22,735	22.6	△2.2
2	미국	11,661	11.6	미국	12,873	12.6	8.5
3	베트남	10,328	10.2	베트남	9,864	9.8	△4.5
4	일본	10,002	9.9	일본	9,500	9.4	△5.0
5	홍콩	3,546	3.5	홍콩	3,408	3.4	△3.9
6	인도	2,691	2.7	대만	2,621	2.6	18.0
7	인도네시아	2,513	2.5	인도	2,545	2.5	△5.4
8	러시아 연방	2,360	2.3	인도네시아	2,375	2.4	△5.5
9	대국	2,318	2.3	러시아 연방	2,298	2.3	△2.9
10	대만	2,221	2.2	독일	2,152	2.1	47.0

주 : 비중은 전체 중소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단위:천만 달러 기준)

자료 : 중소기업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20년도 중소기업 주요 수출 품목은 플라스틱제품, 화장품, 자동차부품, 반도체 등이며, 상위 10대 품목 중 화장품(8.8%), 반도체제조용장비(10.5%) 등 7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또한, 진단키트가 포함되는 정밀화학제품(304.9%), 의약품(198.1%) 등이 10대 품목에 새롭게 진입하면서 10대 품목의 수출 비중이 전체의 32.2%를 차지하였다.

표 1-2-1-24 | 중소기업 수출 상위 10대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2019년			2020년			
	품목	수출액	비중	품목	수출액	비중	증감률
1	플라스틱제품	5,189	5.1	플라스틱제품	5,222	5.2	0.6
2	화장품	4,593	4.6	화장품	4,998	5.0	8.8
3	자동차부품	4,354	4.3	자동차부품	3,878	3.9	△10.9

순위	2019년			2020년			증감률
	분류	수출액	비중	분류	수출액	비중	
4	합성수지	3,063	3.1	반도체제조용장비	3,194	3.2	10.5
5	기타기계류	3,058	3.0	합성수지	2,805	2.8	△9.0
6	반도체제조용장비	2,800	2.9	기타기계류	2,691	2.7	△12.0
7	철강판	2,461	2.4	기타정밀화학제품	2,644	2.6	304.4
8	계측제어분석기	2,389	2.4	계측제어분석기	2,468	2.5	3.3
9	반도체	2,222	2.2	의약품	2,275	2.3	197.8
10	자동차	2,185	2.2	반도체	2,274	2.3	2.3

주 : 비중은 전체 중소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비중(%)의 3단위 기준)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다. 금융

2020년 말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804.6조원으로 2019년 말 대비 87.9조원(12.9%) 증가하였다.

표 1-2-1-25 | 기업 대출잔액 현황

(단위 : 조원, %)

구분	2019년말	2020년	2020년			
			1/4 0월말	2/4 3월말	3/4 6월말	4/4 12월말
기업대출	824.1	809.0	901.3	946.7	966.1	976.4
대기업	154.7	152.3	165.9	176.5	176.0	171.8
중소기업	669.4	716.7	735.4	770.2	790.0	804.6

자료 : 한국은행

2020년 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0.39%)은 2019년 말(0.44%) 대비 0.05%p 하락하였으며, 대기업 대출 연체율(0.27%)도 2019년 말(0.50%)에 비해 0.23%p 하락하였다.

표 1-2-1-26 | 기업대출 연체율 현황

(단위 : %)

구분	비	2019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기업	0.50	0.38	0.38	0.35	0.22	0.24	0.21	0.29	0.29	0.28	0.28	0.28	0.27
중소기업	0.44	0.54	0.58	0.53	0.57	0.59	0.44	0.47	0.51	0.40	0.45	0.46	0.36

자료 : 금융감독원

라. 인력

2019년 중소기업 인력실태를 살펴보면, 현 인원은 223만 명으로 직종별 인력은 생산직 61.2%, 사무·관리직 23.6%, 기술·연구직 8.4%, 판매·마케팅직 5.6%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2-1-27 | 중소기업 인력부족률 추이

(단위 : 명, %)

중소기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현 인원	2,430,320	2,196,734	2,331,536	2,315,755	2,233,665
부족인원	59,311	69,402	57,073	50,996	31,795
부족률	2.38	3.06	2.39	2.15	1.40

주 : 1. 2016년 기준 조사부터는 모집단 구축기준(종사자수→매출액) 변경으로 이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음
2. 인력부족률 = 부족인원/(현인원 + 부족인원) * 100

자료 : 2015~2019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한편, 직종별 인력부족률은 생산직이 1.72%로 가장 높고, 기술·연구직 1.24%, 사무·관리직 0.87%, 판매·마케팅직 0.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1-28 | 중소기업의 직종별 인력부족률(2019년)

구분	인원	사무 관리직	기술 연구직	생산직	판매 마케팅직	기타 종사자
부족인원(명)	31,795	4,644	2,358	23,881	777	135
부족률(%)	1.40	0.87	1.24	1.72	0.61	0.51

자료 : 2019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기업 규모별로는 소기업이 중기업보다 인력부족률이 높게 나타나 기업규모와 인력부족률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29 | 중소기업의 기업규모별 인력부족률 추이

(단위 :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소기업	2.94	3.22	2.86	2.30	1.47
중기업	1.15	2.71	1.89	1.82	1.25

주 : 2016년 기준 조사부터는 모집단 구축기준(종사자수→매출액) 변경으로 이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음

자료 : 2015~2019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

마. 기술

2019년 기준 매출액 5억원 초과 중소기업체의 36.0%가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30 | R&D 수행 중소기업체 총액(15 : 5인 이상, '16-'19 : 5억원 초과)

(단위 : 개,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R&D수행 중소기업체	45,307	40,589	45,320	48,961	50,430
중소기업체수 대비 비중	33.6	31.4	33.5	35.4	36.0

주 : 1. 2016년 기준 조사부터는 모집단 구축기준(중사자수→매출액) 변경으로 이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음
 2. 2019년 기준조사 모집단 : 5억원 초과 중소기업체 139,943개, 표본수 : 7,900개

자료 : 2015~2019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특히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2020년 40,140개사로 2014년 30,478개에 비해 9,662개 증가하였으며, 소속 연구원 수도 3.6만 명이상 증가하여, 2020년에 19.9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31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및 소속 연구원 수

(단위 : 개소,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30,478	33,647	36,026	37,696	38,734	38,887	40,140
소속 연구원수	163,887	176,084	184,998	190,686	193,724	192,420	199,891

*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20.12)

이와 같은 저변화대에 힘입어 2019년 중소기업의 R&D 투자 규모는 약 16.7조원으로 국가 전체 R&D 투자 89.0조원의 18.7%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32 | 중소기업의 R&D 투자 규모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공공 연구 기관	69,503	72,607	81,127	86,241	91,132	95,432	98,439	101,689
대 학	52,769	54,800	57,670	59,989	63,399	66,825	70,504	73,716
기 업	432,229	465,599	498,545	511,364	539,525	625,634	688,344	715,067
- 대기업	320,709	357,781	366,177	389,303	330,642	305,038	438,236	446,658
- 중견기업						90,687	95,954	101,864
- 중소기업	111,520	107,818	112,367	122,061	131,738	136,909	154,154	166,545
합계 (국가 R&D규모)	564,501	593,009	637,341	659,594	694,055	787,891	857,287	890,471

* 자료 :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그러나 중소기업 R&D의 저면확대와 투자증가 등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수준은 선진국 대비 77%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표 1-2-1-33 | 세계 최고수준 대비 기술능력 수준

(세계최고수준=100.0,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기술능력 수준	77.1	74.3	75.3	77.3	75.4	75.9

* 자료 : 2015~2020년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중소기업 육성시책

제2부

- 제1장 혁신 창업벤처국가 조성
- 제2장 고용 친화적 중소기업 성장 촉진
- 제3장 중소기업의 든든한 성장환경 구축
- 제4장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 제5장 소상공인·전통시장 차병력 강화
- 제6장 규제행정 혁신 및 기업애로 지원

제1장 혁신 창업·벤처국가 조성

제1절 민간역량을 활용한 혁신 창업

1 신설법인 현황

• 통계분석과 정책팀

2020년 연간 신설법인 수는 전년 대비 12.6% 증가한 123,305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표 II-1-1-1 | 연도별 신설법인수

(단위 : 개)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법인수	95,081	96,025	97,549	102,372	109,520	123,305

업종별로는 농·임·어업 및 광업(10.3%, 274개), 제조업(4.1%, 609개), 건설 및 전기·가스업(5.6%, 600개), 서비스업(15.1%, 12,302개)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표 II-1-1-2 | 업종별 신설법인수

(단위 : 개, %)

연도	농·임·어업 및 광업	제조업	건설 및 전기·가스업	서비스업	계
2017년	2,383 (2.4)	15,054 (15.4)	11,232 (11.5)	69,880 (70.6)	97,549 (100.0)
2018년	2,362 (2.3)	15,286 (14.9)	12,260 (12.0)	72,444 (70.8)	102,372 (100.0)
2019년	2,651 (2.4)	14,807 (13.5)	10,796 (9.9)	81,266 (74.2)	109,520 (100.0)
2020년	2,925 (2.4)	15,416 (12.5)	11,396 (9.2)	93,568 (75.9)	123,305 (100.0)

연령별로는 40대(40,866개, 33.1%), 50대(31,601개, 25.6%), 30대(26,434개, 21.4%)의 순으로 설립되었고,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 대비 증가한 가운데, 특히 60세 이상(전년 대비 20.1%)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표 II-1-1-3 | 연령별 신설법인수

(단위 : 개, %)

구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법인수	비중	법인수	비중	증감수	증감률
30세미만	8,184	7.5	9,093	7.4	909	11.1
30-39세	23,437	21.4	26,434	21.4	2,997	12.8
40-49세	36,678	33.5	40,866	33.1	4,188	11.4
50-59세	28,140	25.7	31,601	25.6	3,461	12.3
60세이상	12,097	11.0	14,534	11.8	2,437	20.1
기 타	964	0.9	777	0.6	△207	△21.0
총 계	109,520	100.0	123,306	100.0	13,786	12.6

성별로는 여성(21.2%)과 남성(9.8%) 모두 증가하였으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8.7%로 2019년 대비 1.9%p 증가하였다.

표 II-1-1-4 | 성별 신설법인수

(단위 : 개, %)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률
여성	29,127 (26.6)	35,297 (28.7)	21.2
남성	79,709 (73.2)	87,563 (71.3)	9.8
계	108,636 (100.0)	122,860 (100.0)	12.9

2

창업저변 확대

- 창업촉진과 신 무 천
- 기술창업과 김 예 천
- 창업촉진과 문 형 식
- 창업생태계조성과 배 주 영

가. 창업교육

1) 창업예뉜

예비창업부터 재창업까지 단계별로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좌를 무료로 지원하는 창업예뉜은 '09년 구축되어 '10년도부터 운영되어온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이다.

'16년 온라인 교육 트렌드를 반영하여 창업과 관련한 핵심 이론 및 실사례를 중심으로 핵심내용만 짧게 구성하는 강의로 신규 개편하고 스마트 기기 등에서도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였다.

창업단계별 역량 강화를 위해 수강생들이 필요한 주제별 강좌를 개발 또는 외부 기관과 제휴하였고, 사업계획서 작성, 세무·회계 등의 주제강좌 약 350개를 운영하고 있다.

표 11-1-1-5 | 창업예뉜 성과현황

(단위 :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규회원	19,198	14,531	3,620	7,496	8,248	9,021	11,073	10,919	12,347	15,501	28,823
방문건수	91,414	70,740	108,601	147,718	178,480	212,693	252,775	196,932	225,683	272,916	612,956
수료생 수	3,075	17,017	34,170	54,979	58,143	27,881	40,968	161,192	303,126	360,658	694,154

개편 전('10~'16년) 평균 33,462명이던 교육 수료생이 개편 후 '19년 360,658명, '20년 694,154명(개편 전 대비 약 20배 성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편 시 도입된 가관별 맞춤형 교육서비스인 '패키지 과정'은 첫째 신청기관이 18개 기관(25개 과정)에서 '20년 182개 기관(283개 과정)으로 약 10배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2) 실천창업교육

실천창업교육은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비즈니스 모델 정립과 사업계획 도출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준비된 기술창업자를 육성하고자 2019년 신설되었다.

‘아이디어 개발 → 비즈니스모델 수립 → 런스타트업’ 단계별 지원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와 피보팅을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자기주도적으로 BM 구성요소들을 수립 및 변경해 가며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 하였다. 런스타트업 단계에서는 교육생 비즈니스모델의 핵심 기능만 최소한으로 구현하고, 잠재고객과 시장 대상으로 반응을 조사하여 사업 계획 피보팅을 지원하였다.

표 II-1-1-6 | 실천창업교육 교육생 현황

구분	아이디어 개발 교육	비즈니스모델 수립	런스타트업 교육
2019년	3,060	1,222	323
2020년	3,267	2,413	320
총 계	6,327	3,635	643

나. 기업가정신 확산

1) 청소년 비즈쿨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대표적 사업인 비즈쿨(Bizcool)은 학교(School)내에서 경영(Business)을 배운다는 의미의 합성어로 기업가정신 함양 및 모의 창업교육을 통해 꿈·끼·도전정신·선취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밖 센터 등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2012년부터 시작하여 19년 동안 4,278개교, 2,278천명을 지원하였다.

특히 평생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의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를 위해 2020년에는 초·중·고·학교 밖 비즈쿨 지정학교(센터) 467개 지원하였고 비즈쿨 캠프, 비즈쿨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였다.

표 II-1-1-7 | 비즈쿨 운영실적

구분	2012	13	14	15	16	17	18	19	20
지원예산 (억원)	216.1	45	50	60	83	76.66	76.66	76.66	62.5
비즈쿨학교 (개교)	1,027	135	200	412	448	513	581	486	487
참여학생수 (천명)	582	116	133	190	247	262	283	242	221
비즈쿨캠프 (명)	8,850	1,808	1,035	585	989	469	417	283	813
창업동아리 (개)	4,622	830	1,053	1,329	2,062	2,781	2,803	2,488	2,286



청소년비즈쿨 국내캠프

청소년비즈쿨 체험교육

청소년비즈쿨 페스티벌

2) 대학기업가센터

미래 예비창업자인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고취하고 융합 실천형 창업교육(학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전국에 3개 대학기업가센터(20년 종료사업)를 운영하고 있다.

3개 대학기업가센터(서강대학교, 영남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창업콘텐츠 제작을 통해 우수한 창업전공강좌를 운영하여 대학생의 창업수요를 다양하게 충족 시켰다.

표 II-1-1-8 | 대학기업가센터 연도별 지원성과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공강좌 수(개)	183	235	264	296	312	69
강좌수강생(명)	7,614	13,273	17,959	17,255	17,926	11,398
창업네트워킹(건)	243	337	558	571	496	203
콘텐츠제작(건)	89	68	62	58	77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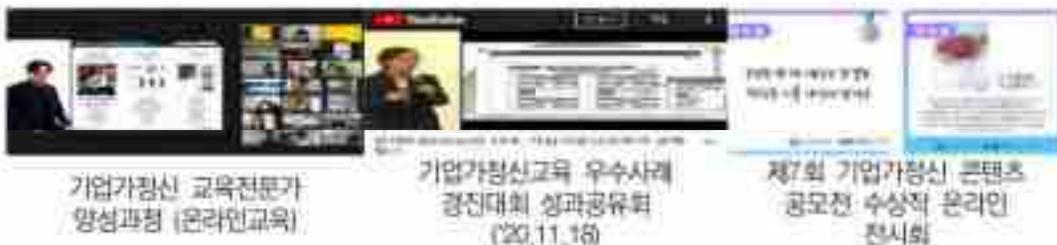
3) 기업가정신기반 구축 및 확산

2015년부터 운영한 '기업가정신 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은 6년간 3,011명의 기업가정신 교육자를 양성하여 기업가정신 교육의 질적 향상과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20년도 교육과정은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여 교육에 대한 접근성 및 학습효과를 향상시켰다.

또한 기업가정신 교육관련 신규 콘텐츠 총 4종* 및 재대군인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사회맞춤형 기업가정신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 기업가정신교육 콘텐츠 개발(총 4종)
 - (교재) 《저 산업혁명시대 미래인재역량과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1종
 - (워크시트)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청소년 기업가정신 게이미피케이션 콘텐츠
 - (온문)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온라인 게이미피케이션 콘텐츠 개발 및 검증

그 밖에도 기업가정신 문화조성 및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대상으로 '벤처창업진흥 유공포상 청년기업부문', '기업가정신 확산 및 진흥 유공포상', '기업가정신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을 하였고, 전국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공유하고자 '기업가정신 콘텐츠 공모전'을 열어 동영상, 카드뉴스 등 1천 여건의 콘텐츠를 모집하였다.



기업가정신 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온라인교육)

기업가정신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 성과공유회
(20.11.16)

제7회 기업가정신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온라인
전시회

다. 도전! K-스타트업

'도전! K-스타트업'은 범부처 창업경진대회로서 유망한 (예비)창업자와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창업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부터 진행해오던 '창업경진대회'가 2016년 중기부, 과기부, 교육부, 국방부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도전! K-스타트업'란 브랜드로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점차 참여부처를 확대하여 2021년에는 총 10개 부처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창업경진대회로서 자리매김했다.

- * 2021년 참여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특허청, 산림청

2020년에는 총 7,112개의 대회 참가팀 중 각 예선리그를 통해 총 180개팀이 통합 본선에 진출하였고, 최종 왕중왕전 20개팀을 선발하여 총 상금 15.8억과 대통령·국무총리 등 정부시상을 하였다.

- * 2020년 예선대회 : 혁신창업리그(중기부), 학생리그(교육부, 과기부), 국방리그(국방부), 여성리그(중기부·여가부), 시리그(중기부), 지식재산리그(특허청), 민간·지자체리그(지자체, 네이버 등)
- * 총 접수건수 (7,112건) : 혁신창업리그(2,202건), 학생리그(896건), 국방리그(940건), 여성리그(1,289), 시리그(309), 지식재산리그(555건)

또한 대회 참가팀과 수상팀들을 대상으로 예비·초기·도약패키지, 기술보증, 관로지원 등 사업화 자금확보와 창업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후속연계 지원한다.

표 11-1-9 | 도전! K-스타트업 주요 추진 성과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합계
최기자 수(팀)	6,545	4,055	5,770	3,894	7,112	27,376
수상자 수(팀)	10	10	10	20	20	70
경쟁률 (%)	654:1	405:1	577:1	195:1	356:1	391:1



대회 홍보 포스터



인플루언서 홍보



왕중왕전·시상식

라.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는 청년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및 기술보호 바우처를 제공하여 청년 창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자 '청년 일자리 대책(18.3)'의 일환으로 '18년 신설되었다.

세무·회계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2개 주관기관(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을 통해 청년창업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20년에는 세무·회계 및 기술보호 부문에 총 20,115개사를 지원하였다.

표 II-1-1-10 | 2020년 지원대상 선정절차

신청방법	요건/경로	지원대상 확립	입사조건
K-startup 신청	자격, 기타 요건 등 검토	우선 신청자 순으로 확립	3자 협약체결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기업

지원내용은 세무·회계 및 기술보호 부문의 바우처를 연 100만원 한도(최대 2년)로 지원하며, 세무·회계 부문은 가장대형 수수료 및 결산·조정수수료,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기술보호 부문은 기술입치 계약(갱신) 수수료로 사용할 수 있다.

'18년에 8,698개사를 지원한 이후 '19년에는 16,586개사, '20년에는 20,115개사를 지원하였고 복식부기 장부 대상자로 한정했던 지원범위를 '20년부터 간편 장부 대상자까지 확대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한 창업기업까지 지원하였다.

마.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은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기반으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는 창업지원 사업으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년 총 두 차례에 걸쳐 로컬크리에이터 팀을 모집한 결과, 신규사업임에도 경쟁률 15.7:1로 지역의 혁신 창업가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최종 280개팀의 사업화를 지원하였다.

'20년 지원결과 로컬크리에이터 77.9%가 비수도권에서 선정되어 전국 17개 사도의 자연·문화·역사적 자산을 활용한 창업지원으로 전 지역 고른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선정된 280개팀이 매출액 535억원, 신규고용 502명, 투자유치 174억원을 달성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체로서 특별히 기여하였다.

올해부터는 성장단계에 맞는 사업화지원과 함께 로컬크리에이터의 역량 강화를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간 또는 선도기업과 로컬크리에이터 간의 협업과제 지원 프로그램을 신실운영 중에 있다.

로컬크리에이터의 다양한 아이디어의 교류·융합을 통한 지역혁신을 위한 로컬 크리에이터 간 협업과제는 6개 권역별로 선정·지원하고,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판로지원확보를 위한 선도기업과의 협업과제 또한 별도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표 II-1-1-11 | 2021년 로컬크리에이터 선정 현황

구분	수도권(47개팀)			신남 (14개팀)	서남 (14개팀)	비수도권(107개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제주
합계	16	13	16	36	36	11	11	11	11
비율(%)	6.4	5.2	6.4	14.0	14.4	4.4	4.4	4.4	4.4

구분	호남권(13개팀)			충청권(47개팀)					합계
	전남	전북	전라	충청	충남	충북	충청	충남	
합계	13	15	13	10	10	9	11	9	250
비율(%)	5.2	6.0	5.2	4.0	4.0	3.6	4.4	3.6	100

구분	기초 창업팀	3년이하 창업팀	4~5년 창업팀	6~10년 창업팀	11년이상 창업팀	20년 초과창업팀	10년이상 벤처기업	합계
인원(명)	30	48	63	51	28	17	13	250
비율(%)	12.0	19.2	25.2	20.4	11.2	6.8	5.2	100

3

기술 창업 활성화

- 기술창업과 김 창 효
- 기술창업과 김 남 문
- 기술창업과 손 희 찬
- 글로벌성장정책과 김 해 인
- 기술창업과 김 원 수
- 기술창업과 이 운 호
- 창업생태계조성과 김 연 학
- 창업생태계조성과 박 금 수
- 벤처혁신정책과 정 흥 석

가.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만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유망 창업 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수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 * (창업준비) 교육 및 사업계획 검증 → (창업실행) 제품개발 및 창업사업화 → (졸업 후 연계지원)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R&D, 투자유치 연계 등 졸업 후 5년간 지원

2011년 경기도 안산에 최초 개소하였고, 지역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2018년 기존 3개소에서 전국 17개소로 확대하였으며, 2020년에는 구리 캠퍼스를 개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2021년에 광역시도 중 유일한 미설치 지역인 세종특별자치시에 추가 개소하면 전국적인 창업지원 인프라를 완성하게 된다.

그림 1 | 2021년도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현황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지원의 차원을 넘어서 청년 CEO가 도전정신과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창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입교생에게는 기업가정신 등 기본 소양교육과 함께 맞춤형 창업실무 교육을 연간 80학점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창업 전문인력을 1:1 전담교수로 배치하여 창업의 모든 단계에 걸쳐 창업자의 고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내용 〉



2017년부터 초기창업자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전 교육 및 코칭 등을 지원하는 "Pre-School 과정"과 졸업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기술 개발, 정책자금, 마케팅, 수출 등 "성장 단계별 연계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표 II-1-1-12 | 청년창업사관학교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개요

단계별	창업준비	창업실현	성장단계	인정회단계
사업단계	프리스쿨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후 5년간 후속 연계지원	
주요내용	교육·사업계획검증	사업화 지원	정책사업연계지원	사후관리

* 정책사업 연계지원 : 정책자금, B&D연계, 보육코칭, 마케팅수출, 투자유치 등

또한, 우수창업자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지역별 주력산업 및 지자체별 육성 분야와 연계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진전한 기업가정신과 기술·경영 능력을 갖춘 청년창업가를 배출 하고 있다.

표 II-1-1-13 | 청년 CEO 양성 규모

(단위 : 명)

구분	신발	퇴교	졸업	비고
2011년 1기	241	△29	212	졸업(12.2월)
2012년 2기	229	△16	213	졸업(13.2월)
2013년 3기	301	△47	254	졸업(14.2월)
2014년 4기	307	△23	284	졸업(15.3월)
2015년 5기	278	△26	252	졸업(16.2월)
2016년 6기	324	△24	300	졸업(17.2월)
2017년 7기	500	△27	473	졸업(18.2월)
2018년 8기	1,000	△110	890	졸업(19.3월)
2019년 9기	1,000	△63	937	졸업(20.2월)
2020년 10기	1,035	△52	983	졸업(21.2월)

'20년(10기)까지 우수 청년 CEO 4,798명을 양성하여 누적 매출 4조 8,553억원, 고용창출 13,750명의 성과와 직방(1기), 토스(2기), 뱅크샐러드(2기), 글루가(6기) 등 우수 기업 배출하는 등 대한민국 청년기술창업의 대표 양성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표 II-1-1-14 |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성과

(단위 : 억원, 명, 건)

구분	'11 연간	'12 연간	'13 연간	'14 연간	'15 연간	'16 연간	'17 연간	'18 연간	'19 연간	'20 연간	합계
졸업CEO	212	213	254	284	252	300	473	890	937	983	4,798
누적매출액	7,279	10,302	4,200	8,114	3,581	2,542	3,461	4,352	3,728	2,994	48,553
고용인원	794	1,335	591	819	608	882	1,143	1,948	2,362	3,297	13,759
지재권	1,400	1,581	1,500	2,044	1,364	1,463	1,944	1,875	2,152	1,566	16,989

* 누적매출, 지재권 측정기준 : ('11~'14) '19.12월, ('15~'17) '20년 6월, ('18) '20.12월

나. 글로벌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인공지능 분야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글로벌 수준의 기술교육·보육을 제공하여 글로벌 혁신기술 스타트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0년 설립되었다.

2020년 7월 제1기 입교기업(60개사) 선정과 함께 서울 강남에 임시개소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1년 4월 G타워(서울 구로) 준공에 맞춰 정식 이전·개소하여 인근 1만 여개 벤처·창업기업과의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21년에는 기존 인공지능 분야에서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주요 지원내용으로 D.N.A 분야 기술특화 교육, 사업화 지원을 비롯하여 글로벌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 (글로벌기업) AWS, Google Cloud, NVIDIA, MS

* (글로벌 창업기업자) Techstars, 500Startups, Plug & Play, SCNV, Startupbootcamp

그림 2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3-Layers 패키지방식 창업지원체계



한편,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2020년도 예산안 특색사업 77선 선정(기재부, '19.8), 2021년도 예산안 중점 프로젝트 40선에 선정(기재부, '20.9) 되었으며, 최근 청년 창업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21.5)에도 포함되는 등 사업초기부터 대내외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사업 첫해인 2021년 제1기 졸업기업(60개사)의 경우 7개월의 짧은 사업와 기간에도 불구하고 총 매출액 84억원, 고용창출 144명, 투자유치 59억원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세계 최대 인공지능 경진대회 플랫폼인 캐글(Kaggle)에서 동메달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글로벌 창업지원의 대표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다.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팁스(TIPS)는 기술창업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스라엘 TIP(Tech Incubator Program)을 벤치마킹하여 지난 '13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기술창업육성 플랫폼'이다. 민간의 유망 기술창업기업 선별, 보육역량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와 매칭한 기술개발 사업화자금을 연계지원하는 종합 육성지원 프로그램으로, 초기 기술창업기업에게 필요한 R&D 및 사업화·마케팅 자금은 물론 기술사업화를 위한 멘토링, 후속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3 |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 사업 구조(TIPS)

본행사 선정	창업기업 선정	보육/멘토링	졸업/후속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경쟁 방식 • 사업자 선별 • (제1차 5~10개) • 민간투자사업(이하) 주도 • 5인원 이하 개인/초기창업 • 운영기간: 6년 • (3년 +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창업기업 선정 • 1차: 본행사(인큐베이션) 과제심사(10~15개사) • 2차: 정부심사(1개사) • 우수(2회 4회 4회) • 재차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기간: 2~3년 • 투자 지원 • 운영비: 1~2억원 내외 • 정부: 5억원(OA/OI) • 최대 2억원(자기연계) • 파일스톤 관리, 멘토투자, 적극적인 멘토링 • 지원율 조건 • 창업기업 60% 이상 • 운영비 3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조건(4개 미만) • 후속투자 약 20억원 이상 • KISA 연계 • IPO(코스닥 상장) • 수천 개월 10억원 이상 • 운영 수월 10인원 이상 • 도시근로자 20명 이상 • 성공 시 기술로 성공 • 후속지원: 연평균 7%

* 성공판정 시 정부 R&D지원금의 최대 2개(경상기술로) 상한

팁스(TIPS)에서는 엔젤투자사, 벤처캐피탈, 성공벤처인 등이 주도하는 민간 투자사 중 투자, 보육, 멘토링 역량이 우수한 투자사(창업기획사)를 팁스 운영사(최초 지정 3년 후 중간평가를 통하여 3년 연장 가능)로 선정하고 창업기업 추천권(T/O)을 부여한 후, 운영사가 투자 및 추천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선정평가를 통하여 팁스 지원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운영사는 유망한 기술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부여받은 창업기업 추천권 내에서 2억 원 내외의 선투자²⁾ 후 정부에 추천을 할 수 있으며, 선정된 창업기업은 운영사의 보육공간(BU) 또는 팁스타운에 입주하여, 밀착보육 및 성공사업화를 위한 멘토링을 받으며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한다.

팁스에 선정된 창업기업은 운영사가 투자한 엔젤투자금 이외에, R&D자금(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창업기업의 필요에 따라 평가를 통하여 창업사업화자금(최대 1억 원), 해외마케팅자금(최대 1억 원) 등 사업화자금을 연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초기 자본은 없으나 혁신 기술로 무장한 유망 창업기업에게 과감한 창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급 기술 인력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2021년에는 상하반기 신규 운영사 공모를 통하여 17개 내외의 신규 운영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총 9개의 신규 운영사가 추가되어, 2020년 12월말 기준 61개 운영사, 1,234개 창업기업이 선정되어 엔젤투자 2,712억원, 정부R&D 4,800억원, 창업사업화자금 664억원, 해외마케팅자금 459억원이 투자·지원되었다.

코스닥 상장사(디티엔씨)가 설립한 초기 벤처캐피탈인 '디티엔인베스트먼트', 성공벤처인인 권혁빈 의장(스마일게이트)이 참여하는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등 우수 역량을 보유한 운영사가 20년에 신규로 참여하여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 보육 등 성공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지방 소재 운영사 5개사가 참여³⁾함에 따라 비수도권 내 기술창업기업의 팁스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성공벤처인 등 민간이 주도하는 액셀러레이터 및 멘델투자회사(영인멘델, 멘델투자재단, 초기전문 VC 등)연구중심대학, 기술자주사, 출연연, 국내외 액셀러레이터 등 컨소시엄 포함
- 3) '투자확약'도 추천 가능하나, 협약단계 이전 투자계약 및 투자금입금이 완료되어야 최종 협약이 간행됨(이메일 시, 협약 취소)
- 4) (경북) 포스코기술주주, 대구지역대학출신기술주주, (충남) JB벤처스

엔젤투자회사(재단) 23개, 초기전문VC 18개 등으로 구성⁵⁾된 TIPS운영사는 성공 창업인, 엔젤투자전문가, 보육멘토링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어, 성공 창업에 대한 노하우를 창업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

표 II-1-1-15 | 운영사 및 보육공간 현황

구분	진소사업 주권자	대표	성공벤처(기업) 협력기관	보육공간
1차 (13년 8월)	키이트창업가재단	김철환	김철환이미치엔터테인먼트(주) + KAIST	카이스트대전 팁스타운
	카카오벤처스	정신아	김병수(카카오) + 서울대학교기술자주	서울대기술자주 팁스타운
2차 (14년 2월)	본엔젤스 벤처파트너스	김석훈	정병규(네오위즈) + 디딤나무생관청년창업재단	디딤나무 팁스타운
	유저플레이	류종희	류종희(유저플레이) + KETI전자부품연구원 + 네오블라이	전자부품연구원 팁스타운
	클리치코너 인베스트먼트	강신혁	BootstrapLab(실리콘밸리 엑셀러레이터) + 광주테크노파크	광주테크노파크 팁스타운
3차 (14년 7월)	피엔벤처파트너스	심재희	엔젤스	팁스타운
	엑트너랩	조인체	Lab X(실리콘밸리 엑셀러레이터) + 인텔 + SK텔레콤	팁스타운
	포스콘	최정우	포스콘 계열사 + 모형창조경제혁신센터	포스코센터 (서울) 모형혁신센터
4차 (15년 3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이용관	이용관(플라즈마트) + 미래과학기술자주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스테이션니오 + 시락점	스테이션니오 한국과학기술원 시락점 팁스타운
	BSK 인베스트먼트	백승권	차기철(안바디) + 이민화(메디슨) + 디지털병원수술시업협동조합 + 벤처기업협회SM	벤처기업협회 SM 팁스타운
	현대자동차	이원희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차제 B 광주혁신센터
	에트리홀딩스	윤상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대전)
5차 (15년 11월)	인포뱅크	박태형	박태형(인포뱅크) + 뚝섬리 + 관계시스 + 크리스탈바이오사이언스 + 우정바이오	차제 B(경기)
	카이스트 청년창업투자자주	정희훈	피엔티테크 + 행복나눔재단(SK) + 카이스트창업양자R&D센터 + 민플레이 + SK사회적기치연구원	카이스트창업원 (서울) 팁스타운

5) 엔젤투자회사 23개, 초기전문VC 18개, 선도벤처 7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3개, 대기업 2개, 혁신센터 1개, 글로벌투자보육기관 3개로 구성

구분	연소사업 추진사	대표	상공부지원기관 협력기관	보육공간
6차 (18년 11월)	선보엔젤파트너스	최영찬 오종훈	울산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 + 부산TP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 B(부산) 울산과학기술원 울산혁신센터 광주과학기술원
	스프링랩프	최인규	-	자체 B(서울)
	충북창조경제 혁신센터	안태성	LG전자 + LG생활건강 + LGU+ + 충북TP + 충북지식산업진흥원 + 충북신용보증재단 + 중소기업진흥공단충북지부 +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 청주삼공과의소	자체 B(충북)
	케이런벤처스	권재중	이투스 + 성균관대 + 테크코드엑셀러레이터코리아	성균관대경기
	모스텍기술지주	유주현	모험공대 + 모스텍 기업협약체 + 모스텍 연합클럽 + 아이디어브릿지파트너스	모험공대 립스타운
	시너지아이비투자	이건영	오즈마그넘코리아	자체 B(경기)
츄츄	손지훈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LSK인베스트먼트	유전공학연구소 생명공학연구원 강원혁신센터	
7차 (17년 7월)	마그나 인베스트먼트	빅기일 김세현	동국재약 + (H)SODIE CAPITAL + 진학어플라이 + 연세대 + 한국자동차연구원 + 시공간이피씨	연세대(서울)
	빅뱅엔젤스	황병선	편화출당스 + 경북대	경북대
	아이빌트	이준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고려대 + 충북수출클럽 + 비피메이커스클럽 + 이노보스 + HFG + 케이엑셀러레이터	자체 B(세종) 호서대
	에버그린 투자파트너스	홍종국	아이메셋 + 아이피텍코리아 + 송실대 + 연세대 + 이그나이트 + Church&State	송실대 연세대(서울)
	코맥스벤처리스	변우석	코맥스 + 와디즈	자체 B(경기) 립스타운
	립솔리벤처스	이정훈	한국기술벤처재단 + 전남대기술지주 + SY101벤처파트너스 + 어벨벤처스 + 리앤룩독허법인 + 케이디벤처팜 + 서울대학교 벤처경영기업가센터	자체 B 케이디벤처팜
	KB인베스트먼트	김종필	KB금융지주 + 로아인벤처랩	자체 B(서울)
고려대학교 기술지주	장재수	고려대의료원 + 아이파트너즈 +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 KJ글로벌센터 +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자체 B(서울) 아이파트너즈	

구분	연수사업 주권사	대표	상호협력기관/기업 협력기관	보육공간
8차 (18년 6월)	매쉬업엔젤스	이택경	(미)에이슨캐피탈 + 슈피드 + 패스트파이브	패스트파이브 힙스타운
	메디독스벤처투자	정원호	메디독스	차체 B(경기)
	서울대학교 기술자주	독승환	서울대 + (미)Church and State Business Center	차체 B(서울) 힙스타운
	에이치지 이니셔티브	남보현	드림플러스강남센터 + 루트일렉트	드림플러스 강남센터
	인라이트벤처스	유동기	대구경제혁신센터 + 광주경제혁신센터 + (프)EuraTechnologies + 와이앤이저 + 다래전략사업화센터 + 에이전트엑스	차체 B(대구), 광주혁신센터 제주성장센터
	한양대학교 기술자주	하성규	한양대 창업지원단 + 한양증권 + 벤처기업협회 + 코스닥협회 + (미)Founders Space + (싱가폴)Gemio Ventures + brin + The GAIN, Accrete Innovation + Bridge Partners + Forence Group + HATCHI Ventures + Taiwan Accelerator + Innolab Asia	차체 B(서울)
9차 (19년 5월)	김기사랩	신영진	조이시틱 + EST soft inc. + 워크앤올 + 공개임즈	차체 B(경기)
	미래과학기술자주	김편견	카이스트 + WSV Capital	차체 B 카이스트대전
	빅에이슨캐피탈	윤필구	송영길(NComputing) + 신현성(TMON) + 이택경(매쉬업엔젤스) +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스타트업연구원	명지대(경기) 고려대(서울)
	씨엔티테크	전화성	-	차체 B(서울)
	엔피프턴파트너스	양동민 허재 류신중	엔피프턴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세종벤처파트너스 + 아이디벤처스 + 고려대학교 크럼슨창업가센터, GS삼텍스 + 마인즈랩 + Harman Connected Services + Queen Consulting Group Private Limited + CampFire + 발트코리아 + KB국민카드	차체 B 인천테크노파크
	플래티넘기술투자	이장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게이타 + 대웅경영자문차이나 + Nautilus Venture Partners	경기혁신센터

구분	연스사업 주권사	대표	성공벤처인기/기대 협력기관	보육공간
10차 (19년 9월)	대덕벤처파트너스	이석훈	igniteXL + 컴퍼니에이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더존홀딩스	김용우	더존비즈온 + 커럽 + 강원도청, 강원청조경제혁신센터 + 강원TP + 강원대학교 신학협력단	자체 B(강원)
	테일라 파트너스	이승호	MFSInnovation + Longlycapita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씨앤티씨랩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경기바이오센터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창업보육센터	생명공학연구원 씨앤티씨랩
	벤처스퀘어	영승은	Rehoboth Vietnam +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 본투글로벌센터	르호봇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본투글로벌센터
	부산지역대학 연합기술지주	김종철	Saigon innovation Hub + Able Advisors + 비스퀘어 + 스마트파머 + 부산관광공사	비스퀘어 스마트파머
	슈미트	김현준	DSC인베스트먼트 + 광주청조경제혁신센터 + PHANTOM AI Inc. + LVS Corporation	자체 B(서울)
	스파크랩	김유진	이산농재단 + 스파크플러스 + 한양대학교기술지주회사 + Sparklabs Taipei + 스파크랩파트너스	마루180 스파크플러스
	캡스탈파트너스	송은강	코루프라 베스트 + 경기청조경제혁신센터	팁스타운 경기혁신센터
	프라이머	권도균	Primer Sazze GP, LLC. + 대웅제약	대웅제약 (용인, 경남)
	플랜에이저벤처스	원한경	KITA Inc. + 네오위즈사이아 + 한국무역협회 + 한국수자원공사 + 네오블라이 + 전남대기술지주회사 + 부산대기술지주회사 + 울산과학기술지주 + 중남대학교창업재단	자체 B(서울) 한국무역협회
한국과학기술지주	강훈	대전청조경제혁신센터 + SK Telecom Americas InnoPartners + 원익투자파트너스	대전혁신센터 팁스타운	
11차 (20년 8월)	대경지역대학공동 기술지주	김현우	VentureNest Partners + 경북테크노파크 + 경북청조경제혁신센터 + 대구청조경제혁신센터 +	자체B(경북), 경북테크노파크

구분	연소사업 주권사	대표	상공벤처인기엔 협력기관	보유공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영남대학교의료원 + 예프엘씨인베스트먼트 + 삼성증권 대구기업금융지점	
	더벤처스	호창성	Golden Equator Ventures + WFLNA	자재대(서울)
	다터엔 인베스트먼트	이승석	DOLOPL NEXT + Innotab Asia,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다터엔씨 + 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 + 아이피에스	경기혁신센터
	스미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남기훈	스미일게이트희망스튜디오 + 스미일게이트홀딩스 + Smilegate West + 소문신식과개상회 + Smilegate Barcelona + 서경대학교 + 전북대학교기술지주회사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오렌지팜 (서초, 신촌)
	아주아이비투자	김지환	Solista Ventures + 스파크블러즈 + 한국기술벤처재단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고려대학교의료원 +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 특허법인 다해	자재대(서울) 한국기술 벤처재단
	연세대학교 기술지주	이충용	연세대학교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부산대학교기술지주 + 러피스 + 한국컴퓨터 + 대상창업투자 + PrimerSazzePartners	자재대(서울) 서울혁신센터
	이노폴리스 파트너스	이상진	인텔 + 이다리서치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 Queen Mary Innovation + TusStar	생명공학연구원 대전혁신센터
	포스코기술투자	심동욱	POSCO INTERNATIONAL SHANGHAI + 포스코인터네셔널 +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 인덕대학교 + 송실대학교산학협력단 + 소사코리아	인덕대 송실대
	JB벤처스	유상훈	충청남도 + 충남테크노파크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한국자동차연구원 + 순천향대학교기술지주회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 + 호서대학교창업지원단 + 오픈놀 + ERA + United Ventures Agency	자재대(경북)

TIS 창업기업은 기술분야별로 정보통신 57개, 바이오·의료 36개, 전자전자 13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구성을 살펴보면 창업기업 대표자 기준으로 석·박사 비율은 60%이고, 삼성, 구글 등 국내외 대기업 경력자가 31%로 고급기술 인력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TIS 창업기업이 '20년 한 해 동안 M&A 10건, IPO 2건'(누적, M&A 25건, IPO 4건)을 포함하여 총 45개 창업기업이 약 1조 6천억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하였으며, 누적 후속투자 유치금액은 누적 약 4조 2천억원을 돌파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팀스의 보육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팀스타운은 지난 2015년 7월 개관하여, 팀스 창업기업, 운영사, 창업지원기관 등이 입주하고 있으며, 역량강화, 투자유치설명회, 창업 네트워킹, 해외진출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및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총 5개 팀스타운(해성빌딩, 명우빌딩, 현승빌딩, 태광빌딩, 화성빌딩) 30개층이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팀스 창업기업, 팀스 운영사, 창업지원 유관기관 등 87개사 66명이 상주하며 성공창업에 관한 유용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2020년에는 중기부와 포스코가 체결한 '자살한 기업(자발적 상생기업) 협약(19.5월)'의 후속조치로, 민간(포스코)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부(팀스타운)와 함께 운영하는 최초의 민관협력형 팀스타운인 '체인지업 그라운드'를 개관(20.7월)을 시작으로 자생적 창업성장 생태계를 도모하고 있다. 더불어 서울 강남구 창업가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팀스타운(중기부), 강남스타트업센터(강남구), 체인지업그라운드(포스코), 마루180(재)아산나눔재단), 4개의 창업지원 운영 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창업가거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류 및 협력 활동을 추진하며 창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창업 네트워킹(팀스잇)



역량강화 교육(팀스 아카데미)



후속투자 연계(팀스잇업)

6) M&A : 비닷닷, 브릭스컴, 리모트몬스터, 잉고플레이트, 이구루, 온코디그디어그노스체, 이닷컴체, 디카렌 바이너리리미팅, 핑키

IPO : 이오블로쿠(20.9월 코스닥 상장), 지능엔지니어(18,12월 코스닥 상장 후 20.12월 코스닥 상장)

아울러 그간 수도권 집중의 창업·벤처 붐을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비수도권 중 팀스 참여 창업기업이 가장 많은 대전 지역에 지방 최초로 팀스타운을 완공하였다. 대전팀스타운에는 창업기업들을 위한 입주 공간 뿐 만 아니라 휴게시설, 공용카페 등 다양한 편의시설 및 중대형 행사 공간 등도 함께 구축되어 있으며, 주변 대학로 등 청년들이 생활하는 공간과 인접하는 등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제2벤처붐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전 TIP스타운 조성 개요〉

- (조성위치)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 내)
- (조성규모) 지하 1층~지상 5층 (입주공간 22개)
- (입주시설) 오픈형(77석), 독립형(22개실), 카페, 수면사위실, 전시공간, 공용회의실, 중대형 행사 공간 등



라.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1) 국내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심의 기술 기반의 예비창업자 또는 기 창업자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2012년 신규로 도입되었다. 해외 액셀러레이터⁷⁾를 활용하여 창업자가 글로벌 진출 초기단계에 해외진출 가능성을 검증하고 현지에 성공적으로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세계시장을 무대로 하는 글로벌 스타벤처기업을 양성 하고자 함이다.

동 사업은 해외 액셀러레이터가 직접 선발한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에게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도록 해외 비즈니스를 위한 사전역량 강화 교육 뿐만 아니라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글로벌 피칭경진대회까지 참가 지원한다.

2012년에 미국, 중국 등 2개국을 시작으로 점차 진출 국가를 확대하여 현재 국내 창업자들의 진출 수요가 높은 6개국 8개 지역(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베이징 및 상하이,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베트남 하노이, 러시아 모스크바)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7) 해외 액셀러레이터 : 해외에 거점을 두고 창업기업의 멘토링, 창업공간, 초기투자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창업육성 전문회사 및 기관으로 본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창업기업에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탐색 지원

동 사업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총 569개 창업기업을 지원하였으며 1,956억원의 매출액과 1,919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1,684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나타내었다.

표 II-1-1-15 : 국내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 성과

(단위 : 억원, 명, 건)

연 도	예산	실적	투자유치	매출	고용
2011	8.3	20	109	88.3	11
2012	31	39	88.3	91.4	91
2013	20	28	91.1	25.9	30
2014	30	56	170.1	260	76
2015	33	62	91.5	249.4	235
2016	100	113	707.5	296.5	579
2017	33	65	101.9	370.3	318
2018	38.7	70	210.9	308.0	347
2019	27.9	58	59.7	101.5	85
2020	34	58	54.2	163.4	149
합계	355.9	569	1,684.2	1,955.6	1,919

* 2011년 시범사업



글로벌 밀착 캠프링



글로벌 네트워킹



프로그램 설명회 및 IR

2) 해외 유망 창업기업 국내유치 지원

우리나라의 창업비자제도 도입(2013년 10월)으로 우수 해외인력 유치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해외 유망 창업기업의 국내유치를 통한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해외 각국에서 우수 해외인력 유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들을 벤치 마킹하여 2016년부터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를 국내 최초 인바운드 프로그램 브랜드로 신규 추진된 사업이다.

동 사업은 7년 미만의 해외 스타트업 혹은 외국인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국내 기술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산업의 신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우수한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기술창업자를 발굴하여 국내 창업활동을 지원한다.

참) 미국 스타트업 3.0,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싱가포르 스타트업 릴레이 등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해외 유망 창업기업 국내유치 지원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총 255개 팀(117개국) 지원, 국내법인 설립 102개, 창업비자취득 190건 등의 성과를 나타내었다.

표 II-1-1-17 | 해외 유망 창업기업 국내유치 지원성과

(단위 : 억원, 명(개), 건)

연 도	예산	선정(국가)	국내법인설립	창업비자취득	창업비자
2016	50	40 (21)	18	16	2
2017	45.8	49 (21)	23	18	8
2018	73.8	73 (31)	34	39	18
2019	44	38 (20)	14	17	13
2020	60	55 (24)	13	59	0
합계	273.6	255(117)	102	149	41

* 2020년 12월 기준

마.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 창업자의 시제품 개발, 마케팅 등 초기 창업사업화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지원 역량을 보유한 53개 전문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일반분야(주 기술 분야)', '특화분야(4차산업혁명 등)'로 구분하여 예비창업자 발굴·육성을 담당한다.

특히, '특화분야'는 각 부처의 전문역량을 활용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소관부처가 추천하는 산하·유관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였고, 부처 협력을 통한 유망 예비 창업자 발굴·육성을 위하여 '병부처 추진단'을 결성(19.4)하였다.

* 참여부처 : 과기부, 산자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금융위, 산림청, 특허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비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화 자금과 함께 창업교육(40시간)을 제공하고, 창업·경영 전반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전담멘토로 1:1 매칭하여 진도점검, 사업자문 등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밀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19년초, 창업 사업화 지원체계가 '예비(예비창업자)-초기(창업 3년 이내기업)-도약(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개편되면서, 예비창업패키지는 청년 예산으로만 편성되어만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19년 추경을 통해 중장년 예비창업자를 지원하여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였다.

'18년에는 1,512명을 지원하여 협약기간 (10개월)동안 1,476개사 창업(창업률 97.6%), 일자리 4,299명, 매출 736억원, 투자유치 156억원의 성과를 나타내었고, '19년은 2,207명(청년 1,707명, 중장년 500명), '20년은 2,300명(청년 1,482명, 중장년 818명)을 지원하고 있다.

표 11-1-1-18 | 예비창업패키지 주요실적 및 성과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예산	신청	지원	창업	일자리	매출	투자	
2018년 (청년)	101,300	6,677	1,512	1,476	4,299	73,625	15,680	
2019년	청년	101,050	6,624	1,707	1,641	4,346	43,465	8,320
	중장년	31,800	1,779	500	494	1,232	18,468	6,589
2020년	140,184	15,932	2,300	21.8월 지원종료 후 최종점검을 통해 성과조사				
2021년	100,246	8,488	1,530	22.8월 지원종료 후 최종점검을 통해 성과조사				

바. 초기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유망 창업기업에게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초기 창업기업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초기창업기업의 사업안정화 및 성장축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8년도까지 운영되던 "창업선도대학, 세대융합캠퍼스 및 장년서포터즈, 스마트벤처 캠퍼스" 사업을 초기단계 창업기업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19년부터 단계별(예비→초기→도약)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년에는 권역별 창업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여 주관기관을 정비(53개→40개)하여 전국에 균형있게 배정하였으며, 주관기관 소재 권역 내 창업기업 의무선발 비율(70%)을 적용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표 II-1-1-19 | 초기창업 패키지 주관기관 현황 (40개)

수도권(16)			비수도권(22)				
서울대	경기대	인천대	충청영남	호남영남	동남영남	대경영남	강원영남
간국대	가천대	인천대	대전충청센터	광주대	동서대	경북대	가톨릭관동대
고려대	경기대	인하대	순천향대	군산대	부경대	대구대	
서울대	단국대	인천TP	충북대	순천대	부산대	대구중앙센터	
송실대	성균관대		한국수자원	전남대기술	울산대		
씨엔티테크	수원대		공사	치주	영선대		
연희프턴	한국신기대		한남대	전북대			
연세대			한밭대	전주대			
인덕대				엑스텔로지			
한양대							

'20년도에는 1,145억원(추경 70억 포함)의 예산으로 40개 주관기관을 통해 1,111개 기업(추경 100개 포함)을 발굴 육성하였으며, 주관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초기 창업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였다.

* 특화프로그램 : 마케팅, 인증, 재무회계 및 지적권 보호, 네트워킹 및 교류회 등

표 II-1-1-20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지원성과 (추경 포함)

(단위 : 백만원, 명, 건)

구분	예산	신청	지원	채호	일자리
2019년	118,080	6,898	1,078	489,218	4,199
2020년	114,500	13,103	1,111	830,085	5,802
합계	232,580	22,001	2,189	1,319,303	10,001

* '20년 최종성과 조사 중(-'21.8월)

사. 창업도약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도약단계(3~7년차) 창업기업의 '스케일업' 및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선정된 창업자에게 사업모델(BM) 혁신, 국내외 시장전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5년도에 90억원 예산 규모로 시행 추진한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20년 1,275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확대되었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 창업기업' 발굴·집중지원을 위해 사업화 지원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화 지원의 경우 혁신성장과 스케일업이 가능토록 최대 3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R&D사업 연계(2년간, 2+2억원)를 통해 최대 7억원까지 지원하여 운영하였고, 성장촉진 프로그램의 경우 수출, 상당,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이 자금난을 극복하고 빠른 수익창출과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II-1-1-21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지원성과(사업화 기준)

(단위 : 억원, 명, 건)

구분	인원	건수	매출	일자리
2016년	883	160	985	765
2017년	2,524	813	9,908	6,993
2018년	1,327	441	5,399	3,806
2019년	2,613	435	9,844	7,657
2020년	3,452	760	-	-
합계	10,599	2,609	26,136	19,413

* '20년 사업 진행 중('21.10월경 최종 성과조사 예정)

'19년 구글과 연계하여 게임앱 창업기업의 콘텐츠 완성부터 글로벌 시장 안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구' 프로그램을 신설한 뒤, '20년에는 글로벌 협업 기업수를 확대(1개사→5개사, 구글, 엔비디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다쏘시스템)하여 신산업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였다.

표 II-1-1-22 | 20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지원 체계도

〈 지원 절차 〉



아. 혁신분야창업패키지

1)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아자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가가치 향상과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전반에 파급되어 제조업을 혁신하는 원동력이다. 01년 소재부품특별법 제정 이후,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생산 3배, 수출 5배 증가 등 외형이 크게 성장하였으나 범용제품 위주의 추격형 전략과 압축 성장으로, 핵심 전략 품목의 안정적 대외 의존 지속, 글로벌 경쟁도 증가, 부가가치 정체 등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의 자립화·국산화 등을 통해 대외 의존을 탈피하고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19년 8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스타트업 100 → 강소기업 100 → 특화 선도기업 100'으로 이어지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육성 로드맵의 첫 단계인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사업을 2020년에 신설하였다.

이후 대·중견기업의 수요와 연결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20개사를 2020년 11월 최초로 선정하였으며, 기술개발 및 자금 지원, 대기업의 멘토링 등을 통해 선정기업의 비즈니스모델 고도화와 사업화를 지원하였다.

표 II-1-1-23 | 2020년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현황

(단위 : 개)

구분	스마트제조/디지털	차·IoT	신소재	바이오·의약품	신재생에너지	합계
후보기업	15	12	12	12	9	60
최종기업	5	4	4	4	3	20

앞으로도 2024년까지 매년 20개사씩, 총 100개사의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자립도를 제고하고 미래 산산업 핵심기술을 선점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자.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대·중견·중소·공기업이 해당 기업의 혁신역량을 활용해 사내벤처팀과 분사 창업기업을 육성하면 정부가 사업화를 지원하는 만반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으로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기업의 신규 사업 모델 발굴 및 신시장 개척의 전략 중 하나로 사내벤처 제도에 대한 관심이 지속증가 되는 추세이며, '20년 총 3차례에 걸쳐 대기업 등 운영기업 42개사를 신규로 선정하였고, 사내벤처팀(기업) 201개를 지원하였다.

'20년 부터는 분사창업기업의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에 대한 검증은 통해 안정적인 시장 적응력(Market-Fit) 확보 지원을 위한 사업화 실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운영 하였다.

실증 지원 프로그램 지원기업 중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모바일 금융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기업 코스콤의 분사기업인 주식회사 한국금융솔루션의 경우 약 2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신한카드, 한국증권금융, KB캐피탈 등으로 부터 약 37억원의 투자 유치('20년 기준, 누적)를 받았다.

이외에도 스타트업 선순환 생태계 분야의 이해도가 높은 액셀러레이터 14개사를 선정하여 분사창업기업의 사업화 성공 및 스케일업을 위한 모의IR, 멘토링 등 액셀러레이터 연계 프로그램을 신설·운영 하였다.

'21년 부터는 선정된 사내벤처팀(기업)의 원활한 후속 지원을 위해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멘토링 등 사업모델 고도화를 활발히 지원할 계획이며, '20년과 마찬가지로 사내벤처팀(기업) 200개사 내외를 지원하게 된다.

표 II-1-1-24 | 2020년 사내벤처 운영기업 및 사내벤처팀(기업) 현황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합계
운영기업수 (%)	19(18.8)	18(15.8)	50(49.5)	16(15.8)	101
창업팀(기업) (%)	54(26.8)	21(10.5)	103(51.2)	23(11.4)	201

표 B-1-1-25 | 2020년 4차연차 선정 운영기업 현황

구분	운영기업명 (10개사)
대기업 (19개사)	현대자동차, ㈜엘지씨엔에스, 롯데액셀러레이터, 엘에스전선, 신한카드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이노션,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에스케이하이닉스주식회사, SK텔레콤, 삼성전자, 엘지이노텍, ㈜우리금융지주,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 ㈜케이티씨에스, 코오롱비엔티, 벤처벨리그룹포스먼,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지에스건설(주)
중견기업 (16개사)	㈜하나금융타이어 주식회사, 코엑스, ㈜코스콤, 대상주식회사, ㈜휴맥스, ㈜한솔교육,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엔글, 한솔파인에스 주식회사, ㈜다날, 대웅제약, 체이비주식회사, 아젠드라텍, (주)티에이치엔, 보령메디앙스, 다와이오트
중소기업 (50개사)	㈜삼진엘앤디, ㈜휴넷, ㈜케이엘넷, 헬스투데이, 주식회사 패스씨앤지, ㈜프론텍, ㈜엔라인, 주식회사 현대포리텍, ㈜에이치니언, ㈜씨아이그룹, ㈜제프앤가이드, ㈜이듀, 주식회사 티제이이노베이션, ㈜버티고우게임즈, 씨엔티테크, ㈜비에스알코리아, ㈜스페이스솔루션, ㈜생파트너스, 수신아이엔티, ㈜인키움, 이니스트바이오제약, ㈜리전, 아름드리자산운용, ㈜오상헬스케어, ㈜이브자리, 나이스디앤알 주식회사, ㈜디퍼블, 워크코어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씨넷, 주식회사 메이데이파트너스, ㈜신신사, ㈜루스라이프,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에이치이공일, 주식회사 크레아, ㈜유경시스템, ㈜이너스커뮤니티, ㈜우원eng, ㈜지플러스생명과학, ㈜유원지리정보시스템, ㈜드림에이스, 주식회사 글로벌윙딩스, 서울신문사, (주)동해이엔티, 한솔인티큐브, ㈜안바다, 주식회사 워지웍스튜디오, 주식회사 플레이오트, 동진개발, 케이씨글로벌(주)
공기업 (16개사)	한국동서발전,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차. 아기유니콘200 육성 프로그램

아기유니콘200 육성 프로그램은 혁신적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선정기업에게는 신시장 조사 발굴등을 위한 시장개척자금 최대 3억원 지원 등을 통해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에는 모두 254개 기업이 신청해 요건검토 및 1차 기술편성 사업성 평가, 2차 서면평가와 최종 발표평가 등을 통해 경쟁률 6.3:1로 최종 40개사가 선정됐다.

특히, 최종 발표평가는 전문심사단과 국민심사단이 공동으로 평가해 유니콘으로의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에 더해 국민들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선정기업을 분석한 결과, 평균 업력은 3.4년 (20.4.14 기준), 평균 매출액은 33억7000만원, 평균 고용 인원은 24명으로 나타났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성 평가 A등급 이상이 40%(16개)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우수한 기업이 많았으며, 평균 투자유치 금액은 48억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ICT 및 Data·Network·AI 기반 플랫폼 분야 및 일반 제조·서비스 분야 기업(각 35.0%, 14개)이 같은 비율로 선정됐고,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은 12개사(20.4%)가 선정됐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각광받고 있는 비대면 스타트업 (70.0%, 28개)도 다수 선정됐다.

4

창업지원 인프라 운영

- 기술창업과 천 천 설
- 창업육성과 리 원 일
- 지역기업육성과 강 성 재
- 창업생태계조성과 문 중 권, 한 광 석
- 창업생태계조성과 이 동 범
- 창업육성과 문 창 석

가.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운영

과거, 창업자가 온라인 환경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 지방세 납부시스템, 국세통합시스템, 인터넷지로시스템, 4대 사회보험 연계시스템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법인설립을 위해 여러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0년 2월에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시스템인 '온라인 재택창업 시스템(<http://www.startbiz.go.kr>)'을 구축하였다.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4일에서 4일로 70% 가량 단축되었다.

표 11-1-1-26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구축 전후의 법인설립 절차 및 기간 비교

절 차	기 간	절 차	기 간
① 상호 검색	1	① 법인인감 제작	1
② 법인인감 제작	1	② 상호 검색 4대보험 등록 취업규칙 신고 법인 등록면허세 납부 법인등기신청수수료	3
③ 자본금 확인	1		
④ 법인등록세 납부	1		
⑤ 법인설립등기 신청	2	③ 4대 사회보험료 납부	0
⑥ 사업자등록 신청	6		
⑦ 4대 사회보험 가입	1	3단계	4일
⑧ 취업규칙 신고	1		
8단계	14일		

2011년에는 「상법」 개정에 따라, 무액면주식 발행기능을 추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대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설립 가능한 법인형태의 범위를 주식회사에서 합명·합자·유한·유한책임회사 등 모든 유형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2013년 9월에는 통합시스템의 이름을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0년 온라인 법인설립 건수는 12,060건으로 시스템을 도입한 첫째인 2010년 1,005건 대비 약 12배 증가하였으며, 지난 10년간 총 60,122개의 법인이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설립되었다. 또한, 시스템 방문자 수도 2010년 21만명에서 2020년 135만명으로 약 6.5배 증가하였다.

표 II-1-1-27 |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이용현황

(단위 : 건)

구분	법인설립	전자설립	방문자
2010년	1,005	18,599	206,018
2011년	1,673	35,842	216,548
2012년	2,409	51,406	262,904
2013년	3,021	51,319	322,011
2014년	4,052	58,837	585,574
2015년	5,045	60,389	584,347
2016년	6,048	61,444	565,776
2017년	7,111	48,673	522,403
2018년	8,195	49,656	538,406
2019년	9,509	64,996	993,797
2020년	12,060	74,331	1,349,375
합계	60,122	575,242	6,147,159

나. 창업보육센터(비) 운영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미약한 초기 (예비)창업기업에게 사업공간 및 기술·경영 등 보육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제고하기 위해 '98년부터 창업보육(Business Incubating)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II-1-1-28 | 최근 5년간 창업보육센터 사업 운영현황

시행시기	내 용
2016년	예산238억원, 비 지칭-운영266개 비, 지원실적운영비 186개 비, 리모델링 8개 비, 보육역량 105개 비, 비 운영성과5,840개 기업, 매출 1.9조원, 고용 19천명
2017년	예산214억원, 비 지칭-운영232개 비, 지원실적운영비 181개 비, 리모델링 15개 비, 보육역량 80개 비, 비 운영성과6,937개 기업, 매출 2.1조원, 고용 19,8천명
2018년	예산166억원, 비 지칭-운영202개 비, 지원실적운영비 197개 비, 리모델링 7개 비, 보육역량 84개 비, 비 운영성과6,290개 기업, 매출 2.2조원, 고용 21,6천명
2019년	예산148억원, 비 지칭-운영200개 비, 지원실적운영비 190개 비, 리모델링 6개 비, 보육역량 94개 비, 비 운영성과6,151개 기업, 매출 2.1조원, 고용 21.9천명
2020년	예산127억원, 비 지칭-운영259개 비, 지원실적운영비 180개 비, 리모델링 6개 비, 보육역량 90개 비, 비 운영성과6,190개 기업, 매출 2.2조원, 고용 23.4천명

2020년 말 기준, 전국 259개 창업보육센터(대학 192, 연구소 14, 정부/지자체 12, 공공기관 10, 기타 31)가 대학·연구소(79.5%) 중심으로 지정되었고, 수도권 87개소(33.5%), 비수도권 172개소(66.5%)가 운영 중에 있다.

표 II-1-1-29 | 창업보육센터 주체별 지정 현황

(단위 : 개)

합 계	대 학	연구소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기 타
259	192	14	12	10	31

표 II-1-1-30 | 창업보육센터 지역별 지정 현황

(단위 : 개)

합 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259	33	18	34	24	30	49	5	15	15	15	17	4

2020년 창업보육센터에 지원된 정부예산은 총 127억 원이며, 창업보육센터 보육공간 확충 및 환경 개선 등 리모델링비로 6억 원을 지원하였다.

표 II-1-1-31 | 창업보육센터 보육공간 확충 및 환경개선 지원 현황

(단위 : 개)

구 분		지 역		신청기관명
신규	신규지정	서울, 강원		중앙대, 영남군청
기존 비	일반건물 비전환	경기		수원대
		충북		충북보건과학대
	노후시설 개선	광주전남		동강대
		충남		선문대
		부산울산		동의대
		대구경북		경북도립대

또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위한 창업보육전문에너지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경상비 등 운영비로 75억 원과 창업보육센터별 보육역량강화, 입주기업의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교육, 멘토링 등 보육프로그램 개발·운영에 46억 원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통해 2020년도 말 기준, 전체 입주기업 매출액 2.2조원, 고용인원 2.3만 명 등의 사업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표 11-1-1-32 | 창업보육센터 운영성과

(단위 : 개사, 백만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입주기업 수	5,840	5,907	6,290	6,151	6,190
매출액	18,034	21,109	22,064	21,497	22,150
고용인원	18,975	19,847	21,693	21,943	23,476

앞으로도, 창업보육센터의 지속적인 운영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자율성과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간 연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의 창업혁신 주체들과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산업발전을 견인할 예정이다.



입주기업 교육 지원



입주기업 투자 유치대회



입주기업 우수제품 콘서트

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3층 이상) 집합건축물로서 5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며, 기존의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10년)하였다.

민간의 지식산업센터가 수도권에 집중 되어있는 반면에 우리부의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은 비수도권 도심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여 소규모 중소기업 등에게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에 선정된 지자체에게는 건립비의 70% 이내로 최대 160억 원 까지 국고를 보조할 수 있고 그 외 건립비와 부지매입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예산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 1,74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6개 센터(12차 선정)가 완공되어 운영 중이고 16개 센터는 건립중이다.

완공된 6개 센터의 입주기업은 168개사이며 입주율은 평균 88%를 나타내고 있고 고용인원은 총 1,084명이다.

표 II-1-1-33 | 지식산업센터 운영현황(2020.6)

구분	부산(북구)	대구(북구)	광주(동구)
위치	공곡동 812-6	침산동 999-1	동명동 140-7B
규모 (대지면적)	지하 1층, 지상 6층 (9,900㎡, 16,226㎡)	지하 1층, 지상 8층 (4,800㎡, 13,479㎡)	지하 1층, 지상 6층 (5,982㎡, 11,650㎡)
공사준공일	'16. 11.	'17. 10.	'16. 6.
입주기업	28개사	22개사	58개사
운영기관	부산경제진흥원	대구 제1산업단지관리공단	광주테크노파크
구분	대구(수성)	대전(중구)	충북(청주)
위치	업파사타1로 160	대동 549번지	양성리 610-13번지
규모 (대지면적)	지하 1층, 지상 6층 (5,062㎡, 13,095㎡)	지하 2층, 지상 7층 (4,150㎡, 15,550.71㎡)	지하 1층, 지상 6층 (4,000.3㎡, 8,397.49㎡)
공사준공일	'19. 3.	'20. 3.	'19. 12.
입주기업	32개사	13개사	31개사
운영기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전경제동상진흥원	한국산업진흥협회

표 II-1-1-34 | 건립중인 지식산업센터 현황

구분	2차 (15 ~ 16)	3차 (16 ~ 19)	4차 (17 ~ 20)	5차 (19 ~ 21)	6차 (19 ~ 22)
지역	대전(중구) 대구(수성구) 전주(광경동)	대구(달서구) 청주(오청동) 전주(덕진구)	포항(북구) 울산(남구) 전주(완산구)	부산(남구) 강원(원주) 충남(천안) 전남(고흥)	전남(나주) 전남(영광) 울산(중구) 강남(강원) 전북(남원) 강원(춘천)
진행사항	운영중/공사중	운영중/공사중	공사중	공사중	설계중

건립중인 16개 센터는 2차부터 6차까지 선정된 지자체로서 중기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완공할 예정이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소규모 영세기업에게 장기저가로 임대해주어 입지애로를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고용확대를 통한 생산적 일자리 창출로 관련 기업에 대해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략 업종을 우선 입주하도록 하고, 업종별 집단화를 통해 집적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입주기업 간 또는 입주기업과 외부기관(대학, 연구기관 등)간 소통, 교류 등을 위한 네트워킹 및 개방형 혁신 공간 등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라.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역의 창조경제 자원과 역량을 연계·활용하여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창업 등 지역기업 성장을 위한 말차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자율형 방식으로 빛가람(나주), 포스코(포항) 2개 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인력은 내부직원 및 지자체, 전담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파견 나온 인력을 포함하여 평균 42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멘토링, 금융·법률·특허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공모전, 교육·강연, 투자 설명회 등을 통해 창업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역기업 수요에 기반하여 파트너기업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자금, 판로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17년 7월 정부 조직개편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관리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 이후 지역창업 기반 마련 및 혁신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는 물론 대기업과의 인위적 연계 등 정부 주도에 따른 부정적 평가에 대해 '혁신 창업 생태계조성방안'(17.11.2), '창조경제혁신센터 세부 운영방안'(18.2.7)을 통해 혁신센터를 유지하되, '개방성', '자율성', '다양성'의 3대 원칙으로 운영하는 지역 창업생태계허브로서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으로 개편방향을 마련하였다.

'17년 7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관리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이 되면서 지역 창업기반 마련과 혁신문화를 확산 하는 등 긍정적인 시각과 정부주도 운영과 인위적 대기업과 창업기업의 연계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여 '혁신 창업 생태계조성방안'(17.11.2), '창조경제 혁신센터 세부 운영방안'(18.2.7)을 통해 혁신센터를 유지하되, '개방성', '자율성', '다양성'의 3대 원칙으로 운영하는 지역 창업생태계허브로서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으로 개편방향이 마련되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 재정립)

구분	현황	개선
의사결정	하향식(top-down)	상향식(bottom-up)
자원체계	대기업 경직적 매출인법지원	중견·벤처, 대학 등 자율참여상생협력
지자체 참여	자율적 참여 부족	적극적 참여·협력
센터 기능	창업, 중기지원, 특화산업 지원 등 일률부어	초기창업 + 투자기능 집중, 센터별 특화

개편 이후 정부와 대기업이 주도하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민간의 다양한 혁신주체 (20.12월, 458개)들이 참여하여, 각 센터의 네트워크 프로그램들이 질적·양적으로 확대되고 파트너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동으로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등 지속 가능한 지역창업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그간 소극적으로 참여하던 지자체들도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스스로도 지역의 투자생태계 강화를 위해 시드머니 확보, 개인투자조합 및 지역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유망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등 혁신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보다 강화되었다.

그림 4 |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전담기업 및 특화기능 현황



표 II-1-1-35 |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주요기능

	지역 (전담기업)	출생	업종	주요 기능
1	대구 (삼성)	'14.9.15	• 북구 구상성장초 평퍼스	- 무인이동체, 로봇,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 C-Fab을 메이커 문화 확산 거점으로 활용, 오픈플랫폼 기능 강화
2	대전 (SK)	'14.10.10	• KAIST 나노팩토리	- ICT, 5G, 반도체, AI, 첨단센서 - 공공기술사업화, 소셜벤처
3	전북 (효성)	'14.11.24	• 전주시 서광빌딩	- 탄소융복합, 농생명식품 - 전국 탄소융복합 및 농생명 창업 거점
4	경북 (삼성)	'14.12.17	• 구미 굿오 테크노밸리	- 하드웨어창업, ICT 융복합 스마트기기
5	광주 (현대차)	'15.1.27	• KCB 빌딩	-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 - AI, 기술창업 강화
6	충북 (LG)	'15.2.4	• 청주오송읍 SB플라자	- 바이오 - 전국 특허서비스 거점
7	부산 (롯데)	'15.3.16	• 래온대구 성당그린타워	- IoT, 영화·영상 - 국내외 유통채널, 온·오프라인 플랫폼 확대를 통한 유통 허브 기능 강화
8	경기 (KT)	'15.3.30	• 성남 판교 공공지원센터	- 자율주행, AR/VR, 핀테크, ICT - 미국, 중국 이외에 동남아, 유럽지역으로 협력거점 확대 - 중소벤처기업·지자체·대학의 글로벌 진출 진진기지로 확대 운영
9	경남 (두산)	'15.4.9	• 창원시 경남 과학기술진흥원	- 기계산업 전반으로 범위 확대, 향노화 - 경남도의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전국 혁신 센터의 기계 분야 스타트업 허브
10	강원 (네이버)	'15.5.11	• 강원대 보통관 한빛관	-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지역전략산업에 적용 - 공공서비스 혁신지원(분류체계인 도입 등), 모바일 커머스,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11	충남 (한화)	'15.5.22	• 천안아산역사, 충남TP	- 태양광, 6차산업(초기기업 판로지원에 중점) - 전국 무역지원 거점기능 강화
12	전남 (GS)	'15.6.2	• 여수 GS 별유센터	- 농수산 벤처창업, 전라, 관광/차산업, 바이오활성소재 - 농수산 유통 거점기능 강화

	지역 (진행기관)	출범	업종	주요 기능
13	제주 (카카오, 000레퍼시프)	'15.6.26	• 제주 벤처마루	- ICT 서비스 및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14	세종 (SK)	'15.6.30	• 조치원읍 SB동작자	- 스마트시티·핀, ICT, 여성창업, 농업벤처 육성
15	울산 (현대중, UNIST)	'15.7.15	• 남구 벤처빌딩	- 조선해양, 안전산업, DT, 의료바이오, 3D 프린팅 - 전국센터 안전산업 거점
16	서울 (CJ)	'15.7.17	• 용산 푸르지오세잇	- 도시라이프, 푸드테크, 패션, 문화, 디자인 - 센터간 허브 역할, 지역과 서울의 창업 지원기관 연계 등 기존 네트워크 거점 기능 확대
17	인천 (한진, KT)	'15.7.22	• 송도 마추출타워, 남구 제물포 스마트타운	- 스마트물류, 스마트시티, 바이오·헬스케어 - 중국 진출 거점
인천	모항, 광양 (포스텍)	'15.1.30 (포항)	• 포스텍 제1융합관	- 에너지, 환경, 소재 외 바이오 분야 추가 검토
		'15.8.25 (광양)	• 모항산업과학연구원 (INIST) 광양연구소	- 기술기반 벤처창업 지원 기능 강화 - 첨단 소재부품 클러스터 조성 추진 - EOD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부산물 재로화 추진
	나주 (한진)	'17.2.8	• 나주 지식산업센터	- 전력, 에너지산업(전력CT, 신재생발전, 전력기자재 등) - 에너지분야 창업 거점, 에너지밸리 활성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6:4 비율 내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년도에는 국비 308억원, 지방비 245억원을 확보하여 운영하였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 이후 기능 개편 등을 통해 창업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 다양한 실적을 내고 있으며, 이는 중기부의 다양한 창업지원사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간 연계가 강화되고 활성화된 결과이다.

표 II-1-1-36 | 창조경제혁신센터 주요 성과(2012월말, 누적)

창업기업육성	신규인원	혁신센터랜드 및 외부연계투자유치		멘토링·컨설팅·금융 # 상담지원
		투자유치	투자유치	
9,845개사	25,508명	3,665건	24,085억원	87,181명

마. 메이커 활성화 지원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창의적 융·복합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실제 창업으로 연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의 혁신성장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메이커 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창조적 혁신의 확산과 혁신성장·창업 촉진을 위한 거점 마련을 위해 2017년 11월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을 수립·발표한 후 2018년부터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을 시작하여 20년 현재 전국에 총 192개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하였다.

2020년 공모를 통해 메이커 입문 교육과 창작활동 체험을 지원하는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 62개와 전문 메이커활동과 제조창업을 연계·지원하는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 4개를 선정하여 아이디어가 창업·사업화로 연결되도록 시제품 제작, 양산 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표 11-1-137 |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현황(18~20년, 누적)

(단위: 개)

구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대구
전문형	3	1	1	-	1	-	-	-	1
일반형	30	32	8	8	7	3	10	8	8
구분	전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계
전문형	-	1	-	1	1	1	1	-	12
일반형	9	12	6	10	9	8	9	3	180

또한 20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과 병행하여 메이커의 지속 가능한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메이커 활동 및 네트워크를 적극 발굴·지원하여 메이커 문화의 사회적 저변을 확산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한 다양한 메이커 프로젝트를 선발·운영하였다.

메이커의 주도적 메이킹 창작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시제품 제작비 및 활동비를 지원하는 메이커 창작프로젝트 지원 120개, 실생활 문제를 다양한 창작활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메이커 프로젝트 동아리 지원 100개, 지역의 다양한 특성 및 규모의 메이커 행사 운영 지원 12개, 농산어촌, 도서 지역 등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5개 등 237개 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하였다.

특히 소멸위기 지역의 교육 취약계층 학생 대상 4차산업, 환경 이슈, 재활용 관련 메이킹 체험 등의 교육 운영 등 소외지역·계층 대상으로 1,200여명에게 메이커 교육과 창작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전국·지역 단위 12개 메이커 문화행사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전국적인 메이커 운동 붐 확산을 유도하였다.

또한 온·오프라인 메이커 교육 자원을 위한 메이커 관련 교육 교안 15종, 온라인 메이커 동영상 콘텐츠 100여개를 개발하고,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인력, 메이커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현장교원 등 메이커 활동을 뒷받침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829명에 대한 메이커 아카데미 온라인 연수회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간 정부는 메이커 스페이스 집중 확산 위주의 정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일반 국민의 메이커 입문교육·체험, 장비·시설 이용을 적극 지원하며 메이커 지면을 확충해왔다. 다만, 일자리·혁신의 원천인 제조창업이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앞으로는 제조 창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조업 중심 메이커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의 창업 연계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퇴직의 본격화 및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조기 퇴직한 중장년(40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년 증가하여 이들을 위한 창업지원이 시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준비 없는 창업을 할 경우 대부분 영업부진, 폐업 등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생계형 자영업(도·소매, 음식 및 숙박업 등) 분야로의 쏠림현상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들이 퇴직 전 경력, 전문성, 네트워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중장년 창업 활성화 정책을 2010년부터 실시하였다.

2014년부터는 교육내용 및 사업구조를 기술창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중장년 창업이 생계형 업종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성장가능성 높은 기술 창업으로 중장년들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경력·네트워크 전문성을 보유한 만40세 이상 중장년(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창업교육과 창업거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장년(예비)창업자에게 창업공간, 전문가 자문·상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전국에 7개소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25개소에서 27개소로 확대·운영하는 한편, 중장년의 전문성을 고려, 창업만이 아닌 창업 생태계에 적합한 역할(기술멘토, 기술강사, 투자자 등)로 참여하고 전문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0년 맞춤형 기술창업 교육과 입주공간 지원 및 보육을 통해 1,026개사 창업 기업 배출을 했고, 입주공간 지원 및 보육을 통해 매출액 1,055억 원, 고용 901명을 달성했다. 2020년부터는 중장년(예비)퇴직자가 축적한 노하우와 역량이 창업생태계 내에서 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창업뿐만 아니라 멘토, 투자자 등 지원의 폭을 넓히고 있다.

표 II-1-1-38 |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주요성과(2017~2020)

구분	창업자수	고용인원	매출액	산업재산권 (특허등 출구권)
2017년	보육 : 791명 교육 : 250명	467명	52,200백만원	196건
2018년	보육 : 741명 교육 : 212명	476명	62,064백만원	237건
2019년	보육 : 748명 교육 : 239명	436명	60,397백만원	307건
2020년	보육 : 784명 교육 : 242명	901명	105,492백만원	282건

에버리직자 기술창업
인식교육

과학기술인 특화 역량교육



전담인력 역량강화교육

5

1인 창조기업 활성화

• 창업촉진과 문창식

1인 창조기업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사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부동산 등 32개 업종 제외)으로, 기술지식 기반 1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11년 법을 제정하고 '20년에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1인 창조기업 사업과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1인 창조기업에게 사무공간 제공 및 전문가 상담·교육·네트워킹 등 원활한 사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곳으로 '09년 전국에 21개의 센터를 지정하였고, '20년 50개의 센터를 운영 중이다.

2020년 50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1,430개사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1,364건의 경영 자문과 교육 및 세미나(10,104명 참여), 네트워킹 프로그램(20,618명 참석)을 운영하였고, 1,002명의 고용 창출 및 1,769억원의 매출 성과를 달성하였다.

표 II-1-1-39 | 2020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역별 운영 현황

연도	수도권					비수도권														합계
	서울	인천	경기	충청	전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제주		
20	12	2	8	22	2	4	1	3	4	4	1	3	1	1	2	1	28	50		

표 II-1-1-40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주요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사무 공간		• 개인데스크 (1인 전용 사무공간, 서비스드오피스) • 편의시설(회의실, 빔프로젝트, 라운지, 프린트, 커피 등)
전문가 자문		• 세무, 회계, 법률, 창업, 마케팅 등 아이템 시장 멘토링 • 교육, 사업·유망산업, 파트너십 구축 정보제공 등
교육·멘토링		• 사업모델(BM) 개발 (사업계획서, 피보탈 등) • 아이템 검증, 교육·투자 등
네트·워킹		• 지역별·업종별 창조기업 네트워킹 확대 • 1인 창조기업-우수창업기업 간, 입주·출업기업간

나.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우수한 아이디어나 제품을 보유하고도 자금과 인력 등이 부족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1인 창조기업에 맞춤형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사업화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유망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범타미디어, 디자인, 광고홍보 등을 통해 제품과 아이디어를 홍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기업 당 최대 12백만원까지)

표 II-1-1-41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요 지원 내용

구분	기재	세부 지원 분야
마케팅 지원	멀티미디어	홈페이지, 모바일 앱/웹, 홍보동영상, CM송제작
	디자인	전자·종이카탈로그, 포창·포스터·제품디자인, 브랜드개발
	광고홍보	TV라디오·옥외 광고, 신문전문지 홍보, 온라인 홍보
	전시참가	국내·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부스) 지원

표 II-1-1-42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실적

(단위 : 억원, 개사, 명)

연도	예산	신청	선정	공표
2016	51.9	2,081	463	314
2017	40.0	1,829	437	752
2018	29.0	1,320	279	416
2019	15.0	1,432	150	198
2020	12.2	511	151	246

또한, 상품설명회, 구매상담회, 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마켓 입점 등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활동을 통해 1인 창조기업의 혁신제품들을 지원하여 유통채널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투자 및 MD 상담회



온라인 마켓 입점지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온라인 마켓 기획전 운영
(네이버 해피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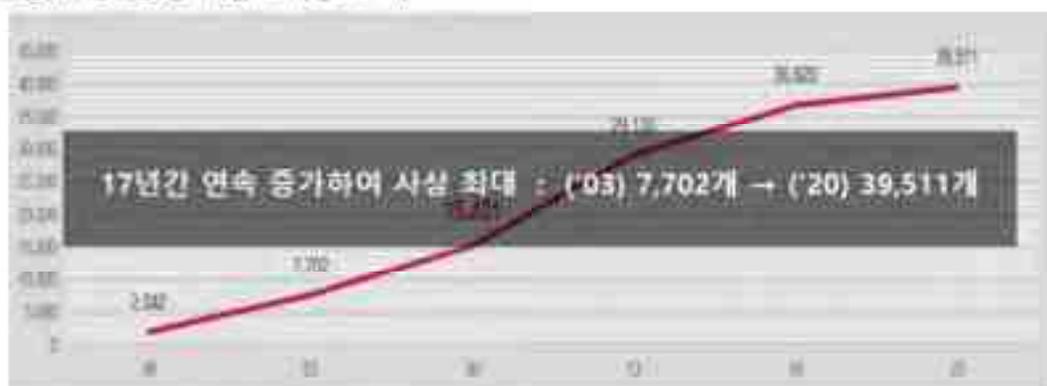
제2절 벤처열기 확산을 통한 혁신벤처국가 실현

1 벤처기업 육성 및 성장

- 벤처혁신정책과 김성훈
- 벤처혁신정책과 정홍석
- 벤처혁신정책과 김성원
- 벤처혁신정책과 양아름

그동안 벤처기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3만개를 돌파하였으며, 2020년 12월 말 기준 39,511개를 기록하고 있다. 벤처확인이 최초로 시작된 1988년 2,042개에 비해 19.3배로 성장하였다.

그림 5 | 연도별 벤처기업 추이(단위 : 개)



벤처생태계 성숙에 따라 유니콘기업도 '17년 3개에서 '18년 6개, '19년 10개, '20년 13개로 급증하였다. 유니콘기업은 벤처투자블 유치하면서 기업가치를 10억\$(약 1조원) 이상으로 평가받은 비상장기업을 의미한다.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벤처투자회사 등으로부터 5천만 원 이상 투자를 받고 그 금액이 자본금 대비 10%(문화컨텐츠 7%) 이상 되거나,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상태에서 R&D투자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매출액 대비 비중이 5~10% 이상이고 사업성 우수평가를 받거나,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8천만 원 이상 보증·대출을 받고(보증·대출 가능 결정 포함) 그 금액이 총 자산대비 9% 이상이고 기술성 우수평가를 받아야 한다.

‘20년 벤처확인기업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보증과 대출을 통해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이 각각 73.6%, 11.5%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표 II-1-2-1 | 유형별 벤처기업수(2020년)

구분	합계	벤처투자	기술개발보증	기술개발대출	연구개발	예비벤처
업체수(%)	38,511(100)	2,888(7.3)	29,062(73.6)	4,553(11.5)	2,888(7.3)	122(0.3)

가. 벤처기업 성과

벤처기업은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성장하였다. ‘19년 말 기준 벤처기업의 전체 고용은 82.4만명으로 우리나라 4대그룹 고용 66.8만명 보다 13.6만명이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벤처기업의 정규직 비율은 전년(96.0→99.1%) 보다 3.1%p 증가했으며, 비정규직은 기업당 평균 0.2명으로 ‘18년 0.8명보다 감소하여 고용의 질과 안정화에 기여했다

- * 4대 그룹 상시근로자(출처 : 기업집단모형) : (‘18년말) 64.7만명 → (‘19년말) 66.8만명
 - (‘18년말) ①삼성(24.2만) ②현대차(16.3만) ③LG(13.0만) ④SK(9.2만) → (‘19년말) ①삼성(23.0만) ②현대차(16.2만) ③LG(13.2만) ④SK(10.4만)

또한 창업 이후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세계 일류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에 과감하게 도전하여 매출 1천억 원 이상까지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벤처출신 매출 천억 달성기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474개였던 매출 1천억 원 이상 벤처천억기업은 2019년 617개로 2015년 대비 143개사 증가했다. 1조 벤처천억기업도 2015년 6개에서 2019년 13개로 증가했으며, 특히 2008년 매출 1조원을 돌파한 네이버(주)는 11년 연속 1조원의 매출을 유지했다. 그 외 1조 벤처천억기업은 교원아중, (주)유라코퍼레이션, (주)엔씨소프트, (주)카카오 등이 있다.

2019년 벤처천억기업들의 총매출액은 140조원으로 2015년 101조원에 비해 38.6% 증가하였으며, 벤처천억기업들 중에서는 매출액 1-2천억 원 미만 기업이 대다수 (67.4%)를 차지하였다.

표 11-1-2-2 | 연도별 벤처창업기업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기업수계	202	242	315	381	416	453	460	474	513	572	587	617
매출액조천	40.1	47.8	65.1	77.8	89.2	101.2	98.9	100.9	107	130	134	140

4차 산업 혁명 추세를 반영하고, 벤처기업 지속성장과 기업의욕 고취를 위해 벤처 확인제도를 민간중심으로 '21년 2월에 개편하였다.

'21년 2월까지 시행한 벤처확인제도는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 선별방식으로 제도 안정성, 벤처기업 확산에는 기여했으나, 급격한 기술혁신 시대의 추세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18.1월 민간주도의 벤처생태계 혁신 대책」을 통해 벤처확인 주체를 기존 공공기관에서 민간 벤처전문가로 변경하고 기술 혁신성 및 성장성에 중점을 두고 벤처확인 하도록 유형을 개편하는 세부계획을 발표 하였으며, '20.2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를 통과 하였으며, 하위 법령이 '20.5월에 개정되어 '21.2월부터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로 새롭게 제도가 변화되었다.

나. 벤처기업 지원현황

벤처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0.9%(19, 3.6만개/381만개)에 불과한 수준이나 전체 고용인원의 4.1%(19, 81만 명/1,771만 명), 전체 수출액의 3.2%(18, 192억불/6,050억불)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 및 사업성을 바탕으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 평균 근로자수는 22.2명(19)으로 일반 중소기업(4명)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0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결과, 벤처기업 평균업력은 11년이고, 기업 성장단계는 성장기가 32.9%(11,993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초기성장기 31.8%(11,592개), 고도성장기 30.9%(11,298개), 창업기 2.6%(1934개), 쇠퇴기 1.9%(687개) 순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조달 및 운용 애로'가 75.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국내 판로개척 애로' 66.6%,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60.2%, '해외시장 개척' 49.3%,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는 이러한 애로 사항을 중심으로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1) 벤처기업 인력지원

정부는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우수인력의 벤처기업으로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도부터 벤처기업 공동채용 및 공동훈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벤처기업 공동채용사업은 벤처기업들의 부정기적인 소규모 개별모집 방식에서 탈피하여, 각 기업별 수요를 모으고 기간을 장하여 공동으로 인재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사업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채용기업들의 사격을 매출액, 성장률, 연봉수준이 높은 우수한 벤처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및 대학생 등의 관심 유도와 함께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제고 효과도 꾀하고 있다.

2020년도는 벤처기업에 총 3,787명을 채용 연계해 당초 채용목표인 3,490명을 8.5%p 초과 달성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전년과 동일 예산 규모이지만 최근 3년간 평균 채용인원을 감안하여, 3,550명으로 목표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동훈련 지원사업은 벤처기업 신입 직원들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이해와 이직률을 낮추고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대면교육 참여부담에도 불구하고 280명을 교육하였다.

중소기업연구원을 통해 벤처기업 인력지원 사업 수혜기업을 조사한 결과 비수혜기업 대비 수혜기업의 매출증가율은 지원 당해에 4.3%, 지원 1년차 8.0%, 지원 2년차에 10.1%이며, 고용증가율 역시 지원당해 6.8%, 지원 1년차 9.2%, 2년차에 10.0%로 나타나, 지원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등 벤처기업 경영개선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여성벤처 활성화

여성벤처기업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20년 말 기준 3,950개사로 전체(39,511개사)의 10.4% 수준에 불과하여 경쟁력 제고와 창업 활성화 지원을 통해 벤처기업의 균형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벤처CEO를 꿈꾸는 예비창업자에게 비즈플랜 캠프 → 선배 CEO 밀착코칭 → 사업화 애로해결지원 등 단계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실제 창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실전 경험이 없는 예비창업자들이 여성벤처 선배CEO 1:1 코칭을 통해 부족한 시장정보를 얻고 사업방향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5년간('16~'20년) 총 120명(80.0%)의 창업자를 배출했으며, '20년 창업자 중 기술지식기반 업종 비중이 72.7%에 달하며 여성의 기술기반창업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여성벤처 CEO 및 임직원 대상의 혁신아카데미를 권역별로 개최하여 기술 및 경영관련 정보 등을 제공,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총 1,027명이 참가했다.

2021년에는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실전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콘테스트 방식으로 변경하고 콘테스트의 각 단계를 통과한 선정자에게 아이디어의 시장 검증과 구체화를 위한 전문가 교육과 다양한 분야의 선배 여성벤처 최고경영자(CEO)와 1:1로 매칭해 시장 맞춤형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여성벤처기업 혁신을 위한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변화 트렌드에 맞춰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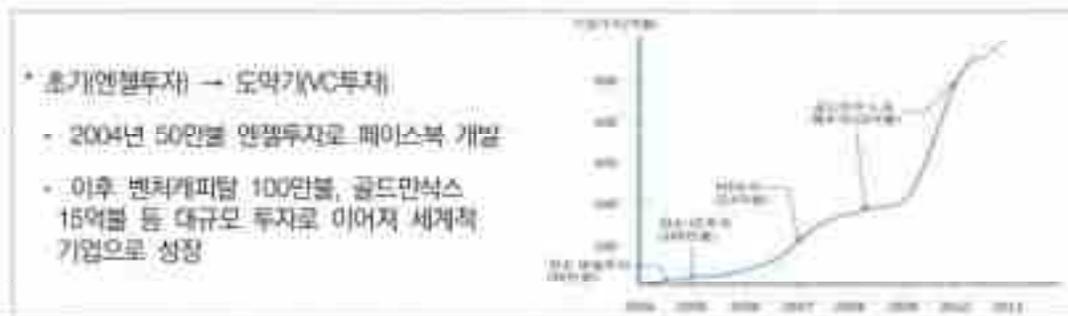
벤처투자 현황

- 투자회사관리과 신 규 호
- 투자회사관리과 윤 원 민

벤처투자는 담보나 상환부담이 없고 성공시의 이익뿐만 아니라 실패시의 책임도 투자자와 함께 공유하는 특성이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벤처기업에게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방식 중 가장 유용한 자금이다.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이 잠재력 있는 창업기업을 먼저 발굴하고 투자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6 | 미국의 벤처투자 성공사례 : 페이스북



2020년 우리나라의 신규 벤처펀드의 조성 규모는 6조 5,676억 원으로 전년 4조 2,433억 원 대비 약 54.8% 증가하였고, 신규 투자 금액은 4조 3,045억 원으로 전년 4조 2,777억 원 대비 약 0.6% 증가하며 펀드결성, 투자금액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여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벤처투자 시장 활황은 이어지고 있다.

표 II-1-2-3 | 연도별 신규 벤처캐피탈투자(VC) 규모

(단위 : 개사,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투자업체수	613	688	755	901	1,045	1,191	1,266	1,399	1,608	2,130
투자금액	12,608	12,333	13,845	16,393	20,858	21,503	23,803	34,249	42,777	43,045

※ 벤처펀드 규모 및 신규투자 집계는 중기부에 등록하는 엔젤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및 한국엔젤투자조합 기준임

2019년 엔젤투자¹⁹⁾ 투자규모도 제1 벤처붐 시절인 2000년 5,493억 원 수준에 가까운 5,431억 원으로 2010년 341억 원 수준보다 약 16배 증가하였다.

또한 2020년 최대 실적을 기록한 6.6조원의 펀드결성을 통한 풍부한 투자 여력,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유망 업종으로 떠오른 바이오·의료, ICT서비스 등의 투자 증가, 코스닥 1천 돌파로 더욱 커진 회수시장에 대한 기대감 등이 투자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표 II-1-2-4 | 연도별 신규 벤처투자조합 결성 현황(20년말 기준)

(단위 : 개,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조합수	66	41	55	82	108	120	154	146	170	206
결성금액	21,106	6,817	16,241	26,100	25,964	37,793	45,881	48,470	42,433	65,676

19) 엔젤투입 등에 의한 개인의 직접투자 및 개인투자조합 투자 기준

3

벤처투자 확대

- 벤처투자과 이 창 연
- 투자허수관리과 서 정 남
- 벤처투자과 김 정 훈

가. 모태펀드 운영

정부는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05년 중소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민간의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전용기금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2020년까지 총 5조 8,482억원의 재원을 조성하였다.

표 II-1-2-5 | 모태조합 조성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5년~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계
계	22,302	2,130	8,750	8,115	4,900	10,285		58,482
중기부	13,181	1,000	6,300	4,500	2,900	10,000		39,881

그간 모태조합을 통해 조성된 자펀드는 881개, 총 28조 4,475억원 조성('05.6~'20.12월, 누계)이며, 총 7,333개사 중소기업에 21조 4,033억 원을 투자하였다.

특히 '20년 3조 5,855억 원 규모 모태자펀드 신규 조성 및 모태자펀드를 통한 신규 투자 3조 1,985억원으로 집계되어,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20년 역대 최대 벤처펀드 결성(6조 5,676억원) 및 신규벤처투자(4조 3,045억원) 등 벤처투자시장의 열기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는데 모태펀드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2-6 | 모태조합 자조합 결성 및 투자 현황('20년 말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계
결성	27,167	34,402	31,455	28,012				121,036
투자	17,393	17,947	24,360	30,891				90,591

나. 엔젤투자 활성화

엔젤투자는 제1벤처붐 시절인 2000년에 5,493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IT 버블이 꺼지면서 엔젤투자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361억원 까지 급감하였다.

이에 엔젤투자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 하였고 2017년 11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따라 엔젤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여 기존 1,500만원까지 받던 소득공제 100% 혜택을 3천만원까지 확대하고 3천만원에서 5천 만원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50%에서 70%로 확대하였다.

표 II-1-2-7 | 엔젤투자 소득공제 현황

기존		→	엔젤투자액, 시총	
1500만원 이하	100%	→	3,000만원 이하	100%
1,500-5,000만원	50%	→	3,000-5,000만원	70%
5,000만원 초과	30%		5,000만원 초과	30%

공제 대상기업도 기존 벤처기업, 기술성 우수 평가 창업초기기업에서 연구개발비 3천만 원 이상 창업초기기업, 신용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등을 추가하여 엔젤투자 세제혜택 대상기업도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엔젤투자 소득공제,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은 2020년 말에 일몰되기에 이를 '22년 말까지 연장하고 소득공제금액 확대 등에 대한 세제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9년 3월 「제2벤처붐 확산전략」에서는 엔젤투자 확충을 위해 엔젤투자 연계보 증제도를 시행하고 엔젤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엔펠세인더리 전용펀드 확대 및 벤처캐피탈이 엔젤투자자의 지분 인수시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 등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엔젤투자자가 창업초기기업에 선투자 후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엔젤투자 매칭펀드는 2012년에 1,920억원을 조성하여 2020년 말까지 616개사에 1,026억원의 매칭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엔젤투자매칭펀드를 받은 기업은 VC 후속투자까지 연결되며 성장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20년까지 엔젤투자 매칭펀드로부터 투자 받은 기업의 약 49%가 VC로부터 총 4,059억원의 후속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엔젤투자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서 엔젤투자매칭펀드 투자금액 상향, 전문엔젤 배칭 비율 상향, 기보가 보증하는 엔젤플러스 규모 등을 높여 엔젤투자 지원사업을 확대 하고 있다.

2020년 8월 「벤처투자법」을 개정하면서 엔젤투자 시장을 선도할 전문가 그룹 육성을 위해 창업기회자에게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등 투자기능을 강화하였고 전문엔젤의 위상강화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였다.

개인의 엔젤투자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는 초기투자 활성화 IR,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IR, 온라인 엔젤포럼 개최 등 온·오프라인 투자기회 확대를 통해 기업과의 상시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엔젤투자지역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엔젤투자 허브' 구축 예산을 4년여 만에 첫 확보하여 '21년도부터 2개 광역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엔젤투자의 글로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국제 엔젤포럼(CABAF)을 '20.11월에 부산에서 개최온라인 6개국 참여하여 글로벌 투자역량 함양 및 네트워크 구축을 하였다.

* '10년부터 매년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국제포럼으로, 한국은 '16년(서울)에 이어 2번째 개최

엔젤투자 활성화 추진에 따라 엔젤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된 엔젤투자자 수는 2020년에 2,964명이 증가하여 총 24,139명에 이르렀으며, 엔젤클럽도 2020년에 10개가 신규 결성되어 총 254개의 엔젤클럽이 활동 중이다.

창업기회자는 2017년 1호 등록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여 2020년 말에는 308개사가 등록하여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진행 중이다.

* 년도별 등록현황 : '17년도 50개사, '18년도 79개사, '19년도 78개사, '20년도 101개사

창업기획자의 투자 금액은 2017년 163억원, 2018년 495억원, 2019년 974억원, 2020년 1,385억원으로 매년 투자 금액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 재원은 본계정 투자에서 조합 결성을 통한 투자로 변경되고 있는 추세다.

표 II-1-2-8 | 연도별 창업기획자 투자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본계정	조합	소계									
금액(억원)	100	59	163	211	284	495	290	678	974	319	1,065	1,385
	(61.3%)	(36.0%)	(100%)	(40.8%)	(57.4%)	(100%)	(58.3%)	(89.7%)	(100%)	(23.1%)	(76.9%)	(100%)
기업 (개사)	53	50	103	185	220	405	272	455	727	315	621	936
	(60.4%)	(57.0%)	(100%)	(46.8%)	(54.2%)	(100%)	(67.4%)	(60.3%)	(100%)	(33.3%)	(49.7%)	(100%)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이러한 엔젤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2018년 엔젤투자금액*은 6,276억원으로 18년 만에 제1벤처붐 시절(’00) 5,493억원을 돌파하였으며 이는 2018년도 부터 시행된 세제 혜택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고 전문엔젤과 창업기획자 등 전문투자가 그룹이 늘면서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및 투자가 급증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 엔젤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투자 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중 선택적으로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여 '18년 투자는 '18 - '21년까지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

표 II-1-2-9 | 엔젤투자 실적산규

(단위 : 억원, 개사)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투자금액	5,400	3,402	959	2,048	2,586	3,325	6,105	5,431
기업수	1,291	1,007	251	455	546	700	1,228	1,402

4

회수시장 활성화

• 벤처투자자 이종민

2020년 글로벌 M&A 시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전년도 대비 6.6%가 감소한 3조 1,630억 달러(약 3,479조원)를 기록하였다

국내 M&A 시장의 경우 391건, 444억 2,000만 달러(449)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전년 대비 거래건수는 14.6% 거래금액은 18% 감소한 실적이나, 4분기 3개월 동안에만 117건, 200억달러의 거래가 이루어지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출처 : Mergermarket, M&A 전문 분석업체)

벤처투자 회수는 전년(2조 3,222억원) 대비 약 528.4% 증가한 3조 6,876억 원이었으며, M&A, 장외거래 등 메카를 통한 회수비중은 32.2%를 기록하였다.

표 II-1-2-10 | 벤처투자 회수 규모(2019년)

(단위 :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벤처투자회수	26,780	23,222	36,876
매각/M&A 장외거래 등	13,754	10,204	11,856
비중	42.7	43.9	32.2

* 출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M&A는 사인 간의 거래로 거래추진 및 계약정보 공유를 절차상 정부의 직접 개입에는 한계가 있으나, 그간 정부는 M&A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제도 개선, 절차 간소화, 인식개선 활동 및 지원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도입(13.5) 및 대상 확대(14.3), 대기업의 중소·벤처 기업 M&A에 따른 계열사 편입 유예 7년으로 확대(15.7), 벤처기업 재투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및 창업·벤처기업 전용 PEF(사모펀드) 설립근거 마련(16.7)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또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7.11)을 통해 대기업이 인수한 중소·벤처기업의 중소기업 지위 유지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M&A시 인수·합병대가로 50% 초과분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는 등 M&A에 대한 걸림돌을 완화하고 세계혜택 등 지원도 강화하였다.

2018년 2월에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통해 기술자료 거래 시 비밀 유지 협약서(NDA) 체결을 의무화 하고, 기술 임지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한편,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강화하였다. 또한 같은 해 8월에는 공정위와 함께 M&A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 등을 완화하는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12월에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기술혁신형 M&A 세계지원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방법을 개선하였고, 벤처기업 배각으로 회수한 투자자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세계지원 요건을 완화하였다.

표 11-2-11 |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주요내용

구분	현행	개선안
< 설립요건 > • 자산규모 기준 • 벤처지주회사 범위	• 500억원 이상 • 벤처기업만 포함	• 300억원 이상 • R&D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포함
< 행위제한 규제 > •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 • 손자회사로 벤처지주설립시 증손회사 요건	• 지분 5% 이내 • 증손회사의 지분 100% 보유 의무	• 폐지 • 기존 증손회사 지분보유 최대(50%)적용
< 인센티브 >	-	• 대기업 편입유예 확대(7→10년)

2019년 3월에는 「제2벤처붐 확산 전략」을 통해 민간 스타트업 투자와 M&A 촉진을 위해 2021년까지 1조원의 M&A 전용 펀드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같은 해 8월에는 관제부처 합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에 대한 세계 혜택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20년 0.4조원 규모의 M&A전용펀드를 조성하여 유망기술을 보유한 벤처창업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자금을 공급중이다.

2020년 7월에는 대기업의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신속·적극적인 투자 전략적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치 보유 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M&A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 7월에 중소기업진흥공단(現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삼일회계법인, 벤처기업협회 등 4개 기관을 M&A 지원센터로 공식 지정하여 M&A 관련 상담, 교육과정 운영, 설명회 개최 등 종합적인 정보제공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4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15년 신용보증기금, 2016년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은행, 한국M&A협회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자금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M&A 시장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2개 기관이 지정 취소가 되어 7개 기관이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M&A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M&A 거래소 역할이 가능한 전문 자문기관 간 거래 플랫폼인 M&A 거래정보망(www.mna.go.kr)을 2012년 7월부터 운영 중이다. M&A 거래정보망에는 벤처캐피탈·회계법인·법무법인·소형 M&A 자문사 등 47개의 M&A 전문 자문기관이 등록되어 활동 중이다.

2012년 이후 2020년 현재까지 M&A를 희망하는 매도·매수기업 5,883건이 등록되어 547건의 M&A가 성사되는 등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거래정보망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M&A를 통한 신기술 획득 등 성장동력 확보 지원을 위해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태펀드를 통해 2004년 이후 41개 조합 21,628억 원 규모의 M&A펀드가 결성되어 2020년까지 267개 기업에 14,347억원이 투자되었다.

이렇듯 M&A는 기업입장에서는 우수한 기술과 자본을 결합하여 신속하게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압축 성장을 실현할 수 있고, 창업가의 원활한 회수를 통한 제도전과 벤처캐피탈의 투자회수 촉진 등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제3절 재도전 환경 조성

1 신속한 중소기업 재기지원

- 재도전정책과 송 성 동
- 재도전정책과 정 미 리
- 재도전정책과 박 정 은
- 재도전정책과 배 윤 정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 사업 전환과 경영악화에 따른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실패가 '주공 글씨'가 되어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부실채권을 정리(소각)하는 등 제도 개선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협회(GERA)에서 발표한 '2020년 글로벌 기업가 정신 모니터(GEM)'에 따르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19년(50개국/50위), '20년(43개국/43위) 연속 가장 낮은 순위(낮을수록 실패의 두려움이 없음을 의미)를 기록하는 등 대폭 개선되었다.

표 II-1-3-1 | 2020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 결과(21. 5)

영역	지수	19년	20년	19년	20년	2020년	순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1년	
창업에 대한 개인적 인식	(1) 실패에 대한 두려움 (창업기회가 있는 자 중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업할 망설이는 기업)	31.5	32.2	32.8	7.1	13.9	△6.8
	순위	43	38	28	50	43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패에 따른 과중한 채무, 신용등급 회복의 장기화 등은 실패 이후 재기하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19~'21, 창업진흥원) 재창업 지원사업(재도전성공패키지) 신청자의 평균 채납액은 35.6백만원에 달해 재기에 필요한 소요자금 외에도 채무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

또한, '18~'20년간 재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폐업 후 재창업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①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민간금융 조달 애로, ②폐업 시 발생한 채무미해결 등을 꼽고 있으며,

표 II-1-3-2 | 재창업 애로사항(21.4. 창업진흥원)

구분	내용
창업진출원(21)	폐업 후 재창업 시 가장 큰 걸림돌로, ①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민간금융 조달애로(51.0), ②폐업시 발생한 채무미해결(10.5) 등 응답
현대경제연구원(16)	실패자라는 사회적 낙인, 채납 국세, 신용불량인 정보 공유,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이 재창업 저해의 주된 원인
재창업자금 지원성과 분석(15)	재창업 주요 애로 요인은 ①기존 채무규모 과다 ②경기침체에 따른 내수시장 위축(판로부족) ③자금부담 등으로 집계

재창업 시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사업으로는 ①자금지원, ②사업화자금(보조), ③R&D, ④판로마케팅 등을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1-3-3 | '18~'20년 재창업기업 참여자 설문조사(21.4. 창업진흥원)

구분	조사결과
① 재창업 시 필요한 정부지원사업	융자보증·투자 등 자금지원(51.7%), 사업화자금(보조)(29.5%), R&D(7.8%), 판로마케팅(7.2%) 등
② 기타 건의사항	후속지원단 창업사업화, R&D, 수출 등 연계 확대, 대출 특례 등 금융지원, 지원금액 상향 등

이에 따라 정부는 재기기업인의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원활한 재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 재창업 교육

제도전 기업인들이 제도전 의욕을 고취하고, 과거 실패 원인을 분석하여 성공적 재창업이 될 수 있도록 재창업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재창업 교육은 2020년 주관기관을 기존 2개 기관에서 4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힐링 캠프, 투자, 마케팅, 유통 등 특화분야 교육을 강화하였고, 온라인 강의 제공으로 참여 재창업자들의 편의를 향상하였다.

재창업 교육은 2020년까지 총 2,432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나. 재창업 자금 및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

자금 조달 문제는 재도전 희망 기업인이 재기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재창업자금을 도입 운영 중이다.

이는 과거 실패 기록으로 인해, 민간금융 이용이 제한적인 재기기업의 애로를 감안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통해 재도전 마중물을 제공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재창업자금은 사업실적으로 연계·공공기록 정보가 등재되어 있거나, 처 신용자로 분류되어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예비 또는 업력 7년 미만의 재도전 기업인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성·기술성 등을 평가하여 융자지원한다.

2020년도 재창업자금 지원규모는 1,200억원으로 업체당 최고 60억원(운전자금 5억원) 이내로 재창업시 소요되는 시설(10년 이내) 및 운전자금(6년 이내)을 신청할 수 있다.

표 II-1-3-4 | 재창업자금 지원제도 개요

지원대상	지원방식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재창업자, 재창업일로부터 7년 미만인자 - 고의부도 회사자금유용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되지 않은 자생실실패자 	직접 대출 (중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자금 : 10년(4년거치 6년상환) - 운전자금 : 6년(3년거치 3년상환)

재창업자금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4,942개사에 총 7,500억 원을 지원하여 정직한 실패기업인이 원활하게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향후에도 재창업자금 규모 확대 및 멘토링,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연계지원 강화를 통해 '창업→성장→실패→재도전'의 선순환 구조 확립에 기여할 계획이다.

표 II-1-3-5 | 재창업자금 연도별 지원 실적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지원기업수 (개사)	15	90	131	263	376	502	576	710	708	813	758	4,942
지원금액 (억원)	15	124	202	406	513	700	1,000	1,000	1,200	1,200	1,200	7,500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교육부터 사업화자금까지 패키지로 지원으로 우수 재창업자를 육성하는 제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을 2015년도에 35억원 규모로 신설하여, 2020년에는 추경 84억을 포함하여 260억원으로 493명의 (에비)재창업자를 지원하였다.

에비재창업자나 재창업 3년 이내(투자연계형은 재창업 7년 이내)인 재기 중소기업안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성 평가를 통해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75%(최대 1억 원 이내)까지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재창업 전용 보육공간(R-Camp)을 6개 주관 기관에 신설하여 멘토링과 네트워킹 지원을 통해 재창업자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사업이 본격 확장되는 시점에는 재창업자금을 활용하여 재창업에 성공하더라도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다만, 이 시점에도 신용등급의 상향이 이루어지지 못 할 경우 민간자금 조달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제도전 기업인들의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2014년 169억 원, 2015년 150억 원의 제도전 펀드를 조성 하였다. 조성된 펀드는 성공가능성이 높은 제도전기업에게 적극 투자하고 있다. 아울러 2017년 추경으로 조성한 3,305억 원 재기지원펀드도 11개 운용사에 의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 경영위기기업의 발굴 및 회생 지원

진로제시컨설팅과 회생컨설팅을 통해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진단과 신속한 경영정상화 및 회생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 진로제시컨설팅 결과에 따라 구조개선 자금, 회생컨설팅, 사업정리 등 후속 자금 및 컨설팅을 연계 지원한다.

1) 진로제시컨설팅·회생컨설팅 운영

진로제시컨설팅은 전문가가 연간 평균 390개사 내외의 경영위기 기업을 방문·진단하여 해당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을 제시하고, 구조개선, 회생 절차, 사업정리 등 후속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구조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개선비용자금도 연계 지원한다. 2020년의 경우 총 336개사가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았다.

희생전실팀은 연간 평균 85개사 내외의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희생절차 신청부터 희생계획 수립, 인가까지 희생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회생을 지원한다. 희생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대 30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2014년 서울에 첫 설치 이후 2015년 부산, 대전에, 2016년 인천, 대구, 광주, 경남에, 2017년 경기, 서울서부, 2018년 전북, 강원, 울산, 경기북부에, 2019년 충북, 경북, 제주, 전남, 충남 추가 개소하여 전국에 총 18개 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도전 기업인에게 채기 상담부터 신용회복, 컨설팅, 회생, 재창업 등 맞춤형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향후 기능 보강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재도전지원정책의 허브기관으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2) 구조개선 전용자금 지원

부실징후 중소기업을 위한 구조개선 전용자금은 2015년부터 300억원 내외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세적인 구조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용이 낮거나 제도 금융권에서 사실상 자금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여 경영 정상화를 돕고 있다.

라.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촉진

1)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사업 개요

2006년 3월 제정하여 같은 해 9월에 시행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외부환경의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산업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고 있다.

기존 업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경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자금·R&D·유통설비 배각·세제 지원 등의 정책수단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전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제출한 사업전환계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계획 승인, 정책자금 융자 및 지원사업 연계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에는 사업전환계획 승인 권한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이관하여, 평균 30일이 소요되는 사업전환계획 타당성 평가 및 승인기간을 17일로 단축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사업전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표 II-1-3-6 | 사업전환비 유형

구분	사업전환내용	사업전환비율
업종전환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00% 완전전환
업종추가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이 일정 비중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	신규 업종 매출액 또는 상시 종업원 수 30% 이상 전환

·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용 자산을 양도 또는 폐기(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영요령 제2조)

2) 2020년 사업전환 지원실적 및 성과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사업전환을 위하여 2020년에는 총 226개사의 사업전환계획을 신규로 승인하였다. 사업전환계획 승인유형별 실적을 살펴보면, 업종추가가 96.0%인 217개사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전환이 4.0%인 9개사였다.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3년간 계획을 이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되는데, 2020년에는 322개사에 사업전환자금 1,433억 원을 지원하였고, 그 외 필요한 기업에 컨설팅과 R&D 등을 지원하였다.

표 II-1-3-7 | 사업전환 지원 추진실적

(단위 : 개사, 억원)

구분	계획승인	자금융자		컨설팅		R&D	
		기업수	지원액	기업수	지원액	기업수	지원액
2006년	104	62	300	39	3.8	-	-
2007년	173	177	1,090	68	11.5	41	30
2008년	237	230	1,146	152	23.1	31	28
2009년	211	280	1,470	60	7.1	30	25
2010년	184	266	1,467	27	4.7	-	-
2011년	179	249	1,473	46	6.5	-	-
2012년	179	297	1,635	46	4.0	-	-

구 분	계획승인	사금융자		은행권		FMS	
		기업수	지원액	기업수	지원액	기업수	지원액
2013년	163	324	1,617	50	6.6	-	-
2014년	200	317	1,596	52	6.8	-	-
2015년	99	225	1,026	57	7.7	-	-
2016년	169	273	1,158	11	1.4	-	-
2017년	126	242	1,146	13	1.9	-	-
2018년	107	246	1,206	8	1.1	6	7.8
2019년	100	221	973	10	1.3	6	7.2
2020년	226	322	1,433	10	1.2	8	34.7

2019년 사업전환을 종료한 109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행실적 및 성과를 조사한 결과, 사업전환계획 승인 전보다 총매출액은 평균 24.8%, 고용은 18.2%, 수출은 3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전환 승인기업의 이러한 경영성과에 비추어 볼 때, 사업전환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운전자금 용자, R&D 등 지원사업의 연계와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사업전환 기업의 성과제고에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재도전 친화적 제도 개선

- 기업금융과 조 부 근
- 재도약정책과 송 선 동
- 재도약정책과 정 미 리
- 재도약정책과 배 윤 정

가. 연대보증 폐지 등 실패부담 완화

연대보증 폐지는 중소·벤처기업인을 중심으로 창업 활성화에 예외요인으로 제기되어 왔다. 연대보증은 부족한 담보력을 신용으로 배움으로써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 실패 시 부담해야 할 과도한 채무는 혁신창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에 정부는 기업경영과 관계없는 가족, 동료 등에게 요구되던 제3자 연대보증을 2012년부터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이를 통해 개인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폐지하였으며, 법인기업은 대표이사·최대주주 등 공식적 자위에 있는 책임자 1인만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었다.

이후 꾸준한 제도 개선을 통해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2017년 8월부터는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창업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2018년 4월부터는 업력에 관계없이 신규 융자·보증 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2018년 9월부터는 기존 연대보증에 대해서도 책임경영 심사를 실시하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에 맞추어 공공기관 보증서를 바탕으로 민간 금융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대출도 연대보증을 폐지하였다.

표 II-1-3-6 | 연대보증 면제제도 도입 경과

주요 내용	상 기
제3자 연대보증 제도 전면 폐지	제1금융권(12.5), 제2금융권(13.7)
우수기술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제도 도입	정책금융기관(14), 18개 민간은행(14.8)
평가 우수기업 연대보증 면제	중진공(15.1)
창업 5년까지 연대보증 면제	신·기보(16.2)
창업 7년까지 연대보증 면제	중진공, 신·기보, 지역신보(17.8)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연대보증 면제제도 활용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등 극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표 11-1-3-9 |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면제제도 활용 실적

구분	실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8) 21,235억원 → (19) 24,996억원 → (20) 38,585억원
신용보증기금	(18) 55,855억원 → (19) 77,831억원 → (20) 121,522억원
기술보증기금	(18) 35,661억원 → (19) 39,473억원 → (20) 66,3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18) 6,493억원 → (19) 9,094억원 → (20) 15,022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8) 814억원 → (19) 1,809억원 → (20) 1,640억원

아울러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정책금융기관(중진공, 기보, 지역신보)의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1조5천억 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 1조원을 기관별로 관리종결(소각) 하였다.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여 30~90%까지 채무를 조정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사회소의 제출은 최대 90%까지, 중소기업인은 최대 70%까지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

향후 기존 연대보증의 단계적 폐지의 차질 없는 진행과 부실채권의 적기 정리 등을 통해 실패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 신속한 회생 지원

경영위기가기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그 중 법적인 제도인 회생제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회생제도 활용기업의 대부분(93%, '13년 기준)이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려 중소기업의 애로로 작용해 왔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 회생제도를 도입하였다. 중소기업 제도전 종합대책('13년 10월)에서 간이회생제도를 도입기로 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생 절차 및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년 6월 간이회생 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담보·무담보 채무총액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여, 간이회생의 장점인 절차와 기간을 줄이고 회생 가결요건을 완화한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신용회복 및 부정적 신용정보 관리 체계 개선

채무조정을 통해 실패 중소기업인들이 보유한 기술·경험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제도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신용회복위원회 내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하고, 신용회복 및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3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보유중인 중소기업인이 신용회복을 신청할 경우 도덕성 평가와 사업성 평가를 거쳐 채무를 조정(이자 : 전액, 상각채권 원금 : 최대 70% 감면, 정책금융기관은 최대 75% 감면,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등)하고 있다.

표 II-1-3-10 |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내용

대 상	지원 내용		
	채무감면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30억원 이하 채무 보유 중소기업인	이자 전액 상각채권 최대 70% 이내에서 원금감면 (정책금융기관 최대 75%)	조정 후 채무 기준 - 2억원 이하 : 최장 3년 - 2억원 초과 : 최장 5년 (유예기간 중 무이자)	조정 후 채무 기준 - 2억원 이하 : 최장 8년 - 2억원 초과 : 최장 10년

재창업지원위원회 사업성 심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인에게는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을 통해 30억 원 내에서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신용회복과 재창업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4년 11월부터는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재창업기업은 정부로부터 기술성·사업성을 인정받은 점을 감안, 과거 기업의 부도·폐업 등으로 발생한 부정적 신용정보로 금융·신용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재기 중소기업인의 '부정적 신용정보'를 조기 삭제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모든 재기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부정적 신용정보와 연체기록 삭제를 확대 적용하여 신용등급 개선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국세의 체납처분 유예 및 징수유예 제도를 시행하여, 면책 대상이 되지 않는 국세체납으로 인한 애로를 해소하고, 상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일반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 각각 9개월, 12개월인데 비해 세기업인의 경우 최대 36개월 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재산이 없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2017년도 말 이전에 폐업을 하고 2018년도에 재창업을 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체납 조세를 소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었다.

또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한 실패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 제도를 시행중이다. 다만 아주 오래전 실수까지도 용납하지 않는 등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외부의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2017년 10월부터는 법령 위반의 정도와 경과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법령 위반이 있더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부의 재창업 지원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채드전 사례공모전(20.8)



채드전의 날(20.11)



채드전 응원명상(20.12)

제2장

고용 친화적 중소기업 성장촉진

1

근로자 임금상승 및 근로환경 개선

- 인력육성과 여 운 상
- 일자리정책과 최 승
- 인력육성과 활 진 아
- 일자리정책과 걸 건 영
- 일자리정책과 진 대 환

그 동안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하면 이른바 낙수효과를 통해 중소기업과 노동자 등에게 성장의 과실이 전달되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이론 하에서 우리의 경제정책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 보다 낙수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이런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다양한 영역에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 해소와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며 선진 외국 등에서도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 아래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II-2-1-1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상용근로자 임금수준

구분	1997	2007	2017	2018	2019	2020
중소기업(천원)	1,344	2,426	3,350	3,494	3,625	3,663
대기업(천원)	1,739	3,744	5,145	5,474	5,492	5,335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	77.3	64.8	65.1	63.8	66.0	68.7

* 출처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운영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력양성 등을 목적으로 '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핵심인력과 중소기업이 1:2 비율(핵심인력 720만원, 기업 1,500만원)로 5년 동안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공동 적립금 2천만 원 이상을 성과보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동 사업은 ‘내일채움공제’라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입된 지 7년째로 중소기업 25,546 개사, 핵심인력 근로자 64,382명이 가입(20.12월 기준, 누계)하였다.

2018년에는 청년일자리 대책을 통해 청년(15-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개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면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설 등이 추진되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보상체제로 기업(월 20만원, 5년), 근로자(월 12만원, 5년), 정부(1,080만원, 3년)가 공동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만기 시(5년) 청년근로자에게 잔액(3천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지원 공제사업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이다.

(적립구조)

(단위 : 만원)

구분	소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40개월	
본인납입	720	매월 12 x 60개월 = 720								
기업적립	1,200	매월 20 x 60개월 = 1,200								
정부지원	1,080	120	120	150	150	180	180	180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보상체계 확립을 통한 청년근로자의 중소기업 유입, 우수 재직근로자의 장기재직 촉진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다.

내일채움공제가 기업과 핵심인력 근로자간 적립을 하는 반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적립금(1,080만원)이 추가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중소기업 37,150개사, 청년근로자 105,476명이 가입(20.12월 기준, 누계)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참여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통해 기술력 및 노하우 축적, 기술전수를 취할 수 있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핵심인력이 장기 재직할 수 있는 여건(공제기간 5년)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와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7 | 내일채움공제



나.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도입 및 확산

청년층 등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이유는 대기업에 비해 낮은 임금수준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단기간 내에 시장 시스템을 통해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성과급 등 특별급여의 차이가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확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 (대기업 100, 고용부, 2019년) : 정액급여 73.8%, 특별급여 25.4%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2018년부터 본격 도입하였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18.6월)을 통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미래성과공유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정의하고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 확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성과공유 유형 정의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과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가 2018.9월에 제정되었다.

〈 성과공유 유형 〉

구분	성과공유 유형
성과급	① 경영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사전에 약정 (현금) 성과공유 상여금 (주식) 우리사주
성과보상공제	②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입)
임금수준과 상승	③ 평균 임금증가율이 직전 3개연도 평균 임금증가를 보다 높을 것
우리사주 제도 운영	④ 우리사주조합 제도 운영
복지기금 운영	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⑥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
⑦기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가축친화 인증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중소기업 복지포인트 활용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선정 중소기업

한편, 2018년부터 성과공유 교육, 성과공유 도입 컨설팅, 유형별 표준안 개발·보급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9.2월 제정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성과공유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로 법인세 10%, 근로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2020년에는 중소기업의 성과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 유형에 '복지포인트 활용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선정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0년 12월 기준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기업 51,275개사(누적)가 확인 받았다.

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중소기업 기술동계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자체 기술개발 애로 요인의 하나로 '기술개발 인력확보 곤란 및 잦은 이직'을 제시하고 있으며, 고급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이유로 인력확보에 필요한 자금, 즉 인건비 지급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중소기업에 우수한 연구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하면서 동 사업을 이관 받아 운영하고 있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에 공공연 연구인력을 파견하거나, 기업이 연구 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 3년간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석·박사급 신규 연구 인력은 기준연봉(석사 4천, 박사 5천) 이상으로 계약할 경우에만 인건비 보조가 가능하다. 이처럼 동 사업은 중소기업 연구 인력의 임금 상승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4년간 동 사업에 대한 수요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0년 신청자 수가 전년 2,527명 대비 급격히 증가(93%↑)하였으며, 4,865명 신청자 중 452명이 선정되어 높은 경쟁률(10.8:1)을 나타냈다. 또한, 지원인력을 활용한 기업은 기술개발 건수 및 R&D 투자가 매년 증가하는 등 기술경쟁력이 향상되는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

표 11-2-1-2 | 채용지원사업 경쟁률 현황

구분	신진 석박사 채용			고경력 채용			합계		
	신청	지원	경쟁률	신청	지원	경쟁률	신청	지원	경쟁률
2017	882	150	4.5	263	65	4.0	945	215	4.4
2018	824	437	1.9	409	41	12.2	1,323	478	2.8
2019	1,316	343	3.8	1,211	85	14.2	2,527	428	5.9
2020	2,949	315	9.4	1,916	137	14.0	4,865	452	10.8

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 및 복지가 열악하다. 그로 인해 취업자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중소기업체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 임금격차 : 대기업의 49% (※ 임금기준, 79)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중소기업부)
- 복지격차 : 대기업의 49% (※ 복지비용기준, 79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결과,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에 우수인력 유입 및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여건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04년부터 주택 특별공급물량을 확보하여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또는 동일할 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중이며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표 II-2-1-3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절차



19년 10월부터는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주택특별공급 공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근로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ftp://smes.go.kr/saahulkin, 79,10 구축)

동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장기근속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원활하게 우수 인력을 유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동반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

표 II-2-1-4 | 연도별 추천실적

(단위 : 호)

구분	계	추천			
		국민주택		민영주택	
		분양	임대	분양	임대
2017년	2,266	74	244	1,948	-
2018년	1,547	33	234	1,277	9
2019년	1,330	83	176	1,062	9
2020년	3,504	66	1,236	2,202	-

* '18년 4월까지의 청약인, 국가유공자 등과 함께 배정된 전체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추천 실적이며, '18년 5월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따로 구분하여 배정 및 추천

사업주체는 국민주택 및 85㎡이하 민영주택 총 건설물량의 10% 범위내에서 기관 추천 특별공급 물량을 기관별로 배정하고 있다. 앞으로, 주택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협업을 추진하여 중기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

*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2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 인력육성과 박 상 호
- 인력육성과 김 정 태
- 인력육성과 황 진 아
- 인력육성과 이 은 숙
- 일자리정책과 최 승
- 인력육성과 한 지 연

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정부의 특성화전문계고 육성계획(2007년, 교과부)에 따라 2008년부터 교과부의 특성화전문계고 육성사업¹¹⁾(66개 전문계고)을 이관 받아 중소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 산업분야에 필요한 지식과 실무기술을 겸비한 중소기업 기술·기능 인력양성을 위해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표 II-2-1-5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개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	2019	2020
지원 예산	30,640	30,640	33,856	33,856	34,636
지원 학교	181	181	200	199	215

동 사업을 통해 산업현장 인력공급의 주요 원천이었던 특성화고의 정체성을 확립 하여 학생들의 기술·기능역량을 강화하고, 기능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산업분야와 연계한 예비 기능인력 양성을 통해서 중소기업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유입 경로를 구축하고 있다.

2014년부터 업종별 협·단체가 특성화고와 협력하여 공동교육·채용 행사를 실시 하고 회원사 등으로 채용연계를 지원하는 '인력공동관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중소기업 구인정보를 발굴하여 특성화고에 실시간 연계하여 취업매칭 하는 등 중소기업 구인수요와 특성화고를 연계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마련하여 산학 협력을 통한 우수 인력양성의 풀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1) 특성화고 육성사업은 기존 교육당국에 의한 일괄관리·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2008년부터 업종별 인력수요 부처(국립부, 농어촌부, 문화부, 중소기업, 특허청 등)가 학교 운영과정에 참여하여 우수 인력을 양성 중

중소기업특성화고는 중소기업과 학교 간 산학협약 후 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산학 맞춤형' 프로그램과 기업과 학생(교사)이 공동 과제를 발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1팀 1기업프로젝트' 등을 핵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부진, 직업제고 현장실습제도 개편(17.8)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취업률이 하락하고 있다.

표 II-2-1-6 | 중소기업특성화고 맞춤형 취업률

(단위 :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취업률	95.6	82.8	76.3	68.6	65.1

이에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실습 참여기업 감소 및 취업률 하락 최소화를 위해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마련(19.1월)하여 추진 중이며,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자체적으로도 기업의 인력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스마트공장 등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 등을 추진 중에 있다.

나. 기술사관 육성

특성화고-전문대-중소기업을 연계한 4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정규과정 외에 방과 후나 방학을 활용한 특약과정을 통해 산업계의 높아진 기술수준에 맞는 숙련된 현장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중소기업에 취업시키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었다.

동 사업은 특성화고-전문대-중소기업 3자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단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되, 특성화고(2년)는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실습, 기초 및 전공 소양을, 전문대학(2년)은 기술능력 강화를 위한 이론 및 기술심화 과정으로 운영하며, 동 사업을 통해서 참여 사업단(특성화고+전문대)에 학생연수비, 학생활동지원비, 강사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매칭되어 교육부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7월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Uni-Tech사업과 유사중복으로 단계적 폐지가 결정되어 2018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신규참여학생 선발을 중단하고 2022년까지 기존 참여 학생만 지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고용부 Uni-Tech사업이 자체 중단한(17.9월)에 따라 사업간 유사중복 등이 해소되어, 2019년 국회 예산 심의(18.12월)시 '19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신규선발 등을 위한 예산이 추가 반영되어 사업이 재추진 되었다.

2020년도 졸업학년 참여 학생 274명 중 179명이 협약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으며(취업률 65.3%, '21.2월말 기준), 137명이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취득률 50.0%, '21.2월말 기준)하는 등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표 II-2-1-7 | 기술사관 육성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구분	2015	2016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	5,600	5,700	5,076	3,850	3,858	2,898	
지원 실적	학교	전문대 17 + 특성화고 33	전문대 16 + 특성화고 28	전문대 15 + 특성화고 24	전문대 13 + 특성화고 23	전문대 12 + 특성화고 17	전문대 12 + 특성화고 16
	학생	2,236	2,267	2,147	1,665	1,481	1,432
	업체	908	904	932	904	938	996

*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보조금과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합한 금액

다.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

2014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현장중심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하면서 동 사업을 이관 받아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는 30억을 투입하여 11개 대학, 2018년에는 37억, 2019년과 2020년에는 30억을 투입하여 10개 대학을 운영하였으며, 2020년까지 총 1,311명의 R&D석·박사 연구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였다.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사업을 통한 석·박사 연구인력의 취업률은 평균 약 88%를 달성하였고, 청년 취업난 해소와 중소기업의 R&D연구인력에 대한 인재 수급난에 큰 역할을 하였다.

표 II-2-1-8 |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 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명, %)

구분	예산	참여대학	신약개발	양성학생	취업률
2017년	3,900	11	57	200	88.0
2018년	3,790	10	54	200	83.6
2019년	3,000	10	95	148	90.9
2020년	3,000	10	126	174	-

* 2020년도 취업률 조사예정(21년 12월 말)

라.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우수한 인력이 장기적으로 재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정부가 산업체 수요를 고려하여 학과(대학)를 선정하여 개설 하면 중소기업의 대표는 소속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를 대학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재직 여부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6개월 이상 재직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형'과 졸업 후 채용을 약정하고 참여하는 '채용조건형'이다.

정부는 대학 등록금의 65~100%를 지원하는데, 재교육형 석·박사 과정은 65%, 재교육형 학사·전문학사 과정은 85%, 채용조건형은 학위와 상관없이 100%를 지원한다. 정부 지원금 외 나머지는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 부담한다. 참여 학생은 졸업 후 소속기업에서 1~2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2010년부터 시작한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은 2020년도에 66개 학과를 통해 1,951명을 지원하였다. 2021년도에도 70개 학과를 지원할 예정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신산업 분야의 지원 비중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표 II-2-1-9 |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현황

연 도	예산	지원학과	제 도 개 선
2014년	76억원	44개 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유형 신설
2015년	92억원	48개 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보험 기업 의무화
2016년	104억원	65개 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산업 관련 계약학과 확충(16개)
2017년	103억원	69개 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연계형 계약학과 운영
2018년	114억원	69개 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마이스터 학과(채용조건형) 선정
2019년	114억원	70개 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 확대
2020년	114억원	68개 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부품장비 계약학과 확대(3개)

마. 국립 공업고등학교 육성

고등학교 및 재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 취업보다는 진학 선호 현상의 심화 등으로 인해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특성화고의 취업 선도모델로서 '한국형 마이스터고'¹⁷⁾ 육성 기본계획(2008.7월)을 수립하고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2010.3월)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마이스터고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급당 20명의 소규모 학급으로 운영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전면 자율화하였으며, 교장 자격이 없는 산업계 인사의 교장 임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소질과 적성에 따라 원하는 분야의 마이스터고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로 입학전형을 시행한다.

표 II-2-1-10 | 국립공업(마이스터)고 일반현황

구 분	국립인자공고	부산기계공고	천원기계공고
학교성립	1964년	1967년	1974년
마이스터고 지정	2008.10월	2009.2월	2009.2월
마이스터고 개교	2010.3월		
학과명 (학급수)	전자회로설계전공(4학급) 전자시스템제어전공(4학급) 자동화시스템전공(4학급) 로봇제어전공(2학급)	정밀기계전공(3학급) 물리메카닉스전공(3학급) 산업설비전공(3학급) 로봇제어전공(2학급) 메카트로닉스전공(2학급) 전기전공(2학급)	물리메카닉스과(3학급) 금형설계제작과(4학급) 로봇자동화과(3학급) 메카트로닉스과(3학급)
학급	1학년 14학급(226명)	15학급(258명)	13학급(230명)

17) 초·중등교육법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신입생의 수요에 적합 인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구 분		구미전자공고	부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학생 정원)	2학년	14학급(271명)	15학급(297명)	13학급(253명)
	3학년	14학급(275명)	15학급(295명)	13학급(257명)
	계	42학급(772명)	45학급(880명)	39학급(740명)
위치 및 부지		경북 구미시 223천㎡(6.7만평)	부산 해운대구 142천㎡(4.3만평)	전북 익산시 77천㎡(2.3만평)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3개 국립 공업고등학교는 자율적으로 산업분야별 현장수요에 맞춰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마이스터 육성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육비부터 급식비, 학교시설 유지관리비, 공사비 등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2-1-11 | 국립공고(마이스터)과 육성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7예산	18예산	19예산	20예산	21예산
합 계	14,556	19,466	26,399	26,999	25,773
직업교육체계 혁신	8,505	7,679	12,032	13,532	16,378
시설확충	6,151	12,137	14,367	13,467	9,395

3개 국립공고는 마이스터고로 전환 이후 취업률 등에서 월등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2020학년 졸업생 취업률은 87.8%이며, 2020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3개 학교 합산 금 3개·은 6개·동 6개를 수상하고 구미전자공고는 종합 2위, 부산기계공고는 종합 4위를 달성했다.

표 II-2-1-12 | 국립공고(마이스터)고 취업률

(단위 : %)

구 분	16학년도	17학년도	18학년도	19학년도	20학년도
구미전자공고	100.0	98.5	96.2	95.1	91.3
부산기계공고	92.1	84.0	81.5	86.5	84.4
전북기계공고	91.2	95.2	93.1	92.2	87.6
평 균	94.3	92.3	90.0	91.1	87.8

바. 기업인력애로센터 운영

기업인력애로센터는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20년 현재 16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서 운영 중이다.

기업인력애로센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외 이노비즈협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유관기관이 현장실태조사 등 정책자금 지원업무를 통해 발굴한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시적 구인기업을 발굴하고, 특성화고·대학·직업훈련기관 졸업생 및 미취업 구직자를 매칭하여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변화된 채용환경에 대응하여 SI 면접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비대면 취업컨설팅 및 온라인 채용박람회의 운영하였다. 또한 청년구직자 취업컨설팅을 4개 권역으로 확대하여 지방의 구직자 발굴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구인인력 애로 해소에 노력하였다.

그림 8 |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사업 추진체계



아울러, 대기업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협력사인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청년 구직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수요자를 대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매칭을 진행하는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중소기업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자 신규 채용인력을 숙련인력으로 양성·공급하는 현장코칭 숙련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2020년 구인기업 8,626개를 발굴하여 3,626명을 취업 연계하였으며, 향후 스마트 공장 도입기업의 인력 애로 해소를 위해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배키지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산업현장 디지털 전환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사. 중소기업 인식개선

정부는 우리 경제의 뿌리가 되는 중소기업의 역할과 가능성을 취업자와 일반국민에게 바로 알림으로써 청년층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자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¹³⁾을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과 중소기업의 인력난¹⁴⁾은 우리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의 가능성과 비전을 바로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020년에는 2,068백만원의 예산으로 우수 중소기업 발굴·정보제공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을 통해 청년 구직자에게 균형 잡힌 중소기업 인식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취업을 유도하였다.

아. 중소기업 연수원 운영

1982년 중소벤처기업연수원(본원 안산) 개원을 시작으로 호남연수원(2001년, 광주), 대구경북연수원(2003년, 정산), 부산경남연수원(2004년, 창원), 글로벌리더십 연수원(2014년, 태백) 등 5개의 재직자 전문연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산업기술교육을 선도하여 총 155만여 명 대상에게 연수를 실시하였다.

13)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5조(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 중소기업 사례의 보급·확산)

14) 중소기업 부족인력 : 21.0만명, 부족률 : 0.9% (출처 : 고용부, 10년 하이라이프 전망에 사업제 노동력조사)

2020년에는 44,988명의 대상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중소벤처기업연수원(안산) 15,544명, 지방 연수원(호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글로벌 리더십)은 10,961명, 온라인 연수 18,483명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교육 과정을 확대·개편하여 2020년 기준 12,100명의 스마트공장 제조분야 전문인력(국정과제)을 양성하였다. 2020년 스마트공장 실습인프라인 '스마트공장 배움터' 2개소를 신규 구축(경산, 천안)하였다.

또한,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제조현장을 진단하고, 기업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도출, 재직자 대상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현장 맞춤형 연수를 실시(2020년 1,786명)하였다.

구분	개원	위치	특화분야	연수인원 (2020. 명)
중소벤처기업연수원	'82.10	경기 안산	뿌리기술, 스마트팩토리	34,027
호남연수원	'01.09	광주	철강, 조선, 산업기계	2,745
대구경북연수원	'03.11	경북 경산	자동차 특화	2,231
부산경남연수원	'04.10	경남 창원	공학설계, 한정기술 SAW	3,883
글로벌리더십연수원	'14.09	강원 태백	CEO, 리더십, 식품	2,122
충청연수원	'21.4	충남 천안	스마트팩토리, 바이오등	-

제3장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제1절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

1 중소기업 기술혁신 현황

- 기술정책과 남 정 월
- 기술정책과 최 미 영

2019년 R&D 수행 중소기업체는 50,430개사로 전체 중소기업체 139,943개사의 3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6년 전인 2014년의 30.0%에 비해 6.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혁신 지변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1 | R&D 수행 중소기업체 증가(16부터 종사자수에서 매출액기준으로 변경)

(단위 : 개사,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R&D수행 중소기업체	37,823	45,307	40,588	45,320	48,961	50,430
중소기업체 대비 비중	30.0	33.6	31.4	33.5	35.4	36.0

* 자료 : 2019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20.12.31)

* 모집단 : 5억원 초과 중소기업체 139,943개, 표본수 : 7,700개

특히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2020년 40,140개사로 2014년 30,478개에 비해 9천 6백개 이상 증가하였으며, 소속 연구원 수도 3.6만 명이상 증가하여, 2020년에 19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및 소속 연구원 수

(단위 : 개소,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30,478	33,647	30,026	37,696	38,734	38,887	40,140
소속 연구원수	163,887	176,084	164,906	190,686	193,724	192,420	199,891

* 자료 : 기업부설연구소 출원현황(2021년 1월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와 같은 저변확대에 힘입어 2019년 중소기업의 R&D 투자 규모는 약 16.7조원으로 국가 전체 R&D 투자 89조원의 18.8%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1-3 | 중소기업의 R&D 투자 규모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공공연구기관	69,503	72,807	81,127	86,241	91,132	95,432	98,439	101,688
대학	52,769	54,803	57,670	59,989	63,399	66,825	70,504	73,716
기업	432,229	468,569	498,545	511,964	539,525	625,834	688,344	715,067
- 대기업	320,709	357,781	386,177	389,303	407,787	396,038	438,236	446,658
- 중견기업						90,687	95,954	101,864
- 중소기업	111,520	107,818	112,367	122,061	131,738	136,909	154,154	166,545
합계 (국가 R&D 규모)	554,501	593,009	637,341	659,594	694,055	787,891	857,287	890,470

* 자료 :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그러나 중소기업 R&D의 저변확대와 투자증가 등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수준은 선진국 대비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표 II-3-1-4 | 세계 최고수준 대비 기술능력 수준

(세계최고수준=100.0,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기술능력 수준	75.6	77.1	74.3	75.6	77.3	75.4	77.3

자료 : 2020년 중소기업기술능력조사

한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은 OECD가 1993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기술혁신평가 매뉴얼인 '오슬로 매뉴얼을 기초로 개발한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지표(1,000점)와 기업이 보유한 개별기술의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평가지표(10등급)를 적용하여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이고 개별 기술수준 평가결과가 B등급(6등급에 해당)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간 만료 전 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기업은 재선정 하고, 미흡한 기업은 선정을 취소함으로써 제도의 대외 신뢰성 유지 및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2001년 이노비즈 선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2020년 현재 18,920개사가 유지되고 있다. 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5년부터 기술금융의 활성화로 인해 소폭 증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18,000개사를 넘어서는 등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II-3-1-5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fo-Biz) 지정 현황

(단위 : 개)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업체수	17,080	16,878	17,472	17,708	18,091	18,093	18,345	18,920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각종 기술지원사업 참여시 우선 지원하는 한편 자금, 판로, 인력, 정보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보증기금과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협약은행들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력 평가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행정낭비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기술력 평가를 통한 신용대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표 II-3-1-6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실적

(단위 : 건/억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건수	금액								
8,372	67,359	8,280	69,635	8,309	67,697	8,154	64,103	7,824	59,542
								7,725	70,113

2020년 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매출액은 199.0억 원이고, 수출기업 비중은 54.1%, 평균 수출액은 81.7억 원(직접 71.7억 원+간접 8.0억 원+현지법인매출 2.0억 원 추정), 전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20%이상 매출액이 증가한 고성장기업은 2,721개로 전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1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제조기업의 핵심기술을 지속·유지를 위한 생산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의 혁신은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이외의 요소인 경영혁신 활동에서도 나타난다. 기업의 경쟁력이 반드시 기술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이나 고객서비스 등에서도 혁신적인 역량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벤처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로는 서비스업, 문화산업, 전통제조업 등의 기업군에서 경영혁신 활동을 통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포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하반기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0년 말 현재 19,078개사가 활동 중이다.

2011년 17,558개사로 정점을 찍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은, 2012년부터 2014년 말까지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였으며, 2020년 정밀실태조사 결과 평균 매출액은 2016년 134.0억 원, 2017년 147.8억 원, 2018년은 152.8억 원, 2019년은 142.1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3-1-7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지칭 현황

(단위: 개)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제조업	7,302	7,664	7,662	8,175	8,705	9,267
비제조업	6,566	7,177	7,568	8,558	9,312	9,811
· R&D 서비스	1,005	1,605	2,474	2,826	27	218
· 건설업	1,656	1,676	1,694	1,898	2,481	2,523
· 도소매업	3,239	3,378	3,257	3,771	4,195	4,431
· 기타	695	518	143	63	2,509	2,639
총합계	13,868	14,841	15,230	16,733	18,017	19,078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R&D, 금융 및 보증, 판로·수출 등 시책을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농협, BK기업은행, 산업은행 등과 금융협약을 체결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지원 및 보증료 감면, 여신한도 확대, 금리우대,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정밀실태조사를 통한 성과분석 및 육성시책 발굴, 확인업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종합정보망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9월부터 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한 보증을 실시하여 왔으며, 2020년에는 총 27,296건 95,733억원을 지원하였다.

향후에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협약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조를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표 11-3-1-6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실적

(단위 : 억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8,803	72,072	13,990	51,910	25,040	87,624	27,296	95,733



중소기업 경영·영업전략 교육



메인비즈 제도 설명회

2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기술개발과 공 윤
- 기술개발과 권 희 준
- 기술개발과 남 기 돌
- 기술개발과 오 보 언
- 기술개발과 김 범 형
- 기술개발과 리 영 철
- 기술개발과 정 세 환
- 제조혁신정책과 김 은 영
- 제조혁신정책과 정 부 길
- 제조혁신지원과 김 동 현
- 제조혁신지원과 박 현 내

가.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

1) 중소기업 R&D역량 제고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R&D 기획역량 및 자체 전문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R&D 기획역량강화교육, 기획지원 및 외부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R&D 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R&D 기획지원사업, 맞춤형 기술파트너지원,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위기 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 해결 및 기술역선 R&D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18년도 목적예비비로 신규 추진되었다.

① R&D 기획지원사업

기술개발을 통한 신제품 개발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활동이다. 하지만 기술개발에 성공하고도 기술의 변화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는 성공 가능성 검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등 사전에 충분한 R&D기획 없이 기술개발에 착수한 것이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다.

동 사업은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과제에 대해 기획 전문기관과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기술성, 시장성, 경제성 등을 분석·진단 후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수립·지원하는 R&D기획지원사업과 중소기업 및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R&D 수단제(기획→기술개발→사업화)에 대한 기획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구분된다.

R&D기획지원사업은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총 7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783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수행 결과 우수과제는 R&D 사업으로 연계(선정)지원, 2017년부터는 희망하는 R&D 사업 신청 시 연계추천(우대사항 적용)으로 변경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원현황으로는 2019년 308개 중 97개, 2020년에는 215개 중 144개 과제를 우수 과제로 선정하고 대상과제는 선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연계 가능한 사업(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일부(제품 개선))에 신청할 경우 각 사업별로 2회('17~'20년도 1회)에 한하여 신청자격 부여, 서면평가 면제 또는 가점 등으로 우대한다.

또한, 자체 기술개발이나 용자·보증신청, 기업 IR 등 다양한 분야에 R&D 기획 보고서를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2021년에는 연계평가 및 추천 절차를 개선하여 R&D연계율을 제고하고, 정책환경 (4IR, ESG, 비대면 경제, 한국판 뉴딜 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하는 등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코칭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표 Ⅱ-3-1-9 | 연도별 중소기업 R&D 기획지원 추진실적

(단위 : 개, 억원)

구분	연도	2007	2008	2012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기획 지원	과제수	1,406	713	169	154	204	178	179	342	308	130
	금액	215	200	35	40	50	45	50	45	46	33
R&D 사업 연계	과제수	-	423	98	92	82	85	108	104	97	144
	금액	-	1,332	337	311	263	245	-	-	-	-

* '17년까지는 R&D사업으로 연계(선정), '17년부터는 연계추천(우대사항 적용)으로 변경

한편 R&D기획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은 2014년 시행이후 2020년까지 총 21,539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020년에는 50회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3,944명(온라인 교육 : 2,878명 포함)이 수료하였다.

2019년 교육과정에 대한 수료자 만족도 조사결과, 오프라인 교육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88.0점, 온라인 교육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86.3점으로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0년 교육과정의 경우 오프라인 교육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89.5점, 온라인 교육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96.8점으로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Ⅱ-3-1-10 | 연도별 R&D기획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추진실적

(단위 : 회, 명)

교육과정	2017		2018		2019		2020		합계	
	회수	수료 인원	회수	수료 인원						
정규	28	1,248	25	957	77	1,502	40	831	172	4,538
발문형	6	301	5	194	4	114	6	159	21	768
협약설명회	-	-	4	320	4	165	-	-	8	485
IP역량강화	-	-	2	75	2	43	4	76	8	194
세미나	-	-	1	57	-	-	-	-	1	1
온라인	-	2,097	-	2,533	상시	2,585	-	2,878	-	10,073
계	35	3,646	38	4,136	87	4,389	50	3,944	210	16,059

② 맞춤형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중소기업은 자체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기술애로 해결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서는 외부 고급인력의 적절한 활용이 중요하다. 그러나 박사급 고급 연구개발인력의 절반 이상이 대학에 분포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현장의 기술애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 사업은 대학 및 출연인의 기술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R&D 역량 제고 등 산학연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공학건설빙센터를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도에 국·공립대학교로 한정하여 운영하던 공학건설링센터를 2018년도에는 우수 사립대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기술어로 지원을 강화하였고, 2019년에는 9개의 공학건설링센터(대학 8개, 출연연 1개)로 확대하고 지정범위를 출연연까지 넓힘으로써, 더욱 다양한 기술수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현장중심의 기술어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하고 있다. 2021년 9개 공학건설링센터*(대학 9개)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 가천대, 인천대, 한성대, 대구대, 금오공대, 한밭대, 전북대, 전남대, 창원대

표 Ⅱ-3-1-11 | 2020년 공학건설링센터별 지원실적

(단위 : 건, %)

구 분		기술어로 해결의뢰서		기술어로 해결계획서		선정과제	
		상수	비율	상수	비율	상수	비율
서울/경기/강원	인천대	109	13.8	67	12.0	20	12.0
	한성대	75	9.5	43	7.7	14	8.4
	가천대	71	9.0	54	9.7	17	10.2
대구/경북	금오공대	138	17.4	91	16.3	25	15.0
	대구대	49	6.2	43	7.7	16	9.6
부산/울산/경남	창원대	123	15.5	94	16.8	21	12.6
대전/충청	한밭대	78	9.9	51	9.1	20	12.0
호남/제주	전북대	113	14.3	92	16.5	24	14.4
출연연	에너지기술연구원	35	4.4	24	4.3	10	6.0
총계		791	100.0	569	100.0	167	100.0

③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조선 산업 및 자동차 산업의 경기침체가 본격화·장기화 되면서 동 산업 거점지역 중소기업의 생산 감소, 고용위기 및 지역상권 침체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6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 위기지역(6개) :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경남) 거제시·창원시 진해구·통영시·고성군, (울산) 울구

동 사업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중소기업 및 해당 시도 내의 위기업종(조선·자동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맞춤형 기술예로 출구선 지원 및 Scale-up R&D를 지원하여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등을 통해 기술혁신 또는 사업다각화를 도모하여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과 지역혁신기관 간 기술교류회를 개최하여 지역별·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정보교류, 기술협력을 통한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2018년에는 현장수요형 R&D 심층과제 74개, 단기과제 39개 등 총 113개를 지원하였고, Scale-up R&D 과제는 31개를 지원하였다. 2019년에는 현장수요형 R&D 과제 166개를 지원하였고, Scale-up R&D 과제는 137개를 지원하였다. 2020년에는 현장수요형 R&D 과제 84개를 지원하였고, Scale-up R&D 과제는 131개를 지원하였다.

표 3-1-12 | 2020년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경남	울산	전남	전북	경북	대구	합계
현장수요형 R&D	과제수	18	18	16	16	16	-	84
	금 액	72	72	64	64	64	-	336
Scale-up R&D	과제수	19	19	18	18	28	29	131
	금 액	1,900	1,900	1,800	1,800	2,800	2,900	13,100
총 계	과제수	37	37	34	34	44	29	215
	금 액	1,972	1,972	1,864	1,864	2,864	2,900	13,436

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적 성장 및 위상 제고 뒤에는 1997년부터 한결같이 함께 해오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R&D) 지원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이하, 기술혁신개발사업)이 있다.

수출기업, 혁신형 기업 및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역량별(초기→도약→성숙)로 지원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역량을 키워주는 중소기업 전용 핵심 기술개발사업이다.

① 수출지향형·강소기업 100 기술개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강소기업,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년간 20억 원까지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1년도부터 소재·부품·장비분야 핵심전략 품목 국산화를 위해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년간 20억 원까지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② 시장확대형·소부장전략 기술개발

벤처·이노비즈 등 혁신형 기업과 VC 투자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그린, BIG3, 소부장, 신산업, 주력산업 고도화 등 중점전략 분야에 대한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년간 6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③ 시장대응형·소부장일반 기술개발

벤처·이노비즈 등 혁신형 기업, 소재·부품·장비 일반기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부장, 4차 산업혁명 전략 분야에 대한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년간 5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표 8-3-1-13 기술혁신개발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원금액	2,325	2,448	2,470	2,620	2,260	2,394	2,269	1,193	1,768
지원당개수	1,053	1,081	1,087	1,107	1,029	1,147	1,384	1,085	1,110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1만 83개 과제에 1조 9,747억 원을 지원하였고, 최근 3년(18~20) 간 사업화 실적은 총 2,100건, 2조 3,577억 원의 매출 등 동·사업 지원을 통해 높은 지원성적을 달성하였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분야 국산화를 선도할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전용 R&D 과제를 신설하고 전략품목을 발굴 및 집중 지원(509개 과제, 1,010억원)을 통해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국산화를 선도할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였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장사다리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이 Scale-up 할 수 있도록 단계별 R&D지원과 중소기업의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을 도모 하도록 전략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3)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지원

창업기업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자본력 및 자금 조달능력 부족으로 기업의 생존과 지속 성장의 원동력인 기술개발 투자에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창업기업이 기술개발 시 수반되는 위험과 실패에 대한 부담을 흡수·완충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 전용 R&D사업인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R&D)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에게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창업 생존율을 높이고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업력 7년이 지나지 아니 하고, 직전년도 매출액 20억 미만의 창업기업에게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다담들은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재창업, 여성기업, 소셜벤처, 사회문제 해결R&D 등 창업저변 확대형 단기 기술개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년간 1.5억원까지 지원한다.

전략형은 4차 산업, BK21, 한국형 뉴딜 분야 등 고기술유망기술 분야 창업 기업의 기술개발, 고급기술 창업 확대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2년간 4억원(2년부터 최대 2년간 3억원까지) 지원한다.

TIPS는 액셀러레이터 등 TIPS 운영사(기관)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팀의 보유벤처링,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2년간 3억원까지 지원한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총 16,497개 과제에 21,543억 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소규모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다.

표 II-3-1-14 | 연도별 창업성장기술개발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개)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지원 과제수	90	86	598	1,331	856	1,102	1,230	1,332	1,364	2,256	2,905	3,286	16,497
지원 예산	100	100	950	1,138	1,314	1,414	1,604	1,888	1,976	2,800	3,733	4,508	21,543

*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 계속과제 포함

2014년부터 2018년까지 R&D과제 종료기업의 성과를 측정한 결과, 정부출연금 1억 원 당 평균 6.6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기술적 성과로 세계최고수준 대비 기술수준 및 기술자립도는 각각 35.6%p, 37.0%p가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부출연금 1억 원 당 신규 고용 인력은 5.5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은 디지털 및 그린경제로의 가속화에 대응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한국판 뉴딜분야 지원, 타 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우수기업 선발추천 트랙 신설, 사회문제 해결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연계를 통한 국민과 함께하는 신규 사업 추진 등 우수과제 발굴 기능을 강화하였다.

창업기업의 미래 유망기술 선점을 위한 전략적 지원 및 다양한 R&D 지원 방식 도입으로 창업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4)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는 세계적 수준의 전문기업 300개를 육성하기 위해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World Class 기업(세계적 수준의 기업) :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안정적 성장궤도에 진입한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며, 거래관계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서 세계적 기업과 경쟁, 거래, 협력하면서 시장을 확대하여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

동 사업의 경과를 살펴보면, 2010년 3월, 제51회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세계적인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2011년 2월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5월에 성장 잠재력과 혁신성을 갖춘 30개 기업을 처음으로 선정하였다.

표 0-3-1-16 |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 현황

(단위: 개사)

구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선정기업	313	30	37	33	56	30	50	36	41
선정취소	29	3	3	6	11	3	2	1	-
누계	284	27	34	27	45	27	48	35	41

매년 30~50개사를 선정하여 2021년 6월 현재 284개사의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다.

'월드클래스 300' 기업은 전년도 매출액 4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RSW, 엔지니어링, 디자인 업종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면서,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20% 이상인 기업으로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용이 평균 2% 이상 이거나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5%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요진심사 → 분야평가 → 현장심사 → 종합평가 등 4단계 심층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이렇게 올해까지 선정한 284개사를 분석해 보면, 중소기업이 119개사 중견기업이 165개사이고, '19년 기준 수출비중(수출액/매출액)이 평균 58.2%이며 기술개발 투자 비중(연구개발비/매출액)이 7.2%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통신, 기계·장비, 소프트웨어, 의료·광학기기, 섬유, 의약품 등 주력 분야와 신산업 분야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

표 3-1-16 |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 업종별 현황

(단위: 개사)

선정 년도	전자 부품 통신	기계· 장비	자동차 부품	섬유· 화학	SW	금속	의료· 광학 기기	섬유	농· 어업	의약품	전기 장비	문화 장비	지식 서비스	계
11년	10	2	3	2	3	3	3	1	0	0	0	0	0	27
12년	10	7	3	5	2	1	1	1	0	1	2	1	0	34
13년	9	4	6	1	0	2	3	1	0	0	0	0	1	27
14년	11	6	8	2	6	3	2	1	0	3	2	0	1	45
15년	11	3	4	1	0	0	4	1	0	2	0	0	0	27
16년	11	10	10	6	1	4	4	1	0	1	0	0	0	48
17년	9	8	6	4	1	2	1	0	0	1	0	0	3	35
18년	5	11	9	2	4	2	5	0	0	0	2	0	1	41
계	76	51	49	23	17	17	23	6	0	8	6	1	6	284

선정된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게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10년간 기술개발 및 해외마케팅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정기업의 향후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5년간 75억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에서 현지진출까지에서 필요한 해외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5년 간 총 3.8억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특허전략개발원,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금융, 인력,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기업별 성장전략 이행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기업의 성장경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11~'19년간 선정기업들은 기업 스스로의 성장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그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선정전 대비 매출액은 30.3%, 수출액은 28.8%, 고용인원은 22.5%가 증가하였다. '11~'18년 R&D 지원과제의 경우, '20년말 기준 개발제품의 R&D기여 매출액은 1조 3,564억원(R&D기여도 반영)이 발생하였다.

5)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

창업기업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자본력 및 자금 조달능력 부족으로 기업의 생존과 지속 성장의 원동력인 기술개발 투자에 열악함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창업기업이 기술개발 시 수반되는 위험과 실패에 대한 부담을 흡수·완충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 전용 R&D사업인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R&D)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에게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창업 생존율을 높이고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은 대학·연구기관의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인력·장비·기술 등)를 활용한 공동R&D를 통해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1993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R&D지원사업에 대한 전면 개편(2013년)을 실시한 결과,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과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이 통합되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R&D역량을 강화하는 첫걸음R&D와 연구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도약R&D사업이 신설되었다.

2017년에는 전략적 산학연협력체계 구축 및 유망 중소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전략협력사업을 신설하고, 내역사업 개편으로 기존 도약협력의 산연전용, 연구마을 과제를 전략협력으로 편입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장비부족 문제해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을 동 사업 내역사업으로 편입하였다.

2018년에는 사업비 포인트제를 도입하고 지정회계기관 운영을 통해 사업비 정산 및 사용의 투명성·전문성을 높여 사업관리를 강화하였다.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은 2019년 일몰되어, 2020년도에 종료되었다.

표 Ⅱ-3-1-17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억원, 개)

구분	연도 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예산	9,458	1,389	1,458	1,520	1,382	1,308	1,395	417	42	18,389
참여기업	36,250	2,041	1,865	2,179	2,082	3,467	4,034	883	144	52,935

* 2017-2018년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지원과제(수혜기업) 포함

① 전략협력

전략협력은 산학연협력이 우수한 대학,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고(산연전용, 연구마을과제) 지역의 유망한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지역유망중소기업과제) 사업이다.

특히 2014년에는 국가연구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산업별로 특화된 연구기관의 참여를 위한 산연전용과제를 신설하여 현재까지 832억 원, 712개 과제를 지원하였고 묶음예산 지원방식을 통해 연구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성과위주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자체 R&D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이를 집적하는 형태의 연구마을 사업을 2013년 시범운영하여 현재까지 754억 원, 948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지역별, 산업별 분포 등을 고려한 30개 거점형 연구마을을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 R&D특성화를 추진하였다.

2017년에는 지역의 유망한 중소기업이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지역경제를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유망 중소기업과제를 신설하였고, 지역별 산업특색을 반영하기 위해 과제 공고부터 선정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지자체가 책임지고 일괄 진행하도록 하였다. 2017년 11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35개 기업에 42억의 국비를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13개 지자체로 확대하여 49개 지역 중소기업에게 8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였다.

2019년에는 13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79개 중소기업에게 57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였다. 2020년도에는 연구마을 98개 과제 및 지역유망 중소기업 46개의 총 144개의 종료과제를 지원하였다.

표 0-3-1-18 | 연도별 전략협력사업 추진실적

(단위: 억원, 개)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지원	과제수	490	669	355	144	17년 연구마을, 신안전용과제 전략협력으로 반영 20년 사업종료
	금액	443	594	254	42	

6)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지원

제조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매출의 27.7%, 종사자 19.6%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수의 제조 중소기업은 자금·인력·설비 등의 부족으로 시장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등의 기술개발도 상당히 부족하다.

이에 대외 환경변화와 시장·소비자 니즈에 신속한 대응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조 중소기업의 공정혁신을 지원하여 단기간(2년 이하)에 기술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를 촉진하는 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제조 중소기업 대상의 원활한 스마트공장 구축을 촉진하고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자 2020년부터 내역사업 개편을 통한 제조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공정기술개발 및 실증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혁신형R&D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예정 제조 중소기업의 공정 자동화·지능화·효율화 등에 따른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학·연 기관과 협력을 통해 공정기술 개발 및 실증을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65% 이내를 지원한다.

현장형R&D는 자금력이 부족한 제조 중소기업의 불량률감소, 원가절감 등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현장 맞춤형 공정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75% 이내를 지원한다.

표 3-1-19 |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	41,503	30,003	31,160	37,714	36,035	44,383	44,383	40,665
지원과제수	674	611	564	680	838	811	791	1,012

향후 제조 중소기업의 고위험, 노동집약, 자동화 난제 공정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과 동시에 품질향상,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과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해외 의존·이전이 많은 공정을 고도화하여 제조 중소기업의 해외이탈 방지 및 리쇼어링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기차,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모바일 기기, 로봇 등 신성장 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산학연 Collabo R&D 지원사업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대학의 연구인력 등 보유자원을 활용 지원하는 산학협력R&D, 연구기관의 전문기술 분야에 기반하여 지원하는 산연협력R&D 두 개의 내역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예비타당성 심의를 통과하여 2019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1단계(예비연구)를 도입하여 아이디어 및 기술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R&D를 지원하는 2단계(사업화R&D)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우수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신규사업으로 1단계(예비연구) 250개 과제(산학175개, 산연75개)를 지원하여 예비연구를 수행하였다.

2020년에는 1단계(예비연구) 295개 과제(산학206개, 산연89개)를 지원하였으며, 2019년 1단계 완료과제에 대하여 2단계(사업화R&D) 지원을 시작하여 127개 과제(산학89개, 산연38개)를 지원하였다.

표 11-3-1-20 | 2020년 산학연collabo R&D 사업 지원 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2019년		2020년		
	지원 금액	지원 과제 수	지원 금액	지원 과제 수	
합계	123	250	317	422	
1단계	산학협력	86	175	102	206
	산연협력	37	75	44	89
2단계	산학협력	-	-	119	89
	산연협력	-	-	52	38

* 2단계의 경우 2020년 1단계 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지원

8)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전주기 R&D지원을 함으로써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신설되어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선도연구기관이 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상담과 진단을 지원하고 지원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R&D 및 사업화 성공을 위한 사업화R&D 지원의 총 3단계 프로세스로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전문역량을 가진 3개의 선도연구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지정하였으며, 2020년에는 대내외 환경 변화의 적시 대응 및 소재·부품·장비 부문 집중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개의 선도연구기관(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을 추가 지정하여 총 181개 기업을 진단 후 40개 기업의 산연 협력 R&D과제수행 그리고 18개 기업 대상의 후속 사업화R&D를 지원하였다.

표 II-3-1-21 | 2020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지원 금액	지원 과제 수
합계	60.8	239
1단계(기업진단)	1.8	181
2단계(산연협력R&D)	49	40
3단계(사업화R&D)	10	18

9) 연구기반 활용사업

연구기반 활용사업은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전문 인력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공유화산형과 연구집중형으로 구성된다. 공유화산형은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이용료를 최대 5백만원 이내로 바우처를 지원하고, 연구집중형은 공유화산형을 수행한 중소기업 중 심도있는 연구 개발을 위해 연구장비 및 전문 인력의 활용할 경우 최대 7천만원 이내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2020년 198개 운영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10,435대 연구장비를 등록하였으며, 2,435개 기업에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시설 25,516건을 지원하였다.

표 II-3-1-22 | 연구기반활용사업 실적 현황(2020년)

(단위 : 개, 백만 원, 대)

구분	예산	참여기업	운영기관	지원건수	장비대수
19년	13,644	1,888	174	20,097	9,260
20년	13,882	2,435	198	25,518	10,435

10)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지원

①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

2002년부터 기술개발 단계부터 양적적 판로를 보장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이를 상용화하여 판매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수요처 특성에 따라 구매연계형과제(공공기관, 대중견·중소기업 등 국내외 수요처) 및 공동투자형과제(공공기관, 대·중견기업 등 투자기업)로 구분되며, 구매연계형과제는 2년 이내, 5억 원 한도, 공동투자형과제는 3년 이내, 12억 원 한도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수요처(투자기업)에서 일정기간 구매를 보장해주는 사업이다.

표 II-3-1-23 | 지원 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구매연계형	최대 2년, 5억원 이내	65% 이내	지정공모 /자유응모
공동투자형	최대 3년, 12억원 이내 (투자기업출연금 별도)	65% 이내	

국방 과제(13개)를 시범사업으로 2012년 시작한 등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0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9조,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 제5조, 제8조에 따라서 추진되었다.

표 II-3-1-24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추진 경과

- (2002년) 중기청-국방부간 「국방기술개발협력」 체결,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시범실시
- (2005년) 사업영역수요처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대기업 7개사 참여)
- (2008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내에 '민·관 R&D 협력펀드 과제'를 신설
- (2009년) 해외 유수기업 및 바이어 등을 수요처로 한 해외수요연계 기술개발 지원
- (2011년) '민·관R&D 협력펀드' 과제를 확대 개편하여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신설
- (2014년) 「국기계약법 시행령」에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의 수의계약 근거 마련
- (2019년) '혁신지향 공공조달방안'의 '맞춤형 R&D사업'의 세부추진 과제로 추진
- (2020년) '구매연계형일방조달혁신소부장', '공동투자형일방BIG3소부장'으로 개편

2002년부터 2020년까지 '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수요처는 총 1,260개에 이르며, 그간 총 1조 6,039억 원을 투자하여 총 6,129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전체 R&D 평균 사업화율(50.2%) 및 과제 매출액(19.7억)에 비해 높은 등 사업의 사업화율(68%) 및 과제 매출액(28억) 수치는, 등 사업이 연구개발의 기술적 성과를 넘어 중소기업의 매출발생이라는 경제적 성과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표 II-3-1-25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실적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매산액(백)	1,366	1,420	1,436	1,438	1,668	2,130
지원과제수(개)	510	565	560	385	519	697

성과조사 항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업화성공률(%)	77.0	81.6	79.0	79.4	74.4	68.0
매출액(과제당, 억원)	6.7	26.9	21.2	16	20.5	28

② 공동투자형(구, 민·관 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조성 확대

2008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민관공동R&D 투자협약 과제'를 신설한 이후, 그 재원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과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을 조성에 오고 있다.

2020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 총 19개사(신규참여 11개사, 추가조성 8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까지 총 88개 투자기업과 7,005억 원을 조성하였고, 총 1,081개 과제에 5,482억 원을 지원을 결정하였다.

표 II-3-1-26 |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조성 현황(누계)

(단위: 억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조성기업(개)	22	35	53	57	62	65	70	77	88
조성금액(억원)	4,380	5,508	6,314	6,814	6,004.40	6,285	6,481.8	6,933	7,005
정부	2,303	2,936.2	3,074	3,056.40	3,250.60	3,465	3,904.4	3,500	3,771
투자기업	2,029.7	2,571.8	2,940	3,757.60	2,711.80	2,800	2,937.4	3,003	3,234
대기업	1,584	1,873	1,888	1,888	1,135.20	1,101	1,200.3	1,333	1,446
중견기업	115.7	303.8	521	678.6	645.6	933	801.1	679	705
공공기관	330	395	531	591	731	756	846.0	991	1,083

표 II-3-1-27 |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조성업체(2020년)

구분	협력업체	투자기업명
민간 (65)	4,839억원	모스코, 르노삼성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아이,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한화에너지, 롯데마트, 엔에스시스템, 스텝코, 엘지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LS엔트프, SK텔레콤, 모스코에너지, 케이타, 케이씨씨건설, 인텔, 네이버, 한솔테크닉스, 주성엔지니어링, 안성정보, 크루셀텍, 경창산업, 동양물산기업, 휴맥스, 오백캐리어, 아진산업, 대동공업, 디아이씨, 토크, 국제종합기계, 세하, 아이즈비전, 에스에프에이엔도체, 대상, 제이더블유홀딩스, 아오레퍼시픽, 삼지전자, 한국항공우주산업, 다산네트웍스, 파워로직스, 케이엠더블유, 미래너노텍, 루멘스, 대교, 이엘케이, 웅진에너지, 웅산, 아래에이엠에스, 에스에너지, 엑스코, 뉴프렉스, 힐윙텍, 엠씨서비스, 진영지엔티, 성림첨단산업, 한백종합건설, 달연지니어링, JW바이오사이언스, 라이온셀텍, 마세아텍
공공 (23)	2,166억원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에스알(SFT)

본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기술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수요처에 대한 구매실적 관리강화,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상용화율을 제고하여 투자효율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③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혁신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기술개발 및 시장환경에 적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기술개발환경의 대형화·복합화·고비용화 및 기술수명주기의 단축 등으로 단독 R&D 수행이 가지는 부담과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협력으로 혁신역량의 상호 보완을 통한 환경변화 대응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으나, 중소기업은 아직 베타형 기술개발에 치우치고 있어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 R&D를 통한 고부가가치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R&D를 지원하였다.

동 사업의 기획지원 단계에서는 공동개발기관 배정, 사업화 전략수립, 상호협력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단계에서는 네트워크 협력체를 대상으로 정부출연금을 최대 6억 원까지 지원하여 네트워크 협력체가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고, 신시장에 진출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55개 과제, 2019년 62개 과제, 2020년 100개 과제에 대해서 기획지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 24개 과제, 2019년 36개 과제, 2020년 52개 과제를 선정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3-1-28 | 지원 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기획 지원	최대 6개월, 3천만원	90%	자유응모
R&D 지원	최대 2년, 8억원	65% 이내	

동 사업은 기술개발의 전주기(기획-기술개발-사업화)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형 융합 과제 발굴 및 지원방식의 다각화로 개방형 산·산 협력 R&D 환경 구현에 앞장설 것이다.

11)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기업이 제품화에 성공하였더라도 이러한 규제들을 통과하지 못하면 시장진입 및 제품판매에 지장을 초래하기에 때문에 기술규제 대응을 위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관련 규제를 고려하지 못해 R&D 결과물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R&D 기획·수행 단계부터 규제 대응을 위한 기획 및 R&D를 지원하는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이 2020년 신설·추진되고 있다.

동 사업은 규제 대응이 필수적인 R&D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획기관을 지정하여 1단계 기획단계 컨설팅(3주, 과제당 5백만원)을 수행하고 이 가운데 규제대응의 필요성, 기술개발 방법 및 사업화 계획이 우수한 과제를 선정하여 R&D 지원(2년, 과제당 5억원)을 실시하게 된다.

2020년 총 98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획지원 160개 과제, R&D 67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규제대응 기획기관의 전문가를 “규제도우미”로 지정하고, 협약기간 동안 인허가 등을 위한 컨설팅을 상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 관점의 중소기업 규제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이 제기한 각종 규제건의를 소관부처에 안내하는 등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표 II-3-1-29 | 2020년 기술규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개, 억원)

구분	신청과제	지원과제	지원금액
1단계(기획지원)	334	160	8
2단계(R&D)	175	67	87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대응 컨설팅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각 부처에 공유·협조하고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R&D 사업화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간담회 개최를 통한 주요 규제 해결방안, 전략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기술기준(규정) 개정사항, 인·허가 사례 등 최근동향 및 규제 전략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12)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2020년 신설되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오염원 배출저감 및 실내 공기질 개선 등 노출저감 분야에 대한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신속한 개발을 위해 연간 최대 2.5억 원까지 단년도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43건(배출저감 10, 노출저감 33)에 103억원을 지원하였다.

13) 예비가젤형 기술개발사업

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 등의 역량이 우수한 고성장 기업 확대를 위해 예비가젤형 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유망종목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2020년에 신설되어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고성장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발굴하여 최대 2년간 6억 원까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50개 기업에 72억 원을 지원하였다.

14)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사업

지역중소기업, 조합, 대학·연구기관 등이 기술교류를 통해 지역중소기업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수요기술의 개발 및 보급·확산을 목적으로, 2020년 신설되어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8개 권역별(권역 : 서울경기인천, 강원, 광주전남제주,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부산울산경남, 전북, 충북)로 전소사업(지역중소기업, 조합, 대학·연구기관 등)을 구성하여 지역 중소기업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수요기술의 개발 및 보급·확산 지원을 1단계(과제기획), 2단계(공동수요기술 R&D), 3단계(사업화 R&D 및 보급·확산)로 단계별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1단계(과제기획) 44개를 지원하고, 1단계 완료 과제중 22개 과제를 선정하여 2단계(공동수요기술R&D) 를 지원하였다.

표 II-3-1-30 | 2020년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억원, 개)

구분	2020년	
	지원 금액	지원 과제 수
합계	63	64
1단계 과제기획	13	42
2단계 공동수요기술 R&D	50	22

* 3단계의 경우 2020년 1단계 완료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선정 후 지원예정

15)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 사업 지원

대학에 구축된 기술개발 인프라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산학협력 거점으로 개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역량향상을 견인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은 사업수행 기간 대학의 연구실에 1인 이상을 파견하고, 대학은 실험실·연구인력·장비·기술이전·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동 사업은 2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 중소기업 기술역량분석, 2단계 맞춤형 R&D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2020년도 신설되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3-1-31 | 운영기관별 참여기업 신청 및 선정 현황

(단위: 개)

구분		1단계 기술 역량분석			2단계 맞춤형 R&D 지원			
		신청	지원	경쟁률	추천	신청	지원	경쟁률
수도권	한국산업기술대학교	145	50	2.9:1	25	25	15	1.7:1
중부권	한밭대학교	91	58	1.6:1	25	25	15	1.7:1
대경권	금오공과대학교	54	40	1.4:1	25	25	15	1.7:1
동남권	황원대학교	58	46	1.3:1	25	25	15	1.7:1
호남권	전북대학교	63	52	1.2:1	25	25	15	1.7:1
합계		411	246	1.7:1	125	125	75	1.7:1

① 기술역량분석

대학은 산학협력R&D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문가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맞춤형 지원전략을 기획을 지원한다.

표 II-3-1-32 | 중소기업 기술역량분석 추진실적

(단위: 개, 억원)

구분	2020	
기술역량분석(1단계)	과제수	246
	금액	4

② 맞춤형 R&D 지원프로그램

1단계에 수립된 맞춤형 지원계획을 참여기업 파견인력과 운영기관의 과제책임자를 중심으로 종합 지원하여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기업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II-3-1-33 | 연도별 중소기업 맞춤형 R&D 지원 추진실적

(단위: 개,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맞춤형 R&D 지원(2단계)	과제수	75(신규)
	금액	56	112	56

16)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국가별 인증제도는 과거 미국이나 EU, 일본 등 선진국의 전유물이었으나 최근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들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국민의 안전과 산업보호를 위해 표준, 기술규정 등 무역기술 장벽을 경쟁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확보를 통한 수출동력 향상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성장환경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출제품이 해외시장에서 유통·판매되기 위해서는 해당시장이 요구하는 특성 및 생산방법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시장 진입의 선결조건이지만, 우리 중소기업은 해외시장 진입 시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의 기술적 목표달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소기업이 제품 생산 전 타겟 국가의 인증 및 규격에 적합한 기술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수출을 위한 추가 비용 및 기간을 절감 할 수 있도록 2020년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이 신설·추진되고 있다.

동 사업은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신제품 또는 기존제품의 타겟국가의 해외 인증을 철저히 준비하여 수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제품 수출시 필요한 타겟 국가의 인증에서 요구하는 스펙에 적합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연계 지원한다.

2020년 총 72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93개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당 최대 1년간 1.5억원을 지원하여 해외인증 취득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확대 및 사업화 성공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11-3-1-34 | 2020년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지원실적

(단위: 개, 억원)

구 분	신청과제	지원과제	지원금액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314	93	69.8

향후 성과확산을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과의 연계지원을 통해 동 사업 선정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연속성 있는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17)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지원사업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지원사업은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 컨소시엄으로 대학·연구소 기술지주회사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술이전·창업 및 사업화 확대를 통해 지역산업·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2020년 신설되어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사업화 전담조직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회사를 발굴하고 자회사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자회사는 사업화 R&D를 수행하여 신제품을 출시하고 매출실현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0년 전문역량을 가진 10개의 대학·연구소 기술지주회사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과제별 4개 내외 자회사를 참여기업으로 선정하여 총 51개 수행기관에 사업화 R&D 과제 수행을 지원하였다.

표 II-3-1-35 : 2020년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지원사업 지원실적

(단위: 개, 억원)

구분	지원 금액	지원 과제 수
합계	72	10
수도권	21.6	3
비수도권	50.4	7

18)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제조기반 중소기업에 필요한 AI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0년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제품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여 기업의 혁신과 신제품 기술개발 창출이 가능한 기술을 중점 선정·지원 하였으며, 고객에게 새로운 제품을 제공하려는 기업의 니즈(고부가가치화)에 중점을 두어 최대 1년간 3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고부가가치 제품과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가치를 창출하고 시장지향적인 제품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총 77개 과제, 149억원을 지원하였다.

19) 빅데이터기반 서비스개발사업

민간 및 공공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의 신산업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0년 '빅데이터기반 서비스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자사 보유 데이터 포함) 및 공공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통해 데이터 수집·분석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완성도 높은 서비스 개발을 위해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신산업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0년에는 총 53개 과제, 62.5억원을 지원하였다.

20)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정부에서는 유라시아 역내 국가와 과학기술협력을 통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신북방 정책을 발표(17)하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 및 인근국가와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주도의 혁신성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20년부터 신규 추진하였다.

동 사업은 신북방 국가의 혁신원천기술과 우리 중소기업이 강점을 가진 ICT·제조 기술을 접목하여,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기술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표 II-3-1-36 | 지원 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연보칙
기술진단·기획	최대 6개월, 3천만원 이내	100%	물목지정
상용화기술개발	최대 2년, 4억원 이내	80%	물목지정

러시아 원천·핵심기술 보유자 등 전문가로부터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공정 애로 사항에 대한 기술컨설팅을 지원하는 '기술진단·기획' 과제는 최대 6개월, 3천만원 이내 정부출연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2020년 총 25개를 지원하며 종료되었다.

러시아 보유 핵심 기술도입을 통한 후속 상용화 제품 개발 지원 및 新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 수요기술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상용화기술개발' 과제는 최대 2년, 4억원 이내 정부출연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2020년 총 13개를 지원하였다.

표 II-3-1-37 | 2020년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개, 억원)

구분	신청과제	지원과제	지원금액
상용화기술개발	31	13	13
기술진단·기획	27	25	7.5

중소기업이 타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선진국 국가와의 기술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네트워크를 보유한 '상용화지원기관'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러혁신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현지 기관(기업) 간의 기술협상, 의사소통, 기술 도입 및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3-1-38 | 2020년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상용화지원기관 지원실적

(단위: 개)

구분	영국 기업·전트가 매칭	소통비로 해소 지원	분야사업 대동
상용화기술개발	114	34	14
기술진단·기획	53	1	-

협력 대상국과 과학기술 중심의 개방·혁신·협력 성과를 창출하고, 기술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협약'을 지원한다. 온라인 상담회, 온라인 기술이전 계약식 등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추진되었으며, 양국 주요 혁신 협력 관련 프로그램 공유,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시장진출 확대 활성화 방안 논의 등 협력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며 종료되었다.

동 사업은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러시아부터 시작하였으나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협력 수요를 고려하여 기술 선진국 등으로 기술협력 대상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21) Tech-Bridge활동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지원

① 수요기반 기술이전

2019년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19년 7월) 한국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정부는 공급 다변화 및 조기 국산화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동 사업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와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 단일 국가에 대한 높은 해외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 기획되어, 2020년부터 기술이전 플랫폼인 Tech-Bridge를 통해 대학·연구소의 공공기술의 기술이전을 연결 해주고, 공공R&D 성과물의 이전부터 기술개발, 사업화 금융지원까지 One-Stop 패키지로 연계 지원하는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중소기업이 우수한 공공 기술 이전을 통한 혁신성장과 이후 조기 국산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2년 이내, 8억 원 한도 중소기업 기술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부장 핵심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정공모로 지원하고 있다.

표 II-3-1-39 | 지원 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연도	원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수요기반 기술이전	최대2년, 8억원 이내	75%	지정공모

소부장 분야의 품목에 부합하는 RFP의 기술수요조사 및 과제기획을 통해 20년도 280여개의 RFP를 발굴하였으며, 평가절차를 통해 2020년 1차 31개, 2차 19개, 총 50개 과제를 선정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였다.

표 II-3-1-40 | 2020년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개, 억원)

구 분	신청개수	지원개수	지원금액
1차	70	31	89
2차	38	19	36

21년도 지원을 위해 200여개 RFP를 추가 발굴하였으며, 해외의존도 탈피 및 국산화 시급성이 높은 기술개발 과제를 신규 지원하고 우수한 공공기술 이전과 함께 공동연구를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

4차 산업혁명 및 스마트공장으로 인한 초지능·초연결 기반의 제조 산업 혁신을 위한 가장 일차적인 선행기술은 데이터의 생성을 담당하는 센서 산업이다.

센서는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과 결합하여 스마트공장, 로봇,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핵심 선행기술이다.

하지만 급성장하는 IoT 및 지능화 시장에 비해, 국내 센서 산업의 시장규모는 세계 시장을 1.6%,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6%로 경쟁력이 낮아, 센서 수요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혁신의 일환으로 '22년까지 3만개의 스마트공장의 보급을 지원 중이다. 스마트공장 확산과 IoT 적용의 증가로 센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예정으로 국내 산업의 강점을 활용하여 센서의 국산화와 산업의 부가가치의 제고가 필요하다.

이에 제조산업의 지능화와 미래 신산업에 필수적인 스마트센서의 개발을 위해 2020년부터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하여 제조현장에 적합한 스마트센서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사업은 고부가가치 스마트센서 기술개발을 통해 스마트제조혁신의 핵심 부품과 솔루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현장의 고온·다습·먼지 등의 환경에서 고신뢰성의 데이터 취득 및 저장·통신·자동보정·자가진단을 구현하는 스마트센서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미세한 신호를 감지하고 노이즈 캔슬링 등 신호열화를 방지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고신뢰성 데이터 취득이 가능한 센서를 개발하고, 취득한 데이터의 저장·전처리(보정)·분석·진단하여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센서의 지능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최대 2년간 6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80%내에서 지원한다.

표 II-3-1-41 | 지원 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제조현장맞춤형 스마트센서	최대 2년, 6억이내	80%	자유응모

표 II-3-1-42 | 2020년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지원 금액	신설 과제 수	지원 과제 수	경쟁률
제조현장맞춤형 스마트센서	45	124	21	6.2:1

2021년에는 다종의 센서를 융·복합하고 AI, 빅데이터 기술을 융합하여 고부가가치의 정보를 생산하는 지능화 개발의 지원을 강화하고, 제조업 현장에 적합한 센서 개발을 위해 현장상황을 반영한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수요부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의 ICT, 시스템 반도체 역량을 결합하여 외산 의존도가 높은 산업용 센서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생산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센서 부품·솔루션의 확산을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3)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정부는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의 보급과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다. 2019년 까지 스마트공장 보급수준은 기초 단계가 79%로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단계로 이르는 공급기술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마트공장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저장 공간 및 관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솔루션의 확보를 통해 스마트공장의 고도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조업 종사자의 연령이 갈수록 고령화 되고 청년의 제조업 기피로 인해 제조 공정 숙련자의 노하우 단절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숙련기술인의 보유기술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전수할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의 생산성향상의 도모가 필요하다.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은 제조데이터의 활용능력 및 관리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생산 현장에서 바로 적용가능한 스마트공장 솔루션의 상용화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내 제조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솔루션을 개발하고, 생산현장의 노하우를 디지털화 하여 스마트공장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연계한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한다.

표 II-3-1-43 | 지원 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비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클라우드기반 데이터플랫폼 개발 K-웹시스트기술개발	최대 2년, 5억이내	80%	자유응모

표 II-3-1-44 | 2019~2020년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지원 금액	신청 과제 수	지원 과제 수	경쟁률
2019년	36	57	19	3.5:1
2020년	117	102	33	3.1:1
합계	153	169	52	3.3:1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은 2022년 일몰예정으로 2021년부터는 2019년과 2020년에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의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개발 및 현장 노하우 데이터의 축적·분석·활용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의 제조혁신 및 관련 산업의 성장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24)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사업은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제조현장 스마트화,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위한 제조기술융합센터 및 테스트베드 구축을 목적으로 2020년 신설되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력산업의 중소기업 제조현장과 연계하여 클라우드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및 제조기술융합 분석서비스 제공과 제조현장에 적용가능한 DNA(Data, Network, AI)기술 도입, 제조데이터 저장·분석·수집을 통한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제조기업의 핵심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 등 핵심 성과지표(KPI) 향상을 위해 수행되고 있다.

2020년에 총 35.7억원(국비 14억, 지방비 21.7억)의 예산으로, 지역 주력산업 특화 연계 테스트베드 구축과 제조기술융합센터 건축을 지원하였다.

표 11-3-1-45 |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현황

구분	구축내용
주력산업 특화연계 테스트베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공정 스마트화 및 분석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 구축 - AI기반 비전검사 시스템 구축 (1종) - 클라우드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1종) •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관리 장치 도입 (1종) - 설비데이터 수집 장비 도입 (1종)
제조기술융합센터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기술융합센터 신축 - 제조기술융합센터 신축 부지* 확보(5,000㎡) • 충남 R&D특성지구 2차 부지 확보(충남 천안시 서북구) - 제조기술융합센터 신축 기본계획** 수립 ** 지상 6층 지하 1층 연면적 21,400㎡(기본계획 : 21.4, 실시계획 : 21.11, 착공 : 22.2, 완공 : 23.4)

25) 제조데이터 공동 활용플랫폼 기술개발

제조업은 코로나-19위기 국면에서 국내 성장둔화 최소화 및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였다.

향후,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및 "V자 반등" 시현 등 강한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용 인공지능 기술 확보·확산을 지원하는 등 사업을 2021년 신규로 기획하였다.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은 제조 현장에서 다수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공동활용모델 개발을 위해 연구소·대학의 전문인력과 중소기업의 공동 R&D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표 II-3-1-46 |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개)

구분		2021	2022	2023	합계
지원 과제수	신규	6	6	-	12
	계속	-	6	6	12
지원 예산		4,644	11,276	7,122	22,942

세계 산업용 인공지능 사용량이 많은 11개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기술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총 45개 기술 품목을 접수하였다. 기획위원회 → 경제성 분석 → 의견수렴 등 과제기획 절차를 통해 우선적 추진이 필요한 5개 분야, 6개 전략 품목을 도출 (7.5:1)하여 사업에 착수하였다.

표 II-3-1-47 | 세계 산업용 인공지능 상위 11개 기술 및 지원계획

구분	2021년	2022년
지원 품목	①예지보전, ②품질보증, ③생산공정 최적화, ④공급망 최적화, ⑤디지털트윈	⑥시뮬레이션, ⑦자원최적화, ⑧데이터 자동관리, ⑨스마트작업보조, ⑩공정자동화, ⑪스마트유지보수

* (출처 : Industrial AI Market Report 2020-2025 & ResearchGate, 2019,10월)

향후, R&D를 통해 개발된 우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환경 등은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AMP*)에 탑재하여 중소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제조업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

3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육성

- 기술개발과 권희준
- 성장형혁신성과 강인수

가.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100 프로젝트

정부는 '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19.8.5) 및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19.8.28)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9.12.31)으로 전면 개정하는 등 방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여 소재부품장비 전문 '스타트업 → 중소기업 → 으뜸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통해 창업초기부터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19.12월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54개사를 선정하였고, '20.11월 46개사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100개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선정하였다.

표 II-3-1-48 |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100(100개사) 지역별 분포 현황

(단위: 개)

계	경기	충남	관남	충북	대전	부산	경북
100	42	9	8	7	6	6	4
광주·전남	대구	인천	충청	서울	세종	전북	강원
4	3	3	2	2	2	1	1

선정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를 이끌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기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시 우선 지원하고, 지원사업을 안내받고 애로사항을 One-Stop으로 권의하는 일원화된 창구인 전담지원단(전담인력 12명)을 운영하여 실시간 소동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최대 30억원으로 상향, 일반기업은 불가능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중복보증도 중소기업은 허용하는 등 사업화 지원도 우대한다.

이를 통해 '21년 6월 기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개사에 705억원의 R&D 자금을 비롯하여 총 4,894억원(평균 48.9억원)을 지원하였고, '21년부터는 기업당 최대 4년·20억원을 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전용 R&D(50개 과제)와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기술개발하는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R&D(최대3년, 12억원, 30개 과제)를 신설하는 등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표 3-1-49 | 사업종류별 '20년 강소기업 지원 현황 (5개사)

(단위 : 억원)

구분	R&D	실행자금 보충	투자	기타	합계
지원금액	705	3,657	462	70	4,894

나. 소재·부품·장비 상생협의회 출범(상생모델 발굴)

정부는 '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19.8.5)을 발표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을 위해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회” 산하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구성하고 공식 출범(19.10.16)을 하였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설치운영 및 상생모델 발굴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법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20.4.1 시행)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상생모델 개념 마련, 제8조에 상생협의회 근거 및 기능 마련, 시행령 제14조 실무지원단 설치

상생협의회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서 수요·공급 기업 간 유기적 상생모델 발굴 및 성공사례를 만들고 대·중소기업 의견을 반영하여 역할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상생모델은 대기업이 필요로 하고,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생산이 가능하면서 중소제품의 판로가 대기업으로부터 일정부분 보장되는 품목이다. 상생모델 발굴은 중기부·대중소재단과 함께 수요·공급기업이 직접 참여하고 상생협의회 의결 및 관계부처에 지원 협의 검토를 거친다. 이후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승인을 거쳐게 된다.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과 대·중견기업을 연결하는 민간중심 대·중기 상생 협의회 3회 개최('20.1.22, 5.13, 10.14)를 통해 '소부장 상생모델' 8건(대기업 9개사, 중소기업 10개사)을 발굴·승인하였다. 상생모델 발굴을 위해 협·단체를 통해 상향식 수요조사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발굴('20.4월, 250개)하였고, 승인된 상생모델에 대한 패키지 지원 및 사후관리(과제건수 : 28건)를 실시 중이다. 상생모델은 수요 대기업이 외국기업을 선호했던 종전의 행태를 전환시켜 혁신 스타트업·중소기업과 분업적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24년까지 50개 이상의 상생모델 발굴이 목표이다.

협동연구+
공급망
상생모델

- (사례1) 반도체 증착공정용 부품(연간 250억원 규모)은 전량 일본 수입 중이었으나, 중견기업의 실증테스트 기회를 제공
- (사례2) 탄소섬유 설비(연간 750억원 규모) 및 소재(연간 340억원 규모)는 수입의존도가 90%를 차지하였으나, 수요력을 구비한 대기업에 중소기업 2개사를 연결하여 테스트 기회 제공

4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 제조혁신정책과 김순영
- 제조혁신정책과 천부길
- 제조혁신지원과 엄광수
- 제조혁신지원과 신병대
- 제조혁신지원과 송대근
- 제조혁신지원과 정재환
- 제조혁신지원과 서은상

가.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경쟁력 향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크게 신규구축과 고도화로 구분되며, 신규구축은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을 지원하고 고도화 사업은 가 구축된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 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 및 연동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솔루션은 현장 자동화(센서, 컨트롤러 등),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MES : 제조현장운영시스템), 제품개발(PLM), 공급사슬 관리 최적화(수요예측, 생산계획수립 등), 기업자원 관리(ERP) 등으로 구분된다.

'18년부터는 대기업·중소기업이 협력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사업을 추진 하면서 민간 주도의 스마트공장 구축이 확대되었으며, 정부 지원 기업수도 '19년도 2,820개 지원에서 '20년도 4,730개 지원으로 68%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II-3-1-50 | 민간·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현황

(단위 : 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	2020	합계
민간	133	304	548	525	679	1,937	2,409	6,533
정부	144	669	1,014	1,678	2,221	2,820	4,730	13,266
합계	277	963	1,560	2,203	2,900	4,757	7,139	19,799

나. 정부 주도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정부주도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02년부터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14년~)과 지역특화산업육성('15년~)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어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였다.('17.7)

'20년도에는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통해 정부에서 4,730개를 보급하였다.

표 II-3-1-51 | 정부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실적(중소벤처기업부)

(단위 : 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개)	-	308	649	1,218	2,127	2,820	4,730
생산현장디지털화(개)	144	137	147	193	-	-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개)	-	37	88	46	94	-	-

*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은 '18년부터,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은 '19년부터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으로 통합

'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지원금을 신규 구축은 최대 1억 원, 고도화 과제는 최대 1.5억 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 및 운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외직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지도·상담도 지원한다.

다. 민간 주도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민간주도의 대표적인 사업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으로서 '20년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18개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총 262.5억 원을 출연하여 1,000개 기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년부터는 민간의 자발적 스마트공장 구축을 유도하고 스마트공장 고도화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 수준확인 기관을 통해 '19년 914개, '20년 1,409개 등 총 2,323개 기업의 스마트공장 수준을 확인하였다.

라. 스마트공장 보급 성과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은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생산성은 28.5% 향상되었고, 불량률은 42.5% 감소, 원가는 15.5% 절감, 납기는 16.4% 단축되었다.

표 Ⅱ-3-1-52 | 스마트공장 지원 성과('14-'18년 7,903개 지원기업 대상)

(단위 : %)

지 표	생산성	불량률	원가	납기	매출	고용
성 과	28.5%↑	42.5%↓	15.5%↓	16.4%↑	7.4%↑	2.6명↑

특히,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은 매출이 7.4% 증가하면서 고용도 평균 2.6명이 증가하여 제조 경쟁력 확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은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통해 산업재해율도 6.2%가 감소하는 등 근로환경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사례(아산유니텍)



우수사례(태림산업)



우수사례(오성전자)

마.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AMP*) 구축

- *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①제조 데이터 저장·분석 인프라, ②인공지능 개발·활용 도구, ③인공지능 데이터셋과 표준모델, ④상용화된 인공지능 제조 서비스(솔루션), ⑤전문가 컨설팅·실증과 교육 서비스 등 제공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22) 추진을 통해 스마트공장 저변이 확대되고,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99%가 제조데이터를 수집·저장하는 등 제조데이터의 활용 기반은 마련되었다.

특히,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89%가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해 제조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있으나, 인프라 미비·전문인력 부족 등 현실적 문제로 개별 중소기업이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 *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미분석 사유('19.7) - (1위) 데이터·AI 인프라 미비(61.3%), (2위) 데이터 정비·솔루션의 가격 부담(24.2%), (3위) AI 전문인력 부족(14.5%)

이에, 중소기업도 제조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 고도화된 인공지능 스마트공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동 사업을 2020년 신규 기획하였다.

- *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 ('20) 116억 → ('21) 134억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은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AMP)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 인공지능 분석 도구, 인공지능 데이터셋, 교육 동영상, 전문가 컨설팅·기술도입(실증)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 KAMP 서비스 모델 홈페이지 메인화면



* KAMP 인프라 선형 화면

KAMP는 구축 초기 단계(2012.12.15.~)임에도 인공지능 제조 컨설팅 및 실증 지원을 통해 100개 공장의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해결했으며, 업계가 주목할 만한 우수사례도 다수 창출하였다.

- (인터로조社) 인공지능으로 콘택트렌즈 가공공정 최적화, 도수 적중률 70→99%
- (조선내화社) 내화물 품질검사에 인공지능 도입, 불량 판정 신뢰도 90→96% 향상 등

표 3-1-63 | 2020년 인공지능 제조 컨설팅 및 실증 연계 지원과제 현황

(단위 : 개)

구분	신청목표	신청과제	지원과제
도입기업	100	143개	100

2021년에는 실증성과, R&D 결과물 등 우수 인공지능 솔루션을 유통·활용할 수 있는 앱스토어를 운영하고, 이를 스마트공장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인공지능 제조 성과를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5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 기술정책과 남 정 열
- 기술정책과 박 민 지
- 재즈혁신지원과 신 정 대

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예산 확대

1) 정부의 중소기업 R&D 예산 확대

2020년 정부의 중소기업 R&D지원 규모는 약 5.2조원으로 정부 전체 R&D예산 24.2조원의 약 21.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6년간(2015~2020년)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14.1%로, 전체 정부 R&D 예산 연평균 증가율 5.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R&D 예산에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약 15.3%이다.

표 II-3-1-54 |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정부R&D 예산(a)	188,747	190,044	193,927	197,759	206,254	242,195	5.1	
중소벤처기업부R&D 예산(b)	9,835	9,563	11,172	10,916	10,744	14,885	8.6	
KOSBP (중기부외)	정부기관(c)	19,248	20,386	21,737	20,981	21,021	37,247	14.1
	공공기관	119	317	361	387	387	391	26.9
	소계	19,367	20,703	22,097	21,368	21,408	37,638	14.2
정부기관 합계(d=b+c)	29,083	29,949	32,909	31,899	31,765	52,132	12.4	
비중(d/a)	15.4	15.8	16.9	16.1	15.4	21.5		

중소벤처기업부 R&D 예산은 2015년 9,835억 원에서 2020년 14,885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8.6%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한 정부 중소기업 R&D 지원 증가율 5.1%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Ⅱ-3-1-55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R&D 지원예산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중소기업R&D지원제도	55	55	108	108	237	237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회계)	2,650	2,250	2,294	2,259	1,272	1,788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특별회계)						754
합계(일반회계)	1,624	1,585	1,976	2,833	3,733	4,368
합계(특별회계)						143
중소기업성장기출발사업(일반회계)	1,001	1,470	1,001	1,772	1,947	2,252
중소기업성장기출발사업(특별회계)						150
Tech-Seed(일반회계)						110
중소기업이천기술개발	300					
공공융합기술개발	312	377	360	444	444	410
중소기업융합기술개발	665	308	300			
연구창의공동이용지원	155	127				
신학업공동기술개발	1,520	1,082	1,308	1,315	426	44
지역중소기업공동수요기술개발						65
신학업의가점형활성화사업						52
기술지주회사지원사업 R&D						75
시장형출발기술개발	60	57				
기술개발연계 지원	90					
제품서비스기술개발			58	83	121	
글로벌중소기업육성프로그램 지원			701	653	626	443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38	38		
중소기업연구개발지원			250	294	344	358
연구기반지원					126	137
기술규제개선기술개발						91
AI(인공지능)제품기술개발						155
미래인공지능융합기술개발						118
핵심원천기술상용화기술개발						25
필요인종구체적형제품기술개발						72
메카트로닉스기술개발						74
빅데이터기반서비스개발지원						65
스마트센서센드프로그래밍기술개발						47
제조기술융합혁신(메카트로닉스)배우자						14
확장수요형스마트물류기술개발					37	121
중소기업지원센터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108	65
신학업(신산업)지원사업					250	
신사업 Cubo R&D					128	329
지역특화신산업육성				1,105	472	41
지역특화신산업육성+						1,070
지역특화신산업육성-차종						25
국가중점사업(차종)지역기술상용화사업					125	128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736
규제자유특구일층지원사업						143
지역기업개발형혁신사업					210	
지역기업혁신성장지원					300	
채드림기술개발				46	46	
중소기업혁신기술연구조사				14	15	19
융합기술교육육성				21	23	29
중소기업기술사업화역량강화				45	43	44
혁신형일자리선도사업				18		
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혁신형일자리선도사업)						25
합 계	8,717	8,532	9,259	9,788	11,011	14,534

2)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규모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5개 부처 및 한국전력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함)¹⁵⁾이 소관 R&D 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투자토록 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 : 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규모(중기부 포함)가 2015년 2조 6,953억 원에서 2020년도에는 3조 7,638억 원으로 증가하여, 5년간 연 평균 6.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20년도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1조 3,751억 원을 지원하여 전체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R&D 예산의 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1조 2,357억 원(3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376억 원(9.0%), 방위사업청 2,254억 원(4.0%), 국토교통부 1,479억 원(3.9%) 등의 순으로 중소기업 R&D를 지원하고 있다.

표 Ⅱ-3-1-56 | KOSBIR 시행기관별 중소기업 R&D 지원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시행기관 R&D예산(a)	168,715	178,008	183,916	182,368	191,112	223,063
중기 지원(b)	26,963	28,228	31,025	30,577	30,225	37,638
지원 비율(b/a)	16.0	15.9	16.9	16.8	15.8	16.9

* '20년부터 중기부기 KOSBIR 시행기관에 포함되어 '15년~'19년 실적에 중기부를 포함하여 산출

표 Ⅱ-3-1-57 | KOSBIR 시행기관별 중소기업 R&D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기관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769	2,944	3,378	3,366	2,850	3,376
산업통상자원부	11,618	12,076	11,984	11,371	11,659	13,751
방위사업청	1,320	1,383	2,253	1,734	1,968	2,554

15) KOSBIR 시행기관 : (정부부처) 14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행정안전부, 특허청, (공공기관) 7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기 관 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국토교통부	1,249	1,222	1,305	1,297	1,349	1,479
환경부	747	811	728	840	837	984
농림축산식품부	459	529	614	689	649	508
보건복지부	323	363	401	487	498	701
문화체육관광부	342	366	328	334	317	402
해양수산부	178	213	237	277	315	342
중소벤처기업부	-	-	-	-	-	12,357
농촌진흥청	177	181	196	227	238	267
기상청	54	61	48	49	41	35
산림청	12	19	24	38	41	48
문화재청	3	-	-	-	-	-
행정안전부	-	119	111	102	100	133
특허청	-	109	130	147	162	309
한국전력공사	33	160	218	237	223	221
한국가스공사	34	20	32	34	35	29
한국도로공사	19	19	18	19	22	25
한국토지주택공사	13	16	-	-	-	-
한국수자원공사	8	7	8	10	9	13
한국철도공사	12	-	-	-	-	-
한국수력원자력	-	73	75	77	85	94
한국전력기술	-	2	6	8	8	7
한전KPS	-	-	3	3	5	4
합 계	19,367	20,703	22,097	21,368	21,408	37,637

나.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수립

세계 각국은 급변하는 기술·산업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9년 녹색기술·첨단융합·고부가서비스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로 '신성장동력 기술전략지도'를 수립하는 등 미래 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중장기적 기간 설정, 산·학·연 혁신주체 포괄 등의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기술전략은 중소기업 지원 시 해당 분야를 직접 정책에 활용하기에는 애로가 있었으며, 중소기업들도 거시적 로드맵을 활용하여 해당 기업의 사업 운영방향을 직접적으로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에 정부의 지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10년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수립하게 되었다.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은 국가 전반의 산업전략과 동일한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 발표되었던 정부 중점 육성분야와 중소기업에게 특화된 제조기반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각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과 기존 문헌 및 시장분석 자료들을 토대로 유망 기술을 좁혀 나가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2019년에는 4차 산업혁명분야,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성장기반 3분야로 구분하여 전략분야와 제품을 선정하여 핵심기술을 검토하였고 중소기업 기술수요조사 및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 과제현황을 분석하였다.

2020년에는 4차 산업혁명분야,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성장기반 3분야로 구분하여 전략분야와 제품을 선정하여 핵심기술을 검토하였고 일반 국민과 대·중소기업 기술수요조사 및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 과제현황을 분석하였다.

표 II-3-1-58 |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추진경과

- (2010년) 녹색, 융합, 제조기반의 3대 분야로부터 등벽, 수소연료 전지 등 26개 전략분야를 도출하고 112개 전략제품, 1,060개 핵심기술로 구체화
- (2011년) 전년도 로드맵 업데이트를 통해 17개 전략분야, 138개 전략제품, 1,090개 핵심기술 지정하고 각 단계마다 무역현황 등의 분석지표를 추가
- (2012년) 녹색분야 재정외 서비스분야 신설 등을 추진하고 16개 전략분야, 133개 전략제품, 1,005개 핵심기술을 지정
- (2013년) 수송기계, 안전보안 등을 추가하여 20대 전략분야, 181개 전략제품, 1,404개 핵심기술을 도출
- (2014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smrcadmap.smttech.go.kr) 구축을 통해 접근성 향상, 우주항공 분야 등을 추가하여 20대 전략분야, 215개 전략제품, 1,720개 핵심기술 도출
- (2015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ICT융합 분야 등을 추가하여 20대 전략분야, 233개 전략제품, 1,947개 핵심기술 도출
- (2016년) 기존 20대 전략분야를 신성장동력 40대 분야로 확대하면 R&D사업과의 연계성 강화하였고 신산업 및 주력산업 분야, 266개 전략제품, 1,569개 핵심기술 도출
- (2017년)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중소기업 성장기반으로 재편하여 236개 전략제품, 1,671개 핵심기술 도출
- (2018년)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분야별 산업별 구조분석을 강화하였고,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신성장분야 추가하여 224개 전략제품, 1,610개 핵심기술 도출
- (2019년) 특허 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핵심기술 도출방식을 고도화하고,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추가하여 206개 전략제품, 1,351개 핵심기술 도출
- (2020년) 디지털뉴딜(DNA·비대면, 그린뉴딜 등 한국판뉴딜 분야 전략제품을 추가 발굴하여 296개 전략제품, 1,111개 핵심기술 도출

기술로드맵은 단순히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가이드 역할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 R&D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정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표 II-3-1-59 | 기술로드맵 전략기술 도출현황

구분	전략 분야
4차 산업혁명 분야 (20대)	①빅데이터 ②블록체인 ③5G+ ④인공지능 ⑤서비스플랫폼 ⑥실감형콘텐츠 ⑦드론 ⑧지능형로봇 ⑨스마트제조 ⑩자율주행차 ⑪시 스멤반도체 ⑫재난·안전 ⑬스마트시티 ⑭IoT ⑮바이오 의료기기 ⑯전 기·수소차 ⑰이차전지 ⑱신재생에너지 ⑳친환경·자원순환
소재·부품·장비 분야 (9대)	①바이오 ②반도체 ③디스플레이 ④에너지 ⑤전기전자 ⑥기초화학 ⑦환경 ⑧ 자동차 ⑨기계금속
중소기업 성장 분야 (10대)	①유기화학 ②무기화학 ③금속 ④전기전자부품 ⑤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⑥정밀기계 ⑦달반기계 ⑧조선 ⑨식품 ⑩섬유

창업성장기술개발, 기술혁신개발 등 7개 사업에 대해 기술로드맵 전략기술을 지원 하는 전용과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수립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의 전략적 방향성 제시를 해나갈 계획이다.

다. 뿌리중소기업 육성

뿌리산업은 주력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기반산업으로 자동차, 드론, 로봇, IT 등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의 공정기술로 이용되는 뿌리기술은 최종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기술이다.

공정산업 특성상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되고 전수되기에, 개도국이 단기간에 쉽게 모방할 수 없는 프리미엄 기술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경쟁력 있는 뿌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3D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재의 근로환경 개선(공정 자동화, 안전, 친환경, 재직자 교육 등)을 통한 현장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

표 11-3-1-60 | 뿌리산업 관련 추진경과

- 2010. 5. : 제57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
- 2011. 7. : 「뿌리산업 진흥과 청년취업에 관한 법률」 제정
- 2012. 12. : 「제1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13~17년)」 수립
- 2017. 11. : 「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18~22년)」 수립
- 2020. 7. :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 수립

정부는 2010년에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를 시작으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하고, 1, 2차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 뿌리산업 육성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0년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을 통해 뿌리산업의 범위를 확대 개편 하였다.

1)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뿌리산업 중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1,183개사를 지정하였고, 지속적으로 전문기업을 지정할 예정이다.

* 뿌리기술(6분야) 중 기술/경제적 가치,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뿌리기술로 산업부에서 지정고시한 286개 세부기술 : 구조(40), 금형(47), 소성가공(45), 용접(90), 표면처리(51), 열처리(40)

2) 뿌리기업 자동화 첨단화 지원

뿌리기업의 공정개선(수작업 공정, 재해유발공정, 환경개선 등)을 통해 뿌리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사업을 2013년부터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16년~20년) 156개사, 150.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22개사를 지원하였다. 수혜기업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한 결과 불량률 개선(58.0%), 생산성 향상(64.8%), 비용절감(30.6%) 등 대부분의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3-1-61 | 자동화 첨단화 지원사업 지원성과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실제개사	33	44	22	35	22	156
예산(억원)	40	40.5	20	30	20	150.5
불량률개선(%)	39	55	68	55	73	-
생산성향상(%)	48	65	80	50	81	-
비용절감(%)	43	35	31	27	17	-

* 불필요 비용감소, 리드타임 감소로 인한 비용 감소, 불량률 감소로 인한 반품 비용 감소 등

3) 뿌리기술 전문가 양성

뿌리기업의 현안과 수요를 반영한 뿌리기술 Academy 교육과 전문가(뿌리기술 명장, 연구원 등)의 기술 노하우 전수를 통한 맞춤형 코칭사업을 통해 뿌리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현장중심형 뿌리기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뿌리기술 Academy의 경우 6개 업종 1,198명이 이수하였고, 업종별 재직자 중심의 초·중급 교재 19종 개발, 25건의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맞춤형 코칭의 경우 코칭 전문가가 45개사 기업현장에 방문하여 문제해결 및 노하우 전수를 진행하였다.

전통 제조업에 기반을 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산업인 뿌리산업의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기술, 자금, 인력, 정보화, 품질혁신 등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6

기술탈취 근절 및 기술보호 역량 강화

- 기술보호과 이행료
- 기술보호과 추천준
- 기술보호과 김해규
- 제조혁신지원과 권태용

가. 中企 기술탈취 근절 및 기술보호 역량강화 지원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수준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보호역량 수준은 대기업대비 70.1%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9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침수(중소벤처기업부, 2020)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14년 11월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기술보호 역량강화 사업 추진, 기술보호 기반 확충, 중소기업기술문생조정·중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사전예방부터 사후구제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동법 제14조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전담기관을 지정(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4.12.22), 기술보호 및 기술유출 등 관련 사항에 대한 통합 지원창구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유출행위를 근절하고자 법 시행과 동시에 관계부처(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간 업무협력 MOU를 체결('14.12.18)하여 기관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고, 각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기술보호올타리(www.ultari.go.kr)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소관 정책 정보를 직접 등록하여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처별(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로 운영되던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창구를 일원화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를 개소('16.1.28)하여 산업기술유출, 특허침해, 기술유용·유출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중소기업 자체 보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술보호 종합대책('16.4)을 마련하여 후속조치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간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고 대응 핫라인을 신설하였으며 현재 운영중인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에 신고·제보 접수기능을 추가하여 체계를 강화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정협의('17.12, '18.2)를 거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18.2.12)을 마련·발표하였으며 대책 후속 이행과제로 '기술보호 법무지원단('18.6)과 '지방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18.5) 발족, 기술탈취 근절 TF 운영('18.5)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더불어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현장작동 가능한 예방수단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개정('18.6.12)하여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였다. 시행일('18.12.13)부터 중기부 공무원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실조사를 통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가능토록 하였다.

기술자료 유출에 대비하여 기술자료를 주고받은 정황 증거를 보존할 수 있는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을 19년 2월부터 구축·운영 중이고 비밀유지협약(NDA) 체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12개에 NDA를 의무화(19.11)하였다. 또한 민관 합동 위원회인 '상생조정위원회'를 출범(19.6.27)하여 기술침해를 공정 사건의 신속한 사건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수단으로 기술보호 진단·자문 및 기술자료 입치, 기술지킴서비스(24시 보안관제),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적 기술보호 분위기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해 지역순회 설명회, CEO·임직원 교육과정 운영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1) 기술보호 상담·자문

기술유출의 사전예방을 위해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진단하고 보안 취약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3일간 사전 진단 및 보안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보안상의 문제가 발견되거나 기술유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최대 7일까지 심화컨설팅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이 확대되고 보안위협이 대두됨에 따라 중소기업 현장의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부터 현장자문 지원 분야에 스마트공장 부문을 신설하여 130건을 지원하는 등 총 966건을 지원하였다.

2) 기술자료 입치

분쟁발생 시 기술의 보유사실을 입증하고 거래기업 간에는 안정적인 기술사용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핵심 기술정보를 입치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이다. R&D 성과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2012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한 R&D 성과물 의무입치 제도를 시행 중이다.

동 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업,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기업이 보유한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치수수료의 1/3을 감면해 주고 있다.

2020년 1월부터는 5년 이상 장기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임차수수료의 1/2 감면을 추가하였다. 또한,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1년간 무료 (벤처기업은 5만원)로 임차할 수 있는 아이디어 임차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임차한 핵심 보유기술의 사업화 및 거래 촉진을 위해 2015년부터 임차 기술 활용지원 사업을 신규로 운영하여 임차기술 206건에 대하여, 총 45,064백만 원 (15~20년)의 대출을 지원하였다.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분쟁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기보에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인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TRRS)'을 '19.1월부터 시행하여 '20년까지 639건의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을 지원하였다.

3) 기술지킴서비스 및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사이버 침해 등 온라인을 통한 중요기술 유출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이 24시간 실시간 감시하는 무료 보안관제를 제공하고, 개별 중소기업의 보안 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설계를 통해 기업의 보안 환경에 적합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도 지원하고 있다.

4) 기술분쟁 조정중재제도 운영

조정·중재제도는 신속하고 저렴하게 중소기업의 기술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술분쟁에 따른 소송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5.1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발휘하며, 중재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는 '20년 한해 동안 30건의 신청을 받아 11개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6건의 조정 성립의 성과를 나타내었다.

5)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제도는 기술탈취에 대한 법적구제방안으로 마련되어 있는 민·형사·특허소송이 장시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18.12월에 도입되었는데, 중기부 소속 공무원의 조사결과를 「기술침해자문단」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하여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 과징금부과 또는 시정명령을 위해 운영되는 규제기관의 행정조사제도와 달리 조정·중재 상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특징이 있는데, '18.12월 법 시행 이후 '20년 말까지 32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23건의 사건이 종결되었다.

6)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했으나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들 제공하기 위해 서울·대전 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18.6.11)하고 법무지원단 전문가들을 구축하였다.

법무지원단은 법무팀을 운영하는 대기업과는 달리 법무역량에 취약한 현실을 고려하여 단기적인 법률자문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1 전문가 매칭을 통해 연간 최대 30시간 내에서 법률자문, 컨설팅, 서면작성 등의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년 한 해 동안 164개사의 기술유출 예방 및 분쟁대응 관련 심층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였다.

7) 기술보호지원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기술탈취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책임관과 보안·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반을 발족('18.5.10)하여 전국적인 기술보호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기술보호지원반은 기술유출 예방을 위해 기술보호 관련 제도를 기업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필요한 경우 기술보호에 관한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기술유출이나 분쟁사건 발생 시에는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초동상담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중기부의 다양한 지원사업 및 제도를 연계하고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표 II-3-1-62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사업 추진실적(2012월말 기준)

(단위 : 개사, 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기술보호 진단·자문	430	206	517	896	1,000	617	737	801	821	620	966
기술자료원치	453	618	2,706	5,685	7,161	8,562	9,467	9,216	9,522	10,415	11,226
지침서비스	-	253	268	496	1,525	2,467	1,076	919	1,058	955	1,193
보안시스템 구축	53	-	-	27	27	43	44	34	46	55	56
법무지원단									60	47	164
기술분쟁 조정·중재						22	17	19	19	21	30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기술보호 안전장치를 지원하여 기술탈취유출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사건 해결을 위해 공정위, 특허청 등과 법무처 협업체계를 확립하여 조정·중재, 공동조사, 침해기술 판단 등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나.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2017년 발표된 ICT 발전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76개국 중 2위(아이슬란드 1위, 미국 16위, 일본 10위)를 기록하였고, 세계경제포럼(WEF)의 네트워크준비지수에서는 2016년 조사대상 139개국 중 13위(싱가포르 1위, 미국 5위, 일본 10위)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IT 인프라의 보급 및 구축 수준에 비해 IT 활용 및 이를 통한 효과나 성과측면에서는 다소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화에 대한 접근도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지만 잘 갖춰진 IT 인프라를 경제발전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정확한 상황파악을 통해 중소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2000년부터 매년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조사를 실시해 왔다.

2020년에는 총 4,600개 기업(중소기업 4,000개, 대기업 300개, 지원기업 300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정보화수준은 70.81점(100점 만점)으로 대기업(78.18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중소기업 공통적으로 정보화 수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세부분야에서는 '구축완료'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고, '전략 수립'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고 대기업과의 격차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3-1-63 | 중소기업 분야별 정보화 수준(100점 기준, 2020년)

구분	정보화수준	전략수립	추진상황	구축완료
대기업	78.18 기업간합계	90.21	73.62	69.62
중소기업	70.81 기업간합계	84.00	67.74	61.91

* 정보화 발전단계 : 정보화 도입 → 단위 정보화 → 기업 내 통합 → 기업 간 협력 → 전략적 혁신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표 Ⅱ-3-1-64 | 연도별 정보화 수준(100점 기준)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대기업	72.78	72.92	75.48	77.37	78.18
중소기업	59.97	61.05	67.15	68.73	70.81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생산성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1년부터 경영·생산 현장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다양한 정보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사업이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보화를 위한 지원사업이다.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사업은 특정 업종이나 단체별로 공동사용이 가능한 맞춤형 솔루션과 다수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발굴·개발하여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급하는 지원사업으로 초기 정보시스템 구축비 및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정보화비용 감축 효과 달성은 물론, 시공간에 자유로운 접근성,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활용을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다. 2020년 12월 말 기준 대·중소기업간 정보화 격차 해소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 77개의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우리 중소기업들이 국내 대기업과의 정보화 격차를 줄여 나가고,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도 뒤처지지 않는 정보화 역량을 갖춘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 0-3-1-05 | 연도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실적

(단위 : 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구축	7	14	7	4	10	14	12	9

제2절 혁신금융 공급 및 금융안전망 강화

1 금융시장 동향 및 중소기업 자금사정

- 기업금융과 최 호 성
- 기업금융과 온 상 용

2019년 국내 금융시장에 있어 국고채(3년)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와 그에 따른 국내의 통화정책 완화 기대와 함께 미·중 무역분쟁 및 일본 수출규제관련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이에 따라 8월에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이후 미·중 무역협상 진전, 향후 채권공급 확대 우려, 낮은 금리수준에 대한 부담 등으로 반등하였으나 11월 중순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지속 기대 등의 영향으로 추가 상승이 제약되는 모습을 보였다.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대출이 직접금융시장(회사채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확대의 영향으로 소폭감소로 전환하였으나 중소기업대출은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취급 노력, 대출금리 하락 등으로 큰 폭 증가하여, 2019년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2018년에 비해 49.5조원이 증가한 742.7조원으로 확대되었다.

표 II-3-2-1 | 중소기업 대출잔액 및 대출금리(한국은행, 2019년)

(단위 : 조원)

지 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출 잔액	중소 기업	667.7	702.2	705.6	710.0	716.1	719.7	722.6	727.4	732.4	740.4	745.3	742.7
	대기업	170.6	170.6	168.1	169.8	170.4	168.6	166.2	164.9	165.1	166.7	167.9	166.0
대출 금리	중소 기업	4.00	3.93	3.84	3.83	3.79	3.71	3.66	3.45	3.50	3.39	3.45	3.50
	대기업	3.58	3.56	3.50	3.53	3.47	3.38	3.31	3.11	3.30	3.13	3.05	3.17

주식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들의 자금조달 규모는 전년대비 13.6% 증가한 90조 6,234억원을 형성하였다. 대기업은 전년 대비 14.6% 증가한 47조 5,585억원을 조달하여 전년도 증가율 5.3%를 크게 상회하였다.

중소기업의 조달규모는 3조 649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였고, 주식 발행 및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시장으로부터 전년 대비 3.2% 감소한 2조 8,399억원을 조달하였다. 반면 회사채 발행금액은 전년대비 73.1% 증가한 2,250억원으로 주식시장의 조달 감소분을 상쇄하면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II-3-2-2 | 2019 기업 규모별 자금조달 현황(금융감독원)

(단위 : 억원, %)

구분 계	19년 7월말	18년 동월말	증감률 회사채
전체	445,549	506,234	13.6
대기업	414,909	475,565	14.6
중소기업	30,640	30,649	0
주식	66,959	53,172	△40.2
대기업	59,619	24,773	△58.4
중소기업	29,340	28,399	△3.2
회사채발행	358,590	453,062	27.1
대기업	355,290	450,812	26.9
중소기업	1,300	2,250	73.1

* 금융채, ADK 제외

2019년 중소기업의 내수·수출·영업이익은 상반기에 고점과 저점을 기록한 뒤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 주었고, 자금사정은 2월에 70.2 최저치를 기록하고 이후 하반기로 갈수록 소폭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II-3-2-3 | 2019 중소기업 경기변동 실적 SBH(Small Business Health Index)중기중앙회

지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내수판매	74.4	68.4	83.2	82.2	80.6	79.1	77.0	74.4	77.0	80.2	80.5	
수출	80.4	75.0	86.8	91.0	87.4	82.9	85.5	80.6	82.5	82.9	86.6	
영업이익	72.9	67.2	77.0	78.0	78.7	76.3	75.3	71.4	75.0	77.5	77.5	
자금사정	73.7	70.2	76.0	77.7	77.6	76.2	74.8	73.1	75.5	76.0	77.9	76.9

2

정책자금 지원

• 기업금융과 조 부 근

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정의 및 운영 현황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발굴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고용, 수출 및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는 자금이다. 또한, 정책자금은 창업기업, 경영 애로 기업 등 민간금융에서 거머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직접·산용대출 위주로 지원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따라 국내외 전방위적 경제위기가 고조되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다섯차례에 걸쳐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위기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경쟁력 회복을 위한 긴급 유동성을 신속 공급하였다.

당초 예산 45,900억원 대비 17,000억원(37.0%↓)을 증액한 62,900억원을 편성·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직접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시설투자 촉진 및 창업 활성화, 기업 구조개선을 통해 경기 회복의 바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등 경제 활력제고에 기여하였다.

표 3-2-4 | 연도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실적

(단위 : 억원)

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7,500	20,500	20,460	22,000	27,500
투융자복합금융	1,500	1,500	1,700	2,000	2,000
신시장진출지원자금	3,600	5,750	5,900	2,800	3,000
산성장기반자금	13,950	12,300	10,800	12,100	14,300
제도약자립자금	2,550	2,550	2,790	2,600	3,100
긴급경영안정자금	6,100	3,750	2,500	2,080	13,000
합 계	45,100	46,350	44,150	43,580	62,900

* 당초 예산 45,900억원, 증액 17,000억원, 총 62,900억원 집행

나. 2020년 정책자금 운용성과

1) 코로나19 팬데믹 피해 위기 중소기업 긴급 지원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이 급증하고, 국내외 경제 전반의 위기가 확산되어 긴급 유동성 공급을 대폭 확대하여 기업의 경영에로 극복을 지원하고, 경기 회복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중국 수출입기업, 관광·공연·유통업 영위기업, 보건용 마스크 제조기업 등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였으며, 국내외 경기상황, 자금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 및 자체자금 변장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 총 12,000억원을 증액(기존 1,000억원 → 변경 13,000억원)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를 인하($\Delta 0.5\%p$)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피해가 큰 고위험 시설 운영 기업은 재해자급에 준하여 1.5% 고정금리를 적용하였다. 전염병 확산 위험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실태조사 방식을 도입하고, 온라인 전용상담창구, 애플린스벤(긴급상황시 전문심사 인력) 제도 등을 운영하여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총 13,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을 7,745개사에 전액 집행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및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였다.

2) 기업 경쟁력 회복 및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유동성 위기기업의 경영 정상화 및 기업 구조개선 내용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저하된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경제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자금 예산 확대를 추진하였다. 창업기업의 부자위축 해소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반지원자금을 증액(2,000억원 ↑)하고, 포스트코로나시대 유망 산업인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자금(1,000억원)을 신설하였다. 중국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디지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시장진출 지원자금을 확대(1,000억원 ↑)하였으며, 유망기업 시설투자 촉진을 통한 제조역량 및 생산성 제고에 필요한 신성장기반자금을 추가 공급(1,000억원 ↑)하였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단기 유동성이 악화되어 재무상태가 취약해진 기업 중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고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기 위해 과거 연재이력 제한 완화, 제한부채비율 예외 적용 업력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한계기업 전용 용자심의 제도(IR방식)', '제한부채비율 초과기업 제3차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단기 유동성 위기기업의 지원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금융기관 협업으로 기업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신규대출, 채무조정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기업 정상화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범 운영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본격적으로 발생될 기업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3) 한국판 뉴딜 선도적 추진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디지털·그린 혁신을 촉진하고, 유망 신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분야를 집중 지원하였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추진방향인 디지털뉴딜·그린뉴딜과 관련된 분야를 정책자금 중점 지원 분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3,502개사, 8,699억원)하였으며,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시설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의 보급사업 연계율 목표를 상향('19년 50% → '20년 75%)하여 생산 시설 디지털화를 통한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또한,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 데스벨리 극복 지원을 위한 전용자금을 신설(3,800억원)하여 업력 10년 미만 기업에 대한 창업기 및 성장기를 잇는 정책지원을 보완하고,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등 유망 신산업 영위기업 지원에 집중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성과창출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시대 경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혁신성장 역량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

표 II-3-2-5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 및 조건(2020년)

(단위 : 억원)

구분	예산	융자조건		
		융자한도	융차기간	지원기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27,500	잔액 60억원 (운전 연간 5억원) *청년전용 1억원	10년 이내 (운전 5년)	대상 : 업력 7년미만 예비창업자 금리 : 기준금리 Δ 0.3%p
투융차복합금융	2,000	성장공유 60억원 스케일업 150억원	5년 이내	대상 : 미래성장성이 큰 기업 금리 : 별도금리 적용
신시장진출지원자금	3,000	내수기업 5억원 수출기업 20억원 (운전 10억원)	10년 이내 (운전 5년)	대상 :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 기업, 수출 유망기업 금리 : 기준금리
신성장기반자금	14,300	잔액 60억원 (운전 연간 5억원)	10년 이내 (운전 5년)	대상 : 업력 7년 이상 사설투자기업 금리 : 기준금리+0.5%p
제도약지원자금	3,100	잔액 60억원 (운전 연간 5억원)	10년 이내 (운전 5년)	대상 : 사업준비중인 제조기업 등 금리 : 기준금리
간접경영안정자금	13,000	연간 10억원 (3년간 15억원)	5년 이내	대상 : 경영애로 중소기업 등 금리 : 기준금리+0.5%p * 채제기업 : 1.9% 고정 * 코로나19 피해기업 : 기준금리

3

신용보증 공급

- 기업금융과 최효성
- 벤처혁신정책과 윤성웅

중소기업 신용보증 제도를 통해 담보력이 부족하여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하고 있으며, 대위변제 등 신용보증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출연하고 있다.

가. 보증지원 규모 확대

신용보증 지원규모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폭 확대되어 2005년 6월 '신용보증 제도 개편방안'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운용 기초를 유지해 왔으나, 2008년 하반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가 확산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해 신용보증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후, 대외 경제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국내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위기상황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와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규모 확대 기초를 지속하여 유지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따른 항구적 손실의 확대를 차단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구조 개편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보증 지원을 강화하였다.

보증지원 규모는 2008년 44.3조원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의 빠른 회복을 위해 2020년에는 2008년보다 48.6조원 증가한 92.9조원으로 보증지원 규모를 크게 확대하였다.

보증기관별로는 2020년 기준으로 신용보증기금이 2008년보다 35.5조원이 확대된 67.2조원을, 기술보증기금이 2008년보다 13.1조원이 확대된 25.7조원을 각각 지원하였다.

표 II-3-2-6 | 연도별·기관별 보증·지원실적

(단위 : 조원)

구분	2008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	
	(사)							예산	추경
보증규모(전액기준)	44.3	68.7	69.9	70.7	72.7	72.9	74.3	62.9	48.6 (109.7%)
신용보증기금	31.7	48.5	49.2	49.5	50.8	50.5	52.2	67.2	35.5 (112.0%)
기술보증기금	12.6	20.2	20.7	21.2	21.9	22.4	22.1	25.7	13.1 (104.0%)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에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중소기업 보증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였다.

2008년 2,500억 원을 출연했던 정부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2조 7,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이로 인해 보증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관은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사고율을 유지하였으며, 금융기관과 특별출연협약 등 자체수입을 증대하여 2012년에는 신·기보 설립 이래 최초로 여유재원 중 5,000억 원(신보 3,500억 원, 기보 1,500억 원)을 정부 일반회계로 진출하였다.

표 II-3-2-7 |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10년		2020년										
	2009년	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	추경	계
합계	27,000	0	25,000	1,300	1,500	1,700	2,900	2,349	2,017	2,545	4,400	33,749	38,149
신용보증기금	19,800	0	23,500	700	1,000	1,300	2,100	1,841	1,417	1,510	2,700	30,566	33,266
기술보증기금	7,200	0	1,500	600	500	400	800	508	600	1,035	1,700	3,183	4,883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대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예산 4,400억원과 추경을 통해 33,749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38,149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표 II-3-2-6 | 연도별 보증 사고율 등 추이

(단위 : %, 억원, 배)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보증 사고율	신용보증기금	3.9	3.5	3.6	3.3	2.4
	기술보증기금	4.5	4.4	4.5	4.5	3.4
기본재산	신용보증기금	42,871	43,852	43,115	44,099	54,859
	기술보증기금	20,207	18,397	15,579	15,570	21,100
운용배수	신용보증기금	9.8	10.1	10.6	10.7	10.0
	기술보증기금	10.2	11.5	14.1	14.0	12.1

다음으로 보증지원 규모 확대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면,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의 여파에 따른 국내경기 침체,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위기 등을 조기에 감지하여 재정투입규모 대비 지원효과가 상대적으로 뛰어난 보증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 경제위기를 짧은 기간에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기본재산의 20배까지 보증 지원이 가능하므로 재정투입 효과성이 오히려 나 적립 대출보다 매우 높은 편

보증기관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10.6배 수준의 안정적인 보증운용배수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대폭 확대된 보증규모는 경제안정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나. 창업 및 미래성장동력산업 지원 강화

2020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중점지원분야에 2008년 대비 약 413% 증가한 86.7조원을 지원하였다.

표 II-3-2-9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중점분야 지원실적

(단위 : 조원)

구분	2008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16.9	53.8	67.3	68.3	71.3	86.7
창업 + 기술창업	11.6	21.5	26.2	27.4	27.4	30.6
수출기업	5.3	14.1	14.2	14.6	15.0	18.1
신성장동력산업	-	14.3	17.0	15.5	17.1	23.8
고용창출기업	-	6.9	9.9	10.8	10.9	14.2

이를 통해 혁신창업 및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으로써 한정된 보증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일자리창출 및 미래 주력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고기술인재 창업 활성화를 위한
테크벤처 기업 간담회 개최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업무
협약식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업무
협약식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협약식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

4

매출채권보험 운용

• 기업금융과 최효성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상업어음 및 외상매출금)의 보험 인수를 통해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시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체도를 운용하고 있다.

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확대

어음보험제도의 도입(1997년) 이후 보험대상을 외상매출채권까지 확대한 매출채권보험을 취급하기 시작(2004년)하였으며, 보험 수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수규모가 증가하면서 2020년까지 총 186조 691억원 규모의 보험을 인수하였다.

표 3-2-10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운용 현황

(단위: 억원, 백)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수총액	179,673	196,977	201,606	201,442	203,511
보험금지급	732	574	766	766	603
정부출연	1,198	1,200	-	-	280
기부재산	4,120	4,943	4,460	3,895	3,847
운용배수	9.7	8.6	10.5	12.9	13.3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업무 개시 이후 2020년까지 총 9,38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정부는 보험인수 재원으로 1997년부터 2020년까지 총 1조 1,162억 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였다.

2021년에는 2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며, 향후 경제 상황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인수규모를 확대해 나간다는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 정책보험 역할 강화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기업을 위해 총 3차례의 특례우대보험 9,625억원을 집행하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소기업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소기업에 특화된 보험상품을 운용하며 정책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2019년 도입한 지자체 협약보험을 11곳의 광역기초 지자체로 확산하여 가입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 고객 중심의 신상품 도입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보험 계약 후 3회에 걸쳐 계약내용 변경이 가능한 '하이옵션 보험'을 출시, 시장 니즈를 반영한 상품 운용으로 상품성을 제고하고 우량기업의 경영안전망 강화로 고용안정 촉진 및 상거래 위축 해소에 기여하였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평가시스템인 상거래신용지수 연계보험을 도입하여 재무정보 위주의 기존 평가시스템을 보완하고 동태적 데이터를 활용한 상거래위험 측정의 정확성을 높여 과거 실적, 재무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 대상을 확대하였다.

제3절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 판로정책과 권역성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가 도입(2006년)된 이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9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은 94.0조원이고, 구매율(중소기업제품 구매액/총 구매액)은 76.2%로서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를 달성하였다.

표 II-3-3-1 | 연도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구매실적(조원)	66.9	67.7	72.0	78.8	78	85.5	86.1	92.2	94.0	105.0
구매율(%)	64.1	67.8	67.7	69.7	70.0	71.7	73.7	74.8	76.2	77.8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등 우선구매 대상인 구매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고자,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1997년부터 도입된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중소기업물량의 15%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2020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5.63조원으로 전년도(19년, 5.35조원)와 비교할 때 증가 추세에 있으면서, 구매율은 법정기준보다 여전히 높은 14.7%를 기록하였다.

표 II-3-3-2 | 연도별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현황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구매실적(조원)	1.37	1.66	2.11	2.54	2.62	3.11	3.70	4.52	4.53	5.35	5.63
구매율(%)	7.5	8.4	9.2	9.1	9.4	10.2	11.9	13.7	13.7	14.5	14.7

2019년도 여성기업제품 구매액은 11.9조원으로 전년대비 12.5%(약 1.32조원) 증가하였다. 이는 총 구매액의 8.8% 수준으로 법정기준(물품·용역 5%, 공사 3%)을 초과 달성(물품 9.4%, 용역 8.9%, 공사 8.4%)하였다.

표 II-3-3-3 | 연도별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구매실적(조원)	2,96	2,60	3,41	4,48	5,49	7,14	8,34	9,91	10,58	11,9
구매율(%)	2.3	3.2	4.0	4.6	4.9	6.0	7.1	8.0	8.6	8.8

또한 2019년도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은 2.1조원으로 전년대비 18.6%(3천3백억 원) 증가하였다. 이는 총 구매액의 1.6% 수준으로 법정 구매율(1%)을 초과 달성하였다.

표 II-3-3-4 | 연도별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구매실적(조원)	0.21	0.27	0.34	0.68	0.80	1.09	1.32	1.54	1.77	2.1
구매율(%)	0.2	0.27	0.3	0.6	0.7	0.9	1.1	1.2	1.4	1.6

2

중소기업제품의 국내 판로 촉진

- 판로정책과 정액제
- 판로정책과 박이발
- 판로정책과 변상준
- 판로정책과 김태선
- 판로정책과 강경환
- 판로정책과 안은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¹⁶⁾’란 공공부문의 중소기업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으로 구분된다.

현행 체계와 같은 공공구매제도는 단체수의계약제도¹⁷⁾가 폐지 결정된 2006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었는데, 기존에 운영되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가 의무화 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제도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mp)이 도입되었다. 2012년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제품(물품·용역)에 대해서도 소액입찰의 경우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2019년에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제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제조 시설 및 인력을 보유한 기업 혹은 중소기업제품의 소재 및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대기업 등)과 상생하여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되었다.

「관리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광기업 등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는 그 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관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1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규정

17)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부품이 지원한 유행공시 보편을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자 단체인 협동조합으로부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5년 도입하여 2006년까지 시행

표 II-3-3-5 | 공공구매제도 도입 경과

시점(년)	내 용
2007년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2008년	- 직접생산 확인제도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g.go.kr) - 협동조합·지역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참여 허용
2009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2년	-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 제도(1억원 미만의 非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위장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2013년	- 소기업간 우선조달계약 제도(1억원 미만의 非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평가대상에 지방공기업을 추가
2014년	- 개선권고 미이행에 대한 입찰절차 일시중지 명령제도 도입 - 기술개발제품 종류 확대(9종→13종)
2016년	-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달성 의무화(중소기업제품의 10% 이상) - 위장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2017년	- 민간보조사업자(국고보조금 100억원 수권기관)의 중기제품 우선구매 권고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 범위(총합공사 20억원→40억원 등) 조정
2018년	-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별법인(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의 소기업 확인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공공기관이 당해 연도의 중소기업제품, 여성·장애인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구매계획 및 직전 연도의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취합하여 매년 4월 국무회의에 보고 및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996년부터 각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매년 점검해 왔으며, 2004년에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¹⁸⁾」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이 구매계획을 제출할 때 일정 비율(50%) 이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를 제시토록 법제화하였다.

2005년에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목표 비율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의 5%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후 2009년 「판로지원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목표비율을 10% 이상으로 확대, 2020년에는 15% 이상으로 향상하였다.

18) 「판로지원법 제53조 11호 이전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규정할 임명

표 II-3-3-6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추진경과

시행시기	내 용
1999년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입실적 점검
2004년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50%) 달성 의무 법제화
2005년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5%) 권장
2009년	- 기술개발제품 권장구매율 상향(5% → 10%)
2014년	-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물품용역 5%, 공사 3%) 달성 의무 법제화
2016년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중기물품 구매액의 10%) 달성 의무 법제화 -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1%) 달성 법제화(관공)
2018년	-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1%) 달성 의무 법제화
2018년	-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1%) 달성 의무 법제화
2019년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상생협력법 시행령 제8조 신설)
2020년	- 기술개발제품 권장구매율 상향(10% → 15%)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은 1999년 69개 기관에서 2011년 282개 기관, 2012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495개 기관 등으로 확대되었다. 2014년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추가되어 740개 기관으로 늘어났으며, 2019년에는 지방의료원 등이 추가되어 관리 대상 구매기관이 837개로 되었다.

아울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에 주요 지표로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20년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은 116조원으로, 총 공공구매액(145.8조원)의 77.8%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II-3-3-7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단위 : 억원, %)

연도	구분	총 구매액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비율(%)
2011년		936,494	677,272	67.8
2012년		1,063,508	719,860	67.7
2013년		1,130,013	787,956	69.7
2014년		1,115,489	780,290	70.0
2015년		1,192,070	854,858	71.7
2016년		1,169,332	861,358	73.7
2017년		1,234,076	922,492	74.8
2018년		1,234,134	939,943	76.2
2019년		1,349,802	1,049,912	77.8

2021년도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등과 협의하여 총 구매 목표액 145.4조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113.4조원(78.0%),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는 5.82조원(15.9%)으로 설정하였다.

표 II-3-3-8 | 2021년도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구매계획

(단위 : 억원, %)

연도	총 구매액	중소기업 제품구매액	구매율	중소기업 기술구매액	기술개발 제품구매액	구매율
2021년	1,453,802	1,133,558	78.0	365,574	58,214	15.9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입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조달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동 제도는 공공부문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1995년 최초로 도입되고 2006년부터 의무화되었으며, 단세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대상이 되는 경쟁제품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동 품목을 구매한 실적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국내에 해당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존재하여야 한다. 경쟁제품은 3년에 한 번씩 지정되며, 현재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204개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한편, 2019년부터 적용될 경쟁제품은 212개로서 2018년 12월말에 이를 고시하였다.

표 II-3-3-9 | 연도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수

(단위 : 개)

구분	2014	2015	2018	2017	2016	2019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개수(개)	207	207	204	204	204	212

한편, 2010년 이후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가 제한되는 대기업 중 일부가 기업을 분할하여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 입찰에 편법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 또는 기업 분할을 통해 설립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2012년 6월 시행되었다.

또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의 혜택이 특정기업에 집중되는 독과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경쟁제품 지정 시 최근 2년 연속 또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독과점이 발생한 품목을 유의품목으로 지정하고, 차기 경쟁제품 지정 시까지 독과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경쟁제품에서 제외시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표 II-3-3-10 | 중기간 경쟁제품의 독과점 현황

구분	2017	2018	2019
	독점	독점	독점
독과점 품목 수(개)	49	59	61

* 독점 기준(공정거래법) : 시장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40억원)이고 상위 1개사가 50% 이상을 의미하며, 나라청터(국가통합조달전자시스템) 통계 가공 자료임

다.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는, 기존에 주로 사용되던 최저가 낙찰제를 통한 낙찰자 결정방법이 제갈 깎아먹기 식의 경쟁을 초래하여 적정이윤을 보장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짐에 따라, 2006년 중기간 경쟁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방법으로서 도입되었다.

동 제도는 중기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일정한 가격을 보장(예정 가격의 88%)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최저가로 응찰한 순위에 따라 심사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되며, 심사기준은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및 실적사유로 구성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및 수주기의 확대를 위해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보완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2017년에는 신용평가등급 점수 반점을 부여하는 창업초기기업의 인정범위를 개정하여(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 ~ 7년) 창업초기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고, 2018년에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우수기업의 경우 신인도 배점 한도를 초과 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라.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조합참여 허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계는 영세 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허용 및 5천만 원 이하 소액수의계약 체결 허용 등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 자격을 갖춘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를 허용하고, 공공기관이 2천만 원 미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의 추천을 통해 수의계약(협동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I-3-3-11 | 연도별 적격조합 현황

(단위 : 개)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적격조합	219	209	210	230	119	139	136	126

2009년 3월에는 협동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 제도의 개선을 위해, 대상 금액 범위를 종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G2B(국가조달시스템)를 통하여 계약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추천대상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한정하도록 하였다. 2019년에 공공기관은 총 370건(98억 원)의 수의계약에 대해 협동조합에 추천을 요청하였으며, 이중 63.9%인 237건(62억 원)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마. 직접생산확인제도

직접생산확인제도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대기업 혹은 수입 제품 등을 납품하거나 하도급을 통해 납품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1천만 원 이상 소액수의계약 및 보훈·복지단체 등과 수의계약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인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직접생산 확인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별로 주요 생산시설·공정, 최소 필요인력 등으로 확인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업이 이들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직접생산확인 신청 및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2010년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였다.

표 0-3-3-12 | 연도별 직접생산 확인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직접생산확인	21,432	13,488	10,888	21,959	24,017	28,124	27,395	28,366

한편, 그동안 정부예산으로 지원하였던 직접생산확인 비용을 2018.4월부터 신청 기업에 부과함으로써 불필요한 확인신청을 줄이고 예산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창업기업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최초 신청 시에는 확인비용을 면제하여 부담을 최소화 하였다.

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사업체의 하청업체로서 단가후려치기 등의 피해를 당하는 제조중소기업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조건에 공사에 사용될 '공사용 자재 지정품목(19년 112개)'을 공급할 경우에는 직접 발주를 통해 해당물품을 구매하여 공사업체에 관급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996년 국무총리 지시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건설공사 실비자재의 분리발주 의무화'가 있었으나 공공기관의 일괄발주 선호 경향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2006년부터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를 공사발주와 분리하여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관급자재로 구매하는 방식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를 법제화하였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40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3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전기공사·소방시설공사 등에 소요되는 자재 중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자재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발주와 분리하여 관급자재로 조달하도록 하고 있다.

표 II-33-13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현황

(단위 : 개)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공사용자재	123	123	127	127	127	112

그러나, 관리인력 부족, 행정비용 증가, 공사품질 저하 우려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들이 여전히 직접구매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임에 따라, 2009년 11월에 「관료지원법」을 제정하면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사유를 재난관련 공사, 국가안보와 관련한 공사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예외 인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도록 구체화하였다.

사.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만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여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해 판로확보가 쉽지 않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6월 「판로지원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외의 물품·용역에 대해서도 그 추정가격이 일정금액¹⁹⁾ 미만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을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동 제도는 공공기관에서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의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 등이 영세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조달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입찰에 따르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우수한 기술제품에 대해 각종 인증을 부여하고, 이 인증을 받은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및 우선구매 목표비율 지정을 통해 구매를 촉진하고 있으며, 각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취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1996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관련 규정을 법령에 규정하면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약 1억 원)

표 II-3-3-14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추진 경과

시행시기	내 용
1993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2006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법령에 성향 규정
2009년	민·관 공동투자 R&D, 녹색인증, 우수조달 공동상표 추가
2014년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산업융합제품, 성과공유기술개발, 개발선정품 추가
2015년	ICT융합품질인증제품 추가
2016년	적합성인증제품,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추가
2019년	연구개발사업 기술혁신인정제품, 불산업우수기자재 지정제품 추가
2019~2020년	기재부조달형 혁신제품(Ⅰ,Ⅱ,Ⅲ) 추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은 조달우수물품, 성능인증제품, NEP제품, NET제품, GS제품,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성공제품의 6종이었으나, 2013년 6월에 민·관 공동투자 R&D(공공부문) 성공제품, 녹색인증제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특허권자에 한함)을 추가하여 9종으로 늘었다. 2014년 2월에는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산업융합제품으로 중소기업 생산제품,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성과공유기술개발과제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을 추가하여 13종으로 늘었으며, 2015년 5월에 ICT융합품질인증제품, 2016년 12월에는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적합성인증제품, 우수산업디자인상품(GD)이 추가되었다. 2019년 7월에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개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과 불산업우수 기자재 지정제품이 추가되었으며, 2019년부터 2020년에 걸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선정된 혁신제품(Ⅰ,Ⅱ,Ⅲ)이 추가되어 총 18종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중 GS제품,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NEP제품, NET제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구매책임자의 구매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구매책임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기술개발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선구매 여부에 대한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우선구매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을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지표로 반영하여 왔으며, 2013년부터는 지방공기업 정부권장정책 평가에도 추가로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규모는 2005년 6천억 원에서 2020년도 5,63조원으로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3-3-15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2005	2007	2008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금액	1,68	2,11	2,54	2,62	3,11	3,70	4,52	4,53	5,35	5,63

성능인증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이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조건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성능에 대해 확인을 받은 제품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앞에서 언급한 기술개발인증 가운데 하나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표 II-3-3-16 | 성능인증 발급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성능인증	361	364	310	300	387	395	416	366	394

한편 성능보증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여 성능인증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하고 있다. 성능보증은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대상으로 제품자체 교체 또는 수리금액을 보상하며 서울보증보험, 자본재공제조합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표 II-3-3-17 | 성능보증 계약 현황

(단위 : 건, 개,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약건	3	2	11	22	13	16	4	14	20
업체수	2	2	11	9	8	8	4	10	20
계약금액	912	32	2,767	25,769	13,130	12,220	235	5,877	7,692

자.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창업기업 초기 판로 개척을 위해 2018년부터 도입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가 본격 활성화되어 중소기업 혁신 제품의 초기 판로 개척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시행 첫해 2018년 126개 시범구매제품 선정, 60개 공공기관 참여로 368억원의 구매실적을 달성하였고, 2020년 252개 시범구매제품 선정, 444개 공공기관 참여로 2,647억원의 구매실적을 달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표 II-3-3-18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증감
선정제품	126개	194개	252개	+58개(+30%)
참여기관	60개	381개	444개	+63개(+16%)
구매규모	268억원	1,775억원	2,647억원	+872억원(+49.1%)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경우 기술력이 높다 하더라도 신규 판로를 개척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 진출의 중요 수단으로써 보다 쉽게 공공기관에 기술개발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촉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기관 평가 지표에 시범구매 실적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며 공공기관 대상으로 시범구매제품 구매를 독려할 예정이다.

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하는 중소기업제품(상생협력제품)을 공공기관에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소재·부품기업의 판로 지원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입찰 혹은 조달계약에 참여하고, 협력기업은 계약의 일부를 협력하거나 하청 받는 방식으로, 지원대상 기업의 원활한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중기간 경쟁제품 입찰에 가점을 부여하고, 상생협력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였다.

2020년 3차례 모집공고를 통해 혁신성장과제·소재부품과제·역량강화과제 3가지 유형에서 총 101개 상생협력제품이 선정되어 공공기관을 통해 186.6억원 구매가 이루어졌다.

우수사례로 혁신성장과제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및 LED 조명기술 보유 기업인 소기업과 생산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사물인터넷 디지털 센서가 부착된 조명을 생산하여 납품한 사례가 있다.

또한, 소재부품과제를 통해 CCTV를 생산하는 65개 중소기업이 AI 카메라 부품 소재를 보유한 대기업과 상생하여 중국산 AI기반 CCTV를 대체할 수 있는 최첨단 영상감시장치를 생산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중기간 경쟁제도 외 제품군으로 선정을 확대하여 제품군을 다양화 하고, 공공기관 설비 등 문제점을 기업 간 상생을 통한 제품을 공급하여 문제를 해결 해주는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를 추가로 신설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운영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제품 납품 및 구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g.go.kr)」을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망에서는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 신용평가 등급 등 각종 정보와 기술개발제품 정보가 제공되며 공공기관의 입찰정보와 공공구매 계획 및 실적관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이용인원은 급격히 증가하여, 2006년 511천명에서 2017년에는 1,133천명으로 증가하였고, 입찰정보 제공 건수도 2006년 51천 건에서 2019년 1,614천 건으로 증가 하는 등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사용자들에게 중소기업제품 납품 및 구매 업무를 지원 하는 대표적인 사이트로 자리를 잡았다.

표 II-3-3-19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이용자 현황

(단위 : 천명, 천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접속자수	3,718	4,228	3,408	1,772	1,133	1,123	1,614
신규입찰정보	637	909	919	982	1,031	1,061	1,090

또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온라인 처리,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 도입 등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작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1년 4월부터는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다.

파. 공공구매지원관리자 및 모니터링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과 각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업무 담당자를 '공공구매 지원 관리자'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구매지원관리자는 「발주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계약의 적절성 검토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표 II-3-3-20 |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중대 계획의 적절성 검토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계약 및 발주의 적절성 검토
-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여부 조사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조치의 이행 여부 조사
- 중기간 경쟁입찰 외의 다른 방법으로 경쟁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의 적절성 검토
- 공공구매 제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교육·상담 등

공공구매지원 관리자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위반한 입찰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하고, 권고이행 여부를 취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있다. 2009년도부터 모니터링, 시정권고, 국무회의 보고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11년 이후 공공기관의 제도 이행률이 90% 이상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최근에는 98% 이상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표 3-3-21 | 연도별 공공구매제도 이행 모니터링 결과

(단위 : 건,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이행률(A-QB)100. %	91.5	91.3	92.2	97.4	99.1	98.5	99.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위반 적발 건수(B)건	2,475	2,213	1,480	1,182	673	407	26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시험 건수(C)건	2,264	2,021	1,365	1,151	667	401	259

이 외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대상 공공기관은 공공구매제도를 자주 위반하거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연간 25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시정권고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은 경영평가 등에 반영(감점)하여 제도 이행력을 높이고 있다.



공공기관 담당자 교육



공공구매 촉진대회



제도 순회설명회

3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 판로정책과 최 서 영
- 판로정책과 유 주 현
- 판로정책과 이 지 수

중소기업 제조사의 유통시장 접근성은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유통대기업의 시장 과점화 심화로 크게 위축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간한 '2020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판매비중은 91.2%로 내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대형 유통 업체인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등에 판매망 의존도가 아주 높은 실정이다.

중소기업은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가장 큰 경영에요인으로 만드는 것 보다 '팔 곳'을 마련하는 것이 지적된다. 특히, 아이디어 창업 및 기술개발을 통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유통채널을 확보하지 못해 소비자를 만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요 견인형 시장조성 판로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진입이 활발하고, '사업화 → 판매 → 이윤창출 → 투자'로 이어지는 창의성이 보상받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구현과 내수경기 활력 회복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선별하여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을 지원하여야 하고 또한 시장에서 검증된 우수한 제품은 '혁신제품 유통 플랫폼(아임스타즈)'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초기제품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

가. 온라인시장진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는 온라인 유통시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은 온라인 마케팅 전문 인력 부족 및 홍보·관측 등 온라인 시장진입에 필요한 판매 인프라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5년 중소기업의 온라인시장 접근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쇼핑몰 진출 및 발주·배송·CS관리 등 판매를 도와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아임스타즈)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의 오픈마켓, 종합몰 등 인터넷 쇼핑몰과 시스템 연동함으로써 2020년 10개 온라인몰(쿠팡, 이베이코리아, 위메프,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공영홈쇼핑, NSshop+, 티몬)에 72,686 여개의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연계 하였다.

또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상품개발자(MD)에게 우수 혁신제품 기획 제안, 민간의 대형 인터넷 쇼핑몰과의 상품 판매기획전 개최(온라인기획전), TV홈쇼핑방송지원, V커머스 홍보판매등 실질적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성과를 높이고 있다.

표 0-3-3-22 : 온라인 시장진출 실적(20.12말기준)

구분	19년			20년			20년		
	매출	회수	업체수	매출	회수	업체수	매출	회수	업체수
온라인 기획전	169억	30회	112개	161억	30회	116개	204억	52회	170개
4대홈쇼핑 방송지원	11억	27회	27개	16억	33회	33개	20억	34회	34개
공영홈쇼핑 방송지원	13억	30회	27개	10억	20회	20개	16억	20회	20개
T-커머스 방송지원							3억	8회	8개
V-커머스 홍보판매	22억	180회	30개	40억	100회	30개	3억	30회	30개
합계	215억	227회	196개	227억	183회	199개	246억	144회	202개

나.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설치·운영

중소기업의 원활한 유통채널 진입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사전에 시장 검증 및 전사·홍보 등이 필요하다.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하고도 자체 판매장 개설이 힘들거나 새로운 유통채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입지가 우수한 곳에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을 개설하여 창업 및 초기 혁신제품의 판매를 지원 하고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 출국장 내 3개소 등 유동고객이 많은 곳에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1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으로 1,012개 업체의 12,092품목을 입점 시켜 4,733백만 원의 매출 성과와 초기제품의 시장검증 및 전시·홍보를 지원하였다.

표 2-3-3-23 |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면세점) 운영현황(2023년말기준)

(단위 : 개, 백만원, 개)

구분		오픈일 (개정일)	투자면적	판매액	지원업체수	비고
면세점	인천공항 T1(서편)	12.06.27	76	324	67	
	인천공항 T1(동편)	15.11.06	42	307	68	
	인천공항 T2(동편)	18.01.18	84	348	68	
	현대(무역센터)	18.11.01	13	22	40	18년 신설
	신세계(센텀)	18.03.01 (20.03.31)	66	12	98	20년 폐점
	신세계(문정)	16.05.18 (20.05.17)	53	36	148	20년 폐점
대형 유동점	신세계백화점(영동포)	17.09.08 (20.01.16)	52	6	77	
	현대백화점(판교)	16.11.09	69	439	152	
	영북한백화점(목동)	11.03.31	2,313	3,168	1,479	
교통시 설	KTX 부산역	13.02.05	42	250	119	
	화성휴게소(하행)	11.12.01 (20.02.29)	185	21	95	
합계			2,975	4,733	2,411	*

* 상기 업체수 및 품목수의 경우 중복 포함

다.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민간의 대형 유통채널 진출을 위해서는 제품 판매이후 A/S 문제 해결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자체 A/S시스템을 갖추진 못한 대부분의 중소기업 제품은 백화점, TV홈쇼핑 등의 판로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2006년 7월부터 우수제품을 생산하고도 자금, 인력 등이 부족하여 A/S 대응 한계로 판로에 예외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공동 A/S 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공동 A/S지원은 공동 A/S콜센터와 전국적 A/S망, 택배센터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제품의 A/S를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통해 판로확대를 꾀하고 있다.

참여 대상기업은 국내공장에서 일반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생활가전군, 주방가전군, AV기기군, PC군 등 17개 지원 제품군에 해당하여야 한다.

표 11-3-3-24 | 중소기업 공동A/S지원 추진경과

연 도	내 용
2008년	중소기업공동A/S콜센터 시범운영
2009년	A/S콜센터 사업과 A/S센터사업 통합·운영
2013년	전국 156개 A/S망, 3개 택배센터, 502개사 참여
2014년	전국 193개 A/S망, 1개 택배센터, 706개사 참여
2015년	전국 142개 A/S망, 1개 택배센터, 738개사 참여
2016년	전국 124개 A/S망, 1개 택배센터, 686개사 참여
2017년	전국 126개 A/S망, 1개 택배센터, 539개사 참여
2018년	전국 126개 A/S망, 1개 택배센터, 546개사 참여
2019년	전국 126개 A/S망, 1개 택배센터, 565개사 참여
2020년	전국 134개 A/S망, 1개 택배센터, 553개사 참여

다만,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의류, 일회·소모성 소비재 등 A/S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A/S 수요가 적은 제품은 제외하고 있다.

2010년부터 총 5,244개 업체가 참여하여 22,918천 건의 A/S 콜상담과 2,253천 건의 A/S치리콜 지원을 하였다.

표 II-3-3-25 | 중소기업 공동A/S 지원실적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참여업체수	502	708	738	686	539	546	566	553	
A/S 건수	총건수	1,974,508	3,431,721	3,584,174	2,947,462	2,624,348	2,183,915	2,239,557	2,005,566
	일평균	184,542	285,977	298,681	245,622	218,806	181,993	186,630	167,130
A/S 처리 에 산(역원)	49,108	182,577	368,302	467,915	344,211	311,695	255,744	200,399	
	136	90	90	83.7	62.7	59.2	62.9	62.3	

또한, A/S역량교육, 서비스 품질 및 고객 만족도 향상, A/S대행 처리기관의 생산성 향상, A/S처리 결과의 환류 등 A/S지원 인프라 내실화를 통해 질적 성과창출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라. 공영홈쇼핑(채널명 : 공영쇼핑)을 통한 판로지원

상품판매와 동시에 광고기능까지 수행하는 TV홈쇼핑은 중소기업의 매출증대 및 홍보 효과를 제공하는 좋은 판로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기업은 TV홈쇼핑 입점 판매와 홍보를 가장 선호하며 홈쇼핑 시장진출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TV홈쇼핑사는 대기업·수입제품과 시장에서 잘 팔리는 검증된 기존 상품을 중심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창업 및 혁신기업의 초기제품이나 농수산 식품은 홈쇼핑 시장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15년 7월 14일, 아이디어 창의혁신제품을 포함하는 중소·벤처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영홈쇼핑'을 개국하였다. TV홈쇼핑 업계 최저 판매 수수료를 23%를 적용한 채널이었다. 그 후 공영홈쇼핑은 2018년 재승인 심사에서 3%의 수수료를 추가 인하하면서 중소벤처기업과 농어민들의 판로지원을 대폭 확대하기에 이른다.

타 홈쇼핑사에 비교하여 공영홈쇼핑은 20번대 하위채널 사용, 대기업·수입제품 판매금지, 중소·벤처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만을 100% 취급하는 등 공적기능을 더욱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취급액 기준 총 9,676억 원의 매출실적을 올리며 중소기업과 농어민을 위한 새로운 판로개척 유통방으로 빠르게 안착해 가고 있다.

표 3-3-26 | 공영홈쇼핑 판로지원 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취급 매출액	1,500	5,057	5,828	6,382	7,156	9,676	35,599
상품수	789	1,565	1,741	1,589	1,738	1,794	9,216

특히 벤처기업 신제품, 기술개발 제품 등 총 2,795개의 창의혁신제품을 집중 발굴하여 7,936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창업·혁신기업 사업화 초기제품의 시장진입 유통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4

비대면 서비스 판로 확대 지원

• 비대면경제과 이재준

협업툴, 클라우드, 화상회의 솔루션 등 비대면 서비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수요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정보와 자금 등의 부족으로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0년 12월 조사한 중소기업 디지털 성숙도 조사에 따르면 재택근무 도입에 대한 응답은 상(5.3%), 중상(1.4%), 중(5.8%), 중하(4.8%), 하(82.7%)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의 지속·확산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비대면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2020년 제3차 추경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신설하고 2,8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는 중소기업에 400만원 한도의 바우처를 제공하여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원격·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 화상회의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업 신청부터 심사와 선정, 필요한 비대면 서비스의 탐색과 계약 체결, 바우처 결제와 사후정산까지의 사업전과정을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K-바우처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II-3-3-27 |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분야

비대면 서비스 분야	세부 내용
① 화상회의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및 영상면접 등 비대면 채용관리 서비스
② 재택근무(협업 Tool)	기업 내 임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
③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해킹 방지 및 정보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④ 에듀테크	기업 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
⑤ 유통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이용 기업 유통 서비스
⑥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원격근무 도입에 따른 인사·노무, 보안전략 컨설팅

2020년 사업의 미시적 목표는 중소기업 8만개사의 비대면 서비스 활용을 지원하는 것이고, 거시적 목표는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것과 비대면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2020년 7월 추정 편성 이후 공급기업 선정, 'K-바우처 플랫폼' 구축 등 사업추진체계를 신속히 마련하여 9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하였다.

〈'K-바우처 플랫폼'을 통한 바우처 지원절차〉

	① 사업 신청	② 자격확인 및 확정	③ 바우처 지급 정산
공급기업	 기업 기본정보 및 서비스 소개 자료 제출(K-바우처 '기업정보')	 Food유형 적합성도 및 권고 (바우처할 공급자 포함)	 서비스 플랫폼 이용 지급 (바우처 시스템 → 공급자)
수요기업	 바우처 지원요청 제출 (요건서 등)	 요건 검토 및 바우처 지급대상자 확정	 바우처 지급금 일괄 (바우처 시스템 → 수요자)

제3차 추경으로 신설된 대규모 사업이지만, 적극적인 사업홍보 및 수요기업의 제출서류 간소화, 수요자 편의성 개선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결과 단기간에 2020년도 지원목표 8만개사를 초과한 101,146개사가 신청하여 11월 23일 접수를 마감하였다.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급기업도 추가로 선정하여,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654개의 기업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참여하였다.

한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기업의 부정행위 의심사태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거쳐 신청 취소, 바우처 환수,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단하였으며, 2020년의 사업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한 중소기업의 업무 효율성 개선과 디지털 전환 촉진,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4절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1 수출 현황

* 글로벌성장정책과 이상수

2020년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1,007억 달러를 기록하며, 4년 연속(2017~2020년) 1,0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2016년 995억 달러(+3.4%), 2017년 1,032억 달러(+3.7%), 2018년 1,052억 달러(+1.9%)를 기록하며 2015년 이후 3년 연속 호조세를 달성하였으나, 2019~2020년은 북·중 무역분쟁, 코로나19 위기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중소기업 수출 주력품목인 자동차부품(△10.9%), 합성수지(△9.0%), 기타기계류(△12.0%) 등이 부진하였으나, K-방역, 온라인 수출 등에 힘입어 중소기업 수출은 중견 및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율을 나타냈으며 수출 비중은 전년대비 1.1%p 증가한 19.7%를 기록하였다.

* 20년 수출증감률(%) : 중소기업 △0.2, 중견기업△4.2, 대기업 △7.5 (총 수출 △5.5)

* 20년 수출비중(%) : 중소기업 19.7, 중견기업 17.4, 대기업 62.7 (총 수출 100)

수출 중소기업 수는 2010년 이후 2019년까지 9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2020년 94,000개사로 전년대비 320개사(△0.3%) 감소하였다.

* 수출 중소기업 수는 2010년 통관기준 수출통계 작성 이후 9년 연속 증가세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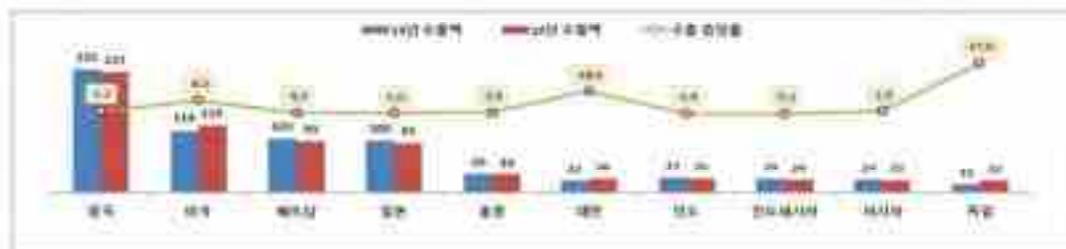
그림 10 | 2015~2019년 중소기업 수출 현황

(단위 : 억 달러, %, 개사)



그림 11 | 2020년 중소기업 수출 10대 국가 현황

(단위 : 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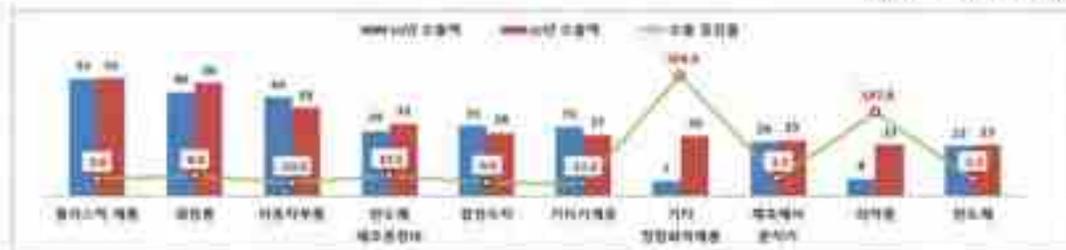


2020년 국가별 중소기업 수출은 상위 10개 국가 비중이 69.9% (2019년 70.4%)를 차지하였다.

10대 국가 수출 집중도가 낮아지면서 중소기업 수출시장 다변화를 보여주었다. EU 지역 진단키트 수출 급증으로 독일이 10대 국가에 올랐으며, 다만 주요시장인 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3.2%로 감소한 반면, 미국 수출은 +8.3%로 증가하였다.

그림 12 | 2020년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 현황

(단위 : 억 달러, %)



주 : 증감은 전년대비 증감률(%), 비중은 전체 중소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임(AMN 기준).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20년도 수출 상위 10대 품목 가운데 플라스틱제품, 화장품, 반도체제조장비, 기타정밀화학제품, 의약품 등 7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기타기계류 3개 품목의 수출은 감소하였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중소기업 진단키트 수요 급증으로 인해 기타정밀화학제품 (+304.4%)과 의약품(+197.8%)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또한 온라인 수출이 전년대비 두배 이상 성장하며 수출기업수(72%) 및 온라인쇼핑몰 신규 셀러 수(약 3만명!) 급증하였다.

* 중소기업 온라인수출증감률(%) : ('18년) 17.8 → ('19년) 46.0 → ('20년) 106.0

2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글로벌성장정책과 정 미 라
- 글로벌성장정책과 양 동 학
- 글로벌성장정책과 이 상 훈

가. 수출지원기반활용

1) 수출바우처사업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은 내수기업, 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기업, 수출성장기업 등 수출성장단계에 따라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브랜드K,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구성된 혁신바우처를 통해 수출역량강화 교육, 홍보 및 제품 디자인, 온라인 수출지원, 해외시장조사, 해외 전시회 참가 등 수출 전 단계에 걸쳐 기업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수출규모별·역량별 맞춤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서면 확대와 수출 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1996년에 시작된 동 사업은 2010년까지는 수출 100만불 이하 '수출초보기업'과 내수기업만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2011년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자 지원 대상을 글로벌 강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수출 역량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2017년부터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선정된 기업에는 선택권 확대를, 민간 수출서비스 공급자간에는 경쟁을 유도하는 수출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였다. 수출바우처 제도는 선정기업에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지원 메뉴판에서 필요한 서비스, 원하는 서비스 공급기관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의 신개념 수출플랫폼으로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8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특허청이 추가되어 5개 부처가 공동 운영체제로 개편되었다.

이를 위해 2019년에는 4개의 내역사업을 수출바우처사업 1개의 내역사업으로 통합하고, 하위 내역사업을 수출성장사다리별로 구성하였다. 기존 개별내역사업의 지원 조건의 간략화가 해소되어, 수출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이 사업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9년에는 한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을 책임질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7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타트업 바우처를 신설하여 한국무역협회가 운영 기관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집중 제공함과 동시에 해외공유오피스와 해외 테스트베드와 같은 새로운 메뉴 도입을 통해 바우처를 스타트업 기업의 수요에 최적화 하였다.

참가기업은 바우처 메뉴 활용 이외에도 한국무역협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가기회를 가졌다. 특히 글로벌 스타트업컨퍼런스 「Next Rise」 전시 참가, 다양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IP피칭 시리즈 참가, 해외 공유오피스, 해외 테스트베드 등을 통해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였다.

2020년 중기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은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혁신바우처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혁신바우처란 중기부 중점추진사업을 수출바우처의 하위 지원 사업으로 구성된 별도 지원 트랙이다. 각 혁신유형별로 지원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수출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글로벌화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 스타트업, 글로벌강소기업 외에 브랜드K 지정, 규제자유특구 입주, 스마트제조혁신 등 3개의 혁신성장유형을 신규 추가하여 총 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설하였다. 기존 성장바우처와 복수 신청을 허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수출바우처 지원의 선택권을 확대하였고,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연계지원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수출바우처사업은 기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뿐만 아니라, 소부장 강소기업100으로 선정된 기업 중 50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을 혁신바우처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수출역량이 우수한 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II-3-4-1 | 2020년 수출바우처사업 개편현황

19년			20년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지원한도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지원한도
수출 바우처	내수기업	30백만원	수출 바우처	심장바우처	
	수출초보기업	30백만원		내수기업	30백만원
	수출유망기업	50백만원		수출초보기업	30백만원
	수출성장기업	80백만원		수출유망기업	50백만원
	스타트업	30백만원		수출성장기업	80백만원
	글로벌강소기업	100백만원		혁신바우처	
				스타트업	30백만원
				브랜드 K	100백만원
				규제자유특구	100백만원
				스마트제조혁신	100백만원
			글로벌강소기업	100백만원	

2020년에는 혁신바우처 지원체계 구축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대응, 정책 소외기업 지원, 서비스 매칭 행사, 현지만족선, 스타트업 마케팅홍보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을 통해 지원성과 제고에 기여하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내외 수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참여기업의 수출예로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존 협약기간을 연장하여 총 933개사의 바우처 활용을 제고하였고, 2차 특별보급공고를 통해 총 95개사의 코로나19 피해기업과 감염증 예방·진단기업을 지원하여 23%의 수출성장과 11%의 고용창출을 견인하였다.

그리고 수출바우처 공개경쟁모집에서 탈락한 기업 중 정책소외기업을 추가 선정하여 정부정책의 수혜기업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첫걸음기업, 소상공인 기업, 4차산업분야 영위기업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109개사를 기업들을 지원하여 수출성장 13%와 고용창출 18%의 지원성적을 달성하였다.

· 첫걸음기업 : 중기부, 산업부 수출지원사업 참여이력이 없는 기업

아울러,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의 서비스 매칭을 위해 수출바우처 매칭페어(20.10월)를 개최하여 참여기업, 수행기관의 애로사항 해소하는 데에 노력하였다. 우수 수행기관 70개사와의 매칭상담 879건이 수행되었으며, 그 중 833건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감안하여 온라인 상담으로 진행하는 등 대외 환경을 반영한 탄력적인 행사 개최가 주요하였다.

나아가, 해외 거점을 활용한 비대면 판매전(20.9월~20.10월)을 개최하여 중소기업들의 비대면 판매를 촉진하였다. 소비재 생산기업 53개사의 우수한 상품을 중국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종합보세구)를 통해 판매하고, 현지 바이어를 연계하여 약 1,500백만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등 참여기업들의 마케팅 애로콜 해소하였다.

또한, 다양한 투자자들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하는 스타트업 브이데이(V-Day),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컨퍼런스 넥스트 라이즈(Next Rise)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투자유치의 장을 마련하였다.

사업체제 개편, 코로나19 확산 대응, 서비스매칭 활성화, 서비스 매칭 활성화, 스타트업 마케팅홍보 등 다각화된 노력을 통해 2020년에 3,706개사를 지원하였다. 그 결과, 지원기업들의 수출증가율과 고용증가율은 사업참여 이전년도인 2019년도 대비 각각 13.9%*, 8.0% 상승하는 우수한 사업성과를 달성하였다.

* 20년도 수출중소기업 전체 수출증가율 △0.2% 대비 14.1%p 높음

표 II-3-4-2 | 수출성장단계별 지원성과

(단위 : 개사, 백만불, 명, %)

구분	내수	수출초보	수출유망	수출성장	수출감소	수출선도	전계	
지원기업	1,060	1,099	820	556	90	81	3,706	
수출	지원전	0	29	319	1,321	629	1,628	3,924
	지원후	54	161	665	1,474	608	1,487	4,470
	증가율	-	455.2	114.7	11.5	△3.3	△8.5	13.9
고용	지원전	13,616	16,240	19,672	21,876	5,875	8,390	65,669
	지원후	16,507	17,695	21,011	22,741	6,006	8,308	92,540
	증가율	21.2	9.0	6.8	4.0	2.3	△1.0	8.0

* 전년도 직수출실적 기준 수출성장단계 구분 : (내수)수출실적 0, (수출초보)1~10만불 미만, (수출유망)10만~100만불 미만, (수출성장)100만~500만불 미만, (수출감소)500만~1,000만불 미만, (수출선도)1,000만불 이상

2)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글로벌 강소기업은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 선도기업 또는 지역주도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지역유관기관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년부터 글로벌 강소기업을 지정해 지역의 우수한 수출기업을 한국형 하든캠퍼언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출단계별 성장사다리 구축에 노력해오고 있다.

* 수출성장사다리 : 내수-수출초보(10만불 미만)-수출유망(10만불~100만불 미만)-수출성장(100만불~500만불 미만)-수출강소(500만불~1,000만불 미만)-수출선도(1,000만불 이상)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지자체는 지역별 글로벌 강소기업 전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며, 민간 금융기관은 융자 및 보증분야를 우대 지원한다.

글로벌 강소기업 신청요건은 매출액 100~1,000억원,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으로(단, 혁신형기업은 매출 50~1,000억원, 수출액 100만불 이상), 2020년에는 200개사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자격 유효기간은 4년이다.

2011년부터 시작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9년간 1,443개사를 선정하였으며, 2020년까지 지정된 글로벌 강소기업 중 62개사가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성장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상황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의 '20년도 수출증가율은 다소 감소(△1.3%)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선정기업수 : ('11~'17) 833개 → ('18) 210개 → ('19) 200개 → ('20) 200개

표 II-343 |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개, %)

구분	2013년	2015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	42	40	32	50	40	60	100	100	130.5
지원업체	121	162	160	167	150	176	163	271	283
수출증가율	9.7	11.7	4.3	1.5	0.8	15.1	12.8	0.9	△1.3

* 수출증가율은 직전년도 대비 지원년도의 증가율

나.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

1) 수출컨소시엄 사업

수출컨소시엄 사업은 동일·유사업종 중소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08년~)

동 사업은 목표시장에 대한 진출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조사 등 사전준비, 해외전시회 또는 상담회 개최 등 현지 마케팅활동, 현지바이어 국내 초청 등 사후 관리의 3단계로 구분하여 소요 비용 중 공동비용에 한해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487개 컨소시엄을 통해 총 9,993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121개 컨소시엄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 수출지원 효과 및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9년부터 유사 성격의 무역촉진단(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사업을 수출 컨소시엄 사업으로 통합·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화상상담회 등의 비대면 방식 지원 신설, 온/오프라인 전시·상담회의 장점 반을 모아 신규 도입한 O2O 전략컨소시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방식을 다각화·고도화 하여 지원하고 있다.

향후 신남방·신북방 지역 진출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수출지원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표 3-4-4 | 수출컨소시엄 파견실적

(단위 : 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해외전시회	146회 (3,133)	155회 (3,673)	178회 (4,366)	143회 (2,966)	137회 (2,058)	-	-
시장개척단	9회 (105)	7회 (73)	7회 (85)	3회 (34)	4회 (38)	-	-
수출컨소시엄	26회 (358)	20회 (207)	19회 (204)	49회 (1,393)	63회 (1,514)	184회 (3,072)	126회 (3,245)
업종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	-	-	10회 (1,272)	-	-
계	180회 (3,596)	182회 (3,953)	204회 (4,636)	195회 (4,393)	214회 (4,882)	184회 (3,072)	126회 (3,245)

* 2020년 실적은 현재 집계 중으로, 향후 변동 가능

2)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동 사업은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거점 및 유통망)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형 수출 지원 사업으로 2020년까지 총 9,100여개 기업을 지원하여 약 6,500억 원의 수출성적을 달성하였다.

주요 동반진출 유형으로는 대기업의 K-POP 공연 등의 콘텐츠 등과 연계한 한류 마케팅 활용, 대기업 해외 홈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방송 판매지원, 기계·전기·전자 등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들과 연계한 해외거점 진출 방식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BTS 등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따라 K-POP공연 외 예능, 드라마 PPL 등으로 한류콘텐츠 활용 방식을 다각화하였으며, 이커머스 및 V커머스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해외거점을 활용한 동반진출에서는 대기업 현지 브랜드를 활용한 Booth in Booth 형태의 동반전시회 참가, 대기업 현지 법안에 중기제품 상설전시용보관 구축, 바이어 요구에 부합하도록 중기제품 현지 시범설치와 현지화(PoC-Proof of Concept) 지원을 강화하였다.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COVID-19)영향으로 많은 대기업들이 5G, AI, 빅데이터 등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한 중소기업 동반진출 유형도 다각화 하여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확대할 계획이다.

표 0-3-4-5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실적

구분	[단위 : 개사]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한류연계	10회(346)	6회(226)	8회(257)	18회(606)	16회(819)
해외홈쇼핑	7회(221)	12회(412)	14회(443)	14회(527)	7회(105)
해외거점 (협외회모형)	22회(819)	27회(812)	53회(489)	78회(781)	42회(387)
계	39회(1,386)	45회(1,250)	75회(1,189)	108회(1,916)	65회(1,111)

3) 전자상거래활용 수출

2015년 1조 2천억 원 수준이었던 온라인수출이 2018년 3조 5천억 원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세계 각지에서 한국 상품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온라인수출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동 사업은 글로벌 온라인쇼핑몰과 국내 자사몰 등 다양한 온라인수출 채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을 지원하고, 물류·배송, 통관, 교육 등 온라인수출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판매대행 사업

해외 쇼핑몰에 판매계정을 보유한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이 인력, 예산 및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기업을 대신하여 제품 등록, 마케팅, 배송, CS 등 온라인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2,702개사를 지원하여 1,019억 원의 수출을 달성하였다.

표 3-4-6 | 온라인쇼핑몰 판매실적 현황

(단위 : 개사 / 억원, '19.12월말 기준)

구분	2014	2015	2017	2018	2019
지원기업	1,543	1,531	1,524	2,011	2,702
판매실적	433	443	464	610	1,019

② 온라인수출 기업화 사업

글로벌 쇼핑몰 입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계정생성에서 판매실습 및 마케팅을 일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내수기업 2,937개사를 지원하여 1,835개사는 첫수출을, 1,173개사는 1천불 이상의 수출에 성공하였다.

③ 자사몰(독립몰) 육성사업

업종·테마별 전문몰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쇼핑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쇼핑몰 신규 구축,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70개사를 지원하여 442억 원의 수출을 달성하였다.

표 II-3-4-7 | 자사몰 판매실적 현황

(단위 : 개사 / 억원, '19.12월말 기준)

구분	2018	2019
지원기업	47	70
판매실적	432	442

④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사업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물량을 집적하여 배송비를 낮추고 물류창고 및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지원하여 수출기업의 물류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다. 2019년 신설 사업으로, EMS 대비 약 54% 할인된 단가를 제공하여 490억 원의 물류비 절감효과를 창출하였다.

2020년에는 선남방, 선복방 등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과 제품 특성에 맞는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신규 마케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4)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WTO의 자유무역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최근 비·중 무역갈등 등 주요 교역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강화 등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20년 TBT 통보문 역대최대치 기록)

* WTO TBT 통보문 현황 : 2,579건('17년) → 3,066건('18년) → 3,336건('19년) → 3,552건('20년)

또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진단키트 등 방역제품 수요 증가와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등으로 의료기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럽(EU) (CE의료기기(MDR) 인증강화('21.5), 영국 브렉시트로 인한 UKCA인증 발효('21.1) 및 CE 체외진단기기(IVDR) 인증강화('22.5) 등 수출장벽이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화장품 안전성평가 등 등록강화와 미국의 의약품 등록비 신설 등 수출유망품목의 글로벌시장 선점 지원 필요 등 인증획득 절차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중소기업은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필수로 획득해야하나, 전문인력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인증획득에 장기간 소요되며, 비용 부담도 증가하는 등 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이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시험·인증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 또는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0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27건의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표 II-3-4-8 |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현황

(단위: 억원, 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원예산	205.9	132.6	164.6	176.5	106.5	106.5	106.5	106.5
지원인증	3,706	3,418	3,001	2,812	1,897	1,970	1,966	1,927

또한, 글로벌 인증시장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의 인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인증교육, 맞춤형컨설팅 및 글로벌 바이어 요구인증지원강화 등을 통해 수출장벽으로 작용하는 규격인증대응기반 강화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해외규격인증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대응 및 인증획득 역량을 제고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3

수출기업 지원 및 해외교류 인프라 확충

- 글로벌성장정책과 김희중
- 글로벌성장정책과 김혜인

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

1998년 12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수출에로를 현장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제주도, 경기북부 사무소 등 총 14개의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무역투자 진흥회의(2013.5월) 및 대외경제장관회의(2013.5월)를 통해 수출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수출지원기관을 한데 모아 원루프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지원센터 운영체제를 개편하였으며,

동 계획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13년 8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의 5대 광역권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원단 설치를 시작으로 17년까지 경기, 인천, 울산, 전북 등 11개 지역에 지원단을 추가 설치하는 등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접점을 확대하였다.

현재 수출지원센터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지원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표 II-3-49 | 수출지원센터 인력 현황(19.12)

(단위 : 명)

구분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지원단			총계
	공무원	전문위원	사무원	파견	계	공무원	전문위원	소계	
서울	4	2	1	2	9	-	-	-	9
부산	5	-	-	-	5	21	3	24	29
대구경북	4	-	1	-	5	21	6	27	32
광주전남	2	1	1	-	4	16	3	21	25
제주	3	-	-	-	3	1	1	2	5
경기	1	3	1	-	5	42	4	46	51

구분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지원단			총계
	공무원	전문위원	사무원	파견	계	코도리	동진원	소계	
경기도부	1	1	1	-	3	19	-	19	22
인천	3	1	1	-	5	21	4	25	30
대전충남	5	1	2	-	8	26	4	30	38
울산	1	1	1	-	3	8	2	11	14
강원	2	1	1	-	4	10	-	10	14
충북	3	2	1	-	6	12	3	15	21
전북	2	1	1	-	4	12	3	15	19
경남	5	1	1	-	7	17	2	19	26
소계	41	15	13	2	71	229	35	264	335

표 II-3-4-10 | 수출지원센터 운영 실적

(단위 : 건, 개사)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현장수출애로	4,862	5,608	4,892	6,408	8,311
수출유망기업 초청·관리	760	744	772	1,077	1,262
수출비우체사업	1,519	1,419	3,380	3,305	3,031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1,657	1,834	878	1,056	648
글로벌감소기업	167	150	135	183	200

나.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수출인큐베이터사업은 해외에 지사나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설립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여 현지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및 회계·법률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998년 중진공 해외사무소 내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신규 개소한 시카고 수출BI를 시작으로, 2000년도에는 프랑크푸르트 수출BI, 2014년 중국 시안, 카자흐스탄 알마티, 베트남 하노이, 2016년 중국 충칭, 칠레 신티아고, 2017년 태국 방콕, 미얀마 양곤에 개소 완료하였으며, 현재 12개국 30개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351개의 입주 공간을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3-4-11 |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현황

(단위 : 개)

지 역	미 국				멕시코	일본	러시아	UAE	독 일
	뉴욕	시카고	워싱턴	LA	멕시코 시티	신주쿠	모스크바	두바이	프랑크푸르트
설치시기	2006.2	1998.9	2004.3	2003.11	2008.3	2016.11	2006.9	2006.11	2000.4
입주규모	19개	18개	10개	22개	9개	9개	8개	11개	15개

지 역	카자흐스탄	중 국				베트남	태국	미얀마			
	알마티	일본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샤먼	홍콩	호치민			
설치시기	2014.11	2004.3	2002.8	2006.5	2003.11	2014.4	2016.12	2014.2	2014.6	2017.12	2017.12
입주규모	7개	15개	17개	22개	14개	7개	9개	16개	16개	10개	10개

현지진출 희망 중소벤처기업은 수출인큐베이터 입주를 통해 사무공간 및 회의실 등을 저렴하게 이용하여 현지 초기 시장개척과 초기 정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입주기업 및 수출인큐베이터 출입기업과의 교류활동을 통해 현지 시장동향 및 마케팅 노하우를 전수받는 등 상호 정보공유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한국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인프라에 입주해 해외 바이어에게 공신력을 제공하는 등 해외진출 초기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9년부터는 수출인큐베이터 내 공유오피스를 설치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개방형 협업을 지원하고, 단기 해외출장을 계획 중인 중소벤처기업에게 업무용 사무공간 및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이동제한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 지원성과 제고를 위해, 수출인큐베이터는 기존의 대면사업을 O2O 연계 수출지원 등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성장에 기여하였다.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사업은 국내 유망스타트업의 글로벌 혁신 창업거점 진출을 위해 해외시장과 국내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 하반기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벤처창업기업의 현지 생태계 진입 및 안착 지원을 위해 세계적 혁신허브 지역인 미국 시애틀, 인도 뉴델리,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를 신규 설치하였다.

표 II-3-4-12 |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설치 현황

설치연도	지역	설치유형	진출 분야	진출 전략
19년	시애틀 (미국)	현지진입형	빅데이터, AI, 항공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대기업 공동 진출 해외 VC 후속투자 연계
	뉴델리 (인도)	현지진입형	전기이륜차, 폐기물처리, 수질오염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 처리 대규모 투자 및 외국 기업 기술 요청 대응 이륜전기차 공공 발주, 스마트시티
	텔아비브 (이스라엘)	프로그램형	AI, 어그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스라엘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전세계 시장 진출 거점으로 활용 미국 IR 포함하여 프로그램 구성
20년	싱가포르	현지진입형	핀테크, 인공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특허에 가점 및 네트워크 활용 스마트네이션(스마트시티, 헬스, 모빌리티) 대응 MS와 공동 겸진대회, IR 개최 등
	스톡홀름	현지진입형	인공지능, 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 내 시공간 최대 투자기업 등 글로벌 대기업 공동진출
	헬싱키	프로그램형	의료, 디지털 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트너를 중심으로 산/학/연 네트워크 활용 현지 캠퍼 이벤트 SLUSH 연계

이러한 글로벌 창업 활성화 여세를 몰아 20년 하반기 싱가포르와 스웨덴 스톡홀름, 핀란드 헬싱키 3개소를 추가 신규 개소함으로써, 국내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가속화를 추진하는 등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 하였다.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입주 특화 프로그램, 사무공간, 멘토링, 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표 II-3-4-13 수출인큐베이터 수출실적

(단위 : 개, 천달러)

국 기	지역	개소 시기	수출실적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미 국	뉴욕	2006.2	39,713	22,600	51,677	23,800	27,374	42,042	17,192	56,376
	시카고	1988.8	41,250	45,039	25,054	28,947	34,372	41,532	50,446	44,971
	워싱턴	2004.3	14,589	15,319	12,500	7,903	13,180	30,179	8,402	8,120
	LA	2003.11	16,074	47,048	72,389	16,750	113,239	91,043	56,485	68,595
	시애틀	2019.8	-	-	-	-	-	-	1,015	-
브라질	상파울루 (17년 폐쇄)	2004.11	55,199	48,619	1,101	3,814	-	-	-	-
독 일	프랑크 푸르트	2000.4	46,255	38,616	36,859	127,733	45,547	79,729	63,984	24,823
일 본	도쿄	2004.3	26,031	28,794	31,415	69,492	50,257	53,948	110,549	65,429
중 국	베이징	2002.8	15,656	36,600	38,125	27,072	766	3,754	2,441	4,324
	상하이	2006.5	76,320	130,795	91,349	14,505	84,788	13,938	33,478	47,501
	광저우	2003.11	14,020	10,842	16,626	17,103	25,557	9,021	2,726	13,488
	청두 (17.07폐쇄)	2007.12	26,305	29,524	96,084	17,376	1,700	-	-	-
	시안	2014.4	-	18,988	5,197	57,550	9,522	6,145	3,318	38,707
	충칭	2016.12	-	-	-	-	4,812	6,946	2,501	486
베트남	호치민	2004.12	16,225	48,843	54,045	36,286	26,629	26,721	32,016	16,431
	하노이	2014.7	-	13,554	16,048	36,533	28,125	29,942	39,245	24,726
싱가포르	싱가포르	2006.8	21,320	9,192	15,661	34,295	19,631	23,670	113,080	99,964
러시아	모스크바	2006.9	11,973	16,255	26,846	17,284	49,193	15,531	13,929	3,656
UAE	두바이	2006.10	25,142	28,002	30,134	36,798	36,933	42,601	19,459	10,174
인 도	뉴델리	2006.11	7,806	27,427	22,611	981	23,547	28,117	30,033	-
멕시코	멕시코시 티	2008.3	14,828	16,444	18,818	35,498	10,549	26,413	9,169	9,514
카보스탄	알마티	2014.11	-	-	865	2,641	45,220	55,774	24,917	3,963
칠 레	산티아고	2016.11	-	-	-	-	1,905	36,481	23,722	5,030
태 국	방콕	2017.12	-	-	-	-	0	7,073	22,782	21,466
미얀마	양곤	2017.12	-	-	-	-	0	7,809	11,045	7,823
13개국	21개소	-	472,687	632,759	664,804	814,361	662,944	678,409	691,933	595,577

4

국제협력 추진

- 국제협력과 이발준
- 국제협력과 김석동
- 국제협력과 임고은
- 국제협력과 원인옥
- 국제협력과 손인환
- 국제협력과 백안성
- 국제협력과 정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의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 유럽지역 스타트업 진출 등 중소기업 해외 진출 국가 및 방식의 다변화를 위한 정부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교류 추진, 중소기업 협력 MOU 체결, 고위급 교류 등 정부 간 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유리한 여건과 기반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경 간 이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가 간 협력을 중단없이 추진하였다.

다자간 협력으로 APEC, OECD 등 회의체에서 한국의 중소기업 육성경험을 회원국과 공유하고 회원국과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중소기업 진출 기반을 다지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고 있다.

가. 양자협력 활동

정부는 중소기업 진출 국가 및 방식 다변화를 위해 북유럽, 신북방 및 신남방 지역 등에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환경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정상 순방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한 중요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1) 유럽 협력

중소벤처기업부는 '19년 6월 정상 방문을 계기로 핀란드 교육경제부, 스웨덴 기업 혁신부와 스타트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달한 북유럽 국가와 스타트업 상호진출과 소셜벤처 육성, 글로벌 개방형 혁신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20.7월 핀란드, 스웨덴, 싱가포르 세곳에 K-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을 화상으로 개최하였으며, 우리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혁신 전략거점과 연결을 통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별 특화업종을 집중지원하기로 하였다.

'20.12월 중소기업부는 룩셈부르크 경제부와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속가능 혁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형 뉴딜 정책 중 그린 뉴딜과 유럽연합의 친환경 정책(그린딜)간 협력 모색과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인접 국가 진출이 쉽고, 기업친화적인 룩셈부르크에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유럽 진출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 비즈니스 센터를 개소하기로 하였다.

'21년 6월 정상 외교를 계기로 중소기업부는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와 중소기업·스타트업·혁신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소기업과 스타트업 정책 공유, 기업과 전문가 상호교류, 상호진출 지원, 생태계 협력 강화, 5G, AI, 미래차, 디지털 경제 등 스마트 산업 신기술 협력 강화하기로 하였다.

2) 싼남방 지역 협력

중소벤처기업부는 '19.11월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싼남방 국가와 스타트업 교류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역내 창업 생태계 발전에 지속 협력하기 위하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선언문에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구축을 반영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중기부-ACCMSME²⁰⁾ 정책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중기부-ACCMSME 정책대화를 연례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19년

20) ACCMSME(ASEAN Coordinating Committee on Micro/SMEs)는 아세안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정책 등을 논의하는 관한 부처 아세안 고위급으로 구성된 아세안중소기업조정위원회

제1회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회를 개최(19.11, 캄보디아)하여 '20년에 양측 간 정책 분야, 기업교류 분야, 공무원 연수 등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중기부는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와 함께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 수립사업 등 9개의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사업을 추진하였고 제2차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회(20.12, 온라인)에서 관련 성과를 공유하였다.

'20년에는 코로나 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며 협력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체계적인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협력을 위하여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 수립사업'을 착수했다.

또한 한·아세안 벤처캐피탈의 스타트업 투자확대를 위하여 공동투자 및 공동펀드 조성을 촉진하는 '한·아세안 벤처캐피탈 컨퍼런스'와 '투자유망 스타트업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창업생태계 주체 간 교류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 사업모델 경진대회 '에코톤'과 ICT 스타트업 피칭대회 '한·아세안 스타트업 워크'를 개최하고,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중견기업-스타트업 매칭사업'과 아세안 스타트업에 국내 창업생태계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K-그라운드'를 추진했다.

3) 신북방 지역 협력

신북방 지역과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해외 진출 환경 직간접 지원하는 노력도 추진하였다. 러시아의 우수한 연구개발 원천기술과 국내 스타트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축한 '한·러 혁신 플랫폼'을 통해, 러시아 혁신 스타트업 협력 중추기관인 스톨코브재단과 협력을 통해 국내 6개 스타트업의 현지 인큐베이팅 지원 등 교류 및 협력을 지원하였다. '20년에는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행사 '러시아 오픈이노베이션'과 연계하여 '한·러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하고 한국과 러시아 스타트업 각각 11개사와 벤처캐피탈 18개사가 교류 및 협력을 지원하였다. 카자흐스탄에는 '19.4 정상 순방 계기 시장개척단 등을 파견하여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였으며, 동 순방 기간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카자흐스탄 중소기업공사 간 MOU 체결하고, '19.12.4. 카자흐스탄 현지에 기술교류센터를 개소하는 등 양국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기술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즈베키스탄과는 중기부-우즈베키 혁신개발부 간 중소기업 협력 MOU 체결 및 우리 중소기업 12개사가 참여한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통한 우리 기업 현지 진출 지원하였다. 몽골과는 몽골 농식품경공업부, 몽골 외교부 차관, 몽골 대통령 영애 등 고위급 면담을 통하여, 한국의 몽골지역 스타트업 기반 구축을 ODA로 지원하는 계기도 마련하게 되었다. '20.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몽골 대통령과의 면담을 계기로 양국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바, 한국벤처투자과 몽골 청년기업가협의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몽골 상공 회의소가 기존 업무협약을 갱신하였다.

나. 다자협력 활동

중기부는 양자뿐만 아니라 APEC, OECD, EU, ASEM 등 다자기구 및 협의체 등과 한국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정책을 널리 홍보하고 협력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1) OECD 협력

OECD는 이사회 및 위원회와 위원회 활동을 보조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혁신기업가정신위원회 소속의 '중소기업 및 기업가 정신 작업반(WPSMER)'에 참여하고 있다.

OECD는 '19.11월에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관련 이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DASME(Digital for SMEs) 이니셔티브'를 발족하였다.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여러 집단이 한자리에 모여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고잉 디지털(Going Digital) 프로젝트' 등 중소기업들이 디지털화를 통해 보다 많은 편익을 얻는 방안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뉴질랜드·아일랜드의 중소기업 주관부처 장관과 함께 DASME 제1차 라운드테이블 회의에 참석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인공지능(AI)' 세션을 주재하였다. 해당 세션에서 중기부 장관은 한국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정책을 소개하였으며, 포스코와 테스타홈앤이 각각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로 참석

하여 스마트공장 확산 사례를 발표하여 참여국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20년에는 격년마다 발간되는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20.8)의 중소기업 분야 정책 평가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코로나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공유하였다. OECD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과 교역 차질을 특단의 봉쇄 조치 없이 극복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기업의 빠른 대응에 주목하고, 20.12월 한국을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대표적 국가로 선정하고 인구하기로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OECD의 한국의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 정책 연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21년 연구 결과를 함께 발표하기로 하였다. 코로나19 이후, OECD의 중소기업정책 관심 증대, 회원국 간 정책 연계 필요성 등으로 OECD 중소기업 작업반을 중소기업 위원회로 승격이 논의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OECD 중소기업 위원회 승격을 지지하는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스위스, 영국 등 6개국과 중소기업 육성 전담부처 장관 공동명의로 OECD 사무총장에게 위원회 승격 건의 서한 제출에 동의하는 등 OECD 주요 회원국들과 중소기업 작업반의 위원회 승격을 주도하였다. 향후에도 선진국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신규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여 신규정책 마련 및 개선에 활용하고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홍보될 수 있도록 OECD 중소기업 작업반 회의 및 D+SME 이니셔티브 등 OECD의 중소기업 분야 발전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2) APEC 협력

APEC 중소기업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참가하여 APEC 회원국 간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의 우수정책을 전파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19.9월 칠레에서 개최된 제25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는 '중소기업 금융 및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하에, 디지털전환 지원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창업 정책을 발표하였다. '20.10월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26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정책'을 주제로,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디지털화 정책을 공유하였다.

한편, 중기부는 '16년부터 매년 APEC 기금 확보를 통해 APEC 역내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19.10월에는 서울에서 APEC 회원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정부 및 민간 관계자를 초청하여 APEC 역내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AI 빅데이터 포럼'을 개최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혁신 비즈니스 노하우를 소개하였다. '20.11월에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역량 강화 노하우 및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중소기업 사이버보안 포럼', 한국의 중소기업 스마트정책 및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기업간 교류를 지원하는 '스마트팩토리 포럼'을 개최하였다. APEC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정책을 홍보하는 매우 중요한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3) EU(유럽연합) 협력

'18년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EU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중기부 최초로 EU와 제1회 한-EU 중소기업 정책대화를 개최(2.14, 서울)하였다. 양측이 처음으로 개최하는 중소기업 정책대화인만큼, 상호간 정책과 관심사항을 교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주요 논의 주제는 양측 중소기업·스타트업 정책발표, 중소기업 해외진출, 스타트업 교류·협력, 향후 운영방향 등이었으며, 중소기업 정책대화는 2년마다 개최하고 '20년에는 브뤼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우리측은 한국-EU 중소기업이 EEN²¹⁾을 통해 기술협력을 포함, 비즈니스 매칭 등 많은 성과가 맺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EU측이 추진 중인 청년기업가 양성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 청년기업가 프로그램²²⁾ 등에 협력의사를 교환하였다. 한편, EU측은 양측간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정기적인 정책대화뿐만 아니라, OECD, APEC 등을 통해서도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년 '제2차 한-EU 중소기업 정책대화'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온라인 개최되었다. 양측은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관련 사례를 공유하면서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하였고 EU 본부 및 주한 EU대표부와 지속적인 실무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기부는 '21년에도 정책대화를 기반으로 EU와 정책교류 및 협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1) EEN(Enterprise Europe Network) EU를 중심으로 67개국 630여개 기관이 참여하여 조직한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사업과 협력 네트워크. 현재 우리나라(KIAT)에서 관련협력 총괄을 포함 30개 비유럽국가가 가입

22) 에라스무스 청년기업가(Erasmus for Young Entrepreneur) 프로그램 EU내에서 추진되는 기업가간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현재 재단에는 싱가포르·미국·이스라엘의 운영

4) ASEC 친환경 협력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M SMEs Eco Innovation Center : ASEC²³⁾) 운영을 통해 ASEM 회원국 중소기업의 친환경 혁신과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Goal; SDGs) 달성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ASEC(한국), 한스자이멜재단(독일), 스톡홀름환경연구소(스웨덴), 아시아-유럽 재단(싱가포르), 글로벌환경전략연구소(일본)의 아시아-유럽의 5개 기관이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친환경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콘퍼런스, 정책 워크숍, 연구보고서 발간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아시아-유럽 환경 포럼(Asia-Europe Environment Forum : 이하 ENV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있다. '20년 콘퍼런스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환경조성'을 주제로 46개국 443명 참석했다.

'20년 12월에는 중소기업의 그린·디지털 트윈 전환(Twin Transition)'이라는 주제로 '2020 ASEC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였다. 글로벌 포럼에는 유럽집행위원회(EC), 덴마크, 룩셈부르크, 인도네시아 등 정부관계자와 국내외 기업과 기관 대표가 참여하여 아시아와 유럽의 그린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책과 추진 사례를 공유하였다.

ASEC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와 공동으로 그린비즈니스센터(GBC)도 운영하고 있다. '20년 12월 아세안 5개국에서 스타트업 약 200개사가 참가한 '제1회 한-아세안 SDGs 비즈니스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였다.

ASEC은 '20년 UNFCCC²⁴⁾의 관리조정기관으로서 '베트남 바이오메스 전환을 통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프로그램 CDM²⁵⁾으로 등록하고 한국 중소기업

23) 제3차 아셈정상회담(2010.10. 별가제 공식선언에 따라 2011년에 설립된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C)는 ASEM 회원국 중소기업의 친환경 기술협력을 위해 개도국 대상 건설된 친환경 혁신기술, 글로벌 포럼 개최, 전문가 회의 운영, 자수(ASEI) 개발, 인도네시아 GBC 운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4)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기본 협약. 온실 기체에 의해 벌어지는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

25)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청정개발체제.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 제12조 규정에 따라 지구온난화 현상 완화를 위해 선진국과 개도도상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제도

업들이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분야 창업 역량 개발과 환기업가 정신 확산을 위해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아세안 3국에서 에코톤도 개최하였다. '20년에 최종 수상한 10개 스타트업은 중기부에서 주관한 'COMELUP2020'에 참가하여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자와 교류 기회를 제공받았다.

다. 기업인 출입국 지원

코로나19 발생이후 국가간 출입국통제로 대외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는 관세부처 협동 대책회의에 참여하여 기업인 출입국 관련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는 우리 중소기업인의 해외출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인 전용기 운항을 건의하여 '20년 중국, 베트남발 중소기업인 전용기를 시작으로 주요 국가에 중소기업인 전용기가 운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지역확산방지를 위해 국내외 출입국자는 2주간 의무격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중기부는 중요사업상 목적으로 입국하는 국내외 기업인에 대해 2주간 격리를 면제하는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 운영하고 있으며, '20.4-'21.6월까지, 11,468업체 기업인 19,316명의 격리면제를 지원하였다. 또한, '20.8월 코로나19 상황에도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 활동의 중단 없는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는 산업부와 함께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기업인 격리면제 지원, 기업인 전용기 운항, 각종 기업예로 상담 등을 수행하였으며, 중기부는 '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앞으로 중기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어 기업인들이 자유로운 해외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

우리나라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참가 현황

회의명	장소	주요내용	참가자
1차('94.10)	일본 오사카	• 중소기업의 5대 배로분야	신자부 장관
2차('95.9)	호주 Adelaide	• 금융시장의 효율성 연구 등	신자부 차관
3차('96.9)	필리핀 Cebu	• 중소기업의 세계화 여건 조성 등	이우영 차관
4차('97.9)	캐나다 오타와	• APEC 중소기업 활동물 위한 기본틀 마련 등	정해주 차관
5차('98.9)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말연 주도 중소기업 발전계획 채택	추준석 차관
6차('99.4)	뉴질랜드 Christchurch	• 역내 경제위기의 극복방안 등	추준석 차관
7차('00.8)	브루나이	• 인적자원, 금융, 전략적 제휴 등에 관한 회원국 경험 공유 등	신동오 차관
8차('01.8)	중국 상해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등 논의	최동규 차관
9차('02.8)	멕시코 아카푸лько	• 협력수혜의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과 개발	이석영 차관
10차('03.8)	태국 치앙마이	• APEC 역내 기업가 사회의 강화 주제로 기업가 정신 등 논의	유창무 차관
11차('04.10)	칠레 산티아고	•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바람직한 정부정책 논의	김성진 차관
12차('05.9)	대한민국 대구	• 중소기업 혁신촉진을 주제로 인적자원 개발 등 논의	김성진 차관
13차('06.9)	베트남 하노이	• 무역과 투자를 위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우수사례 공유	이현재 차관
14차('07.9)	호주 호바트	• 혁신형 중소기업 정책	이현재 차관
15차('08.9)	페루 FLAK	•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주제 우수사례	홍석우 차관
16차('09.10)	싱가포르	• 중소기업 글로벌시장 접근 및 무역 장벽 제거 지원 주제 우수사례	홍석우 차관
17차('10.10)	일본 기후현	• 중소기업 차세대 성장동력, 녹색기술	김동신 차관
18차('11.11)	미국 샌타나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김동신 차관
19차('12.9)	러시아 성트페테르부르크	•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그린이니셔티브 결과 보고	송중호 차관
20차('13.9)	인니 발리	• 선순환 벤치 창업 생태계 조성	한정화 차관
21차('14.9)	중국 난징	•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촉진	한정화 차관
22차('15.9)	필리핀 일로일로	• 기술창업활성화를 통한 역동적 기업생태계 구축	한정화 차관
23차('16.9)	페루 리마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혁신	주영실 차관
24차('17.9)	베트남 호치민	• 디지털 시대의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및 혁신 강화	이성훈 국장
25차('19.9)	칠레 콘셉시온	• 중소기업 금융 및 디지털 전환	주철래 한국대사 대참
26차('20.10)	온라인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정책	박영선 차관

* '18년도에는 주최국인 파푸아뉴기니의 사정으로 중소기업 장관회의 미개회

제4장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제1절 상생협력 촉진 및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1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추진배경 및 경과

* 상생협력정책과 박 순·홍

최근 경제의 화두는 AI, IoT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경쟁력을 강조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이다. 독일, 미국, 스위스 등을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춰 각 부처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각종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도태는 대·중소기업의 격차확대로 이어질 것인바, 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및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강화를 통한 상생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정부는 2005년 상생협력 정책을 시작으로 4차례의 기본계획을 거치면서 상생협력·동반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심화·발전시켜왔다. “제1차 동반성장 기본계획(08.1)”을 통해 협력형 기술개발 확대, 거래관행·결제조건 개선 등 하도급 제도 개선을 집중 추진하였다.

이후 민간합의체인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성과공유제 도입, 기술보호장치 마련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제2차 동반성장 기본계획(11.5)'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수행해 왔으며,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14.12)' 수립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협력파트너 관계 개선 등 한층 성숙된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제4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18.5)'을 수립하여 신뢰 구축, 소득 주도 성장, 열린혁신 선도 등 3대 전략과 납품단가 제값받기,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공정한 성과배분으로 소득격차 완화, 대기업의 혁신자원 개발 등 9대 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2017년 새로이 출범한 정부는 저성장,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성장 기반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상생협력생태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이 수직적·폐쇄적 생태계를 개방형 혁신 생태계로 전환과 혁신의 주체인 기업들이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였다.

더불어,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은 산업 전반에서 상생협력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상생협력은 핵심기술 자립화, 비대면 경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산업구조 재편과 기업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경제정책으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 상생협력정책과 권 상 민
- 상생협력정책과 남 현 재
- 상생협력정책과 장 민 수
- 상생협력정책과 강 해 준

가. 자살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발굴·확산

'자살한기업'은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의 줄임말로, 대기업 등이 보유한 인프라(기반),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의 강점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협력사·미거래기업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부터 '상생과 공존'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자살한 기업'을 발굴, 관련 협단체와 상호 연결하여 대기업의 상생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자발적인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2019년 3월 '자살한 기업' 1호 네이버를 시작으로 2020년 12월 이마트까지 총 25개의 자살한 기업을 발굴하여 관련 분야의 민간 협단체와 연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거래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새로운 분업적 협력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자살한 기업'은 보유한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일반적인 경영 활동 뿐만 아니라 온라인 진출,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살한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부족 상황에서 스마트공장 도입과 생산 노하우를 전수하여 생산량 향상을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장에 적합한 제품 개발과 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동참하는 등 자발적 상생협력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2년 간의 자살한기업 활동을 통해, 서로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상생협력의 디테일을 살렸다는 분석과 함께, 30년 초에 개최한 다보스 포럼에서도 자살한 기업이 세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포용적인 성장모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등 국내외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기존의 대·중견기업이 아닌 업계를 선도하는 혁신 스타트업도 자살한 기업으로 참여하여 자발적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등 상생이 상생을 낳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표 4-1-1 | (자살한 기업 협약체결 현황(2020.12월말 기준))

대상기업	주요단체	주요 내용
네이버 (19.05.13)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과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포스코 (19.05.21)	한국벤처캐피탈협회	1초원 건학 벤처펀드 조성을 통한 벤처·스타트업 투자지원
신한금융그룹 (19.08.24)	벤처기업협회	벤처투자 확대를 통한 신산업 육성
KB국민은행 (19.08.01)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업 자영업 전용상품출시 등 외식업자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
우리은행 (19.08.23)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전용 상품출시 등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소프트뱅크벤처스 (19.09.26)	한국벤처투자	A분야 창업 촉진 및 스페셜업 투자 활성화
삼성전자 (19.10.11)	중소기업중앙회	소재부품장비 등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하나은행 (19.11.14)	이노비즈협회, 연세대	소재부품장비 기업 수요기술 지원체계 구축 및 이노비즈기업 지원
청도시설공단 (19.11.21)	한국여성벤처협회	여성벤처기업 등 일·가정 양립 및 창업촉진
현대기아자동차 (19.12.16)	한국자동차 산업협동조합	내연기관에서 미래자동차로 자동차 부품전문산업 지원
한국항공우주산업 (20.02.03)	한국항공우주산업 친종협회	항공산업의 첨단기술력 확보를 위한 항공부품 중소기업 육성
Am (20.04.22)	벤처기업협회, 서울대	시스벤처벤처 스타트업·벤처기업 혁신성장
스타벅스 (20.05.07)	청년창업네트워크 액셀러레이터협회	청년 스타트업 창업 촉진
SKC (20.05.13)	코리아 스타트업포럼	공정 기술거래와 계약형 혁신을 통한 상생 생태계 구축
LG상사 (20.07.22)	무역협회	현지 네트워크 연결로 중소벤처스타트업과 해외진출 촉진
기업은행 (20.08.05)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우수인력 확보 및 청년실업 해소

KT (20.09.22)	이노비즈협회	5G 중심의 비대면 분야 활성화
SGI서울보증 (20.09.29)	해인비즈협회	디지털뉴딜 경제활성화 및 혁신성장 지원
프레시지 (20.10.20)	전국백년가계협회	백년가계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
한국수자원공사 (20.11.04)	벤처캐피탈협회, 역설극제이티협회	그린 뉴딜을 선도할 유망한 기업 육성
비자·소피파이 (20.11.11)	한국은교인사망협회	국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지원
한국도주주택공사 (20.11.24)	중소기업총연합회	건설건축분야 혁신조달참여 및 소상공인 채기 지원
CJ E&M (20.12.01)	대중소기업 놀이협회재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
합리 (20.12.09)	전국상인연합회, AC협회	지역기반 및 브랜드K 제품의 비대면·온라인 판로 확대
이마트 (20.12.16)	전국백년가계 협회	소상공인의 판로지원 및 혁신역량 강화

나. 성과공유제 및 협력이익공유제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위탁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목표를 미리 합의하고 공동의 노력으로 나타난 협력활동의 성과를 사전에 계약한 방법으로 상호 공유하는 경영혁신 모델로, 1999년 일본의 도요타(Toyota) 자동차가 고안한 이래로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7월에 민간기업인 포스코(POSCO)가 중소 협력사와 상생과 상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과공유제와 유사한 BSB(Benefit Sharing)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후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1년 5월 '제2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고시를 제정(12.4)하여 '성과공유 확인제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성과공유제 도입·확산을 위해 2·3차 협력사까지 참여하는 다자간 성과공유제를 도입(15)하고, 2018년도에는 지방공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성과공유제 등록기업(누적)은 2012년 77개로 시작하여 2020년 499개로 확대되었으며, 확인과제(누적)는 2012년 997개에서 2020년 9,305개로 증가하였고, 참여 수탁기업(누적)은 2012년 566개에서 2020년 10,538개로 확대되었다.

'186월 운영요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실질적 수익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성과공유 인정 유형을 현금배분, 물량배출·확대 등 현금성 공유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였다.

표 II-4-1-2 | 성과공유제 시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인센티브	내 용
평가우대	• 성과공유 도입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동반성장 평가시 우대
세제혜택	• 참여기업이 성과공유제 시행 목적으로 성과공유 재원을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를 법인세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수익계약	•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이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그 성과를 확인받은 경우 수익계약 체결 가능
포상	• 성과공유제 시험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정부포상
우선구매	• 성과공유 과제 확인을 받은 개발물 등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으로 선정(공공부문)
정부 R&D 관련 우대	• 산업부 R&D 과제 선정평가에 우대 배점

협력사의 혁신성고가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18.11월에 발표하였다. 기존의 성과공유제가 수용할 수 없는 협력 유형으로서 제도 도입여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수행한다.

협력이익공유제는 '18년 11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등록기업(누적)은 2018년 5개사로 시작하여 2019년 56개사, 2020년 106개사로 확대되었으며, 등록과제(누적)는 2018년 6개에서 2019년 561개, 2020년 1,992개로 증가하였고, 참여 협력기업(누적)은 2018년 6개사에서 2019년 506개사, 2020년 1,685개사로 확대되었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 성과공유확산추진본부를 협력성과확산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하였다.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정부는 민간중심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정착·확산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를 2010년에 신설하였다. 2011년부터 2020년 말 누적 기준 279기업으로부터 1조 4,646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157,2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조 2,777억 원 지원되었다.

표 Ⅱ-4-1-3 | 상생협력기금 조성현황

(단위: 억원, 개)

구분	협약				출연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등	합계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등	합계
금액	11,655	2,539	2,284	16,478	10,655	2,489	1,502	14,646
기업	134	58	93	285	133	58	88	279

* 2020년도 12월말 기준

2017년부터는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상향(제8조의3),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100조의32) 등 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어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 지원이 보다 강화되었다. 또한 기금 사용목적(연구개발, 인력개발, 생산성향상, 해외시장 진출,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약)을 폐지하고 전면 개발(제8조의3)하여 대기업 등은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기금을 활용한 기업의 자율적 상생협력 활동을 제도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2017년 11월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협력재단에 기금 관리·운영 업무를 추가하고, 기금 출연 등에 관한 법적 근거(제20조의5)를 마련하였다. 2018년에는 동법 시행령을 개정(제13조의4)하여 생산성 향상, 기술보호, 창업지원, 국내외 판로 등의 사업에도 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용도를 대폭 확대하였다.

라. 상생결제제도

거래 관계에 있어 2차 이하 거래기업이 납품대금 지급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 받고, 자금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 결제환경 개선을 목표로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발표(14.11.17)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20년까지 총 운용액은 527조 7,237억 원, 구매기업은 434개(민간기업 341개, 공공기관 93개), 거래기업은 139,522개(1개 거래기업이 여러 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는 1개로 산정)가 상생결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총 11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상생결제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전자조달이용자들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하도급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전자조달시스템등이 갖춰야할 기능을 모두 충족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명회 등 현장홍보, 홍보자료 발송, 리플릿 배포 등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표 II-4-1-4 | 상생결제제도 운용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총 운용액(억원)	245,931	666,643	925,991	1,074,324	1,155,713	1,198,635	5,277,237
구매기업-1차액(원)	242,716	656,026	925,797	1,061,231	1,136,769	1,177,051	5,203,611
1차 이하액(원)	3,215	6,617	10,193	13,092	18,944	21,583	73,625

표 II-4-1-5 | 상생결제제도 기업 규모별 실적현황

(단위 : 억원)

구분	민간기업				공공기관	합계	
	간접투자 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계			
도입기업수(개)	138	163	39	341	93	434	
결제액	구매기업-1차사	4,467,591	588,169	15,451	5,101,212	102,369	5,203,611
	1차 이하	65,309	5,347	157	70,814	2,810	73,625
	합계	4,562,900	593,517	15,608	5,172,026	105,210	5,277,237

마.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

상생협력은 민간의 자율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민간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추진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여 동반성장지수를 산정·공표하고 있다. 동반성장지수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촉진을 위하여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한다. 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정량)'와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대기업 협리사를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체감도조사(정성)' + '대기업별 실적 평가(정량)')로 구성되어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평가 결과 공표를 통해 우수기업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가를 받는 기업은 2011년 56개사에서 2017년 185개사 2018년 195개사 2019년 214개사 2020년 210개사 2021년에는 217개사로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2013년부터는 중견기업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하여 2·3차 협력 중소기업으로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2013년에 중견기업 20개사를 평가대상으로 포함하였고, 2021년 기준 105개로 전체 평가기업(217개사) 중 약 50%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매년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16년도부터 “미흡”등급을 신설하여 지수 평가의 위치 및 신뢰를 훼손한 경우에 한해 부여하고 있다. 최우수 및 우수기업에게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그림 13 | 동반성장지수 기본 구조

구분	공정거래법 이행평가 (공정위)	동반성장 종합평가 (동반위)
대상	대기업	1·2차 협력 중소기업 대기업
방식	대기업별 제출실적 평가(정량)	중소기업 설문조사(정성) 대기업별 실적평가(정량)
주요 평가항목	<p>① 거래의 공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 사전계약내용의 충실성·공정성 · 계약 이행도와의 공존성·정당성 	<p>중소기업 설문조사(정성)</p> <p>① 거래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 거래조건에 공평, 적당성
	<p>② 법외반 이행 및 법준수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외반 시정요청 시스템 구축 · 법외반 시후감시 시스템 구축 	<p>② 협력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 연동개발, 생산, 판매, 경영까지 인력개발, 분야의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p>③ 상생협력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자금지원 · 기술지원 및 보호 · 인력·재용 지원 · 효율성 증대 정도 · 1·2차 협력시간 상생협력 지원 · 협력사 대상 매입액 확대도움 ·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p>③ 동반성장 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의 인식 및 비전공유, 추진체계 원조지원 등
	<p>④ (가점) CP협약결과, CCM 인증, 차원의 비협약사 내근 자문기간 개선, 경영 직·간접 지원 등</p> <p>(감점) 법외반에 따른 시정 조치,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양측면의 법외반행위</p>	<p>대기업별 실적평가(정량)</p> <p>④ 상생협력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성과의 배분 · 인력개발 및 교류지원 · 상생협력금 활용지원 · 국내외 관리지원, 투명한 결제시스템 운영
		<p>⑤ (감점) 착한업종 불이행, 동반성장제 반하는 법외반 행위 등</p>

표 II-4-1-6 |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 결과

등급	기업 명칭(다순)
최우수 (35개사)	기아자동차, 네이버, 농심, 대원산업, 대상, 디페이스업,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건설부문), 삼성전자, 삼성SDS, 세메스, 유한킴벌리, 제일기획, 포스코, 풀무원식품,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 현대트랜시스, CJ제일제당, GS리테일(GS25),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 LG CNS, SK건설, SK종합화학, SK주식회사, SK텔레콤, SK하이닉스
우수 (62개사)	계룡건설산업, 대덕전자, 동부건설, 동원F&B, 두산,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롯데건설, 롯데백화점, 롯데제과, 롯데지압에스, 롯데케미칼, 롯데하이마트, 르노삼성자동차, 만도, 삼성물산(패션부문),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삼성SDI, 신세계건설, 신세계백화점, 신세계인더내셔널, 아모레퍼시픽, 엔에스쇼핑, 오뚜기, 우리홈쇼핑, 유라코퍼레이션, 이노션, 이랜드월드, 이마트, 코웨이, 파이크크라삼, 포스코건설, 포스코아이씨티, 포스코케미칼, 한국인삼공사, 한국항공우주산업, 한샘, 한양, 한화, 한화건설, 현대로템, 현대미포조선, 현대백화점,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오트모터, 현대위아, 현대제철, 현대홈쇼핑, 호반건설, 호명산과, 화신, 효성중공업, CJ오쇼핑, CJ올리브네트, GS홈쇼핑, KCC, LG하우시스, LS일렉트릭, SK실트론, SPC살림
양호 (67개사)	가온전선, 김산, 고려아연, 금호석유화학, 남양유업, 대원건설, 대우건설, 대원강업, 대한항공(항공우주), 태성트코리아, 동국제강, 두산건설, 롯데연세정, 롯데알미늄, 롯데푸드, 민도헬라일렉트로닉스, 매일유업, 빙그레, 삼성중공업, 삼양사, 서면이바, 성우하이텍, 세방전자, 세아베스틸, 신세계디에프, 쌍용자동차, 에스에프에이,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오리온, 이니스프리, 이랜드리테일, 일진전기, 차에스건설, 카카오, 코닝합합소재, 코리아세븐, 코스트코코리아,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인더스트리, 태영건설, 평화정공, 풍산, 허림, 하이트진로, 한국미니스톱, 한국쓰라엠, 한국아쿠르트, 한국지연, 한국프린자공업, 한라, 한성, 한솔테크닉스, 한화케미칼, 해태제과식품, 현대리버트, 홈플러스, 휴맥스, 화성전자, CJ푸드빌, DB하이텍, HSD연진, KCC건설, LF, LS엠트론, LS오트모터브테크놀로지스, LS전선, OC
보통 (29개사)	금호산업, 농협유유휴(양호→보통), 다스, 엘소코리아, 도레이첨단소재, 동우화인켈, 롯데정보통신, 롯데마트, 롯데슈퍼(양호→보통), 봉우그룹코리아, 부영주택, 서울반도체, 신광, 아성다이소, 오비맥주, 오덕캐리어, 인터플렉스, 코리아씨커트, 태광산업, 태평양물산, 파트론, 한국바스프, 한솔셀유, 한은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 화승일엔에이, BGF리테일, S&T모티브
미흡 (7개사)	서원유동, 심택,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에코플라스틱, 영풍전자, 에스트라오트모티브시스템, 타타대우상용차

*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 결과, 동반성장위원회

그림 14 | 동반성장지수 인센티브

주무부처	인센티브 내용
기획재정부	•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신형) PQ 가점 부여
법무부	•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국세청	• 최우수등급 기업은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공정거래위원회	• 최우수등급 기업은 직권조사 2년간 면제 우수등급 기업은 직권조사 1년간 면제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 R&D 사업참여시 우수등급 이상 기업 우대
중소벤처기업부	• 최우수등급 기업은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1년간 연속 면제 가능
동반성장위원회	• 최우수 기업의 담당 임직원 중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공로가 큰 자를 선정하여 위원장 포상 수여

바.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은 민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도 28개 기관 평가를 시작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열거된 평가대상을 총 2차례에 걸쳐 개정, 평가대상을 135개 기관으로 확대하였다. 2018년 신규로 편입된 7개 기관은 평가 적용도 제고를 위해 시범평가(평가결과 대외 미공표)로 시행되었다.

2020년에는 기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공공기관이 동반성장 노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추진해야 하는 구체적인 계량형 평가지표(9개)를 제시하고 중소 협력기업 대상 체감도 조사결과를 합산하여 5개 등급으로 발표하였다. 2020년 58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평가 결과는 대외 공표하였고,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비계량 지표로서 동반성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표 II-4-1-7 | 2020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결과

등급	기관명	
	공기업	공정부거래법
최우수 (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우수 (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전KDN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항공공단
양호 (2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미사회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조폐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철도공단 공무원연공공단 국민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보통 (1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KPS(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석유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개선 (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석탄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주택관리공단(주) 고려일우동회

3

기업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

- 거래환경개선과 이 동 원
- 거래환경개선과 이 동 국
- 거래환경개선과 박 회 장
- 거래환경개선과 최 영 선

가.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매년 실시하는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고 벌점을 부과한다. 그리고 벌점이 누적되어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등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제한을 요청하고 벌점에 따라 교육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중기부는 위탁기업의 법령 위반 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²⁶⁾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9년 실태조사의 경우 총 조사대상 12,000개사 가운데 906개사가 법을 위반하였으나, 자진 개선한 기업을 제외하고 최종 15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 및 벌점을 부과하였다.

표 4-1-8 | 수·위탁거래 실태조사결과 법령위반기업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조사업체(개)	6,000	6,000	6,500	12,000	12,000
위반업체(개)	596	479	598	657	596
납품대금 분야	593	478	576	646	587
준수사항 분야	4(1)	2(1)	24(2)	12(1)	9
개선요구	19	68	28	13	15

* ()는 납품대금 분야 및 준수사항 분야 중력 위반업체

* 자료 : 중소기업부,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2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표준약칭서 사용과 현금성 결제 100% 등을 실천한 기업은 수·위탁거래 우수 기업으로 선정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수·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 신용 평가기관(신·기보) 우대보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019~2020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전년도 수·위탁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 대상은 3개사가 선정되었다.

나. 납품대금 결제 현황 및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기업 간 거래에서 수·위탁 관계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위탁기업의 정상적인 대금 결제 여부는 자금력이 미약한 수탁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관련한 애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9년 납품기업에 대한 대금결제 비율을 보면, 현금성 결제비율은 87.6%로 어음 결제에 비해 75.2%p 높았다.

표 4-1-9 | 위탁기업의 납품기업에 대한 대금결제 비율

(단위: %)

연 도	현금성 결제			이 른
	현 금	어음대체결제	소 계	
2011년		79.2		20.8
2012년		73.1		26.9
2013년		77.0		23.0
2014년		75.9		24.1
2015년		76.4		23.6
2016년	74.3	4.7	79.0	21.0
2017년	75.8	5.5	81.3	18.7
2018년	78.6	5.8	84.4	15.6
2019년	84.2	3.3	87.6	12.4

* 어음대체결제: 기업구매잔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제도 등

*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실태조사(2012~2020)

2019년 어음 납품대금 평균 60일 이내 결제비율은 3.8%로 전년대비 3.7%p 감소 하였으며, 어음분야는 여전히 결제기일이 60일을 초과하여 결제되고 있다.

표 4-1-10 연도별 어음 납품대금 평균 결제기일

연 도	50일 이하	60일 초과			
		초 결	80-90	90-110	120일 이상
2011년	5.9	94.1	21.5	58.5	14.1
2012년	11.1	88.9	26.1	49.9	12.9
2013년	16.4	83.6	24.9	44.1	14.8
2014년	10.9	89.1	42.1	37.1	9.9
2015년	12.9	87.1	40.1	38.1	8.9
2016년	7.9	92.2	38.6	50.0	3.6
2017년	6.0	94.1	58.3	31.0	4.8
2018년	7.6	92.5	51.4	36.2	4.9
2019년	3.8	96.2	57.8	35.3	3.1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실태조사(2012~2020)

2019년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도입되었다.

납품대금조정제도 활용 실태조사 결과,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2019년 51.3%였고, 2020년에는 4.6%p 증가한 55.9%로 나타났다. 2020년도 조사 대상 위탁기업 중 228개사가 위탁기업에 원가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였고, 그 중 합의에 도달한 경우가 95.6%로 2019년 85.7%에 비해 약 10.9%p 증가하였다. 향후 제도활용 의사는 63.8%가 긍정적으로 답하여 2019년 대비 4.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탁기업 등은 납품대금의 조정 신청 이후에도 위탁기업이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을 감안하여 2021년 4월 21일 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을 상대로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수·위탁 분쟁조정

수탁·위탁기업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소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의 사전 조정을 위해 중소기업부는 2005년부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수·위탁기업 간 자율적인 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수·위탁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불공정 수·위탁거래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 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13조

표 4-1-11 |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현황(2005~2020)

구분	전수 건수	분쟁유형					조정결과			
		대금불 이차금	납부 기피, 중단 감액, 미회	대금 감액, 미회	수령 거부	기타	성립	불성립 -	중단	비대상
2005년	15	12	-	-	-	3	6	6	-	3
2006년	26	22	1	-	2	1	10	15	-	1
2007년	39	30	3	1	-	5	18	21	-	-
2008년	42	30	3	1	-	8	20	19	-	3
2009년	45	36	2	5	-	2	19	24	-	2
2010년	65	50	2	7	-	6	28	33	-	4
2011년	35	32	1	-	1	1	17	18	-	-
2012년	62	40	5	1	-	6	15	34	-	3
2013년	45	30	5	-	-	10	18	23	-	4
2014년	20	12	6	-	-	2	13		7	-
2015년	22	15	5	2	-	-	12	1	9	-
2016년	33	11	5	4	4	9	10	3	20	-
2017년	31	21	1	1	3	6	12	-	19	-
2018년	34	28	3	1	1	1	10	3	21	-
2019년	38	30	3	3	-	2	8	2	28	-
2020년	47	34	4	3	-	6	18	3	23	-
합계	589	433	49	29	11	67	234	206	127	20

* '05~'19년 불성립: 중단 포함

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대기업 등의 갑질 근절을 위해 지역·업종별로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설치 확대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다.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채널을 다양화하고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3.11.29일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14개소에 설치하였던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중소 사업사단체 중심으로 2017년 29개소, 2019년 69개소, 2020년 중 70개소로 확대 설치하였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서는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상담하고 합리적인 해결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법률자문이나 분쟁 조정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 이후 2013년 58건, 2014년 513건, 2015년 593건, 2016년 627건, 2017년 779건, 2018년 1,338건, 2019년 1,148건, 2020년 1,371건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수·위탁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2019년 도입되어 중소기업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납품대금조정협의 대상 여부, 조정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하고 있다.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가 있을 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실조사 후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상행법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 의무고발 요청제도

공정거래 분야는 1차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지만, 공정위의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형에 대해 중기부는 추가 검토를 통해 공정위에 의무고발 요청을 할 수 있다. 2014년 1월 17일부터 의무고발요청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甲의 위치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치질러온 대기업 등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비용이 낮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것으로, 도입 이후 고발비용이 도입이전에 비해 높아지는 등 소기의 성과(09~13, 8.2% → 14~19, 16.9%)를 거두고 있다.

2020년까지 38건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을 고발요청 하였으며,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요구, 납품대금 미지급, 서면발급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피해 수급 사업자, 피해금액, 적극적으로 자진시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하였다.

앞으로도 법 위반기업이 끼친 중소기업의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바. 상생조정위원회 운영

중소기업이 기업간 거래에서 불공정거래, 기술침해 등 불공정행위를 당하여 당사자간 합의나 조정·중재 없이 고소·고발 및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부처별로 각각 조정·조사·수사 등을 수행하고 있어 부처간 연계가 미흡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불공정행위 사건에 대해 조정·중재를 유도하고 부처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9년 6월부터 민관 공동으로 '상생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상생조정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거래공정화 관련 부처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업계 대표 단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 당면직 : 중기부 장관(위원장), 중기부 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특허청 차장, 각 분청조정위원회 위원장(8명)

위촉직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대한상의/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교수, 변호사 등(11명)



출범이후 현재(20년말 기준)까지 총 7회 회의를 개최(분기 1회)하여, 기술 침해·불공정거래의 조사·조정·중재에 대한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납품 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보호 자원계획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하였다.

또한, 제2차 회의(19.9월)에서 검찰 고소·고발 사건을 증기부 조정절차로 연계하기로 결정한후 총 10건이 연계되어 2건이 조정성립으로 해결됐다. 증기부와 검찰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양 기관간 연계 조정사건을 확대하고 처리기한도 단축하기로 했다.

4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 상생협력지원과 정 현 호
- 상생협력지원과 허 일 복
- 상생협력지원과 김 성 진

가. 사업조정 제도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인하여 해당지역,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업 등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최대 6년)하거나 시설·품목·수량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이다.

1961년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근거하여 도입하였고, 2006년부터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사업조정의 신청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9년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이 확산되자 중소기업인들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사업조정제도를 본격화하였다.

2020년 말까지 총 1,021건이 접수되어 1007건(98.6%)이 처리되었고, 14건이 진행 중에 있다. 종료건 중 대부분이 자율조정으로 완료(786건, 77%)되었고, 정부가 강제 조정 권고한 건은 23건(2.3%)이다. 업종별 신청은 SSM이 740건(72.5%)으로 가장 많고, 대형마트가 117건(11.5%)이며, 생활용품판매, 레미콘·아스콘 제조업 등 기타 업종이 164건(16%)이다.

2009년 사업조정제도 도입 이후 연도별 신청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대기업의 신임태 출현에 따라 신청업종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표 4-1-12 | 사업조정 처리 현황(09.1~20.12)

(2020년 12월 기준)

구분	신청	조정 유형			반려	신청
		자율조정	조정대상	조정		
대형마트	117	91	3	94	21	2
SSM	740	570	14	584	149	7
기타	164	125	6	131	28	5
합계	1,021	786	23	809	196	14

표 Ⅱ-4-1-13 연도별 사업조정 처리현황(신청일 기준)

(2020년 12월 기준)

구분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신청	145	146	127	137	79	94	68	47	69	59	33	15
○ 조정완료	117	125	103	93	63	75	57	38	63	50	18	7
자율조정	108	125	103	93	63	72	58	37	58	48	16	7
조정연고	9	-	-	-	-	3	1	1	5	2	2	23
○ 반려	28	21	24	44	16	19	11	9	6	5	9	6
○ 진행	-	-	-	-	-	-	-	-	-	4	6	2

* 해당연도 신청 건에 대한 처리결과

정부의 강제적인 권고보다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당사자 간에 상생방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나. 적합업종

2011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해 동반성장 위원회의 합의 도출을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권고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 까지 총 110개 업종·품목이 권고되었다. 그러나 민간(동반성장위원회) 자율 합의 기반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는 대기업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어 정부가 업종·품목을 지정·운영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소상공인 업계를 중심으로 지속되어 왔다.

이에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적합업종 법제화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소상공인 사업영역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고, 국회에서 2018년 6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령을 제정하였고, 2018년 12월 15일자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되었다. 또한, 2019년 1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 기준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을 제정·고시하였다.

특별법 시행 이후 26개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해당 업종·품목에 관한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거쳐 「저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LPG가스 연료 소매업」, 「간장 제조업」, 「된장 제조업」, 「고추장 제조업」, 「청국장 제조업」,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면류(국수)」, 「면류(냉면)」 등 10개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되었다. 신청 업종·품목 중 일부는 대기업과 소상공인 단체와의 자율적인 상생협약이 체결되어 소상공인 보호 및 상생협력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영역 조정 제도를 통해 보호하는 동시에 그 기간 동안 자생력을 확보하여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업종별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는 영세한 업종·품목의 중·소상공인이 공장·경영 개선, 원가·비용절감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25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제2절 협업을 통한 혁신역량 발전

1 중소기업간 협력 유도

- 지역혁신정책과 정 영 훈
- 기술정책과 서 유 신

가. 기업간 교류·협력 활성화

1994년 12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 이업종교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1995년 8월 중소기업진흥공단 내 교류지원부를 설치하여 이업종교류 지원업무를 확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업종 단위교류회 신규 결성 및 참여기업 확대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CEO포럼 등의 사업을 보조하고 매년 단위교류회 및 참여기업의 교류협력 사례를 발굴하여 전시하는 중소기업융합대전 개최를 지원하여 중소기업간 교류·협력 문화조성 및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15 | 중앙회의 구성 및 현황(2020년)

(단위 : 개)

구 분	중앙회	지부	
도 시	서울	21	351
	부산	19	337
	대구경북	32	1,298
	인천부천김포	33	734
	광주전남	19	409
	대전세종충남	27	451
	울산	14	297
	경기	37	619
	강원	15	384
	충북	16	290
	전북	13	263
	경남	16	389
	제주	9	206
	회 외	이주	
아시아			13
유럽			17
합계		39	
합계	271	6,451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 합 회	13	13	13	13	13	13	16
동 합 회	332	315	315	301	269	267	271
회 원 사	7,141	6,546	6,546	6,078	6,058	6,199	6,451

중소기업융합대전은 2004년부터 이업종교류의 소속 기업의 단합과 교류성과 공유를 위해 전국을 순회 개최하였던 중소기업 한마음대회를 2014년 정부의 융합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정책방향에 부합도록 중소기업융합대전으로 격상시켜 매년 기업 간 교류와 협력활동의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발굴하여 정부포상 수여를 통해 기업 간 교류와 협력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등으로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진행하였다.

표 II-4-2-1 | 중소기업 한마음대회 현황

(단위 : 명)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개회기간	8.21	5.22-23	9.4-5	5.21-22	4.22-23	4.14-15	5.12-13	4.28-29	5.15-16	6.10-11
개회지역	대전 충남	제주	강원	광주 전남	전북	충북	제주	대구 경북	울산	강원
참가규모	290	400	550	550	1,100	1,200	1,400	1,560	1,558	1,800

표 II-4-2-2 | 중소기업 융합대전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개회기간	9.26-27	10.28	10.19	10.23	10.30	10.16-17	12.7
개회지역	천안	대전	서울	익산	대전	안동	대전
참가규모	1,500	1,000	1,000	1,000	800	2,000	80 미만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개회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환영사



정부포상 수여



비전 선포



코로나19 극복 동행 캠페인



성과전시

2019년부터는 중소기업간 교류활동을 기반으로 한 성과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간 생산적 교류활동을 통한 협업과제 아이디어 발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협업 과제에 대해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네트워크형 R&D 이후 사업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애로사항 해결 지원 등 기업지원중심의 사업을 통해 협업생태계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표 II-4-2-3 | 기업지원 사업내용 및 '19년 실적

사업명	주요내용	연도별 지원실적
협업과제 발굴을 위한 소그룹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교류활동을 지원하여 기술융합 관련 아이디어 및 과제 발굴 ○ (내용) 워크숍·세미나 등 정보교류 활동과 시장전문가·구축 지원 	19개 협업체
협업비즈니스 모델(BM) 개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비즈니스모델 및 협업사업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여 공동사업화 성공률 제고 ○ (내용) 협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기업대상 사업모델링, 기술·시장 분석, 사업성 검토, 협업계획서 작성 등을 지원 	16개 협업체
R&D완료과제 사업화 후속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중기부 협력R&D 완료 과제에 사업화 과정을 후속 지원하여, 실질적 R&D 성과 창출에 기여 ○ (내용) 네트워크형 R&D 이후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애로사항(3가지 이내 애로사항 권고)해결을 위한 직접(활동)비 지원 	5개 협업체

나. 기술혁신센터 지원

실리콘 밸리는 혁신 창업가, 대학, 연구소 등이 잘 어우러져 전세계 혁신창업을 주도하는 창업의 메카이다. 판교테크노밸리는 IT, BI, CT, NT 및 첨단 융합 기술관련 국가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경기도가 주도하여 첨단 기술단지를 조성하여 관련분야 중소기업이 대거 밀집해 있는 곳이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2017년 1월 판교에 대학·연구기관 전문인력을 집적시킨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산업생태계 중심 R&D 및 인적교류 기반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기업 간 또는 대학·연구기관 등과 교류 및 공동 R&D 기획·수행 등을 위해 개방형 사무공간 제공, 기술전문교육, 기술교류회, 기술커뮤니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 기술상담 및 특허·법률 상담도 상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협력 R&D 연계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표 II-4-2-4 | 협력 R&D 연계지원 실적

(단위: 개)

연도	기획 소재	비즈니스 의류	에너지 자원	전기 전자	정보 통신	회박	자산 서비스	합계
2017	6	5	2	2	1	4	-	20
2018	3	11	3	3	2	2	1	25
2019	6	3	2	3	-	4	-	18
2020	8	3	4	9	5	1	1	31

2020년 총 770건의 기술상담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애로를 해소하였으며, 기타 교류 프로그램은 총 35회, 785명이 참석하였다. 지속적인 협력기관 모집을 통해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표 II-4-2-5 | 교류 프로그램 운영실적

(단위: 회, 명)

연도	교육(포럼)		세미나/커뮤니티		마켓		네트워킹		합계	
	회수	참석인원	회수	참석인원	회수	참석인원	회수	참석인원	회수	참석인원
2017	8	292	23	927	8	500	8	145	45	1,914
2018	14	363	8	414	3	120	4	593	29	1,490
2019	21	670	27	627	3	166	10	1,517	61	2,980
2020	11	147	14	261	5	126	5	261	35	785

2

포용적 동반성장 확대

- 정책총괄과 송 상 호
-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이 철 현

가. 여성기업 육성 정책

1) 여성기업 일반현황 및 정책개요

우리나라의 여성기업 수는 '18년 기준 약 2,656천개로 전체 기업의 40.0%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 분포는 도·소매업이 27.5%, 숙박·음식업이 18.3%로 주로 경쟁 포화 업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조업은 4.7%에 불과하다.

표 II-4-2-6 | 여성기업 현황

(단위 : 천개사, %)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전체기업	5,894	6,085	6,301	6,644
여성기업	2,288	2,379	2,484	2,656
비 율	38.8	39.1	39.4	40.0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표 II-4-2-7 | 여성기업 주요 업종별 현황(2018년)

(단위 : 천개사)

연 도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제조서비스업	공유서비스업	제조업
전체기업	794(12.0)	1656(24.9)	348(5.2)	203(3.1)	569(8.6)
여성기업	485(18.3)	730(27.5)	188(7.1)	125(4.7)	125(4.7)
비 율(%)	61.1	44.1	54.0	61.6	22.0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기준 중소기업기본통계」, (/ 내는 전체사업체 중 비중(%))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의 원활한 창업 지원과 여성기업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을 기하고자 1999년 「여성기업 자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정부는 다양한 여성기업 육성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체계적인 여성기업 지원정책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바뀔하는 내용으로 여성기업법을 개정 시행됨에 따라(20.8)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 육성지원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여성기업에 대한 기초 통계자료(여성기업 실태조사: 2003년부터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일반통계)와 국내외 여성기업 관련 통계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통해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2) 여성기업 지원 정책

(1) 여성 창업·벤처 활성화 지원

여성창업 지원을 위해 전국 17개 지역에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등을 갖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창업보육공간(20년 기준 총 236개실)과 함께 입주기업 지원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성벤처창업 케어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여성인력들의 창업 전과정을 밀착 지원하였으며, 유망 여성 창업·벤처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24년까지 1200억원 규모의 여성전용 벤처펀드도 추가로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2) 여성기업 판로 촉진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를 통한 여성기업의 국내 판로 확대를 위해 '14년부터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를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 공공구매 참여 지원 등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적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년에는 전년 대비 0.6조원(5%)이 증가한 12.5조원 수준까지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여성기업 확인기업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표 4-2-8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단위 : 조원, %)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 체	119.2	116.9	123.4	123.4	135.0	145.8
여 성	7.14	8.34	9.91	10.55	11.9	12.5
비율	6.0	7.1	8.0	8.6	8.8	8.6

표 II-4-2-9 | 연도별 여성기업 확인현황

(단위 : 건)

연 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형	10,683	11,723	14,409	19,367	23,880
발급	9,242	10,450	12,541	16,178	20,650
누적	24,337	27,601	31,689	38,548	48,753

아울러, TV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을 통해 방송 등 변화하는 유통 트렌드에 맞추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수출실무교육, 전문가 컨설팅, 해외 전시회 등을 통해 여성기업들의 해외진출도 지원하고 있다.

(3) 여성기업 인력 등 지원

2017년부터 '여성기업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기업과 전문인력을 직시에 매칭 가능한 '여성기업 일자리 허브'를 통해 여성기업의 전문인력 부족현상 해소와 함께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여성기업 CEO 등 여성경제인들의 혁신역량 강화와 국내·외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 최고경영자 교육 과정, 여성경제인 경영연수 과정, 세계여성경제인 대회 등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등도 지원하였다.

아울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 여성경제인 DESK(7개 센터)를 설치하여 경영 전략·마케팅·수출 등 분야별 전문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4) R&D, 금융 등 지원

여성기업들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여성기업전용 R&D 및 여성전용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R&D나 정책자금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여성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표 II-4-2-10 | 여성기업 R&D, 정책자금, 보증 지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전체	2019년		전체	2020년	
		여성기업	비율		여성기업	비율
R&D	11,268	658	5.8	13,132	926	7.1
정책자금	43,580	4,830	11.1	62,900	7,621	12.1
보증	910,730	161,764	17.8	1,194,536	256,147	21.4

(5) 실태조사, 조사연구 등

여성기업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년 단위로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여성기업지원법』을 개정(21.10)추진 중이며, 여성기업 관련 통계 DB 구축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국내·외 여성기업 지원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을 조사·연구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방향 및 전략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나.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

1) 장애인기업 현황

우리나라 장애인은 2020년 말 등록 기준으로 총 인구의 5.0%인 263만 명이며, 만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은 250만 명이다.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0%로 전체 인구 62.5%에 비해 59.2% 수준이고, 장애인 고용률은 34.9%로 전체 인구 60.1%에 비해 58.0% 수준이며, 장애인 실업률도 5.9%로 전체 인구 4.0%에 비해 약 1.4배 정도 높아 장애인의 경제활동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4-2-11 | 연도별 장애인 현황

(단위: 만명,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인구	5,133	5,153	5,170	5,178	5,183	5,184	5,182
장애인구	249	249	251	254	258	261	263
비율(장애인구/총인구)	4.85	4.83	4.85	4.85	4.98	5.03	5.06

자료: 장애인등록현황(보건복지부, 각 연도) / 주민등록인구통계(행정안전부, 각 연도)

표 II-4-2-12 장애인 경제활동 동향

(단위 : 천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2014년	장애인	2,449	970	39.6	37.0	6.6
	전체 인구	42,453	26,782	63.0	60.8	3.6
2015년	장애인	2,444	922	37.7	34.8	7.9
	전체 인구	42,975	27,211	63.3	60.9	3.8
2016년	장애인	2,441	941	38.5	36.1	6.5
	전체 인구	43,387	27,455	63.3	61.0	3.7
2017년	장애인	2,460	953	38.7	36.5	5.7
	전체 인구	43,735	27,828	63.6	61.3	3.6
2018년	장애인	2,485	922	37.0	34.5	6.6
	전체 인구	44,141	28,184	63.9	61.3	4.0
2019년	장애인	2,526	941	37.3	34.9	6.3
	전체 인구	44,460	28,468	64.0	61.5	4.0
2020년	장애인	2,562	949	37.0	34.9	5.9
	전체 인구	44,785	28,012	62.5	60.1	4.0

자료 : 202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경제활동인구 조사 통계청, 2020년 기준)

2019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체수는 9.5만 여개로 총사업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93.2%)이 소상공인이고 평균 기업체 종사자수는 3.47명, 그 중 장애인 종사자는 평균 1.07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30.8%를 차지하고 있다.

* 기업규모 : 중소기업 6,456개(6.8%), 소상공인 49,133개(53.2%)

표 II-4-2-13 장애인기업 업종별 분포

(단위 : 개사, %)

구분	제조	도·소매	개인서비스	숙박·음식업	기타	합계
기업수	15,665	29,939	20,446	19,866	9,783	95,589
분포	16.3	31.3	21.4	20.8	10.2	100

자료 : 장애인기업실태조사(2019년)

장애인기업은 장애인 고용률이 일반기업에 비해 크게 높아 장애인기업이 장애인의 소득 및 안정적인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4-2-14 장애인 고용률 현황(20년 말 기준)

구분	사업체(가)	상시근로자수(만)	장애인고용현황(명)	고용률(%)	
정부 부문	①공무원	316	910,478	27,270	3.00
	②비공무원	304	383,077	21,230	5.54
③공공기관		721	560,285	20,015	3.52
④민간기업		29,549	8,604,235	182,311	2.91
합계(①~④)		29,860	8,467,078	260,826	3.08
⑤장애인기업(2)		95,589	332,183	102,362	30.8

1) ①~④ : 고용노동부, 2020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 (2020년 12월 말 기준)

2) 2019년 장애인기업실태조사 결과

2)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

장애인기업도 더불어 잘 사는 경제실현을 위해 육성해야 할 분야로 2005년 7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 2006년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설립, 2008년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등을 기반으로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 장애인 창업촉진 및 창업성공률 제고

장애인이 경제 주체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장애인기업이 장애인 고용창출의 안정적인 지렛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체계적 지원으로 늘어나는 창업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 장애인구 증가(만명) : ('16) 251 → ('17) 254 → ('18) 258 → ('19) 261 → ('20) 263

(자료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각 연도)

· 장애인기업수 : ('13) 34,701개 → ('15) 39,536개 → ('17) 39,067개 → ('19) 45,589개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실태조사, 2019)

창업교육은 장애 정도와 유형, 경제활동 경력 및 전문기술 보유 여부 등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기본교육을 온라인 교육지원 시스템으로 제공하고, 이후 장애인이 창업하기 용이한 아이템과 관련한 기술교육이 포함된 특화교육, 창업컨설팅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의 경우 온라인 기본교육은 1,141명, 특화교육은 185명, 창업컨설팅은 227명이 수료하고, 이중 80명이 창업하여(창업률 35.2%) 전년 대비 약 9% 창업률이 상승하였다.

이 밖에도 대·내외 환경변화에 부합하기 위해 4차 산업 등 신기술 관련 특화과정(드론, 크리에이티브)을 확대 실시하였고, 발달장애인 창업을 위한 스마트팜 활용 영농 창업과정을 운영하였다.

- 1인 크리에이티브 과정 신규 실시(수료생 34명, 창업자 2명)
- 드론창업과정: 드론 자격증취득 11명, 창업자 1명

창업초기 장애인기업의 창업성공률 제고와 장애경제인의 성공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기업 CEO 경영혁신교육 등 다양한 지원정책도 지원하고 있다.

표 II-4-2-15 | 연도별 장애인 창업지원 현황

시 업 영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맞춤형 장애인 창업교육	기초 633명 특화 168명 역량 183명	기초 719명 특화 262명 역량 136명 채기 40명	기초 760명 특화 351명 역량 95명 채기 36명 수출 34명 배업 94명	기초 916명 특화 172명 역량 112명 채기 52명 코칭 139명 창업컨설팅 162명	기초 1,077명 특화 114명 역량 137명 채기 32명 창업컨설팅 170명	기초 969명 특화 185명 역량 134명 채기 38명 창업컨설팅 227명
장애인기업 CEO 교육/연수/세미나	4회, 146명	4회, 153명	4회, 162명	8회, 226명	4회, 90명	1회, 62명
장애인 점포지원	32개 점포	35개 점포	43개 점포	32개 점포	25개 점포	25개 점포
장애인 창업사업회지원				90명 (청년 38명)	90명 (청년 30명)	66명 (청년 21명)

* '19년은 예산이 없어, '18년-'19년도 중 최수원 보증금으로 점포 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창업점포지원사업은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9년간 265개 점포의 창업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부터는 그간 지원된 보증금의 상환금(회수)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25개 점포를 지원하였다.

그간 창업점포 지원을 받아 창업한 사업자의 영업지속률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일반 사업체 대비 약 2배 가량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표 II-4-2-16 | 창업정보지원 사업수혜업체와 일반사업체 비교

기 준 연 도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3년 생존율			4년 생존율		
	창업 연도	정보 수혜자	일반 기업									
2018년	(' 17)	65.3%	63.7%	(' 16)	54.2%	52.8%	(' 15)	68.7%	44.7%	(' 14)	62.5%	38.7%
2017년	(' 16)	91.4%	65.0%	(' 15)	87.5%	52.8%	(' 14)	75.0%	42.5%	(' 13)	69.5%	35.6%
2016년	(' 15)	90.6%	65.3%	(' 14)	75.0%	50.7%	(' 13)	60.6%	41.5%	(' 12)	76.2%	33.5%
2015년	(' 14)	87.5%	62.7%	(' 13)	82.6%	49.5%	(' 12)	81.0%	30.1%	(' 11)	61.0%	32.8%
2014년	(' 13)	95.7%	62.4%	(' 12)	81.0%	47.5%	(' 11)	76.2%	38.8%	-	-	-
2013년	(' 12)	100.0%	60.1%	(' 11)	76.2%	47.3%	-	-	-	-	-	-
2012년	(' 11)	65.2%	59.8%	-	-	-	-	-	-	-	-	-

주 : 1) 창업정보 수혜자 '11년 21명, '12년 21명, '13년 23명, '14년 8명, '15년 32명, '16년 33명, '17년 49명, 국제청 사업자등록 현황조회

2) 2019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 기준 연도별 신생기업 생존율(2020.12.9. 통계청)

아울러 2018년부터는 창업초기에 소요되는 인테리어, 조도 불충비,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창업사업화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2020년 65명의 창업자를 배출하였으며, 이 중 청년창업자가 21명(32%)으로 청년 실업을 완화에 기여하였다.

(나) 장애인기업의 자립·성장기반 구축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기업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08년 1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지역센터(12개 창업보육실)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입주 시 사무공간 및 편의시설, 판로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제공하며, 입주기업은 3.3㎡당 1만원의 저렴한 임대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표 II-4-2-17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개요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드나루로 14길 25
주요시설	장애인 창업보육실, 강의실, 경영애로상담실 및 회의실, 편의시설 등
주요사업	장애인 창업지원 및 장애인기업 경영활동 지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3조 관련 창업부터 판로까지 지원

표 4-2-18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센터 현황

지역센터	규모(㎡)	보육실 수(개)	상위일자	지원시설
서울	2,135	14	2008.01	보육실, 대강당, 회의실, 재단사무처 등
대구	503	6	2008.12	보육실, 회의실 등
광주	527	9	2008.12	보육실, 창업준비실, 대강당, 회의실 등
부산	666	9	2009.05	보육실, 창업준비실, 회의실 등
대전	420	6	2009.07	보육실, 회의실 등
경기	663	8	2010.11	보육실, 회의실 등
인천	313	8	2012.07	보육실, 회의실 등
경남	298	8	2012.11	보육실, 회의실 등
울산	429	8	2012.12	보육실, 대강당, 회의실 등
전북	322	8	2013.12	보육실, 회의실 등
강원	310	8	2013.12	보육실, 회의실 등
제주	268	8	2013.12	보육실, 회의실 등
충남	333	4	2014.11	보육실, 다목적교육장, 회의실 등
충북	306	8	2014.11	보육실, 회의실 등
경북	412	8	2015.12	보육실, 대강당, 회의실 등
충청	370	4	2015.12	보육실, 회의실 등
합계	8,315	124		

(다) 장애인기업의 수출 및 판로확보 지원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2008년 3월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기업 물품구매를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2016년 7월에는 공공기관에서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비율 목표 설정 시 그간 전제 구매액의 0.45%로 운영하였던 것을 전제 구매액의 1%로 구매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기업 판로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장애인기업 확인 수요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5개년 연평균 15.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9년 총 2,520건을 발급하여 2018년 대비 388건 (18.2%) 증가하였다.

표 II-4-2-19 | 연도별 장애인기업 확인현황

(단위 : 건)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청	1,263	1,699	1,748	2,081	2,171	2,533	2,911	2,913
발급	969	1,300	1,414	1,764	1,712	2,132	2,520	2,487
누적	1,765	2,269	2,714	3,191	3,400	3,839	4,580	6,037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은 2016년도에는 1.3조원(1.1%), 2017년도에는 1.5조원(1.2%), 2018년도에는 1.7조원(1.4%), 2019년도에는 2.1조원(1.6%), 2020년도에는 2.3조원(1.6%)를 달성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II-4-2-20 | 연도별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액 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공공구매액	10,899억원	13,231억원	15,406억원	17,677억원	20,962억원	23,275억원
공공기관 수	765개	775개	788개	836개	837개	849개

또한 장애인기업에게 국내외 맞춤형 입찰정보를 제공하여 2018년에는 525개사에서 55,893백만원을, 2019년에는 693개사에서 84,359백만원을, 2020년에는 934개사에서 139,069백만원을 낙찰 받는 데 성공하였다.

2018년부터는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수출이 유망한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지원을 위한 수출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출상담 기회 제공을 위해 화상상담회로 변경하여 30개사를 지원하였다. 2020년 개별화상상담회에서 20개사, 총 220만 달러의 수출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글로벌 온라인 홍보관 구축, 바이어 타겟 마케팅 등을 통한 제품 홍보 및 해외 구매오피 대응 원스톱(One-Stop) 지원 등의 해외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원하여 2019년 8개사의 150만 달러, 2020년 8개사의 95만 달러 등 수출성과를 거두었다.

(라) 발달장애인특화 사업장 구축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공동창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 기회 제공 및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발달장애인에게는 직업훈련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가족에게는 창업교육과 기술교육을 1년간 제공하며, 창업팀에게는 창업준비공간을 최대 2년간 제공한다.

2020년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경상북도 안동시가 선정되어 2021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2개소를 구축 중에 있으며, 2021년에는 4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연내 4개소 구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1개소당 20팀(발달장애인 20명, 가족 20명)의 교육생을 선발하고 이중 5개의 창업팀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II-4-2-21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추진 프로세스



제3절 지역 중소기업 육성

1 지역 중소기업 현황

* 지역혁신정책과 권 현 주

가. 지역 경제동향

2019년 시도 전체의 지역내 총생산(GRDP, 명목)은 1,924조원으로 전년보다 약 24조원(1.1%) 증가하였다. 시도별 규모는 경기(478조원), 서울(433조원), 충남(115조원) 순이며, 세종(12조원)이 가장 적었다. 2019년 전년대비 증가율은 비수도권(1.3%)이 수도권(0.9%)보다 높으며, 수도권의 비중(52.0%)이 비수도권(48.0%)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I-4-3-1 | 지역별 지역내 총생산(GRDP, 명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	2018	2019		전년대비 증가율
			지역내 총생산	비중	
전국	1,840,348,850	1,900,006,822	1,923,977,420	100.0	1.1
- 수도권	944,053,384	964,830,027	1,001,384,506	52.0	0.9
- 비수도권	896,295,466	915,376,795	922,592,914	48.0	1.3
서울	404,079,600	422,394,886	430,488,408	22.5	2.2
부산	87,835,601	89,726,236	92,444,827	4.8	2.7
대구	54,832,058	56,869,994	57,755,743	3.0	1.8
인천	68,547,364	68,360,043	69,571,272	4.7	0.9
광주	37,743,917	39,814,505	41,145,541	2.1	3.3
대전	40,537,224	41,187,774	42,794,314	2.2	3.5
울산	75,750,070	75,636,003	74,929,713	3.9	1.7
세종	10,632,043	11,108,745	11,863,121	0.6	6.4
경기	451,426,420	473,845,098	478,324,829	24.9	-0.3
강원	45,511,732	46,981,996	48,624,649	2.5	3.5
충북	65,312,386	69,857,517	69,337,802	3.8	-0.4
충남	115,557,697	117,891,807	114,641,978	6.0	-0.8
전북	49,348,477	50,967,868	51,826,010	2.7	2.4
전남	73,732,402	76,465,519	76,807,894	4.0	1.8
경북	110,027,724	109,022,995	107,311,865	5.6	-1.4
경남	109,492,183	110,535,700	112,848,546	5.9	1.9
제주	19,981,072	19,910,926	20,261,181	1.1	1.0

자료 : 통계청, 연도별 지역소득

2020년 전국 경제활동인구는 28,012천명으로 전년대비 0.6% 감소하였다. 시도별로는 경기(7,193천명), 서울(5,293천명), 경남(1,802천명) 순으로 많으며, 울산(585천명), 제주(388천명), 세종(185천명)은 적은 편에 속했다.

세종이 전년대비 7.0%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고, 대구가 2.8%감소하여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하였다.

표 4-3-2 |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명, %)

구분	2019	2020	2020		
			경제활동인구	비율(%)	전년대비 증가율(%)
전국	27,895	28,186	28,012	100.0	-0.6
- 수도권	14,038	14,198	14,120	50.4	-0.6
- 비수도권	13,858	13,988	13,892	49.6	-0.7
서울	5,335	5,319	5,293	18.9	-0.5
부산	1,729	1,741	1,712	6.1	-1.7
대구	1,282	1,266	1,232	4.4	-2.8
인천	1,645	1,653	1,634	5.8	-1.2
광주	779	778	778	2.8	0.0
대전	792	806	810	2.9	1.2
울산	602	596	585	2.1	-1.9
세종	152	172	185	0.7	7.0
경기	7,058	7,226	7,193	25.7	-0.5
강원	812	841	827	3.0	-1.7
충북	898	908	919	3.3	1.2
충남	1,216	1,231	1,218	4.3	-1.1
전북	940	953	956	3.4	0.3
전남	968	999	996	3.6	-0.1
경북	1,488	1,488	1,478	5.3	-0.7
경남	1,801	1,817	1,802	6	-0.8
제주	379	390	388	1	-0.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0년 전국 실업률은 4.0%로 전년대비 0.2% 증가하였다. 시도별 실업률은 서울(4.6%), 인천(4.6%), 대전(4.4%), 울산(4.2%), 순으로 높으며, 세종(2.8%), 전북(2.5%), 전남(2.4%)은 낮은 편에 속했다. 충남(0.6%)과 부산(0.5%), 제주(0.4%)가 증가하였고, 전북과 전남이 0.2%로 감소하였다.

표 II-4-3-3 | 지역별 실업률

(단위 : %, %p)

구분	2018	2019		2020	
		실업률(%)	전년대비 증가(%p)	실업률(%)	전년대비 증가(%p)
전국	3.8	3.8	0.0	4.0	0.2
서울	4.8	4.4	-0.4	4.6	0.2
부산	4.1	3.7	-0.4	4.2	0.5
대구	4.4	3.7	-0.7	3.9	0.2
인천	4.3	4.4	0.1	4.6	0.2
광주	3.8	3.7	-0.1	3.9	0.2
대전	4.2	4.2	0.0	4.4	0.2
울산	4.6	4.2	-0.4	4.2	0.0
세종	2.3	2.7	0.4	2.6	0.1
경기	3.8	3.8	0.0	4.0	0.2
강원	2.9	3.6	0.7	3.9	0.3
충북	2.4	3.1	0.7	3.2	0.1
충남	3.1	2.9	-0.2	3.5	0.6
전북	2.7	2.7	0.0	2.5	-0.2
전남	2.8	2.6	-0.2	2.4	-0.2
경북	4.1	3.9	-0.2	4.0	0.1
경남	3.0	3.8	0.8	4.0	0.2
제주	2.0	2.1	0.1	2.5	0.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나. 지역 중소기업 현황

1) 중소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2019년 지역별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경기(877,428개), 서울(773,637개), 부산(271,588개) 순으로 많으며, 제주(60,860개), 세종(16,279개)은 적은 편에 속했다. 2019년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세종이 전년 대비 12.2%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표 II-4-3-4 | 지역별 중소기업 사업체수

(단위 : 개, %)

구분	2017	2018	2019		
			사업체수	비중	전년대비증가율
전국	3,732,897	3,809,011	3,659,640	100.0	1.6
- 수도권	1,785,882	1,818,973	1,843,967	47.7	1.4
- 비수도권	1,947,336	1,990,041	2,025,673	52.3	1.8
서울	775,474	774,695	773,637	20.0	-0.1
부산	269,017	270,934	271,588	7.0	0.2
대구	198,000	198,987	198,896	5.1	0.0
인천	184,450	189,777	192,902	5.0	1.6
광주	109,295	110,343	114,021	2.9	3.2
대전	106,949	106,629	110,562	2.9	1.6
울산	78,671	80,415	81,459	2.1	1.3
세종	12,322	14,303	16,279	0.4	12.2
경기	625,738	664,499	677,428	22.7	2.6
강원	125,868	129,022	131,760	3.4	2.1
충북	115,330	118,799	121,869	3.1	2.5
충남	150,783	156,352	159,966	4.1	2.3
전북	131,505	134,129	136,355	3.5	1.6
전남	134,861	138,161	142,239	3.7	2.9
경북	206,151	211,773	215,711	5.6	1.8
경남	253,485	260,163	264,108	6.8	1.5
제주	65,097	67,841	60,860	1.6	-5.0

자료 : 중소기업진흥기법, 중소기업 사업체수

2019년 중소기업 종사자수의 지역별 비중은 경기(24.8%), 서울(22.2%), 부산(6.8%) 순으로 높으며, 울산(2.1%), 제주(1.3%), 세종(0.4%)은 낮은 편에 속했다. 2019년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서울과 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세종이 전년대비 5.3% 증가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반면, 서울(1.3%), 대구(1.1%)가 감소하였다. 또한, 2018년 중소기업 종사자수의 수도권 비중은 52.0%이며, 비수도권 중소기업 종사자수의 전년대비 증가율(1.9%)은 수도권(0.9%)보다 높았다.

표 4-3-5 | 지역별 중소기업 총사자수

(단위 : 원, %)

구분	2017	2018	2019		
			총사자수	비율(%)	전년대비 증가율(%)
전국	15,527,605	15,882,760	16,073,850	100.0	1.2
- 수도권	8,104,239	8,310,289	8,354,520	52.0	0.5
- 비수도권	7,423,366	7,572,471	7,719,330	48.0	1.9
서울	3,575,067	3,612,973	3,566,067	22.2	-1.3
부산	1,083,571	1,091,460	1,055,143	6.6	0.3
대구	722,471	737,658	729,297	4.5	-1.1
인천	771,855	791,663	804,241	5.0	1.6
광주	430,530	446,712	453,130	2.8	1.4
대전	415,648	423,034	426,245	2.7	0.8
울산	330,177	338,995	342,089	2.1	1.0
세종	53,934	64,659	66,263	0.4	5.3
경기	3,757,327	3,905,653	3,954,192	24.6	2.0
강원	412,073	425,588	443,212	2.8	4.0
충북	478,468	495,346	509,674	3.2	2.8
충남	617,878	635,650	660,316	4.1	3.7
전북	458,148	463,776	476,288	3.0	2.6
전남	464,658	481,618	505,464	3.2	4.9
경북	745,626	761,470	774,936	4.8	1.7
경남	1,005,148	1,007,408	1,027,982	6.4	2.0
제주	192,036	199,097	205,989	1.3	3.3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총사자수

2) 신설법인

2020년 지역별 신설법인 수는 경기(35,450개), 서울(34,547개), 부산(5,942개) 순으로 많으며, 울산(1,621개), 제주(1,535개), 세종(827개) 등이 적은 편에 속했다. 전반적으로 전지역에서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경기도 전년대비 18.8% 증가하여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한 반면 전남이 가장 작은 비율(1.9%)로 증가하였다. 또한, 2019년 신설법인의 수도권 비중은 61.3%이며, 수도권 신설법인의 전년대비증가율(11.8%)도 비수도권(10.2%)보다 높았다.

표 II-4-3-6 | 지역별 신설법인 수

(단위 : 개, %)

구분	2018	2019	2020		
			신설법인 수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전국	102,372	109,520	123,306	100.0	11.2
- 수도권	61,894	66,710	75,639	61.3	11.8
- 비수도권	40,478	42,810	47,666	38.7	10.2
서울	32,006	33,023	34,647	28.1	4.7
부산	4,758	5,349	5,942	4.8	10.0
대구	3,066	3,473	3,833	3.1	9.4
인천	4,446	4,896	5,542	4.5	11.8
광주	3,696	3,612	4,016	3.3	10.1
대전	2,343	2,698	3,048	2.5	11.5
울산	1,366	1,370	1,621	1.3	15.5
세종	582	702	827	0.7	15.1
경기	25,442	28,601	35,450	28.7	18.8
강원	2,253	2,246	2,680	2.2	18.2
충북	2,528	2,618	3,096	2.5	15.4
충남	3,636	3,847	4,466	3.6	14.4
전북	3,257	3,371	3,891	3.2	13.4
전남	3,901	3,873	3,947	3.2	1.9
경북	3,836	3,934	4,134	3.4	4.6
경남	3,965	4,312	4,600	3.7	6.3
제주	1,381	1,405	1,536	1.2	8.5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3) 벤처기업

2020년 지역별 벤처기업 수는 경기(12,020개), 서울(9,880개), 부산(2,227개) 순으로 많으며, 울산(544개), 제주(238개), 세종(158개) 등이 적은 편에 속했다. 전반적으로 전지역이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세종은 가장 큰 비율인 19.0%의 증가를 보였다. 또한, 2020년 벤처기업수의 수도권 비중은 59.9%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벤처기업수의 전년대비 증가율도 7.2%로 비수도권(5.0%)과 차이를 보였다.

표 4-3-7 | 지역별 벤처기업 수

(단위 : 개, %)

구분	2016	2019	2020		
			벤처기업 수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전국	36,820	37,008	39,511	100.0	6.3
- 수도권	21,895	21,952	23,661	59.9	7.2
- 비수도권	15,125	15,066	15,850	40.1	5.0
서울	8,708	8,877	9,880	25.0	10.2
부산	2,301	2,201	2,227	5.6	1.2
대구	1,622	1,633	1,677	4.2	2.6
인천	1,680	1,642	1,761	4.5	6.8
광주	842	792	805	2.0	1.6
대전	1,425	1,458	1,544	3.9	4.9
울산	469	481	544	1.4	11.6
세종	109	126	158	0.4	19.0
경기	11,307	11,433	12,020	30.4	4.9
강원	695	713	760	1.9	6.2
충북	1,033	1,011	1,138	2.9	11.2
충남	1,354	1,297	1,350	3.4	3.9
전북	769	821	875	2.2	6.2
전남	780	813	889	2.3	8.5
경북	1,729	1,571	1,708	4.3	2.2
경남	1,815	1,816	1,937	4.9	6.2
제주	182	211	235	0.6	11.3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현황

4) 중소기업 매출액 및 수출액

2019년 중소기업 매출액의 지역별 비중은 경기(26.8%), 서울(23.4%), 부산(6.6%) 순으로 높으며, 울산과 강원(2.0%), 제주(0.9%), 세종(0.4%) 등이 낮은 편에 속했다. 또한, 중소기업 매출액의 수도권 비중은 55.2%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중소기업 매출액은 인천,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세종이 전년대비 5.9% 증가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표 II-4-3-6 | 지역별 중소기업 매출액

(단위 : 억원, %)

지역명	2017	2018	2019		
			중소기업 매출액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전국	25,982,164	26,275,351	26,555,821	100.0	1.1
- 수도권	13,931,207	14,540,971	14,650,068	55.2	0.7
- 비수도권	11,430,957	11,734,380	11,905,733	44.8	1.4
서울	5,967,315	6,182,861	6,201,436	23.4	0.3
부산	1,737,779	1,751,208	1,765,467	6.6	0.8
대구	1,065,716	1,097,002	1,101,150	4.1	0.4
인천	1,300,225	1,345,277	1,344,312	5.1	-0.1
광주	874,954	897,730	712,869	2.7	2.1
대전	578,405	593,007	607,698	2.3	2.4
울산	510,801	507,514	520,222	2.0	2.4
세종	87,593	101,789	108,175	0.4	5.9
경기	6,673,667	7,012,843	7,104,341	26.8	1.3
강원	493,331	513,132	528,310	2.0	2.9
충북	836,258	879,975	892,791	3.4	1.4
충남	1,122,542	1,149,083	1,166,412	4.4	1.5
전북	668,513	677,551	696,881	2.6	2.8
전남	630,242	666,993	692,573	2.6	3.8
경북	1,225,150	1,263,328	1,268,665	4.8	0.4
경남	1,555,656	1,580,046	1,601,464	6.0	0.8
제주	254,218	247,624	243,257	0.9	-1.8

자료 : 중소기업본부, 중소기업 매출액 통계

2020년 중소기업 수출액의 지역별 비중은 경기(31.8%), 서울(24.7%), 부산(6.4%) 순으로 높으며, 강원(0.8%), 제주(0.2%), 세종(0.2%) 등은 낮은 편에 속했다. 또한, 수도권 비중은 62.4%로 비수도권(37.6%)과 큰 격차를 보였다. 한편,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지역에서 전년대비 중소기업 수출액이 증가하였고, 충북이 가장 큰 비율(34.0%)로 증가, 대구가 가장 큰 비율(21.3%)로 감소하였다.

표 Ⅱ-4-3-9 | 지역별 중소기업 수출액

(단위 : 십억, %)

지역별	2018	2019	2020		
	중소기업 수출액	중소기업 수출액	중소기업 수출액	비중 (%)	전년대비 증가율(%)
한국	105,196,003,174	100,927,597,120	100,712,254,769	100.0	-0.2
- 수도권	67,746,831,788	63,146,414,692	62,849,434,277	62.4	-0.5
- 비수도권	37,449,171,386	37,781,182,428	37,862,820,492	37.6	0.2
서울	27,335,594,362	25,326,144,790	24,842,178,741	24.7	-1.9
부산	6,842,548,610	7,282,216,681	6,436,040,339	6.4	-13.1
대구	3,772,688,544	3,345,577,644	2,757,002,828	2.7	-21.3
인천	6,021,606,734	5,970,747,685	6,019,211,346	6.0	0.8
광주	957,826,949	945,749,706	900,228,043	0.9	-5.1
대전	1,121,331,708	1,067,007,262	1,206,134,775	1.3	16.1
울산	1,102,151,634	1,240,460,615	1,296,641,487	1.3	4.3
세종	177,609,114	181,178,458	203,839,814	0.2	11.1
경기	34,389,540,662	31,849,522,217	31,968,044,190	31.8	0.4
강원	713,526,667	715,720,875	783,719,380	0.8	8.7
충북	2,822,760,087	3,061,857,068	4,838,342,634	4.8	34.0
충남	5,170,116,876	4,842,828,106	5,166,521,648	5.1	6.3
전북	1,261,879,565	1,198,994,015	1,378,139,762	1.4	13.0
전남	1,230,630,319	1,398,387,626	1,273,947,986	1.3	-9.8
경북	5,306,194,322	5,576,930,507	5,357,025,853	5.3	-4.1
경남	6,078,626,879	6,735,620,338	6,191,129,182	6.1	-8.8
제주	193,480,094	168,653,301	183,205,961	0.2	7.9

자료 : 중소기업본부, 중소기업 수출액 통계

2

규제자유특구 확대를 통한 신사업 추진 기반 마련

• 기획총괄과 오 유 근

가. 규제자유특구 추진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부터 시·군·구의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특례가 법에 열거된 규제 특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등 유연성이 부족하고 지역특화사업에 신기술을 접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한 기존의 규제개선 체계는 법령 등을 정비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급변하는 경제환경 및 기업의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기술혁신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또한 지역에 소재한 주력 산업이 침체함에 따라 주요 대기업이 공장을 폐쇄하거나 이전하여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기업의 이탈로 협력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산하거나 해외로 대기업과 함께 이전하면서 지역 실업률이 높아지고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는 등 지역소멸 위기에 봉착했다.

지역은 지역산업 위기, 4차 산업혁명 대응 여력 부족, 지역 전통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및 지역경기 침체, 수도권과 지방의 4차 산업혁명 수용능력 격차가 현저하여 지역경제 버팀목인 제조업 쇠퇴시 경제력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런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통 주력산업, 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벗어나 신사업, 중소기업 중심의 생태계 구축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해법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2019년 4월 도입되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사업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규제자유특구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로서,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와 함께 규제샌드박스(규제혁신 3종세트 ①규제신속화인 ②입시허가 ③실증특례)를 적용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조건하에서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실증 및 사업화를 허용하는 제도로써 규제 때문에 사업기회에 제약을 받았던 기업들은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사업 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지역은 투자유치와 일자리가 늘어나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시도지사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특구내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사업계획은 관계부처와 균형발전위원회 의견을 검토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되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를 적용받으며, 규제특례를 적용한 신기술·서비스의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지원(R&D 포함), 공용 연구 장비 구축 지원 등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 2020년도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를 전국 규모로 확산하기 위해서 지역 내 혁신 파급력이 큰 특구를 년 2회(상반기, 하반기) 지정할 계획이며, 규제백과사전 구축, 사전컨설팅 강화, 지역별 전문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 특구사업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유사 사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특구 간, 국책사업 간 연계를 통한 다양한 협력 모델을 발굴하여, 규제자유특구제도 시행 이후 정부 정책과의 중복문제, 지역별 희망사업 쉐어링(바이오, 미래차, 에너지) 등의 과도한 경쟁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부부처 간·지역 간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신기술 산업분야 중심으로 현행 Bootstrap 방식의 특구신청에 Top-Down 방식을 도입하는 연계형 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과장출을 위해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R&D, 사업화, 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19년 306억원 → '20년 1,103억원) 하고, 특구사업자를 실증 특례 등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한정하지 않고 관련 부품생산 등 실증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사업자까지 특구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사후 관리 강화 측면에서도 기 지정된 특구의 실증 준비, 안전성 검증, 부과조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2019년 지정된 1차 특구에 대해서는 정책목표, 성과지표 달성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파급효과, 규제 특례 및 혁신사업 등의 추진실적·성과를 평가하여 규제자유특구가 디지털 스마트 대한민국의 전초기지로 거듭나도록 추진하였다.

다. 2020년도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2020년은 두 차례에 걸쳐 총 10개 규제자유특구가 신규로 지정되었고 이를 통해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체 모두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가 구축되어 지역혁신성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3차로 지정된 특구(2020.7월) 중 신규지정은 부산 해양모빌리티,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울산 계능서비스산업, 강원 액화수소산업,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경북 산업융체프 등 7개 특구이며 기존 특구인 부산 블루체인,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는 실증사업이 추가되었다.

3차 특구의 특징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 분야의 특구(울산, 대구),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강원, 충남), 지역특화산업과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산업 연계형 특구(부산, 전북, 경북) 등 대내외의 환경변화와 정부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특구들이 다수 지정되었다.

4차로 지정된 특구(2020.11월) 중 신규지정은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울산 이산화탄소자원화, 경남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등 3개 특구이며 기존 특구인 세종은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사업이 추가되었다.

또한 4차 특구의 경우 한국판 뉴딜을 이끌어 나갈 디지털 분야(경남, 세종), 그린 분야(광주, 울산) 중심으로 특구가 지정되어 지역균형 뉴딜 거점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경남의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특구계획'은 기존 상향식(Bottom-up)방식의 바이오, 미래차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된 점을 보완해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기획된 과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4차 특구24개) 지정 현황

- 1차 특구(19.07) :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경북) 차세대테라리서이어플링, (부산) 불폭체인, (대구) 스마트팜나스, (세종) 자율주행실증,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인천
- 2차 특구(19.11) :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충전
- 3차 특구(20.07) : (부산) 해양모빌리티, (대구) 이동식협동로봇, (울산) 계층서비스, (강원) 액화수소,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전북) 탄소융복합, (경북) 산업융합프
- 4차 특구(20.11) : (경남) 5세대 활용 차세대 스마트 공장, (광주) 그린에너지 ESS 발전,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제도 시행 이후 짧은 기간 내에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성과 조기 창출하였다. 1차부터 3차까지 지정한 특구 내 기업 고용현황은 8,033명으로 특구로 지정 전(6,778명)과 비교해 1,255명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또한 투자유치(VC투자 포함) 7,309억원, 공장설립 13개사, 기업유치 149개사 등 가시적 성과도 달성하였다('20년말 기준).

(1-4차 특구 지역별 지원 현황)



라. 향후 계획

1차, 2차 특구의 실증특례기간 만료(‘21년 8월, 12월)에 따라 실증이 완료되어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사업의 안정적 운영, 규제특례의 일반화를 위해 규제법령을 정비하고 임시허가 전환, 실증특례 연장을 추진하는 등 특구의 안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구 사업화 지원 강화를 위해 실증종료 후 특구·창업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R&D·자금·판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특구 챌린지를 개최하여 특구 내 신기술 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우수팀을 선발해 사업화 컨설팅 및 정책자금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판 뉴딜분야(디지털·그린) 규제자유특구 확대를 위해 이산화탄소 자원화, 그린에너지, 수소 등 저탄소·친환경 분야 탄소중립지구 지정 확대를 추진하며, 국가정책과 연계한 Top-Down 방식도 병행하여 진행할 것이다. 특구사업의 안전을 담보하고 성과 창출을 통한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규제특례 절차 간소화, 실증특례 요건 완화 등 특구제도 활용 확대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해서 규제자유특구제도를 개선에 나갈 것이다.

3

지역 특화산업 육성

• 지역기업육성과 이 상 영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시도별 특화(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에게 지역에 구축된 인프라와 혁신자원을 활용하여 특화산업분야 지역기업에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제공, 기업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의 사업이다.

'99년 국민의 정부에서 4개지역 (부산, 경남, 광주, 대구)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고, '02년 이후 13개 비수도권 전제로 확대되었다. '04년 국가균형발전법 제정되고, 균특법 제113조에 근거하여 지역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기업에게 기술개발과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 사업화를 지원해오고 있다. '17.7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임무가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다.

표 II-4-3-10 | 지역산업육성정책 추이

구분	1999~2002년 (국민의 정부)	2003~2007년 (참여정부)	2008~2012년 (이명박정부)	2013~2016년 (박근혜정부)	2017~ (문재인정부)
시·도	전략산업 : 4개 지역 1단계 (1999~2003년)	전략산업 : 4개 지역 2단계 (2004~2008년)	Post-449 지역 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육성 - 지역주력산업육성 - 지역연고산업육성	지역주력산업육성 (2020년~) - 지역주력산업육성 - 지역신성장산업육성
시·군·구	지역 특화산업(1995년~), 연고산업 중심				

표 II-4-3-11 | 지역주력산업현황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부산	첨단융합기계부품, 지능 정보서비스, 친환경미래에너지, 라이프케어	충남	스마트휴먼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차세대디스플레이
대구	고효율에너지시스템, 디지털의료헬스케어, 수송기기/기계소재부품	전북	스마트농생명·식품, 미래지능형기계, 탄소·복합소재, 조선해양·에너지
광주	지능형가전, 광융합, 스마트건설, 디지털생체의료	전남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 그린에너지, 첨단운송기기부품, 바이오헬스케어
대전	차세대 무선통신융합, 바이오메디칼, 지능형로봇	경북	지능형디지털기기, 첨단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부드, 친환경융합섬유소재
울산	저탄소에너지, 스마트조선, 그린모빌리티, 미래화학신소재	경남	첨단항공, 스마트기계, 나노융합스마트부품, 항노화메디칼
강원	천연물바이오소재, ICT융합헬스, 세라믹복합신소재	제주	스마트관광, 그린에너지, 청정바이오
충북	바이오헬스, 지능형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세종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중앙·지역 간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동 사업이 지역 경제 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처·전담기관·관리기관·수행기관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기부는 사업을 총괄하고, 14개 시·도가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며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22년부터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과제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성과 종합관리 등을 담당하고, 광역 시·도에 14개 지역사업평가단을 운영, 현장밀착형 과제 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사업 관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림 16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추진체계



가.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특화산업육성 R&D 사업은 크게 시·도 단위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기업 매출 성장을 도모하는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과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연구·특화자원을 발굴하여 기술개발에서 사업화를 종합 지원하는 '지역 연구산업육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4-3-12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내역사업별 추진내용

내역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지원사항
지역특화 산업육성 (R&D)	시도 주력산업	비수도권 시도주력산업 분야 지역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국비 2억원당 1명 신규채용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당 연차별 2억원 내외 • 2년 이내 지원 • 지역기업 단독주관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시군구 연구산업	시군구 지역중소기업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당 연차별 5억원 내외 • 3년 이내 지원 • 대학 등 기업지원기관과 지 역기업간 컨소시엄

2019년 12월 연간 지역산업육성 시행계획인 '2020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년 지역연구산업육성사업 13개 과제에 41억원을 지원하여으며, 지원기업 성장을 통해 65명의 순신규고용과 1,082억원의 사업화 매출을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일몰제 도입에 따라 동 사업 또한 '19년부터 일몰을 맞이하게 되었고,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이 '19년 종료되어 '20년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으로 사업성과의 절대적 수치는 감소하였으나, 국비 10억원당 신규고용 창출은 '19년 15.3명에서 '20년 15.7명으로, 국비 10억원당 사업화매출액은 '19년 50.3억원에서 '20년 263.9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사업 효율성은 크게 개선되었다.

표 II-4-3-13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성과현황

구분	(단위 : 억원, 명)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	1,105	473	41
순신규고용 (10억원당 성과)	1,278 (11.6)	725 (15.3)	65 (15.7)
사업화매출액 (10억원당 성과)	3,441 (31.1)	2,360 (50.3)	1,062 (263.9)

- 순산규고용 : 동 사업 지원을 통해 창출된 신규고용 실적에 사업 기여율을 반영하여 산정
- 사업화매출액 : 개발기술이 적용된 신제품 매출액에 사업 기여율을 반영하여 산정

한편, 동 사업 일몰에 따라 융복합 중심 지역주력산업과 지역스타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여, 후속사업인 “지역특화산업육성+(R&D)”를 기획하였다. '19년 1월 국무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이 확정되어, '20년부터 '25년까지 총 6년간 1조 3,154억원의 규모로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지속 지원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주도로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 및 지역스타기업 중점 육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나.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은 지역에 구축된 인프라 및 혁신자원을 활용하여 비수도권 48개 주력산업 분야 지역기업에 기술지도, 사업화(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지원, 마케팅 등) 서비스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의 사업이다.

'18년부터는 성장성이 높고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스타 기업”을 지자체 주도로 선정하여 전담 PM매칭을 통한 성장전략 수립, R&D 과제 기획, 기술지원 등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글로벌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혁신성장마우처 사업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지역기업의 사업화 애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중앙의 지역산업육성정책과 산업 기획 기능을 연계하기 위해 지역별 데이터 플랫폼 구축지원을 통해 지원 성과, 지역 보유 장비, 기업 모니터링군 분석을 강화한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사업을 통해 광역 시·도 테크노파크의 기획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과 14개 사도가 함께 연차별 실행계획인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한 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1년부터 TP가 보유 중인 시생산, 시험인증 장비 등을 고도화하여 지역주력산업 전후방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기술사업화 애로 해소를 위한 장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표 II-4-3-14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내역사업별 추진내용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지원사항
지역특화 산업육성 (비R&D)	시도기업지원	시도주력산업 분야 지역중소기업에게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마케팅 등 기술사업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당 5억원 이내, 기업당 3천만원 이내 테크노파크, 대학, 출연연 등 지역혁신기관 활용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	시도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데이터 기반 지역기업 통계, 연구 생산장비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데이터 기반 통계관리 및 성과분석 기술그루네트워크 운영, 지역연구장이 플랫폼 구축, 비R&D 총괄연계 등

2020년 동 사업 추진을 통해 총 200개 과제에 96억원, 약 3,503개사에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 결과 비수도권 지역의 순신규고용 1,521명, 사업회 매출액 860억원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표 II-4-3-15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성과현황

(단위 : 억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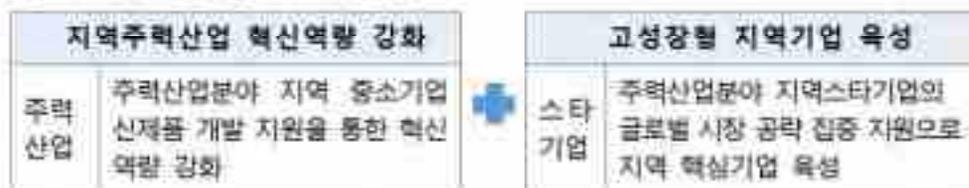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	799	865	963
순신규고용	1,212	1,279	1,521
사업회 매출액	789	814	860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지역내 중소기업 집중육성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지역 사업 전문가(기술닥터)를 활용한 사전 기업으로 발굴 및 1:1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닥터제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전국 5,150명의 지역사업 전문가 Pool을 구축하여 1,522개 지역 중소기업에 998건의 기술예로를 진단하고, 맞춤형 애로해결을 지원하였다.

다.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특화산업육성(R&D) 일몰에 따라 후속사업인 지역특화산업육성+(R&D)를 선규 기획하여, 2020년에 545개 과제에 1,095억원을 지원하였다. 48개 지역주력산업을 산업성장주기에 따라 유망신산업, 성장산업, 제도약산업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성장성 및 지역사회공헌도가 높은 지역스타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형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의 구심점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17 | 지역특화산업육성(R&D)사업내용



선행사업(지역특화산업육성(R&D)) 성과를 바탕으로, 내역사업별 지원대상에 따라 고용목표를 차별화하고 이를 달성하였다.

표 II-4-3-16 | 지역특화산업육성(R&D)사업 순신규고용효과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예산	순신규고용 실적
지역주력산업육성*	79,246	509
지역스타기업육성**	25,810	309

- * 선행사업 매출 100억원 이하 기업의 1년 고용창출계수는 국비 10억원당 7.1명 수준으로 후속사업은 선행사업 고용계수 대비 연평균 5% 고용계수를 증가시키는 목표치를 설정
- ** 선행사업 매출 100~400억원 이하 기업의 고용창출계수는 국비 10억원당 7.93명으로 지역스타기업은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임을 감안, 연평균 10% 고용계수를 증가시키는 목표계수 적용

4

국가혁신복합단지연계 지역기업상용화 R&D

• 지역기업육성과 이 상 용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주요기업, 생산 등 주요역량과 자원이 집중되어 있어, 이러한 수도권 위주 불균형 성장 분배 극복을 위해 현 정부에서는 지역의 신성장거점으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기업 중심의 혁신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나, 지역 중소기업의 수준은 매우 낙후한 상황으로,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연구소 및 연구인력은 수도권에 편중된 상황이며, 기업당 R&D투자도 열악하여 혁신을 위한 동인이 부족한 현실이다.

표 11-4-3-17 |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지역간 비교

구분	수도권¹(%)	비수도권²(%)
연구소 수(개, %)	25,284(85.0)	13,601(35.0)
연구인력 수(명, %)	132,176(68.7)	60,233(31.3)

*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9.12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정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상용화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하는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R&D' 사업을 기획하여 '19년부터 추진하게 되었다.

동 사업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업 중심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대성과가 큰 혁신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신규과제 선정시,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 제도와 연계한 일자리 평가제도 도입으로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표 II-4-3-18 | 14개 시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현황

시도	지장 현황	시도	지장 현황
부산	센텀, 문연, 동삼, 북항 일원 등	충북	청주, 증평, 괴산, 충주 일원 등
대구	동구, 북구, 수성구 일원 등	충남	내포, 서산, 당진, 예산 일원 등
대전	유성구, 대덕구, 동구 일원 등	전북	전주·익산·완주 산단, 식용염리스터, 민간육종단지 등
광주	서구, 남구, 광산구 일원 등	전남	빛가람동, 나주·신도 산단 등
울산	중구 우정동, 북구 매곡동, 남구 두왕동, 중산동, 달천동 일원 등	경북	김천시, 구미시 일원 등
세종	조치원, 영희, 부강 산단 등	경남	항공MRO단지, 항공국가산단 등
강원	원주혁신도시, 횡성 일원 등	제주	제주시, 서귀포 혁신도시 일원 등

'19년 계속사업 38개, '20년 사업공모를 통해 상용화 R&D 과제 17개를 선정하여 총 55개 과제에 대해 128.3억원을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에 102명의 순신규고용을 창출하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이 중 정규직 비중은 94.9%로 전국 채용인력의 상용근로자 비중(72.3%)* 대비 131% 향상된 성과를 달성하고, 또한 연구직 일자리 비중은 52.8%로 제조업 전체 채용인력의 연구직 비중(11.7%)** 대비 451% 높은 성과를 달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 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전체 채용인력의 상용근로자

**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준, 제조업 채용인원 중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중

동 사업은 '20년에 종료된 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관련된 유망기업을 해당 지자체에 유치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낙후도 개선에 기여하였다.

5 지역특구를 통한 균형발전 도모

• 지역특구과 성 대 현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04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역특화특구는 직접적인 재정·세제지원 없이 규제특례를 통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 부처의 특구제도와는 차이를 보인다.

가. 지역특구 지정절차

지역특화특구는 기초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주민공청회·지방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협의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고시하게 된다.

표 II-4-3-19 | 지역특구 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



나. 지역특구 지정 및 운영현황

지역특구제도가 2004년 도입된 이후 2020년 말을 기준으로 214개 특구가 지정되었으나, 19개가 해제·통합되어 총 195개의 지역특구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2020년에는 2차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 서천 친환경서래야김산업특구, 진천 숲산업클러스터특구를 새로 지정하였고 원활한 특화사업의 발전을 위해 순창 장류산업특구 등이 계획 변경하였다.

표 II-4-3-20 | 연도별 지역특구 지정현황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누계	6	41	72	96	118	132	143	150	151	155	183	172	184	194	195	197	195	
연도별	지정	6	35	31	25	22	14	11	8	3	5	8	11	16	12	2	2	3
	해제	-	-	-	1	-	-	-	1	2	1	-	2	4	2	-	1	5

2020년 기준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특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 229개 중 150개가 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충청도, 전남도, 제주도는 소속된 모든 기초지자체가 특구를 운영 중이다.

표 II-4-3-21 | 지역별 지역특구 지정현황

지역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구수(개)	13	7	4	3	3	1	0	2	19	14	15	18	14	36	28	15	3

다.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및 활성화

지역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매년도 특구운영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고려하여 지역특구운영성과를 평가한다.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역특구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성과가 우수한 특구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포상금을 지급하여 특구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2020년에는 총 190개 특구의 '19년도 운영성과를 평가하였으며, 성과가 우수한 12개 특구를 선정하였다. 그 중에서 청양 고추·구기자특구가 최우수특구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받았다.



2020년 우수특구 시상식

6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 지역기업육성과 최 정 안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은 자동차, 조선업 등 주요산업 침체로 인해 지정된 위기지역(전북 군산, 전남 영암·목포·해남,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의 경제회복을 위해 위기지역 기업대상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8년 4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에 따라 지역경제에 타격이 우려되는 군산지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동년 5월 울산(동구), 경남(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목포·영암·해남)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18년 6월 위기지역 내 기업 지원을 위해 추정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18년 3개 지역(전북, 전남, 울산)의 위기대응지역 내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지원기업 컨설팅 및 사업다각화지원을 수행하는 기업비즈니스센터를 설치·운영하였고, 이후 2019년에는 경남지역을 추가하여 총 4개 지역의 기업비즈니스센터를 통해 위기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은 지역별 신청·접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애로진단,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한 뒤 평가를 거쳐 지원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들은 전문가 진단을 통해 도출한 사업다각화 프로그램을 지원 받으며,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의 1대1 매칭을 통한 현장밀착형 컨설팅을 받게 된다.

2020년부터 동 사업은 수혜기업 대상 양질의 컨설팅 지원을 위한 컨설팅 가이드리안을 마련하고 공동협력형 프로그램 지원 트랙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컨소시엄을 지원하여 지역 내 위기기업 간 공동성장을 촉진시켜 지역경제 경기침체 극복에 기여하고 있다.

2020년 동 사업 추진을 통해 4개 지역에 지역별 16억원, 총 6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3개사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98개사 대상 154건의 프로그램 사업다각화지원 결과, 지역의 순신규고용 103.8명 및 사업화 매출액 86.4억원을 창출하여 위기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표 II-4-3-22 | 20년 지원기업 수행 프로그램

지역	지원 기업수 개	지원프로그램간					소계
		시제품제작	특허인출 지원	마케팅	디자인	기타	
전북	24	15	4	1	0	10	30
전남	26	12	13	5	0	13	43
울산	24	24	5	5	2	0	37
경남	24	18	11	4	0	11	44
합계	98	69	33	16	2	34	154

표 II-4-3-23 | 20년 사업성과

(단위 : 억원, 명)

구분	예산	고용 (순신규고용)	사업회비증액
2020년	64	103.8	96.4

2021년에는 4개 지역 64억원의 예산 투입으로 총 8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당면한 중·단기 기술애로 진단, 제품개발 지도 등 애로해결을 위한 전문가 심화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특허·인증·마케팅·공정개선 등 사업다각화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소 상생협력 지원 트랙을 신규 도입을 통해, 역내 산업 리딩기업 (중견기업 이상)이 희망하는 품목을 중·소기업이 공급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대기업부터 소기업까지 상호 협력하여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위기지역의 조속한 경제회복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5장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제철 소상공인·지역업 활력 생태계 촉진

1

소상공인 현황

• 소상공인정책과 진 명 철

201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를 보면,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3,286천개, 종사자수는 6,618천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84.8%, 전체 고용의 36.9%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 대비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49천개, 종사자수는 193천명이 증가하였으며, 소상공인 사업체 비중은 0.1%p, 종사자 수 비중은 0.6%p 증가하였다.

표 II-5-1-1 | 연도별 소상공인 추이

(단위: 개, 명, %)

구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업체	전체	3,876,499	3,737,465	3,813,723	3,874,410
	소상공인	3,137,700	3,188,005	3,236,236	3,285,574
	비중	(85.3)	(85.3)	(84.8)	(84.8)
종사자	전체	17,051,453	17,294,315	17,711,917	17,934,571
	소상공인	6,202,033	6,365,094	6,424,490	6,617,527
	비중	(36.4)	(36.8)	(36.3)	(36.9)

• 자료: 각 연도별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가공 및 재편

사업체 기준으로 업종별 비중은 도매 및 소매업(26.8%), 숙박 및 음식점업(20.3%), 제조업(11.1%) 순이며,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24.4%), 숙박 및 음식점업(21.3%), 제조업(17.9%) 순으로 나타나 소상공인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에서 생활형 업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5-1-2 | 2019년 업종별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건설 산업	3,285,574	100.0	6,617,527	100.0
도·소매업	879,106	26.8	1,616,919	24.4
숙박 및 음식점업	666,785	20.3	1,407,896	21.3
제조업	366,026	11.1	1,186,840	17.9
기타	1,374,655	41.6	2,405,872	36.4

* 자료 : 2019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에서 재편·가공)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보면, 소상공인 사업체 수의 비중은 영국(92.3%)과 한국(84.8%)이 높았으며, 미국(64.7%)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또한, 종사자수 비중은 한국 36.9%, 영국 28.0%, 독일 18.4% 등이 비교적 높은 반면, 미국은 5.6%로 비교적 낮았다.

표 II-5-1-3 | 주요국의 소상공인 현황

구분	사업체수(천개)		종사자수(천명)	
	소상공인	비중(%)	소상공인	비중(%)
한국(2019)	3,286	84.8	6,618	36.9
미국(2017, 기업)	3,883	64.7	7,148	5.6
영국(2020, 기업)	5,522	92.3	7,775	28.0
독일(2018, 기업)	2,127	81.8	5,722	18.4

* 주1 : 한국의 소상공인 기준 적용(공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기타 5인 미만)

* 주2 : 독일의 경우 'Micro-entreprise'로 명시

* 자료 : 해외중소기업통계(중소기업중앙회, 20년 12월말 공표)

소상공인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이 전체 사업체수의 46.4%(1,524천개)를 차지하고, 영남권(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은 27.4%,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은 10.4%,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은 10.7%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종사자수로는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47.4%(3,137천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남권은 26.9%, 충청권은 10.6%, 호남권은 10.1%이다.

표 II-5-1-4 | 지역별 소상공인 사업체수·종사자수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사업체	637,437	232,568	173,858	163,210	97,138	94,377	69,878	13,376
(비중)	(19.4)	(7.1)	(5.3)	(5.0)	(3.0)	(2.9)	(2.1)	(0.4)
종사자	1,231,556	465,009	338,888	329,804	192,858	181,074	135,023	27,248
(비중)	(18.6)	(7.0)	(5.1)	(5.0)	(2.9)	(2.7)	(2.0)	(0.4)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23,504	116,373	105,043	137,804	119,517	125,768	191,878	231,336	52,509
(22.0)	(3.5)	(3.2)	(4.2)	(3.6)	(3.8)	(5.8)	(7.0)	(1.6)
1,575,198	225,904	211,919	278,795	230,275	247,737	379,181	464,713	102,345
(23.8)	(3.4)	(3.2)	(4.2)	(3.5)	(3.7)	(5.7)	(7.0)	(1.5)

* 자료 : 2019 전국사업체통계조사(통계청)에서 재편·가공

자영업자수는 2002년 621만 명으로 최고치를 보인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2008년~2009년 경기침체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은 553만 명을 기록하였다. 취업자 수 대비 자영업자 비중도 2012년 최고 수준(27.9%)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20년은 20.6%를 기록하였다.

·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표 II-5-1-5 | 자영업자수 변동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취업자수	자영업자	동기대비 증감비율	고용주	동기대비 증감비율	자영자	동기대비 증감비율
2002년	22,232	6,212 (27.9)	2.3	1,614	4.3	4,598	1.7
2003년	22,222	6,066 (27.3)	-2.4	1,630	1.0	4,436	-3.5
2004년	22,682	6,161 (27.2)	1.6	1,677	2.9	4,484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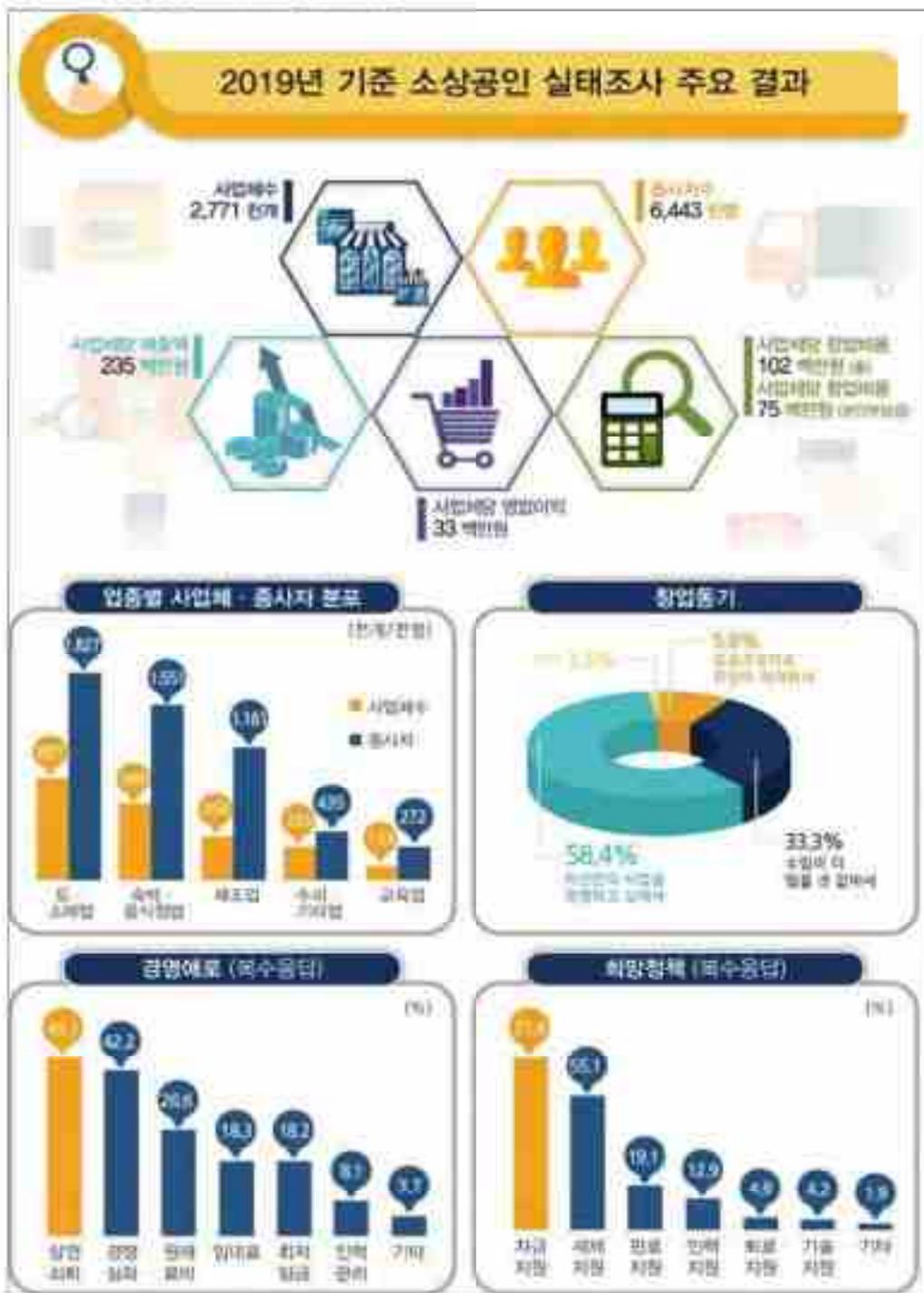
구분	창업자수	자본규모	중기대비 증감비율	고용수	중기대비 증감비율	자영업자	중기대비 증감비율
2005년	22,831	6,141 (26.9)	-0.3	1,666	-1.3	4,486	0.0
2006년	23,188	6,109 (26.3)	-0.5	1,630	-1.6	4,479	-0.2
2007년	23,561	6,046 (25.7)	-1.0	1,567	-3.9	4,481	0.0
2008년	23,775	6,005 (25.3)	-0.7	1,538	-1.9	4,467	-0.3
2009년	23,888	5,749 (24.3)	-4.3	1,532	-0.4	4,217	-5.6
2010년	24,033	5,643 (23.5)	-1.8	1,515	-1.1	4,127	-2.1
2011년	24,527	5,657 (23.1)	0.2	1,526	0.7	4,132	0.1
2012년	24,956	5,768 (23.1)	2.0	1,570	2.9	4,199	1.6
2013년	25,299	5,703 (22.5)	-1.1	1,533	-2.4	4,169	-0.7
2014년	25,897	5,720 (22.1)	0.3	1,581	3.1	4,139	-0.7
2015년	26,178	5,622 (21.5)	-1.7	1,609	1.8	4,013	-3.0
2016년	26,409	5,614 (21.3)	-0.1	1,584	-1.6	4,030	0.4
2017년	26,725	5,682 (21.3)	1.2	1,608	1.5	4,074	1.1
2018년	26,822	5,638 (21.0)	-0.8	1,651	2.7	3,987	-2.1
2019년	27,123	5,606 (20.7)	-0.6	1,538	-6.8	4,068	2.0
2020년	26,904	5,531 (20.6)	-0.8	1,372	-1.3	4,159	2.2

*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2019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대분류(21개) 중 11개 주요 업종(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등)의 소상공인 277만개를 조사한 결과, 사업체당 매출액은 2억 3,500만원이며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3,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창업동기는 자신만의 사업을 경영하고 싶어서(58.4%),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33.3%),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5.8%) 순으로 조사되었다.

복수응답을 허용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에 대한 요인은 상권 쇠퇴(45.1%), 경쟁 심화(42.2%) 등으로 나타났으며, 희망정책은 자금지원(71.4%) 및 세제지원(55.1%)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16 | 소상공인실태조사(2019년) 주요 결과



2

준비된 창업 유도

- 소상공인정책과 송 제 훈
- 소상공인정책과 서 식 원
- 소상공인정책과 진 명 원
- 소상공인정책과 최 우 혁
-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전 은 별
- 소상공인경영지원과 고 용 현
- 기업금융과 정 승 화

가. 소상공인 정보 제공

1) 소상공인방송(yestv) 운영

2012년에 개국한 소상공인방송은 비대면, 디지털 전환 등으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생계활동으로 오프라인 교육이 어려운 644만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와 1,413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정보, 비대면 교육·컨설팅, 인식개선 및 홍보 프로그램을 방송(TV)과 뉴미디어(유튜브, 네이버TV 등)로 제공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소상공인·전통시장 전문 방송채널이다.

소상공인방송은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권익 대변 및 자생력 강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공신력과 차별성 있는 전문 프로그램 제작에 주력한 결과, 2020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아 '사회복지분야 공익채널'로 선정되었다.

표 11-5-1-6 |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사회복지분야 공익채널 선정결과

공익성 방송분야	채널명
사회 복지	한국적립방송(WorkTV), 소상공인방송(yestv), 다문화TV

2020년 12월말 기준 소상공인방송은 KT Olleh tv(223번), Sk Btv(271번), LG유플러스(246번) IPTV 3개사와 전국 케이블TV 189개사와 송출계약을 체결, 전체 3,357만 유료 방송 가입자 중 2,020만(59.9%) 가구에 1일 24시간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표 II-5-1-7 | 2020년 방송 플랫폼별 소상공인방송 송출 현황

구분	케이블TV	IPTV	스카이라이프	합계
전국 사업자수(가입자수)	90개(1,347만)	3개(1,712만)	12개(318만)	94개(3,375만)
송출 사업자수(채널 가입자수)	89개(720만)	3개(1,300만)	0개(0만)	92개(2,020만)

표 II-5-1-8 | 2020년 송출사별 소상공인방송 송출 현황

분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소개	건수
소상공인	yesTV 뉴스	소상공인·전통시장, 중소·창업·벤처기업의 지원정책 및 이슈시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뉴스로 전달	250
	같이, 가치#	성공CEO가 소상공인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 노하우, 진수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	7
	re타뷰	폐업위기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실패 원인, 재창업 과정 및 성공 요인 등을 소개	10
	힐링트크 ON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 폐업 등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낸 전국 소상공인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	4
	제로페이로 풍요로운 전씨네	연령대별 소비 트렌드에 맞춰 '제로페이'의 편리성과 혜택, 활용법 등을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게 드라마로 소개	7
	소상공인의 내일ON	경기 불황속에서도 온라인에 진출하여 성공한 소상공인의 노하우 및 사례를 소개	5
	슬기로운 PD생활	소상공인 제품의 온라인 판로확대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일상 속 공감요소에 제품을 소개하는 코미디 드라마	5
전통시장	휴먼다큐 시장사람들	지원사업으로 변화된 시장의 다양한 모습과 상인들의 애환이 담긴 인생 이야기를 통해 시장의 혼란한 인심과 감동을 전달	100
	술빈의 우리동네 요즘 시장	청년 대표 '술빈'이 청년들, 문화관광형시장 등 젊은 가치를 받아들여 변화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새로운 모습을 소개	20
	대한민국 청년상인의 힘	청년들 핵심모의 주인이 되기 위해 요리 테스트를 거치며 고군분투하는 예비 청년상인들의 서바이벌 과정을 소개	5
	다같이 즐자 시장한바퀴 시즌2	전통시장의 넉넉한 인심은 물론, 다양한 특색과 볼거리, 먹거리로 즐거운 전국 전통시장의 이모저모를 소개	100
	전통시장에 가치샵시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촉진 유도를 위해 유통버와 함께 시장과 청년들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소개	8
중소벤처	제조업의 미래 스마트공장을 가다	정부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통해 혁신성장을 이룬 우수기업을 소개하여 스마트공장의 목적과 발전방향을 제시	14

소상공인방송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의 자생력 강화와 경영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정부 지원정책, 컨설팅, 재기, 내수 소비 촉진 등),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맞춘 프로그램(온라인 진출 도모 및 판로확대 등) 등을 제작·방송하였다.

표 2-5-1-9 | 2020년 소상공인방송 신규 제작 프로그램

(단위: 편)

구분	회사명	송출시점	대행번호
IPTV	KT	Oseti tv	223편
	SK브로드밴드	Btv	271편
	LG유플러스	U+ tv G	246편
케이블TV	SK CATV (23개사)	(서울)종로중구, 시대문, 경인상동, 동대문, 도봉강북, 노원, 강서 (부산)서부산, 동남, 낙동 (대구)대구, 티씨엔대구, 대경 (인천)서해, 남동, 새롬 (경기)수원, ABC, 한빛, 기남 (충남)충부, 세종 (전북)전주	218편 외
	LG헬로비전 (23개사)	(서울)은평, 양천 (부산)해운대기장, 금정, 중부산, 중앙 (대구)대구수성, 대구동구 (인천)북인천 (경기)나리, 부천김포 (강원)영서, 강원, 영동 (충남)충남 (전북)전북 (전남)호남, 아라 (경북)신라, 영남 (경남)경남, 가야, 마산	313편
	딜리아브 (16개사)	(서울)중앙, 서서울, 용산, 동서울, 중랑, 북부, 노원, 마포, 구로, 송파, 강동, 강남 (경기)경동, 경기동부, 경기, 우리	257편 외
	CMB (11개사)	(서울)동대문, 영등포 (대구)수성, 대구동부 (광주)광주동부, 광주 (전남)광주진남 (대전)대전, 동대전, 충청, 세종	188편 외
	현대HCN (8개사)	(서울)동작, 관악, 서초 (부산)부산 (대구)금호 (충북)충북 (경북)경북, 새로빛	426편 외
개별SO (8개사)	(광주)한국케이블TV광주, (울산)제이씨엔울산충영, (충북)씨씨에스충북, (전북)금강, (경남)서경, (제주)KCTV제주, (대구)한국케이블TV 푸른, (인천)남인천	각기 다름	

방송프로그램 외에도 정책정보, 지원사업 등을 쉽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영상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소상공인방송과 온라인(유튜브, 페이스북 등) 매체를 통해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예비창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상시 전달할 예정이다.

표 II-5-1-10 | 2020년 영상 카드뉴스 주요 이미지



소상공인방송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예비창업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방송 홈페이지에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VOD 다시보기 서비스 (홈페이지, 유튜브, 네이버 TV 등)는 매년 지속적으로 이용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표 II-5-1-11 | 소상공인방송 VOD 이용 현황(유튜브, 네이버TV)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시청건수 (건)	89,981	48,288	120,261	152,961	272,332	338,764	456,510	2,330,764	10,064,582

2) 상권정보시스템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업종별 상권정보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200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19년 '소상공인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창업과정의 어려운 일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입지선정(54.9점), 업종선택(40.3점)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어려운 상권정보를 국세청 등 16개 기관과 협업하여 제공하고 있다.

상권정보시스템은 인터넷 전자지도를 기반으로 상권분석서비스(특정지역·업종에 대한 11종의 상권정보), 점포이력서비스(특정 점포의 개·폐업 이력 정보), 수익분석서비스(특정위치·업종의 무자비 회수를 위한 목표매출 및 고객수, 유사한 입지·업종의 매출정보), 경쟁분석서비스(업소별 경쟁영역 내 거래건수를 기반으로 경쟁수준을 평가) 등 분석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0 | 상권정보시스템 주요서비스



창업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권정보·서비스를 개발함에 따라 2006년 7월 개시 당시 월평균 10,185건에 불과하던 이용실적이 2019년 140만 건, 2020년 161만 건으로 최근 5년간 평균 14.5% 상승하였다.

표 II-5-1-12 |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실적 추이

(단위 : 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용실적 (월평균)	897,315 (74,776)	1,090,586 (90,882)	1,253,588 (104,465)	1,400,103 (116,675)	1,605,559 (133,797)
증가율	9.6%	21.5%	14.9%	11.6%	14.7%

* 이용건수 증가율 : (당해건수-전년건수) / 전년건수×100

또한 민·관간 공유정보 확대 및 상기업소 조사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 상권정보시스템의 2020년 이용자 만족도(5단계 척도, 만족 이상)는 89.5%로 대다수의 이용자가 만족을 나타냈다.

표 II-5-1-13 |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추이(온라인조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용자 만족도	88.9%	88.7%	89.1%	89.3%	89.5%

2020년에는 편의성 증대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화면으로 개편하고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는 간단 분석 서비스 및 AI기반 매출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공유·수집된 약 240만 건의 상가업소데이터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개방하여 대국민 활용도를 높였다.

2021년도에는 매출 예측 분석 및 경영컨설팅 분석 서비스 업종 확대와 스토리보드 제작 등 소상공인이 상권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3)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의 준비된 창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별 맞춤형 정책 및 창업·경영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을 2007년부터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0년에는 중기24, 네이버,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간편 로그인 기능, 정보 취약 계층의 홈페이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각, 이동성, 인지 등 관련 시스템 기능 등을 개선하였다.

지속적인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통해 이용실적은 2018년 202만 건, 2019년 268만 건, 2020년 668만 건으로 최근 3년간 평균 71.43% 상승하였으며, 특히 2020년부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정부 정책지원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방문이 급증하고 있다.

표 5-1-14 | 종합정보시스템 이용실적 추이

(단위: 건)

구분	2016년	2019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용실적	1,370,800	1,456,596	1,524,882	2,016,641	2,662,880	6,682,630

2021년도에는 소상공인마당 회원정보, 접근권한에 대한 이력관리 기능을 개선하여, 소상공인마당 이용자의 중요 개인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능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그림 20 | 소상공인마당 로그인 및 회원가입 화면



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사업 분야 등 유명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교육, 점포경영체험 실습,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촉진하고 생태계 내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기 6개 지역에 신사업창업사관학교(舊 소상공인사관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한 이래, 2019년 경남, 인천, 전북, 2020년 울산, 전남, 충북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는 등 지역에서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교육생을 선발하여 1개월간 창업교육을 실시한 이후 창업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전국 각지의 체험점포(꿈이룸)에서 상품구입, 재고관리, 고객관리 등을 직접 체험하며 창업 아이템의 검증 및 안정화를 도모하는 창업경영체험 및 멘토링을 지원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한 이래 2015~2020년간 총 2,170명의 교육생을 선발하였고 창업교육, 점포경영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2020년 12월말 기준 1,437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교육 수료생에게는 소상공인창업자금 융자(1억 원 한도)를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교육과 점포체험교육을 이수한 우수 교육생을 별도 심사·선발하여 사업화 보조금을 최대 2천만원 한도(개인부담 50%)로 지원한다.

표 II-S-1-15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전국 체험점포 현황(20.12월 기준)

지 도 별		주 소
서울	대학로점	종로구 대학로 149, 유니로드 1층
	중랑점	중랑구 속선동주로 6-8, 목동자이아파트상가
	명동점	중구 퇴계로 106, 세대빌딩 1층
	드림스퀘어	마포구 독막로 320, 태평대시암부브 7층
부산	범일점	동구 자성로133번길 10, 천일빌딩 1-2층
대구	범어점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6, 범어골드타워 1층
	두류점	달서구 달구벌대로 1734, 두류동빌딩 1층
광주	상무지구 1호점	서구 상무중앙로 84, 상무트윈스빌딩 1층
	상무지구 2호점	서구 상무중앙로 24, 엠씨타워 1층
경기	신동점	수원시 영통구 덕명대로 1506, 더한타지움 1층
대전	둔산 1호점	서구 둔산로 59, 아이빌딩 1층
	유성점	유성구 대학교 88, 공동482-2
인천	부평점	부평구 부평대로 203, 121-125, 127-131호
전북	전주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기 1239-5
경남	창원점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121, 1층(117호, 122호)
울산	울산점	북구 천장유동로 89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층
전남	순천점	전남 순천시 역전창길 14 2-3층
충북	청주점	충북 청주시 상당구 복문로1가 62번지 1층

다. 생활혁신형창업지원사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활성화 방안으로 2018년부터 생활혁신형 창업자를 선정하여 설실실배 시 상환의무가 부분 면제되는 정책자금을 최대 2천만원(융자) 지원하고 있다.

생활혁신형창업 선정자에 대해서는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보완한 최종 사업계획서 작성, 멘토링(마케팅·상권관리·고객 관리 등 성공노하우를 전수)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2018년 4,188명을 선정하여 3,657명에게 융자금을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1,646명을 선정하여 1,356명에게 융자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889명을 선정하여 737명에게 융자를 지원하였다, 2021년에는 총 1,0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2021년도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재창업자가 기존사업의 노하우를 습득하여 재기 할 수 있도록 재창업패키지 사업 수요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도·소매업, 음식전업 등 과밀업종에 대한 제한을 이중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 융합에 기반한 창업아이템의 경우,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하려 한다.

라.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들이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로 하는 교육 콘텐츠를 상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소상공인 지식배움터)을 운영하고 있다.

PC 외 스마트폰 사용 증가 등 소상공인을 둘러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2018년부터는 플랫폼 기능 개선에 착수하여 2019년 개편된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게시·운영하였고, 2020년까지 204,778명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과정 수료 기준).

또한, 2020년에는 오픈 플랫폼형 시스템(기존 관리자 중심의 폐쇄형 콘텐츠 생산 방식에서 수요자들이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여 직접 콘텐츠를 제작)을 도입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마.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자금 애로 해소는 모든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999년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지원해 왔으며, 업체당 7,000만원(일부자금 10억 원)까지 용자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도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성장기반자금, 경영안정자금으로 구분된다. 성장기반 자금은 제조기반 기술의 경쟁력 강화,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의 활력제고 등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한 자금으로, 12,983개 업체에 6,099억 원을 지원하였다. 경영안정 자금은 청년일자리창출, 고용·산업위기지역 경영애로 해소 등 소상공인 안정적인 영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금으로 173,232개 업체에 39,401억 원을 지원하였다.

표 II-S-1-16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실적

(단위 : 개사, 억원)

구분	1999-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지원업체	278,664	44,233	48,341	64,487	57,625	58,462	186,215	738,057
지원금액	78,179	14,939	17,560	22,460	20,575	22,045	45,409	221,237

2018년에 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를 조사한 결과, 정책자금 수혜업체의 매출액 증가점포 비율은 81.8%로 나타나 소상공인정책자금이 소상공인 경영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소상공인 보증 지원

1)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현황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으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16개 시·도별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재단은 2020년 한 해 동안 국내경제 안정화를 위해 28조 5,009억원의 보증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전체 보증공급의 96.4%인 27조 4,735억원을 소상공인에게 집중적으로 공급하였다.

표 II-S-1-17 | 총 보증공급 대비 소상공인 보증현황

(단위 : 개, 억원)

구분	총보증	2019년		2020년		
		총보증	소상공인보증 비율(%)	총보증	소상공인보증 비율(%)	
업체수	570,247	557,185	97.7	1,102,797	1,088,273	98.7
금액	140,239	126,202	90.0	265,089	274,735	96.4

보증공급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총 보증공급 28조 5,009억원 중 도소매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8조 3,730억원으로 29.4%를 차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주요 업종인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순으로 지원되었다.

표 II-S-1-18 | 업종별 보증공급 현황

(단위 : 천, 억원)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음식음료업	도소매업	기타	계
보증공급	업체수	90,712 (8.2%)	246,488 (22.5%)	274,011 (24.6%)	319,961 (29.0%)	169,834 (15.5%)	1,102,796 (100%)
	금액	29,604 (10.4%)	61,832 (21.7%)	69,552 (24.4%)	83,730 (29.4%)	40,351 (14.2%)	285,069 (100%)
보증잔액	업체수	132,460 (7.6%)	382,625 (22.0%)	433,835 (25.0%)	513,349 (29.6%)	273,400 (15.8%)	1,735,669 (100%)
	금액	38,707 (9.8%)	82,698 (21.0%)	97,639 (24.8%)	119,527 (30.3%)	55,661 (14.1%)	394,222 (100%)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보증금액별 보증공급 금액은 3천만원 이하 보증금액이 68.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소액보증의 증가폭이 전년대비 10.5%p인 것은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보증수혜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표 II-S-1-19 | 금액별 보증공급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3천만원 이하	3천만원~1억	1억~10억	10억 초과	계
2019년	금액	81,905	34,154	14,258	9,921	140,238
	비중	58.4%	24.4%	10.2%	7.0%	100%
2020년	금액	196,489	56,567	24,096	7,917	285,069
	비중	68.9%	19.8%	8.5%	2.8%	100%

2) 주요 특례보증 제도

항 목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신규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비 신규
주요 내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를 회복하기 위한 긴급 유동성 지원	경기회복 지원 및 금융비용 부담 등에 따라 경영여부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 저금리 차금지원으로 금융비용 절감
대상 기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정책자금을 별도 배정받은 기업	사업자등록 후 가동중으로 대표자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인 기업
시행 시기	2020년 2월	2020년 1월
지원 한도	최대 7천만원 이내 운전자금	최대 3천만원 이내 운전자금
공급 실적	320,173건, 8조 7,581억원 (2020년말 누계 기준)	257,973건, 6조 8,428억원 (2020년말 누계 기준)

항 목	영세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안전보증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주요 내용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하여 공공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관광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경영안정 도모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을 지원
대상 기업	문화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로서 대표자의 개인신용등급이 1-8등급인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리한 자활기업
시행 시기	2019년 5월	2018년 2월
지원 한도	1억 5천만원 이내 운전자금	4억원 이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공급 실적	2,167건, 1,076억원 (2020년말 누계 기준)	1,038건, 494억원 (2020년말 누계 기준)

3) 코로나19 피해극복과 정부정책을 반영한 맞춤형 보증지원

중앙회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매출부진, 고정비용 부담 등 경영예외 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보증 공급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하여 총 28조 5,069억원을 공급하였으며, 정부·금융 기관과의 협력으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한 보증대상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맞춤형 보증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다.

첫째,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특례보증」을 시행하였다.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 피해 규모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지원규모를 당초 1천억원에서 8조 6천억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동 특례보증 지원 시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사업장 현장실사 간소화, 신속심사제도(fast-track)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빠른 보증공급을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 금융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기업은행과 초저금리Ⅲ 협약보증(고정금리 1.5%)을 시행하였다. 특히, 2월 초부터 급증한 보증 신청 심사적체를 해소하기 등 협약보증의 전 과정을 위탁보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였다. 또한, 최초시행 공급목표였던 5,400억원이 조기 마감됨에 따라 보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6.8조원으로 보증공급을 확대하였다.

셋째,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청의 휴원권고에 따라 경영예외를 겪고 있는 교육 서비스업 영위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교육서비스 협약보증」을 시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관광업이 위축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관광 사업자의 지원을 위한 「영세관광사업자 협약보증」을 총 지원규모 300억원에서 1,100억원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넷째, 이외에도 ICT환경, 소비트렌드 등 사회 구조적 변화에 적응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특례보증」,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특례보증」 등을 시행하였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창업 활성화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450억원(누적)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취급금융 회사 확대(신협, 새마을금고 추가)로 사회적 금융 접근성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4) 고객편의 제고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

금융환경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수요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고객 및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신속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

일정금액 이하 소액보증에 대해서는 심사행목을 간소한 신속심사제도(Fast-track), 신용과 업력이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특정업종(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현장실사 생략, 보증수요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보증상당·접수·약정) 체결, 코로나19 피해 지원 상품에 대한 위탁보증 제도 반영 등으로 적기에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나) 창업환경 조성을 위한 유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 도입

사전보증제도로 사업필요자금과 보증지원 가능금액을 미리 예상하고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어, 창업 초기에 겪는 자금조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창업교육·컨설팅을 이수하거나 지식재산권 보유 예비창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정함으로써, 고객들이 보다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다) 보증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재해피해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 운영을 위한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의 경우, 재해 발생일 이후 사업자등록 기업도 일정요건 충족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재도전 특례보증」의 지원요건 완화, 보증한도 상향 등으로 재기 의지가 있는 채무자에 대한 희생 지원을 강화하였다.

라) 창업리스크 경감을 위한 연대보증면제 확대

원만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인기업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등 3차에 걸쳐 업무처리방법을 개정하였다. 1차 개정은 연대보증 면제자가 무분별하게 관련인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이행약정을 위반한 면제인에 한해 관련인으로 등록하게 하였으며, 2·3차 개정은 기존 연대보증입보부 보증의 비보증분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연대보증 면제를 위한 특약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개인기업의 연대보증도 전면 폐지하였다.

(법인기업 연대보증 면제 추진현황)

- ▶ 실제경영자 이외 기업경영에 관여도가 낮은 기타 이해관계인 연대입보 금지('13.8월)
- ▶ 창업 후 7년 이내의 법인기업 대상으로 실제경영자 연대보증 면제('17.8월)
- ▶ 법인기업의 신규 증액보증에 대하여 실제경영자 연대보증 입보 폐지('18.4월)
- ▶ 법인기업의 기존보증에 대하여 실제경영자 입보 폐지('19.6월)
- ▶ 기존 연대보증입보부 보증(18.4.2 이전)을 기본증화수보증을 통한 입보면제 시, 비보증분(금융회사 책임분담부분)에 대한 금융회사의 연대보증면제를 위한 특약 부여('19.7월)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기존 입보부 보증(18.4.2 이전)을 조건변경(기한연장)시 입보면제를 검토하여 입보면제 시, 비보증분(보증부대출 중 금융회사 책임분담부분)에 대한 금융회사의 연대보증면제를 위한 특약 부여('19.12월)
- ▶ 연대보증 면제자 관련인정보 등재관련 협의 및 검토('19.2월), 신청원 및 정책금융기관
- ▶ 법인기업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국민체감도 설문조사 및 우수사례 발굴('20.5월)

5) 재보증제도의 정책기능 강화

중앙회는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및 재기지원 등을 위해 중소기업 중점지원사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시행하였으며, 특례보증의 재보증비율을 상향(50%→60%)하여 지역신보 보증공급 확대를 유도하였다.

특히, 정부의 코로나19 위기극복 정책이행을 위해 2020년 2월 시행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7,6조원)'의 경우 재보증비율을 60%(1-6등급), 80%(7-10등급)로 이원하여 운영하였으며, 피해가 컸던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재보증비율 80%까지 상향하여 별도의 특례보증(6천억원)을 운영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보증수요 대응을 위해 선제적인 재보증한도(잔액) 확대 조치를 시행하였다. 소상공인의 급격한 자금경색에 대응(긴급자금 지원)하기 위해 보증한도가 당초 25.5조원에서 43.27조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보증공급 규모도 16.7조원에서 32.57조원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수경(1, 3차) 및 예비비 활용 등 선제적 조치로 재보증한도(잔액)를 당초 14조원에서 24조원까지 확대하였다.

3

재기지원 및 생업안전망 확충

-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전 종 류
- 소상공인경영지원과 김 천 회
- 소상공인경영지원과 김 지 현

폐업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증기부는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 소상공인 재기지원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재기를 위해 폐업(사업정리컨설팅, 전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취업(교육, 진직장려수당), 업종전환·재창업(교육,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5만여건을 지원했다.

그림 21 | 지원 내용

폐업 지원	취업 지원	업종전환·재창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정리컨설팅) 일반, 세무, 부동산 분야 컨설팅 지원 ▪ (정포철거지원) 정포철거 및 원상 복구 소요비용 ▪ (법률자문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차, 노동, 세무 등에 관한 법률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마인드 변화, 직무탐색 등 지원 ▪ (진직장려수당) 폐업신고 후 소상공인의 취업 활동 또는 취업 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유망·특화·융복합 업종으로 전환 및 재창업을 위한 실무 교육 ▪ (멘토링) 마케팅, 경영, 세무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업 성공률 제고

폐업 절차 및 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 방법, 사업장 양수도 등 일반, 세무, 부동산 분야에 대한 사업정리컨설팅과 정포철거원상복구 소요비용(최대 200만원, 부가세 제외)을 지원하였다. 또한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 금융,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통해 소상공인의 법적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취업을 위한 마인드 변화, 직업 정보 탐색 등 교육 지원, 폐업신고 후 취업활동 또는 취업한 경우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커피 트렌드, 매장설립, 고객 서비스, 위생관리 등 40대 이상 소상공인의 카페 취재창업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였다.

유망특화음식업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재창업하는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및 재창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해 경영, 마케팅, 세무, 창업 등과 관련한 실무교육,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특화 아이템 개발, 마케팅, 사업방식 개선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등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퇴업·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도입·시행(2007년 9월)되었고, 2020년 말 기준 재적 가입자는 138.4만 명(누적가입자는 191.6만 명), 재적부금은 14조 8,308억 원(누적부금 18조 5,933억 원)이 조성되었다.

폐업, 사망, 법인대표자의 질병·부상에 의한 퇴업,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 경과한 만 60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공제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에게는 공제계약 대출(납입 부금의 90% 범위 내), 소득공제(연 500만원 한도), 가입 후 2년간 상해에 따른 사망 및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월부금의 150배까지), 공제금 수급권 보호(암류·양도·담보 금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참고로 소득공제 한도는 2017년부터 기존의 연 300만 원에서 최대 연 500만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가입자의 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 적용(연 200~500만 원)하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세제지원 상의 소득 불평등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으로 공제의 가입유치 대행이 가능해진 2010년 이후부터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0년 말에는 공제제도 출범 14년 만에 누적가입자 190만 명을 달성하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일본의 유사 제도인 '소규모기업 공제제도'는 2019년 말 기준 재적가입자 147.5만 명, 100만 명 달성에 15년 소요).

향후에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보험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7년 국정과제(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안전망 확충)에 반영되어 2018년에 신규 도입된 사업이다.

2019년에는 지원 대상을 1~4등급까지 확대하고 지원비율도 차등하였으며, 지원 기간도 확대하였다(최대 3년). 2020년도에는 기존 분기별 지원금 지급방식을 월별 지급으로 변경하여 수혜자만족도 및 대응성을 향상시켰다.

2021년에는 지원대상(1~7등급) 및 지원기간의 확대(5년) 등 지원기준을 개선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자부담 비율의 경감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2절 소상공인·지역업 경쟁력 및 혁신역량 제고

1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 소상공인경영지원과 김 대 우
-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이 현 수
-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 지역상권과 차 석 규
 - 지역상권과 원 종 영
 - 지역상권과 강 지 연
- 온라인경제추진단 박 승 표

가. 소상공인·지역업자 온라인 지원 도입

ICT 발전,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와 유통 추세가 온라인과 비대면으로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2019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역량을 고려하여 역량강화, 채널별 입점지원, 온라인 진출 기반 마련으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소상공인의 온라인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환경이 생소한 소상공인이 온라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2020년에는 전문가를 소상공인과 매칭하여 온라인몰 입점부터 홍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셀러 사업도 신설·운영했다.

아울러, TV홈쇼핑·온라인몰·라이브커머스 등 상품특성에 적합한 채널별 입점 지원으로 상품 판매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오프라인 점포의 온라인 거래 확장을 위해 O2O플랫폼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배달수수료 등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스튜디오와 온라인 진출 교육용 강의장 등을 구비한 시설을 구축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했다.

2020년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경을 2회 편성하여, 당초 지원목표인 4만개사를 넘어 5.3만개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였다.

나.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코로나19, ICT 기술 발달 등으로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가 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경영·서비스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동 사업은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상권을 스마트 시범상가로 선정하여 상가 내 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기술(AI, IoT, VR·AR 등) 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전국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55곳을 스마트 시범상가로 선정하여, 시범상가 내 소상공인 점포(4,025개)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였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스마트기술 자료집 제작·배포 및 스마트상점 모델상 구축 등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동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간은 유인, 야간은 무인으로 운영되도록 슈퍼의 스마트화도 지원하여, 동네슈퍼만의 강점인 접근성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전환 성공 모델을 창출할 예정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제조환경에 소공인이 대응할 수 있도록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기초 스마트기술(IoT, AI 등) 접목으로 부분 자동화 등 공정의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소공인의 지속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2020년 시범사업으로 소공인 82개사를 지원한 결과, 공정개선 등 역량 수준 향상, 부분 자동화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이 가능해졌으며, 해당 결과물에 기반하여 표준모델 구축, 우수사례집 발간 등 홍보 확대도 실시하였다.

2

소상공인 성장 지원

- 지역상권과 최 용 훈
- 지역상권과 은 합 국

가.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에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교육은 업종별 전문기술교육, 경영개선교육, 전용교육장 교육, 튼튼창업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튼튼창업은 2019년에 신설된 창업교육 프로그램으로 민간 교육훈련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등이 예창업자와 초기창업자에게 업종별 전문기술 및 맞춤형 창업 등 교육을 제공하였다.

2020년 하반기에는 코로나 19에 따른 비대면 교육 수요에 맞추어 실시간·온라인 교육을 도입하고 업종·대상별 교육으로 커리큘럼을 확장 운영하였다.

소상공인 경영교육 프로그램 중 전문기술교육 및 튼튼창업(일부)은, 교육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이 사전에 소상공인 교육기관으로 등록된 민간 교육훈련 기관에서 각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수강할 수 있도록 바우치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교육 바우치의 경우 1인 당 최대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비의 90% 한도로 지원하였다.

또한, 지역별 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소상공인에게 교육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기 위해, 서울, 광주, 대전, 부산, 대구 등 5개 지역에 소상공인 전용교육장을 운영하였다. 이 곳은 소상공인 관련 교육행사 등에 무료로 제공되었으며, 직장인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교육도 진행되었다.

2020년에는 전문기술교육 12,244명, 경영개선교육 2,810명, 전용교육장 1,877명, 튼튼창업 프로그램(업종전문) 4,124명 등 총 21,055명이 교육을 수요하였다. 또한 2020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튼튼창업 프로그램 온라인 교육은 507,271회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나. 소상공인 역량강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영업 정상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경영 예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홍보, 경영관리, 상품 및 메뉴개발, 세무·노무·특허 등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2020년도 사업은 전문가의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5,302건과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매출액 2억원 미만 소상공인의 물품 대금, 상가보증금 및 상가 임대차 등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 무료법률구조 440건을 지원하였다.

표 11-5-1-20 |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예산 및 실적

(단위 : 억원,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원 예산	73	81.8	79.8
소상공인 컨설팅	4,580	5,204	5,302
무료법률구조	479	401	440
역량 캠프업 프로그램	464	50	-
합 계	5,523	5,655	5,742

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나 기업이 모여 협업하는 협동조합 모델이 일자리·지역 균형발전·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보완적 사업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 사업은 개별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개발, 생산, 판매, 공유 등 소규모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화·협업화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201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8년째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주요내용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조합원)의 매출 및 수익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간 자율적인 조직화 및 협업을 유도한 후, 공동의 이익 추구가 기반인 사업인프라의 구축 및 협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는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과는 차별화 된 정책으로,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통해 협업 및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다수의 소상공인이 협업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한다.

지난 8년(2013년-2020년) 간 총 1,643개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수혜를 받았다. 2020년에는 공동브랜드·네트워크·마케팅·개발 등 공동사업 지원(210개)과 소셜커머스 입점, 지역판매전 개최 등 판로지원(475개)을 하였다.

아울러,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안정적 설립, 조합원 간 유대 강화, 조합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10개 지역을 거점으로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를 운영하며, 협동조합 성장에 필요한 교육적 토대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이 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표 II-5-1-21 | 연도별 소상공인협동조합 사업추진현황

(단위 : 백만, 개, %)

구분	예산	실적(3,394개)		성과 지원조합 조합원 평균매출액
		협업연모자	완료	
2013년	347	433	-	11.0% 증가
2014년	246	361	17	12.6% 증가
2015년	240	377	116	12.9% 증가
2016년	188	311	117	12.8% 증가
2017년	183	283	124	12.5% 증가
2018년	250	291	300	13.3% 증가
2019년	252	256	406	13.3% 증가
2020년	199	210	475	13.2% 증가
계	1,915	2,522	1,55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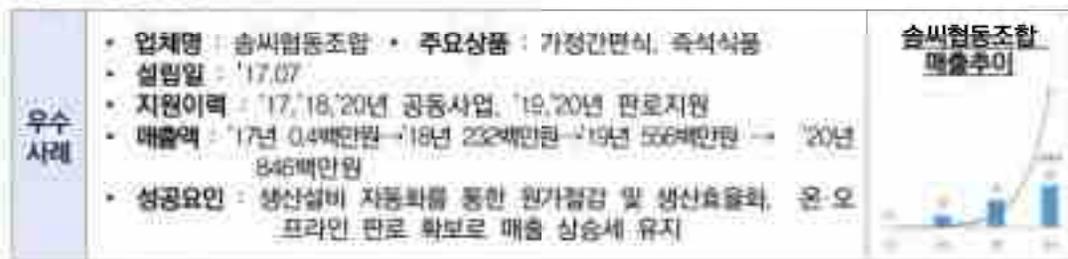
공동사업 지원은 브랜드개발·마케팅·장비·기술개발·네트워크(홈페이지 등) 등의 분야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1~5억 원 한도)의 70~80% 이내를 보조 및 지원 하였으며, 일반형, 선도형, 고성장형으로 조합의 성장단계별 유형을 나누고 우수성장 모델 발굴, 규모화에 중점을 두었다.

표 II-5-1-22 | 지역별 소상공인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현황(2020년도 12월말 기준)

(단위 : 개)

구분	계	서울	부산 영진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경기	인천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충청	전라	경남
신청	468	51	40	64	69	56	12	46	23	35	39	33
선정	235	17	34	38	23	25	2	22	13	13	16	31
지원	210	14	31	32	22	24	2	21	11	13	13	27

그림 22 | 공동사업 우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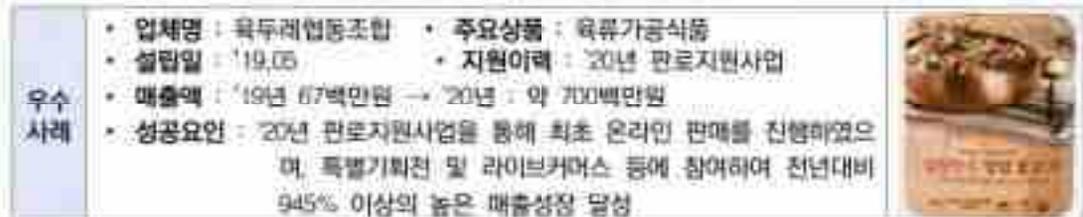
조합성장의 기초가 되는 협업교육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전국 2곳에 협업 아카데미를 추가 선정(총 10곳)하고, 협업인큐베이킹(조합설립), 협동조합 실무 교육, 갈등관리, 협업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인프라를 확충하였다. 아울러,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로드맵 구축과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교육지원 성과 제고를 위한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다.

디지털·인택트 경제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오프라인 박람회(7회), O2O(Online to Offline) 연계(우체국쇼핑몰), 라이브커머스(7회) 등을 지원하였다.

판로지원으로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올린 매출액은 74.8억원으로 전년도 매출액(36억원) 대비 108%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유명크리에이터(입팔은햇님, 170만 유튜버)를 활용한 소상공인협동조합 제품 관련 라이브커머스로 상품 인지도 제고 및 매출 신장을 도모하였다.

향후 규모의 경제 실현,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원활한 성장 등을 위해 협업교육, 판로사업 확대 및 사후관리에 주력할 예정이며,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화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림 23 | 판로지원 우수사례



라. 중소슈퍼 지원

자생할 수 있는 능력과 혁신의지가 있는 골목슈퍼를 현대식으로 육성하고, 시설현대화·정보화에 기반한 조직적 역량 결집으로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부터 나들가게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2010년부터 2020년 말 현재 총 11,730개의 골목슈퍼를 나들가게로 선정하여 점포 환경 및 경영의 개선을 지원하였다. 사업 초기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나들가게에 대한 전문가의 점포운영 종합지도를 바탕으로 PCS기기 설치, 간판교체 등을 지원하였으며, 이후에는 PCS 활용교육, 부진점포 회생지원 등 사후관리 위주의 지원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표 II-5-1-23 | 연도별 나들가게 지원 실적

(단위 : 개)

구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개정지원	2,302	3,005	4,704	-	517	232	363	254	183	98	11,658
경영지원				1,611	1,607	1,816	734	956	1,200	1,699	9,783
선도지역						6	6	10	3	-	25

201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나들가게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들가게 선도지역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년간 총사업비의 80%, 최대 12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6개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25개의 선도지역이 선정되었으며, 2020년에는 총 14개 선도지역(2018년에 선정된 3개 지역, 기존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원사업 졸업 지역 11개 지역)이 운영되었다. 이들 선도지역은 지역 상권 특성을 반영한 모델숍 육성, 정보경영개선, 지역특화상품 개발, 조직화 등의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II-5-1-24 | 나들가게 선도지역 선정현황

상징년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선정규모	6개	6개	10개	3개
선정지역	서울시 송파구, 부천시, 재천시, 제주시, 포천시, 영월군	서울시 금천구, 안양시, 안산시, 청주시, 전주시, 춘천시	서울시 동작구, 시흥시, 천안시, 충주시, 정읍시·김제시, 광주시, 김해시, 창원시, 안동시, 원주시	수원시, 광주시 서구, 목포시

한편, 2018년부터는 동네슈퍼의 협업활동을 활성화하여 자생력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슈퍼마켓협동조합 중심의 조직화를 지원하는 '동네슈퍼 체인화 지원 사업'을 운영하였다.

이 사업은 슈퍼마켓협동조합에 대해 회원 점포에 대한 경영지도, 점주교육, 상품 배송, 공동구매·마케팅 등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체인사업 운영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에 지역별로 총 7개 체인사업 운영(6개의 슈퍼마켓협동조합, 전국단위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슈퍼마켓협동조합 중심의 동네슈퍼 협업화 성공모델을 집중 육성하였다.

마.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

프랜차이즈는 개별기업들의 조직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모델이다. 개별 소상공인의 조직화 등 자생력 제고 차원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2009년 9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사업 도입,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체계 구축 및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본격 실시하면서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이 시작되었다.

음식업, 숙박업 등 일부 생계형 업종에 편중되어 있어 과당경쟁 및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조직화로 자원제약을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가 성공창업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 유망 프랜차이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직영점 1개와 가맹점 10개 이상을 운영하거나, 가맹점만 20개 이상을 운영하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정영혁신 역량, 가맹점 지원역량, 가맹계약 공정성 등 가맹본부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가맹본부 특성, 계약특성, 가맹점지원, 관계, 시스템성과 등 5개 범주를 평가한다. 이는 가맹점 보호 중심의 평가체제로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파트너십으로 공생 발전을 지향하는 평가 제도이다. 평가 점수에 따라 가맹본부를 4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등급별 맞춤형 연계지원을 추천하고 있다.

표 II-S-1-25 | 수준평가 연계지원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평가결과 지도	○ 수준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지도
우수프랜차이즈 지정	○ I~II등급에 대하여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 및 영불권 수여
브랜드 재정비 지원	○ 체계구축 컨설팅(브랜드 전략 수립 및 시스템 구축) 등 지원
가맹점주 교육	○ 브랜드별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교육 시행
홍보 지원	○ 소상공인 방송(bstv) 광고, 박람회 개최시 부스를 운영하여 우수프랜차이즈 홍보, 명예의전당 운영

수준평가가 도입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38개 업체를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하였고, 2020년에는 38개 브랜드에 대한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25개 업체를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하였다.

2020년부터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협력 성과가 우수한 가맹본부들 대상으로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진행하였고, 프랜차이즈 체계 구축, 스마트화 및 DB구축, 브랜드 디자인, 마케팅 지원 등의 분야를 지원하여 2020년에는 총 12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창의성·사업성이 뛰어난 소상공인의 가맹본부 전환 및 내실화를 위한 '유망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은 프랜차이즈 체계 구축, 브랜드 디자인, IT환경 구축 등의 분야를 지원하여 2020년에는 9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바.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물류비 절감은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된다.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라 함) 건립은 중소기업업자의 유통 물류기능의 공동화와 효율화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00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였고, 2009년에 중소기업기업부로 이관되었으며, 2020년부터는 지자체로 이관되어 실시 중이다.

중소소매업의 물류단가 인하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물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업자단체가 도매 배송, 검품, 보관 등을 위한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할 경우, 건립비의 일정비율(중앙정부:지자체:민간부담 = 6:3:1)을 지원하였다.

공동물류센터에는 2003년부터 2019년까지 38개소에 국비 78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 현재 부산, 제주 등 전국 35곳에서 운영 중이고 23곳(감배, 군산)은 건립 중이거나 개소를 준비 중이다.

표 11-5-1-26 | 시도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현황(2020.12)

(단위 : 개)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38(2)	1	3	1	1	1	1	8	3	3	5(1)	2	4	3(1)	1	1

* () 안은 건축 중인 센터 수

표 11-5-1-27 | 건립중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현황

(단위 : m², 백만원)

지역	면적	사업기간	계소매점	출사업비	국비	비고	
경남	감배	3,500	18~21	21.12	5,700	5,700	지방이양(2020년)
전북	군산	3,500	18~21	21.10	160	160	지방이양(2020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조합원 간의 공동구매와 제조사 직거래로 슈퍼마켓에 저렴한 가격의 물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민간 공급망이 부족한 지방소재 골목슈퍼의 상품구매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켜 중소소매업의 가격 경쟁력 강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중소유통물류센터 대상으로 '배송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동네슈퍼와 중소유통물류센터 간의 배송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자, 물류센터의 운영비용, 입고 시설개선, 배송장비 및 배송인력 등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2020년에 배송체계 구축 사업에 참여한 물류센터는 월평균 6.4%의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사. 백년가게 육성

그동안 소상공인은 사업체·종사자 수 등 양적 측면에서는 확대되어 왔으나 질적 측면에서 볼 때 빈번한 창업과 폐업으로 다산다사의 악순환 구조에 빠져있었다. 따라서, 일본의 노포(老舗)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대를 이어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그 성공사례를 전파하여 소상공인 생태계를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로 바꿀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증소벤처기업부는 2018년부터 업력 30년 이상 운영한 우수 소상공인 및 증소기업(단일제조업 제외)을 '백년가게'로 선정하여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모형을 확산하는 백년가게 육성 사업을 시행하였다.

2020년 누적 724곳을 백년가게로 선정하고, '백년가게 1호점 현판식(2018년 9월)을 시작으로 각 지방청에서 지역별 현판식을 진행하여 백년가게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선정된 백년가게에는 국내 유명 O2O플랫폼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홍보, 기획상품 개발, 전문가의 집중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성과확산, 개별점포의 역량강화에 기여하였다.

표 II-5-1-28 | 시도별 백년가게 선정현황(2010.12)

(단위 : 개)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청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724	91	49	29	38	31	24	100	12	60	38	51	43	56	62	43

2020년도 선정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19%가 매출이 증가, 24%가 고객이 증가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백년가게 육성사업이 소상공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표 II-5-1-29 | 전국 백년가게 지정점포(2020.12)

번호	점포명	소재지	번호	점포명	소재지
1	늘채움	전북 전주시	363	세모주단	인천 동구
2	대원동삼거리 면치막순대국	서울 영등포구	364	술굴원생면	대전 유성구
3	단석장	서울 은평구	365	신세대마용살	경남 양산시
4	선전집	서울 종로구	366	신화남	충북 보은군
5	소미엔	대구 동구	367	안삼식당	경북 칠곡군
6	을지O타너어	서울 중구	368	영두피엔아트월드	대구 중구
7	참우삼사	서울 종로구	369	영화장	서울 동대문구
8	정음남시	전북 정읍시	370	옛장터숯불갈비	충북 옥천군
9	제일스무츠	전북 정읍시	371	필드헤어소미용살	서울 강동구
10	백년가게국채의료기	대구 달서구	372	유구식당	충남 공주시
11	진미양념통닭	강원 원주시	373	이온해어센스	광주 북구
12	탑외국어사(이엠티촌)	전북 전주시	374	인하집밥순대	경기 부천시
13	협신전자	부산 부산진구	375	알떡	전북 정읍시
14	형재상회	서울 은평구	376	정미합국수	전북 군산시
15	화성갈비	경남 창원시	377	정흥회관	경기 이천시

연번	상품명	소재지	연번	상품명	소재지
16	개미상회	전북 고창군	378	정완식당	울산 중구
17	명동칼국수(시형제)	서울 중구	379	제일안경원	경기 안산시
18	백초당한약방	대구 중구	380	이동빙파스텍	경기 양주시
19	부산복집	서울 중구	381	이오명식당	경기 의정부시
20	불로식당	경남 창원시	382	이성철부토	경남 진주시
21	세라미	부산 사하구	383	이동나무집담갈비	강원 춘천시
22	육미아구름	부산 수영구	384	이화월당	전남 순천시
23	옥수굴비	전남 영광군	385	중앙당	충북 청주시
24	외바우	경북 경주시	386	진주광농악	경남 진주시
25	장군식당	서울 노원구	387	창원무드	경남 창원시
26	청신한약방	대구 중구	388	천일서집	강원 동해시
27	해니로화관	서울 종로구	389	정시미용실	대전 서구
28	함원복집	제주 서귀포시	390	청천영농조합법인	충남 보령시
29	해화당한약방	전북 전주시	391	초당할머니순두부	강원 강릉시
30	공원당	충북 청주시	392	초리골초계탕	경기 파주시
31	대동관	충북 청주시	393	최동순배이커리	인천 마추출구
32	동래할매파전	부산 동래구	394	충주간죽차재	경북 포항시
33	봉래식당	경남 창원시	395	태극당	서울 중구
34	재건갈비	충북 청주시	396	말할순대국	강원 속초시
35	재천식육점	충북 제천시	397	확성살코	경남 진주시
36	칠암약국수	강원 철원군	398	한우일인가충북진미집	충북 단양군
37	나드리	경북 영주시	399	한일당	부산 금정구
38	남주돌매참국	충북 청주시	400	한일식당	충남 예산군
39	동송촌	강원 삼척시	401	할매설렁탕	경기 안산시
40	동신위생도기	대전 대덕구	402	함흥냉면	서울 영등포구
41	판독동나무집식당	충남 태안군	403	충원도말안테리어	부산 남구
42	만들래	광주 서구	404	충철수대일러	부산 중구
43	선화당분식	충북 청주시	405	화산축산	전북 전주시
44	연암한우불고기	울산 울주군	406	수정궁회집	강원 강릉시
45	진주회관본관	충남 천안시	407	스마일호스텔	강원 속초시
46	큰덕	충남 천안시	408	임미달강정주식회사	강원 영월군
47	원도안전상사	대전 대덕구	409	동광식당	강원 정선군
48	(신)대원육	경기 수원시	410	민주일미동굴	강원 춘천시
49	77돌굴칭	부산 사상구	411	성별약국수	강원 춘천시
50	개화화관	전북 부안군	412	원조남부약국수	강원 춘천시
51	고려와문석	인천 강화군	413	맛골	강원 평창군
52	금매일	전남 목포시	414	쓰리에이안경	경기 수원시
53	금수장장어구이	충북 청주시	415	화성기름집	경기 성남시

연번	기업명	소재지	연번	기업명	소재지
54	금화상회	경기 수원시	416	대성기름집	경기 성남시
55	단공집	충북 진천군	417	성경기름집	경기 성남시
56	대한서림	전북 익산시	418	가나박스	경기 시흥시
57	더리마집	인천 강화군	419	할리바버십	경기 안산시
58	동신명가	서울 강동구	420	청속해미용실	경기 안양시
59	동아서림	강원 속초시	421	어부집	경기 파주시
60	동이의로보조기,보청기	경북 안동시	422	할머니집	경기 여주시
61	베바우명가춘천막국수	강원 춘천시	423	대성보세	경남 거창군
62	부영선자국	인천 미추홀구	424	풀풀이서당	경남 김해시
63	새인보면옥	서울 은평구	425	임진강식당	경남 명산시
64	송애집	충북 진천군	426	맛쟁이뷰티	경남 창원시
65	산안촌	서울 종로구	427	함안잡바	경남 창원시
66	안일옥	경기 안성시	428	선화소공탕식당	경북 경산시
67	알미음	인천 강화군	429	해어살롱치치성모점	경북 구미시
68	명인관	충북 음성군	430	신대별라미용실	경북 강천시
69	유일관	경기 가평군	431	태극당	경북 영주시
70	일송면옥	부산 금정구	432	부토피아면	경북 영천시
71	(주)경역농수산	전남 순천시	433	안계수산	경북 의성군
72	죽도집	부산 기장군	434	대경식당	경북 칠곡군
73	지동관	경기 의정부시	435	서울계면공업사	광주 광산구
74	진마식당	전북 익산시	436	옥주카센터	광주 남구
75	창성옥	서울 용인구	437	랜드사무기	광주 동구
76	청해진	서울 강동구	438	이순미용실	광주 북구
77	큰마을영양공법	충남 서산시	439	대구종합익기사	대구 남구
78	풍미동당	전남 순천시	440	새천년카플리네	대전 동구
79	한국백보상사	부산 영도구	441	형제집	대전 중구
80	형흥냉면옥	강원 속초시	442	한국백제필방	대전 중구
81	BB완당집	부산 해운대구	443	이홍용베이커리	부산 남구
82	개미집	부산 중구	444	할매말빙수단팔죽	부산 남구
83	경동수산	경북 포항시	445	내호냉면	부산 남구
84	구백식당	전남 여주시	446	다다우동	부산 남구
85	남문소리사	전북 전주시	447	대우양복점	부산 동구
86	남한산성은행나무집	경기 광주시	448	아구본가현명신시본 점	서울 강남구
87	뉴욕제과	강원 속초시	449	이태라인경	서울 관악구
88	도시골동나무집	강원 춘천시	450	실크로드, 송림가	서울 구로구
89	동양직물	서울 종로구	451	궁중떡집	서울 금천구
90	마방아일드치킨	충남 서산시	452	강성자해어	서울 금천구
91	우진정갈비촌	전북 익산시	453	면회개운	서울 서대문구

연번	기업명	소재지	연번	기업명	소재지
92	미진과자점	경남 창원시	454	주식회사 피터팬식품 (피터팬1978)	서울 서대문구
93	밀밭베이커리	대구 중구	455	삼호복집	서울 서초구
94	보국당	경남 창원시	456	지류양복점	서울 성동구
95	복서울식당	충북 충주시	457	이낙근창업역 베이커리카페	서울 송파구
96	부일사무가구	경남 진주시	458	브리아몽 베이커리	서울 은평구
97	상성굴비	전남 영광군	459	주식회사 로세니	서울 종로구
98	삼희정	인천 남동구	460	부원식당(부원연옥)	서울 중구
99	선동보리밥	서울 성북구	461	진주회관	서울 중구
100	성충문귀상사	충북 충주시	462	평양연옥	서울 중구
101	신미당	대전 유성구	463	신한양식당	서울 중구
102	신토불이	전북 전주시	464	부암갈비	인천 남동구
103	신평순대	인천 중구	465	성산돌담방이	인천 미추홀구
104	신흥장어	전남 나주시	466	신흥부대고기	인천 중구
105	예산안경원	충남 예산군	467	버팀라인	인천 중구
106	운천입구기장공장어	부산 동래구	468	낙원떡집	전남 순천시
107	이발식당	경남 창원시	469	원조백화야생면	전북 군산시
108	장안면옥	경기 안성시	470	국제금고시	전북 군산시
109	₩정일품다이아몬드	대구 중구	471	₩이성당	전북 군산시
110	종양집	경남 진주시	472	형치떡	전북 익산시
111	진해떡과	경남 창원시	473	이경은혜어떡	제주 제주시
112	초명정육점	충북 진천군	474	이태리안경	제주 제주시
113	한국진열대산업사	대전 대덕구	475	늘원꽃집	제주 제주시
114	함흥냉면	인천 부평구	476	공산원조김정아삼계당	충남 공산군
115	형제돌구이	대전 유성구	477	삼씨네젓갈식품	충남 논산시
116	형제상회	서울 양천구	478	민속떡집	충남 당진시
117	3대원조할매주어탕	전북 남원시	479	복지서점	충남 천안시
118	고궁식당	울산 중구	480	달동네순대	충북 단양군
119	고북래냉면	경기 평택시	481	신흥지업사	충북 음성군
120	광월농익농자재전채사	경북 의성군	482	명동왕족	충북 제천시
121	남들갈비	충북 청주시	483	천송동당	충북 청주시
122	노송식당	충북 제천시	484	금강살림탕	충북 청주시
123	대동감식당(대동정)	대구 남구	485	돌림떡집	충북 충주시
124	대창군식당	충북 충주시	486	오복떡본가	강원 원주시
125	대한식당	전남 광양시	487	옥산장돌과이어기	강원 정선군
126	덕포식육점	부산 사상구	488	광명달면트	경기 광명시
127	덕화상회	경북 영주시	489	재궁태권도장	경기 군포시
128	몬버어전가(구 태능갈비)	인천 중구	490	김포왕상회	경기 김포시

연번	기업명	소재지	연번	기업명	소재지
129	매향칠공(매향상사)	경기 수원시	491	웅림픽신방	경기 김포시
130	미학정갈비	강원 정선군	492	한화하이안세탁	경기 김포시
131	민물추어탕	경기 수원시	493	한경한약방	경기 김포시
132	원주복추어탕	강원 원주시	494	삼마탕	경기 부천시
133	부일산채식당	경북 김천시	495	이안결	경기 부천시
134	신호짬갈비산호식당	대구 중구	496	행복한밥상	경기 부천시
135	삼마족발	충북 청주시	497	무드아트	경기 성남시
136	상남할인마트 (구 상남슈퍼마켓)	강원 인제군	498	츄주기분집	경기 성남시
137	세필즈과자점	인천 서구	499	대성이밥관	경기 수원시
138	송원	인천 미추홀구	500	대하건재막업사	경기 수원시
139	숙영식당	경북 경주시	501	진천식당	경기 수원시
140	사골집	강원 원주시	502	깨끗이부부	경기 시흥시
141	사골집	충남 공주시	503	맨스헤어몽스튜디오	경기 시흥시
142	신동량	인천 중구	504	비슬구지해다귀관자 탕	경기 시흥시
143	신촌매운탕	전북 남원시	505	미안경박사	경기 안산시
144	쌍용반점	전북 군산시	506	그때그집	경기 안성시
145	애벌제화	전남 장흥군	507	마로니에	경기 안성시
146	운정식당	전북 군산시	508	안성명공성회	경기 안성시
147	은정갈비	충남 아산시	509	남한강송어맛집	경기 여주시
148	이천용인닭발분점 (구 용인닭발)	경기 이천시	510	단골집	경기 여주시
149	일미해장국	충북 옥천군	511	용인백집	경기 용인시
150	전동집	인천 연수구	512	경원식당	경기 의정부시
151	전주식당	전남 함평군	513	고산떡갈비	경기 의정부시
152	청화네하우스	대구 북구	514	해상장식	경기 미천시
153	진미육셀농장	서울 송파구	515	경기모타	경기 파주시
154	찰냉집	부산 금정구	516	청어원	경기 포천시
155	풍년오리박사	부산 금정구	517	대로식당	경기 화성시
156	한우건축지제	충북 청주시	518	석정	경기 화성시
157	호남종묘사	전남 강진군	519	태양이밥관	경기 화성시
158	강전사	광주 서구	520	황보회관	경기 화성시
159	거구장갈비	경남 통영시	521	일미북오리천분침	경남 김해시
160	경북궁식당	경북 김천시	522	박천해마리방	경남 밀양시
161	광영반점	대구 북구	523	향촌식육식당	경남 밀양시
162	금강보글보글섞어찌개	서울 중구	524	배기연미용기능장익집	경남 진주시
163	금강식당	충북 단양군	525	이화꽃집	경남 창원시
164	낙원각	부산 사상구	526	삼도왕족발보쌈	경남 창원시

연번	점포명	소재지	연번	점포명	소재지
166	남산상회	서울 중구	527	아름다운안경가	경남 창원시
169	남산문구사	인천 부평구	528	거북당재과	경남 통영시
167	대구갈비	경북 경주시	529	무친상회집	경남 통영시
168	대동할매국수	경남 김해시	530	한려갈비	경남 통영시
169	대원상회전통간고동어	경북 안동시	531	한산생식당	경남 통영시
170	대일정	전북 정읍시	532	물안	경북 경산시
171	대호정	서울 금천구	533	대회물집	경북 경주시
172	대흥상회	강원 평창군	534	브이아이피에일과	경북 구미시
173	덕화방	경기 양주시	535	경북유동	경북 상주시
174	동원가든	충북 제천시	536	짜치구멍집	경북 안동시
175	동해우	충남 홍성시	537	맛우짜	경북 안동시
176	리정식당	충북 청주시	538	옥류관면옥	경북 안동시
177	만물수산	경북 영천시	539	현악기사	경북 안동시
178	물맑초식당	전남 여수시	540	동양순대	경북 영주시
179	미락복집	경기 성남시	541	88수족관	경북 포항시
180	발안건재	경기 화성시	542	삼육식당	경북 포항시
181	보문각	강원 춘천시	543	시민재과	경북 포항시
182	북화루	인천 부평구	544	왕대지갈비식당	경북 포항시
183	봉암식당	경기 안양시	545	자금성반점	경북 포항시
184	부천식육점	부산 사하구	546	춘천닭갈비	경북 포항시
185	삼보식육점	충남 서산시	547	화신MTB수완점	광주 광산구
186	서울식당	충북 괴산군	548	화신종묘사	광주 광산구
187	성현막국수	서울 동대문구	549	화정떡갈비	광주 광산구
188	솔힐머니울살집	경기 수원시	550	내고향육연구소	광주 남구
189	아이러브뮤직	부산 중구	551	진월카센타	광주 남구
190	아이클럽	부산 중구	552	남영속물라워&아트	광주 동구
191	용방맛간	인천 부평구	553	아이삼안경점	광주 동구
192	우성대중음식점	전남 강진군	554	천지메이	광주 동구
193	월성	경북 포항시	555	에덴미용아트	광주 북구
194	유학식당	전북 군산시	556	버들식당	대구 달서구
195	이화화집	경기 화성시	557	자인방앗간	대구 달서구
196	조선옥갈비	강원 태백시	558	최정자백년식당	대구 북구
197	침개국수	대구 수성구	559	싱글벙글숯불막창식당	대구 북구
198	침림건재사	경북 포항시	560	최원프리모	대구 서구
199	축산본점식육식당	경북 영주시	561	코스모스북	대구 중구
200	춘모상회	전북 익산시	562	태화상	대전 중구
201	태백식육점	강원 태백시	563	솔밭목집	대전 유성구
202	평부자슈퍼	경기 안양시	564	※장충동왕족발	대전 유성구

연번	기업명	소재지	연번	기업명	소재지
203	평남식당	경북 모항시	565	나이테플라워	대전 중구
204	하동집	경남 진주시	566	로쏘주식회사성상당	대전 중구
205	한국미선 현필원	충남 예산군	567	시류	대전 중구
206	임흥막국수	강원 속초시	568	진주추어탕	부산 금정구
207	해대식당	전남 강진군	569	세찬안경원	부산 북구
208	햇님제과점	대구 중구	570	공보식당	부산 사상구
209	호동식당	경남 통영시	571	피밀리아제과점	부산 사상구
210	화정소바	경남 의령군	572	갈왕설탕입력	부산 사하구
211	황산옥	충남 논산시	573	신흥마트	서울 강북구
212	김오상회	경기 의정부시	574	엘림식품	서울 강북구
213	거북이안경	광주 동구	575	양정부부대찌개	서울 강북구
214	경방루	전북 남원시	576	비장불양제리	서울 관악구
215	고궁삼계탕	울산 남구	577	광나무순대	서울 광진구
216	고려분식	경북 상주시	578	서북면옥	서울 광진구
217	고려회관	대전 중구	579	두부백사	서울 금천구
218	고심동숯불갈비 육전선자국	경남 진주시	580	만두라	서울 금천구
219	고추나비	서울 중구	581	창안정	서울 동대문구
220	구름진식당	충남 서산시	582	수원상회	서울 동작구
221	굴다리식당 만매상	충남 아산시	583	나물래옹과자점	서울 성북구
222	극동제과	대전 중구	584	부대신제과	서울 성북구
223	금호	광주 평산구	585	태조집태조 감자국산신여대점	서울 성북구
224	꽃담	광주 동구	586	유전냉면	서울 송파구
225	나루터식당	충남 부여군	587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한씨떡집	세종 세종시
226	대남동남	경북 경주시	588	오세철헤어드레스	울산 남구
227	대운정	서울 영등포구	589	임병용영인의 활전복어요리연구소	울산 동구
228	대성암본가초밥집	경북 김천시	590	연안정육점	인천 강화군
229	대성	대구 북구	591	천우정	인천 강화군
230	대흥옥	인천 강화군	592	시청정육점	인천 계양구
231	박수갈비	인천 부평구	593	작천건어물	인천 계양구
232	돌고래식당	부산 부산진구	594	황해모일냉면	인천 남동구
233	동아칠크	광주 동구	595	부평복음서점	인천 부평구
234	동양인상사	경북 영주시	596	부흥상회	인천 부평구
235	동원건어물	강원 강릉시	597	삼강옥	인천 중구
236	동해순대국	강원 속초시	598	서울순대	전남 목포시
237	마리온칩	부산 부산진구	599	건봉국밥	전남 순천시

연번	영양명	소재지	연번	영양명	소재지
238	매일화관	전북 김제시	600	온정떡집	전남 순천시
239	명랑식당	대전 동구	601	일성의류타운	전남 순천시
240	문창그릇백화점	대전 중구	602	대천수리사	전남 신안군
241	미도상사	서울 동대문구	603	(유)금성상회	전남 여수시
242	민부근과자점	서울 노원구	604	까치식당	전남 여수시
243	뽕로베이크리	경남 창원시	605	관양떡집	전남 장성군
244	백제가든	전북 익산시	606	한일침구사	전남 함평군
245	백제장	경기 김주시	607	명월갈비	전북 군산시
246	백학정	전북 정읍시	608	유정초밥	전북 군산시
247	별천지	대전 동구	609	일흥옥	전북 군산시
248	보은집	충남 논산시	610	새집	전북 남원시
249	부일식당	인천 부평구	611	세종해어	전북 남원시
250	신성식당	경북 영천시	612	흥부골남원후어당	전북 남원시
251	삼경일식	서울 서대문구	613	홍포수선	전북 부안군
252	서울갈비식당	경북 안동시	614	여성시대해어 익산롯데마트점	전북 익산시
253	서창식육점	울산 남구	615	한양불고기	전북 진주시
254	석양집	서울 마포구	616	한일권본점	전북 진주시
255	성미당	전북 진주시	617	서선민해어	전북 청주시
256	송어먹집	강원 평창군	618	로덴나무	제주 제주시
257	수역산방	경기 파주시	619	용부별장가든	제주 제주시
258	수봉식당	대구 북구	620	명성불고기집	충남 공주시
259	수향	경남 통영시	621	초가집	충남 공주시
260	신가네청음국밥	전북 정읍시	622	박가네집	충남 금산군
261	신광주방	충북 충주시	623	주식회사 태농초가집갈비	충남 논산시
262	신도리한우촌	충남 계룡시	624	이남래전통한복	충남 서산시
263	신라식당	충북 보은군	625	황해발상회	충남 서산시
264	양곡콩모듬약사	경기 김포시	626	진미식당	충남 서천군
265	열지사며	경기 부천시	627	신은수침방천순대집	충남 천안시
266	영광종로농약사	경기 고양시	628	광천원조어죽	충남 홍성군
267	영빈루(주)왕기봉	경기 평택시	629	이재천해어잡	충북 증평군
268	용두식당	경북 김천시	630	곰기내	충북 진천군
269	이윤순한복	부산 부산진구	631	마라도음식	충북 진천군
270	장모육계육통	경남 창원시	632	충대구내이용원	충북 청주시
271	정관식당	부산 수영구	633	질고개밥방	충북 제천시
272	조영옥꽃방	전남 해남군	634	갈마가든	충북 충주시
273	#대성천자	광주 동구	635	봉서식당	충북 충주시
274	중앙서점	전남 순천시	636	에이치에스미디어	충북 충주시

연번	기업명	소재지	연번	기업명	소재지
275	진주당	부산 동래구	637	가족회관	전북 전주시
276	진해식당	경북 울진군	638	기모옛날영도집	경남 창원시
277	충남왕족발	충남 예산군	639	갯바위	경기 군포시
278	태화루	경남 밀양시	640	경화춘	경남 김해시
279	일보야구장	경기 안산시	641	광성TV	전남 함평군
280	풍기삼계탕	경북 영주시	642	구강촌	경남 김해시
281	풍년식당	전남 목포시	643	군포식당	경기 군포시
282	풍년지불모	경기 화성시	644	귀부인주단	광주 동구
283	풍미당	충북 옥천군	645	금강청	전북 전주시
284	하명사	서울 중구	646	길북식당	경남 통영시
285	한국식당	전남 광양시	647	낙원막방맛간	인천 마추출구
286	한백집	전북 전주시	648	남영스튜디오	경남 창원시
287	한일식당	전북 익산시	649	농업회사법인 킴스어페드뷰	대전 유성구
288	현대물당병이	인천 동구	650	대우족발	대구 북구
289	홍농갈비	경기 고양시	651	동궁영소탕	강원 강릉시
290	홍농갈비	서울 도봉구	652	동봉	대구 북구
291	화성식육식당	전남 화순군	653	동이수산(유한)	경기 안양시
292	가미산국밥	부산 해운대구	654	동화가든평생순두부	강원 강릉시
293	강남횡집	울산 울진	655	두영음식점	전남 무안군
294	고성공향	경남 통영시	656	마라도화식당	경북 포항
295	골목냉면	서울 성동구	657	마포나루(호침)	서울 마포구
296	극동청과	서울 영등포구	658	맥이당	충북 청주시
297	날일공정어	부산 영도구	659	벨리해어	경남 진주시
298	단골동넛	충남 공주시	660	보안당안경	경기 고양시
299	대발횡집	서울 동작구	661	봄담디지털스튜디오	경기 화성시
300	대성인물매운탕	경기 양주시	662	봉우깃집	충북 충주시
301	대성식당	전남 여주시	663	부산한복	인천 동구
302	동강오리	서울 중랑구	664	산삼장어구이 앤 시청횡집	경남 밀양시
303	두꺼비집	경기 안산시	665	산중식당	대구 북구
304	풍보냉면	서울 중구	666	성심애공원	서울 용산구
305	안리할	경남 김해시	667	송도갈매기주식회사	인천 연수구
306	빙글빙글뽕갈비	대구 중구	668	송향별	경기 고양시
307	부일공향	경기 부천시	669	송월관	경기 동두천시
308	부일횡집	경남 통영시	670	유포부랑재	경기 김포시
309	선물함식당	충남 공주시	671	신갈안경원	서울 영등포구
310	삼미옥	서울 관악구	672	신학원	서울 동대문구
311	삼원슈퍼	서울 동작구	673	삼순녀인홍분행	강원 횡성군

연번	기업명	소재지	연번	기업명	소재지
312	세서울정육점	경기 광명시	674	안경나라콘택트	전북 고창군
313	사촌꽃농원	광주 서구	675	익종말면	부산 남구
314	소문난횡집	경남 김해시	676	양산꽃화원	경남 양산시
315	송극	광주 광산구	677	양지말피로구이	강원 홍천군
316	신사동축발	울산 중구	678	양평영물한우	경기 양평군
317	신진방수백화점	부산 동구	679	에이큐양복점	경기 평택시
318	이씨주당	광주 동구	680	여정식당여문점	전남 여수시
319	우정식당	경남 양산시	681	연화점상계탕	대구 달서구
320	원조식대추어탕	부산 해운대구	682	영광굴비	전남 영광군
321	이화면재상사	부산 부산진구	683	옛길	대구 중구
322	일마장어	서울 용산구	684	은천골	경북 경산시
323	장원보쌈	서울 강동구	685	용문마트	경기 여주시
324	장구분식	제주 제주시	686	윤채	강원 원주시
325	충주상회	서울 영등포구	687	유림국기삼백사	전북 전주시
326	역전동닭(당시무소)	전남 순천시	688	유진태일러	전남 목포시
327	판문점	경남 창원시	689	윤일대	서울 마포구
328	목포수식당	경기 안양시	690	인천식당	인천 중구
329	한길안경원	경남 통영시	691	일성시양복점	부산 부산진구
330	할매횡집	경남 창원군	692	일월정 토속한정식	대구 달성군
331	횡흥보쌈	부산 영도구	693	정흥식품 우신계란	전남 칠곡군
332	황산냉면	서울 송파구	694	전남의료기상사	광주 동구
333	호르는음	인천 중구	695	정금주한복연구실	경기 과천시
334	홍부보쌈	서울 관악구	696	㈜역화푸드	부산 서구
335	1번가	울산 남구	697	㈜해나무골	서울 서초구
336	기천식당	충북 영동군	698	주식회사 명가역국수	강원 춘천시
337	강원발봉	강원 원주시	699	주식회사 예향	전남 강진군
338	건계정	경남 거창군	700	㈜여의도떡방	서울 강남구
339	공천관	광주 남구	701	㈜한일관	서울 강남구
340	강영숙해머스쿨	울산 중구	702	㈜해운대합소갈비집	부산 해운대구
341	대경사	경남 창원시	703	지리산식당	전남 구례군
342	대한제육사	전북 익산시	704	진마정육점	경기 고양시
343	도일재	서울 강서구	705	한일식당	전남 해남군
344	동양고무상회	충북 영동군	706	침주왕족발, 보쌈	충북 진천군
345	동양한지	서울 종로구	707	침하	광주 중구
346	도와유식당	충북 음성군	708	최산애	강원 원주시
347	마당숯불갈비	경북 영주시	709	태양하우스마트	전남 나주시
348	마포실령당	경기 수원시	710	통인두집	전남 여수시
349	만수옥	서울 종로구	711	편대장 명화식당	경북 영천시
350	영동감자탕	경북 영주시	712	포항할매집	경북 영천시
351	문우당서얼	강원 속초시	713	풍년기쁨집	서울 중구

연번	기업명	소재지	연번	기업명	소재지
352	문화서점	충남 아산시	714	한려곰장어	경남 통영시
353	방자네 (산골물)	서울 종로구	715	한밭식당	충남 홍성군
354	부산제과	경남 창원시	716	한양모사	광주 동구
355	불린스안경원	부산 부산진구	717	한얼이머용실	광주 동구
356	산본사장정육점	경기 군포시	718	함씨네트총공식품	전북 전주시
357	삼익하동재협곡	부산 사상구	719	양옥장	경남 김해시
358	세로나제과	대전 서구	720	호원당	서울 강남구
359	셋별초가집식당	경남 거창군	721	혼수타운	경기 부천시
360	서울떡두기	경기 안산시	722	홍두깨	경기 모천시
361	신경이별주단	울산 중구	723	화랑공회관	광주 동구
362	성안식당	제주 제주시	724	희망통닭	부산 동래구

3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 지역상권과 차 석 규

소공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사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사업체로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에 기반하여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36만개 사업체에 116.6만 명이 종사하여 전체 제조업 대비 사업체수로는 83.8%, 종사자수로는 28.7%를 차지한다.

제조과정에서 부품 및 반제품 제작 등으로 완제품의 제작에 기여하고 숙련기술로 부가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으나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후화된 시설은 경쟁력을 저해하고, 협업부족으로 완제품 생산 및 판로개척에 애로를 겪고 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2015년 시행하여 집적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공동기반시설 등), 개별소공인의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 등 소공인 전용사업을 마련하여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2020년 12개 시도에서 식료품(성남 상대원동), 의류제조(부산 범일동) 등 34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경영·기술교육, 컨설팅, 협업공동사업, 작업환경 개선 등 399개 사업으로 총 6,386명을 지원하여 참여소공인의 44.8%가 연평균 1.9%의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소공인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유도하고 집적지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제조장비, 공동창고, 전시·판매장 등 공동기반시설을 경기, 인천, 부산 등 7개 지역에 추가 구축하여 총 30개로 확대하였다.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체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온·오프라인몰 입점, 전시회 참가, 뉴미디어 마케팅, 홍보영상 광고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265개사를 지원하였으며, 성과 조사 결과 매출액은 15.5%, 고용인원은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1-30 |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내역(2020.12월말 기준, 중복제외)

(단위 : 백만원)

구분	요리 인물	오뜨 라인물	뉴하 디아	전시의 장기	전시관 코코	디자인 자식	KC 인물	해외 매출	마케팅 전략	계 총합
신청수	119	31	209	94	199	201	54	45	266	208
지원액	634	118	1,924	401	1,707	1,482	120	112	319	6,792

기술경쟁력 확보와 제품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소공인 49개사를 선정하여 원천 기술 확보, 신제품 개발, 기술애로 해소를 통한 공정개선 등을 지원하였다.

특히, 3개 지역(3곳(서울 마포, 경북 영주, 경기 화성)을 선정하여 소공인 집적지 내에 비즈니스 복합공간인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공동기반시설 및 스마트 제조장비, 전시판매장, 온라인 마케팅, 교류 등)의 설치를 지원하였다.

표 II-5-1-31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 현황(2020.12월말 기준)

번호	설치명	입적지	분야	비고
1	서울 을지로 인쇄 센터	중구방림동	인쇄	'13년 개소
2	서울 창신 의류제조 센터	종로구창신동	의류봉제	
3	서울 문래 기계·금속 센터	영등포구문래동	기계금속	
4	부산 범일 의류제조 센터	동구범일동	의류봉제	
5	대구 성내 주얼리 센터	중구성내동	귀금속	'14년 개소
6	서울 장위 의류봉제 센터	성북구장위동	의류봉제	'15년 개소
7	서울 불익 주얼리 센터	종로구불익동	귀금속	
8	시흥 대야 기타기계장비 센터	시흥시(신천동)	기계금속	
9	화성 향남 기타기계장비 센터	화성시(말탄면)	자동차부품	
10	대전 정동 인쇄 센터	동구정동	인쇄	
11	대전 상서 금속가공 센터	대덕구상서동	기계금속	
12	공산 인성(식품) 센터	공산권(공산읍)	식품(인성)	
13	부산 범천 귀금속 센터	부산진구범천동	귀금속	

연번	센터명	소재지	분야	비고
14	부산 범천 가족가방신발 센터	부산진구(범천동)	가족신발	'16년 개소
15	광주 서남 인쇄 센터	동구(서남동)	인쇄	
16	전주 팔복 금속가공 센터	전주새싹북동)	기계금속	
17	고양 정형 인쇄 센터	고양새정항동)	인쇄	
18	부천 신흥 전기장비 센터	부천시(신흥동)	전기장비	
19	용인 영덕 전자부품 센터	용인시(영덕동)	전자부품	
20	인천 송도 기타기계장비 센터	연수구(송도3동)	기타기계장비	
21	대전 오정 기타기계장비 센터	대덕구(오정동)	기타기계장비	
22	서울 독산 의류제조 센터	금천구(독산동)	의류봉제	
23	성남 상대원 제과제빵제조 센터	성남시(상대원동)	제과제빵	
24	청주 중앙 인쇄 센터	청주시(중앙동)	인쇄	'18년 개소
25	전북 순창 장류제조 센터	순창군(순창읍)	장류제조	
26	대구 범리 의류봉제 센터	서구(범리동)	의류봉제	
27	군포 당정 금속가공 센터	군포시(당정동)	금속가공	
28	대구 대봉 의류봉제 센터	중구(대봉동)	의류봉제	
29	김해 진례 도자 센터	순창군(순창읍)	비금속광물(도자기)	20년 개소
30	대구 노원 안경학 센터	북구(노원동)	안경	
31	경기 포천 가산가구 센터	포천시(가산면)	가구	
32	경기 안양 전자부품 센터	인양시(관양동)	전자부품	
33	전남 무안 도자 센터	무안군(청계면)	도자	
34	서울 광진 의류제조 센터	광진구(중곡동)	의류봉제	

표 II-S-1-32 | 공동기반시설 연계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현황(2020.12월말 기준)

순번	연계	별칭	비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기계금속(C24, C25, C29) 집적지구	문래동	'16년 지정
2	서울특별시 중로구 봉익동, 묘동, 뚝섬동 기타 제품 제조업(C30) 집적지구	봉익동, 묘동, 뚝섬동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가족,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집적지구	성수동	
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집적지구	중앙동	'17년 지정
5	경기도 시흥시 대야·신천동 기계·금속(C29, C25) 집적지구	대야·신천동	
6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식품업(C10) 집적지구(산업단지 제외)	주문진읍 (산업단지 제외)	
7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의류(C14) 집적지구	범일동	
8	경기도 양주시 남면 섬유제품(C13) 집적지구(산업단지 제외)	남면 (산업단지 제외)	
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C26) 집적지구	영덕동	
10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식품업(C10) 집적지구	사천면	
11	강원도 인제군 북면 식품업(C10) 집적지구(산업단지 제외)	북면 (산업단지 제외)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의류(C14) 집적지구	독산동	'18년 지정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 월곡동, 장위동, 종암동, 석관동 의류(C14) 집적지구	보문동, 월곡동, 장위동, 종암동, 석관동	
14	경기도 군포시 군포1동 금속가공(C26) 집적지구	군포1동	
15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구(C32) 집적지구	가산면	
16	대구광역시 중구 대동1동 의류(C14) 집적지구	대동1동	'19년 지정
17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동 인쇄 및 기록매체(C18) 집적지구	서남동	
18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비금속 광물제품(C29) 집적지구	진례면	
19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식품업(C10) 집적지구	순창읍 일원	
2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식품업(C10) 집적지구	상대원동	

연 번	영 향	업 위	비 고
21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팔단·청남면 기타기계 및 장비(C29) 집적지구	향남읍, 팔단·청남면	
2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통신장비(C26) 집적지구	관양동	
23	대구광역시 중구 성내동 기타 제품(C33) 집적지구	성내동	
24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금속 가공제품(C25), 기타기계 및 장비(C29) 집적지구	오정동	'20년 지정
25	경기도 여주시 오학동 북내면, 대신면 비금속광물(C23) 집적지구	오학동, 북내면, 대신면	
2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오포읍, 광남동 가구(C32) 집적지구	초월읍, 오포읍, 광남동	
27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송림동 금속 가공제품(C25), 전기장비(C28), 기타기계 및 장비(C29) 집적지구	송현동, 송림동	
29	광주광역시 동구 송장로 4,5가 기타제품(C33)집적지구	송장로 4,5가	
30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C14) 집적지구	서동	

표 II-5-1-33 |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지원 현황('22.12월말 기준)

연 번	지자체	집적지구	주요업종	비 고
1	충청남도 공주시	육구읍 일대	섬유제품(C13)	'19년 지정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면목·삼봉동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C14)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20년 지정
4	경상북도 영주시	용기읍	식품업(C10)	
5	경기도 화성시	불당읍	금속가공제품(C25)	

제6절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활력 제고

1 전통시장 현황

- 전통시장육성과 이 제 출
- 전통시장육성과 김 은 성

많은 국민들의 생업 터전인 전통시장은 2019년 현재 전국에 1,413개이며, 점포 20.7만개에서 상인 34.2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전통시장 실태조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9년 12월) 전통시장 실태조사 보고서(2019년 12월)에 의하면 2018년 대비 전통시장은 24개 감소, 점포는 약 0.2만개가 증가하였고, 상인은 1.7만여명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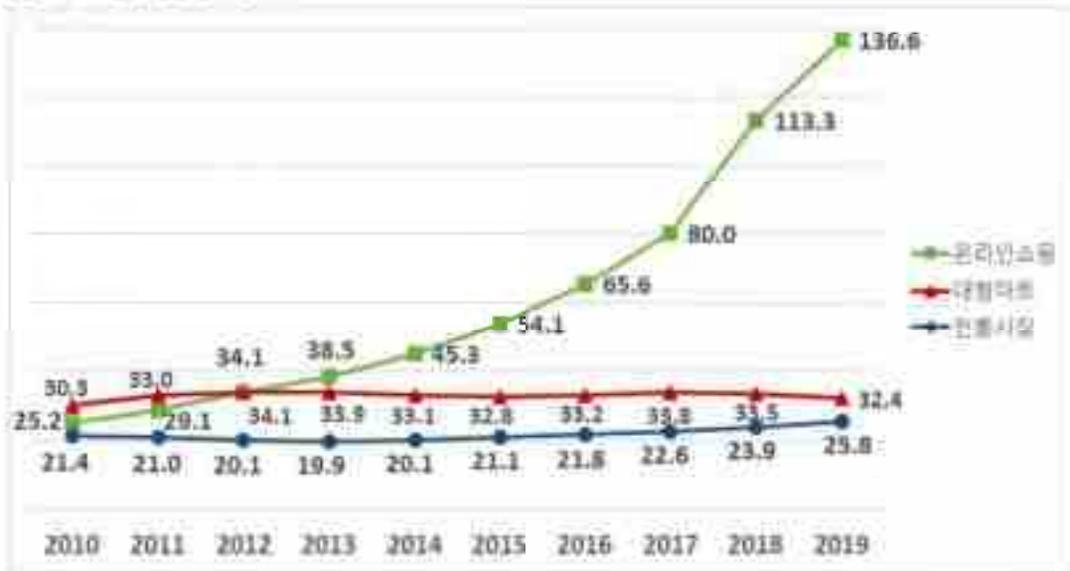
표 11-5-1-34 | 면도별 시장수·점포수·상인수 비교

구 분	시 장 수	점 포 수	상 인
2013년	1,372개	203,038개	334,370명
2014년	1,398개	203,643개	353,070명
2015년	1,439개	207,083개	356,176명
2016년	1,441개	209,193개	368,830명
2017년	1,450개	209,884개	363,660명
2018년	1,437개	205,271개	359,049명
2019년	1,413개	207,643개	342,031명

대형마트·SSM 등 기업형 유통점의 골목상권 잠식, 소비 트렌드 변화(온라인·소량·근린형 등), 저성장 고착화에 따른 서민층의 소비여력 저하 등으로 2013년까지는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감소세였으나, 2014년 최초로 매출액이 반등하여 2019년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 (70년대) 전통시장 ⇨ (70~80년대) 업체합수퍼마켓 ⇨ (90년대) 편의점·대형마트 ⇨ (00년대 이후) 온라인·홈쇼핑·SSM

그림 24 | 유통형태별 매출 추이



- 1) '10년~'14년 대형마트 매출액은 소매업태별 판매액 지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수치임.
- 2) 온라인쇼핑동행조사는 2018.2월 표본개편으로 시계열 변경
- 3) 자료 : 온라인쇼핑동행조사(동계형), 서비스업 동행조사(동계형),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활성화가 양호한 시장이 51.4%(726개), 취약한 시장은 9.7%(137개)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인조직 활성화, 빈점포 감소, 서비스 향상 등 시장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의 매출액 상승 등 경영여건이 다소 개선된 결과로 보인다.

표 II-5-1-35 | 전국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2019년)

전 계	양 호		보 통		취 약	
	A수준 (매우 양호)	B수준 (양호)	C수준 (보통)	D수준 (미양호)	E수준 (취약)	
1,413개	178	548	550	118	19	
	726		550	137		
100.0%	12.6	38.8	38.9	8.4	1.3	
	51.4		38.9	9.7		

2

특성화시장 육성

• 전통시장육성과 장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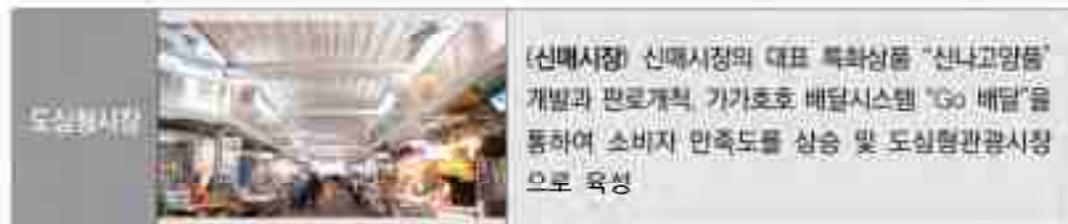
가. 지역선도형시장

지역선도형시장은 지역 대표시장 및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성과 우수시장을 선별하여 지역 시장의 분모델이자 지역 네트워크 형성의 중심, 협업사업의 기준이 되는 시장으로 육성하여 지역사회 상생협력사업, 특화요소 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2018년에는 희망사업프로젝트로 일부 개편되면서 신규시장 2곳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2019년과 2020년도에는 각각 신규시장 1곳씩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표 II-5-1-36 | 연도별 지원실적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선정수	4곳	7곳	8곳	1곳	1곳

그림 25 | 지역선도시장 2020년 우수사례



나. 문화관광형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을 지역 고유의 자원(관광·문화·예술·특산품)과 연계한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공간조성, 관광 상품개발, 문화 콘텐츠 개발, 문화공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시행하였다. 2018년에는 희망사업프로젝트로 부분 개편하여 신규시장 31곳 및 2~3년차 시장 57곳을 지원하였고, 시장의 고유브랜드 개발, 지역관광지와 연계, 스토리텔링 도입 등으로 시장

매출 증대 및 고객유인에 기여하였다. 2019년에는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시장에서 도약한 20곳을 포함한 42곳의 신규시장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2019년도에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시장에서 도약한 16곳을 포함한 45곳의 신규시장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2021년에는 2020년도에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시장에서 도약한 20곳을 포함한 42곳의 신규시장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표 II-5-1-37 | 연도별 지원실적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계
신규 선정 수	4곳	6곳	8곳	6곳	15곳	32곳	23곳	33곳	22곳	35곳	31곳	42곳	45곳	42곳	344곳

표 II-5-1-38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중점지원사업 변경내역

시행시기	내 용
2008년~2009년	시설현대화 사업과 혼합하여 하드웨어 위주
2010년~2012년	스토리텔링, 캐릭터 개발, 정기 공연단, 시장라디오 등 소프트웨어 사업위주
2013년~2017년	차생력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 ICT 및 디자인 융합 등 휴먼웨어 중심
2018년~	희망사업프로젝트 도입으로 기반이 확립된 시장에 한해 특성화 집중 지원

그림 26 | 문화관광형시장 2020년 우수사례

<p>온라인 배송 시스템 구축</p>		<p>(삼방시장) 코로나19에 대비한 비대면 소비경제 대응으로 네이버 동네시장 정보기에 30개 점포를 입점, 300개 이상의 품목 판매 2,000명 이상의 신규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p>
<p>문화 진흥</p>		<p>(남성세계시장) 현충원 문화해설사와 함께 충효길 걷기 행사와 플로깅운동, 행사사진기 사진 공모전 등 고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와 역사 문화를 연계하여 고객여형 시장으로 발전</p>

다. 특성화 첫걸음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은 기반조성사업과 컨설팅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기반조성사업은 3대 고객서비스 혁신(편리한 결제, 고객신뢰, 위생청결)과 2대 역량강화(상인 조직역량, 화재 안전관리)로 전통시장의 근본적 경쟁력을 갖추고, 상인회 주도의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기존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대체하여 신설한 사업으로서, 2018년도에 34개 신규시장을 선정·지원하였다. 특히 해당사업은 1년간의 사업성과를 종합평가하여 우수한 곳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신규시장 30곳씩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10곳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첫걸음 컨설팅사업은 특성화 기반조성뿐만 아니라, 시장으로서의 기본적 기능이 미흡한 곳을 대상으로 기초 환경분석을 실시하고 시장 원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종합컨설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2018년에는 24개, 2019년에는 31곳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는 20곳을 지원하였다.

표 II-5-1-39 | 연도별 지원실적

구분	18	19	20	21	계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34곳 (20곳 도약)	30곳 (16곳 도약)	30곳 (5곳 도약)	10곳	104곳
첫걸음 컨설팅사업	24곳	31곳	20곳	-	75곳

그림 27 | 특성화첫걸음시장 2020년 우수사례

<p>결제방식의 개선</p> 	<p>(신정시장) 전자결제 시스템 교육 및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와 홍보를 통해 신규 사업자등록 가입률 47% 상승하여 전체 90% 가입, 카드결제 95%, 온누리 가맹점 90% 달성</p>
<p>가격 및 원산지 표시</p> 	<p>(유구시장) 통합브랜드 디자인 개발과 원산지 가격 표시 제직환경을 조성하여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원산지 표시 100%, 가격표시 98% 달성</p>

3

시장경영혁신 지원

- 전통시장육성과 장 수 환
- 전통시장육성과 율 상 준
- 전통시장육성과 이 재 출
- 전통시장육성과 이 출 근

가.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시장경영바우처지원은 기존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시장메니저, 배송서비스 5개 사업을 통합·개편하여 2019년부터 시행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상권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력지원으로 지원 효율성 제고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책 수요자 스스로 선택·설계·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사업지원 대상은 전년도 하반기에 모집 후 중소벤처기업부 13개 지방청에서 지역별 평가로 선정되며, 선정된 전통시장·상점가는 5개 사업 부문(마케팅, 교육, 자문, 시장메니저, 배송서비스) 중 희망 사업 부문을 선택하고, 부여받은 예산(바우처)을 희망사업부문에 자율 편성(분배)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2020년에는 본예산 141억원으로 345곳, 추경예산 212억원으로 633곳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지원하였으며, 개별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추진하는 사업 외 '대한민국 동행세입',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역활동'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2021년에는 기존 5개 사업 부문 의 온라인플랫폼바우처를 신규 개설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대면 상인교육 콘텐츠를 제작 및 보급할 계획이다.

나. 전통시장 복합청년물 조성

1) 복합청년물 조성

청년물 조성사업은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전통시장 활력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의시설 및 영업공간 조성, 청년상인 창업교육, 점포 입차료 및 인테리어, 마케팅 및 홍보 등을 지원하여 2016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다.

2016년 14곳, 2017년 12곳, 2018년 9곳, 2019년 4곳을 선정하여 전통시장 청년상인 집적지구를 조성했고, 2020년에는 3곳을 선정하여 현재 지구를 조성 중에 있으며 (2021년 개장 예정), 2021년에는 1곳을 지원할 예정이다(2022년 개장 예정).

2017년까지 청년물당 지원 금액은 점포 20개 기준 15억 원이었으나, 2018년부터는 기존 청년물 지원(청년상인들만 입점)에서 복합청년물 조성사업(청년물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문화센터 등이 포함)으로 보다 확장되어 지원금액도 최대 40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 지원금액 구성 : 국비50%, 지방비40%, 자부담10%를 기본으로 지자체별 상이

표 II-5-1-40 | 청년물 조성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상
지원시찰 수	14	12	9	4	3	1

2) 청년물 활성화 및 확장지원

기지원한 청년물의 시장안착을 위해 2018년부터 활성화지원(청년물의 홍보, 마케팅, 교육 등), 확장지원(시설개보수, 추가공간조성 등)을 병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활성화지원 16곳과 확장지원 8곳, 2019년은 활성화지원 3곳과 확장지원 2곳, 2020년에는 활성화지원 7곳과 확장지원 3곳을 지원했으며, 2021년에는 활성화지원 4곳과 확장지원 2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물 활성화지원은 1년간 5억 원, 청년물 확장지원은 1년간 10억 원 한도로 지원되고 있다.

※ 지원금액 구성 : 국비50%, 지방비40%, 자부담10%를 기본으로 지자체별 상이

표 II-5-1-41 | 청년몰 활성화·확장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개)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예정)
활성화지원	16	3	7	4
확장지원	8	2	3	2

3) 청년상인 도약지원 사업

청년상인도약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내 영업중인 청년상인의 경영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신메뉴 개발, VMD, 제품, 포장디자인 개선, 특허법률,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107곳, 2019년 222곳, 2020년 231곳을 지원했으며, 2021년에는 600곳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표 II-5-1-42 | 청년상인 도약지원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개)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예정)
지원점포 수	48	107	222	231	600

다.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 관리 강화

전통시장은 특성상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2013년부터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안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해 화재안전점검을 시행 중이며, 전통시장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의 소방·전기·가스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다.

표 II-5-1-43 | 전통시장 화재안전 점검현황

(단위: 백만원, 개)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예산	450	1,220	2,972	2,972	2,972	2,272	2,458	3,243
대상시장수	200	501	773	747	357	382	446	562*

* 2015~2019년 1차, 2016~2018년 2차, 2019~2021년 5차 전수검사(진행중)

* 562개 - 전통시장(545개), 삼정가(17개)

2018년부터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신설·추진 중이며, 전통시장 내 발화요인(연기, 열, 불꽃 등)을 조기에 감지하여 소방관서·상인이 화재를 초기진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통시장 구조 및 특성에 따라 개별점포형과 오픈점포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1점포당 설치비용 국비기준 최대 56만원까지 지원한다. 2020년까지 총 429개 시장, 46,422개 점포를 대상으로 국비를 교부하였다.

표 II-5-1-44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유형별 지원내역 및 한도

구분	설치내역	지원한도(국비 기준)
개별점포형	○개별점포 : 감지기유·무선 ○공용부분 : CCTV, 수신기, 속보설비 등	○시장당 최대 56만원 x 신청점포수 산출금액 이내
오픈점포형	○공용부분 : 감지기유·무선, CCTV, 수신기, 속보설비 등	(개별점포+공용부분=56만원) * 국비 70%, 지방비 30%

2019년부터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의 노후화된 전선 및 설비 개선을 위해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신설하였고, 2020년까지 총 115개 시장을 선정·지원하였다.

화재피해로 당장 생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전통시장 상인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도 운영 중이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전통시장 상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금액에 따라 최대 6천만원 한도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2018년에는 음식물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등 특약상품을 추가하여 보장범위를 넓히고, 가입기간도 최장 3년으로 확대하였다.

표 II-5-1-45 |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예시(1년 주계약 기준)

구분	계약기간			
	1년(건물/동산 각 1천만원)	4천만원	6천만원	
주계약	재물손해 A급	연 66,000원	연 132,000원	연 198,000원
	B급	연 101,500원	연 203,000원	연 304,500원
특약	화재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6,200원 - (대인) 1인당 사망1억, 부상 2천만원 한도 / (대물) 1억 한도		
	음식물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16,600원(자기부담금 30만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공제기간 중 5천만원 한도		
	화재범금	- 추가공제료 : 연 100원 - 계약자의 범금형 확률 환급에 따른 실손보상 (형법 170조) 1.6천만원 / (형법 171조) 2천만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26,600원(자기부담금 10만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 (대물) 1사고당 1억원, 공제기간 중 1억원 한도		

* 건물구조급수(A/B급) : 건물의 기둥·보·바닥, 지붕(층), 외벽의 건축 자재에 따라 나눈 등급

* 가입한도 : 최대 6천만원 이내(건물/동산 각 3천만원)

라. 온누리상품권 발행

상품권은 모든 국민이 애용하는 결제수단이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사업은 그동안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던 시·도 전통시장 상품권이 지역적 한계와 편의성 부족으로 유통실적이 미흡함에 따라, 시·도 전통시장 상품권을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게 통합한 것으로, 전통시장의 매출 확대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해 왔다.

온누리 상품권은 2020년 4조 139억 원이 판매되었다. 본예산 기준으로 2조 5,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전통시장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1·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하여 1조 5,000억원을 추가 발행하였다. 상품권 구매자별 현황을 보면, 정부 등 공공기관이 15.3%,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이 6.0%인 반면, 개인 구매 비율이 7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공부문 판매비중이 전년대비 4.9%p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지 않은 일부 지자체에서 1차 재난 지원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판매액이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 II-5-1-46 : 2020년도 온누리상품권 주체별 구매비율

(단위 : 억원, %)

공공부문	기업부문	개인부문	계
6,146.9(15.3%)	2,413.4(6.0%)	31,578.3(78.7%)	40,138.5(100%)

온누리상품권을 처음 발행한 2009년에는 판매액이 105억 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 판매액은 4조 139억 원으로 11년만에 판매 규모가 382배 증가하였으며, 누적 판매액은 약 11조 7,602억 원을 달성하였다.

온누리상품권의 판매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상품권 구매실적 배점을 2011년 0.1점에서 2012년 0.3점, 2013년부터 0.3~0.5점으로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10%)를 활용하여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특히 2019년에는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비 중 온누리상품권 지급 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여 온누리상품권의 지속적인 판매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2019년 9월부터 발행을 시작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판매액도 2020년도에 1,479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2019년도 판매액(2019년 9~12월) 66억원 대비 22.4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2020년 기준 5,8만개(2019년 기준 3.5만개)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이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전통시장의 대표브랜드로 안착한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에서 유통되는 단일 상품권으로써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마. 디지털 전통시장

코로나19 등으로 급변하는 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고, 오프라인 판매 중심에 머물러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비대면 거래 확대를 위해 2020년 하반기에 추정사업으로 진행되었다.

디지털 역량이 낮은 전통시장·상점가 상점가에 민간 전문가 그룹(디지털메니저)를 파견하여 디지털전통시장 구축을 도모하였다. 전국배송형, 근린상권배달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했으며, 전통시장에서 진출하고자 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전문가를 직접 매칭하여 교육·컨설팅·상품 발굴·마케팅 등 비대면 거래 진출의 일련의 과정을 지원했다. 전문기관의 종합 컨설팅으로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38곳, 1,354개 점포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했다.

2021년에는 디지털전통시장 구축을 위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온라인 진출 역량이 부족한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 온라인 역량 진단 과정 등을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진출의 성공사례 공유, 성과 확산 등을 위해 온라인 선도시장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바.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전국 120여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한자리에 모여 발전하는 전통시장의 모습을 관람객에게 소개하는 국내 최대의 전통시장 행사이다. 전국 우수시장박람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우수 사례의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상품을 전시·홍보·판매하여 전통시장 인지도 제고와 이용활성화를 도모한다.

2020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 등으로 2021년으로 연기되었으며 2021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17회)는 10월 29일(금)부터 31일(일)까지 3일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입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4

상권 활성화

- 지역상권과 해 유 권
- 지역상권과 청 성 구

우리 주변을 보면 특정지역에 많은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상권은 전통시장, 상점가, 지하도상가 등을 포함하여 주변 상업지역 점포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오랜 기간 자연스럽게 상권을 형성하여 오고 있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 및 대형마트 입점 등에 따른 상권 쇠퇴가 발생하였고, 그간 개별시장·상점가를 대상으로 한 단편적인 지원과 주차장, 아케이드 등 시설 기반의 지원 정책은 상권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통시장(상점가)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고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상업지역 중 상업활동이 침체되었거나 침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는 '상권 르네상스(상권활성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점포수 기준 : 시·군·구의 인구가 50만 이상은 700개, 50만 미만은 400개

** 침체 및 침체 우려 기준 : 구역 내 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액 및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사업체 수가 최근 3년간 계속 감소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상권 전반에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을 하여 상권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사업으로 해당 구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환경개선 사업과 활성화 사업**을 모두 지원한다. 이 때 비영리법인 형태의 '상권관리기구'를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인·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상권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장의 의견이 사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 환경개선사업(예시) :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테마별 거리디자인 등

** 활성화 사업(예시) : 테마거리 운영(음식, 패션 등), 특화상품 개발 및 판로지원, 홍보·실인 역량강화 등

표 II-5-1-47 | 상권활성화 지원 현황(2016년)

지 역	상권활성화구역명	구역내 시장 및 상점가	점포수 (개소)
경기 의정부	의정부시 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3) : 의정부제일시장, 의정부시장, 의정부청과야채시장 ○ 상점가(5) : 의정부지하상가, 녹색거리, 로데오거리, 행복로, 부대찌개 거리	2,546
경기 성남	산성로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1) : 단대마트시장 ○ 상점가(2) : 산성대로, 광명로	2,419
충남 부여	부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2) : 부여중앙시장, 부여전통시장 ○ 상점가(1) : 석탑로공남로	966
전남 순천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1) : 중앙시장 ○ 상점가(6) : 옷장 인접상가, 원도상점가, 중앙지하상가, 문화의거리, 황금로패션가, 중앙지하상가	636
울산 울주	안양시장 일원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2) : 안양공설시장, 안양종합시장 ○ 상점가(1) : 안양상점가시장	419
부산 해운대	해운대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1) : 해운대시장 ○ 상점가(2) : 구남로, 예향길	627

2014년부터 경기 의정부를 비롯한 6개 구역 상권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대비 구역별 2016년 인평균 매출액은 8.5% 증가하고, 고객수는 5.7% 증가하여, 상권 내 서민경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8 |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예시



인도심

상점가

해운대 상권활성화구역

2018년부터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2018. 12. 20.)의 핵심 과제로 선정되어 2022년까지 30곳의 대표 상권을 육성·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사업방식을 국비 50%, 지방비와 민간 자본금 50%로 개편하여 5년간 총 80억원 내외를 지원하고, 상권이 활성화되면 임대료 상승으로 발생하는 상권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상인 간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한 상생협약, 사업추진에 대한 1/2 이상 동의가 필수요건이며,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타부처 사업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였다.

사업 개편 이후 2020년 12월까지 20곳을 선정했고, 2021년에는 5개 내외의 상권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그리하여 2022년까지 30곳(누계)의 상권을 선정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상권으로 육성·관리하는 것이 목표이다.

표 II-5-1-48 | 상권르네상스(상권활성화) 사업 지원 현황(2020년)

지 역	상권활성화구역명	구역내 시장 및 상점기	필요수 (개소)
대구 북구	칠성종합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2) : 칠성시장, 대구청과시장, 삼성시장, 칠성전자주방시장, 칠성천·경명시장, 칠성원시장, 본시장	897
경기 수원	수원역전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3) : 역전시장, 역전지하도상가시장, 매산시장 ○ 상점기(1) : 매산로테마거리상점가	946
전남 김천	김천 중앙로 상권활성화구역	○ 상점기(1) : 중앙로상점가	413
경남 진주	진주중앙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2) : 진주중앙시장, 진주논개시장 ○ 상점기(3) : 진주청과상점가, 진주로테오거리, 진주중앙지하도상가	1,762
충남 천안	천안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1) : 천안역전시장 ○ 상점기(2) : 영동대흥로상점가, 천안역지하상가	720
광주 서구	영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기 : 영동건머물시장, 영동경열로시장, 영동수신시장, 영동귀천길시장, 영동산업용품시장, 영동시장, 영동복개상가	1,092
경기 구리	구리시 행복상권 활성화구역	○ 전통시장(1) : 구리전통시장	643

지 역	상권활성화구역명	구역내 시장 및 상점가	점포수 (개소)
전북 군산	군산시 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2) : 공설시장, 신영시장	607
부산 연제구	연제오방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2) : 연일시장, 연일골목시장	602
강원 정선	정선읍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1) : 정선아리랑시장	415
충남 공주	공주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2) : 공주상설시장, 선성시장활성화구역	742
서울 관악구	발말 신사리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2) : 신원시장, 관악종합시장, ○ 상점가(1) : 서원동상점가	715
서울 동작구	동작 LINK 상권	○ 전통시장(1) : 남성사계시장 ○ 상점가(1) : 사당1동역자골목상점가	819
경기 양명	양명 불빛은상권	○ 전통시장(1) : 양명불빛은시장	620
강원 춘천	춘천 원도상권	○ 전통시장(2) : 춘천중앙시장, 제일시장 ○ 상점가(4) : 춘천명동상점가, 요산상점가, 육원고개상점가, 춘천지하상가상점가	1,246
충북 제천	제천 원도상권	○ 전통시장(2) : 제천중앙시장, 내포전통시장, 동문전통시장 ○ 상점가(2) : 문화의거리, 명소화거리	1,083
전북 부안	부안 마실상권	○ 전통시장(1) : 부안상설시장	636
전남 진도	진도 남문로상권	○ 전통시장(1) : 진도군상설시장 ○ 상점가(1) : 남문로상점가	450
경북 문경	문경 정촌원도상권	○ 전통시장(1) : 문경 중앙시장 ○ 상점가(2) : 문화의 거리상점가, 정촌역전 상점가	404
경남 창원	창원 진해군항상권	○ 전통시장(1) : 진해중앙시장	837

제6장

규제·행정 혁신 및 기업애로 지원

1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규제개혁업무담당관 이종호

규제는 안전한경보전 등 사회적 가치를 위해 불가피하지만, 피규제자는 통상 규제 이행에 따른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규제는 기업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체력을 줄여 기업의 기술혁신 등 경쟁력 제고와 산업의 자율경쟁을 가로막고 있다. 또한 규제기관은 민간의 자율적 문제해결능력을 경시하고 운영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채로 획일적으로 높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있어 규제의 영향은 매우 크다. 규제는 '규모의 경제'로 인해 중소기업에 보다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부담측면에서의 형평성 문제 및 불공정 경쟁 문제를 초래한다. 이에 대응해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1997년 8월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2008년 12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사항도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가 마련되었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이외에도 경쟁제한평가(공정거래위원회) 및 기술규제영향평가(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영역에 대해 개별부처에서 독립적으로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중소기업에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 차단하는 안정망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규제유연성법을 벤치 마킹하여 규제대상 기업수, 규제준수 의무사항, 중소기업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안 모색, 다른 규제와의 중복성 등을 검토해 규제신설을 최소화하고, 도입 불가피 시 최소 부담으로 규제목적을 달성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최적대안(준수요건, 시행시기 차별화, 일부 업종/지역 적용 면제, 이행수단 차등 등)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규제형평 원칙도 입법화(2018.4.17.)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법적 토대도 마련하였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중기부가 요청한 규제차등화, 규제유예·면제 등 104건이 해당 부처에서 수용·반영되었다. 그로 인해 규제 신설·강화에 따른 약 6천억원의 피해예상액을 방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기부 검토의견 반영건수는 2018년 28건, 2019년 21건, 2020년 5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수혜대상 기업 및 금액도 32,408개사/1,342억원, 60,191개사/2,544억원, 233,562개사/2,433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II-6-1-1 / 연도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실적

(단위 : 건)

연 도	평가대상		검토의견		검토의견 반 영 륜
	법령건수	규제건수	자율건수	반영건수	
2009년	376	726	153	61	39.9%
2010년	337	707	40	19	47.6%
2011년	404	1,204	82	37	45.1%
2012년	584	1,433	55	26	47.3%
2013년	308	667	39	19	48.7%
2014년	240	627	42	21	50.0%
2015년	271	575	15	8	53.3%
2016년	84	231	11	6	54.5%
2017년	147	359	34	17	50.0%
2018년	306	640	50	28	56.0%
2019년	580	1,161	34	21	61.8%
2020년	807	1,552	86	55	64.0%
총 계	4,534	9,871	641	318	51.5%

표 II-6-1-2 | 최근 3년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대표사례

<p>□ 2018년 : 32,408개 기업 1,342억원 절감</p> <p>① 외부감사 대상 편입 기준변경에 따라 추가적인 감사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4,200개의 중소기업 부담액 880억원 절감</p> <p>②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기업의 핵심기술 내용을 담은 품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기간을 2년 연장(3년→5년)에 6,220개 기업의 307억원 절감</p> <p>③ 냉매회수입자의 등록기준 규제를 완화(국가자격증 보유→경력, 양성교육 수료)에 500개사의 규제비용 150억원 절감</p>
<p>□ 2019년 : 60,191개 기업 2,544억원 절감</p> <p>① 과도하게 짧게 설정(5년)된 타워크레인 주요 부품의 교체주기 의무를 폐지해 940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의 교체비용 1,335억원 절감</p> <p>② 약위 절감표준기술 및 측정기준을 명확하게 한후 방지시설 설치를 도입토록 하여 11,028개 축산농가의 규제비용 219억원 절감</p> <p>③ 과학적 근거가 떨어지는 과도한 설비 구축 이후에만 음식물 폐기물의 가축사료 사용을 허용한 규제를 철폐해 215개 업체의 965억원 절감</p> <p>④ 난연성능을 표시하는 단열재 표면정보 표시사항 변경시 과도한 표기 규제를 완화해, 발모플라스틱 제조사(116개사)의 규제비용 15억원 절감</p>
<p>□ 2020년 : 233,562개 기업 2,433억원 절감</p> <p>① 3년마다 건축물관리계획·작성·보고 대상건축물관리자에서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하여 46,481개사 건축물관리계획·작성·검토비용 등 1,148억원 절감</p> <p>②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자료 제출대상을 전문의약품제조업으로 축소(일반의약품 제외)하여 127개사의 제조단위 생산비용 및 밸리데이션 자료 작성비용 등 260억원 절감</p> <p>③ 신용정보 등의 평가 요건 중 인력요건을 명확히하고, 원격 시설 공동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하여 119개사의 원격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비용 58억원 절감</p> <p>④ 국내항해 선박에 설치된 다절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함에 있어 수입 내 항선의 규격 강화시기를 조정*하여 규제비용 시점 유예에 따라 789개사의 규제비용 100억원 절감</p> <p>* (기준 1) 21년 → 25년 (기준 2) 25년 → 30년으로 조정</p>

2

중소기업정책심의회

• 정책평가과 김성철

일자리 창출·경제성장 주역으로서의 중소기업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정부·지자체에서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 부재로 부처간 협업을 통한 효과적 정책 대안 마련에는 미흡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조정 중소기업정책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중소기업기본법(6월) 및 동법 시행령(12월)을 개정 하였다. 개정 내용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 전문가, 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근거가 포함 되었다. 동 심의회는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심의·조정한다.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구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원장),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 전문가, 업계 대표 등 30명 내외로 구성되는데, 당연직으로는 중소기업정책 유관 부처 및 위원장이 인정하는 부처 차관급이며, 위촉직으로는 업계대표, 연구기관,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학위위원회인 실무조정회의 구성은 심의회 안건 발굴 및 부처간 실무조정으로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전문위원회 구성은 창업·금융·소상공인 등 분야별로 각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2020년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총 4회 개최하였으며 11개 안건을 심의·의결 하였다.

3

적극행정

• 혁신행정담당관 류지혜

코로나19, 비대면 경제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중소기업 정책의 적기 대처가 필요하나 여전히 기존 지침이나 선례 위주의 업무행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창업, 멘처, 소상공인, 상생협력 등 정부부처내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는 중기부의 적극행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평상시에 바탕을 둔 법령과 정책을 뛰어넘어 전례없는 조치를 통한 위기극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도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창의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적극행정을 중기부 조직문화로 확실히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적극행정 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첫째, 적극행정 조직문화의 확산, 혁신 및 소통을 위해 “장관이 참여하는 북콘서트” 및 “명사특강”을 개최하였다. 20년에는 총 4차례 개최를 하였으며 중소기업 정책분야의 명사를 초청하여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중소기업 정책분야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명사 특강 현황 〉

연번	일차	주요내용
1	20.7월	“스마트 팩토리로 경영하라”의 저자 최주원 전 모스코ICT 사장 특강 및 청관과의 대화
2	20.8월	손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 빅데이터와 중기정책에 대한 특강·질의응답
3	20.9월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모스트 코로나와 중기부의 혁신 방안 논의
4	20.10월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향후 변화속 중기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

둘째,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우수직원 포상 등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 대회를 개최하였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및 청중(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발표심사 등을 통해 공정하고 대표성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본부 각과 및 지방청을 통해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현장발표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하였으며, 분위기 확산 및 참여유도를 위해 우수직원 20명에 대해서는 특별승급, 근무평정 및 성과급 최우수등급 부여, 승진가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셋째, 적극행정 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행정 실행계획(20년)을 수립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운영규정(훈령) 개정 및 위원 확대, 직원교육 등 적극행정 추진 체계를 마련하였다.

향후에는 적극행정 분야 국민체감형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중기부 전략적 관점에서 주요 과제를 선정, 연중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직원과의 대화, 전담지정 직원 운영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 업무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소극행정 예방 및 회복을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감사부서가 직접 조사·처리할 계획이며, 적극행정 업무로 인해 소송을 당하는 직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직원이 안심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으로 적극행정 활성화 일환으로 전직원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가 특강, 이러닝 교육 등을 지속추진함으로써 전직원의 적극행정 이해도 향상을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4

중소기업지원 정책정보 제공 및 원스톱 기업애로 지원

- 통계분석과 남 경 학
- 통계분석과 최 준 영
- 고객정보화담당관실 문 철 환
- 고객정보화담당관실 임 미 현

현대사회는 정보의 취득 여부에 따라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정보화 사회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나 정책은 매우 다양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정부가 많은 정책을 편다고 하는데 무슨 정책이 있고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들리는 실정이다.

이는 인터넷으로 정책을 알아보려면 일일이 지원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고 어렵사리 홈페이지에 접근해도 지원시책을 찾기가 쉽지 않으며 또 지원시책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려워 실제로 활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공감할 때 정책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추진력이 생길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정부 지원정책을 인터넷, 전화, 면담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중소기업인들의 이해증진과 정책이용을 확대하고자 '중소기업지원 정책정보 제공 및 원스톱 애로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번 없이 ☎1357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직원을 통해 정책안내, 애로상담을 지원하는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인터넷 및 모바일 기반의 정책포털 '기업마당'(www.bizinfo.go.kr, m.bizinfo.go.kr)을 통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지방청에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를 배치하여 정책정보 안내·상담부터 현장방문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가. 온라인 정책정보 제공 서비스 '기업마당'

인터넷 기반 중소기업정책정보시스템(www.bizinfo.go.kr)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의 중소기업 정책정보를 수집하여 한 곳에서 적시 전달해주는 중소기업정책포털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06년 구축된 동 시스템의 브랜드명을 Sp1-1357 → 비즈인포

→ 기업마당으로 전환하여 대국민 인지도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고, 모바일 앱에서도 관심 정책(키워드, 분야, 지역 설정) 조회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꾸준히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그림 29 | 기업마당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화면



PC 기반 웹사이트

스마트폰 사용자 모바일 앱(App)

기업마당은 2020년 한 해 동안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343개 지원기관에서 추진한 지원사업, 행사 등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정보 12,764건을 분야별(금융·기술·인력·수출 등)로 구분하여 홈페이지, 이메일, 앱 등을 통해 제공하였다.

표 II-6-1-3 | 중소기업정책정보전달시스템(기업마당) 정보제공 현황

(단위 : 개, 건)

년도	중소기업지원정보 제공기관					정보제공량		
	계	중앙 부처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유관 기관	계	지원 사업	교육 세미나 전시회
2018년	481	35	17	9	420	10,882	7,481	3,401
2019년	509	35	17	9	448	11,772	8,313	3,459
2020년	543	35	17	40	451	12,764	10,110	2,654

또한, 정책검색 등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메뉴를 간소화하고 지원사업 DATA를 창업기업, 은행 등 민간에 적극 개방하여 '지원사업 알람 챗봇' 과 같은 모바일 기반 대국민 정책정보 제공서비스 운영을 지원하였다.

위와 같은 기업마당 활성화 노력에 힘입어 2020년 기업마당의 전년대비 접속건수는 14%, 정책정보 조회수는 15% 증가를 기록하여 시스템 활용도가 지속 향상되었다. 향후에도 정책정보를 확충하고 모바일 전달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정책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등에게 중소기업 지원정책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국번 없이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1357을 누르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상담사와 통화연결이 가능하도록 '전국단위 전화연계망'을 구축하여 지원정책 안내는 물론 경영애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30 |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중소기업통합상담



2014년 5월부터 자금, 창업, R&D 등 주요 정책별로 분산되었던 중소기업 관련 6개 기관·콜센터를 1357 단일번호로 통합하고, 2015년 1월에는 콜센터 업무공간도 한 곳으로 통합하여 명실상부한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구축하였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산업기술평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산학연협력

2015년도에는 무역·금융·조달·특허·고용 등 중소기업 관련 7개 중앙부처 8개 콜센터와 연계를 시작으로 2016년 12월 9개 중앙부처 10개 콜센터 연계를 완료하여 중소기업인이 9개 부처 어느 콜센터로 전화해도 한 통의 전화로 모든 애로사항에 대해 원스톱으로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다.

- 중소기업기업부(1357 중소기업통합콜), 산업통상자원부(1361 인준표준콜, 1360 FTA콜), 과학기술정보통신부(1370 기업공감원스톱지원), 고용노동부(1350 고객지원), 금융위원회(1397 서민금융다이어콜), 조달청(1569-080) 정부조달콜, 특허청(1544-808) 특허고객상담, 국세청(126 국세상담)

그림 31 | One Call 통합 상담 서비스



2020년에는 2015년 51.7만 건에 비해 2배 가량이 증가한 110.8만 건의 애로사항 등을 처리하였으며, 매년 1357 중소기업 콜센터의 처리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II-6-1-4 | 1357 중소기업 콜센터 상담 현황

(단위: 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상담건수	517,279	638,020	794,465	885,889	804,093	1,108,229

* 총 누계(2006년~2020년) : 5,911,381건

다. 비즈니스지원단 운영

360만개 중소기업 숫자만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은 다양하다. 특히, 대내외 경제 환경 및 경영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애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기업여건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 상황, 인력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22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등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들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중소기업의 다양한 경영애로를 적시 지원하고자 지방중기청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비즈니스지원단이 상주하면서 기업애로상담부터 현장해결까지 지원해주는 인스톱 지원체계를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겪는 금융, 법률, 노무, 회계, 기술, 특허, 수출 등의 기업 경영애로를 상담부터 현장애로까지 해결해 주는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회계사, 경영·기술 지도사 등의 전문가로 비즈니스지원단을 구성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11-8-1-5 | 비즈니스지원단 현황(20)

(단위 : 명)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법률사	노무사	경영 지도사	기술 지도사	기술 지도사	경영 지도사	공공 기관 경영자	기타	계
47	55	32	44	81	9	398	13	57	82	782	51	308	1,959

비즈니스지원단은 13개 지방청과 3개 사무소(1개 센터 포함)에 상주하면서 인터넷 (www.smex.go.kr/bizlink),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방문(지방청)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있다.

표 11-8-1-6 |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실적

(단위 : 건)

구분	창업 복지	법무 규제	금융 취약성	인사 노무	세무 회계	경영 전략	기술 특허	정보화 디지털기술	생산 관리	마케팅 수출입	계
20	16,152	3,649	12,971	11,788	6,586	15,702	9,508	2,729	4,510	13,921	99,514
누계 (19~21)	214,181	34,944	132,439	134,404	125,438	193,334	99,961	40,605	62,628	148,205	1,186,359

비즈니스지원단의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기업애로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7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해주는 현장클리닉을 실시하고 있다.

표 II-6-1-7 |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실적

(단위 : 건)

구분	창업 벤처	업무 규제	금융 신용한	인사 노무	세무 회계	경영 전략	기술 특허	정보화 융합기 능	생산 관리	국제교 수출입	계
'20	143	15	41	681	66	427	115	36	97	342	1,953
누계 ('09-'20)	1,872	738	525	9,409	720	4,726	1,204	656	1,970	3,300	25,120

비즈니스지원단은 연평균 10만여 건의 전문상담과 2천여 건의 현장클리닉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5

중소기업 ombudsman 운영

• ombudsman지원단 최 석 훈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도 정부 소속이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규제나 정책에 대해 업계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ombudsman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을 현장 목소리에 근거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근거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두고(개정 '08.12월)하여 2009.7월에 도입하였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중소기업 ombudsman을 위촉하며, ombudsman의 업무 활동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 및 국무회의,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제1대 ombudsman (이민화 한국기술거래소 이사장, '09.7.16)
- 제2대 - 3대 ombudsman (김문겸 숭실대 교수, '11.3.17~'17.4.29)
- 제4대 ombudsman (박주봉 내주 - KIC 회장, '18.2.27~'21.2.26)
- 제5대 ombudsman (박주봉 ombudsman, '21.2.27~'24.2.26)

중소기업 ombudsman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인 ombudsman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직제는 2013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 직제에 정식 반영 되었으며 중소기업 ombudsman의 지휘를 받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외에 타 부처·지자체 파견 공무원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 직원, 자체 채용한 전문위원 등 총 42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 ombudsman은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발굴 및 개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관계기관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 ombudsman은 금융, 기술, 안전, 수출, 인력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매년 5천 여건의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중소기업 CEO,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소통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규제애로 발굴실적은 총 31,680건(20.12월)에 이른다.

표 II-6-1-8 | 규제애로 분야별 발굴 현황

(단위 : 건)

구분	광개	금융	기술	보건	안전	상생	세채	수출	언변	임차	창업	편의	환경	기타
'20	5,648	324	267	315	109	266	189	48	196	1,044	435	580	267	1,810
누계 ('09-'20)	31,680	2,038	2,101	2,866	894	906	1,219	370	2,302	5,643	2,523	3,182	2,225	5,438

규제애로 처리를 위해 발굴된 규제애로 과제는 13개 분야별로 분류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가 규제애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검토, 조사 등을 거쳐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행정기관과 협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있다.

표 II-6-1-9 | 규제애로 유형별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19년				20년				표시 누계			
	총계	제도 개선	안내 사항	징기 검토율	총계	제도 개선	안내 사항	징기 검토율	총계	제도 개선	안내 사항	징기 검토율
건수	25,141	4,240	12,109	6,792	5,469	2,103	1,271	2,095	30,610	6,343	13,390	10,887
비율	100.0	16.9	48.2	34.9	100	36.5	23.2	38.3	100	20.7	43.7	35.6

특히, 중소기업에 파급효과와 타당성이 높은 핵심규제는 유관부처와 협업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사회적경제·공공기관 등에 대한 현장 공감 규제혁신을 실시하여 기업활력 및 혁신성장을 도모하였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읍부즈만의 징계감정 권의제도 안내의무화 및 실제 감경사례 창출을 통해 규제혁신의 전체인 적극행정 활성화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다.

부처별 육성시책 추진실적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제3부

- | | |
|-----------------|---------------|
| 제 1 장 기획재정부 | 제13장 방송통신위원회 |
| 제 2 장 교육부 | 제14장 공정거래위원회 |
| 제 3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15장 식품의약품안전처 |
| 제 4 장 문화체육관광부 | 제16장 국세청 |
| 제 5 장 농림축산식품부 | 제17장 관세청 |
| 제 6 장 산업통상자원부 | 제18장 조달청 |
| 제 7 장 보건복지부 | 제19장 방위사업청 |
| 제 8 장 환경부 | 제20장 특허청 |
| 제 9 장 고용노동부 | 제21장 기상청 |
| 제10장 국토교통부 | 제22장 병무청 |
| 제11장 해양수산부 | 제23장 산림청 |
| 제12장 금융위원회 | 제24장 농촌진흥청 |

제1장

기획재정부

□ 혁신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지원

- (유동성 지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특히 취약할 수 있는 벤처·스타트업에 대해 유동성 자금을 집중 공급
 - 기보를 통한 창업·벤처기업 코로나19 특별보증 신설(4,000억원)
 - 창업 7년 미만 (예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용자자금인 창업기업 전용자금을 5천억원 증액 지원(1.6조원 → 2.1조원)
 - 모태펀드 1.5조원 출자 등을 통해 스마트대한민국펀드(1조원)를 포함하여 총 3.7조원 이상의 벤처펀드 조성
- (세계 지원) 제2벤처붐 등 혁신 창업·벤처의 동력을 확산하기 위해 세계 상 각종 인센티브를 유지 및 확대
 -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5년간 50% 감면) 대상에 핀테크업 추가
 - 전자금융업, 온라인스탁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 등
 -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 한도 확대 (2,000만원 → 3,000만원)
 - 고용·산업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 5년간 100% 감면 → 5년간 100% + 2년간 50% 감면
- (스케일업 지원)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으로 꾸준히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

- 창업 이후 성장 잠재력을 보이는 아기유니콘* 기업 40개를 선정하여 사업화 자금 3억원 지원(총 120억원)
- * 아기유니콘(~1천억원) → 예비유니콘(1천억원~1조원) → 유니콘(1조원~)
-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유니콘* 기업 30개를 선정하여 최대 100억원의 특별보증 지원

□ 소상공인·지역업자 위기극복지원

- (금융지원) 소상공인의 시급한 금융으로 해소를 위해 총 26.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집행
 - (1차 프로그램) 시중은행(이자보전 대출), 기업은행(초저금리 대출), 소진공(경명안정자금) 등 16.4조원의 초저금리(1.5%) 대출 공급(3월~)
 - (2차 프로그램) 1차 프로그램 소진 후에도 지속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수요 대응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2차 프로그램* 지원(5월~)
 - * 신보의 취약보증(95%)를 통해 시중은행에서 시중금리를 반영한 2~4%대의 대출공급 / 9월부터는 지원조건을 완화(1~2천만원 상향조정 등)하여 대출 공급 추진
- (재난지원금 지급) 총 21.7조원 규모의 1~3차 재난지원금 지급
 - 전국민을 대상으로 14.3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1차) 지급
 - 코로나로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5조원 규모의 새희망자금*(2차) 및 4.1조원 규모의 버팀목자금**(3차) 지급
 - * 집행금지 20, 제한 150, 일반 100만원 (29만명 대상)
 - ** 집행금지 300, 제한 200, 일반 100만원 (280만명 대상)
- (임대료 부담 완화)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로 세제지원 등 추진
 -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20.1~21.12월) *21년은 70%

-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재산가액의 3→1% 인하),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연체이자율을 재산가액의 7~10→5% 조정) 등 부담완화
-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50% 감면 및 연체료 경감(연체 이자율 최대 5%), 감면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반영
- (세제지원) 간이과세 혜택을 받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연 매출액 기준을 연 4,800→8,000만원 이하로 대폭 완화,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도 상향조정(3,000→4,800만원)
- 증용차 개소세 인하('20.3~6월, 70%, 7월 이후 30%),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모든 업종 80% 공제) 등 내수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
- 개인납세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5→8월), 법인·부가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도 추진
- (국가계약 특례) 소액 수의계약 인도를 기존대비 2배 상향, 입찰·계약보증금 5% 인하 등 계약 특례 적용('20.5~)
- (경쟁력 강화) 영세 소상공인의 온라인 채널 입점 등 판로 지원, 소상공인 디지털 혁신을 위한 스마트상점·기술 보급 확대 등

□ 중소기업 일자리·혁신성장 지원

- (디지털 전환 가속화)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신규 구축 지원을 통해 7,139개 보급 완료(당초 목표 5,600개)
- 중소기업의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인프라 지원을 위해 화상회의장 구축 및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공급(총 3,114억원)
- * (화상회의장) 중소기업 밀집지역 1,562개소에 구축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중소기업 6만개에 최대 400만원 지원(자부담 10% 포함)

-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투자·후불형 R&D 등 시장의 선별기능을 활용한 R&D 제도** 도입

* 중기부 R&D 예산(억원) : C18) 10,917 → C19) 10,746 → C20) 14,885 → C21) 17,229

** (투자형 R&D) VC가 선투자한 기업에 정부가 후 매칭 투자 방식으로 R&D 지원(-21, 500억원 규모)
(후불형 R&D) 기업자금으로 R&D 선수행 후 성과에 따라 R&D 비용·사업화 보증 등 지원('21년 예산 210억원)

제2장

교육부

I 현장 중심의 중등 직업교육 내실화

□ 중등직업교육 경쟁력 제고

- (직업계고 체질개선) 인공지능, 스마트팩토리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신산업유망 산업 중심으로 직업계고 학과 개편 지원 및 확대

※ (18년) 62교 186개 학과 → (19년) 91교 125개 학과 → (20년) 101교 153개 학과

- (직업계고 학점제 단계적 도입)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방안(19.7)을 기반으로 '20년도 마이스터고 적용, '22년 특성화고까지 고교학점제 도입 확대

- '22년 전체 직업계고에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 및 안착할 수 있도록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확대* 운영

*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일정 : (20년) 마이스터고 1학년 → (21년) 마이스터고 2학년 → (22년) 마이스터고 전체 적용, 특성화고 1학년 적용

-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 : (18년) 23교 → (19년) 112교 → (20년) 209교

- (특성화고 혁신 지원) 특성화고가 자체 체질 개선하기 위해 신입생 충원, 학업 중단 예방, 취업률 제고 등에 대한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예산 지원

※ (20년) 200교(학교당 2억원 지원)

- (교육 현장성 제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2018년 일부 개정 교육과정을 직업계고 전학년에 걸쳐 도입 완료(20년)

* NCS :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를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NCS 기반 교육과정 적용)

구분	18년	19년	20년
1학년	NCS 기반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NCS 기반 교육과정 (2015 일부 개정 교육과정)	
2학년			
3학년	2009 개정 교육과정 + 실무과목 선택적 적용		

-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이수 후 관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과정
평가형 자격 운영 및 확산

※ 운영 학교 : (18년) 4교 → (19년) 20교 → (20년) 36교 → (21년) 62교 → (22년) 89교

□ 안전한 현장실습제도 구축

○ (안전 강화) 실습생 보호구 지급 및 추락방지 시설설비,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완료(20.3)

- 현장실습 학생 지도관리 등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교사 대상 수당
지원(월 최대 60만원 × 3개월)

○ (학생권의 보장)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수당 지원, 직업계고 학교전담노무사
지장운영 등 실시간 권익·안전 지원서비스 제공

*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월 최대 60만원 × 3개월의 수당 지원

- 학교전담노무사 운영(374명)을 통해 현장실습생 상사적 권익 보호

□ 취업 활성화 및 후학습 기회 확대

○ (취업 컨트롤타워 설립) 중앙부처·교육청(·사도 취업지원센터)-직업계고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고졸취업 지원을 위한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20.6월-)

※ 현장실습·취업서 발굴, 취업지원을 위한 국가단위 플랫폼 운영

-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처 발굴 및 취업연계를 지원을 담당하는 취업지원관 517명 배치
- (초기안착 지원)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들의 초기 사회안착 지원을 위해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증액
 - ※ '18-'19년 3백만원 → '20년 4백만원
- (후학습자 장학금 지급) 고졸 재직자(2년 이상) 중 대학 신입·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 ※ '18년 7천명 20억원 → '19년 9,100명 30억원 → '20년 11,300명 50억원
- (졸업생 관리지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취업정보 제공, 상담 등 계속 지원하는 후속관리 모델 개발
 - ※ 직업계고 17개교(수도권 6교, 충청·전라 6교, 강원·경상 5교)를 거점학교로 지정·운영

②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제공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육성('17-'21) 추진

- (산학협력 고도화형) 산학연계 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한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 지속 추진 및 거점센터(기업협업센터 등) 구축을 통해 인력양성-기술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기업 지원 체계 확충
 - ※ '20년 일반대 55교 2,550억원, 전문대 15교 166억원
-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제4차 산업혁명 대비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신산업 분야 협약단 40개(일반대 20개, 전문대 20개) 신설
 - * (4차 산업혁명 관련) D.N.AI(Data, Network, AI)+IBG(바이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관련) 6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핵심전략분야의 관련 산업 분야
 - ※ '20년 일반대 20개교 30억원, 전문대 4개교 828억원

□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구축 지원

- 지역사회·산업체 수요를 기반으로 재직자·성인학습자 전담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30개교(일반대* 23교, 전문대** 7교) 지속 지원(20년)

* 일반대(23교) : 가톨릭관동대, 경일대, 경희대, 대구한의대, 동국대, 동덕여대, 동영대, 동서대, 명지대, 무경대, 서울과기대, 순천대, 아주대, 영산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청운대, 한국교통대, 한라대, 한밭대, 한성대, 호서대

** 전문대(7교) : 군장대, 동의과학대, 명지전문대, 목포과학대, 서경대, 성덕대, 순천대

- 재학연한 폐지, 학점당 등록금제 등 유연한 학사제도 확산을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의 대학 진학 및 역량 개발 활성화

※ 20년 사업 참여 대학 신입생 대비 중소기업 재직 신입생 비율 : 38.4% (3,172명 중 1,216명)

□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으로 대학의 자율성·경쟁력 제고

- 대학이 스스로 세운 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혁신 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19~21)' 실시

- 기존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특성과 전문대학 육성사업(14~18)을 대학 전반을 지원하는 일반재정 사업으로 확대·개편

※ 자율협약형(Ⅰ유형) 87교, 역량강화형(Ⅱ유형) 11교, 후진학선도형(Ⅲ유형) 25교 등 97교 선정지원 (단 후진학 선도형 대학은 자율협약형 10교 중 선정)

- 후진학 선도 전문대학 지정을 통해 지역·대학·산업체 등 연계한 단기 비학위 과정 운영 등 전문대의 평생직업교육기능 확대

※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프로그램 현황(20.11월) : 운영과정 790개, 참여자 약 16,100여명

□ 대학생 취·창업 활성화

- (대학창업펀드) 대학 구성원의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하여 대학 졸업 초기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

* 조성 현황(17~20년 누적) : 20개 조립 850.1억 원 조성(20년 150억 원 출자하며 200.4억 원 조성)

-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수행 대학을 5→15개로 확대하여 대학원 내 창업문화 확산 및 후속 R&D 지원(157개 기술)을 통해 46개 창업
 - 창업학과(전북대)-창업교과(연세대) 신설, 교원창업 휴직제도 마련(성균관대)
 - ※ 창업기업 중 18개사는 중기부 '초기창업패키지'사업에 최초로 연계하여 사업화 자금 및 공간, 멘토링 등 후속 성장지원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사업수행대학을 확대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활성화
 - ※ 일반대(20년) : 8개교 96억원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6,045명에게 학기당 대학 등록금 및 취업지원금 200만원 지급(20년)
 - ※ 전년 4,895명 대비 1,152명 증가(20년 추경 편성을 통해 1유형 49.8억 증액)

제3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방송 분야 강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현지시장 정보 분석·제공) 글로벌 ICT 포털*을 통하여 ICT 관련 주요 협력 41개국의 AI, IoT 등 20개 분야에 대한 해외시장 진출 보고서 제공
 - * GIP(Digital ICT Portal) : 해외시장 정보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사이트로 국가·분류별 전략 보고서 등 제공
 - (마케팅 활동 지원) 국내 ICT·방송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바이어 발굴과 제품 시연 및 네트워크 확보 등 마케팅 행사 추진
 -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 홍보 동영상 제작, 해외진출 멘토링, 비대면 수출 상담회 등 지원을 통하여 총 48개사의 1,080만불 계약 체결 지원
 - (콘텐츠 파트너십) 중화권·신남방·신북방 대상으로 콘텐츠 재제작, 온라인 마케팅, 비대면 수출 상담회를 통하여 총 23개사의 83만불 계약 체결 지원
- ※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존 오프라인 행사에서 온라인 수출상담회 및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지원으로 변경

□ 나노융합2020사업을 통한 경제적 성과 창출 지원

- (기술사업화) 공공부문(대학, 연구기관)의 나노기술 연구성과(특허)와 산업 부문의 실제 수요를 매칭시킨 기술사업화를 지원
 - * '20년 10개 과제(50억원)를 지원하여, 사업화 매출 87억원, 특허 4건 달성
 - 기술보유자(학·연 연구자) 및 수요자(기업) 간 공동연구 및 사업화 연계 강화
 - 상시 모니터링, 전문가 컨설팅 중심의 현장점검 등 심도 있는 과제관리를 통한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 * 나노융합2020사업의 사업화 플랫폼이 글로벌 첨단소재 혁신협력플랫폼으로 인정(OECD) 보고서, 2020년 12월

□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사업을 통한 기후기술 육성지원

- (수요기업협의체) 기후기술 관련 기업의 원천기술 R&D 기술수요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심층면담을 실시(2회)하고 수소분야 국제 공동연구 발걸을 위한 수요기업 협의체 개최(20.11.12 ~ 18, 수소분야 산업계 전문가 14명)

- (신재생에너지 분야 연구지원) 태양전자,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분야에서 4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계속과제를 포함하여 총 376.74억원 지원

* (신규) 4개 과제, 총 33.16억원 지원 / (계속) 22개 과제, 총 303.58억원 지원

□ 우주부품 국산화 기반시설 구축

- (기반시설 구축) 궤도환경/발사환경/전자파환경/EMI파트검사를 위한 전문 시설 장비 31개를 구축 완료하고 우주부품시험센터 개소식을 개최(20.2)

- 25개 기업을 대상으로 80건 이상의 시험평가를 수행(20.12)하여 우주 산업체의 우주환경시험 적기수행을 지원함

- (공신력 확보) 기관 공신력 확보를 위한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증 수행

* 전자파환경 시험분야 우주규격 확대 인정완료(20.10), 궤도/발사/소자 시험분야 신규 우주규격 심사 완료(20.11)

□ 공공기술기반 사업화 추진 실험실 창업기업 성장 기반 조성

- 공공기술 기반으로 사업화를 추진하는 5년 이하 실험실 창업기업 중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성이 검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R&D를 지원하여 제품 기술력 향상(20년 12개社, 33.6억원 지원)

- (후속투자유치) '실험실창업 공개 투자 데모데이' 개최(20.11.30.)를 통해 IR 피칭,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후속투자 유치를 위한 역량강화

* 20년 12월 기준, 12개 기업 중 4개 기업 후속 투자 성과 달성(2,300백만원 유치)

- (신규고용 및 기업성장) 사업화 R&D를 수행하는 과학기술기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기술의 제품화를 통한 매출 발생

* '20년 12월 기준, 총 46명 신규 고용창출 및 총 133백만원 매출 성과 발생

□ 연구개발특구육성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

- (특구기술사업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중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기업에 이전·출자시키고 기술사업화를 지원

* '20년 314개 과제(556억원)를 지원하여, 매출액 1,853억원과 신규고용 1,845명 달성

- (연구소기업 설립) 출자기술에 대한 사업화 기획 및 기술평가 등을 지원하고, 특구법 등 제도정비를 통해 연구소기업 설립이 대폭 증가

* '18년 704개(산실 184개) → '19년 891개(산실 187개) → '20년 1,106개(산실 217개)

- (강소특구 지정) 기술핵심기관(대학, 출연(연) 등) 중심, 공공연구성과 사업화 기반의 기초지자체 단위 소규모·지역적 혁신 클러스터 지정('19년 6개, '20년 6개) 및 육성

* (10) 경기(인산), 경남(김해·진주·창원), 경북(포항), 충북(청주)

(20) 경북(구미), 서울(용문), 전남(나주), 전북(군산), 울산(울주), 충남(천안·아산)

- (창업 인프라 개선) 창업 교류 공간 운영을 통해 창업 관련 최신정보 공유와 창업자간 교류협업을 촉진

* 대학 Space-X, 광주 드림나루, 부산 아이큐브, 대구 창업캠퍼스 등 코워킹 지원운영

- (기술금융 지원)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기술사업화 기업 및 창업 초기기업 등에 원화한 기술공급을 위한 펀드 조성 및 운영

* 3차 1호('19년, 188억원), 3차 2호('19년, 91억원), 3차 3호('19년, 735억원), 4차 1호('19년, 250억원), 4차 2호('20년, 190억원)

- (글로벌 진출 강화)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및 마케팅 플랫폼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특구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성과 창출

* 총 172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해외투자유치 및 수출계약 등 574만불 성과 창출

- 25개 기업을 대상으로 80건 이상의 시험평가를 수행(·20.12)하여 우주 산업체의 우주환경시험 적기수행을 지원함

○ (공신력 확보) 기관 공신력 확보를 위한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증 수행

- 전자파환경 시험분야 우주규격 확대 인정완료(·20.11), 궤도/발사/소자 시험분야 신규 우주규격 심사 완료(·20.11)

□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활용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중소기업 R&D 기술애로에 대해 증장기(기술멘토링) 및 단기(상시 현장자문) 현장방문 자문 지원

- 중소기업 기술멘토링 111개사, 상시현장자문 215개사 지원

□ ICT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 (3D프린팅 제조혁신 실증지원) 3D프린팅 제작기술의 혁신적 도입·적용으로 우주항공·자동차 등 산업분야의 고부가가치 제품·부품 제작실증을 통한 3D프린팅 전문 중소기업 육성 및 수요시장 창출 지원(3개 과제, 30억원)

- (정보통신융합기술개발지원)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ICT 중소기업에 ICT 및 ICT 기반 융복합 분야 기술개발 자금을 융자 지원(55개 과제, 215억원)

- (ICT혁신기업기술개발지원) ICT 미래신기술 기반의 협업형 융·복합 신시장 창출 및 핵심기술 고도화 기술개발지원(76개 과제, 110억원)

- 경쟁기획 방식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세부전략을 사전기획(3개월)하고 기획 우수성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기술개발(18개월)을 지원(40개 과제)

- ICT 융복합 분야의 신시장을 창출하는 도전형 기술개발(16개 과제) 및 ICT 6대 핵심 기술분야를 고도화하는 기반 강화형 기술개발(20개 과제) 지원

- 미래통신전파, SW/AI, 방송콘텐츠, 차세대보안, 디바이스, 블록체인 등

- (ICT R&D 혁신바우처 지원) 중소기업이 사업화에 필요한 ICT 기술을 대학·출연연을 통해 신속하게 개발하도록 지원하여 제품·서비스화 등 ICT 융합사업화 촉진(31개 과제, 118.4억원 지원)
 -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 분야 및 5G, AI 등 핵심기술 분야 응용 및 사업화 기술개발 중점 지원
 - *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 분야 : ① 스마트시티 ② 스마트공장 ③ 스마트 팜, ④ 핀테크 ⑤ 에너지산업 ⑥ 드론 ⑦ 바이오헬스 ⑧ 미래자동차
- (민관협력기반ICT스타트업육성) 정부와 멘토기업이 ICT 기술창업 기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고성장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성장 전주기를 지원(16개 과제, 16억원)
 - (정부) R&D 지원(과제당 5억원) / (멘토기업) 창업 프로그램(기술·사업화 멘토링, 투자연계, 창업공간 등) 지원
 - * (스타트업) 신규고용 2명(10억원당 18명), 국내·외 특허 3건, 사업화 2건 등 성과 창출
 - (멘토기업) 삼성, SK, KT, 한화, 롯데, 신한, KII, 하나, NH 등 9개년 스타트업 1:1 지원확약

□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 산업 육성 (20년 종료)

- (기술개발) 중소기업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개발 지원(37억원)
 - 정부 R&D 지원으로 개발된 웨어러블 단말기용 유연 안테나 및 케이블 제조기술 등 4개 과제 상용화로 매출액 75.43억원 달성
 - *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의사소통 등이 가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4개 과제
- (공동활용장비 구축) 웨어러블 상용화 지원센터 인프라 확대(26억원)
 - 제품 개발, 실증테스트 등 중소기업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상용화 지원을 위한 공동활용장비 구축 및 단말기 제조기업 제품 개발과 예로기술 지원

□ 정보통신시험인증허브기반구축

- ICT 융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 개발, 인증심사 및 시장 진출 지원 등 종합적 인증체계 지원
 - 품질인증기준 34건 제정 및 융합제품 35종 인증*
 - 생체인식기반 IoT 건강관리 시스템, IoT 스마트 화재경보 시스템, IoT기반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등
 - 334개 공공기관에 ICT융합품질인증제품(3,983개)이 납품되어 약 199억원 규모의 매출 달성

□ 스마트미디어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

- 스마트미디어 관련 ICT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OTT, 소셜미디어 등 6대 분야, 스마트미디어기술개발사업화(R&BD)* 지원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자체 R&D결과물이나 대학, 출연(연)으로부터 이전 받은 R&D결과물의 후속 사업화개발 지원
 - * 20년도 총 17개 과제(계속 11개, 신규 6개), 59.1억원 지원
 - 기술개발사업화에 대한 자문컨설팅, 비대면 진도점검(9-10월) 및 중간평가(12월) 등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역량 강화 및 성과창출 지원
 - * 20년도 R&D과제수영을 통한 신규고용 총 49명으로 10억원당 9.9명 일자리 창출, 스마트미디어 10억원당 매출액 16.45억원 창출, 누적 사업화성공률 90.9% 달성
-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
 - AI, 빅데이터 등 ICT 신기술과 융합된 스마트미디어분야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 지원(16개 과제, 8.4억원 지원)
 - 스마트미디어X 캠프를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과 플랫폼사 간 컨소시엄 매칭을 실시하고(컨소시엄 매칭 96건), 우수 서비스를 선정하여 개발 자금 및 상용화 지원

□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 스타트업 등이 자체 구축하기 어려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하여 AI 허브(aihub.or.kr)에 개방('20년 170종, 4억 8천만건)
- 인공지능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여 자사 제품·서비스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벤처기업 등에 최대 3억원 바우처 지원('20년 225개 과제 599.2억원 지원)
- 인공지능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에 필수적인 고성능컴퓨팅 연산자원을 민간 입찰하여 중소·벤처 등에게 제공('20년 883개 기관에 월25.7PF 자원 제공)
- 인공지능 온라인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사업화 지원금 지원('20년 30개 기업 48억원 지원)

□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의 데이터 기반 혁신을 위해 데이터 구매나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데이터 바우처로 지원('20년 2,040건, 1,064억원 지원)
- K-ICT 빅데이터센터의 클라우드 기반 분석 인프라를 활용하여 스타트업중소기업 등에 데이터기반 사업화 지원(10개 기업)
- 데이터 솔루션서비스 기업의 현지화 개발 및 수출마케팅 지원(12社), 해외 바이어 발굴 및 기업간 네트워킹 등 수출 수요 발굴 기회 제공

□ 인공지능반도체 응용기술개발 지원

- 인공지능반도체 상용화를 위해 반도체 설계기업(중소 벤처스 등)을 중심으로 학·연의 원천기술, 설계인력 등을 활용하여 제품화 지원(2개 과제, 18억원)
 - 자율주행, 스마트카전 등 인공지능반도체 활용 과제 발굴 지원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정보화 수준 향상 지원

-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다양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지원
 - (이용지원) 기업 업종별로 적합한 클라우드를 추천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업무관리 및 보안성 강화 지원(26억원, 1,979개 기업)
 - (바우처) 클라우드 기반 국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 권선휘를 기반으로 한 전환비용, 이용료 지원(80억원, 646개 기업)

□ 클라우드 R&D지원을 통한 활성화 기반 확보

- SG+ 전략과 연계하여 저지연 고성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엣지 플랫폼 SW 핵심기술 확보 등(17개 과제, 165.5억원)
 - 멀티 클라우드 공통 프레임워크 개발 등 계속 13개 과제 105.5억원, 초저지연 클라우드 엣지 플랫폼 등 신규 4개 60억원 지원

□ 전파방송분야 산업 중소기업 육성 지원

- (전파산업 제품화 과정 지원) 상용화 촉진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파산업 중소기업 대상 기술개발부터 제품화 및 전파인증 시험 비용지원
 - 전파플레이 그라운드를 구축 운영 하여 중소·1인 기업 등이 전파를 활용한 기기를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는 시험환경 제공 (22건)
 - 제품 제작화 지원(13건), 중소기업 대상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145건), 예로 기술 해결 및 웹 보유 장비를 이용한 시험측정 지원(42건)
- (방송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중소기업 위주인 국내방송장비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방송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성장기반 조성) 우수 방송장비 패키지 모델 발굴·사업화 지원(2개 과제) 및 방송장비 지침(고시) 운영(총 95건) 등을 통해 공정경쟁 기반 마련

- (해외시장 확대) 차세대 방송(ATSC 3.0) 서비스모델 실증(13종, 28회), 美방송사 빌드테스트 협력(국내 8개사) 등을 통한 해외진출 기반 마련
- * 방송장비 온라인 전시관 구축 및 차세대 방송서비스 홍보 동영상 제작 등 방송장비 기업 및 제품 홍보 지원을 통한 수출 달성(37.9억원, '20년 기준)

□ 중소 벤처 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 (K-ICT 본투글로벌센터 운영) ICT분야 창업벤처기업의 글로벌 역량 성장을 위한 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여 현지 진출 성공률 제고
 - ICT분야 해외진출 유망기업에게 법률·특허·회계·마케팅 등 총 1,915건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 투자유치를 위한 온라인 IR 개최**등
 - * 해외 법인설립 2건, 투자유치 37건(2.47/억원(직/간접), 해외 특허 및 상표·디자인 출원 114건 등
 - ** 국내·외 총 7회 데모데이 개최, 총 656개사에 사업발표 기회 및 투자자 네트워크 지원
- (K-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 디지털뉴딜 중심의 AI, 5G, 블록체인, VR·AR 등 ICT·SW 新산업 분야 성장동력산업 특화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육성 (6개사) 및 유망 스타트업(총 49개사)을 선발하여 국내·외 교육, 투자, 멘토링, 데모데이 등 지원
 - * (액셀러레이터) 신규 파트너 발굴·협력관계 구축 67건, 글로벌 역량강화 활동 39회 등 지원
 - ** (유망 스타트업) 투자유치(국내 107억원, 해외 4억원), 법인설립(국내 9건, 해외 2건), 사업계약·지류(국내 98건, 해외 14건), 특허출원·등록(국내 67건, 해외 17건), 고용창출 187명 등
-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AI, AR·VR 등 ICT 분야 혁신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발굴·사업화를 위해 전문가 교육·멘토링, 글로벌 기술 세미나, 개방형 협업공간, 우수 스타트업 선정 및 상급 등 지원
 - * 20년 53개의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중 국내외 법인설립 7건, 투자유치 11건(39억원), 특허 출원·등록 46건, 신규고용 104명 등 성과 창출
-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ICT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해외진출 자금(투·융자) 제공 등 종합 지원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

- '20년 15개사 선정, 실리콘밸리, 싱가포르 현지기업과 매칭하여 파트너십(MCI) 성사, 투자유치 33건 (1,095억원), 특허출원등록 226건(해외 37건), 신규고용 279명 달성
- (보증지원 보증보험지원) 12개사 대상 314억원 보증서 발급 완료(신용보증기금), 11개사 대상 194건, 11.2억원 대상 보증보험 발급(93서울보증)
- (유관기관 연계지원) 본투글로벌센터(BIG) 연계 법률/회계/특허 컨설팅 37건, 해외진출 경험공유 세미나 3건, 해외 투자자 소개 및 매칭 3건 등

□ ICT 분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

- 전시·수출상담회, 스타트업 IR, 컨퍼런스 등으로 구성된 융복합 해외마케팅 행사(K-Global@)를 통해 국내 ICT 분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우수사례 및 기술력을 홍보하여 해외진출 판로 확보 및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
 - '20년 중국 베이징(11월), 미국 실리콘밸리(12월) 등 2개 지역에서 K-Global@ 행사 개최(국내기업 88개사, 총 533건 수출상담)

□ ICT 혁신기업 멘토링 서비스 지원

- (ICT 혁신기업 멘토링 지원) 성공·실패 경험을 가진 CEO멘토단의 1:1 전담 멘토링, 실전창업교육, 투자역량강화, 선도기업 비즈니스 미팅 등을 통해 ICT 분야 초기창업기업 및 재도전, 예비창업자 창업성공을 제고
 - '20년 전담멘티 232개사 대상 3,979건, 오픈멘토링(일반창업자 1,060개사/명) 대상 2,753건 등 총 6,732건의 멘토링 서비스 제공
 - '20년 투자 유치 155건(626억원), 자금유치 456억원, 특허 출원·등록 313건, 법인 설립 71건, 고용증대 1,019명 등 성과창출

□ 중소·중견 SW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4차 산업혁명 플랫폼인 데이터(Data) 수집, 예측, 활용 핵심기술인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원천기술 및 컴퓨팅시스템, 선도SW 기술 등 핵심 원천기술 확보 중점 추진(963,2억원)

- (전문기업육성형) 인공지능 컨택센터 솔루션 개발, 지능형 전자문서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 등 지원(14개 과제, 50.4억원)
- (클라우드) 5G+전략과 연계하여 저지연 고신뢰 클라우드 엣지 플랫폼 기술,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등 지원(17개 과제, 165.5억원)
- (빅데이터)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 분석 기술, 데이터랩 기반 빅데이터 활용 기술 개발 등 지원(14개 과제, 115.5억원)
- (선도SW) 지식중강형 동시통역 기술, 고신뢰 컴퓨팅을 위한 소프트웨어 블랙박스 기술 등 지원(17개 과제, 217.1억원)
- (컴퓨팅 및 기반SW) 메모리 중심 차세대 컴퓨팅 시스템, 실시간 자율복원 사이버블리 스케일러블 OS 개발 등 지원(44개 과제, 189억원)
- (의료데이터 및 국가혁신형) 의료데이터 분석 지능형 SW기술, 지능형 인터렉션 기술 개발 등 지원(4개 과제, 225.7억원)
- (글로벌SW전문기업육성)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보유한 SW 기업을 선정·집중 지원하여 성장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78.8억원)
 - (SW고성장기업지원) 실내 자율주행 물류기기 기술, 호흡기 분석 SW 개발 등 'SW고성장클럽200' 선정 중소기업의 R&D자금 지원(16개 과제, 54.1억원)
 - (글로벌SW전문기업육성) 선박 운항 시뮬레이터, 클라우드 문서 보안 서비스 플랫폼 개발 등 유망 SW기업의 글로벌화 위한 고도화 지원(7개 과제, 44.7억원)

□ 지역SW산업진흥지원

- (지역SW기업성장지원) 14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기업수요 기반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성장 및 SW기업경쟁력강화지원(32.46억원)

* 14개 광역중심 사업지원 체계 구축, 수혜기업 만족도 90.6점, 신규고용 629명

- (지역SW서비스사업화) 지역소재 강소SW기업 및 초기 스타트업 대상으로 SW 기반의 신규서비스 발굴 및 제분화를 위한 지역SW서비스사업화 지원(88.09억원)
 - 지역특화 SW서비스 사업화 47개 과제, 78개 기업 지원(신규고용 582명, 수혜기업 만족도 91.3점 등)
- (지역SW품질역량강화) SW품질역량센터를 활용하여, 지역 내 중소SW기업 및 관련 프로젝트의 테스트, 컨설팅, 국내외 인증 획득 지원(10억원)
 - SW품질 컨설팅 181건, 테스트 지원 369건, 인증 36건 등

□ 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 지원

-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 ICT융합 조선해양 지원 로드맵에 근거, 기반·응용 기술 R&D 지원(5개 과제) 및 기술개발결과물 성과확산 추진(29.82억원)
 - 조선해양 IoT·빅데이터 플랫폼 및 SW융합 개발자 환경(SDK) 등 대·중·소 상생형 기반·응용기술 개발 지원(5개 과제) 및 기술개발결과물 조선소 현장 적용 등 성과 창출
 - 신규고용 8.5명/10억당(목표 8명/10억당), 좋은 일자리 창출(정규직비율) 92.2%(목표 89%), 사업화 성공률 54.2%(목표 35%), SCI(EI) 논문 4건, 특허 등록 11건(출원 7건) 등
- (기반조성) 조선해양ICT융합센터 운영 및 ICT·SW품질 검증 인프라 구축·운영 등 조선해양 ICT융합 기반조성(8.02억원)
 - 조선해양 ICT·SW품질 검증 인프라 구축 완료(총 69종) 및 조선해양ICT융합센터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20.11월)
 - 시설장비가동률 55.7%(목표55%), 조선해양ICT융합센터 내 기업 유치율 21개실 100% 입주 완료 등

□ SW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SW 고성장 기업 지원

- (수출지원 성과) 국내 우수 SW·ICT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준비도 제고, 네트워크 확충,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확대 등 해외 진출 준비 단계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약 50억 원(’20년 기준) 규모의 수출지원 성과 창출

- (수출 준비도 제고) 해외 목표시장에 부합하는 SW 사용자 환경·기능·언어 등의 현지화 및 국내 SW·ICT 기업의 수출마케팅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 현지 환경의 언어·문화 분석을 토대로 목표 시장에 맞는 사용자환경 개선, 매뉴얼 제작 등 수출형 SW 현지화 지원(8개 과제)
 - 목표시장 진출전략 수립, 현지 잠재고객 발굴 등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해외 진출 가능성 제고(국가(미,일,베,중)별 5개 기업, 총 20개 기업)
- (네트워크 확충) 해외 기술협력 컨퍼런스 개최
 - K-Global@자이나(11월), 실리콘밸리(12월)를 통해 국내 우수 ICT·SW 기술 홍보, ICT·SW 전문기업의 투자유치, 수출상담 등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확대) 4차산업·SW신산업 분야 해외 시범사업 구축을 통한 수주지원 및 인도, 베트남 거점기반 현지시장 진입지원
 - 해외 시범사업·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구축, 운영 및 평가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레퍼런스 확보 지원(4개 과제)
 - 해외거점(인도 벵갈루루, 베트남 하노이·호치민)을 기반으로 국내 SW 수출 기업의 현지 시장 안하, 매출 확대 지원 및 베트남 SW교육 55명 수요·43명 인턴연계
- (SW고성장기업 지원) 성장 가능성 높은 고성장기업과 예비 고성장기업 114개사를 선정하고,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자유평가제 이행자금과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매출 증대, 신규 고용 창출 등의 성과 창출
 - * (20년 기준) 지원기업 총 매출 2,600억원, 투자 유치 74억원, 신규 고용 1,704명 창출

□ 기술확산(SW융합클러스터)지원

-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SW수요가 밀집된 집적지에 "SW융합클러스터" 조성

- 2개(대전, 광주·전남) 클러스터 SW융합 R&D 생태계 활성화, 벤처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 지식혁신 네트워크 구축 등

* 신규고용 342명, 창업기업 30개 사, 인력양성 1,321명, 특허 출원 및 등록 57건 등

□ VR·AR콘텐츠산업육성(舊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산업 육성)

- (VR·AR 공공산업 적용 프로젝트) 공공·서비스·산업·과학 분야(국방·의료·제조·교육/훈련, 쇼핑, 핵융합 등)에 XR 기술을 접목한 실증과제 신규 발굴·지원(14개 과제)

※ (대표성과 지원과제) ① MR(혼합현실)기술을 활용한 공군비행장 스마트 관제탑 실증(2.7억 매출) ② 5G+XR기반 원격 교육·실검 시스템 및 콘텐츠 개발 ③ 공간동기화 기술기반의 원격 통합 원격 훈련 체계 개발(32.1억원)

- (XR 융합프로젝트) XR 적용 효과가 큰 공공·산업 분야의 생산성 혁신 및 공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부 주도(다부처 협력)의 대규모 프로젝트(3개 과제)

※ XR 기술의 공공·산업 적용으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XR융합 프로젝트 주요 분야 (① 교육·훈련(경찰청 협업) ② 의료(국방부 협업) ③ 제조(과기부))

- (차세대 실감콘텐츠 개발지원) 5G네트워크의 초고속·저지연 특성을 활용한 5G 전용 XR콘텐츠' 발굴 및 제작지원(24개) 및 '비대면 XR 콘텐츠' 제작지원(26개)

- K-실감스튜디오 인프라 기반의 Volumetric 콘텐츠 제작 시범 지원 사업을 통해 10개 프로젝트 발굴 및 기술 지원 및 실감콘텐츠 기업 월 평균 약 14.1개사(누적 169개사) 2,143회 시설 이용 지원

- (지역 VR·AR제작거점 지원센터 운영) 지역특화산업 연계 VR·AR 융합콘텐츠 제작(실증)지원을 통해 융합콘텐츠 발굴(100건), 지역기업육성(139개사), 고용 창출(400명), 매출향상(239억원) 등 성과 창출

- VR·AR 콘텐츠 저변화대를 위한 KVRF(Korea VR Festival) 2020 개최

※ KVRF온라인 9,342명, 오프라인 2,894명 참관 및 글로벌 온라인 컨퍼런스(1차 2,610명, 2차 1,171명 참가)

□ 디지털콘텐츠 기업경쟁력 강화

○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컴퓨터그래픽(CG) 전문기업 육성 및 CG/CG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 지원을 통해 고품질 디지털콘텐츠 제작 지원(약 51억원)

* 총 15개 개별 지원 과제(CG전문기업육성 7개, CG기반 신비즈니스 모델 5개, CG 공동제작 프로젝트 3개) 국내 매출액 710억원, 해외 매출액 76억원

* 국내 CG기업의 전문인력 매칭 및 신규인력 발굴을 위한 2024년 CG 리크루팅 캠프를 통해 창석자 97명 중 19명 취업 연계 성공

○ 건강증진, 치유보조 등의 융합형 휴먼케어 콘텐츠*, 스포츠 시뮬레이터 등 ICT 융합스포츠 콘텐츠**, 온라인 유통·게임즈, 비대면 비즈니스 등 ICT기반의 스마트콘텐츠 개발지원***으로 디지털콘텐츠 분야 新 시장 창출(65억원)

* 총 14개 과제개발지원 10개, 사업화지원 4개 지원하여 국내매출액 약 13억원 달성 등

** 총 15개 과제개발지원 5개, 성과확산 10개 지원하여 국내매출액 약 30억원, 고용창출 38명 달성 등

*** 총 7개 과제 지원하여 국내매출액 약 21억원, 고용창출 27명 달성 등

○ 다양한 분야와 융합된 ICT기술 기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과제 발굴 및 해외 유통과 연계한 공동제작 등 협력사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新시장 선점(75억원)

* 총 13개 과제 지원, 국내매출 6억원, 해외매출 140억원, 일자리 창출 49명, 글로벌 계약건수 17건 등

○ 유망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글로벌 주요 거점 진출 상시 지원체계 마련과 환경 변화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강화(47억원)

- 해외진출 주요거점 인프라 지원*, 해외진략시장 홍보·마케팅 지원**, 디지털 콘텐츠 해외 신홍시장 개척 지원***

* 총 161개사, 지원 요청사항 546건 접수·지원으로 해외 매출액 34억원, 해외 계약액 12억원, M&A 8건, 법인설립 4건, 지원기업 만족도 '우수' 이상 달성 등

** 해외계약 70건, 해외매출액 69억원, 일자리 창출 66명, M&A 11건, 대표 홍보채널 운영구독자 407명, 영상조회 50,295회, 온라인 전시비즈니스 코드쇼1상업건수 214건 등

*** 가상전시관 구축 및 전시회 개최계약 5건, 약 3억원 체결 등

□ ICT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

- (제조운영체제 개발) 개방형 제조운영체제(Open-MOS) 국산화 개발을 위한 글로벌표준 분석 및 개발(20년 8.4억원)
 - 5G 기반의 독일 14.0 제조자산표준(AAS)를 적용한 제조운영체제(MOS)를 설계하고, 국제 표준기술(제조자산, 데이터통신 등)을 적용한 제조 공정데이터 수집·저장 체계 구축
 - 커넥티비티 프레임워크(49개 라인 선정 및 현황 분석), 표준공정 프레임워크(제조 공정 및 자산, 통신(AAS+AMI+OPC-UA) 통합화 검증)
 - * 신규고용 22명, 개발지표성능 검증 11건, 표준분석 1건, 달성률 102.2%, 논문 1건, 특허출원 2건 등
- (제조 특화서비스 개발) 제조 운영 협업시스템 및 자동차부품 특화서비스 7종에 대한 요구사항 도출과 MSA(Microservice) 기반으로 설계를 진행(20년 6억원)
 - 협업 정보연계 및 생산 운영 기능요건 정의 등 도출한 공정별 제조자산 표준 데이터 요구사항 기반의 기능 설계를 추진하고, 마이크로서비스를 적용한 특화 서비스 7종(설계 4종, 프로토타입 3종) 개발
 - * 자동차부품 제조 특화서비스 요건 정의 및 설계 완료/정의 및 설계 7건, 프로토타입 및 성능 검증 7건
- (실증 및 검증) 검증 및 사업 지원을 위한 실증체계를 구성하고, 실 제조라인에 적용되는 IIC 국제인증을 위한 프로세스를 추진(20년 2.6억원)
 - 실 제조라인에 대한 제조자산표준(AAS) 체계 기반의 IIC(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국제인증 절차를 추진하고, 핵심 국제표준을 적용한 IIC를 수행함으로써 기술 검증을 진행
 - IIC Korea(한국 인터스트라4.0 협회)와 연계한 테스트베드 컨셉 및 실증 시나리오 점검 등 IIC 인증 취득을 위한 실증체계 구성
 - * 실증을 위한 대상 현장 생산라인 선정과 IIC 인증 체계 구성(Doc 1건, 계획 1건, 성능지표 개발 4건)

□ ICT 혁신선도 연구 인프라 구축

- 5G 장비·단말 등에 대한 국제공인시험 인증 및 운용 실적 지원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 R&D 역량 강화 및 ICT 산업 경쟁력 확보
 - 5G 단말 국제표준기반 검증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 중소기업에 전주기 기술 지원 및 시험인증 제공, 28GHz 대역 5G 단말 개발 촉진에 기여
 - 3.5-28GHz 5G 단말 분야 공인시험인프라를 통해 시험인증 및 기술 등 기업지원(20년 57건)
 - ICT 중소 장비 기업의 융합 제품/응용서비스 개발 시 필요한 공통 기능 및 시험 환경을 가상화로 제공하는 SW 인프라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 공통 SW 기능 모듈 및 초연결 네트워킹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기업지원(20년 4건) 및 예외기술 지원 등을 통해 해당 분야 사업화 성공(4건, 수혜기업 유법배출 효과 3.2억원)
 - 5G 인프라 장비 시험검증을 위한 환경 구축 및 인프라 공동활용 지원을 통해 국내 5G 인프라 장비분야 제품 인증 및 개발기간 단축 등에 기여
 - 국내 중소기업에 5G 장비 검사 인프라 제공 등을 통한 시험평가 및 기술지도, 국제 공인 시험성적서 제공 등 기업지원(19년 9건)

□ 정보보호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 (기술지원) 국내 정보보호업체의 제품 연구개발 시험환경 제공, 기술 지원
 -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에 고성능(100G급 트래픽 처리) 시험환경을 구축해 국제적 수준의 고성능·고사양 보안제품 개발 선도, 상용화 촉진(40건)
 - 테스트베드 이용(156개사), 이용업체 대상 기술지원(689건), 시스템운용교육(8회)
- (수출지원) 해외 진출 경험이 부족한 국내 정보보호업체들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5대 해외진출 전략거점 구축 및 수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맞춤형 수출지원(21회, 5억1,650만원 수출), 스타트업 해외진출(美 역평강화 프로그램) 개최 11/3(2건), 파트너십 프로그램(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 5회 및 웨비나 2회 개최)
 - 해외 5대 전략 거점을 통해 현지 사업 및 기업의 진출수요 발굴, 19개국 산업 시장 동향정보 및 권역별 진출 전략 보고서 발간
 - 해외 사업수요 발굴 및 수출지원(44회, 777.3억원)

(해외 5대 전략거점 사무소)

권역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북미
국가	오만	탄자니아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미국
거점 사무소	주오만대한민국 대사관 (무스카트)	KOTRA 무역관 (다라살람)	중미 경제통합은행 (산호세)	현지 벤처사무소 (자카르타)	PNP (실리콘밸리)

- (중소기업 보안지원) 디지털전환 가속화로 증대된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하여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컨설팅 및 보안장비 도입 지원
 - 지역 정보보호 지원센터 10개소* 운영,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제품 지원 (775개사)
 - * 강원, 경기, 경북, 대구, 충남(부산), 인천, 울산, 충북(충북), 충남, 호남(광주)
- (정보보호제품 개발역량 강화)통합·융합보안 제품 협업개발 지원(5개 과제), 정보보호제품 개발 전문인력 양성 지원(9개 기업, 24명 지원)
- (스타트업 육성) 시큐리티 스타트업 R&D 추진으로 우수 정보보호 스타트업 발굴 및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육성 지원 (계속과제 5개, 총10억원, '20년 종료)

□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장비 선도적 개발 지원

- (5G 융합서비스 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 등의 5G융합서비스 시험·실증 지원을 위한 개방형 5G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
 - 4개 지역(판교, 대전, 대구, 광주)에 5G융합서비스 시험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NSA) 구축을 완료하여 전국 기반의 시험·실증 환경 구축
- (IoT 산업체 육성) 지능형 IoT 기반 전략 산업의 디지털 가속화 및 성장 동력 모델 창출로 IoT 기업 지원을 통한 산업 육성 추진
 - AI·5G 등을 적용한 지능형 IoT융합 서비스 발굴·확산을 통한 IoT기업의 역량 강화 및 시장진출 촉진 지원(7개 과제, 126억원)
 - * IoT 플랫폼 기반, 공급·수요기업이 참여하는 풀콜 컨소시엄 방식 추진 및 지능형 IoT 개발·적용

- (IoT 핵심기술 개발) 5G 통신 인프라 활용을 위한 초저지연·고신뢰, 초연결, 초고속·대용량 IoT 핵심기술개발로 5G 기반 IoT 생태계 구축(7개 과제, 70억원)
 - (초저지연·고신뢰 IoT핵심기술개발) 5G 초저지연·고신뢰 서비스 대응 IoT 인프라 기술개발(3개 과제, 30억원)
 - (초연결IoT핵심기술개발) 초고밀도/저전력 IoT 디바이스간 연결성 확대 및 인명구조와 재난대응을 위한 다중전송 기술 개발(2개 과제, 20억원)
 - (초고속·대용량IoT핵심기술개발) 스마트 팩토리, 안전 설비 등 초당 수십만 건 데이터를 생성하는 대용량 정보 고속 처리 기술 개발(2개 과제, 20억원)

제4장

문화체육관광부

□ 콘텐츠산업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구축

- (성장단계별) 문화콘텐츠스타트업의 초기창업(창업 3년 미만), 도약(창업 3-7년 미만), 재창업 지원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아이디어 융합팩토리 운영('20년 76팀), △초기창업육성프로그램('20년 49팀), △창업도약 프로그램('20년 21팀), △창업제도전 프로그램('20년 20팀), 해외마켓참가지원('20년 39팀),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20년 75팀)
- (인간 동반성장) 콘텐츠 관련 대·중견기업 등이 동반자(파트너사)로서 유망 초기기업과 프로젝트 연계사업 추진을 통한 스타트업 자생력 강화
 - △대·중견기업 동반성장('20년 12팀), △ 엑셀러레이터육성 프로그램('20년 30팀)
- (인프라 확충) '지역 콘텐츠코리아 랩' 15개 광역별 구축 완료('20 4곳 개소 완료), '지역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지속 확충('20년 6개소 구축 완료), 뉴콘텐츠센터,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통한 게임 창업준비팀 및 중소게임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 (콘텐츠코리아랩) 대전·울산·강원·경남 개소 완료, 제주 개소 예정 총 15개 전지역 구축 (지역콘텐츠기업육성센터) (기존) 전남·전북·충남·경남·대구·인천, (구축 중) 경북, 대전
- (정책금융 확대) 콘텐츠기업의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모태펀드(문화콘텐츠펀드 신규 2,438억 원) 조성, 완성보증(신규 1,433억 원) 및 이차보전(이자지원 대출 규모 509억 원) 제도 운용
- (문화기술 R&D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기술사업화 강화 지원
 - 문화산업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및 중소·창업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20년 70억원, 23건 지원)

- 지역 기반 문화 유희시설에 콘텐츠 기업의 기술을 사업화(실증)하여 첨단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 추진('20년 58억원, 4건 지원)
 - * 박물관(충남), 공연장(대구), 경기장(강원), 테마파크(경북) 지원
- (해외진출 지원) 수출시장 다변화 위한 해외거점 역량 강화 및 한류마케팅을 활용한 연관산업 동반 해외진출 지원
 - 신남방 지역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 위한 해외거점 역량 강화('20.10월 베트남 비즈니스센터 설립)
 - * ('19) 비즈니스센터 6개소, 마케터(시장조사인력) 파견 2개소 → ('20) 센터 7개소, 마케터 1개소
 - 민관 협력 통해 콘텐츠 외 소비재까지 연관산업의 한류 연계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코로나19로 인해 마케팅 행사는 비대면 개최)
 - * 문화부 '온·한류축제'를 산업부 '한류마케팅'과 연계 비대면 개최('20.11월), 한국 생활문화 상품 소개 등 '오코지 코리아' 비대면 개최('20.10월~21.1월), 민관협력 콘텐츠·소비재 홍보마케팅 행사 'KCCX' 비대면 공동개최('20.10월)
- 중소영화제작사 경쟁력 강화 지원
 - 모태펀드 영화계정을 통해 영상전문투자조합 310억 원 출자, 464억 원 결성, 중·저예산 영화 제작 활성화에 기여
 - 한국영화 다양성 강화를 위해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확대(60억 원, 78편)
 - 독립·예술영화의 개봉비용 지원(28억 원, 42편) 및 온·오프라인 유통배급 지원센터(인디그라운드) 운영(20억 원)을 통해 관객 접근 확대
- (방송영상콘텐츠) 우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 지원
 - 경쟁력 있고 창의적인 우수 콘텐츠 발굴·제작지원으로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의 제작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
 - * 우수 드라마(단편, 연속물) 및 다큐멘터리 등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46개 과제), 실버문화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지원(교양, 다큐 등 6편), 뉴미디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웹드라마, 예능/교양 등 6편), 실감형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12편, 3개 기관), 방송포맷 제작 지원(10편)

- 해외 유력 국제방송영상마켓 참가지원(4개 시장/ 92개 방송기업 지원), 국내 국제방송영상마켓 온라인 개최(BCWW/9월, BCM/11월) 등을 통한 중소 방송 영상업체 콘텐츠 1:1 투자 상담, 마케팅 등 수출 촉진 지원
- 수출용 방송콘텐츠 대상 번역, 음성편집(더빙), 종합편집 등 현지화 재제작 지원을 통해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70개 작품)

□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 (관광벤처 발굴·지원) 혁신적 관광벤처를 발굴, 관광 상품·서비스 개발 및 교육·컨설팅, 국내외 홍보·판로개척 등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등을 통한 성장단계별(예비·초기·성장·재도전) 관광벤처 기업 발굴(150개) 및 사업화 자금(평균 4천만원) 지원
 -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22회), 관광특화 역량강화 교육 실시(14회), 국내외 홍보·판로 개척 지원(6건), 관광벤처기업 네트워킹 지원(18회) 등
 - 관광기업지원센터 관광기업 입주지원(70여개) 및 기업 간 협업 프로젝트 지원(5개 프로젝트) 등 안정적인 기업성장 및 협업 환경 조성
- (관광기업 성장지원) 관광기업의 성장(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경영혁신, 해외진출, 기술융합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
 - 민간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연계 관광기업의 고도성장 지원 및 민간 직접 투자 유도(30개 기업)
 - 관광기업의 디지털 전환 등 혁신적인 성장 및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 바우처 지원(101개 기업)
 - 관광분야 혁신적인 선도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네트워킹, 투자유치, 사업화자금 지원 등 지원(8개 기업)
 - 중기부 TIPS 선정기업 중 관광산업과 연계 가능한 기술 기업을 발굴하여, 관광 산업으로의 사업 영역 확대 지원(6개 기업)

- (투자 유치 지원) 기업 자금 조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관광기업 육성펀드, 크라우드 펀딩 등 투자 지원

-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운영(15~20년 총 1631.2억 원, 기금 980억 원 포함)

* 제1호 펀드(15년 결성): 총 220억(관광기금 130억, 민간 90억), 제2호 펀드(16년 결성): 총 300억(관광기금 100억, 민간 100억), 제3호 펀드(17년 결성): 총 270억(관광기금 150억, 민간 120억), 제4호 펀드(19,20년): 총 280억(관광기금 170억, 민간 110억), 제5호 펀드(19년 결성): 총 220억(관광기금 130억, 민간 90억), 제6~13호 펀드(20년 결성): 총 441.2억(관광기금 300억, 민간 141.2억)

- 관광중소기업 대상 크라우드펀딩 활용 자금 확보 지원(펀딩설계, 콘텐츠 제작·펀딩 수수료 등), 투자자문위원회 개최 등 후속 투자유치 지원

□ 스포츠기업 종합 지원 기반 마련 및 성장단계별 지원 규모 확대

-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신설)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신설을 통한 스포츠기업 종합 지원 기반 마련

*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기업보육공간 및 전시체험공간 조성(약 730명, 51.6억원)

- (성장단계별 지원) 스포츠기업 융자 지원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 창업·액셀러레이터·중소기업·선도기업 지원 등 성장단계별 육성 지원(19년 133~20년 166억원)

구분	지원 사업
① 예비창업~창업초기(3년)	창업지원센터(7개소, 20년 33억원) : 상동서비스 개발비 지원, 창업 교육
② 창업 중기(5년)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4개소, 23년 17억원 : 사업화 지원금 사업 모델 수립
③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56개, 20년 40억원) : 경영·해외신출간성립, 해외진출 등
④ 선도기업 지원	선도기업 육성(30개, 20년 69억원) : 사업고도화 해외판로개척 해외마케팅

- (R&D 연계 확대) 스포츠 창업촉진 기반 기술 연구 5개 과제(15.2억원) 및 선도기업 핵심기술 개발 연구 3개 과제(22억원) 지원

□ 금융 지원 대폭 확대 및 지역 스포츠기업 육성 지속

- (금융 지원) 스포츠기업 융자 지원 확대('19년 562억원 → '20년 1,261억원) 및 스포츠산업 펀드 결성 지속('20년 신규 100억원 출자)

- (지역 스포츠기업 육성)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 지원

* 연 25억원씩 4년간 지원(부산 / 2022년까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활성화를 위한 문화산업기업 육성

- (문화산업 육성지원) 예비창업자 육성 및 콘텐츠 제작·마케팅 지원으로 콘텐츠 생태계 성장지원

- (예비창업자 육성) 유망 아이디어를 가진 창작자 선정,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한 프로젝트 제작과 창업 인큐베이팅 운영

(라이팅 10개 제작지원, 10개사 30명 취창업)

- (창업기업 완성형 콘텐츠 제작) 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콘텐츠 제작지원 및 중국시장 겨냥 체험형 융합콘텐츠 제작지원(프로젝트 6개 제작지원, 39명 취업, 전문가위원회 개최 8회,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2회)

- (우수기업 마케팅) 해외 유관기관 및 기업과 유기적 파트너십 구축, 공동제작 투자 유치를 통한 안정적 유통 배급망 확보 등

(공동제작투자 MOU 18건 469억, 국내외 라이선싱 계약 120건 274억)

- (국제문화창의산업전*) 국내외 비즈니스 교류촉진 및 시장개척, 최신 문화 콘텐츠 전시 개최(11월)를 통해 수출상당 168만불, 계약 6만불 달성

* 30개국 263개사, 국내외 바이어 170명 참가, 관람 6만명

- (문화산업 시설기반 마련) 콘텐츠 창제작, 유통, 마케팅 기반시설 조성 추진

-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21.12월 준공예정)
- *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16~'22/총사업비 1,035억) : 기존 C&C 센터를 보완, 지역 콘텐츠 우수기업 입주,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유통·마케팅 집적화하는 거점기지 (지하1, 지상 9층 규모)
-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설* 구축 및 운영(5월 개소)를 통해 투자상당부터 입주, 기업 육상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지원시설▶

- (위 치) 광주 동구 금남로 1가 1-1번지 외 3(전일빌딩)
- (규 모) 전일빌딩 1층, 4층~9층, 연면적 10,443㎡
- (총사업비) 100억(국비 50, 사비 50)
- (사업내용)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및 문화전당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설(50개 기업 입주공간, 공용장비, 콘텐츠체험관)을 구축하고, 지원 프로그램 운영 (투자유치 5개 기업, 71억원)
- (추진성과) 2020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최우수상 수상, 미간 광공 100선, 한국관광 100선 선정

제5장

농림축산식품부

□ 기능성식품산업육성

-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 발전 및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국내 농산물 유래 우수소재의 기능성 연구 지원 및 산업활성화 기반 구축 추진
 - 지역 농특산물의 기능성 등록에 필요한 인체적용前시험(동물시험 및 안전성 평가) 7개 품목, 인체적용시험(임상시험) 22개 품목 지원
 - 기능성 규명 사업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사업단 운영, 기능성 농식품자원 실태 조사, 통합DB 운영,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으로 체계적 산업육성 지원
 - 지원규모('20) : 29억 원
- 식품기능성평가지원(18억원), 기능성농식품자원실태조사(1억원), 기능성농식품자원통합DB운영(1억원), 국산소재기능성규명(5억원), 기능성원료은행구축(4억원)

□ 식품외식종합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체에게 식품의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설현대화 자금, 국산원료 매입에 필요한 자금 등 융자 지원
 - 지원규모('20) : 1,770억 원(식품가공원료매입 1,271억원, 농식품시설현대화 100억원, 외식업체육성 195억원,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 196억원, 식품원료 계열화 8억원)
 - 지원조건 : 융자 80%, 시설자금(연 2.0~3.0%, 3년 거주 7년 상환), 운영자금(연 2.5~3.0%, 1년 상환)

□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 중소식품기업의 식품 위생·안전 및 품질개선 등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 농공상 융합형중소기업 대상 전용판매관 운영 및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대한민국 식품대전(KFS) 개최 등 판로개척

- 지원규모('20) : 30억 원

*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10억원),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12억원), 대한민국식품대전(8억원)

- 국산원료를 사용하여 전통식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유용·중급 보급 등 기술지원, 판로개척 및 홍보지원

- 지원규모('20) : 91억 원

* 소스산업화센터 운영지원(3억원),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 건립(15억원),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10억원), 중급활용발효식품산업지원(5억원)

□ 사료산업종합지원

-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실시하여 사료제조업체에 대한 사료 원료구매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융자 지원

- 사업규모('20) : 533억 원(사료원료구매자금 513억원, 시설개보수자금 20억원)

* 지원조건 : 원료자금 용자 80%(2년 거치 일시상환, 3%), 시설자금 용자 70%(3년거치 7년상환)

□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지원과 수출업체의 시설 현대화 자금을 용자로 지원

- 지원규모('20) : 3,529억원(원료구매지원 3,481억원, 수출시설현대화 48억원)

* 지원조건 : 원료자금 용자 80~90%(고정금리 (2.5~3.0%) - 변동금리 중 택일, 1년 상환), 시설현대화 용자 80%(고정금리 (2.0~3.0%) - 변동금리 중 택일,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 수출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물량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농산물전문생산단지, 품목별 전문판매조직인 "수출통합·선도조직" 육성 및 수출업체 대상으로 수출물류비·안전성검사·검역·통관·보험·브랜드 홍보 등 맞춤지원 추진

- 지원규모('20) : 771억 원(생산기반 구축 41억원, 판매조직육성 62억원, 농식품 우수기업육성 664억원, 농식품수출카우처지원 4억원)

*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국비 50:10)

제6장

산업통상자원부

□ 수출 중소중견기업 위기극복 지원

- (지사화) 상반기 조기모집을 통해 수출 물량을 사전에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고용부 선정 고용창출 우수기업, 청년친화 경소기업)에 대한 참가 한도 2개 지역 추가할당(기존 10개 지역) 및 가점(+5점) 부여

→ 지원기업수 : (18) 4,828개사 → (19) 5,017개사 → (20) 5,209개사

- (수출바우처) 소부장·소비재·서비스 등 유망산업별로 사업 개편·확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바우처**' 운영

* 지원기업수 : (19) 819개사 → (20) 1,078개사

→ 미사용 바우처를 회수하여 수요기업에 재발급

- (전자상거래)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협력 및 판촉지원 확대

- (파워벨리 육성) 글로벌 유통망 협력 확대*를 통한 해외지점판매 지원 프로그램 다변화

* (19) 아마존(미국·일본) → (20) 아마존(미국·일본), 쇼퍼(동남아), 쿠팡(일본)

- (해외유통망 협업) 해외 현지 온라인 플랫폼 협력 확대 및 코세게 연계 판촉전 개최로 입점기업 매출 확대

* (19) 41개사 지원 / 66억원 매출 → (20) 274개사 지원 / 154억원 매출

- (온라인 상설 전시관) 코로나 19 상황속에서 중소기업들의 비대면 수출마케팅 지원을 위한 주요 업종별* 온라인 상설전시관 구축

* 섬유, 바이오텍스, 전자, 스마트홈, 로봇, 기계, 화학, 조선, e-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 (글로벌 파트너링) 국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지원을 위해 글로벌 기업 수요발급 중심의 GP사업 추진(10년~)

- 국내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글로벌기업 수요에 대한 R&D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신흥시장 중심 해외 GP센터 확대*

* 기존 4개소(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조선해양플랜트), 그리스(아테네/조선해양플랜트), 멕시코(멕시코시티/자동차)→총 7개소

○ (무역보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포함, 중소·중견기업에 59.6조원(중소 39.4조원) 규모의 무역보험 지원

* 중소·중견 지원심적(조원) : ('18) 52.0(중소 32.3) → ('19) 56.2(중소 35.7) → ('20) 59.6(중소 39.4)

- 수출신용보증 실적(억원) : ('18) 26,955 → ('19) 29,253 → ('20) 33,532

○ (FTA활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FTA활용 애로해소 지원 강화

- (건설탕·원산지관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현장 건설탕* 지원을 강화하고, 전자 원산지관리시스템 무료 보급 확대

* FTA 활용 건설탕(개사) : ('19) 4,300 → ('20) 4,463 (코로나19 영향)

** 원산지관리시스템 무료 보급(누적 개사) : ('19) 19,657 → ('20) 23,204

- (해외센터) 전남·방지역 등 유망 신흥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FTA활용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지 진출기업을 밀착 지원

* 20년 신규 개소: 멕시코('20.5월), 영국('20.12월) → 중국, 아세안 등 총 8국 15개소

□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 역량 제고

○ (기술사업화) 우수기술보유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등 금융지원 강화 및 우수기술 확보 지원

- 벤처캐피탈(VC) 등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R&D·제품화·시험인증, 제품생산 등 중소·중견기업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 사업화연계기술개발 지원 : ('18)7개/866억원→('19)52개/366억원→('20)54개/300억원, 20년 일몰제 따른 후속 신규사업 기피 및 여타 통과('20.4. 21~28, 1,924억원)

-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를 통해 Open-lab, MPW* 제작, 반도체 IP 관리·검증 등 지원

* MPW (Multi Project Wafer) : 웨이퍼 1장에 여러 종류의 칩을 제작하여 반도체 성능검증

◆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구축 사업(20년 50억원)

- (Open-lab) 펌리스 기업이 활용 가능한 사무공간 구축(판교), 펌리스 대상 컨설팅 등 지원
- (MPW) 펌리스의 반도체 개발·검증에 필요한 MPW, 패키징 등 시제품 제작 지원
- (반도체 IP) 반도체 IP 관리·검증·확산 플랫폼 구축 (국내 IP DB 구축, 검증 등 지원)

- 지능형반도체(20년, 73억원) 및 소재·부품·장비(20년 24억원) 인력 양성 지속, 전력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프로그램 신설*

* 차세대 전력 반도체소재 제조전문인력 양성사업(20년 24억원, 60명/年)

○ (디스플레이) OLED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 지원 등 추진

-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제품 중 국내 개발이 가능하고 과급효과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국산화 추진

* (OLED) 공장장비를 핵심부품 기술개발 : '20년 65억원

- 신시장 개척을 위한 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지원

- 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시장활성화 지원 : '20년 27.5억원

- 중소·중견기업에 부품·장비 관련 석사급 우수인력 지원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사업 지속 추진(20년 25억원)

- 對中 수출 확대를 위한 로드쇼, 무역상담회, 한·중 산업 교류회 추진

○ (엔지니어링·디자인·SW) 중소 제조기업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활용(21개사) 및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생산서비스 활용(12개사) 지원(17억원)

- 지방소재(대구·울산·익산) 중소기업에 제품 제조 전주기에 걸친 설계 엔지니어링 관련 SW·장비 활용 및 기술 지원(지역별 각 5억원)

- (뿌리산업)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글로벌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간극 극복 뿌리기술 R&D 과제 17개 지원('20년 124억원)
 - 글로벌수확산업품질대응뿌리기술개발사업 '20년 신규 17개 과제 추진
 - 뿌리스마트융합 석사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을 확대*하고,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을 통한 우수 외국인력 배출
 - 뿌리스마트융합대학원 '20년 1개교 신설(신기대, 인하대, 조선대 총 5개, 19.4억원)
 - 뿌리특화단지내 공동활용시설 및 혁신활동 지원(76억원, 11개)하고, 급형분야 (24개사) 공동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MOU체결*
 -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 조차의 일환으로 수급 안정화 및 물류 효율화 업무 협약(산업부-중기중앙회-생기원-금형산업진흥회, '20.12월)
-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품목지정 및 실증형 과제를 확대하여 기술 개발 성과의 사업화 가능성 제고
 - 품목지정 및 실증형 과제 중 중소기업 주관/참여과제 : (19년)5개 → (20년)6개

□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절약 지원

- (에너지절약) 중소·중견기업 대상 에너지절약형 시설 투자비용 장기·차리로 용자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금리 우대('20년 2,900억원)
 - 중소·중견기업 지원비율 : (18년) 96.3% → (19년) 95.8% → (20년) 98.8%
 - ** 분기별 변동금리('20년 중소 1.50%, 중견 1.75% 적용), 3년거치 5~7년상환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지침」 세부내역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85개 항목)에 지원
- (에너지진단) 중소기업에 에너지진단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국가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유도('20년, 6.30억원)
 -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1만toe 중소기업에 진단비용 30% 지원
 - 100개원에 6.14억원 지원하여, 연 35천toe의 에너지절감 잠재량 도출

□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단계별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내수 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 지원
 -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20년 230억원, 중소기업 100개사 포함, 317개사 지원), 세계일류상품(20년 3억원, 874개/283개사 선정) 등
- (R&D) 중소·중견기업 공동 R&D 사업*과 기술문제해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 중견·중소기업 컨소시엄에 참여해신 R&D 지원(20년 25억원)
 - ** 중견·중소기업 기술 애로를 온라인에서 외부전문가를 통해 해결 지원(20년 1.5억원)
- (인력) 중소·중견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인재 채용 촉진을 위한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등 매칭 지원 활성화
 - 2020 '리딩코리아, 월드클래스 집 페스티벌' 개최(9.16~25, 산업부·중기부·KIAT) : 중소·중견기업 51개사, 공공기관 15개사 참여
- (성장디딤돌) '중소→중견'으로의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금융·관료 등 9개 성장걸림돌 과제 개선 완료
 -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 확대(중소→중견), 공공조달 혁신제품 지원대상에 중견기업 허용 등

제7장

보건복지부

□ R&D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분야 실용화 성과 창출

- 신약, 재생의료 및 의료기기 등 미래유망 보건의료분야에 전년대비 12% 증가한 458억 원의 중소기업 R&D 투자

※ 첨단의료기술개발(281억 원, 8개 기업), 의료기기기술개발(86억 원, 28개 기업),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91억 원, 14개 기업) 등 86개 기업 지원

- 신약 해외기술이전, 의료기기 품목허가 및 감염병 진단기기 인증·품목허가 등 보건의료분야 중소기업의 우수 연구개발 성과 창출

표 7-1-1 | 2019년도 실용화 성과

(단위: 건)

계	신약 해외기술이전 ^{*)}	의료기기 품목허가 ^{**)}	감염병 진단기기 인증·품목허가 ^{***)}
30	4	10	4

* 비알테오젠 파허주사 원천기술(AUT-101) 최대 매출 6,477억원 기술이전(20.6) 등

** 86시제바이오 광성동맥용스텐트(20.5), 10아크로스 조직수복용생체재료(20.7) 등

*** 유노블바이오 Chimerogene 55-machurin(살모넬라균 검사용) 생체검사용 도구, CSM2-NIP 의료기기 제조 인증서 획득(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20.2)

□ 보건산업분야 특화 창업기업 전주기 지원을 위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운영

- 보건산업분야의 사업화 유망 R&D부터 인허가, 창업, 판로개척에 이르는 사업화 전주기 지원 강화(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18.3월 개소)

※ 사업화 유망 창업기업 689개사(개소 이후 누적) 관리하여, 1,936건(20년)의 전문상담 진행

※ 기술가치평가, 특허·인허가 컨설팅 등 사업화지원 94건 제공(20년 기준, 개소 이후 누적 총 253건)

※ 창업 3년 이내 기업 62개사 보육공간 제공(개소 이후 누적)

○ 보건산업분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 정기 투자설명회(1회 6회 운영으로 31개사 발표, 419억원 투자 유치(20년))
- ※ 우수기술(R&D 성과물) 보유 창업기업에 정부와 민간투자기관(VC)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바이오헬스 투자인프라 연계형 R&D 사업을 통해 8개 기업에 22.3억원 지원(20년)

□ 개방형 실험실 및 지역 클러스터-병원 연계로 창업지원

○ 병원의 우수한 역량 및 인프라 활용을 통한 창업, 기술실용화 활성화 및 병원 중심의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

- ※ 개방형실험실(고대구로병원, 동국대일신병원, 아주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전남대병원)에서 총 69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병원내 개방형 장비활용 등 지원(20년)
- ※ 지역 클러스터-병원연계(강해의생명센터, 대전테크노파크,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총 98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클러스터내 시설 장비 지원 및 병원 연계(20년)

○ 대한정형외과 등 전문의사회를 통한 창업기업-임상 의사 간 교류

- ※ 정형외과 등 4개 학회 6회 참석, 54개 창업기업이 참여하여 임상의사와 기술·임상 등 자문(20년)

제8장

환경부

□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249억원)

- 환경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및 수출산업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는 패키지와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과 과제(56개) 지원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48억원)

- 단기간 시장 활성화 및 현장 적용이 시급한 분야의 중소기업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사업과 기술개발 과제(9개) 지원

□ 환경시설 재난재해 대응 기술개발(23억원)

- 자연재난(지진, 태풍 등)으로 인한 환경시설의 파괴, 기능정지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이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 관리 기술 개발 지원(10개)

□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107억원)

- 페플라스틱 분리·선별, 재활용 및 에너지화, 폐유리병 재활용 등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하여 16개 기술개발 과제 지원

□ 재활용저해제품 순환이용성개선 기술개발(47억원)

- 재활용저해제품의 순환이용성 개선과 적정 재활용을 위한 플라스틱 용기류 및 재활용저해 전자제품 순환이용성 개선기술, 재생에너지 폐기물 재활용 기술 등 과제(10개) 지원

□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16억원)

- 폐자원의 처리 및 에너지화를 위해 매립지 가스 배탄을 전환 기술, 유기성 잔재 폐자원 혼합 연소기술개발 과제 지원(2개)

* 환경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2021년도 예산(21.6억원)의 42.7%(9.2억원) 지원

□ 화학사고대응기술개발(23억원)

- 유해화학물질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발생 대비 VR/AR기반 교육훈련 시뮬레이터, 하천-호소오염 긴급방제기술 등 계속(3개) 과제 지원

□ 악취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대상 기술지원(18억원)

- 중소기업 중 악취저감을 위한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293개소)에 대해 악취 저감기술 지원 실시

□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기술지원(17.7억원)

- 유증기회수설비 운영 주유소의 운영 방법 및 기술능력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으로 부처합동, 유증기 배출량 저감(183개 컨설팅)

□ HAPs 비산배출시설 기술지원(3.5억원)

- 기술력 부족,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제도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77개소 컨설팅)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41억원)

- 굴뚝 TMS 부착 사업장 중 중소사업장에 대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정도 관리비, 유지관리비 중 일부를 국비, 지방비로 지원

※ 142개소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2,046억원)

-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 지원(4,240개소)

□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61억원)

-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중소기업장에 대해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여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1,001대)

□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12.93억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노력 제고토록 유도(6개 업체)

□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566억원)

- 중소기업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저가 제공, 기존 유해성정보 일제조사·제공, 등록 전과정 지원 등 실시

□ 혁신형물기업 지정·지원(10억원)

- R&D·수출 실력 등을 기준으로 성장가능성 있는 중소 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 해당 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원(10개 기업 선정)

□ 환경산업수출기반 육성지원(148억원)

- 국내 우수기술을 현지 실정에 맞도록 적용·시연하는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을 통해 수출확대 도모(20개 과제, 40억 원)

- 환경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우수 중소기업 해외 수출기업화” 지원을 통해 수출주도형 환경산업 육성(14개 기업, 26억 원)
-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3개국 27억) 및 해외 유망환경산업의 경쟁력 우위를 통한 수주 가능성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19개 과제, 55억 원)

□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740억원)

- 중소기업 사업화 기반구축·개발촉진·투자유치 사업 지원(324억원)
 - 기반구축(컨설팅 등) 11개사, 개발촉진(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등) 137개사, 투자유치 51개사 지원
- 환경설비 상용화 지원사업(219억원)
 - 중소기업의 현장 실증 데이터 확보를 위해 실규모 환경설비 제작·설치 소요 자금 지원(44개 과제)
 - 미세먼지, 자원순환(계속) 외 녹색 신산업, 일반환경 분야까지 확대 지원
- 녹색혁신기업 성장 지원사업(197억원)
 - 녹색산업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이 한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 기술개발 자금 동시 지원(21개사)
 - 중기부와 협업, 22년까지 100개사 선정·지원

□ 환경정책자금 지원

- 환경개선자금 지원(138개사 64억원)
 - 기업의 환경투자 촉진을 통한 환경오염 저감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을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화학물질취급시설 설치·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총 620억원 규모, 이차보전)

○ 환경산업육성자금 지원(88개사 32억원)

- 환경산업 성장기반 마련 및 글로벌 국가산업으로 육성 지원을 위하여 중소 환경산업체의 시설개선, 해외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 (총 455억원 규모, 이차보전)
- 코로나 19 극복 지원을 위한 별도 조건없이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155개 기업의 융자원금(총 202억원) 9개월 상환 유예

○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지원(1,284억원)

- 중소·중견 재활용업체에 장기·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여 재활용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에 기여(시설자금 54개소 514억원, 운전자금 235개소 1,120억원)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365개사 2,000억원)

- 코로나 19로 재정난을 겪는 중소 환경기업 등을 위해 2,000억 규모의 융자금을 추가 편성하여, 환경산업육성 및 기업의 환경오염방지 시설 등 녹색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

제9장

고용노동부

□ 기업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 재학단계 일학습병행 확대를 통한 청년층 노동시장 조기입직 지원
 - (20년) 6,874개소에서, 34,330 명 훈련 참여
- 저지원 저규제 방식 민간자율 일학습병행 실시
 - (20년) 대한상의모델 543명, 한독상의모델 343명 훈련지원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사업 운영

- (인증부여) 능력 중심 인재 채용·관리, 재직 근로자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 인적 자원개발이 우수한 기업에 인증을 부여
 - 양질의 고졸일자리 확대와 고졸근로자의 역량개발·치우개선을 위해 인증 사업 내 '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분야 신규 도입
 -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고용지원금제도 신청 시 가점, 병역특례업체 선정 우대, 알자리 창출 촉진 자금 지원대상(신취업후학습기업)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 20년 119개 기업(중소기업 97) 참여, 42개 기업 인증(중소기업 31)
- (기타 참여기업 지원) 인증 탐파기관 중 희망 기업에 대해 맞춤형 HRD 컨설팅 (3개 기업)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능력개발 활성화

- 중소기업 재직자 중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20년) 1,584천명, 288,915백만원 지원(300인 미만 기업 근로자)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훈련
 - ('20년) 251개 공동훈련센터를 통하여 183,012명* 훈련실시
 - * 대중소상생형, 전력분야, 지역산업맞춤형, 산업계주도맞춤형 및 미래유망분야 훈련인원 포함
- 오랜 경험과 고 숙련기술을 보유한 숙련기술인을 선정, 중소기업·특성화고 대상 기술전수 및 기업자문(HRD 등) 역할 수행(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 기술 및 컨설팅 능력을 갖춘 산업현장교수의 인력을 확대* 및 중소기업 기술전수** 강화
 - * (인력풀) '20년 산업현장교수 200명 추가 위촉
 - ** (기술전수) '20년 중소기업 기술 및 HRD 컨설팅 1,179개소 실시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에 기여
 - * '20년 임금상한액 월 350만원이하,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개선
 - 만기공제금 (2년형) 1,000만원 = 청년 300만원 + 정부 400만원 + 기업 300만원
(3년형) 3,000만원 = 청년 600만원 + 정부1,800만원 + 기업 600만원
 - ('20) 청년 137,226명, 기업 54,376개소 신규 가입(누적 청년 388천명, 기업 98천개소)하고, 누적 76,680명의 청년이 만기공제금 수령('16.7~'20년)

□ 근로자자원프로그램(EAP*) 지원

- *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건강, 가족, 스트레스 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심리적 서비스(Employee Assistance Program)

- 30인 미만 기업 및 소속 노동자 대상 15개 분야 온·오프라인 무료 사회·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단위 : 건)

구분	합계	직무 스트레스 관리	조직 내 소통	업무 역할 강화	고객 응대	일기 일상 기록	직장 내외 활동	성취 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 문제	건강 관리	대인 관계	지식	부모 갈등 조정	자녀 양육	기 타
온라인	2,268	391	213	11	10	13	814	30	155	312	5	98	24	114	53	24
오프라인	8,093	2,084	549	280	41	74	504	883	1,413	1,321	48	632	17	611	433	103

□ 고용위기 대응 지역고용촉진 활성화

-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 (18.4.1~21.12.31.) 군산시, 통영시, 거제시,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18.5.4~21.12.31.) 목포시영암군

- 고용위기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 (20년) 172개 사업장, 1,130명에 대해 8,020백만원 지원

□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

- (20년) 노동자 360만명(사업체 83만 개소)에 대해 2조 5,703억원 지원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 보수 249만원 이하 노동자 1인당 5인 미만 사업체 월 11만원, 5인 이상 사업체 월 9만원 지원

* 추경편성으로 4개월간(2~5월 근로분) 1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1인당 월 7만원, 10인 이상 사업체 4만원 추가 지원

□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유지 지원

- (고용장려금) 고용기회 확대, 고용안정 프로그램 운영, 고용유지조치, 고용환경 개선 등을 실시한 기업에 장려금 지원
 - (고용창출) 취업취약계층 고용, 청년 추가 고용, 장년 고용,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 및 일자리 합계하기 제도 도입, 국내복귀기업 지원 등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 지원(282,108명)
 - (고용안정) 근로시간 단축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정규직 전환지원 등 재직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지원(20년 85,657명)
 - (고용유지) 고용조치가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를 실시 하는 경우 지원(773,086명)
 - (환경개선) 여성·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근로시간 단축 등에 소요되는 환경개선 비용의 일부를 용자(33개소)

□ 중소기업의 숙련된 인력확보·고령자 고용안정 지원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고 고령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위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367개사, 600명 정년 연장, 955백만원 지원)
 - * 계속고용제도 : 기존의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하여 (재)고용하는 것

□ 중소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 대상 요건 확대

- (신중년 고용창출) 신중년의 어려운 고용 상황을 반영,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직무의 일부(전체 직무의 5%)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강화*

- 만 50세 이상의 신중년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40만원, 중견기업 40만원 1년간 지원)

※ '18년 1,159명, 4,067백만원 → '19년 3,119명, 16,692백만원 → '20년 5,522명, 17,649백만원

□ 중소기업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일터혁신 지원

- (건설방 지원) 중소·영세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노동자 삶의 질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전문 컨설팅 2,112건 지원
 - 근로시간단축·평생학습체계 구축·직업조직·환경 개선·임금 평가제도 개선 등 9개 분야
- (교육 지원) 근로문화 개선, 임금·평가체계 개선 등 일터혁신 주요 분야 관련 기업의 자율적인 개선노력 지원을 위한 교육 제공(1,001명)
 - 중소기업 CEO 대상 혁신 마인드, 경영기법, 사례 등 코칭 지원(100개소)

□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 (인건비) 사회적기업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20년 40,449백만원, 7,312명 지원
- (사업개발비) 사회적경제기업의 브랜드·기술개발 및 R&D,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20년 22,364백만원, 1,171개소 지원
- (판로지원) 사회적경제 전문유통 조직(소셜벤처)을 발굴육성하여 지역·민간 중심의 통합적인 판로지원 등 역량 강화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상품개선 73개, 기획전 및 품평회 24회

□ 중소기업 유해·위험 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

- 중소기업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보조 및 용자 지원
 - •플린사업장 조성 지원 (1,685억원, 26,455개소), •산재예방시설 용자 (1,028억원, 890개소)

- 측정·특검 제도 미어행 사업장 등과 연계하여 측정·특검 비용지원대상 적극 발급 및 신규 사업장 설립단계부터 지원 안내 등으로 지원을 제고

• • 직업환경의학 비용 지원(179억원, 47,410개소), •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198억원, 287,504명)

□ 중소기업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및 성과 창출

- 시험장비 및 자금여력이 열악한 중소기업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에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 자금을 지원하여 우수 제품의 방호장치·보호구가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기여

- 연구·개발(총 소요비용 60% 이내) 및 시험장비구매(총 소요비용 50% 이내) 지원금액은 사업장당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20년 지원실적: 436백만원, 13개사

☞ 20년 연구개발 자금지원 효과: 특허출원 3건 진행중

□ 우수 방호장치·보호구 제품 홍보 및 해외 시장진출 지원으로 성과 창출

- 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 개최 및 우수 방호장치·보호구 홍보

• 8개 사업장의 8개 품목 발굴, 수상 제품 홍보책자 제작 및 홈페이지 홍보로 판매량 25% 증가, 매출액 2배 증가 효과 창출

- 국내 안전모·안전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인증 취득지원을 위한 국외 시험 지원을 실시하여 해외인증 취득에 필요한 시간·비용 절감 및 해외 시장진출 활성화 지원

• 2개 사업장의 9개 품목 시험지원 실시로 안전대 4건 해외인증(CI마크) 취득 및 수출 증가 효과 창출 (안전모 40만개, 안전대 2천개)

제10장

국토교통부

□ 중소기업 물류효율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 (물류효율화) 중소기업의 물류체계 진단을 통해 개선안 수립 등 물류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 (제3자물류 컨설팅) 제3자 물류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물류진단, 개선안 수립 등 컨설팅 지원('20, 20개사)2021
 - (공동물류) 중소기업 간 운송, 보관 등 물류공동화 추진을 위해 공동화 사업 모델, 경제성 등 컨설팅 지원('20, 10개사)
 - (해외진출) 물류·화주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동반 진출하려는 경우 공급망 설계, 환경조사 등 컨설팅 지원('20, 5건)
 - 글로벌 물류체계 진단·분석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현지동향, 노무·법률 등의 현지정보도 수집·제공
- *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 시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최대 5% 수준(천만원 내외)으로 보조금 지원

□ 친환경물류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물류산업 환경 조성

- 다각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를 확대하여 친환경물류 활동 확산
 - * '19, 298개사 → '20, 316개사, (신규 35개사 추가, 폐업·합병 등 20개사 제외)
- 물류·화주 기업의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시스템, 장비 장착 보조금 지원(1,780백만원, 사업비의 30~50%)

- 무시동히타, 무시동메이커, 에어스포일러 등 6개 사업에 대해, 111개 기업 선정 및 지원
- 물류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이 우수한 물류·화학기업 21개사를 우수 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관리, 친환경물류 활동 확산 도모
- 20년도 전기점검대상 3개사 점검결과 3개사 유지

□ 스마트건설 스타트업 지원

-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31개 업체, 49억 원)
 - 전문가 111매칭으로 실·검증 연구 및 시제품 제작 등 기술고도화와 사업계획 건설팀,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기업진단 맞춤형 건설팀 제공 등
 - 31개 스타트업·창업 입주기업 지원하여, 총 매출 127억원(기업 당 4.1억원), 고용 186명(기업당 6.0명), 투자유치 25.1억원 등 가시적인 성과 달성 중

□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추진

- 대학의 유유교지를 활용하여 창업부터 본격 기업경영까지 가능한 도시첨단산업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지원*(2,220백만원)
 - 19년 선정된 선도사업(한양대HICA, 한남대, 강원대) 2개년부터 예산지원
 -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공사 착공(20.12)

□ 지역 자동차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체부품 개발 공동 활용장비 구축

- 전북도 내 자동차부품 기업이 보유하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원가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시울성형기(1,000본, 2500본) 2대, 풀러 헤빙 시스템, 플라스틱 개공 및 용접시스템, 소원 시울성형기(690톤) 장비구축 완료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해외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리스크 부담이 큰 新시장 개척시 투입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기업의 新시장 개척을 위한 주요 활동비(사업성 조사비, 현지 수주 및 조사 활동비, 발주처 인사 초청비 등) 지원
- * '20년도 프로젝트 지원(85건, 27억원) 중 중소기업에 80%, 중견기업 20% 지원

□ 공간정보 기반 창업기업 지원

- (맞춤형 컨설팅) 공간정보 창업기업(10개) 대상으로 사업진행상황 및 역량 등을 분석하여 성장단계별 컨설팅 실시(6~10월, 56회)
- (전략캠프) 성장성 높은 도약기 기업(10개)을 대상으로 시장진출을 위한 1:1 매칭 교육, 모의 IR 설명회 등을 실시하는 전략캠프 개최(10.15~10.16)

□ 드론 기업지원허브 운영

- 드론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드론 스타트업, 벤치기업에 대한 업무공간 제공 및 기업역량강화 지원(20,24개사 입주)
- 드론센터 입주과징 지원, 분야별(특허·세무·금융 등)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입주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등 지원
- * 경영·기술 컨설팅(21개사), 시제품 제작지원(35건), 인증·특허출원 지원(20건) 등

□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R&D)

-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12개 과제, 57.08억원)
 - 공공기관 보유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통해 우수 기술이전 활성화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위험요소 최소화

-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27개 과제, 126.55억원)
 - 중소기업의 보유기술을 시장 수요 및 요구수준에 부합하도록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검증, 신기술 인증 확보 등 지원
- 국토교통 안전기술 사업화(4개 과제, 23.37억원)
 - 재난안전, 취약주변, 교통시설물 등 국토교통분야 국민의 생활안전을 담보하는 요소기술을 선정하여 사업화를 위한 연구 지원
- 서비스 R&D 융합기술 사업화(4개 과제, 30.07억원)
 - 기존 R&D 시제품 성과에 추가하여 ICT 기반의 유지관리 등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부가적인 서비스를 통해 사업화 확대

□ 국토교통 R&D 중소기업 지원

- (건설기술연구) SOC 시설물의 전주기(설계, 시공, 유지관리 및 해체 등)에 대한 안전성, 고부가가치화, 첨단화 및 글로벌 선도를 위한 핵심요소기술 개발 (73.34억원 중소기업 지원)
 - 재난-재해로부터 SOC시설물의 안전성 강화 및 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기술 개발 집중 지원 등
- (플랜트연구) 플랜트 건설사업에 요구되는 핵심공정 개발, 기본설계 및 실증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적용은 물론 해외플랜트 수주 경쟁력 증대(142.53억원 중소기업 지원)
 - 비전통에너지 수요 대응 모듈화 및 수력 플랜트, 극한지 자원 개발을 위한 건설 기술 등 복합플랜트 시공 및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지원 등
- (도시건축연구사업) 국민의 행복 증진과 도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초고층빌딩 등 신건축문화 창조, 도시재생 활성화,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온실가스 저감 등 관련 기술 개발(136.4억원 중소기업 지원)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및 '25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위한 에너지 사용량 저감 기술 개발 지속 지원 등
- (주거환경연구사업) 주거공간의 쾌적화, 장수명화, 안전성 확보를 지향하는 국민 체감형 주택기술 개발(44.78억원 중소기업 지원)
 -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택성능 개선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 기술 개발 추진 등
- (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 국토공간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생산 및 가공, 다양한 국토공간정보 활용·융합 서비스 기술 구현을 통해 국민 편의 향상 및 산업 발전 지원(58.09억원 중소기업 지원)
 - 국토 전역에 대한 고정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공간정보 전용위성 탑재체 개발·발사에 집중 투자 등
- (교통물류연구) 선진국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고, 교통혼잡 및 물류 비용을 감소시키며,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한 배출가스 저감 및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기술개발(204.48억원 중소기업 지원)
 - 자율주행차 3대 핵심(주행·고장, 통신보안, 제어권전환) 안전성 평가 및 자율주행 대중교통시스템, 화물차 군집주행 등 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기술 중점 투자 등
- (철도기술연구사업) 국민행복을 위한 빠르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철도시스템 개발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철도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조형 신성장동력으로 육성(277.34억원 중소기업 지원)
 - 연구성과 현장적용성 제고를 위한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 및 미세먼지 대응 친환경 철도차량 개발 등 사회현안 해결 R&D 지속 지원 등
- (항공안전기술개발) 항공사고 예방 및 항공교통 수요관리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항공안전기술을 개발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하는데 기여 (10.41억원 중소기업 지원)

- 고정밀 GPS 보정시스템(SBAS :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등 항공 안전 및 효율적 항공운항 관련 분야 투자 확대
-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 국토교통기술 촉진을 위한 혁신연구·기술협력 지원 및 연구인프라 구축(95.98억원 중소기업 지원)
 - 국토교통기술 육성을 위한 핵심 기반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사회이슈해결 기술 지속 지원 등
- (공간정보기반 실감형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제공 기술개발) 국가 고정밀 공간정보와 타산업을 융합하는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선도(39.46억원 중소기업 지원)
 - 무인항공기, 차량 등으로부터 획득한 영상기반의 고정밀 3D 객체모델 생성 시스템 개발을 통해 타부처, 수요처 맞춤형 연계·적용을 위한 공간정보 제공 기술개발 지속 지원
- (도로기술연구) 도로 안전관리 선진화, 교통 혼잡 개선 및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을 위한 도로교통 기술 개발(59.64억원 중소기업 지원)
 - SOC 고령화에 따른 노후도로의 효과적인 유지보수 및 도로 품질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도로포장 시공 및 현장관리 기술 개발 지속 지원 등
- (상용급 액체수소 플랜트 핵심 기술개발) 수소액화 플랜트 공정기술 및 수소액화 핵심설비, 액체수소 저장탱크 기술개발을 통해 수소의 대용량 생산·저장·운송·활용 기반 마련(16.47억원 중소기업 지원)
 - 도시 내 수소의 대용량 저장 및 운송, 활용을 위한 수소액화 플랜트 공정기술 및 수소액화 핵심설비 기술개발 지속 지원
- (도심도로 자율협력 주행안전·인프라 연구사업) 교통자원의 최적화된 이용을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개발(44억원 중소기업 지원)
 - 레벨 4 수준의 도심도로 자율협력 주행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 지속 지원
- (국토교통연구기회) 국토교통 분야의 신성장동력 발굴 및 신규 R&D 사업·과제 기획 추진(22.81억원 중소기업 지원)

- 급변하는 기술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국토교통분야 혁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핵심기술 등의 발굴·기획 등
- (항공기 착륙장치·윙렛수리공정 기술 및 국제인증체계개발) 항공기 착륙장치·윙렛 복합재의 국내·외 실용화 기반을 구축하여 항공정비·제조산업 육성 및 항공산업 신성장 동력화를 위한 수리공정기술 개발 지원(47.97억 원 중소기업 지원)
 - 항공기 착륙장치 및 윙렛 복합재 등 핵심구성품 정비조작승인체계 개발에 따른 기술집약형 항공정비(MRC) 분야 지속 지원
-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인증 및 운용기술 개발) 자율비행 유·무인 혼용 개인항공기 등 미래형 비행체 시제개발에 따른 안전운항 인증체계 개발(2.82억 원 중소기업 지원)
 - 미래형 자율비행 개인항공기(OPPAV)의 안전운항을 위한 인증체계 및 안전운항 체계 개발 지속 지원
- (소형무인비행기 인증기술 개발) 소형 유인기 무인화를 통해 무인기 시스템 안전성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인증 기술 개발(17.13억 원 중소기업 지원)
 - 유인 고정익 항공기의 무인화를 위한 체계 개발 및 항공기와 지상통제장비의 인증 절차 수행 등 무인기 인증체계 구축 지속 지원
-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건축기술 개발) 국가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건축물 에너지 절감을 위해 기존 건축물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기술 및 에너지공유 플랫폼 기술 등을 적용한 최적 에너지공유 커뮤니티 구축 및 보급 모델 개발(9.64억 원 중소기업 지원)
 - 에너지 효율화 기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커뮤니티 단위의 에너지 공유 모델 개발 및 실증 추진 등
- (쇠퇴지역 재생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도시생애주기를 고려한 쇠퇴지역의 재난재해 위험성 등 시급한 사회문제 해결을 통하여 국민의 안전 및 삶의 질을 제고하고 도시회복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한 포용적 도시재생 도모(20.82억 원 중소기업 지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18~22)'을 추진하는 소규모 재생지역에 적용가능한 지역 기반의 재난재해 위험성 분석 및 종합적인 정밀진단을 통한 도시회복력 향상 기술 개발 지속 지원
- (스마트건설기술개발사업) 건설산업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를 위한 '기술혁신 및 산업생태계 조성(77.71억원 중소기업 지원)
 - 건설장비 자동화, 도로구조물 스마트 건설,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 스마트 건설 정보표준 등 핵심기술 개발 신규 추진
- (철도차량부품개발사업) 외산의존 부품 국산화 및 시장선도형 고성능 부품 개발과 체계적인 성능 검증 지원을 통한 철도부품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자생가능 철도산업 생태계 조성(14.99억원 중소기업 지원)
 - 외산의존 주요부품의 시장진입 국산화를 위한 고속철도 체동디스크 및 체동패드, 주회로 차단시스템, 공조시스템 기술개발 신규 추진
- (AI기반 스마트하우징 기술개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하우징 플랫폼과 주거서비스 구현 기술 개발 및 실증(16.05억원 중소기업 지원)
 - 주거영역 자체가 스마트한 주거플랫폼으로 확장·진화하는 급격한 주거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주거기술 개발 신규 추진
- (지하공간 활용 도시기반 복합 플랜트 실증 연구) 환경기초시설의 도심지 편입 및 주민편의 증대를 위한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시기반 복합 플랜트의 실증 및 건설기술 확보(7.94억원 중소기업 지원)
 - 도시팽창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도심지 편입을 위한 도시 폐자원 기반 자원 순환형 지하 복합 플랜트 집적화 기술 개발 신규 추진 등
- (수소버스 안전성 평가기술 및 장비 개발) 수소버스의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량 및 수소부품 단위의 안전성 평가·검사기술 및 장비 개발(10.95억원 중소기업 지원)
 - 수소버스의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량 및 수소부품 단위의 안전성 평가·검사기술, 장비 개발과 기존 국제화 신규 추진

- (수소 시범도시 인프라 기술개발)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소 생산·저장·활용이 가능한 수소타운형 통합 에너지 시스템 개발(6.53억원 중소기업 지원)
 - 수소타운형 재생에너지 연계하여 수소 생산·저장·활용이 가능한 통합 에너지 시스템 기술개발 신규 추진

□ 국토교통 혁신펀드

- 국토교통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 및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20년 170억원 규모의 펀드 신규 조성 및 투자 개시(1개 자펀드, 정부 100억, 민간 70억)

제11장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분야 신산업 및 창업투자 활성화

- 창업기획자, 사업화 자금, 컨설팅 지원 등 7개 해양수산 기업 자원을 통해 신규 고용 107명, 매출액 477억원 창출
- 지역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으로 예비창업자 및 유망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신규일자리창출 1,182명 및 창업기업 31개사 발굴
 - *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 : 6개소(부산·제주·경북·강원·전남·충남)

□ 해양 및 수산 모태펀드 지원

- 해양모태펀드 200억원을 출자하여, 자펀드 2개를 추가 조성*하고, 유망 중소·벤처 해양기업 투자 지원**을 통한 해양신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
 - * 총 28억원(정부출자 200억원, 민간 98억원)
 - ** '19. ~ '20. 12월말 누적 투자 실적 : 총 12건, 105억원
- 수산모태펀드 240억원을 출자하여 총 300억원 규모의 수산벤처창업펀드(자펀드) 2개를 신규 결성*하여 수산경영체에 투자 및 활성화 도모**
 - * 총 300억원 (정부출자 240, 민간 60억원)
 - ** '19. ~ '20. 12월말 누적 투자 실적 : 총 95건, 1,312억원

□ 해양수산분야 연구개발(R&D) 지원

- 해양수산 중소기업의 유망기술 발굴·고도화 및 개발된 유망 기술/제품 시장 검증 등 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촉진

- 해양산업 수요 기술개발 사업 48개 과제 127억원 지원
- 해양공간이용 극대화 및 해양탐사, 해양자원개발 등을 위한 첨단 해양장비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4차 산업 관련 해양 IoT 핵심기술(수중통신, 무인선 등) 개발 및 실험역 성능 검증, 해양플랜트 운영서비스 R&D 등(6개 과제, 191.95억원)
- 1인 가구 증가 등 새로운 소비패턴에 대응한 수산가공식품 개발, 수산물 유래 식품소재를 활용한 건강 기능성 식품 개발 등 지원
 - 명란 통조림 등 수산식품 제조기술 민간 이전을 14건 실시하였으며, 수산식품 기업 매출액이 56억원 발생하는 등 우수한 성과 달성
- 해양바이오 분야 전략소재 개발, 식약처 인·허가 및 기업 제품화 지원 등을 통한 산업화 성과창출 도모
 -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 39개 과제, 98억원 지원

□ 수산식품 기업 지원사업 확대

- (수출지원) 수출 유망 상품 등을 생산·가공하는 수산 기업을 대상으로 원료 구매부터 가공 및 수출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 일반 경영자금 1,324억원을 지원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 긴급 경영자금 30억원 추가 지원(총 121개사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이 급감한 기업에 고정 금리 0.5% 인하 혜택 제공
- (수매지원) 수매정보 입력 전산화 도입 및 수산식품거점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주 업체 우선 지원
 - 수산물유통종합정보시스템*에 수산물 수매정보를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용자를 받은 사업자의 수매 물품 보고방법 간소화

* (사이트 주소) <https://fish-mgroup.com/nc/kr/> / (운영 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요 수산물 생산지역에 조성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활성화를 위해 단지에 입주한 수산식품업체를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 운영자금 지원

* '20년 기준, 부산, 경기, 충북 등 3개 시·도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13개소 조성

□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기술 개발

- (해운분야) 국적 외항선사가 노후선박을 해체 또는 매각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여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지원

* 지원실적 : C180 7회, C190 8회, C200 6회

- 연안선박을 신규건조할 경우, 건조가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30%)하고, 민간 금융 조달의 용이성*을 높여 영세선사의 부담을 줄이면서 연안 해운안전 강화 및 국면 신뢰 회복

* 지원형태 : 선입은행(40%) + 민간금융(27%) + 해운공 보증 + 정부지원(30%, 무이자) + 선사 지부담(10%)

- (항만분야) 고생산성 자동화 컨테이너 하역 시스템 상용화 기술(OSS)* 확보를 위한 주요구조물 상세설계 수행 및 하부시설 착공(12월)

* 하역시설(폭90m×너비130m×높이35m) OSS(Overhead Shuttle System)

제12장 | 금융위원회

□ 창업 생태계 조성 추진

○ 투자 중심의 기술창업 생태계 구축

-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의 성장자원 제도로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마련·발표('20.6월)
-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확대, 중개기관의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20.11월,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이고 프로젝트 투자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하위법령 개정안 예고('20.10월)

○ 창업실패 시 위험 부담 경감

- 신·기보, 중진공, 신복위 등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재창업 및 신보의 재도전지원' 사업 활성화
- * '재창업 및 신보의 재도전지원' 사업 : 재기신청자 정책금융기관 채무 최대 75% 감면, 신속한 신용 회복 지원 및 신규 자금지원
- '20년 재창업 지원을 포함한 재기지원 신규자금 보증공급은 '19년 신보 공급(약 268억원)의 105% 수준인 281억원으로 확대
- '19년 재창업 지원을 포함한 재기지원 신규자금 보증공급은 '18년 신보 공급(약 250억원)의 107% 수준인 268억원으로 확대

□ 창업기업 도약 및 성장지원

○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

- 성장사다리펀드 및 성장지원펀드를 통해 회수펀드인 세컨더리펀드(1,19조원)를 조성
- * 성장사다리펀드 1,011억원, 성장지원펀드 7,280억원

○ 정책금융 역할 강화

-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등 총 55.4조원(신보)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수출기업에 대해 신보 보증 확대
- * 신보 보증(조원) : (17) 11.4 → (18) 11,900.5 ↑ → (19) 12,800.9 ↑ → (20) 13,411.6 ↑

○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유망기업 지원 강화

- 기술금융 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여 20년까지 대출 192.9조원 공급(누적)
- * '10년 58.4조원 → '17년 84조원 → '18년 112.2조원 → '19년 146.3조원 → '20년 192.9조원으로 확대

제13장

방송통신위원회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 (개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부담으로 방송광고의 어려움을 겪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해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고, 송출비를 할인하여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 (방송광고 제작지원)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TV광고 35개사, 라디오광고 33개사 등 총 68개사에 대해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및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지원 자격 부여('20년)
 - * TV광고 50% 최대 4천3백만원, 라디오광고 70% 최대 3백만 원 지원('20년 총 15.7억 원 지원)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가 방송사의 함께 중소기업 대상으로 방송광고 송출비의 최대 70%를 할인하는 사업으로, '20년 총 299개 중소기업에 대해 1,169억 원의 송출비 할인
 - 방송광고에 대한 전문 인력과 지식이 없는 중소기업이 방송광고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지원 대상기업 중 총 21개사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지원효과) '20년 방송광고 제작지원 사업 효과평가 결과 제작지원 기업들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평균 24.6%, 직원 수는 평균 19.1%(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지원액 대비 6.6배인 103.6억원의 신규 방송광고 수요를 창출함

□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 (개요) 자금 및 정보의 부족으로 방송광고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및 광고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여, 소상공인 역량 강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방송광고시장으로의 선순환 발전 기반 조성

-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소상공인 133개사 대상(지역 권역별 쿠폰 적용 선발) 방송광고 제작비 및 로컬 방송광고 송출비 지원(총 12억원)
 - 9백만원 한도 내 방송광고 제작비송출비 중 90% 지원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가 송출 희망기업 대상 지원 한도(1사당 90만원) 증액총 52개사 9백만원 지원
- (방송광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대상 광고 제작집행 기본 교육을 실시 하고, 지역 광고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광고마케팅 컨설팅 제공
 - 제작송출 지원 소상공인 133개사 대상 6시간 이상 대면 컨설팅 포함
- (지원효과) '20년 사업효과 평가 조사 결과, 지원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평균 13.5%, 직원 수는 평균 27.2%(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소상공인 광고 송출로 인한 지역 방송사 광고 매출 약 10.6억원 발생으로 지역방송광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함

제14장 | 공정거래위원회

□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 및 피해구제 활성화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中企조합이 협의할 수 있는 대상 원사업자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21.1월)
 - 기존에는 협의 대상 원사업자가 매출액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에 한정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하도급 벌칙을 경감(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21.1월)
- 기술유용 등 악의적 행위·장기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하고 자진시정 감경사유 및 비율은 확대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유도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 '20.12월)

□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및 혜택 확대

- 영세 중소기업의 법 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법 적용 면제 범위를 확대(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21.1월)
 - 경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05년도 이후 유지되고 있는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 규모를 현행보다 1.5배 상향
 - (제조·수리위탁) 연간매출액 20억 원 미만 → 30억 원 미만
 - (건설위탁) 시공능력평가액 30억 원 미만 → 45억 원 미만
 - 최근 15년간('02-'17)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은 약 1.7배, GDP 디플레이터는 약 1.4배 증가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벌칙 경감 등 혜택 부여(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21.1월)

□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 유도

- 금형을 일방적으로 회수하거나 유지·보수비용 등을 중소기업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금형 관련 모범거래관행 마련·보급
- 금형 관련 비용 부담 주체, 금형 보관 기관, 회수 절차 등에 대한 모범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자동차 등 관련업계에 보급('20.10월)
- 자동차·기계 등 금형 사용이 많은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모범 거래관행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20.12월)
- * 자동차, 기계, 전기, 전자 업종 등 6개 업종
-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중소 협력업체 지원 유도를 위해 '코로나19 지원실책' 항목을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하도급 분야)에 신설('20.4월)
- 대리점 분야 실태조사 결과와 공급업자대리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전, 석유 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의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제정('20.12월)
- * 기존 6개 → 9개 업종으로 확대

제15장

식품의약품안전처

□ 중소 식품업체의 안전관리인증(HACCP) 지원 강화

- HACCP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60.83억원)
 - 시설 개선 후 HACCP 인증 시 최대 2천만원의 50% 지원
 - 지원대상 : 소규모(억원 미만 또는 2명 미만) 식품 및 축산물(HACCP 의무대상에 한함)
- 식품 및 축산물 HACCP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현장 맞춤형 기술상담
 - HACCP 인증 전·후 기술지원 : (20) 5,724건
- 소규모 영업장 위해예방관리계획 확대 및 적용지원
 - 신규 영업등록 및 갱신시 등 미인증 업체 적용·지원

□ 벤처기업 등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첨단 의료제품 제품화 지원 강화

- 감염병 위기 대응,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지원을 위한 '고(GO)·신속 프로그램' 운영(4월-)
 - 품목별 전담심사팀 구성(치료제 4팀, 백신 2팀)
 - 코로나19 치료제 특성 및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마련(4월)
- 의약품(화학의약품) 제품화 지원을 위한 '팜나비 사업' 운영 강화
 - 국내 개발 신약 8개(20, 누제) : (신약) 3)품목, (개량신약) 1)3)품목
 - 제품화 지원 품목(누제) : (15) 5건 → (20) 27건
 - 제품화 내비게이터 지정품목 개발 지원 설명회 개최
 - 전주기 기술상담 및 팜나비 사업 개선을 위한 내비게이터 지정 업계 간담회 개최(1.20)
 - 국내개발 신약 제품화지원 설명회 개최(1.21)

- 의약품 개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 * ICH 가이드라인 온라인 교육 개최(11.4.6, 18년부터 연 1회)
 - * 온라인 배움터 누리집(www.ich-education.go.kr) 제작, ICH 가이드라인 강의영상 약 50종 제공
 - 주요 수출국 규제정보 제공을 통한 국산 의약품 글로벌 진출 지원
 - * WHO, 유럽의약품청(EMA), 이란 등 기구·국가별 의약품허가제도 안내서 12종 발간
 - 바이오의약품 제품화 지원을 위한 '바중플 사업' 실효성 강화
 - 실용화 임박 제품에 대한 맞춤형 상담 운영
 - * 지원품목(20): 백신 4품목, 항체 등 유전자재조합의약품 7품목 등 18개 품목
 - 초기 개발단계 밀착지원을 위한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상담의 날' 운영 (104건) 및 국가 R&D 지원이 제품화 성과로 이어지도록 'R&D 전담컨설턴트' 지속 운영
 - * 주요실적(20): (규제과학 상담) 지원제품 중 9개 제품 임상승인, (R&D 컨설턴트) 지원과제 중 2과제 임상승인
 - 바이오의약품 개발자를 위한 제품별·단계별 허가 교육(6회)
- 융복합, 차세대 의료기기 제품화를 위한 맞춤형 집중지원
 -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력사업' 등 운영 확대
 - 융복합, 신개발 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을 위한 5개 '범부처 기관간 업무 협약'으로 업무협력 지속 운영
 - * 과기부(한국연구재단), 신자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기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업무협약 체결 권선(20.7)
 - '허가도우미' 운영으로 신개발의료기기 등 집중지원업체 관리
 - * 총 154개 제품 지원, 허가도우미를 통한 품목허가 37건(자동화시스템로봇수술기, 의료영상진단보조시스템 등)

○ '차세대 의료기기 맞춤형 멘토링'으로 전주기 밀착 지원

- 총 119개 제품 지원, 맞춤형 멘토링을 통한 품목허가 15건(내시경용광학렌즈, 이동형엑스선투시촬영장치, 전동식전향용운동장치 등)

○ '의료기기 통합정보 BANK' 운영으로 정보제공 확대

- 해외수출국 규제 및 시장정보, 인허가일자, 특허정보 및 전주기 맞춤형 정보 제공(신혼수출유망국 등 19개국)

제16장 국 세 청

□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대책

- (세무예로 배소 노력) 민관합동 협의체인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을 통해 경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세무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모색
 - 20년 운영실적(본청) 정례회의 개최(4회), 검토인건(71건)
- (납세유예)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에 대해 납세 유예, 납세담보면제 기준 조정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 '19년 대비 '20년 납기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유예 6,655천건 증가
 - (16) 435천건 → (17) 429천건 → (18) 377천건 → (19) 387천건 → (20) 7,044천건
 -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납세담보면제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
 - 납세담보면제 기준금액 : 7천만원 → 1억원(20.2.24. 시행)
- (나눔세무·회계사 위촉)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지원을 실시
 - 제9기 나눔세무·회계사를 위촉하여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20.5월) 나눔세무·회계사 총 1,202명 위촉
- (가업승계 지원)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루어지도록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적극 안내
 -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 세법개정내용*을 반영한 기업승계 지원제도 안내책자(15천부)를 발간하여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유산상담 등 비대면 위주로 제도 안내 실시
 - * 사후관리기간 단축(10년 → 7년), 고용유지의무 완화(근로자 인원수 → 총급여액 유지 기준도 선택 가능), 업종유지 요건 완화(소분류내 → 중분류내, 업종변경 허용)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시행)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쟁점 해결, 세제상 혜택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
 - * 혁신중소기업, 4차산업 및 뿌리산업 영위기업 등 우선선정
-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세무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R&D 사전심사 One-Stop 서비스 등 추가적인 혜택 제공
-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정기 조사선정 제외
 - *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인증요건을 충족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기업
 - ** 상시 근로자를 용해보다 일점비율 이상 고용할 계획이 있어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제출한 기업
- (간편조사 실시) 기업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간편조사* 및 사무실 간이조사** 실시
 - * 조사기간이 짧고, 컨설팅 위주로 진행되는 조사
 - ** 조사장소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조사관서 사무실에서 조사 진행

□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등 세정지원

- (법인세)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등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실시

세정지원 유형	대상자	시작월	연장기간
19.12월말 법인 확정신고 신고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 ¹⁾ 직접피해기업 ²⁾	20.3월	1개월
20.12월말 법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 ¹⁾ 직접피해기업 ²⁾	20.8월	1개월

- 1) 대구, 청도, 경산, 봉화
- 2) 확진환자 발생경유 사업장,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이천, 진천, 음성, 아산) 피해 납세자

○ (부가가치세)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유예,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실시

세정지원 유형	과세기간	대상자	시작월	연장기간
징수유예	192기 확정	특별재난지역 ¹⁾ 사업자	20.3월	1개월
예정고지 제외유예	201기 예정	특별재난지역 ¹⁾ 사업자, 직접피해 사업자 ²⁾ 등	20.4월	3개월
신고납부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 ¹⁾ 사업자	20.4월	1개월
		직접피해 사업자 ²⁾		
납부기한 연장	201기 확정	특별재난지역 ¹⁾ 사업자, 직접피해 사업자 ²⁾	20.7월	1개월

- 1) 대구, 청도, 경산, 봉화
- 2) 확진환자 발생경유 사업장,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이천, 진천, 음성, 아산) 피해 납세자

○ (종합소득세) '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1)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20년 귀속 중간예납 납부기한2)을 직권연장

- 1) ① 신고기한 :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납세자 1개월 연장
 ② 납부기한 : 업종·지역 구분 없이 모든 납세자 3개월 연장
- 2) 소규모 자영업자의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도·소기업 등 15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

구분	납부기한 연장	신고기한 연장	중간예납 징수유예
대상자	모든 납세자	특별재난지역	소규모 자영업자
연장기간	3개월 (20.6.1. → 20.8.31.)	1개월 (20.6.1. → 20.6.30.)	3개월 (20.11.30. → 21.3.2.)

- (세무검증 축소) 코로나19·질증후군 피해자, 영세사업자*, 혁신 중소기업, 임자리 창출기업 등은 신고내용 확인 제외

* 도·소매업 등 1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

□ 맞춤형 안내 확대로 성실신고지원 효과 극대화 추진

- (안내자료 정교화) 빅데이터, 과세인프라(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외부 수집자료 등을 결합분석하여 정밀한 안내자료 제공
- (간편신고 확대) 보이는 ARS신고 도입1),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신고자의 주요 경비 판단서비스2), 햇볕 등 지속적 신고권의 제고

1) 직전기 임대내역 동일한 소규모 임대업자 등은 ARS(1544-9944) 통해 신고 가능

2) 빅데이터로 세금계산서 품목자료 등을 활용하여 필요경비 해당여부를 판단

- (신고연계 강화) 전자신고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신고** 하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 편의 제고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바로 위택스로 자동 로그인하여 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 신고

-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목적으로 하는 핵심인력 성과 보상금 감면제도에 대한 홍보 실시

-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일선에 배포하고 근로자 또는 회사의 문의에 정확하게 안내 가능하도록 조치

- 원천징수의무자(실무자)가 감면 절차와 대상자를 직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책자 등에 반영하여 안내 실시

- (중소기업을 위한 책자 발간) 중소기업을 위한 공제·감면 혜택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중소기업 세제·세정지원제도」 책자 발간

□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 (세정협력 강화)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주요국 국세청과 우호관계를 구축,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전달 및 세정지원 요청
 - *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OECD 등 청정금 회의 6회 개최
- (온라인 세무설명회 실시) 코로나19로 현지 세무설명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요 테마별 영상을 제작, 유튜브에 게시하고, 사전 수집한 질의에 답변하는 실시간 화상 설명회(2회) 실시
 - * 해외 납세자가 있어야 할 세금상식(거주자 편성, 부동산 임대·상속·증여 등) 총 10편
- (해외세정안내서 확대 발간) 코로나19로 취소된 현지 세무설명회를 대신하여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정안내서를 조기·확대 발간하여 현지 세무정보 부족 해소
 - * 대사관 공동집행일 통한 3개국(미·일·중 세금상식책자) 조기 발간, 조세재정연구원 공동연구를 통한 2개국(미얀마, 싱가포르) 및 내부 연구경진대회를 통한 3개국(노르웨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확대 발간

제17장 관세청

□ 전자상거래 지원 강화로 新 수출성장 동력 확보

- (수출지원)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진단창구를 설치하여 온라인 수출 기업의 진입·판매까지 ONE-STOP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용서식을 마련하여 절차 간소화*
 - * 아마존(13社)·윌리버타(14社) 입점·확대업체 교육과 컨설팅 제공(20.6월)
 - ** 전자상거래 전용 간이수출 신고서 신설 및 특송업체 배송내역을 수출신고로 변환하는 신고시스템 도입(20.10월)
- (GDC운영 활성화) 국제 물류센터(GDC)에 국내 전자상거래 물품의 반입·배송을 허용*하여 중소기업 수출창구로 적극 활용(20.7월)
 - * (前) 외국물품을 제3국으로 환적하는 중계무역만 허용 → (後) 내국물품 반입후 해외배송 허용
 - ※ 글로벌 셀러 유치, K-제품 수출 창구 육성, 원적 물동량 증가로 부가가치 약 150억

□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행정 분야별 맞춤형 지원

- (검사비용)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입화물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화주가 부담한 비용을 국가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20.7월~)
 - * 16,692개 업체에 약 21억원을 지원하여 범규준수도가 높은 중소중견기업 자금부담 완화
- (보세공장) 보세공장을 운영하는 중소중견 기업이 수입하는 국내 제작이 곤란한 시설재에 대한 관세감면을 시행하여 기업의 조세 부담 경감(20.4월)
 - * 조세제한특별법 제116조제1항제2호를 신설하여 관세 12.8억원 감면
- (면세점) 중소기업제품 K-팝업스토어 운영을 업제와 적극 협의·유도하여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면세점 입점 기회 제공 및 해외진출 발판 마련
 - * 16개 시내면세점내 416개 브랜드를 K-팝업스토어에 입점하여 5,701억원 매출 달성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FTA 활용지원 추진

- (제도지원)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원산지증명 개선방안 등 FTA 활용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여 FTA 활용기업의 피해 최소화(2,4일)
 - * 수출CO 청정시 사본제출 허용(781건, 수출금액 113백만원), CO 24시간 자동발급(82천건, 수출금액 175억원), 인증수출자 경신심사 서류생략(56건) 등
- (컨설팅·교육) 기업특성에 맞춘 종합컨설팅(449社)과 업무에 즉시 활용이 가능한 실무중심의 FTA 전문교육(550회, 5,486명) 제공
 - ※ 중소기업 실무자의 수강편의 제고를 위해 비대면(원격수업·온라인과제) 교육 도입
- (원산지관리시스템)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FTA-PASS 기능개선*, 중소기업 대상 무상보급 확대(2,833社, 원산지관리비용 약 567억원 절감효과)
 - * 1국多협정 특혜비교, 신규FTA 반영, IS기준년도 자동변환, 모든 인터넷 브라우저의 호환 등

〈 2020년 FTA 활용지원 성과 〉

(단위 : 기업수)

구분	찾아가는상담센터	컨설팅지원	FTA전문교육	FTA-PASS보급	합계
지원기업 수	927	440	1,865	2,833	6,074
신규 수출	108	66	125	194	493
FTA신규활용	166	111	234	283	794
관세절감효과	121.5억원	34.1억원	256.5억원	53.9억원	466억원
인증수출자 취득	189	302	385	430	1,306

□ 수출기업의 애로 최소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해외통관 지원 추진

- (EODES* 확대) FTA 활용애로가 빈번한 新남방 국가를 대상으로 도입확대를 추진하여 아세안 국가 최초로 인니와 전면시행(20.3월)
 - *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으로 중국과 처음으로 도입 (16.12) 후 아세안회원국(베트남, 싱가포르 등)과 인도 등과 도입 확대 추진 중
- (애로해소활동)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지 관세관 및 관세당국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지원
 - * ① 한-인니, EODEX 전면시행 논의, ② 청도해관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 경영 정상화 지원→청도 주재관 정식 직제화 기여, 멜리세관과 협업으로 IC발역물품 신속통관·수출완료 확대 지원, ③ 코로나19 대응 수출기업 대응전략 온라인 설명회(11월, 약 7백여社 참여)

- 해외통관으로 해소(20년) : (해소) 177건, (해소율) 92.7%, (수출기업 비용절감) 679억원
- (정보제공) 주요국 물류·통관정보(해외통관브리핑, 분기), FTA제약국 통관정책(e-book)*, 코로나19 대응 해외 공항안 입입동향(홈페이지) 전파
 - * 만나·말린(20.3월), 중국(20.7월), 중미·이스라엘(20.9월), 일본(20.12월)

□ 중소기업의 AEO활용 증대를 위한 지원활동 지속

- (AEO진입장벽 완화) 중소기업의 AEO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규준수 및 재무건전성 공인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 ※ 전체 AEO기업(451개) 중 중소기업 수는 315개로 전체의 약 67% 수준임(20.12월)
- (유관기관 협업) 공기업(지자체)*, 민간(상생협력기금)**과 지속적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유지 지원 등 기업경쟁력 강화 노력
 - * 한국서부발전(주)·한국남부발전 등이 거래관계에 있는 44개 중소기업 지원(10.6억, '17~'20)
 - **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6개사와 중소기업 공인획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2월)
- (전략적 MRA 추진)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결실익이 큰 국가와 新시장국 중심으로 전략적 MRA 체결 및 전면이행 추진
 - * ENBA 전면이행(인도네시아)*20.2월, INBA 현상진행(러시아, 베트남)
- (정보제공·홍보) 중소 수출기업이 AEO MRA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체결국 통관정보 및 국가별 MRA활용방법 안내서 발간(20.5월, 글로벌AEO총서)

□ 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무역통계 정보 서비스 강화

- (기업진단통계) 업종별 수출입현황 및 자사와 비교 가능토록 동종업계 평균 무역 실적*, 무역규모별 통계, 업계교역정보 등 제공(5,390건)
 - * 국가, 국내지역, 품목별로 동종업계의 금액·종량 등 전체·평균 실적(구간별)
- (산업동향) 수출입기업의 신규 해외시장 진출 등 무역전략 수립에 활용토록 관심 분야에 대한 맞춤형 교역 정보* 지원(매월)
 - * 기업무역활동에 대한 업체수 및 수출입통계, 금액구간에 대한 평균 단가정보 등

제18장 조달청

□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및 성장 유도

- 벤처나라(창업·벤처기업 전용몰)를 통한 거래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¹⁾ 하고, 등록된 기업들이 조달우수제품 등 더 큰 시장으로 진출²⁾

1) (17) 52억원 → (18) 128억원 → (19) 400억원 → (20) 813억원(누적 1,485억원)

2) 지금까지 131개사가 벤처나라를 거쳐 우수제품(66개) 및 M&B(65개) 시장 진출

□ 서비스산업 공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상품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기반을 마련¹⁾ 하고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新서비스상품 개발²⁾

1) 서비스의 공공수요 촉진을 위해 「공역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제정·시행(20.4월)

2) 체험형 증강현실(AR), 고소작업대 임대서비스, 냉·난방기 유지관리 등

□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해외 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G-PASS기업 지정 확대¹⁾ 및 수출 지원²⁾

1) G-PASS 기업 수 : (19년) 665개 사 → (20년) 832개 사

2) 수출실적 : (19년) 7.4억 불 → (20년) 7.4억 불

□ 국제기구 조달시장 등 신규시장에 대한 전략적 진출 지원

- (마케팅 지원) 유엔조달관 초청 온라인 세미나 및 상담회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진출 관심도 제고 및 홍보 추진

- * (세미나)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UN ESCAP), 유엔남인가구(UNHCR)
- ** (성담회)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조달권 초청 성담 진행
- (시장정보 제공) 신흥시장 국가와 아세안 국가의 조달시장정보 및 진출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

□ 공공조달시장의 포용성 강화를 위한 약자기업 지원

- 중소기업·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기업¹⁾ 및 사회적 기업 지원²⁾ 확대
 - 1) 사회적 약자기업(중소·여성·장애인) : ('10) 38.8조원 → ('20) 41.5조원
 - 2) 사회적 기업 : ('10) 2,161억원 → ('19) 3,479억원 → ('20) 4,558억원

□ 사회적 가치 반영을 통한 상생·협력하는 조달제도 정립

-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입찰평가 우대¹⁾, 사회적기업 수주 지원²⁾
 - 1) 적격심사에서 청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납품실적 평가기간 확대(5년→7년) 및 고시금액 미만 입찰 시 경영상태 만점 부여 등
 - 2)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소액수의 구매대행 및 확대(5천만원→1억원)

제19장

방위사업청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사업 시너지 극대화

- (진입 : 방산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67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확대로 방산분야 신규 진입 촉진
- (성장 : 국방벤처 지원사업, 방산혁신클러스터) 16개 신규 과제 개발비 지원 및 45개 계속과제 관리, 클러스터 운영을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 제고 및 매출 증대 기여
- (도약 : 부품국산화 사업) 사업영역 확대 및 45개 과제 지원을 통해 개발업체의 매출('20년도 122억원) 발생
- (확장 :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제 확대('19년 2개 → '20년 12개)를 통해 수출지원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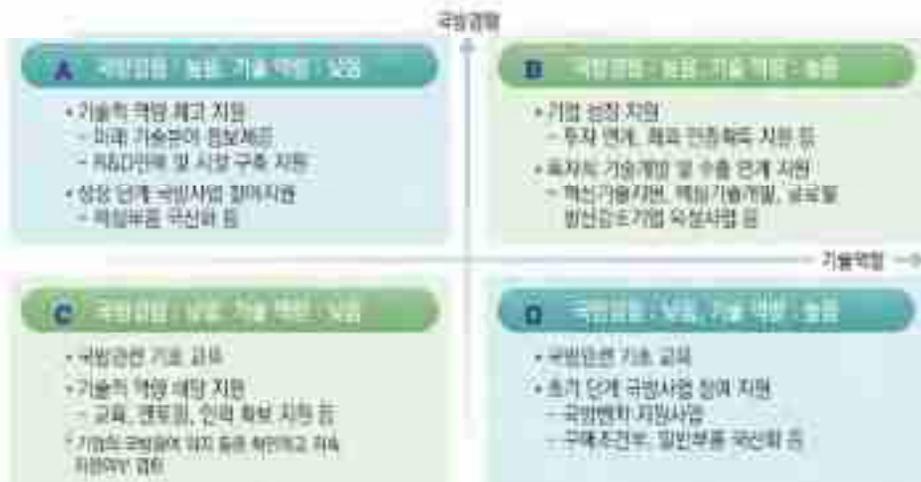
□ (진입)중소벤처기업 컨설팅 및 방위산업 자금지원

- 민간 우수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
 - 67개사('19년 51개사) 대상 기술경영·행정·법률 분야 컨설팅
 - 컨설팅 예산 : ('19년) 6억원 → ('20년) 7.5억원
 - 업체 건의사항 적극 반영하여 '19년 지원대상기업 후속관리 및 성과 제고 차원에서 7개사 대상 연속심화지원
 - 군체계기업과 계약(16건), 기술개발과제 참여(7건), 국방항공품질시스템 구축(16건), 국방분야 고용 증가(11개사, 24명) 등 다양한 성과 도출
- 이차보전사업 등 자금 지원 확대 및 운영 개선
 - '20년 이차보전 용자 추천 규모 : 1,842.4억원
 - 방산특성자금 13개 업체, 1,412.7억원 / 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 33개 업체, 429.7억원
 - 방산업체 대상 '코로나19' 등으로 발생한 유휴시설 용자지원 확대를 위해 운영 규정 개정

□ (성장지원)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한 국방벤처 지원

- 국방벤처기업을 위한 개발비 등 지원 및 판로 확대
 - 계속 개발과제(45개) 및 신규과제(16개) 개발비 84.9억원 지원
 - 14개 과제(기업)에서 약 54억 매출 발생 및 일자리 창출 기여(50명 채용)
 - 군 수요자와 업체간 진행되던 기술교류회를 지역중심에서 전국단위로 통합 실시 및 국방벤처 지원사업 성공과제 기반 타 방산육성 지원사업 연계
- 지원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국방벤처 저변 확대
 - 기업 역량 및 국방경험을 고려하여 협약기업 수준별 지원프로그램 마련

〈기업역량에 따른 지원방안〉



○ 충북국방벤처센터 신규 설립 등 국방시장 진출 지원 강화를 위한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지속 확대

* (19년) 38개사 → (20년) 42개사

- 충북국방벤처센터 설립 및 공동운영협약(MOU) 체결(9월) 및 협약기업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온라인) 및 공고 실시(12월)

표 8-20-1-1 | 지역별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현황(20.12월 기준)

센터	설립	협약기업 수	센터	설립	협약기업 수
부산	'08.12	53	구미	'14.03	58
경남	'09.08	54	전남	'15.09	42
전북	'09.09	38	울산	'19.08	37
대전	'11.11	64	충남	'19.09	27
경주	'13.12	50			

□ (성장지원:지역기반)지역기반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운영 지역 선정

○ 체계종합업체와 지역 대학출연연을 연계하여 지자체 주도의 방산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경남 창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추진

* 지역 선정(4월), 업무 협약(6월), 사업단 구성(7월), 사업 추진계획 승인(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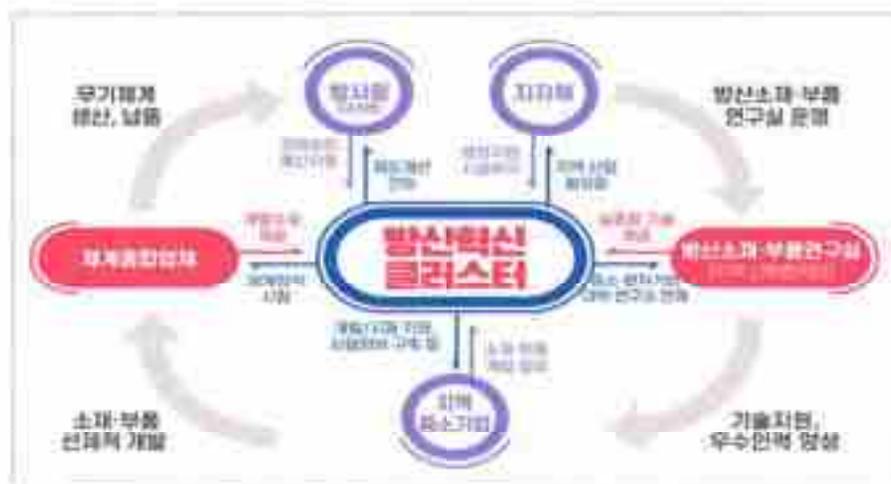
【 시범사업 개요 】

- (대상) 경상남도 창원시 방산혁신클러스터 1개소
- (기간) '20 - '24년(총 5년) * 순차적으로 대상지역 확대 추진
- (예산) 총 450억 원(사업비 기준 국비 210억, 지방비 240억)
- (사업 내용) 지역중심 방산 생태계 구축 및 운영, 방산 소재 부품 연구실 운영, 방산부품 선제적 개발 등 7개 분야

○ 경남창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주요사업 주관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12월)

- * 방산 소재·부품 연구실(창원대) 및 개발 지원(방한산업 등 23개 기업 25개 품목), 방산 중소·벤처 기업 시험 지원(경남테크노파크), 창업지원(경남창원혁신혁신훈원)

〈방산혁신클러스터 개념도〉



□ (도약체계개발과 연계한 부품 국산화 사업 추진

○ 핵심부품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지속 추진

- (신규과제) 「K-55 A1 자주포용 무장조립체」, 「DDH-Ⅱ용 소나 윈도우 키트」 등 11개 신규과제 착수를 위해 90.56억원 지원
- 주관업체 선정공고(3-5월), 선정평가(6-7월), 협약체결 및 개발착수(8월)

- (계속과제) 「천마용 탐지레이더 직류모터」, 「차체 구조물용 고경도 장갑판재」 등 29개 계속과제 추진을 위해 98.87억원 지원
- (성공과제) 「KF-X용 주연료차단밸브」, 「LAH용 항법안테나 부품」, 「천마용 고주파 전환스위치」 등 3개 과제
- 핵심부품개발 성공과제 매출발생
 - 「상품등록장갑차용 부가장갑깃트 조립체」 등 10개 핵심부품개발지원사업을 통한 개발성공 부품에서 '20년 업체매출 122억원(누적 301억원) 발생
- Two-Track 부품국산화 확대
 - * 핵심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적용범위를 기존 앞산단계에서 체계개발단계까지 확대하여 체계부품 국산화와 핵심부품국산화를 병행하여 추진
 - '19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체계개발 연계 핵심부품국산화 개발을 확대
 - * C10 LAH 2개 과제 → C20 KF-X 5개 과제, LAH 1개 과제
- 부품 국산화 부처 협업체계 확립
 - 방산분야 소재·부품 협력을 위한 방사청-산업부 MOU 체결(20.9월) 및 산업부-협력 부품국산화개발 과제 기획·추진
 - * 선정과제 : 「K3차주모용 1,000마력급 엔진부품 국산화」, 「GaN 에피소재 및 X-대역 35W급 GaN 전력 증폭기 MMIC 부품 공정기술 개발」

(방사청-산업부 방산분야 소재부품 협업 추진체계)



□ (확장)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

-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대상 개발비 등 지원 확대
 - 지원과제 확대('19년 2개 → '20년 12개) 및 총 16개 과제(계속과제 4개 포함) 개발비 92.6억원 지원
 -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다각적 홍보활동 수행
 - * '19년 11개 기업 지원 → '20년 46개 기업 지원
- 사업성과 창출 기반 강화 및 수출 실적 증가
 - 수출 촉진 및 과제 성공률 향상을 위한 가이드북사례집 등 교육자료 배포
 - 수출액 39.6억원('19년 0.3억원) 및 국내 매출 포함 총 46.1억원 발생

제20장 특 허 청

□ (IP-R&D 전략지원)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 중소기업의 R&D 현장에 우수특허 창출을 위한 기업 맞춤형 전략 지원
 - 464개 중소기업에 대해 IP 획득전략 1,971건, 장벽특허 무력화전략 2,188건, R&D 방향제시전략 1,747건 등 총 6,611건의 전략도출

※ 지원현황 : ('19) 210개(147.3억원) → ('19) 210개(147.3억원) → ('20) 464개(248.1억원)

□ (IP-R&D 전략지원)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히트 상품 창출을 위하여 제품 및 서비스 개발단계부터 브랜드·디자인·특허의 융합전략 지원
 - 특허·제품 및 UX/UI디자인 융합개발 전략 253건, 특허·디자인·브랜드 융합개발 전략 463건, 특허 전략 385건 제시

※ 지원현황 : ('18) 45개(45.5억원) → ('19) 45개(45.5억원) → ('20) 55개(60.6억원)

□ (IP-R&D 전략지원) 기업군 공통핵심기술 IP 전략지원

- 소·부·장 분야 품목 및 업종별·분야별 다수 중소기업의 공통핵심기술(신기술, 예로기술 등)에 대해 IP전략 및 유망R&D과제를 도출하여 입계 공유·확산 지원
 - IP 획득전략 43건, 장벽특허 무력화전략 22건, R&D 방향제시전략 27건, 유망 R&D과제 도출 111건 등 총 361건의 전략도출

※ 지원현황 : ('19년) 11개(14.7억원) → ('20년) 10개(14.7억원)

□ (IP-R&D 전략지원) IP-R&D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강화

○ 맞춤형 IP-R&D 전략 확산 및 자율적 생태계 기반 강화

- 산·학·연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IP-R&D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여성가족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협업으로 IP-R&D 교육과정 운영(74명 수료, 54명 취업)

※ 경력단절자 및 이공계 미취업자 대상 특허 빅데이터 활용 방법론에 대한 교육 실시(75명)

※ 예비연구인력 대상 교육과정(15회), IP-R&D 종합포털 온라인 교육(4,844명), 변리사 수습과정(1회) 운영

- R&D 수행기관·기업이 자체적으로 IP-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IP-R&D 가이드라인 마련

□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강화

○ (지식재산 금융) 우수 IP 보유 중소기업에 대해 IP 가치평가를 통한 보증·대출·투자 등 1조 1,635억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 연계 지원

※ 투·융자 연계 금융지원 금액(억원): ('17) 3,679 → ('18) 4,537 → ('19) 7,168 → ('20) 11,635

- IP사업화기업, 지식재산 서비스기업 및 IP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는 2,200억 원 규모의 IP 투자펀드 조성

※ 모태펀드 특허계량 펀드 조성금액(억원) : ('17) 480 → ('18) 994 → ('19) 2,200 → ('20) 2,200

- 관계부처 합동,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제10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7.2), 「지식재산 가치평가체계 개선방안」(제2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9.4) 수립·발표

○ (지식재산 거래·사업화) 특허거래전문관(17명)을 기술분야 및 권역별로 매칭하여 IP 거래·이전 지원

※ 특허거래전문관을 통한 IP 유상거래(건) : ('17) 364 → ('18) 438 → ('19) 513 → ('20) 423

- '지식재산(IP) 거래 활성화 대책'(20. 10) 발표·추진
 - 기술분야별로 운영하던 IP 활용 네트워크 사업(-'19)을 3개의 특화분야 네트워크와 민간협력형 IP거래플랫폼(6개 기관)으로 이원화(20)
 - * 반도체·공정자동화·소재/원광·AI·KOT·센서·바이오·헬스케어 투자
 -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중기부·특허청·기보·발전화·전략원 간 업무협약 체결 (20. 12)
 - 민간거래기관 육성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형 지식재산 거래지원 사업' 운영
 - 중소기업 IP의 제품화와 관련된 기술적 난제해결과 검증(복업 제작)을 포함하는 '융합지원 수행' 및 IP금융(투자·보증·담보) 지원과 연계 확대*
 - * 특허제품혁신·디자인제품혁신 + 복업 제작 : 57개사 지원
 - * 지원규모 확대 : ('19)IP투자특허계정 모태펀드 → ('20)IP투자 + IP보증·담보
 - 대학·공공연구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IP를 제품기반 패키지로 구성하여 민간에서 사업화하도록 이천
- ※ 제품기반 지식재산 패키지 구축 지원 과제(개) : ('16) 20 → ('17) 24 → ('18) 35 → ('19~'20) 18

□ 지역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IP 나라 프로그램) 창업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IP 문제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시장 진입 및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맞춤형 IP전략 지원
- ※ 지원 기업수(社) : ('19) 460 → ('20) 709
- ※ 세부지원 내역(건) : 특허출원 779, 디자인출원 26, 상표출원 84, 해외출원 114건 등(총 1,003건 지원)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현장에서 나타나는 시급한 IP 애로 사항을 지역 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수시 발굴 및 즉시 해소 지원
- ※ 지원 기업수(社) : ('19) 1,173 → ('20) 1,271
- ※ 세부지원 내역(건) : 특허법 355, 디자인개발 353, 브랜드개발 162, 특허기술 홍보영상 71, 해외출원 지원 172, 디자인독업 27, 국내·외 IP컨설팅·교육 등 411(총 1,461건 지원)

-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역별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3년간 맞춤형 지식 재산 종합 지원을 통한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육성

※ 지원 기업수(社) : ('19) 530 → ('20) 820

※ 세부지원 내역(건) : 해외권리화 2,296 및출원 특허법 367, 디자인법 11, 특허기술홍보연산 165, 디자인 독일 3, 브랜드개발 121, 브랜드&디자인 융합 49, 디자인&특허 융합 28, 디자인 개발 588, IP경영컨설팅 49(총 3,375 지원)

-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4차산업 등 유망 스타트업 대상으로 지식재산 바우처를 발급하여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 서비스를 지원

※ 지원 기업수(社) : ('19) 105 → ('20) 269

※ 세부지원 내역('20년 기준, 건) : 국내외 IP 권리화 852, 특허조사 분석 및 컨설팅 191, 특허기술 가치 평가 2건 등 총 1,045건의 서비스 지원

제21장 | 기상청

□ 기상기후산업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체계 구축

- 내수·초보 및 우수기술 보유 기상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 내수·초보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개정(2.14.)을 통해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예외 개선방안 채택(6.25.)
 - KCIRA 협업으로 수출전문위원회 의한 자문 및 컨설팅 제공(3.10.~11.30.)
- 기상기후산업 국제전시의 참가 지원사업 대체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기상기업 수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제품 제작, 외국어 홍보물 제작, 해외인증·특허 등 대체지원 실시(10개사)
- 기상기업 대상 국제 입찰정보 제공, 민·관 협력 세미나 개최(12.3.)

□ 기상기후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운영
 - 기상기후산업 분야 아이템 발굴 및 시제품 개발 지원(12개팀 지원)
 - 시제품개발 지원: 최대 5백만원/개팀, 창업자금 지원: 최대 15백만원/개팀
 -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캠프 및 창업경진대회 개최
 - 창업캠프(6.10.) 전문가 초청 창업 역량강화 교육, 기상정보 활용교육, 1:1 전문가 멘토링 실시
 - 청년 창업경진대회 개최(10.15.) 예비 창업팀 12개팀 대상 팀별 개발된 아이템 시연 및 우수 창업 활동팀(5개팀) 선정

- 예비창업팀 8개사 창업, 신규 일자리 35명 창출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
 - '기획·개발·생산·판로·마케팅' 전주기 성장지원사업 지원(총 19건)
 - 개발 지원 최대 2천만원/14건, 컨소시엄 지원 최대 6천만원 5건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니즈 반영을 위한 네트워킹데이 개최(4회)
 - 예비창업팀 입주 및 창업(4개사), 입주기업 산업재산권(37건) 달성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협업공간 개선(3회)
- 기상기후산업 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
 - 기상기후산업 창업·경영애로 해결을 위한 상사·심화 종합상담 지원
 - 기술원 심사상담(35건) 및 전문기관·자문가를 통한 심화상담(22건)

제22장 병 무 청

□ 전문연구요원 최대 지원으로 R&D 인력 양성지원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연 2회 선정, 우수 R&D 인력 확보 기회 확대

• '20년 선정업체 : 총 50개 업체(성인기 210개, 하반기 290개)

→ 중소기업연구소 병역지정업체 현황 : (18) 362개 → (19) 571개 → (20) 907개

○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지속 확대, 전체 배정인원내 모든 중소기업 채용·편입 가능

• 배정인원 : (17) 877명 → (18) 892명 → (19) 900명 → (20) 915명

→ 편입인원 : (17) 754명 → (18) 806명 → (19) 896명 → (20) 790명

○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19. 11. 21.) 연계 중소기업 최대 지원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소 우선 배정으로 연구역량 강화

• '21년 중소기업 배정인원 925명, 이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체 82개 290명 배정

□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대 등 청년기술인력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보충역 채용 희망업체 조기 선정

• '20년 조기 선정(8~9월) : 120개 업체 / '20년 총 선정업체 : 985개 업체

○ 산업기능요원 현역 배정인원(4,000명)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위주로 배정하여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기능인력 지원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배정인원(%) : '21년 3,512명(87.8%)

○ 보충역 배정인원(9,000명)은 병역지정업체에서 채용·편입가능하도록 총괄배정

-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해 일체의무자간 구인구직 매칭지원 강화
- 고용부·자치체 등 유관기관 합동 채용박람회 개최(총 5회)
 - 업체별 채용계획 파악, 「병역일터²⁶⁾」 포털 활용 게시(총 2,152개)
 - 온라인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개최(211개 업체 참여)

〈20년 중소기업 배정/면입인원〉

(단위: 명)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배정	면입	률	배정	면입	률	배정	면입	률
13,993	10,988	78.5	993	790	79.6	13,000	10,198	78.5

26) 법무성에서 운영하는 산업기능요원 취업지원 포털사이트(work.mma.go.kr)

제23장 산 릫 청

□ 산림임업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개발(R&D) 확대 및 중소기업 연구 개발 역량 강화 지원

- 임업 및 산림의 안정적인 자원공급 기지화를 위한 첨단기술 개발 및 미래 신산업 신시장 창출을 위한 '융복합기반 임산업의 신산업화 기술 개발(R&D)' 지원
 - ICT 기반 유통관리 시스템, 임산물 활용 기능성 원료 개발 등
 - 산림 분야 미래성장을 위한 22개 과제, 총 4,505백만 원 지원
-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회 구축 및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목재 자원의 고부가가치·대량 이용도 제고
- 융복합 첨단화 기술 개발을 위한 '목재 자원의 고부가가치 첨단화 기술개발(R&D)' 지원
 - 목재 가공기술 고도화, 목재 제품화 등 목재 자원 활용 고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23개 과제, 총 4,725백만 원 지원

□ 중소기업 주관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R&D) 신규사업 추진

- 산업계 중심의 유망 사람과마연구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자원사업(R&D)' 신규사업 추진
 - 기술이전 기업의 추가 상용화 개발비 절감 등을 목표로 미활용 산림과학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후속 연구 지원(10개 주관기업, 평균 157백만원)
 -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초기지반 구축 및 제품의 생산 실증을 위한 생산 공정 연구 지원(13개 주관기업, 평균 209백만원)

- 산림과학기술 기반 창업 및 스타트업 기업 안정화를 위한 R&D 및 R&BD 맞춤형 지원(7개 주관기업, 평균 107백만원)
- R&D를 통한 특허, 사업화, 기술이전 등 성과 자원으로 중소기업 성장 및 발전에 기여
 - 해당 사업을 통해 5년간 매출액 350억원 및 신규일자력 750개 창출 기대

□ 중소기업의 R&D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선정평가 가산점 부여

- 사회적 기업, 농업회사법인,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할 시 선정평가에서 2~3% 가산점 부여
 - 2019년 신규과제 선정평가에서 총 5개 기업에 중소기업 가산점 부여

제24장

농촌진흥청

□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농업인 창업보육 및 소규모 창업 기술 지원

- (기반조성) 국내 원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인의 창업활동 지원으로, 가공·생산·상품화를 통한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활력화 도모
 -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농산물종합가공센터) : 16개소, 88억원
 -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 33개소, 16.5억원
 - * 창업보육 경영체 매출액 증가율 12.5% : (19) 57.3백만원 → (20) 64.3백만원
 - * 시제품 개발 1,014건, 상품화 지원 513건, 특허상표 등록 및 출원 118건
- (역량강화)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컨설팅 및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창업보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다각적 지원체계 구축
 - 가공역량 향상 교육·컨설팅(5회, 366명) 및 기술자문단 운영(6분야, 30명)
 - 단계별 창업보육 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농업인 창업지원 및 경영활성화

□ 농업인 가공상품의 상품성 향상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 (소비확대) 변화하는 소비방식에 발맞춘 다양한 농업인 판매활동 지원
 - 사업규모(20) :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8개소, 국비 4억원)
 - 지역단위 우수제품 소개 및 홍보를 위한 마케팅 지원(39회, 288경영체)
 - * 참여 경영체 평균 매출액 증가율 16.1% : (19년) 26.5백만원 → (20년) 313.0
 - 유통기업 등 사업협력을 통한 소비시장 신규 진출을 위한 기회 제공

- 온라인 소비촉진 기획전(2회, 275명경제), 기업 연계 온라인 품평회(9개사, 91명경제)
- (성과화산) 농촌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비대면 방식의 콘텐츠 제작·보급
 -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창업 상품 소개를 위한 자료 제작 및 보급
 - 지역 우수상품 소개 전자책 제작(6종, 229종), 농촌자원 활용 홍보콘텐츠 제작(135건)
 -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상품개발 및 판매 우수사례 홍보, 대외평가 대응
 - 농식품부 공동,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8개소), 우수 농업인 사례소개(농업기술지, 12회)
 - 2020년 정부혁신 우수사례(행인부), 2020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균형위) 선정

□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생산안정화 기반기술 개발

- 지역주도형 지역농산물 간편식 소비확대 연계 기반 구축
 - 원료 안정 생산관리, 식재료 품질유지 장기 유통기술 실용화, 주력가공 기술별 생산업체 연계 공정화 및 유통채널 다양화 실현
 - 영농조합, 소규모 가공업체, 유통망 연계 생산·가공·유통 시스템화
- 지역생산 농특산품을 활용한 간편식 시제품 개발 및 공정 최적화
 - (제주) 도내 편의점 납품 생산업체와 연계한 생산공정 적용 및 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 런칭
 - 시제품 : 매밀면, 제주 냉동 죽·스프, 확즙음료(당근·비트), 신선면이식물 등
 - (전안) 기능성 농산물(차조기, 달래 등) 활용 식육 간편식 개발 및 규모화 생산 공정 설정, 하나로마트 활용 시장성 평가
 - 시제품 : 달래·차조기 순대, 마늘 만두, 방울토마토 소시지, 표고버섯 떡갈미, 수박희채·젤리 등
 - (충주) 콩, 병풀·잔대, 사과·복숭아, 별미장·깎장 활용 분말, 음료, 간편밥·국류 등 제품 다양화, 대형마트 유통을 통한 소비자 평가
 - 시제품 : 콩가루 스틱, 사과·복숭아 활용 간식, 병풀나물밥, 말고추장피개, 콩·꽃사과 전식 등

<p><제주></p> <p>○ 기획에서 제품화까지 생산자조합과 유통MD와의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p>	 <p>제주 메밀면</p>	 <p>제주 냉동죽</p>
<p><천안></p> <p>○ 병천순대 점육 생산주작목 활용, 축산가공물 간편식 개발 전략</p>	 <p>달래순대, 마늘인두 등</p>	 <p>방동토마토소시지, 표고떡갈비 등</p>
<p><충주></p> <p>○ 지역가공업체, 농업기술센터, 대학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p>	 <p>병들나물밥, 공가루스틱 등</p>	 <p>얌물간식, 팔고추청치킨 등</p>

○ 소규모 가공 경영체 가공품 위해요소 관리기술 개발

- 떡류 HACCP 구비서류 및 중점관리요인(CCP) 디지털입력 관리시스템 개발
- * HACCP 신청에 필요한 표준기준서 템플릿 제공, 업체 특성에 맞게 수정 사용 가능
- 새싹보리분말 생산유형별 가공공정 중 대장균 오염경도 구명 : 3개 유형
- * 유형 1 : 세척 및 건조 단계, 유형 2 : 스팀처리 단계, 유형 3 : 유통단계(유형1복합)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원활동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제4부

제1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2장 기술보증기금

제3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4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5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제6장 창업진흥원

제7장 한국벤처투자

제8장 중소기업유통센터

제9장 중소기업연구원

제10장 공영홍소망

제11장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12장 중소기업중앙회

제13장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제14장 신용보증기금

제15장 금융감독원

제16장 대한상공회의소

제17장 중소기업은행

제18장 한국수출입은행

제19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제20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제21장 한국무역협회

제22장 한국생산성본부

제23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24장 산업연구원

제25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제26장 한국디자인진흥원

제27장 한국어성경제안협회

제28장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제29장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제30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제1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

일반현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성장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근거, 1979년 1월 30일 설립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2021년 기준 10,6조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진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중진기금을 기반으로 창업·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 등 민간 참여가 어려운 고위험영역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경제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0년 중진공은 코로나19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수요자 맞춤형 정책기획 및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중심 경제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①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②현장 중심 서비스 전달체계 구현, ③공공성 강화로 사회적 가치실현, ④경영혁신으로 국민신뢰 확보 등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지원사업 및 조직 전반을 혁신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자금·기술 등 경영 기반 확충, 해외판로 확대 및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다.

앞으로 중진공은 정책자금 집행 비대면화, 비대면 원스톱 수출지원 등 비대면 경제 선도를 위한 '디지털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원 등 지역중심의 경제성장을 위한 '지역 산업 혁신', 선제적 구조조정 등 '사회안정망 혁신', ESG 대응 등 '그린 혁신' 추진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

사업별 추진실적

가. 정책자금 용자

2020년도 정책자금 용자 규모는 62,900억원(당초 45,900억원, 증액 17,000억원)으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및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표로 총 24,407개 기업을 지원하였다.

특히, 추경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7,00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고, 금리인하를 통해 내수 경기 진작을 유도하였다. 또한 제조현장의 스마트 전환과 한국판 뉴딜 분야 기술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여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1) 혁신창업사업화자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창업 활성화 및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자금으로, 1998년 창업기업지원자금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2010년 재창업자금지원자금이 신설되었고, 2012년에 청년전용창업자금이 신설되었으며, 2019년에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이 편입되고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이 도입되었다. 2020년에는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지원자금 및 혁신성장 분야 기업의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미래기술육성자금·고성장촉진자금을 신설하였다.

2020년에 증진공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예산 27,500억원(창업기반지원자금 17,000억원, 일자리창출촉진자금 4,000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2,900억원, 미래기술육성자금 1,800억원, 고성장촉진자금 1,800억원)을 총 11,109개 업체에 지원하였다.

표 N-1-1-1 | 창업기업지원자금 집행실적(2010년)

(단위 : 개사, 백만 원)

구분	예산		실적		잔액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창업기본지원	1,700,000	9,013	2,429,519	7,312	1,700,000	
일반	1,360,000	5,567	1,951,561	4,954	1,360,000	
청년전문창업	160,000	2,742	279,527	1,696	160,000	
시니어기술창업	50,000	270	67,586	254	50,000	
비대면분야창업	100,000	434	130,845	468	100,000	
일자리창출촉진	400,000	1,449	534,107	1,374	400,000	
개발기술사업화	290,000	1,488	416,283	1,374	290,000	
미래기술육성	160,000	663	255,408	620	160,000	
고성장촉진	180,000	449	257,620	429	180,000	
계	2,750,000	13,062	3,892,837	11,109	2,750,000	

2) 신성장기반자금

신성장기반자금은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등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당초 구조개선자금 내 구조개선사업,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과 협동화사업을 통합하여 경영혁신자금이란 명칭으로 2007년부터 신규 추진되었다.

200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효율화 방안에 따라 명칭을 경영혁신자금에서 신성장기반자금으로 변경하였다. 2010년에는 농공단지입주기업 지원사업을 신성장기반자금에 통합하였고, 2014년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 2015년 고성장(가젤형)기업 전용자금 및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2018년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을 신설하였다. 2019년부터는 혁신성장지원과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으로 이원화하였다. 2020년에는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시설투자 용자한도 확대 등을 통해 2,588개사 대상 14,300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N-1-1-2 | 신성장기반자금 지원실적(2020년)

(단위 : 개사, 백만 원)

구분	예산	신 청		대 여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혁신성장지원	930,000	2,396	1,308,196	2,161	930,000
제조현장 스마트화	500,000	436	616,497	427	500,000
계	1,430,000	2,832	1,924,692	2,588	1,430,000

3) 긴급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급으로, 대형사고 및 재해 피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거 구조개선자금 내 특별경영안정사업의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재해복구지원사업과 수출금융지원사업을 통합하였고, 2009년 사업전환지원사업의 회생특례지원자금까지 통합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개편하였다. 2016년에는 수출금융을 친시장진출지원자금으로 이관하였다.

2020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 13,00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피해기업과 태풍 '마이삭' 및 역대 최장기간 장마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 경영위기 대응을 통한 지역경제 및 산업 위기 극복에 기여하였다.

표 N-1-1-3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2020년)

(단위 : 개사, 백만 원)

구분	예산	신 청		대 여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일시적경영애로지원	160,000	189	46,740	173	30,420
재해중소벤처기업		271	64,577	263	49,811
코로나19 피해기업	1,140,000	7,665	1,826,549	7,309	1,219,769
계	1,300,000	8,125	1,937,866	7,745	1,300,000

4) 투융자복합금융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은 미래성장가치와 기술성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 이익공유형 대출과 성장공유형 대출 및 스케일업금융으로 나뉜다. 2011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후, 2012년부터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2020년에는 전환사채(CB) 인수 조건 대출방식인 성장공유형 대출을 102개사 1,026억원을 지원하였고, 회사채 현금흐름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지원하는 스케일업금융은 93개사 974억원(민간자본 2,532억원)을 지원하여, 총 195개사에 2,000억원을 지원하였다.

표M-1-1-4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지원실적(2020년)

(단위 : 개사, 백만 원)

구분	예산	진행		대 이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성장공유형 대출	100,000	313	407,400	102	102,600
스케일업금융	100,000			93	97,400
계	200,000	313	407,400	195	200,000

5) 모태조합 출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유망 창업벤처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태조합 출자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 문체부, 과기정통부, 고용부 등 10개 부처(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부처 출자 목적 및 특성에 따라 펀드가 운용될 수 있도록 계정별로 운영(20년말 기준 19개 계정)하고 있다.

2020년 기준 5조 8,482억원을 출자하여 총 881개, 28조 4,475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운영 중이며, 출자금 대비 4.9배의 승수효과를 달성하였다.

표 N-1-1-5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지원실적(2020)

(단위 : 억 원)

구분	공급	회전	연말	차입	계정 모형	소자 부담 (%)	연회	특회	연회	회기 정원	연회 회기	보간	연회	소 모 호	연회	회기	회기 회기	연회 회기	연회	회
15	1,001	-	2,990	100	-	-	4,991	1,000	520	1,100	-	900	130	200	-	-	-	-	-	2,232
16	1,000	-	-	-	-	-	360	-	100	370	-	-	100	200	-	-	-	-	-	2,130
17	5,000	3,300	-	-	-	-	530	-	180	200	-	-	150	70	200	120	-	-	-	9,400
18	575	-	-	-	4,000	-	540	200	100	150	-	-	170	100	130	150	-	-	-	5,115
19	2,400	-	-	-	500	-	630	100	80	180	-	-	130	100	280	180	200	-	200	4,920
20	5,100	600	-	-	3,700	600	1,130	200	240	150	95	-	300	100	200	150	200	300	200	5,225
계	25,076	3,900	2,290	100	8,200	600	7,251	2,100	1,230	2,120	95	800	980	770	810	570	400	300	400	55,452

6)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과 수출-중소벤처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수출성장단계별보 내수기업 수출기업 확장자금과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수출피해기업 지원자금 1,000억원을 포함해 1,432개사에 3,000억원을 집행하여, 수출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공급 및 수출 회복에 적극 기여하였다.

표 N-1-1-6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지원실적(2020년)

(단위 : 개사, 백만 원)

구분	예산	신 청		대 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내수기업 수출기업회자금	50,000	348	76,566	327	50,000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250,000	1,150	370,523	1,105	250,000
계	300,000	1,498	447,088	1,432	300,000

7) 재도약지원자금

재도약지원자금은 실패경영인 및 부실징후 기업 그리고 위기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자금이다. 업종전환 및 추가, 사업재편, ITA 피해기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자금, 실패경영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재창업자금 및 부실징후기업 정상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구조개선전용자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 증진공은 재도약지원자금 예산 3,100억원(사업전환 1,570억원, 재창업 1,200억원, 구조개선 330억원)을 1,366개 업체에 지원하였다.

표 IV-1-1-7 | 재도약지원자금 지원실적(2020년)

(단위 : 개사, 백만 원)

구분	예산	신설		대역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자금	157,000	396	205,444	388	157,000
재창업자금	120,000	908	201,397	758	120,000
구조개선전용자금	33,000	240	59,035	220	33,000
계	310,000	1,544	459,876	1,366	310,000

8) 재도전종합지원센터

경기침체 지속, 저성장 경제환경 하에서 증가하는 위기 및 실패기업의 경영으로 극복과 원활한 재도전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2014년 서울 재도전 종합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기준 총 18개소가 운영 중이다. 사전 전문상담, 자금지원, 멘토링, 연계지원 등 맞춤형 원스톱 재도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총 4,138건의 상담, 582건의 멘토링, 2,660건의 연계지원이 진행되었다.

표 IV-1-1-8 | 재기지원 상담실적(2020년)

(단위 : 건)

일반	상담		멘토링	연계지원		계
	전문	계		신용도개선	이행보증	
3,892	246	4,138	582	545	2,315	2,660

* (일반상담) 재창업·구조개선전용자금, 타사업연계, 재기컨설팅 등
(전문상담) 신용회복, 법률·세무 상담, 개인회생·파산 등

나. 글로벌화 및 수출마케팅 지원

글로벌화 및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제74조에 추진 근거를 두고 있다.

1979년 해외기술도입 및 중소기업 해외투자지원 등 해외산업협력지원을 시작으로, 1996년 공공부문 최초 온라인 B2B사이트인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구축하고, 1998년 수출인큐베이터(BI) 사업을 개시하였고, 2008년 해외마케팅 지원 창구 단일화 조치 및 2013년 중소·중견기업 총력 수출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현재의 글로벌화 및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이 완성되었다.

중진공은 32개 지역본·지부의 국내 인프라와 정책자금 등 다양한 연계지원 수단을 통해 '유망내수기업 및 제품발굴 → 육성 →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해외 진출' 순으로 이어달리기식 지원을 한다. 대내뿐만 아니라 대외 지자체, 수출유관 기관과 협업하고 공동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지원성과를 제고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수출마케팅 지원을 위해 수출성공 및 향상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금리환급, 수출전용자금 지원규모 확대 추진 등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수출성장단계별(내수기업 → 수출초보 → 수출유망 → 수출성장)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제교역 제한으로 애로가 발생하였을 때, 범부처·민간기업 협업을 통한 중소기업 공동물류 핫라인 구축 및 전세기, 선박 등 긴급물류지원 등을 추진하여 신속 대응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원사업의 디지털·비대면화 추진 및 중진공 해외현지거점을 활용한 온·오프라인(O2O) 연계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1) 수출바우처사업

수출바우처사업은 내수기업, 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기업, 수출성장기업 등 수출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제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저변 확대와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출성공패키지,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아시아하이웨이, 글로벌강소기업, 단체전시회 바우처 등 5개 사업을 수출바우처 1개 사업으로 통합하여 수출성장단계(내수, 초보, 유망, 성장)에 따라 지원하는 성장바우처를 구축하였고, 2020년에는 스타트업, 브랜드K기업,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 글로벌강소기업으로 구성된 혁신바우처를 신설하여 혁신주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업은 현지 시장조사, 수출교육, 홍보/마케팅, 전시회, 해외규격인증 등 수출준과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최대 100백만원까지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다. 2020년에는 3,259개사의 기업을 대상으로 1,167억원을 지원하여 2,286백만불의 수출성과와 68,306명의 고용창출을 이끌어내었다.

표 N-1-1-9 | 수출바우처사업 수출 성과(2020년)

(단위 : 개사, 억 원, 백만 불, 명, %)

지원기업수	지원금액	수출성과(백만불, 억 원)		고용성과(명, 억 원)		수출기업회계사(개사, %)	
		실적	증가율	실적	증가율	실적	증가율
3,268	1,167	2,286	97.6	68,306	8.6	477	50.7

2)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과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역사절단과 해외전시회 등 해외마케팅과 해외바이어알선지원, 계약실무, 무역협상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9년부터 증진공은 해외마케팅장구 단일화 조치에 따라 지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전시회 등 현지마케팅이 전면 중단되자, 온라인 기반 해외전시회 2회, 무역사절단 16회, 수출상담회 26회, 지역특화해외마케팅 13회 등 비대면 사업을 57회 추진하여 총 652개사, 35백만불의 수출계약 체결을 지원했다.

표 IV-1-1-10 |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상담 및 수출계약 실적(2020년)

(단위 : 개사, 건, 백만 원)

유 형	지 원			성 과	
	회수	청가기업	상담금액	상담회수	계약계약액
해외전시회	2	14	12	271	3
무역사절단	16	94	7	213	1
수출상담회	28	324	69	4487	18
지역특화마케팅	13	220	22	1134	13
계	57	652	110	6,105	35

3) 청년글로벌마케터사업

청년글로벌마케터사업은 청년글로벌마케터 양성 및 수출마케팅활동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를 목표로 하는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주요 지원내용은 ❶온·오프라인 무역실무 교육, ❷사내 멘토링활동비 및 해외마케팅 활동비 지원, ❸바이어 매칭 및 화상상담회 지원이다.

2020년 총 109개사 121명을 지원하였으며, 참여기업 평균 수출증가율을 129.1%, 첫 수출성공률은 64%를 달성하였다.

표 IV-1-1-11 | 청년글로벌마케터사업 지원실적(2020년)

(단위 : 개사, 명, %)

구 분	지 원		성 과	
	기업 수	인원 수	평균 수출증가율	첫수출 성공률
청년글로벌마케터	109	121	129.1	64

4)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수출인큐베이터사업은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운영하고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자원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별기업이 입차하기 어려운 12~20㎡ 규모의 독립된 사무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현지청라 지원, 바이어 및 시장정보 제공, 컨설팅·상담, 현지 네트워크 지원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출장 제약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라인 수출상담회 및 기술교류상담회 등 비대면 사업을 추진하였다. 향후에는 현지 진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Pre-BI 및 현지화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공유오피스 이전 등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 말 기준, 수출인큐베이터는 12개국 30개소 361개실이 운영되고 있다. 2020년 입주업체의 총 수출실적은 약 5억 9,558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입주업체 성과분석 결과, 입주전년 대비 입주년도 평균 수출액이 7.29% 증가였다. 이는 같은 해 전체 중소기업 평균 수출증가율인 -0.2% 대비 7%p 이상 높은 수치로 입주기업의 수출성과가 제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N-1-1-12 | 수출인큐베이터 설치지역 및 입주규모(2020년)

(단위 : 실)

지역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USA	영국	가나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계		
	시카고	LA	워싱턴	서울	베이징	상하이	선전	칭다오	도쿄	호찌민	하노이	방콕	워싱턴	뉴델리	양자왕	자카르타	뮌헨	방콕	자카르타			
입주 규모	18	22	10	19	15	17	14	22	7	8	15	15	15	15	8	11	9	7	9	10	10	201

5) 코리아스타트업센터(K-스타트업 센터)사업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사업은 전세계 혁신 거점에 설치된 창업기업 해외진출 플랫폼으로 자금, 네트워크, 공간 등을 종합지원하여 현지 스케일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국가별 창업생태계, 정책방향 및 해당국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K-스타트업 센터를 조성한다.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말 기준 K-스타트업 센터는 미국(시애틀), 인도(뉴델리), 싱가포르(싱가포르), 스웨덴(스톡홀름)에 총 4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표 N-1-1-13 | 코리아스타트업센터 개소한황(2020년)

구분	미국(시애틀)	인도(뉴델리)	싱가포르	스페인(스톡홀름)
개소시기	2019년	2019년	2020년	2020년
특화업종	차량주행 리테일	에듀테크 에그테크	핀테크 스마트시티	AI 그린산업

6) 글로벌협력기반구축사업

국내·외 정부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유용한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외 정보 및 기반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해외 47개국 104개 협력 네트워크(21.3월말 기준)와 중국 칭다오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표 N-1-1-14 | 해외협력기반 실적(2020년)

(단위: 회)

구분	장차	내용
MOU 체결	4건	국제기구, 러시아, 페루, 몽골 등 4개국 5개 기관
산업협력관 교류	24명	스페인, 태국, 이집트, 케냐, 홍콩 등 10개국 24명
매칭상담회 및 세미나	16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경영전략 세미나 등 16회
국제회의 참가	3회	인도경제포럼, ACCMSME 정책대화 등 3회
해외 정책담당자 연수	2회	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 스타트업 정책담당자 연수 등 2회

7) 해외지사화사업

해외지사화사업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이 2017년도부터 산업부 수탁 '해외지사화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중진공, 코트라, OKTA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해외마케팅·컨설팅 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민간 컨설팅 기업을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여 해외지사와 사업의 수협사로 활용하고 있다. 2020년에는 총 37개국 127개사의 해외민간네트워크를 지정하여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협력파트너 발굴, 법률자문, 기술수출, 현지법인 설립, 국제조달시장 진출 등 다양한 해외진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N-1-1-15 | 해외지사와사업 지원실적(2020년)

(단위 : 건, 천 불)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원기업 수	235	475	370	370	370
수출실적	272	902	353	379	진행중
투자유치	13.1	3.5	-	-	
현지법인(지사)설립	12	11	7	2	
기술협력 계약체결	6	4	5	-	

* 사업기간 : ('16년) '18.1월~ '19.8월 / ('19년) '19.1월~ '20.8월 / ('20년) '20.1월~ '21.8월

8) 해외기술교류사업

해외기술교류사업은 한국과 신흥국 정부간(G2G) 협력을 통해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해외 현지기업에 수출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기술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국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수요-공급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매칭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기술교류단의 현지파견 및 사후지원을 통해 기술수출을 촉진한다.

2020년 기준 이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카자흐스탄 6개국에 현지 정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기술교류센터를 운영 중이며, 현지여건, 기술수요, 정부기관의 협조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다. 아울러 협력 국가의 수요기술(마이어) 발굴 강화를 위해 인도 현지의 기술전문인력 양성 교육 지원(1차 블록체인(60명), 2차 빅데이터(83명))을 병행하고 있다.

표 IV-1-1-16 | 해외기술교류단 운영실적(2020년)

(단위 : 개사, 건)

국가	회차	크노공공기업	해외수요기업	상업	MOU
카자흐스탄	1	10	36	36	0
	2	8	32	32	7
키르기스스탄	1	8	7	7	2
인도	1	14	79	79	0
미얀마	1	11	66	66	0
	2	10	61	61	0
말레이시아	1	10	42	42	0
	2	12	57	57	0
	3	5	14	14	0
태국	1	12	49	49	0
	2	12	76	76	5
중국	1	10	50	50	4
	2	8	26	26	0
	3	9	29	29	0
	4	10	30	30	0
인도네시아	1	12	66	56	9
	2	15	71	71	16
	3	15	65	65	9
베트남	1	19	63	63	4
	2	21	99	99	12
	3	33	87	87	6
터키	1	14	59	59	9
	2	14	50	50	5
캄보디아	1	9	55	55	2
우즈베키스탄	1	9	63	63	10
	2	10	33	33	3
독일	1	5	11	11	0
러시아	1	5	23	23	0
	2	26	48	48	10
	3	9	43	43	13
	4	11	53	53	9
우크라이나	1	13	15	15	0
총 계	32	389	1,548	1,548	135

7) 온라인수출지원사업

온라인수출지원사업은 온라인수출플랫폼(gobizkorea)을 통해 해외홍보 및 판로 개척에 에로를 겪는 중소벤처기업 대상 디지털 무역환경에 부응하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원스톱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6년 공공기관 최초로 개시하였다. 온라인 수출인프라 구축, 기업 및 상품특성을 고려한 온라인마케팅 지원, 무역전문가를 활용한 거래알선 및 사후관리 등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수출에 꼭 필요한 사항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수출플랫폼 내에 지원기업을 위한 상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전용 상품관을 제작한다. 구글, 야후 등 바이어가 주로 이용하는 해외 유명 사이트 대상 검색엔진 최적화(SEO) 및 키워드 광고를 지원하여, 유료 구매오피 발굴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 및 상품 특성을 고려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활동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타겟시장·타겟품목 도출 및 세분화들 통해 26,217개의 수출유망상품을 신규로 발굴하였고, 총 114백만불의 사업 개시 이래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하였다.

온라인수출플랫폼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바이어 개개인의 행동분석을 통해 최적의 국내기업을 추천하는 시매칭시스템도 도입하였다. 또한,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활성화하여, 수출유망기업 홍보, 자체이벤트, 정책 홍보를 진행하였다. SNS 채널은 팔로워 수 22만, 페이지뷰 43천만을 기록하였다.

또한, 한국형 글로벌플랫폼 구축을 위해 수출유관기관 3대 플랫폼(중진공-고비즈코리아, 코트라-바이코리아, 무역협회-트레이드코리아)과 협력을 강화하였다. 중진공의 고비즈코리아를 비롯한 3대 플랫폼이 2025년 수출 100억불 달성을 목표로 하여 해외 바이어가 하나의 플랫폼만 방문하더라도 3대 플랫폼의 모든 상품을 비교·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연계하고, 매칭이 안 된 구매오피정보도 상호 공유하여 거래알선 기능을 강화하였다.

표 N-1-1-17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 지원실적(2020년)

(단위 : 건, 개사, 백만 불)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입점상품수(누적)	227,396	268,062	294,269
입점기업수(누적)	55,516	61,218	68,021
구매오더	17,090	20,374	32,271
수출성과	40	53	114

8)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지원

전자상거래활용 수출사업은 한류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온라인 수출지원 및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한 신종시장 진출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수출 기반 조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전자상거래시장 진출을 촉진하였고, 2020년에는 5,368개사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여 1,639백만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다.

전자상거래활용 수출사업 중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사업은 아마존, 쿠팡 등 글로벌쇼핑몰 판매경험이 풍부한 기업을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온라인수출(판매)에 필요한 전 과정을 대행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자사 쇼핑몰(업종·테마별 전문몰)이 해외경쟁력이 있는 쇼핑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사몰 육성사업은 지원기업 85개사가 211백만불의 수출 실적을 거두었다.

온라인전시회사업의 경우 IT기술을 접목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오프라인의 '물리적·시간적·비용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온라인전시회를 연중 상시 개최하고, 원격·오프라인 수출상담과 연계한 해외시장진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165백만불의 수출 성과를 거두었다.

산재되어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물량을 집적하여 물류비 절감 및 해외진출을 촉진시키는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은 총 2,287개사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였으며, EMS 비용을 기존 할인을 목표(45%)보다 3%p 높은 48%로 할인 제공하고, 물류거점 지원 및 물량집적 프로모션을 통해 613백만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해 전자상거래 이론 교육·실습 및 성과창출이 가능한 「이커머스 특성화대학」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이커머스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2020년 전국 7개 대학(경남과기대, 고려대, 목포대, 배재대, 숭실대, 전북대, 한국외대)과의 협입으로 시작해, 1년간의 과정을 거쳐 이론과 판매실습 경험을 보유한 이커머스 전문인력 306명을 배출하였다. 각 대학팀은 배정된 중소기업의 제품을 글로벌 전자상거래 쇼핑몰(고비즈코리아, 아마존, 이베이, 쇼피, 쿠팡, 라자다 등)에서 직접 판매하였고, 총 424백만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다.

표 N-1-1-18 |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지원 사례(2020년)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		
타울(Toul)	쇼피(Shopee)	쿠팡(Coup24)
		
시대엔 화상상담회	승기이커스 간 해킹은음 민관합의 체계 구축	U-이커스 Competition (이커머스 특성화대학 지원)
		

다. 인력양성

인력양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 재직자의 내적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자긍심과 주인공 의식을 갖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공급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이 국민경제의 주역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IV-T-1-19 | 중진공 인력양성사업 분야(2020년)

구분	인력양성		임자리 발굴·배치	인력역량 강화	역성인력 장기재직
지원사업	산학협력 인력양성	중소벤처기업 인사개선 및 성과공유	기업인력 에로센터	연수	성과보상공제
주요내용	맞춤형 인력 양성공급	우수 중소벤처기업 지정·홍보 및 성과공유 문화 확산	취업컨설팅, 취업매칭	단기 집합연수 이러닝연수	성과보상금 형태의 공제기금 운영

인력양성사업은 1982년 중소벤처기업연수원(경기도 안산) 개원과 함께 연수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2014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산학연계 인력양성 사업을 아관 받고, 성과보상공제기금이 출범하면서 확대되었다. 2018년에는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주근로자 성과공유 확산사업 및 청년일자리 대책에 따른 취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력에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사업이 추가되었다.

특히 6개 연수원을 거점으로 한 광역별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진공 전국 32개 지역본지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 현장 접점에서 맞춤형 인력 지원과 인력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사업)간 연계지원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1)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은 산학연계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현장중심 직업 교육을 지원하고 특성화고·대학을 통해 우수 기능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중소벤처기업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대학연계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 계약학과사업 등 총 4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채용부터 장기재직 유도, 기업 역량강화까지 이어지는 중소기업 인력양성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취업후진학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입학습 병행 문화를 확산하고 중소벤처기업에 적합한 우수인재의 유입, 양성 및 장기재직을 견인하고 있다.

표 N-1-1-20 | 중소기업 인력지원 체계도



특히,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2020년 215개 특성화고를 지원하였으며, 핵심 프로그램인 취업(산하)맞춤반 과정을 통해 8,039명을 지원하여, 이 중 5,234명(65.1%)을 취업 연계하였다. 이와 함께, 스마트공장 지점학교 18개교를 지정하여 스마트제조 인력양성 관련 교육운영을 지원하였다.

표 N-1-1-20 | 사업별 주요 추진실적(2020년)

구분	추진 실적
중소벤처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215개 특성화고에 8,039명이 참여하여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프로젝트 수업, 진로지도 및 연수에 소요되는 사업비 평균 1.4억 내외 지원
기술사관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개 사업단(1,553명)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 2,670백만원 지원 및 관리
대학연계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개 대학(872명)에 중소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공급을 위해 2,480백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 계약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48개 대학, 80개 계약학과의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에게 학과 운영비 및 등록금 지원(1,951명, 10,582백만원 지원) 및 관리 인공지능(AI) 분야 3개 학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2개 학과 등 총 5개 학과 신설

2) 중소벤처기업 인식개선 및 성과공유

중소벤처기업 인식개선 사업은 우수 중소벤처기업 지정 및 홍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일하고 싶은 중소벤처기업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에 우수인력을 유입하는 사업이다. 2020년 인재육성형 중소벤처기업 280개사 지정, 존경받는 기업인 11인 선정 및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인식개선 노력을 이어나갔다.

특히, KBS ITV <사장님이美쳤어요(총 7편)> 방영을 통해 존경받는 기업인의 우수사례를 소개하였으며, 그 결과 평균 시청률 3.4%로 동시간대 지상파 방송 중 평균 시청률 1위를 기록하였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도 방송 직후 대부분 1위 또는 상위 톱10에 랭크되며, 대국민 중소벤처기업 긍정인식 확산에 기여했다.

아울러, 대·중소벤처기업 임금격차를 축소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우수인력 유입을 확산하고자 중소벤처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확산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성과공유기업의 정의, 성과공유 유형,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였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성과공유기업 51,275개사를 지정하였다.

성과공유기업 확산을 위해 2018년 국내 최초로 사업주·근로자간 미래성과공유 협약서 등록시스템 및 성과공유 도입증빙자료 제출 청구인 성과공유기업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성과공유기업 확인기준 등을 규정한 고시를 제정하고,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과공유기업 인증제도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성과공유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 일자리 평가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가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과공유기업 유인을 강화해왔으며, 검색엔진·신문, 산업단지 옥외광고 등 성과공유 문화 확산 및 인지도 제도를 위한 홍보도 적극 수행하였다.

3) 연수사업

1982년 중소기업연수원(본원 안산) 개원을 시작으로 호남연수원(2001년, 광주), 대구경북연수원(2003년, 경산), 부산경남연수원(2004년, 창원), 글로벌리더십연수원(2014년, 태백) 등 5개의 지역 연수원이 개원하였다. 2021년에는 충청연수원을 천안에 신규로 개원하여 총 6개의 연수원이 운영될 예정이다.

2020년에는 중소기업연수원(안산) 34,163명, 그 외 지역연수원(호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글로벌리더십) 10,825명 등 총 44,988명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개원 이래 중기제작자를 포함하여 누적 154만여 명의 인력양성에 기여하였다.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으로 집합연수운영이 어려워졌으나,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신기술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실시간 온라인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웹비나 연수(일명 KOSME-LIVE)”를 신속 도입하여 총 215회 교육을 실시, 12,045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표 IV-1-1-21 | 연수실적(2020년)

(단위 : 명)

과 목	2018년	2019년	2020년	
직무역량향상연수	스마트공장	7,760	11,046	12,100
	후리·생산기술	6,880	4,031	1,171
	경영·품질	8,055	5,968	3,145
	소 계	22,695	21,045	16,416
정책연수	13,373	11,843	8,303	
원격연수	13,160	17,656	18,483	
맞춤연수	3,375	3,194	1,766	
합 계	52,603	53,538	44,988	

4) 기업인력애로센터

기업인력애로센터는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 인력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One-Stop 지원사업이다. 중전공은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구인애로 기업을 발굴하고, 채용조건을 확인하여 특성화고, 전문대, 직업전문학교 졸업생, 청년장병 등의 구직자와 맞춤형 취업매칭을 진행한다. 동 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전국 16개 기업인력애로센터가 개소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 구인수요를 상시 발굴·접수하여 실시간 일자력 매칭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청년(장병) 구직자 요건 중 청년장병의 병위를 대체복무자(산업기능요원 희망자)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8,626개사의 구인기업을 발굴하여 1,868개사에 3,626명을 취업 연계하였다. 향후에는 청년 중심의 일자리 지원을 중년, 신중년으로 확대하여 연령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표 IV-1-1-22 | 중소벤처기업 구인수요 발굴 및 취업매칭 실적(2020년)

(단위 : 개사, 명)

구분	구인기업	구인인원	구직인원	취업매칭
2017년	1,430	5,821	1,327	1,048
2018년	8,223	21,434	14,082	2,657
2019년	8,513	49,185	33,462	3,520
2020년	8,626	42,614	48,248	3,626
합계	26,792	119,254	97,119	10,851

5)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은 우수인력의 중소벤처기업 취업 기회 및 잦은 이직으로 인한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4년도 8월에 출범하였다. 동 기금은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사업(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3년형)),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만기까지 재직 시 공동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6년에는 내일채움공제와 노동부의 '청년취업인턴제'를 연계한 신규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여 청년취업에서 장기재직까지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년간 미취업청년과 사업주, 정부가 각각 600만 원, 600만 원, 1,800만 원을 적립하여 만기 재직 시 근로자에게 3,000만 원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2018년에는 청년일자리 대책(3.15) 및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공제사업을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재직청년 대상 신규사업이 출범하였다. 출범 후, 2020년 말까지 성과보상공제(4개 사업)에 231,085개사 551,344명(누적 기준)이 가입하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표 IV-1-1-23 / 공제가입실적(2020년)

(단위 : 개사, 명, 백만 원)

구분		가입업체 수		가입자 수		공제납입금	
		신규	누적	신규	누적	신규	누적
내일채움공제	일반	4,307	23,165	10,920	68,439	717,136	1,580,335
	청년재직자	10,803	36,913	31,525	105,318		
	소계	15,110	60,078	42,454	163,757		
청년내일채움공제		54,376	171,007	107,225	397,587	1,422,998	3,068,649
합계		69,486	231,085	179,680	551,344	2,140,134	4,658,984

한편, 지자체 및 공대기업과 내일채움공제 상생협력형 협업모델을 구축하여 공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지역균형 일자리 창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였다. 2020년도에 진주시 284명, 시흥시 101명, 울산항만공사 30명, 한국국토정보공사 10명 등 지자체 6곳과 공대기업 6곳이 협력사 및 관내 중소기업의 공제납입금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지자체 1곳과 협약체결을 통해 총 57명(27개사)에게 복지지원금을 지원하였다.

표 N-1-1-24 | 공기업·지자체와 내일채움공제 간 연계 협업 실적(2020년, 두제)

(단위 : 개사, 명, 백만 원)

구분	협회사 업체 수	지원 인명 수	지원액	
공기업 및 대기업	한국남동발전	91	218	1,296
	한국서부발전	66	185	1,230
	한국가스공사	17	48	288
	한국전력공사	18	50	668
	CS재일제당	40	80	576
	한국동서발전	12	36	228
	한국중부발전	18	36	216
	한국수력원자력	21	72	432
	인천항만공사	11	16	96
	한국수자원공사	30	37	222
	한국남부발전	28	70	420
	한국투자주력공사	37	229	1,374
	한국항공우주산업	20	79	284
	부산항만공사	18	39	234
	한국가스기술공사	7	10	60
	울산항만공사(20)	9	30	180
	한국국토정보공사(20)	10	10	60
	한국승강기안전공단(20)	1	2	12
	민천국채금융공사(20)	3	3	18
	한국교통안전공단(20)	2	4	24
KTI(20)	6	21	101	
지자체	강원도	219	881	8,556
	대전시	270	594	5,346
	울산시	148	259	621
	충북도	632	973	5,638
	계룡시	12	29	239
	제주도	728	1,363	12,637
	산청군	6	15	108
	무천시	108	193	809
	김해시	27	55	78
	포항시	78	158	189
	익산시	14	43	123
	양주시(20)	40	101	436
	완주군(20)	13	41	295
	군포시(20)	21	50	300
	시흥시(20)	65	101	581
	천주시(20)	102	284	93
	부천시(20)	23	31	220
	계	2,968	6,466	44,449

라. 창업·기술 지원

중소벤처기업 창업·기술 지원 사업은 유망 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제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근본체질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진공은 전국 18개 지역의 청년창업사관학교 및 글로벌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집약업종 위주로 창업교육, 사업화 지원 등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통해 기술·경영역량 부족으로 대외환경 변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전문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화가 되지 않은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및 기능개선(R&D)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는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 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과 맞춤형 사업화 부문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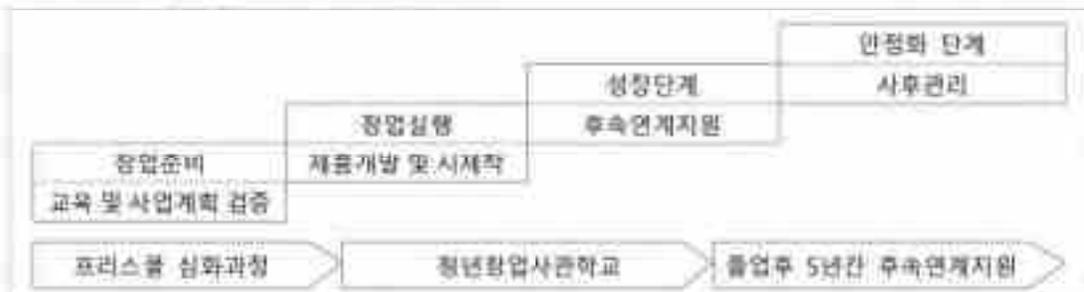
1)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성공패키지를 운영·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청년의 기술창업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2011년 경기도 안산에 설립되었다. 2017년에는 혁신 창업자 육성 강화를 위해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3단계 패키지지원 방식으로 지원범위를 확대개편하여 지금의 창업성공패키지 체계로 발전하였다.

창업성공패키지의 첫 단계인 프리스쿨 심화과정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 등의 교육을 통해 창업 사업화 기간에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는 창업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유망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 후 사업화 지원금, 교육·코칭, 창업 및 시제품 개발 공간, 판로 지원까지 청년창업 one-stop(one-roof) 시스템으로 일괄 지원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이후에는 창업기업의 데스밸리 극복과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졸업 후 5년간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인력양성 등 각종 지원사업을 후속 연계지원 받을 수 있다.

표 IV-1-1-25 |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체계(2020년)



또한, 혁신기술 창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창업사관학교를 신규 설립 ('20.8월)하여, AI(인공지능)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수준의 기술교육 및 보육을 제공하였다.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AI역량진단을 통한 수준별, 단계별 맞춤형 특화교육(이론+현장+실전),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국내외 네트워킹(국제기구 연계, 글로벌 컨퍼런스 참여)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글로벌 인공지능 창업 확산에 기여하였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11년 개교 이래 지난 10년간 기술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총 4,798명의 청년CEO를 양성하고, 매출액 48,553억원, 일자리창출 13,759명, 지식재산권 등록 16,989건의 지원성과를 거두었다.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신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 창업자 60팀을 양성하여 매출액 84억원, 고용 144명, 투자유치 59억원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이렇듯 창업 지원체계 구축 및 우수한 성과창출을 통해 창업성공패키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년창업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2020년 코로나19 영향 및 경기둔화로 위기에 직면한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여건 수준 진단과 기업특성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분야별 전문 역량을 갖춘 수행기관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진단과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혁신바우처 메뉴판 내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최대 50백만원 이내에서 3개 분야 3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총 2회 모집공고에 걸쳐 6,964개 기업이 신청하였고, 이 중 서면심사 및 진단·평가를 통해 1,637개사를 선정 및 지원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이 큰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소기업, 3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 및 3~7년 사이의 테스텔러 기업을 중점 지원하여 경영애로 극복에 기여하였다.

표 IV-1-1-26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세부지원 프로그램(2020년)

지원 분야	지원 프로그램
건설팀	경영, 기술, 규제대응, 재기지원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기술개발 인프라, 기술이전 및 지재산 획득, 규격인증, 시험, 설계
마케팅팀	마케팅 및 시장조사, 패키지 디자인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지원

2020년에는 시스템 개편을 통해 혁신역량 진단 및 평가통합 모델을 개발 완료하여 제조 소기업의 성장 유형을 5가지로 분류·제시하고 세부지원 프로그램을 맞춤 연계하였다. 이와 더불어 서류준비 간소화를 시행하고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 고객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2020년 한해 기술유망 소기업 1,637개사에 약 43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521건의 서비스(건설팀분야 407건, 기술지원 1,233건, 마케팅 881건)를 연계했다. 아울러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기업을 전체 지원기업의 86% 비중으로 지원하여 영세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지원기업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 대비 3.7% 성장하여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제고하였고, 1,077명의 고용 실적을 달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2)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은 고부가가치 자전기·해양 레저장비 분야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경륜경쟁법에 의거하여 수행되는 필수 사업으로, 코로나19에 따라 개인용 이동수단 수요증가로 지원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사업 지원분은 기술개발 지원과 맞춤형사업화 지원으로 나누어진다.

기술개발 부문은 자전기·해양 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를 제조하는 중소벤처기업이 주관이 되어 수행하는 기술개발 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지원기업은 산업 전문가의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선정되게 된다.

특히, 기술개발 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연구원을 신규 채용한 경우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의 기존 연구원이 참여할 경우에는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뿐만 아니라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총 29개 기업이 사업신청을 하였으며, 이 중 4개 기업을 신규 선정함으로써 7.25: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기업 대상으로 계속과제 7건을 포함하여 총 1,573백만원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특허등록 및 출원 6건, 시제품 출시 1건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맞춤형사업화 부문은 기술개발 성공 후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사업화 기회, 사업화 지원을 맞춤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사업화 기회 4건, 사업화 지원 5건으로 총 9건을 지원하였으며, 지원금액 대비 신규 매출액이 20.1%를 달성하는 성과를 내었다.

3)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은 사업화가 되지 않은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회, 시장검증 및 기능개선(R&D) 등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R&D 투자효율 개선 및 중소벤처기업의 신규 매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정부 R&D 성공기술 및 특허등록기술 중 사업화 추진(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기업이며, 최종 선정기업에게는 시장검증 및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2020년에는 공모접수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하였으며, 대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화 추진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표 N-1-1-27 |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 지원현황(2020년)

(단위 : 개사)

구분	기술사업화 진단	기술사업화 기회	사업화 지원		합계
			시장검증	시장친화형기능개선	
지원기업	202	40	32	20	294

4) 중소기업 재기건설당 지원사업

가)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사업은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위기에 봉착한 기업에 대해 전문가의 심층진단으로 기업에 필요한 진로를 제시하는 사업이다.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정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퇴출을 유도하여 사장 내 명백한 유지하는 '놀이기업'의 양산을 막고,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0년에는 6.9억원의 규모로 총 336개 기업에 진로제시컨설팅을 지원하였다. 지원기업 중 316개사는 "구조개선" 판정으로 수출마케팅, 워크아웃, 자금 등 지원정책을 연계하였고, 16개사는 "회생지원" 처방을 통해 회생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4개사는 "사업정리" 처방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폐업을 지원하였다.

표 N-1-1-28 | 진로제시컨설팅 처방 현황(2020년)

(단위 : 개사)

구분	회생컨설팅 지원	사업정리	구조개선 등	합계
지원기업	16	4	316	336

나) 중소기업 회생건설링 사업

중소벤처기업 회생건설링 사업은 법원 회생절차의 이행이 필요하나 회생절차 비용 조달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회생건설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원 조사위원 경험을 보유한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등의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법원 회생개시신청서 작성, 조사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회생절차의 성공적 이행을 돕고 있다.

2013년 57개사, 2014년 65개사, 2015년 51개사, 2016년 55개사, 2017년 90개사, 2018년 92개사, 2019년 95개사, 2020년 95개사 등 누적 총 600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법원 회생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및 법원과의 협업을 통해 회생인가율을 제고하고 있다.

표 N-1-1-29 | 회생건설링 지원실적(2013-2020년)

(단위 : 개사)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지원기업	57	65	51	55	90	92	95	95	600

2020년 회생건설링 완료기업 25개사 중 19개사(2021. 3월말기준)가 회생인가 결정이 완료되어, 76.0%의 인가율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최근 5년(14년~19년)간 법원의 회합사건 회생인가율 통계수치(38.3%)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이다. 중진공은 향후에도 역량이 우수한 컨설턴트를 선정·관리하여 신청부터 인가까지 컨설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회생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5) 정책중개

중진공은 2011년부터 지역본·지부 등 현장조직의 강점을 살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는 정책중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기업성장 응답센터, 기업인 간담회 등 현장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발굴한 규제를 중소기업 읍부즈만 등 정부에 정책개선 과제로 제안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표 N-1-1-30 | 정책중개 추진절차

규제 발굴	규제 분류 및 건의	개선·시행	현황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성장상담센터 현장 간담회 금융애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벤처기업 규제 애로 검토 및 선별 정부에 개선방안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 및 지침 개정 반려 시 사유 확산 대체 해결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별 실적점검 우수사례 전파
온·오프라인 접수방식을 병행해 접근성 향상	현장조적을 활용한 실질적인 정책건의 수립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 및 애로해소에 기여	실적점검 및 우수사례 전파를 통한 활성화

2020년에는 총 511건의 정책개선 과제를 정부에 발굴·건의하였고, 이 중 75건이 정책에 반영되어 14.7%의 높은 정책반영률을 달성하였다. 또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발맞춰 스마트공장,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혁신을 중점 추진하여 정부의 신산업 혁신성장 지원정책에 호응하였다.

표 N-1-1-31 |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분야 주요 개선사례

연번	규제내용	소관부처
1	인간대상 연구 등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 규정 개선	보건복지부
2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으로 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 보완 필요	중기부
3	차질이 있는 삼륜형 이륜자동차 인천모 착용 의무 완화	경찰청
4	정충 바이어식품 산업단지 내 비즈니스 커뮤니티센터 건립	창릉군지자체
5	자율주행 로봇 개발을 위한 법적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
6	소규모 핀테크 창업기업의 전자금융업 등록자본금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7	고부가가치 소형제품 제조기업 대상 국가산업단지 분양 최소면적 완화	양산시 지자체
8	중소기업 지원사업 내 인증서 및 임상실험비 지원 추가	원주시 지자체
9	중소기업 공장건축 애로해소 및 투자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	법제처
10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규정강화 및 환경친화적 선박지원 체계 개선	해양수산부

6) 중소기업정보제공(기업나라)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영·기술 트렌드, 우수 성공사례,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의 정보를 담은 월간 「기업나라」를 1979년부터 발간하고 있다.

『기업나라』는 최신 산업동향 및 이슈 관련 중소벤처기업 사례를 심층 취재하는 〈특집〉, 〈기획〉코너와 〈People & Company〉, 〈Global〉, 〈Trend & Solution〉, 〈Culture & Sense〉 등 4가지의 카테고리의 기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원정책 및 규제개선 사례를 소개하는 코너와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홍보하는 코너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매월 1일 발간되는 『기업나라』는 중소벤처기업 경영자 및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회비 납부방식의 정기구독 회원제로 운영된다. 연간 회원에게는 창간보다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주요기사를 엄선해 이메일 뉴스레터를 발송하여 정기구독 회원에 대한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시중 서점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판매를 진행했으며, 인터넷 웹진(nam.kosmes.or.kr)을 통해 주요기사를 제공하는 등 정보 접근성을 제고했다.

온라인 정보제공 확산을 통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네이버 '포스트'에 『기업나라』 콘텐츠를 서비스함으로써 모바일 환경에서도 주요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일반 대중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한국ABC협회에 부수인증 대체로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발행부수에 대한 검증을 받아 정기간행물로서의 대외신뢰성을 높였다.

2020년 독자 모니터링단 설문을 통해 『기업나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척도 기준 4.33점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특히 '성공사례'와 '경영트렌드', '특집기사' 관련 기사에 대한 독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3

향후 추진방향

2021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①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촉진, ②현장 중심 서비스 전달체계 구현, ③공공성 강화로 사회적 가치 실현, ④경영혁신으로 국민 신뢰 제고를 중점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정부정책을 최일선 현장에서 수행하는 윈스톱 종합지원 기관으로서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한국판 뉴딜 성과장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1) 정책자금 투·융자

가)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 성장동력 확보

(**中企 생산업무 디지털화**) 자동화 생산설비, 원격 근무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비대면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자금 8,000억원을 공급한다. 또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지원 등을 위해 디지털 분야 전용자금인 제조현장스마트화 자금의 지원 규모를 확대(5,000억원→6,000억원, 1,000억원↑)한다.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그린기술 사업화, 환경·저탄소 생산설비 도입,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시설도입 등의 비용 지원을 위해 Net-Zero 유망기업 지원자금을 신규로 공급(200억)한다. 뿐만 아니라, 환경산업, 녹색기술 인증기업, 그린뉴딜 관련 품목 등 그린 분야에 정책자금 5,800억원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주력산업 및 규제자유특구 대상기업 지원**) 지역주력산업(48개) 영위 기업 또는 규제자유특구(24개) 기업을 대상으로 5,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방중기청을 중심으로 지자체·지역혁신기관이 협력하여 지역별 대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관련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나) 수요자 중심의 정책자금 운용

(관계형 금융 도입 및 비대면 지원체계 구축)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공공데이터(재무, 고용, 수출 등)를 활용한 비대면 서류 심사로 정책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AI 비대면 평가를 도입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정책자금 접근성을 증대한다. 아울러, 고객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상담부터 대출 약장까지 디지털·비대면 방식으로 전환(AI기반 챗봇으로 상담 → 모바일 브랜치를 이용한 신청 → 비대면 평가 → 전자약정)할 계획이다.

(유동성 공급 확대 및 용자상환기준 완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 기조에 따라 유동성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확대 공급('20년 당초 1,000억원 → '21년 5,000억원, 4,000억원!)하며, 자금조달 취약기업의 정책자금 활용기회 확대 및 대출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용자상환기준을 완화(코로나19 피해 특별 만기연장 1년, 상환유예 9개월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 예산을 확대('20년 600억원 → '21년 800억원, 200억원!)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서비스를 적용하여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는 대출금 만기연장시 가산금리를 미적용하는 등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2) 수출지원 및 글로벌화

가) 수출기업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수요자 중심 자금지원) 내수기업 수출사업화 및 수출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예산을 확대('20년 당초 2,000억원 → '21년 5,000억원, 3,000억원!)하여 새로운 수출동력을 확보하고,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기업화 촉진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자금 수요를 고려하여 소재·부품·장비 수출기업(1,500억원), 수출다각화기업(500억원), 디지털수출기업(300억원), 브랜드K 인증기업(200억원) 등을 위한 전용자금도 운영할 예정이다.

(수출바우처사업 내실화) 수출의 핵심지원사업인 수출바우처 사업 내 혁신성장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관리체계 고도화 통해 사업 내실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4차 산업분야, K-바이오기업 등 혁신성장분야 영위업종을 중점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견인함과 동시에 위험관리시스템, 서비스 후기 등록제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운영제도 보완으로 수행서비스 품질 및 고객만족도를 제고한다.

나) 국·내외 온 오프라인 수출지원을 통한 성과 창출

(온오프라인 수출지원) 기업 니즈에 따른 온오프라인(O2O) 융합방식(On: 고비즈코리아, 브랜드K 플랫폼 스토어 + Off: 수출바우처, 수출III 등)의 수출지원(1,704억원)을 통해 수출 성과창출을 극대화 한다. 또한, 지역주력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원지화 지원(바이오헬스 제품원지와 등) 및 특성화사업(글로벌 유통망 입점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수출 활성화) 온라인수출플랫폼(고비즈코리아)을 활용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해외바이어와 국내기업 간 자동 매칭 및 온라인전시회를 통한 상품 홍보 등의 서비스를 2,000개사에게 제공한다. 특히, 북미·중국 등 선진시장에는 아마존, 이베이, 알리바바(티볼) 등 글로벌 플랫폼 입점을 통해 제품 관측을 강화하고, 러시아·터키 등 신흥지역에는 현지 유력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온라인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온라인 수출성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3) 인력양성

가) 혁신성장 선도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취업 지원 강화

(신산업 및 소·부·장 분야 교육 강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中企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소·부·장 분야(2개), 인공지능(AI) 분야(3개) 계약학과를 신설한다. 또한, 신산업분야(스마트공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스마트물류, 인공지능 등) 교육 확대를 위해 기업·학교 수요를 반영한 공동 교재를 개발하여 스마트공장 거점학교 등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디지털 취업매칭) 채용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 기반 AI 면접시스템(15만개의 면접질문 DB)을 활용하여 구직자 및 구인기업의 비용·시간을 절감하고, 면접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부족을 해소한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 취업컨설팅을 통해 구직자를 발굴하고 테마별 온택트 채용박람회 운영으로 구직자·구인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매칭의 장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 중심의 일자리 지원을 중년·신중년으로 확대 운영하여 출 연령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산업·스마트러닝 중심 디지털 및 지역혁신인재 양성) D.N.A(Data, Network, AI) 중심 스마트인재를 양성(12,000명)하고, 규제자유특구별 교육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수 운영으로 지역혁신인재를 양성(500명)한다. 아울러, 최신 기술 경영 트렌드를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모바일 마이크로러닝(20년 180개→21년 300개) 콘텐츠 및 신산업 중심의 신규 이러닝 콘텐츠(5개 분야, 15개 과정)를 확대 할 계획이다.

나) 근로자 복지 향상 및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확산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기업납입금 지원을 위한 공기업, 대기업 및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 위탁 판매기관 및 수행기관 추가를 통한 외부 가입창구 확대 등으로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활성화하여, 대·중소벤처기업 간 임금격차 축소와 핵심인력 고용유지를 권인한다. 또한, 내일채움공제기금 운용 수익의 일부를 근로자 교육 복지서비스(연수원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직무교육, 온라인복지몰, 단체상해보험 등)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근로여건 향상을 지원한다.

(성과공유기업 확산)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에 정책자금(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청자격 부여하고, 정부지원사업(일자리)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성과공유 인지도 제고와 도입 유도를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전파 등을 통해 사업주-근로자 간 성과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다)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때키지형 창업사업화 지원) 청년창업활성화라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설립목적과 중진공 강점을 고려하여, 창업취약분야인 "청년"과 "제조융복합 창업"을 중심으로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을 차별화 한다. 또한, 지역균형 뉴딜 선도를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별 지역주력산업 선발비중을 확대('20년 41.5% → '21년 54.4%)하고, 청년창업기업이 지역형 예비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Scale-Up 후속 연계지원을 제공한다.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지원 분야를 인공지능(AI)에서 D.N.A(Data, Network, AI)분야로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해외거점 온라인 코칭을 확대하고, 글로벌 플랫폼(UN 세계 식량계획 등 국제기구, 슬러시 등 세계 유명 스타트업 컨퍼런스 등)을 활용하여 글로벌 성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2장

기술보증기금

1

일반현황

기술보증기금은 1989년 설립 이후 기술성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술중소기업에 약 303조 원의 기술보증을 공급하여 기술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술금을 활성화를 선도하였다. 특히, 기업의 기술혁신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전문성 있는 기술평가를 통해 지원하는 체계를 확립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대학·연구소가 보유한 기술과 중소기업 수요기술 매칭·이전 지원, 기술 선탁, 기술입지, 지식재산공제 등의 기술보호사업,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기술 혁신형 기업 발굴 및 지원 확대, 투자시장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직접투자 등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술금융 종합지원 체계 기반을 구축해오고 있다.

앞으로 기술보증기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에 발맞춘 전담 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창업에서 도약, 성장에 이르기까지 성장단계별 지원제도의 강화, 예비 유니콘 기업의 지속적 육성을 통해 벤처 4대강국 실현을 견인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 세계적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ESG 경영 실천을 위해, 금융기관 최초 탄소가치평가모델 기반의 녹색보증 신설, 소셜벤처 육성, 지역균형 뉴딜 지원 등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는 환경·사회적 책임과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 노력을 통하여 기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기술보증

1) 총보증지원

기술보증기금은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 금융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기술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공적 보증기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20년 기술보증기금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보증제도 혁신을 통한 신속한 지원 및 피해기업지원 전용상품 신설하여, 총 신규보증 7.8조 원 중 3.7조 원을 신규 지원하였으며 만기도래되는 기존보증 17.6조 원 중 16.8조 원(95.3%)을 연장하는 등 코로나19 위기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중점지원분야인 혁신성장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지원 타당성이 높은 기업 위주로 기술보증지원을 집중하여 총 25.4조 원의 보증을 공급하였으며, 보증 잔액 규모는 선제적인 보증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년 대비 3.4조 원 증가한 25.7조 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였다.

표 N-2-1-1 | 연도별 보증지원 실적

(단위 : 억 원, %)

구분	2018년	비중	2019년	비중	2020년	비중
	총보증공급	224,798	100.0	220,020	100.0	254,398
기술경기보증	219,613	97.7	215,415	97.9	250,683	98.5
기술혁신기업	217,157	96.6	213,037	96.8	247,984	97.5
지식문화산업	40,825	18.2	41,827	19.0	50,290	19.8
혁신성장산업	48,000	21.8	54,852	24.9	82,191	32.3
수출중소기업	27,200	12.1	31,467	14.3	37,121	14.6
청년창업기업	18,261	7.2	18,683	7.6	17,157	6.7
R&D보증	53,138	23.6	55,486	25.2	61,021	24.0
유동회회시보증	1,662	0.7	1,559	0.7	1,064	0.4
총보증잔액	224,426	-	221,122	-	257,045	-

2) 기술혁신기업 등에 대한 기술보증 지원체계 강화

기술보증기금은 선별과 집중을 통해 국가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난 기술혁신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에 보증지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① 기술혁신기업 보증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2020년도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보증자원은 24조 7,984억 원으로, 총보증공급 대비 지원비중은 2019년 96.8%보다 0.7%p 상승한 97.5%로 기술혁신기업에 지속적으로 지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② 청년창업기업 보증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업문화 확산 등으로 국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기술사업평가등급별 보증한도, 보증비율 및 보증료 우대하는 등 보증지원 강화 노력으로, 2018년에는 1조 6,261억 원, 2019년에는 1조 6,683억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1조 7,157억 원을 지원하는 등 규모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3) 코로나19 위기대응과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선도형 경제 전환

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기술보증기금은 코로나19 특례보증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코로나 불품제조·서비스 기업에 총 2조 3,80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창업·벤처기업 코로나 특례보증을 통해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과 고용유지 지원에 4,000억 원, 자동차 부품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고용 위기 극복지원을 위한 자동차 상생 협약보증을 통해 3,150억 원을 지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피해가 가장 큰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속 전액보증을 3,000억 원, 기업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금리 1%대의 초저금리 협약보증을 3,576억 원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총 3.7조 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하였다.

②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보증

기술보증기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해 비대면·디지털분야 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우대보증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여 2020년 총 1조 1,311억 원을 신규로 지원하였으며, 정부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제조·서비스 보증 6,176억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정부의 2050 탄소중립선언에 따라 탈탄소 경제전환 및 한국판 뉴딜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또는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녹색보증 1,513억 원을 신규 지원하였으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는 소셜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을 운영하여 2020년 1,239억 원을 신규 지원하였다.

4)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성장기업 등 선제적 지원

① 혁신성장분야 지원 프로그램으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

기술보증기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산업 구조의 변화에 맞맞추어 미래 주력 산업인 新성장 분야 육성을 위한 선제적인 지원방안으로, 4차 산업혁명 영위기업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인더스트리 4.0 FIRST보증)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2020년 3,944개 기업에 16,02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정부 6대 핵심 신산업 분야인 D.N.A+ BIG3²⁹⁾ 분야에는 2020년 총 2,094개 기업에 9,820억 원을 증점 지원하였다.

또한, 스마트공장 투자기업 및 제조혁신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기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공장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176억 원의 보증을 지원하였을 뿐 아니라 신청기업이 정부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② 대학·연구소 창업지원을 위한 Tech-Valley 지원시스템 강화

기술보증기금은 대학 및 연구소에서 개발한 우수기술을 사업화하여 'Made in Korea' 신화를 재현하고 新경제 성장 동력 창출과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수단계에

29) D.N.A.+BIG3: Data, Network, AI, 시스템인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우수기술 사업화 플랫폼인 Tech 벨리를 구축하였다. 금융기관 최초로 5개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KAIST, 포항공대)과 협약 체결 후 77개 창업선도대학과 U-Tech 벨리 협약을 추가로 체결하였고, 19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R-Tech 벨리 구축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3개 대기업과 M-Tech 벨리 협약을 구축하여 2020년 총 119개 기업에 2,334억 원을 신규 지원하였다.

표 N-2-1-2 | TECH 벨리 보증지원 현황

(단위: 개, 억 원)

구분	2016년		2019년		2020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TECH벨리 보증	95	1,736	105	1,945	119	2,334

③ 기술독립 실현을 위한 혁신기업 육성

기술보증기금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자립을 선도하고 관련 산업의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기업 특례보증을 도입하였다. 2020년 467개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기업에 2,874억 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하여 대외의존 기술의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5) 기술금융을 통한 일자리 창출기업지원 확대 및 창업문화 조성

① 기업의 고용환경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술보증기금은 워드(with) 코로나 시대에 일자리 창출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일자리창출 기업 선정요건을 완화하여 우대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고용환경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프로그램인 '굿잡(Good Job) 보증' 제도를 운용하였다. 굿잡 보증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 유형별 특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에 위기를 맞은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헤어탕샷 지원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고용취기지역 지원을 강화하여 '더 많은 일자리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표 N-2-1-3 | 굿잡(Good-Job)보증 신규보증 지원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굿잡보증 신규보증 지원 실적	8,935	10,218	20,101
총보증공급 대비 비중	4.0	4.6	7.8

② 성장 순주기에 걸친 창업기업 지원으로 창업생태계 활성화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창업완성회를 통한 미래 성장 기반 조성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스타트업에 대해 예비창업부터 창업 후기까지 단계별 우대 제도를 적용하여 지원확대 노력중이다. 이밖에 창업유형에 따라 지식문화창업, 이공계발전지창업, 기술경력·뿌리창업, 첨단·성장연계창업 등 4대 창업 육성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지원하는 '맞춤형 창업성장 보증'을 통해 10,406개 창업 기업에 2조 8,022억 원 신규보증 지원하여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였다.

③ 다양한 창업기업 지원으로 도전적 창업문화 확산

기술보증기금은 청년들의 도전적 창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청년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창업가들의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우수기술을 보유한 高기술인력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마이스터 창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술경험이 풍부한 중장년 기술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창업지원을 통해 창업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은 2018년 이후 지원하는 신규보증에는 연대보증 전면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단계별로 연대보증을 면제해 나갈 계획으로 경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수기술만으로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기술평가

1) 기술평가 개요

기술평가는 무형의 기술에 대하여 그 기술의 미래가치 중심으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금액, 등급, 평점,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이다.

표 N-2-1-4 | 기술평가의 범위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의 개요 국내의 기술동향 기술개발환경 기술수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규모 및 특성 동업계 현황 시장수요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출전망 가격과 품질경쟁력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

기술평가는 평가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타당성평가, 종합 기술평가 등으로 구분된다.

표 N-2-1-5 | 기술평가의 종류

구분	상세 내용
기술가치평가	기술에 의하여 현재 시현되고 있거나 잠재에 시현될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금액으로 표시
기술사업타당성평가	기업이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신규로 사업화하거나 현재 추진중인 기술 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기술성 및 사업타당성을 등급으로 평가
종합기술평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술을 경영환경, 사업전망 등 기업의 실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2) 기술평가 조직·인력

기술평가의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2020년 말 현재 중앙기술평가원 1개, 기술혁신센터 8개, 기술평가센터 60개를 설치함으로써 특화된 기술평가·금융 영업망을 확보하였다.

표 N-2-1-6 | 기술평가 운용 조직체계

구분	역할	주요 업무
중앙평가원 (1개)	고도로 전문화된 핵심 평가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난이도 및 프로젝트성 기술가치평가 코스닥·코넥스 시장 상장을 위한 전문평가 기술평가 품질관리
기술혁신센터 (8개)	전문기술평가 및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에 특화된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정책사업용 평가 전문기술평가(R&D 기획컨설팅 등) 정부 정책연계 IP평가(IP평가보증, IP인수보증 등) 기술거래·M&A 사업화 지원
기술평가센터 (60개)	보급용 기술평가 중심위 청원화된 기술평가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평가보증 청원화된 IP평가보증, R&D보증 등 벤처이노비즈기업 선정을 평가 기술평가인증 등 기타 기술사업타당성 평가

한편, 기술평가 전반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습득하고 평가실무를 통해 일정자격과 평가역량을 갖춘 기술평가 전담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확대하고 있다.

표 N-2-1-7 | 기술평가 인력현황

(단위 :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기금 전체	1,304	1,362	1,403
기술평가전담 인력*	662	688	750
박사급 인력	239	257	269

* 기술평가 전담인력 - 박사급인력, 전문직 직급 부여자, 본질 기술평가부서 근무자, 중임평가원 근무자, 기술평가팀 소속자, 기술평가사 5급이상 자격자

또한, 자체 보유 평가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학·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자문위원 Pool을 구성·활용함으로써 신속하고 신뢰도 높은 기술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3) 新기술평가시스템(AIRATE)

기술보증기금은 재무위주의 신용평가모형으로는 선별·지원이 어려운 무형의 기술·지식 등에 대하여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평가, 등급화하는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기술평가시스템인 'KTRS(KiTx) Technology Rating System'를 개발하여 2005년 7월 기금 업무에 도입하였다.

2005년 7월 기술평가시스템을 업무에 적용한 이래 수차례 개선하였고, 2020년 6월 대내외의 니즈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속저한 33만 여건의 방대한 기술평가 데이터를 분석하여 금융지원 평가모형 최초로 전문가 의견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新기술평가시스템 AIRATE를 개발하였다.

기술보증기금은 AIRATE를 평가목적 및 용도에 따라 표준모형, 정책표준모형, 독립정책모형으로 구분하여 표준모형 기반 모형체제로 개편하였다. 모형체제를 수직 체계화시킴으로써 모형을 간소화하였고, 12종 46개 세부모형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기술금융 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4) 기술평가사업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성과

① AI기반 특허평가시스템(KPAS)을 통한 IP금융의 프런티어 역할 수행

2006년부터 지식재산(IP) 기반의 선진형 기술금융인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 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 등을 국내에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술보증기금은 2013년 8월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지식재산(IP) 평가보증」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기술중소기업이 보유(또는 인수)한 우수지식재산의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지원하는 차별화된 보증지원 제도를 통해 IP금융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AI기반의 '특허등급평가시스템(KPAS-I)' 및 '특허가치평가시스템(KPAS-II)'을 개발 및 관련 제도 도입하여 IP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총공급 기준으로 KPAS-I 기반의 'IP등급보증'을 통해 3,167억 원을 지원하였고 KPAS-II를 기반으로 한 'IP에스트보증' 및 'IP벤처특별보증'을 통해 1,193억 원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기술보증기금은 AI기반 특허평가시스템 외에도 특허청, 과기정통부, 시중은행 등 유관기관과 공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우수 기술기업의 금융조달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있으며, IP금융지원 실적을 큰 폭으로 향상시키는 등 국내 IP금융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표 N-2-1-8 | 지식재산(IP) 관련 보증지원 실적

(단위 : 건, 억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IP보증 총공급	4,514	9,383	6,533	13,225	7,254	14,864
IP가치보증	3,344	7,774	3,985	8,853	4,288	9,387
IP등급보증	-	-	977	2,366	1,151	3,167
IP인수보증	1,170	1,589	1,571	1,975	1,815	2,310

* IP등급보증 : '19년 2월 신설

②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R&D종합지원 강화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를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R&D과제를 선별하여 사업화 과정 전주기를 지원하는 「R&D보증」을 2008년부터 도입하여 단계별 맞춤형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정부 지원만으로는 부족한 R&D 자금을 보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2019년 8월, 기술보증기금은 중기부와 R&D 성공기업 사업화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R&D전담은행(기업은행, 하나은행) 대출상환과 연계한 보증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2020년 7월, 산업부와의 R&D 성공과제 사업화 연계지원 협약보증을 추가로 도입하는 등 정부 R&D과제 성공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였다.

중소기업 R&D 종합지원을 위한 제도 구축 등에 힘입어 2020년, 기술보증기금은 총공급금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한 6조 1,021억 원 지원 실적을 달성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R&D 종합지원 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N-2-1-9 | R&D 보증공급 실적

(단위 : 건, 억 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R&D보증 총공급	20,073	53,138	22,330	55,456	23,117	61,021
개별인계	10,757	15,467	11,220	15,446	10,914	14,573
사업과인계	9,316	37,671	11,110	40,010	12,203	46,448

③ 일본 수출규제 위기에 대응하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발굴

기술보증기금은 2019년 9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금융뿐만 아니라 비금융 영역으로 중소기업 R&D사업화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기술보증기금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소기업 전담관리 기관으로서 「강소기업 100 선정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우수한 평가 인프라를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 역량을 발휘하여, 2019년 국가대표 강소기업 54개사를 발굴한 데 이어 2020년에 추가 46개사를 발굴하고, 전문가와 국민 참여, 기관 간 협력 방식의 신사업 모델을 정립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④ 녹색인증평가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

기술보증기금은 정부의 대표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인 녹색인증 평가사업에 금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참여 중으로 2020년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기술인증 142건, 녹색제품확인 350건, 녹색기업확인 4건 등 496건을 평가하였다.

이는 전체 녹색인증평가 963건 대비 51.5%로, 11개 평가기관 중 가장 높은 평가 실적으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인증평가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전파하여 정책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N-2-1-10 | 녹색인증 신규평가건수

(단위: 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녹색인증 신규평가	238	385	490

다. 기술거래보호

1) 기술거래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의 수요정보와 공급정보를 한곳에 모아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온라인 기술유통 플랫폼인 Tech-Bridge를 구축하고 이를 전담하는 기술혁신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공공연 공급기술 약 39만 건과 매년 1,500건 이상의 수요기술을 발굴하여 기업, 연구기관, 기술거래기관 등의 시장 참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기술수요와 공급기술을 자동매칭하여 기술을 추천하는 KTMS(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를 통해 기술이전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표 N-2-1-11 | 기술거래 및 IP인수보증 실적

(단위: 건, 억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기술수요발굴	1,411	1,415	1,490	1,559	1,542	1,537
기술이전계약	262	534	528	563	619	721
이전된 기술	456	716	725	737	856	900
IP인수보증(신규)	247	414	606	593	641	613

2) 기술보호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신탁관리, 증거지킴이(TTRS), 기술지킴이(기술임치제도)를 일괄 수행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기술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표 N-2-1-12 | 기술보호 시스템

구분	주요 내용
기술신탁관리	중소기업 기술이 상당한 대가를 지불받고 이전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이 신탁받아 관리 보호하고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제도
증거지킴이 (TTRS*)	중소기업이 사업제인,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유통 및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해 신박성 있는 제3의 기관인 기보에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
기술지킴이 (기술임치제도)	기업의 기술 경영상 핵심 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대비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인 기보에 비밀을 보관하고, 기술 유출이 발생할 경우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

* TTRS(Technology data Transaction record Registration System): 기술거래기록 등록시스템

라. 지식재산공제

1) 지식재산공제제도

지식재산공제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적립한 부금을 재원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및 해외출원 시 발생한 비용을 대출하여 상호 부조하는 제도로, 가입기업이 납입한 월별부금은 입점 이율로 적립되고 적립된 원리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일시 환급된다.

가입기업은 해외출원, 국내외 심판·소송 등 발생 시 해당 비용의 5배 내에서 지식재산비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금정착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부금납부 합계액의 90% 이내에서 1년 이내 상환을 조건으로 경영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공제제도 가입기업에게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사업화, 세무, 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료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지식재산공제제도 가입기업 수는 5,162개이며, 수납부금의 잔고는 331억 원이다.

표 N-2-1-13 | 지식재산공제제도 가입현황

(단위 : 개, 억 원)

구분	2011년		2012년		총계 (2,012)
	개	신규(개)	개	신규(개)	
가입기업 수	1,409	4,016	263	3,753	5,162
수입부금	26.7	317.7	13.4	304.3	331.0

마. 벤처혁신지원

1) 보증연계투자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창업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1월부터 보증연계투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증연계투자는 기술보증과 연계하여 기술보증기금이 직접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2년 3월 기술보증기금법 개정(12.6월 시행)으로 보증연계투자가 기술보증기금의 고유 업무로 법제화되었다.

특히, 기술보증기금은 기관투자 유치 경험이 없는 창업초기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중소기업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인증(또는 신호) 효과를 제공하여 민간의 후속투자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보증융자 등 간접금융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투자 중심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연계투자 사업의 단계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표 N-2-1-14 | 보증연계투자 주요내용

구분	내용
투자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투자대상기업	<p>아래 각 요건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 설립후 5년 이내의 창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R&D 및 신성장산업 영위기업은 설립 후 5년 초과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 기술보증기업 또는 보증승인기업 투자용 기술평가등급 T5등급 이상의 우수기술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투자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투자와 보증의 통합한도가 6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술평가등급 T4등급 이상 법상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
기업당 투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당 투자한도는 30억 원, 통합한도(보증+투자)는 100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투자금액은 기보가 해당기업에 보증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기술보증기금은 2005년 투자제도 시행 이후 2020년까지 345개 기업에 3,354억 원을 투자하여 27개 기업이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어, 12.53%의 누적 투자수익률을 실현하였다.

표 N-2-1-15 | 보증연계투자 투자실적 및 투자수익

(단위 : 개, 억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누계(20년 이후)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투자실적	34	283	33	259	52	255	345	3,354
투자수익	▲25		259		▲18		420	

2) 보증·투자결합 금융지원

기술보증기금은 투자 수단계에 걸쳐 투자와 결합된 연계형 보증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시장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흡수하는 투자 중심의 금융정책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민간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성장자금 후속 지원으로 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고 있다.

표 N-2-1-16 | 주요 투자연계보증 개요

구분	연계투자 연계보증	벤처투자 연계보증	VC투자대상 특약보증	에어유니콘 특약보증
개요	연계투자를 유치한 창업 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위해 연계투자 유치금액의 2배까지 특별보증 지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투자유치기업의 R&D 및 사업화 자금 지원	VC가 대규모 투자를 수행할 때 동시에 유사 규모의 보증금 기업에 지원하여 대형투자 건인	혁신성·성장성·시장 검증 요건을 갖춘 예비유니콘 기업을 발굴하여 미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지원
보증대상	엔젤파트너스* 추천 연계투자 유치기업	벤처투자(혁신모험펀드 포함) 유치기업	기보VC파트너스** 추천 벤처투자 유치기업	벤처투자 유치기업
업적	7년 미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보증한도	30억 원	30억 원	50억 원	100억 원
보증금액 산정특례	3억 원까지 산정특례 (연계투자금액의 2배 이내)	10억 원까지 산정특례 (투자유치금액 또는 추정매출액의 1/2)	20억 원까지 산정특례 (투자유치금액 또는 추정매출액의 1/2)	30억 원까지 산정특례 (투자유치금액 또는 추정매출액의 1/2)

*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전문개인투자자의 창업기업자(엑셀리더미터) 중 기보가 선정(139개사)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 벤처캐피탈(VC) 중 기보가 선정(61개사)

3) 기보벤처캠프

기보벤처캠프는 기술보증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평가 인프라를 활용하여 민간 액셀러레이터 및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등 민간과 협업을 통해 될성부른 신생벤처를 집중하여 보육하고 지원함으로써 성공창업을 견인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2020년 전국적으로 총 852개 기업이 신청하였으며, 1차 서류평가, 2차 PT평가를 통해 최종 103개 기업을 참여기업으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참여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종합지원을 위해 민간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금융기관 등과 MOU를 체결하여 민간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체계를 구축하였다.

4) 기보벤처창업교실

기보벤처창업교실은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전략, 마케팅, 지식재산권 등의 체계적인 기술창업 실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창업분위기 조성을 통한 창업촉진과 창업 관심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표 N-2-1-17 기보벤처창업교실 추진현황

(단위 : 회,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횟수	2	2	2	2	2	3
수료자	194	128	143	152	113	153

제3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일반현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전의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2014년 1월 1일 출범하였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신설되었다.

주요 기능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협업·조직화 지원, 전통시장별 특색에 맞는 시설 및 경영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창업 및 경영정보 제공, 소상공인·전통시장 현황조사 및 정책연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및 용자지원 등이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소상공인 창업지원

소상공인 창업지원은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멘토링 및 사업화 자금 지원(보조 및 융자), 상권정보 제공 등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여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6년에 창업교육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한 이후 종합적인 교육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소상공인사관학교'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신사업 육성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신사업창업사관학교로 변경함으로써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하도록 개편하였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소상공인이 신사업 아이템 등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 유망 영역 등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창업·실습교육, 점포경영체험, 멘토링, 사업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창업프로그램이다.

설립 이후 2015~2020년간 총 2,170명의 교육생을 선발하였고 창업교육, 점포경영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2020년 12월말 기준 1,437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2020년 기준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 등 전국 12개 광역시·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 소상공인 전용교육장 등에서 150시간 내외의 창업교육을 제공하였다. 창업교육 이수 후에는 12개 지역의 18개 체험점포에서 약 4개월 간 사업모델 검증 및 고객 응대, 재고 관리, 서비스·마케팅, 홍보 역량 함양 등 실전 창업과 같은 점포경영 실습교육과 분야별 전담 멘토링을 지원하였다.

한편, 창업교육과 키포경영 실습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졸업생 중에 우수 교육생을 별도로 심사·선발하여 본격적인 창업에 소요되는 사업화 보조금을 최대 2천만원 한도(개인부담 50%)로 지원하였다.

표 IV-3-1-1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전국 체임퍼포 현황(2012년 기준)

지역	점포명	주소
서울	대학로점	종로구 대학로 149, 유니로드 1층
	충남점	충남구 숙선동주로 6-9, 목동자이아파트상가
	영동점	중구 퇴계로 108, 세대빌딩 1층
	드림스퀘어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대시앙루브 7층
부산	범일점	동구 자성로 33번길 10, 천일빌딩 1-2층
대구	범어점	수성구 달구벌대로 2496, 범어골드타워 1층
	두류점	달서구 달구벌대로 1734, 두류동빌딩 1층
광주	상무지구 1호점	서구 상무중앙로 84, 상무트윈스빌딩 1층
	상무지구 2호점	서구 상무중앙로 24, 겸사타워 1층
경기	신동점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66, 더핀타지움 1층
대전	둔산 1호점	서구 둔산로 50, 아이빌딩 1층
	유성점	유성구 대학교 88, 군동482-2
인천	부평점	부평구 부평대로 293, 121-125, 127-131호
전북	전주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39-5
경남	창원점	창원시 의창구 대림동 121, 1층(117호, 122호)
울산	울산점	북구 진량유동로 90,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층
전남	순천점	전남 순천시 역전장길 14 2-3층
충북	청주점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62번지 1층

2)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고급기술이 필요 없는 생활분야 틈새시장의 생활혁신형 창업을 촉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생계형 업종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청년 일자리 대책(18년 3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신설되었다.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생활혁신형 창업자를 발굴·멘토링하고, 성공보증자(최대 2천만 원) 지원 후, 성실 경영 실패 시 부분 상환면제로 예비창업자의 창업에 대한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창업프로그램이다.

2020년에는 총 2,536명이 지원하여 889명이 선정되었으며, 737명이 창업(사업자 등록)을 완료해 성공불 용자를 지원받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스앤그르서리(18년 선정자, 경기 구리시) 과채주스 시장에서 후발주자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제품대비 차별화된 패키지 구성과 온라인 마케팅 집중 등으로 사업 확장, 18년 선정 당시 1인 사업체에서 20년 말 기준 11명 고용인원 창출 	
---	--	--

3)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2018년에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소상공인 지식매우터) 개편에 착수하여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PC 및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소상공인이 인터넷을 통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소상공인 상시 교육 프로그램(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창업·성장·재기'의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업종별 직무 기술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하여 진포를 비우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창업·경영 역량 강화 및 경영안정화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이다.

2020년에는 48개 과정의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였고 204,778명이 교육을 수료(수료 교육과정 기준)하였으며, 평균 93.2%의 만족도를 달성하였다.

4) 상권정보시스템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업종별 상권정보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200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19년 '소상공인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창업과정의 어려운 일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입지선정이 54.9점, 업종선택이 40.3점으로 관련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수집·분석이 어려운 상권정보를 16개 기관과 협업을 통해 상권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상권정보시스템은 인터넷 전자지도를 기반으로 특정지역·업종에 대한 11종의 상권정보를 제공하는 상권분석서비스, 특정 점포의 개·폐업 이력을 알려주는 점포 이력서비스와 같은 현황정보와 특정위치·업종의 투자비 회수를 위한 목표매출 및 고객수, 유사한 입지·업종의 매출정보를 알려주는 수익분석서비스와 업소별 경쟁 영역 내 거래건수를 기반으로 경쟁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경쟁분석서비스 등의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 | 상권정보시스템 주요서비스



창업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권정보·서비스를 개발함에 따라 2006년 7월 개시 당시 월평균 10,185건에 불과하던 이용실적이 2019년 140만 건, 2020년 161만 건으로 최근 5년간 평균 14.9% 상승하였다.

표 N-3-1-2 |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실적 추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용실적 (월평균)	897,315 (74,776)	1,090,586 (90,882)	1,253,568 (104,465)	1,400,103 (116,675)	1,605,559 (133,797)
증가율	9.6%	21.5%	14.9%	11.6%	14.7%

* 이용건수 증가율 : (당해건수-전년건수)/전년건수×100

또한 민·관간 공유정보 확대 및 상가업소 조사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 노력을 통해 상권정보시스템 2020년 이용자의 만족도(5단계제도, '만족이상')는 89.9%로 대다수의 이용자가 만족을 나타냈다.

표 N-3-1-3 |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추이(온라인조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용자 만족도	88.5%	88.7%	89.1%	89.3%	89.5%

2020년에는 편의성 증대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화면으로 개편하고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는 간단 분석 서비스 및 AI기반 매출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공유·수집된 약 240만 건의 상기업소데이터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www.dma.go.kr)에 개방하여 대국민 활용도에 기여하였다.

2021년도에는 매출 예측 분석 및 경영진찰당 분석 서비스 업종 확대와 스트리보드 제작 등 소상공인이 상권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나. 소상공인성장지원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열악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과 경영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별·업종별 전문교육 제공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 역량강화, 협동조합활성화, 니들가게 성과확산, 중소슈퍼 협업화,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육성,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소상공인경영교육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영교육은 업종별 전문기술교육, 경영개선교육, 전용교육장 교육, 끈튼창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까지 총 730,442명에게 교육을 제공하였다.

전문기술교육은 신메뉴 개발,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업종별 고급기술교육을 소상공인이 수강을 희망하는 민간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직접 수강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소상공인이 능동적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영성과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신 경영 및 마케팅 전략 등 경영개선 교육을 개설·운영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등 대면형 집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의 실시간 교육채널(유튜브 포함)을 활용한 실시간·온라인 교육을 도입하였다.

2020년에는 전문기술교육 12,244명, 경영개선교육 2,810명, 전용교육장 1,877명, 튜터창업교육 4,124명 등 총 21,055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온라인 실시간교육의 누적 수강인원은 507,271명에 이른다.

한편, 2020년 소상공인 경영교육 수료생의 88.1%가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참여 후 수료생의 교육역량 향상정도를 조사한 결과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77.7%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상공인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국 주요 권역별로 소상공인 전용 교육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3월부터 대전·서울·광주·부산 등 전국 4개 지역에 개소한데 이어, 2010년에는 대구에 개소하여 현재 총 5개 지역에서 소상공인 전용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 전용교육장은 시·공간적 제약으로 주간에 교육받기 어려운 직장인 및 소외계층(재소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877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2)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영업 정상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표 N-3-1-4 | 소상공인컨설팅 제도 도입 경과

시행시기	내 용
2006년 5월 31일	영세자영업자 종합지원대책에 의하여 시범사업 추진
2005년	소상공인 무료법률지원사업 추진
2006년	자영업 컨설팅사업 추진
2015년	소상공인 역량 Jump-Up프로그램 추진
2018년	소상공인 컨설턴트 등급제 시행

경영 애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 및 홍보, 경영관리, 상품 및 메뉴개발, 세무·노무·특허 등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표 N-3-1-6 |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구분	(단위 : 억원, 건)		
	2015년	2016년	2020년
지원 예산	73	81.8	79.8
소상공인 컨설팅	4,580	5,204	5,302
무료법률구조	479	401	440
역량 강화업 프로그램	464	50	-
합 계	5,523	5,655	5,742

2020년도 중 사업은 소상공인 경영활동 강화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 운영하였다. 전문가의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5,302건과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물품 대금, 상가보증금 및 상가 임대차 등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 무료법률구조 440건을 지원하였다.

표 N-3-1-6 | 연도별 지원성과

구분	(단위 :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매출증가업재비용	63.3	65.1	66.7	68.9	58.2	45.5
매출증가율	7.3	7.4	5.8	10.6	8.7	8.0

3)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나 기업이 모여 협업하는 협동조합 모델이 일자리·지역 균형발전·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보완적 사업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 사업은 개별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개발, 생산, 판매, 공유 등 소규모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화·협업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201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8년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소상공인 간 자율적인 조직화 및 협업을 유도한 후, 공동의 이익 추구를 기반으로 한 사업 인프라 구축과 협업 활성화를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조합원)의 매출 및 수익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는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과는 차별화 된 정책으로,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통해 협업 및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수의 소상공인이 협업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지난 8년(2013년-2020년) 간 총 1,643개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수혜를 받았다. 2020년에는 공동브랜드·네트워크·마케팅·개발 등 공동사업 지원(210개)과 소셜커머스 입점, 지역판매전 개최 등 판로지원(475개)을 하였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안정적 설립, 조합원 간 유대 강화, 조합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10개 지역을 거점으로 소상공인 협업 아카데미를 추진함으로써 협동조합 성장에 필요한 교육적 토대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이 협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표 N-3-1-7 |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단위 : 억원, 개, %)

구분	예산	실적(년/개)		비고
		협업아카데미	판로	
2013년	347	433	-	11.0% 증가
2014년	246	361	17	12.6% 증가
2015년	240	377	116	12.9% 증가
2016년	188	311	117	12.8% 증가
2017년	193	283	124	12.5% 증가
2018년	250	291	300	13.3% 증가
2019년	252	266	406	13.3% 증가
2020년	199	210	475	13.2% 증가

공동사업 지원은 브랜드개발·마케팅·장비·기술개발·네트워크(홈페이지 등) 등의 분야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1-5억 원 한도)의 70-80% 이내를 보조하여 지원하였으며, 일반형, 선도형, 고성장형으로 조합의 성장단계별 유형을 나누고 우수성장 모델 발굴과 규모화에 중점을 두었다.

표 N-3-1-6 | 지역별 소상공인협동조합 창업인프라 구축 지원현황

(단위 : 개)

구분	계	서울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경기	인천	대전 충청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신청	466	51	40	64	69	59	12	46	25	35	39	33
신청	236	17	34	38	23	26	2	22	13	13	16	31
지원	210	14	31	32	22	24	2	21	11	13	13	27

공동사업 우수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명 : 송비협동조합 • 주요상품 : 가정간편식, 즉석식품 • 설립일 : '17.07 • 지원이력 : '17, '18, '20년 공동사업, '19, '20년 판로지원 • 매출액 : '17년 0.44백만원 → '18년 2.32백만원 → '19년 2.53백만원 → '20년 6.93백만원 • 성공요인 : 생산설비 자동화를 통한 원가절감 및 생산효율화, 온·오프라인 판로 확보로 매출 상승세 유지 	
	<p>송비협동조합 매출추이</p>	

조합성장의 기초가 되는 협업교육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전국 2곳에 협업 아카데미를 추가 선정(총 16곳)하고 협업인큐베이팅(조합설립), 협동조합 실무교육, 갈등관리, 협업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인프라를 확충하였고,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로드맵 구축과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교육지원 성과 제고를 위한 지원역량을 한층 강화하였다.

디지털 경제, 언택트 경제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프라인 박람회(7회), O2O(Online to Offline) 연계(우체국 쇼룸), 라이브커머스(7회) 지원을 하였다.

판로지원을 통해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올린 매출액은 74.8억원으로 전년도 매출액(36억원) 대비 108%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유명크리에이터(입짧은헛님, 170만 유튜버)를 활용한 소상공인협동조합 제품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인지도 제고 및 매출 신장을 도모하였다.

향후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업교육, 판로사업 확대 및 사후관리에 주력할 예정이며,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화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도지역
우수사례

- 업체명 : 옥두레향동조합
- 주요상품 : 육류가공식품
- 설립일 : 19.05
- 지원이력 : 20년 전도지원사업
- 매출액 : '19년 67백만원 → '20년 : 약 700백만원
- 성공요인 : 20년 전도지원사업을 통해 최초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였으며, 특별기획전 및 라이브커머스 등에 참여하여, 전년 대비 945% 이상의 높은 매출성장 달성



4) 나들가게 성과확산

'나들가게 사업'은 대기업 편의점 및 SSM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설현대화에 기반한 경쟁력 있는 점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11,730개 골목슈퍼의 나들가게 전환을 지원하였다.

사업 초창기 시설현대화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비대면 소비확산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는 스마트슈퍼 전환 및 나들가게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스마트슈퍼 시범점포 구축'과 '나들가게 선도지역 육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전환한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25개³⁰⁾ 선도지역(26개 기초자치단체)을 선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모델숍 육성, 점포경영개선, 지역특화사업, 조직화 등을 집중 지원하였다. 2020년에는 기존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원사업 졸업지역을 대상으로, '나들가게 선도지역 사후지원'을 운영하면서 기존 나들가게의 사후관리에 집중하고자 POS활용교육 1,000개, 부실징후점포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을 500개 점포에 지원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2020년 나들가게 선도지역 수혜 나들가게의 매출액증가율은 5.7%로, 전체 나들가게(5.2%)에 비해 0.5%p 높게 나타나,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원사업'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0) 2015년 서울 송파구, 경기도 부천시, 충북 제천시, 제주시, 경북 포항시, 강원 영월군
 2016년 서울 금천구, 경기도 안양시, 인천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강원 춘천시
 2017년 서울 동작구, 경기도 시흥시, 광주시 남구, 충남 천안시, 충북 충주시, 전북 김제시·정읍시, 경북 안동시
 경남 김해시, 창원시, 강원 원주시
 2018년 경기도 수원시, 전남 목포시, 광주시 서구

2020년에는 비대면 소비 문화 확산에 따른 나들가게 스마트화를 추진하여, 스마트 슈퍼 시범점포 5개를 구축하였다. 유·무인 병행운영이 가능한 모델로써, 매출 증가(전년 동기 대비 일평균 매출 23.0% 증가) 및 노동시간 감소(일평균 2.4시간 단축)라는 지원성과를 통해 소상공인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하였다. 2021년부터는 동네슈퍼에 스마트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표 N-3-1-9 | 연도별 나들가게 지원실적

(단위 : 개)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개점지원	2,302	3,006	4,704	-	517	232	363	254	183	96	72	11,730
경영지원	-	-	-	1,611	1,607	1,816	734	956	1,200	1,669	1,500	11,283
선도지역	-	-	-	-	-	6	6	10	3	-	-	25

표 N-3-1-10 | 연도별 지역별 나들가게 전환 지원실적

(단위 : 개, %)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합계 개	비율 (%)
서울	341	408	626	64	16	49	35	17	6	9	9	1,507	13.7
부산	135	136	242	24	4	3	4	4	2	7	7	563	4.8
대구	139	216	281	10	10	9	8	3	2	2	2	680	5.8
인천	150	163	278	15	8	14	8	4	2	1	1	638	5.4
광주	92	166	229	31	2	3	5	12	5	3	3	538	4.6
대전	70	76	146	15	9	4	4	2	2	1	1	338	2.8
울산	93	79	103	9	10	7	0	2	1	3	3	310	2.6
세종	2	2	4	-	-	-	1	0	0	0	0	9	0.1
경기	370	603	829	66	47	94	69	62	21	18	18	2,139	18.1
강원	55	147	274	19	12	29	31	11	2	3	3	583	5.0
충청	136	157	233	72	15	20	11	12	4	4	4	664	5.6
충남	113	148	171	25	7	7	3	6	2	0	0	482	4.1
전북	197	199	329	20	10	30	8	7	6	6	6	802	6.8
전남	122	170	237	32	15	19	13	13	13	13	1	605	5.2
경북	167	193	312	46	31	49	24	12	11	4	4	640	7.2
경남	106	137	295	28	24	15	28	25	19	10	10	687	5.9
제주	34	56	112	41	14	11	4	1	0	0	0	272	2.3
전국	2,302	3,006	4,704	617	232	363	254	183	96	72	72	11,730	100

5) 중소슈퍼 협업화

정부는 기 지원된 1만개 나들가게 등 골목슈퍼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소매점포의 가격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중소유통단체 중심의 공동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복잡한 유통단계의 축소와 조직화된 단체의 구매력을 통합함으로써, Buying-power 상승에 따른 원가 절감이 주목적이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지역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주로 운영하는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 역량 강화와 중소유통단체 중심의 공동구매 추진을 위해 배송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2020년 4개 물류센터에 배송시설개선 및 배송인력 등을 지원하여 물류센터의 월평균 매출 17.2%p가 증가하였다.

특히, 2018년에는 중소슈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인본부 구축 및 성장기반을 지원하는 '동네슈퍼 협업화 지원사업'을 도입하였으며, 2020년에는 조직화·체인화를 통한 동네슈퍼 자생력 제고 및 체인사업 추진 역량강화를 위해 상품 공급 능력, 조할 결속력 등이 우수한 지역 슈퍼조합 및 전국단위 연합체를 중심으로 총 6개의 지역 슈퍼마켓협동조합, 1개의 슈퍼마켓연합회에 대해 지원하여 협업점포 매출이 8.03%p 증가하였다.

2020년에는 공동구매 역량강화 및 동네슈퍼의 활력회복을 위하여, '우수 농산물 동네슈퍼 시범 판매전'과 '착한가격 착한슈퍼 동행세일' 등 전국단위 세일 행사를 진행하였다. 농산물 및 공산품의 공동구매를 통하여 산지농가와 동네슈퍼의 판로가 개척되었으며, 총 4회 행사에 7,896개 점포를 참여한 동네슈퍼의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6.6% 증가, 농산물 286톤을 공동구매하였다.

표 N-3-1-11 | 연도별 중소슈퍼 협업화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개)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동네슈퍼 체인화	-	-	578(4)	1,997(11)	1,889(12)	1,168(7)	5,632(34)
배송체계 구축	2,040(11)	2,640(16)	1,872(10)	943(10)	776(8)	355(4)	8,626(60)

6)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

음식업, 숙박업 등 일부 생계형 업종에 편중되어 있어 과당경쟁 및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자원제약을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가 성공창업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직영점 1개와 가맹점 10개 이상을 운영하거나, 가맹점만 20개 이상을 운영하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경영혁신 역량, 가맹점 지원역량, 가맹계약 공정성 등 가맹본부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가맹본부 특성, 계약특성, 가맹점지원, 관계, 시스템성과 등 5개 범주를 평가한다. 이는 가맹점 보호 중심의 평가체제로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맹 본부와 가맹점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생 발전을 지향하는 평가 제도이다. 평가 점수에 따라 가맹본부를 4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등급별 맞춤형 연계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수준평가가 도입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368개 업체를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 하였다. 2020년에는 38개 브랜드에 대한 수준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5개 업체를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하였다.

나)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2020년부터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협력 성과가 우수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상생 협력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진행하였고, 프랜차이즈 체계 구축, 스마트화 및 DB구축, 브랜드 디자인, 마케팅 지원 등의 분야를 지원하여 2020년에는 12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다) 유명 프랜차이즈 지원

창의성·사업성이 뛰어난 소상공인의 가맹본부 전환 및 내실화를 위한 '유명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진행하였고, 프랜차이즈 체계 구축, 브랜드 디자인, IT환경 구축 등의 분야를 지원하여 2020년에는 9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7)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20년 신규 사업으로, 혁신형 소상공인 관리, 혁신 성과확산, 이익공유형 사업화지원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가)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육성

2020년 혁신형 소상공인을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기본정보 및 지원사업 내용 등을 관리하는 DB관리 시스템과 대국민 홈페이지를 개발하였다. 혁신형 소상공인은 백년가계, 백년소공인 외에도 스마트상점·공방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TV 홈쇼핑·T커머스·V커머스 및 국내외쇼핑몰에 입점완료한 디지털마케팅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및 이익공유형 사업 등 네트워크 활용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을 포함한다.

국정과제(소상공인·자영업자 자생력 제고)에 반영되어 20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을 15,000명 발굴·육성하고자 신규 도입된 사업이며, 2020년까지 10,308명 달성하였다.

나) 혁신성과 확산

일반 소상공인과 차별화된 혁신형 소상공인의 노하우 전수 및 성공모델을 확산하여 건강한 소상공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혁신형 소상공인의 브랜드 신뢰도 향상 및 점포의 우수성을 안내할 수 있도록 업체별 스토리개발 지원과, 다점포 출점 지원을 위한 백화점 식당가 입점지원, KTX메거진 송출 및 O2O플랫폼 내 마케팅을 지원하였다.

다) 이익공유형 사업화지원

이익공유형 사업화지원은 성장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과 업체 성공CEO와 매칭을 통해 노하우를 전수하고, 맞춤형 보육을 통해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20년의 예산은 19억원이며, 전국 80곳을 지원하였다. 주요지원내용은 기본교육, 성공CEO 매칭 및 보육(컨설팅), 상품·시설개선, 영상콘텐츠 제작·송출, O2O플랫폼 입점지원, 친환경패키지 보급지원 등으로 사업비는 최대 10백만원(국비100%)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 종료 후 성과가 발생할 시 자율적으로 이익공유하도록 하였으며, 2020년 주요 이익공유 방법은 지역사회환원, 성공CEO와 금전적 분배로 진행하였다.

2021년에는 이익공유방법을 지자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등과 연계한 기부로 추진하여 사회환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8)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유통시장의 온라인화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교육과, O2O플랫폼 입점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이다.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교육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교육·상담을 통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온라인 판매채널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성공적인 온라인 판매를 위한 이론(e러닝)교육을 지원한다. 20년도 지원 목표 5,000명, 실적 18,144명 교육으로 목표 대비 363%를 달성했다.

소상공인 O2O 플랫폼 입점지원 사업은 민간O2O와 공공O2O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민간 O2O란, 공신력 있는 민간 O2O플랫폼사와 공단 간 협약을 맺어 광고비, 배달대행비 등 이용 수수료를 소상공인 대상으로 개별지원 하는 것이다. 20년도 지원 목표 10,000명, 실적 20,850명으로 목표 대비 208%를 달성했다. 공공 O2O지원은 각 지자체의 공공배달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진출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지자체 3곳과 협업하여 진행하였다.

다. 소상공인재기지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이 최소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임금근로자 및 재창업·업종전환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전직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2015년 신규 추진한 사업이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재기를 위해 폐업(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 업종전환·재창업(교육,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5만 여건을 지원했다.

표 N-3-1-12 | 사업 지원내용

폐업 지원	취업 지원	업종전환·재창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정리컨설팅) 일반 세무, 부동산 분야 컨설팅 지원 ▪ (점포철거지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 (법률자문)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차, 신용, 노무, 세무 등에 관한 법률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마인드 변화, 직무탐색 등 지원 ▪ (전직장려수당) 폐업신고후 소상공인의 취업 활동 또는 취업 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유망·특화·융복합 업종으로 전환 및 재창업을 위한 실무교육 ▪ (멘토링) 마케팅, 경영, 세무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업 성공률 제고

폐업 절차 및 신고사항, 자산시절 처분 방법, 사업장 양수도 등 일반, 세무, 부동산 분야에 대한 사업정리컨설팅과 점포철거지원상복구 소요비용(최대 200만원, 부가세 제외)을 지원하였다. 또한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무, 금융,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통해 소상공인의 법적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취업을 위한 마인드 변화, 직업 정보 탐색 등 교육 지원과 폐업신고 후 취업활동 또는 취업할 경우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커피 트렌드, 매장실습, 고객 서비스, 위생관리 등 40대 이상 소상공인의 카페 취재창업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였다.

유망특화·융복합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재창업하는 소상공인에 실무교육 및 업종 전환·재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경영, 마케팅, 세무, 창업 등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특화 아이템 개발, 마케팅, 사업방식 개선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등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표 N-3-1-13 :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사업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실적	지원에산	135	419	1,093*
지원 실적	폐업지원	4,768	13,303	18,809
	취업지원	8,076	18,700	15,495
	업종전환 재창업지원	3,517	6,412	5,929
	제도전질역금추진	-	-	71,284

* 127억 추정모함

2)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보험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7년 국정과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안전망 확충)에 반영되어 2018년에 신규 도입된 사업이다.

2019년에는 지원 대상을 1~4등급까지 확대하고 지원비율도 차등하였으며, 지원 기간도 확대하였다(최대 3년). 2020년도에는 기존 분기별 지원금 지급방식을 월별 지급형태로 변경하여 수혜자만족도 및 대응성을 향상시켰다.

2021년에는 지원대상 확대(1~7등급) 및, 지원기간의 확대(5년)으로 지원기준을 확대하며,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자부담 비율의 정감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라. 소공인특화지원

소공인특화지원사업은 소공인 집적지 내에 소공인특화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업종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공동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집적지 활성화 및 소공인 경쟁력을 제고하는 하는 한편, 개별 소공인들에게는 관련 전시·박람회 참가 등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기술 경쟁력화보와 제품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제품 및 기술개발 및 협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

소공인특화센터 설치·운영사업은 집적지³⁴⁾ 소공인에게 특화된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공인 집적지에 소공인특화센터를 설치·운영(소공인 단체, 지자체 산하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집적지 소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 6개 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2014년 8개 센터, 2015년 24개 센터, 2016년 36개 센터, 2017년 32개 센터, 2018년 34개 센터, 2019년에는 34개, 2020년 34개 센터로 확대 운영하였다. 소공인특화센터 운영을 통해 소공인 상담 및 특화교육,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의 맞춤형 특화사업, 정책서비스 추천 등을 지원하여 소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표 N-3-1-14 |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단위 : 개, 백만원, 명)

사업실적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운영센터수	8	24	36	32	34	34	34
지원예산	2,600	10,400	14,260	12,440	12,405	13,183	16,400
수혜자수	2,233	3,416	4,527	5,614	5,998	5,026	6,386

2020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교육 실시 및 지역 중심의 사업 추진 등 현장 직접 지원과 사업 내실화에 집중하였으며, 2021년에는 업종특성 및 집적지 수요를 반영한 자율사업 운영 확대로 사업 추진의 자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그림 32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우수사례(생남식품제조센터)



34) 동일업종을 집적하는 다수의 업체들이 특정한 공간에 모여 있는 지역을 의미

2)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사업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사업은 2015년 신규사업으로서,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및 집적지구 내 소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장비실, 전시·판매장 등의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17년까지 전국 소공인특화센터 관할지역 중 10개 집적지에 공동 장비실, 공동전시장, 공동창고, 교육실 등을 설치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 광역시·도로부터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신청을 받아 인프라 구축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9개 지방자치단체(광역시, 기초), 2020년까지 13개 지방자치단체(광역시, 기초) 총 30곳의 집적지구가 지정되어 소공인의 공동브랜드 제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공동전시장을 구축하여 판로를 확보하고 바이어 상담, 수출컨설팅 지원을 통해 수출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공인의 제조공정 단축, 공동구매한 재료를 사용한 비용 절감, 정밀장비를 활용한 제품 부가가치 제고 등 소공인의 공정개선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021년에는 신규로 7개 내외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표 N-3-1-15 | 2015년~2017년 구축 공동인프라 현황(10개소)

사업명	인프라 구축내용
서울 청신동 의류봉제 소공인 공동장비실·전시장	• (시설) 공용재단실, 장비실, 전시장, 교육실, 사무실 • (장비) 봉제장비, 면단기, CAD/CAM, 사무집기 등
서울 석관동 의류봉제 소공인 공동전시장	• (시설) 전시장, 상담·회의실, 사무실 • (장비) 전시장비, CAD/CAM, 빔프로젝터 등
대전 정동 안채 소공인 공동창고	• (시설) 공동창고, 교육실, 사무실
부산 범천동 귀금속 소공인 공동장비실	• (시설) 공용장비실, 상담·회의실 • (장비) 파괴분석기, 용접기, 3D프린터, 3D캐드 등
부산 범천동 수제화 소공인 제품홍보관·장비실	• (시설) 공용장비실, 전시장, 상담·회의실 • (장비) 전시장비, 촬영장비, 3D프린터, 사무집기 등
서울 봉의 주얼리 소공인	• (시설) 공용장비실, 상담·회의실 • (장비) 용접기·가공기, PP 출력기
화성 향남 기타기계 공동인프라	• (시설) 교육실 • (장비) 음향영상장비, 교육용 기구
부산 신촌 전기장비 공동인프라	• (시설) 공용장비실 • (장비) EMI/EMD 시험장비, 솔드플 등
대구 성내 주얼리 공동인프라	• (시설) 공용장비실 • (장비) 3D프린터, 레이저가공기 등
전주 필북 금속기공 공동인프라	• (시설) 공용장비실 • (장비) 머시닝센터, 3차원측정기 등

표 N-3-1-16 |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현황(30곳)

집적지구명	분야	신청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기계금속 (C24, C25, C28) 집적지구	기계금속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묘동, 현남동 기타 제품 제조업(C33) 집적지구	귀금속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집적지구	수제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집적지구	인쇄	충청북도
경기도 시흥시 대야·신현동 기계·금속(C29, C25) 집적지구	기계금속	경기도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유채움(C13) 집적지구(산업단지 제외)	상유제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C26) 집적지구	전자부품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의류(C14) 집적지구	의류	부산광역시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식료품(C10) 집적지구(산업단지 제외)	식료품	강원도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식료품(C10) 집적지구		
강원도 인제군 북면 식료품(C10) 집적지구(산업단지 제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의류(C14) 집적지구	의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 활곡동, 장위동, 종업동, 석관동 의류(C14) 집적지구	의류	
경기도 군포시 군포1동 금속가공(C25) 집적지구	금속가공	경기도
경기도 모천시 가산면 가구(C32) 집적지구	가구제조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1동 의류(C14) 집적지구	의류	대구광역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팔탄면, 정남면기타 기계 및 장비(C29) 집적지구	기타기계	경기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식품(C10) 집적지구	식료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권양동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C26) 집적지구	전자부품	

집적지구명	분야	선정기관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동-안색 및 기곡매체 복제업(C16) 집적지구	인쇄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비금속 공물제품(C23)집적지구	도자 제조	경상남도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식료품(C10) 집적지구	식료품	전라북도 순창군
대구광역시 중구 성내동 기타 제품(C33)집적지구	주얼리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금속 가공제품(C24), 가구나 및 장비(C29) 집적지구	금속, 기계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기도 여주시 오학동 북내면, 대신면 비금속광물(C23) 집적지구	도자 제조	경기도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오포읍, 공남동 가구(C32) 집적지구	가구 제조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송림동 금속 가공제품(C25), 전기장비(C28), 기타기계 및 장비(C29) 집적지구	금속, 전기, 기계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전주시 팔복동 금속 가공제품(C25) 집적지구	금속가공	전주시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5가 기타제품(C33)집적지구	주얼리	광주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C14) 집적지구	의류	부산광역시

3) 성장희망사다리 구축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의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신규판로 확보와 매출향상, 수익성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입점, 전시회 참가, 뉴미디어 마케팅, 홍보영상 광고비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내의 판로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15년 처음 실시하여 전국의 유망 소규모 제조업체 1,462개사(2015년 209개사, 2016년 201개사, 2017년 479개사, 2018 312개사, 2019년 261개사, 2020년 265개사를 선정·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지원 전과 대비하여 월평균 매출액이 10% 이상(2015년 10.4%→2020년 15.5%)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우 자사제품을 직접제조하기 보다는 OEM·ODM 생산 하거나 아웃 소싱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으며, 신제품을 개발 하여도 판로가 없어 사장되는 약순환이 반복되는데 동 사업으로 자사 제품의 판로확대를 통해 자생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에는 소상공인의 수요에 따라 지원항목을 통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온라인 판로활동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민간O2O플랫폼 연계, 온라인 해외 진출 지원 등을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판로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 예정이다.

4) 소상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사업

소공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품개선, 기술개발 및 스마트화 시스템 보급 (부분 자동화, 공정개선 등)으로 공정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소공인의 기술개발 지원의 정책목적성 강화를 위해 지원유형을 4개 분야로 다양화 하고 우수 소공인을 우대하였으며, 2017년 ① (대중명품프로그램) 소공인에게 무형 문화재, 예술인, 디자이너 등과 연계한 융합 지원으로 무형문화재 전수자(25명)와 예술분야 및 우수 디자인 전문회사(32개사)로 풀을 구축하여 25개사 소공인에 대중 명품화를 지원 ② (기술개발 협업 지원)을 통해 소공인간 수익모델 창출(공동·생산 활용)이 가능한 협업과제를 지원하여 28개 소공인으로 구성된 10개의 협업과제 개발을 추진 ③ (기술성장프로그램) 기술개발, 생산공정 개선 등 소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28개사 소공인의 과제발굴 및 개발 추진 ④ (생산 정보체계구축) 수작업 위주의 소공인에 자동화·정보화 시스템 활용 공정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20개사를 제고관리·공정연계시스템 구축 지원하여 그 결과, 2017년 85개 소공인을 선정·지원하여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대비 15.4%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18년 제품기술 향상지원 58개, 생산정보체계 구축 25개, 2019년 기술혁신 12개, 제품개선 52개, 공정개선 5개 소공인을 선정·지원하여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대비 2018년 12.8%, 2019년 15.8%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0년에는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제조환경에 소공인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신기술 확보·개발 및 제품개선을 통해 49개사를 지원하고 수작업 위주 소공인 제조공정에 기초 스마트기술(IoT, AI등)을 접목하여 82개사의 부분 자동화 등 공장개선을 지원하였다.

'20년 시범사업을 통해 구축된 스마트공방으로 표준모델 및 우수사례를 확산하여 '25년까지 1만개사 스마트공방 구축 소공인을 육성할 예정이다.

마. 시장경영혁신지원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에 대한 마케팅, 상인교육, 온누리상품권, 특성화시장 육성 등을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안정적 영업기반을 확보하고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1) 시장경영바우처지원

시장경영바우처지원은 기존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시장메니저, 배송서비스 5개 사업을 통합·개편하여 2019년부터 시행되었다.

본 사업은 지역·상권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지원정책 효율성 제고 및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하고 정책 수요자 스스로 선택·설계·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하는 사업이다.

사업지원 대상은 전년도 하반기에 모집 후 중소벤처기업부 13개 지방청에서 지역별 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상점가는 5개 사업 부문(마케팅, 교육, 자문, 시장메니저, 배송서비스) 중 최발 사업 부문을 선택하고, 부여받은 예산(바우처)을 희망사업부문에 자율 편성(분배)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2020년에는 본예산 141억원으로 345곳, 추경예산 212억원으로 633곳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지원하였으며, 개별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추진하는 사업 외 '대한민국 동행세일',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역활동'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2021년에는 기존 5개 사업 부문 외 온라인플랫폼바우처를 신규 개설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대면 상인교육 콘텐츠 제작 및 보급 할 계획이다.

2) 전통시장 홍보

①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전국 150여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한자리에 모여 발전하는 전통시장의 모습을 관람객에게 소개하는 국내 최대의 전통시장 행사이다.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우수 사례의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상품을 전시·홍보·판매하여 전통시장 인지도 제고와 이용활성화를 도모한다.

2020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 등으로 2021년으로 연기되었으며 2021 전국우수시장박람회(17회)는 10월 29일(금)부터 31일(일)까지 3일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② 지역상품전시회

지역상품전시회는 지역 내 전통시장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을 발굴·소개하여 상품 홍보 및 시장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우수상품 교차전시를 통한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에는 9개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으로 부산, 인천, 대전, 충북 등 4개 지역에서 지역상품전시회가 개최되었으며, 관람객 124천명, 매출액 315백만 원이 발생하였다.

2021년 지역상품전시회는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총 11개 지역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③ 6시 내고향

6시내고향 사업은 한국방송공사(KBS)와 협력하여 전통시장 주 고객층이 주로 시청하는 6시내고향에 전국 각 지역 전통시장의 배리 및 특화 상품을 홍보하는 사업이다.

2020년에는 연중 매주 목·금요일 18:00~18:55분 동안 방영되었으며, 힘내라! 전통시장 등 정규방송 47편, 추석맞이, 크리스마스 특집방송 2편 총 49편이 제작·송출되었다.

2021년에는 연중 매주 목요일 18:00~18:55분 동안 방영될 예정이며, 정규방송 44편 및 특집방송 2편 총 46편이 제작·송출될 예정이다.

표 IV-3-1-17 |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회, 편)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제작 및 송출	총 50회 (정규 46편, 특집 4편)	총 50회 (정규 46편, 특집 4편)	총 50회 (정규 46편, 특집 4편)	총 52회 (정규 43편, 특집 4편 등)	총 48회 (정규 44편, 특집 2편 등)	총 49회 (정규 47편, 특집 2편 등)

④ 지역민방

지역민방 사업은 지역민간방송사를 활용하여 지역별 전통시장 이용의 편리성, 지역명물, 시장 맛집과 같은 정보를 지역의 특색에 맞게 지역밀착형으로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0년에는 광주(KBC), 경인(OBS), 대전(TJB), 울산(UBC), 강원(G1), 충북(CJB), 제주(JBS), 경남(KNN), 전주(JTV) 등 9개 민영 방송사를 활용하여 총 208편(정규 188편, 기획 20편)을 제작하여 송출하였고, 2021년에는 경쟁을 통해 9개 지역민영 방송사가 선정되었으며 총 180회(정규 162회, 기획 18회) 이상 송출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⑤ 전통시장 홍보모델

전통시장의 우수한 상품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며 중장년층의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청년 등 다양한 신규 고객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각 세대를 대표하는 모델을 선발 및 활용하여 세대별 눈높이에 맞는 친근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홍보모델 선발 과정을 언론 및 인터넷 배제에 지속적으로 노출함으로써 대국민 흥미유발 및 전통시장 관심도를 제고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2021년에도 대국민 전통시장 인식 제고를 위해 선발된 전통시장 홍보모델을 대상으로 포스터, 리플렛 등 이미지 촬영 및 전통시장 홍보방송 출연이 예정되어 있다.

* (2020년) 아동 4명, 청소년 4명, 청년 5명, 장년 5명, 중년 4명, 노년 4명 등 총 30명 선발

⑥ 시장하시조

기존 지면을 활용한 홍보는 다양하고 유튜브, 블로그 등 파급력이 강한 온라인 기반 홍보 변화를 위해 2020년 신설된 사업으로, 홍보 대상별 맞춤형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및 유명관광지를 연계하여 홍보하고, 매출 및 고객 증대 마케팅 성공 사례를 발굴 홍보하여 벤치마킹을 유도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입 촉진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 활동이 계획되어 있다.

2020년 카카오톡 채널 '상인정보통' 구축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대상으로 정부정책, 주요이슈 등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21년에는 상인등 신규 가입자 2만명을 유치하여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3) 온누리상품권 발행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공동상품권을 발행 및 유통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2009년 7월부터 전국 전통시장 공동 상품권(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였다. 2009년 200억 발행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4조 487억을 발행해 4조 138.5억을 판매했으며(발행누적 12조 4,758억, 판매누적 11조 7,601.6억), 소비자 및 상인들의 편의성을 위해 1,523개 가맹시장과 19만 6천개 가맹점, 취급 금융기관 16곳을 확보하였다. 특히, 전통시장의 신규고객층 유입 및 고객편의 제고를 위해 2019년 9월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신규 도입하여, 현재 지류상품권(5천원권, 1·3만원권), 전자상품권(5·10만원 기명식, 충전식), 모바일상품권(5천원권, 1·3·5·10만원권)을 발행·공급하고 있다.

표 N-3-1-18 |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단위 : 억원, 개)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발행액	900	2,400	4,060	5,000	6,360	7,381	10,030	12,850	15,016	20,074	40,487
판매액	753	2,224	4,258	3,258	4,801	6,607	10,946	10,743	14,916	16,853	40,139
가맹시장	912	1,021	1,202	1,249	1,284	1,312	1,326	1,330	1,415	1,470	1,523
지원예산	27	64	149	321	360	732	797	792	1,080	1,768	4,383

4) 성과평가 및 실태조사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는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 상인 조직, 매출액 등 일반 및 경영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 및 활성화 지원 사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2019년 기준 영업 중인 전통시장 수는 1,413개로 전년 대비 24개가 감소하였고, 시장당 일평균 매출액은 5,749만원으로 전년 대비 340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승인 제N(XXX)호

표 N-3-1-19 | 전통시장 실태조사 연도별 일반 현황

(단위 : 개, 명, 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통시장수	1,372	1,398	1,438	1,441	1,450	1,437	1,413
상인수	203,036	203,643	207,083	209,193	209,884	206,271	207,643
총 상인수	334,370	353,070	356,176	368,930	363,660	359,049	342,031
시장당 일평균 매출액	4,848	4,872	4,812	4,988	5,125	5,409	5,749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평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가능할 수 있는 주요 척도인 매출액 증감 여부를 정부 지원을 받은 실시시장과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미실시 시장으로 구분해 공표함으로써, 정부지원 사업의 정책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2019년 실시시장의 일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65,968원이 증가하여 40,491원 감소한 미실시 시장에 비해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N-3-1-20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평가

(단위 : 원, %)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	증감률
실시시장	437,910	503,878	65,968	15.1
미실시시장	323,411	282,920	-40,491	-12.5

바.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은 미로형 골목에 소규모 점포 밀집 및 시설이 노후한 상가건물 등 전통시장의 특성상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전통시장에 대해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 소방·전기·가스 시설물 사면점검을 통해 화재 등 안전 위협요인을 파악·개선하여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3년부터 시행하였다.

전국 전체 전통시장의 소방, 전기, 가스 시설물 관련 주기적·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상인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는 상인회 및 관할지자체와 공유하여 자율개선 또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개·보수 등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인대상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및 캠페인 개최 등 적극적인 안전관리 홍보를 통해 상인들의 안전의식 수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6년도부터는 시장별 안전등급제를 도입하여 분야별 안전시설 취약정도에 따른 안전등급(A-E)을 부여하여 개별시장의 취약정도 등 현황 파악 용이 및 D-E등급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개선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적극 권고하고 있다.

또한, 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관계기관 간 점검결과 공유 및 협력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3년 단위의 지속적·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거하여 분야별 점검기관의 법정점검과 통합 운영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안전점검 성과제고 및 사후관리를 위해 지자체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하였다.

표 N-3-1-21 |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개)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예산	445	1,220	2,972	2,972	2,972	2,272	2,458	3,243
대상시장수	200	501	773	747	357	382	433	562

* 2013~2015년 1차 전체시장 전수점검 완료, 2016~2018년 2차 전체시장 전수점검 완료

참고 | 분야별 안전등급 현황

○ 소방분야 안전등급 현황

구분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점검채워
사정수계	52	208	184	82	35	-
비율(%)	9.3	37.0	32.7	14.8	6.4	0.0

* 시장 미운영, 철거, 점검대상 설비 無, 기존시장과 공동운영 등

◆ 안전등급 기준

- 배점 = 진단 전문가 평가 점수(60%) + 설비별 점검결과 점수(40%)
- 등급별 점수

등급	점수	내용
A	90 이상	설비가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고, 관리상태 우수
B	80이상-90미만	설비가 일부 미흡하지만 전반적인 설비의 신뢰도는 양호한 시장
C	70이상-80미만	설비가 일부 미흡하나 개선을 통하여 신뢰도 회복이 용이한 시장
D	60이상-70미만	설비가 기준에 미달, 관리상태가 미흡하여 일정 수준의 개선이 요구
E	60 미만	설비가 기준에 현저히 미달, 관리상태가 불량하여 상당한 수준의 개선 요구

○ 전기분야 안전등급 현황

구분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점검채워
사정수계	79	376	45	4	-	58
비율(%)	14.1	68.9	8.0	0.7	0.0	10.3

* 시장 미운영, 철거, 점검대상 설비 無, 기존시장과 공동운영, 코로나19로 인한 점검채워상연회 요청, 21년 중 추가 점검 예정 등

◆ 안전등급 기준배점

- 배점(설비안전도) = 전기적요소(70%) + 환경적요소(30%)
- 등급별 점수

등급	점수	내용
A	90 이상	전기설비의 상태가 양호
B	80이상- 90미만	전기설비의 상태가 양호하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태
C	70이상- 80미만	시설물의 사용에는 자장이 없으나 위해(危害)요소가 일정 부분 존재하며, 안전성 향상을 위해 보수·정비가 필요한 상태
D	60이상- 70미만	중대한 부적합사항 발생으로 즉시 개·보수 또는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60 미만	중대한 부적합사항 3개 이상으로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시 개·보수와 사용제한이 필요한 상태

○ 가스분야 안전등급 현황

구분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점검개외
시장수(개)	181	93	30	44	146	18
비율(%)	32.2	16.5	14.2	7.6	26	3.2

* 시장 미운영, 철거, 점검대상 설비 無, 기존시장과 공동운영 등

◆ 안전등급 기준

- 배합 - 전통시장 내 가스사용 업소점포에 대한 부적합 업소와의 배부적합률
- 등급별 점수

등급	내용
A	가스사용 업소(점포)중 부적합률이 10% 이하로서 주요 지적사항이 없는 시설
B	가스사용 업소(점포)중 부적합률이 10% 초과 - 20% 이하인 시설
C	가스사용 업소(점포)중 부적합률이 20% 초과 - 30% 이하인 시설
D	가스사용 업소(점포)중 부적합률이 30% 초과 - 40% 이하인 시설
E	가스사용 업소(점포)중 부적합률이 40% 초과하는 시설

1)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전통시장 내 조기 발화요인(연기, 열, 불꽃 등)을 감지하고 소방관서·상인에게 통보함으로써 화재 초기 진압이 가능케 하는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특별법 상의 등록, 인정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시장 영업점포의 30%이상이 신청·동의 및 민간부담금이 확보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전통시장 구조 및 특성에 따라 개별 및 공용부분에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개별 점포형과 건물구조가 개방되어 있어 공용부분에만 설치를 지원하는 오픈점포형으로 구분한다. 총사업비는 개별점포 및 공용부분을 합계하여 1점포당 최대 80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국비 70%와 지방비를 포함한 민간부담금 30%로 구성된다.

2017년 6개 시장에 시범적으로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설 구축을 통해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표 N-3-1-22 | 유형별 지원내역 및 한도

구분	신청내역	지원한도(국비 기준)
개별점포형	○ 개별점포 : 김지개(유·무선) ○ 공용부분 : CCTV, 수신기, 속도설비 등	○ 시장당 최대 50만원 x 신청점포수 산출금액 이내 (개별점포+공용부분=50만원)
오픈점포형	○ 공용부분 : 김지개(유·무선), CCTV, 수신기, 속도설비 등	* 국비 70%, 민간 30%

2)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노후전선을 정비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특별법 상의 등록, 인정시장 및 상권 활성화구역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시장 영업점포의 30% 이상이 신청·동의 및 민간 부담금이 확보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전선의 노출 및 노후화가 심한 개별점포의 노후된 전기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점포당 최대 250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국비 50%와 지방비를 포함한 민간부담금 50%로 구성된다.

2019년 신설되어 전통시장 개별점포의 노후된 분전반,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을 개선하였으며, 전국 전통시장에 노후전선 정비를 통해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3) 전통시장 화재공제

전통시장 상인이 납부한 공제료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저가의 보장성 화재공제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2017년 1월 상품판매를 개시하여 향후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전통시장 특별법 상의 등록, 인정시장 내 점포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 음식물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화재별금의 특약 상품을 추가해 건물, 시설, 재고자산, 타인의 신체 및 재물 까지 폭넓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상품 보장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가입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가입할 수 있는 장기계약을 도입하였다. 소멸성 상품이며 가입한도는 6천만 원(건물 3천만, 동산 3천만)이다.

표 N-3-1-23 |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예시(1년 주계약 기준)

구분		2천만원 (건물/동산 각 1천만원)	4천만원 (건물/동산 각 2천만원)	6천만원 (건물/동산 각 3천만원)	
주계약	재물손해	A급	연 66,000원	연 132,000원	연 198,000원
		B급	연 101,500원	연 203,000원	연 304,500원
특약	화재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6,200원 - (대인) 1인당 사망1억, 부상 2천만원 한도 / (대물) 1억 한도			
	음식물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16,600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공제기간 중 5천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 30만원			
	화재벌금	- 추가공제료 : 연 100원 계약자의 벌금형 확정 판결에 따른 실손보상 (형법 170조) 1.5천만원 / (형법 171조) 2천만원			
	사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26,600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대물) 1사고당 1억원, 공제기간 중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 10만원			

* 건물구조급수(A/B급) : 건물의 기둥/보/바닥, 지붕(틀), 외벽의 건축 자재에 따라 나는 등급

* 가입한도 : 최대 6천만원 이내(건물/동산 각 3천만원)

사.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1) 복합청년몰 조성

청년몰 조성사업은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전통시장 활력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의시설 및 협업공간 조성, 청년상인 창업교육, 점포 입차료 및 인테리어 지원, 마케팅 및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다. 2016년 14곳 시장, 2017년 12곳 시장, 2018년 9곳, 2019년 4곳 시장을 선정하여 전통시장 청년상인 집적지구를 조성했고, 2020년에는 3곳 시장을 선정하여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21년 개장예정), 2021년에는 1곳을 지원할 예정이다(22년 개장예정). 2017년까지 청년몰당 지원 금액은 점포 20개 기준 15억 원보 지원되었으나, 2018년부터 기존의 청년상인들만 입점하던 청년몰 지원에서 확장되어, 청년몰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문화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으로 변경되어 지원금액도 최대 4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 지원금액 구성 : 국비5%, 지방비40%, 차부담10%를 기본으로 지자체별 상이

표 IV-3-1-24 | 청년몰 조성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개)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상)
지원시장 수	14	12	9	4	3	1

2)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기 지원한 청년몰의 시장안착을 위해 2018년부터 청년몰의 홍보, 마케팅, 교육 등 S/W중심의 청년몰 활성화지원과 시설개보수, 추가공간조성 등 확장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는 활성화지원 16곳과 확장지원 8곳, 2019년은 활성화지원 5곳과 확장지원 2곳, 2020년에는 활성화지원 7곳과 확장지원 3곳을 지원했으며, 2021년에는 활성화지원 4곳과 확장지원 2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몰 활성화 지원은 1년간 5억 원, 청년몰 확장지원은 1년간 10억 원 한도로 지원되고 있다.

* 지원금액 구성 : 국비50%, 지방비40%, 자부담10%를 기본으로 지자체별 상이

표 IV-3-1-25 | 청년몰 활성화·확장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개)

구분	2016년	2017년	2020년	2021년 (예상)
활성화지원	16	3	7	4
확장지원	8	2	3	2

3)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은 상인들의 세대교체 및 젊은 층 고객 유입을 위해 전통 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에게 창업에 따른 교육,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다.

2015년에는 20개 시장 218개 점포를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21개 시장 178개 점포를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2017년에는 14개 시장 112개 점포를 지원하였으며 2017년과 2018년에는 중앙에서 별도 모집하여 45개 점포를 입점 지원하였다. 2018년 기준으로 점포당 지원 금액은 최대 40백만 원이었으며, 2018년에 지원 사업이 종료되었다.

표 N-3-1-26 | 청년상인 창업지원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개)

구분	2016년	2018년	2017년	2017 - 2018년
지원시장 수	20	21	14	중영모집
지원점포 수	218	178	112	45

4) 청년상인 도약지원 사업

청년상인도약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내 영업중인 청년상인의 경영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신메뉴 개발, VMD, 제품, 포장디자인 개선, 특허법률,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48곳, 2018년 107곳, 2019년 222곳을 지원했으며, 2020년에는 200곳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표 N-3-1-27 | 청년상인 도약지원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개)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미집)
지원점포 수	48	107	222	231	600

5) 청년몰 대학협력

청년몰(전통시장) 대학협력 사업은 대학의 전문인력, 지식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시장 맞춤형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사업이다. 2019년부터 대상이 청년몰로 한정되어 청년몰의 예로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개편되어 기존 전통시장(2년차) 4곳, 청년몰 8곳을 지원했으며, 2019년에 지원 사업이 종료되었다.

아. 상권활성화

최근 구도심 쇠퇴와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으로 소상공인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권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상권 위축 등의 문제가 개별 시장만을 한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은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2011년 6곳, 2014년 신규구역을 선정해 2016년까지 지원하였다.

이후 지역상권법이 발의되면서 새로운 법에 따른 상권활성화 지원을 하고자 하였으나, 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상권활성화 지원이 일시 중단되었다. 이후 기존 전통시장법에 따라 상권활성화 지원을 재개하며, 이전의 지원이 3년간, 30억 원(국비 50%, 지방비 등 50%)로서 사업성과를 내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개선해, 5년간, 80억원 내외(국비 50%, 지방비 등 50%)로 확대했으며,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사업명이 붙어졌다.

이에 따라 '18년에는 3개, '19년 9개, '20년에는 약 8개 구역을 선정하였고, '21년에는 약 5개 구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상권환경개선(거리정비, 주차장 설치 등), 상권활성화(상인교육, 이벤트 등)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며, 이를 통해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와 소상공인이 어우러진 상권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표 N-3-1-28 |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곳)

구분	상권활성화구역		상권르네상스			
	'18년~'19년	'19년~'20년	'18년	'19년	'20년	'21년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수	8	6	3	9	8	5곳 예정

- 상권활성화구역 : 서울 마포 도화동갑 상점가 활성화구역, 경기 성남 수정로활성화구역, 강원 동해 활성화 구역, 충북 청주옥거리-성안길 상권, 부산 동구 초방앞 상점가, 경남 창원 오동동어시장 상권, 경기 성남 신성로활성화구역, 경기 의정부 구도심 활성화구역, 충남 부여도심 활성화구역, 전남 순천 원도심 활성화 구역, 울산 울주 연양시장 일원 활성화구역, 부산 해운대 활성화구역
- 상권르네상스 :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일원 상권활성화구역, 경기 수원 역세권 상권활성화구역, 전남 김진읍상권활성화구역, 경남 진주시 중앙 상권활성화구역, 광주 서구 영동천동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충남 천안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경기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충남 공주시 산성상권활성화구역, 전북 군산 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서울 관악 별빛신사리상권활성화구역, 부산 연제 오방상권활성화구역, 장선 아리랑상권활성화구역, 문경시 청춘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부산마실상권활성화구역, 양면물맑은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진도읍 남문로 상권활성화구역, 진해군영 상권활성화구역, 동작구 사당역-이수역 상권활성화구역, 춘천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자. 특성화시장

1) 지역선도형시장

지역선도형시장은 지역 대표시장 및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성과 우수시장을 선별하여 지역 시장의 롤모델이자 지역 네트워크 형성의 중심, 협업사업의 기준이 되는 시장으로 육성하여 지역사회 상생협력사업, 특화요소 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2018년에는 희망사업프로젝트로 일부 개편되면서 신규시장 2곳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2019년과 2020년도에는 각각 신규시장 1곳씩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표 N-3-1-29 | 연도별 지원실적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선정수	1곳	2곳	2곳	1곳	1곳

참고 | 지역선도시장 '20년 우수사례

<p>도심형시장</p>		<p>(신매시장) 신매시장의 대표 특화상품 "신나고양음" 개발과 판로개척, 기기호호 배달시스템 "Go 배달"을 통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상승 및 도심형관광시장으로 육성</p>
--------------	--	--

2) 문화관광형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을 지역 고유의 자원(관광·문화·예술·특산물)과 연계한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공간조성, 관광 상품개발, 문화콘텐츠 개발, 문화공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행하였다. 2018년에는 희망사업프로젝트로 부분 개편하여 신규시장 31곳 및 2-3년차 계속시장 57곳을 지원하였고, 시장의 고유브랜드 개발, 지역관영지와 연계, 스토리텔링 도입 등으로 시장 매출 증대 및 고객유인에 기여하였다. 2019년에는 특성과 첫걸음 기반조성시장에서 도약한 20곳을 포함한 42곳의 신규시장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19년도에 특성과 첫걸음 기반조성시장에서 도약한 16곳을 포함한 45곳의 신규시장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2021년에는 '20년도에 특성과 첫걸음 기반조정시장에서 도약한 20곳을 포함한 42곳의 신규시장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표 N-3-1-30 | 연도별 지원실적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계
신규 선정 수	4곳	6곳	8곳	6곳	15곳	32곳	23곳	33곳	22곳	36곳	31곳	42곳	45곳	42곳	344곳

표 N-3-1-31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중정지원사업 변경내역

사업시기	내 용
2008년~2009년	시설현대화 사업과 혼합하여 하드웨어 위주
2010년~2012년	스토리텔링, 캐릭터 개발, 장터 공연단, 시장라디오 등 소프트웨어 사업위주
2013년~2017년	자생력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 ICT 및 디자인 융합 등 휴먼웨어 중심
2018년~	희망사업프로젝트 도입으로 기반이 확립된 시장에 한해 특성화 집중 지원

참고 | 문화관광형시장 '20년 우수사례

<p>온라인 배움 시스템 구축</p> 	<p>(삼방시장) 코로나19에 대비한 비대면 소비경제 대응으로 네이버 동네시장 정보기에 30개 점포를 입점, 3000개 이상의 품목 판매 2,000명 이상의 신규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p>
<p>문화 축제</p> 	<p>(남성사계시장) 현충원 문화해설사와 함께 충효감 건기 행사와 '올로깅운동', 6행시짓기, 사진공모전 등 고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와 역사 문화를 연계하여 고객참여형 시장으로 발전</p>

3) 특성화 첫걸음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 사업은 기반조성사업과 건설팅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기반조성사업은 3대 고객서비스 혁신(편리한 결제, 고객신뢰, 위생청결)과 2대 역량강화(상인 조직역량, 화재 안전관리)를 통해 전통시장의 근본적 경쟁력을 갖추고, 상인회 주도의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기존 활목형시장 육성사업을 대체하여 신설한 사업으로서, 2018년도에 34개 신규 시장을 선정·지원하였다. 특히 해당사업은 1년간의 사업성적을 종합평가하여 우수한 곳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신규시장 30곳씩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10곳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첫걸음 전설팅사업은 특성화 기반조성뿐만 아니라 시장으로서의 기본적 기능이 미흡한 곳을 대상으로 기초 환경분석을 실시하고 시장 원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종합전설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2018년에는 24개, 2019년에는 31곳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는 20곳을 지원하였다.

표 N-3-1-32 | 연도별 지원실적

구분	18	19	20	21	계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34곳 (20곳 도약)	30곳 (16곳 도약)	30곳 (9곳 도약)	10곳	104곳
첫걸음 전설팅사업	24곳	31곳	20곳	-	75곳

참고 | 특성화첫걸음시장 2020년 우수사례

경제현의 개선		(신경시장) 전자결제 시스템 교육 및 간편결제 활성화 위한 이벤트와 홍보를 통해 신규 사업자등록 가입률 40% 상승하여 전체 96% 가입, 카드결제 95%, 온누리 가맹률 96% 달성
가격 및 원산지 표시		(유구시장) 통합브랜드 디자인 개발과 원산지, 가격 표시 제작환경을 조성하여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원산지 표시 100%, 가격표시 96% 달성

차. 소상공인 지원인프라

소상공인 지원인프라 사업은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기체감 및 예상정기를 파악하여 정보수요자들이 경기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유자 지원업체 사전진단 및 사후관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효과,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1)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별 맞춤형 정책 및 창업·경영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인 소상공인마당(www.shiz.or.kr)을 2007년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예비창업자의 준비된 창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에는 중기24, 네이버,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간편 로그인 기능과 정보취약계층의 홈페이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각, 이동성, 인지 등의 부분에서 시스템 기능개선을 하였다.

이처럼 지속적인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통해 이용실적이 2018년 202만 건, 2019년 268만 건, 2020년 668만 건으로 최근 3년간 평균 71.43% 상승하였으며,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정책지원 및 자금지원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방문이 급증하였다.

표 N-3-1-33 | 종합정보시스템 이용실적 추이

(단위: 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용실적	1,370,830	1,456,596	1,524,882	2,016,641	2,682,880	6,682,630

참고 | 소상공인마당 로그인 및 회원가입 화면



2021년도에는 소상공인마당 회원정보, 접근권한에 대한 이력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소상공인마당 이용자의 중요 개인정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기능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 작성자 : 정보운영팀 이지윤 주임(042-365-7145)

2) 소상공인주간 활성화

가) 전국소상공인대회 개최

소상공인의 진흥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포상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신 의지를 고취하고, 소상공인의 국민경제적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2007년부터 매년 '전국소상공인대회'를 개최해 왔다.

‘2020 전국소상공인대회’는 2020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개최되었으며, 모범소상공인,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총 146점의 포상을 수여하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대행사는 개최하지 않았으며, 업종별 기능경진대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단독으로 개최하여 우수기능인을 발굴하고, 행사 참가자들에게 업종별 교류·협력의 기회를 제공했다. 제 5회 ‘소상공인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 관심을 제고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모두 다함께 국가 대재난을 이겨낼 것이라는 희망 메시지를 전달 하였다.

2021년에는 11월 4일 경상남도 창원시 컨벤션센터에서 소상공인 주간행사를 연계 하여 개최할 계획이며,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추진 예정이다.

나)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개최

소상공인의 우수기술을 발굴 및 전파하고 소상공인 경영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업종별 기능경진대회’를 2013년 신규로 개최하였다.

2020년에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맞춤형, 메이크업, 외식, 제과, 분장예술, 피부 미용, 이용업, 세계음식, 자동차유리 등 총 9개 부문과 9개 단체를 선정하여, 업종별로 특화된 ‘기능경진대회’를 개별로 개최하였으며, 총 3,535명의 소상공인과 일반인이 결선에 참가하고, 28,148명의 일반시민이 관람했다. 메인행사로는 소상공인 기능경진이 이루어졌다.

2021년에는 11월 4일~5일 경상남도 창원시 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와의 공동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추진 예정이다.

3) 소상공인 정책조사연구

가)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는 주요 업종별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체감경기 및 전망경기를 파악하여 정보 수요자들이 경기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소상공인·전통시장의 현안 문제 해결과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통계원: 국가승인통계(제1428)호, 2019년)

표 N-3-1-34 | 그간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표본수 변화

(단위: 개)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소상공인	3,200	2,000	2,200	2,200	2,400	2,400	2,400	2,400
전통시장	1,306	1,000	1,000	1,000	1,300	1,300	1,300	1,300

* 기존 각각 실시하던 소상공인 경기동향조사, 전통시장 경기동향조사를 2014년에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로 통합

* 2017년 소상공인 표본 수는 제조업 추가, 전통시장은 지역별 차수 공표를 위해 각각 증가

소상공인은 제조업, 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개인서비스업 등 생계형 주요 9개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체 일반정보, 경기전반·매출·영업이익·자금사정·원재료조달사정의 체감경기 및 전망경기 등을 조사한다.

전통시장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의류·신발, 가정용품, 음식점, 기타소매업 및 근린생활 서비스업 등 주요 8개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체 일반정보, 경기전반·매출·영업이익·자금사정·원재료조달사정·구매고객수의 체감경기 및 전망경기 등을 조사한다.

조사기간은 매월 16~22일까지 5일간 실시하며, 조사방법은 전화조사이다.

표 N-3-1-35 |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소상공인	체감	67.3	41.5	29.7	73.8	88.3	82.8	88.1	67.6	54.9	78.0	79.9	51.6
	예상	84.1	87.1	94.1	95.0	99.5	98.9	89.4	93.2	94.1	95.2	90.8	95.9
전통시장	체감	71.7	23.9	28.4	80.0	109.2	79.2	55.7	49.2	65.1	73.3	78.5	44.8
	예상	89.5	79.1	95.0	94.8	104.5	103.2	86.8	88.8	95.2	93.3	99.5	89.1

나) 소상공인시장 정책조사연구

소상공인시장 정책조사연구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쟁력 강화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소상공인 기본계획 시행방안 연구, 「전통시장 3개년 기본계획 수립,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 대응방안, 등 소상공인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이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하였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이슈페이퍼 발간, 소상공인·자영업자 동향분석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현안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2020년,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에 소상공인전담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비로소 소상공인 분야가 독자적인 연구영역으로써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백서 발간,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촉진 방안,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 등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방향 설정에 기초가 되는 기초연구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또한, 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 연구, 장수소상공인 제도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정부의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전통시장 분야의 정책토론회·포럼·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상안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부정책의 이해를 돕고,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가교역할을 담당하였다.

4) 정책자금 운영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IMF 외환위기 이후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 용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을 구축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5년부터 자금의 정책 목적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장기반자금과 경영안정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N-3-1-36 | 연도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실적

(단위 : 개사,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지원업체	29,825	44,233	48,341	64,497	57,625	58,462	186,215	489,198
지원금액	10,305	14,939	17,550	22,450	20,575	22,045	45,499	163,303

2019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수혜업체 대상 조사결과³²⁾, 정책자금 수혜업체의 매출액 증가점포 비율은 81.8%, 고용증가율은(18년 대비 '19년) 8.3%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및 신규 고용창출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 성장기반자금

성장기반자금은 제조기반 기술의 경쟁력 강화,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의 활력제고 등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한 자금으로 2020년에는 12,983개 업체에 6,099억 원을 지원하였다.

2016년부터 기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위탁 운영하였던 소공인 특화자금을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규 운용하였고,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을 위한 성장촉진자금과 백년가계, 백년소공인 지정업체를 위한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을 신설하여 성장기·성숙기 소상공인에 성장동력을 공급하였다.

표 N-3-1-37 | 2020년 성장기반자금 집행실적

(단위 : 개사, 억원, %)

연도	예산	신청		대응		집행률 (금액기준)
		업체	금액	업체	금액	
2020년	7,500	19,447	12,824	12,983	6,099	81.3%

32) 2020년 소상공인 통자사업 성과분석, ㈜이비니컴퍼니, 2020.12

나) 경영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은 청년일자리 창출, 고용·산업위기지역 경영애로 해소, 사회적경제 기업 경영안정지원 등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금으로, 2020년에는 173,232개 업체에 39,401억 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급감으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131,941개 업체에 29,538억 원을 지원하였고,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6,796개 업체에 2,299억 원의 청년 고용특별자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자연재해, 사회규제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1,071개 업체에 371억 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여 신속한 경영복구를 지원하였고,

정부지정 고용위기, 산업위기, 조선사 소재지역의 경기약화로 인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 1,313개 업체에 435억원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였다.

장애인, 여성, 저신용, 사회적경제기업 등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전용자금을 운영하여 1,127개 업체에 500억 원을 지원하였다.

표 N-3-1-36 | 2020년 경영안정자금 집행실적

(단위 : 개사, 억원, %)

연도	예산	신청		대응		집행률 (금액기준)
		업체	금액	업체	금액	
2020년	38,000	319,220	125,902	173,232	39,401	103.7%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들의 조속한 경영 회복과 안정을 위한 긴급자금 공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제4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

일반현황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거 2002년 1월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으로 개원하였으며, 2006년 동법 개정을 통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하였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전담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 기반 조성,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중장기 기획, R&D사업 수요 발굴 및 조사·분석 기능과 정보화촉진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 및 평가, 정보화경영 표준모델의 개발 보급 확산 및 부합화 지원, 정보화 기반 조성 및 수준평가, 기술혁신 및 정보화 경영에 관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4년 12월, 중소기업분야 R&D 사업 평가관리 기능이 일원화됨에 따라 모든 중소기업이 성장단계에 따라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되었다. 위의 정책 기초에 발맞춰 2018년에는 4차 산업혁명 대응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유망기술분야 발굴 및 확산, 수요자 중심의 평가관리체계 개선,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등에 힘썼으며, 사업성 심층평가 확대 및 R&D 성공기업 사업화 지원·성과 확산,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 및 사후조치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성과 중심의 R&D 지원 및 관리 강화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기준 9,447개 과제에 총 1조 1,591억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과 자생적인 성장,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1) 중소기업 R&D역량 제고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R&D 기획역량 및 자체 전문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R&D 기획역량강화교육, 기획지원 및 외부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R&D 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R&D 기획지원사업, 맞춤형 기술파트너지원, 위가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위가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혁신 R&D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18년도 목적에비비로 신규 추진되었다.

① R&D 기획지원사업

기술개발을 통한 신제품 개발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활동이다. 하지만 기술개발에 성공하고도 기술의 변화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는 성공 가능성 검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등 사전에 충분한 R&D기획 없이 기술개발에 착수한 것이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다.

본 사업은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과제에 대해 기획 전문기관과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기술성, 시장성, 경제성 등을 분석·진단 후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수립·지원하는 R&D기획지원사업과 중소기업 및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R&D 출단계(기획→기술개발→사업화)에 대한 기획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구분된다.

R&D기획지원사업은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총 7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783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수행 결과 우수과제는 R&D 사업으로 연계(신청)지원, 2017년부터는 희망하는 R&D 사업 신청 시 연계추천(우대사항 적용)으로 변경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원현황으로는 2019년 308개 중 97개, 2020년에는 215개 중 144개 과제를 우수과제로 선정하고 대상과제는 선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연계 가능한 사업(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일부(제품개선))에 신청할 경우 각 사업별로 2회('17~' 20년도 1회)에 한하여 신청자격 부여, 서면평가 면제 또는 가점 등으로 우대한다.

또한, 자체 기술개발이나 용자·보증신청, 기업 IR 등 다양한 분야에 R&D 기획 보고서를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2021년에는 연계평가 및 추천 절차를 개선하여 R&D연계율을 제고하고, 정책 환경(4IR, BIG3, 비대면 경제, 한국판 뉴딜 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하는 등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코칭을 확대 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표 N-4-1-1 | 연도별 중소기업 R&D 기획지원 추진실적

(단위: 개, 억원)

구분		2002-2007	2008-2013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기획지원	과제수	1,408	713	169	154	204	178	179	342	308	130
	금 액	215	200	35	40	50	45	50	45	46	33
R&D 사업 연계	과제수	-	423	98	92	82	65	108	104	97	144
	금 액	-	1,332	337	311	263	245	-	-	-	-

* '16년까지는 R&D사업으로 연계(선정), '17년부터는 연계추천(우대사항 적용)으로 변경

한편 R&D기획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은 2014년 시행이후 2020년까지 총 21,539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020년에는 50회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3,944명(온라인교육: 2,878명 포함)이 수료하였다.

2019년 교육과정에 대한 수료자 만족도 조사결과, 오프라인 교육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88.0점, 온라인 교육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86.3점으로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0년 교육과정의 경우 오프라인 교육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89.5점, 온라인 교육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96.8점으로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N-4-1-2 | 연도별 RAD기획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추진실적

(단위 : 회, 명)

교육과정	2017		2018		2019		2020		합계	
	회수	수료 인원	회수	수료 인원	회수	수료 인원	회수	수료 인원	회수	수료 인원
정규	29	1,248	26	957	77	1,502	40	831	172	4,538
방문형	8	301	5	194	4	114	6	159	21	768
협약설명회	-	-	4	302	4	165	-	-	8	467
IP역량강화	-	-	2	75	2	43	4	76	8	194
세미나	-	-	1	57	-	-	-	-	1	1
온라인	-	2,097	-	2,533	상시	2,565	-	2,876	-	10,073
계	35	3,646	38	4,136	87	4,389	50	3,944	210	16,059

② 맞춤형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중소기업은 자체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기술애로 해결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서는 외부 고급인력의 적절한 활용이 중요하다. 그러나 박사급 고급 연구개발인력의 절반 이상이 대학에 분포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현장의 기술애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 사업은 대학 및 출연연의 기술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R&D 역량 제고 등 산학연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공학건설팀센터를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도에 국·공립대학교로 한정하여 운영하던 공학건설팀센터를 2018년도에는 우수 사립대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기술애로 지원을 강화하였고, 2019년에는 9개의 공학건설팀센터(대학 8개, 출연연 1개)로 확대하고 지정범위를 출연연까지 넓힘으로써, 더욱 다양한 기술수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현장중심의 기술애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하고 있다. 2021년 9개 공학건설팀센터*(대학 9개)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 가천대, 인천대, 한성대, 대구대, 금오공대, 한밭대, 전북대, 전남대, 창원대

표 N-4-1-3 | 2020년 공학컨설팅센터별 지원실적

(단위 : 건, %)

구분		기술애로 해결위원회		기술애로 해결위원회		선심과제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서울/경기/강원	안전대	109	13.8	67	12.0	20	12.0
	한성대	75	9.5	43	7.7	14	8.4
	가천대	71	9.0	54	9.7	17	10.2
대구/경북	금오공대	138	17.4	91	16.3	25	15.0
	대구대	49	6.2	43	7.7	16	9.6
부산/울산/경남	침원대	123	15.5	94	16.8	21	12.6
대전/충청	한밭대	78	9.9	51	9.1	20	12.0
호남/제주	전북대	113	14.3	92	16.5	24	14.4
출연연	에너지기술연구원	35	4.4	24	4.3	10	6.0
총계		791	100.0	559	100.0	167	100.0

③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조선 산업 및 자동차 산업의 경기침체가 본격화·장기화 되면서 동 산업 거점지역 중소기업의 생산 감소, 고용위기 및 지역상권 침체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6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 위기지역(6개) :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경남) 거제시·창원시 진해구·통영시·고성군, (울산) 동구

동 사업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중소기업 및 해당 시도 내의 위기업종(조선·자동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맞춤형 기술애로 솔루션 지원 및 Scale-up R&D를 지원하여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등을 통해 기술혁신 또는 사업다각화를 도모하여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과 지역혁신기관 간 기술교류회를 개최하여 지역별·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정보교류, 기술협력을 통한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2018년에는 현장수요형 R&D 심층과제 74개, 단기과제 39개 등 총 113개를 지원하였고, Scale-up R&D 과제는 31개를 지원하였다. 2019년에는 현장수요형 R&D 과제 166개를 지원하였고, Scale-up R&D 과제는 137개를 지원하였다. 2020년에는 현장수요형 R&D 과제 84개를 지원하였고, Scale-up R&D 과제는 131개를 지원하였다.

표 IV-4-1-4 | 2020년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경남	부산	충남	전북	전남	대구	합계
현장수요형 R&D	과제수	18	18	16	18	16	-	84
	금 액	72	72	64	64	64	-	336
Scale-up R&D	과제수	19	19	18	18	28	29	131
	금 액	1,900	1,900	1,800	1,800	2,800	2,900	13,100
총 계	과제수	37	37	34	34	44	29	215
	금 액	1,972	1,972	1,864	1,864	2,864	2,900	13,436

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적 성장 및 위상 제고 뒤에는 1997년부터 한결같이 함께 해오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R&D) 지원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이하, 기술혁신개발사업)이 있다.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역량을 Scale-up 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중소기업 전용 핵심 기술개발사업이다.

2020년에는 한국판뉴딜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기후환경 변화 대응 및 중소기업 중심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대면 신산업 및 그린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였다.

① 수출지향형기술개발사업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예비 중견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선도 기업군 집중 육성을 위해 매출액 1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중 직·간접 수출 연간 500만불 이상 직·간접 수출실적 달성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년간 2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② 시장확대형기술개발사업

민간·시장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유치 실적이 있거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중점전략 분야(BIG3, 한국판뉴딜 등)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혁신성장 동력 창출 강화를 위해 최대 2년간 6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③ 시장대응형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의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4IR)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년간 5억원 까지 지원하고 있다.

표 N-4-1-5 | 기술혁신개발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지원금액	2,448	2,470	2,820	2,260	2,394	2,269	1,193	1,665	17,319
지원업체수	1,081	1,087	1,107	1,029	1,147	1,384	1,085	1,228	9,148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9,148개 과제에 1조 7,319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종료 과제 중 성공판정 받은 수행기업(2,265개)을 대상으로 성과를 측정한 결과, 정부출연금 1억원당 신규고용은 4.0명(전년대비 0.5명 증가) 및 非 지원기업 대비 매출액 1.4배 등 동 사업 지원을 통해 높은 지원성과를 달성하였다.

2019년에는 추정 변성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및 소재·부품·장비분야 전략품목을 발굴 및 집중 지원(153개 과제, 210억원)하였고, 2020년에는 시장수요 및 대외의존도를 고려하여 소재·부품·장비분야 전략품목에 대한 국산화를 선도할 전문기업군 육성 및 지원(372개 과제, 735억원)하였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장사다리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이 Scale-up 할 수 있도록 단계별 R&D지원과 중소기업의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을 도모하도록 전략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3)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지원

창업기업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자본력 및 자금 조달능력 부족으로 기업의 생존과 지속 성장의 원동력인 기술개발 투자에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창업기업이 기술개발 시 수반되는 위험과 실패에 대한 부담을 흡수·완충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 전용 R&D사업인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R&D)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에게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창업 생존율을 높이고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업력 7년 이하, 직전년도 매출액 20억 미만의 창업기업에게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다담들은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재창업, 여성기업, 소셜벤처, 사회문제 해결R&D 등 창업지변 확대형 단기 기술개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년간 1.5억원까지 지원한다.

전략형은 4차 산업, BIG3, 한국형 뉴딜 분야 등 고기술유망기술 분야 창업 기업의 기술개발, 고급기술 창업 확대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2년간 4억원까지 지원한다.

TIPS는 액셀러레이터 등 TIPS 운영사(기관)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팀의 교육멘토링,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지원한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총 16,497개 과제에 21,543억 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소규모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면 확대에 기여하였다.

표 N-4-1-6 | 연도별 창업성장기술개발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개)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계
지원 과제수	90	86	598	1,331	856	1,102	1,230	1,332	1,364	2,256	2,906	3,286	16,497
지원 예산	100	100	560	1,136	1,314	1,414	1,624	1,888	1,976	2,800	3,733	4,508	21,543

*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 계속과제 포함

2014년부터 2018년까지 R&D과제 종료기업의 성과를 측정한 결과, 정부출연금 1억 원 당 평균 6.6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기술적 성과로 세계최고수준 대비 기술수준 및 기술자립도는 각각 35.6%p, 37.0%p가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부출연금 1억 원 당 신규 고용 인력은 5.5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은 디지털 및 그린경제로의 가속화에 대응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한국판 뉴딜분야 지원, 타 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우수기업 선별추천 트랙 신설, 사회문제 해결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연계를 통한 국민과 함께하는 신규 사업 추진 등 우수과제 발굴 기능을 강화하였다.

창업기업의 미래 유망기술 선점을 위한 전략적 지원 및 다양한 R&D 지원 방식 도입으로 창업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4)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지원

제조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매출의 27.7%, 종사자 19.6%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수의 제조 중소기업은 자금·인력·설비 등의 부족으로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등의 기술개발도 상당히 부족하다.

이에 대외 환경변화와 시장·소비자 니즈에 신속한 대응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조 중소기업의 공정혁신을 지원하여 단기간(2년 이하)에 기술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를 촉진하는 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제조 중소기업 대상의 원활한 스마트공장 구축을 촉진하고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서 2020년부터 내역사업 개편을 통한 제조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공정기술개발 및 실증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혁신형R&D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예정 제조 중소기업의 공정 자동화·지능화·효율화 등에 따른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학·연 기관과 협력을 통해 공정기술 개발 및 실증을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65% 이내를 지원한다.

현장형R&D는 자금력이 부족한 제조 중소기업의 불량률감소, 원가절감 등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현장 맞춤형 공정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75% 이내를 지원한다.

표 IV-4-1-7 |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	41,503	30,003	31,160	37,714	36,035	44,383	44,383	40,865
지원과제수	574	511	564	680	838	811	791	1,012

향후 제조 중소기업의 고위험, 노동집약, 자동화 난제 공장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과 동시에 품질향상,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과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해외 의존·이전이 많은 공정을 고도화하여 제조 중소기업의 해외이탈 방지 및 리쇼어링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기자동차,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모바일 기기, 로봇 등 신성장 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은 대학·연구기관의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인력·장비·기술 등)를 활용한 공동R&D를 통해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1993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R&D지원사업에 대한 전면 개편(2013년)을 실시한 결과,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과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이 통합되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R&D역량을 강화하는 첫걸음R&D와 연구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도약R&D사업이 신설되었다.

2017년에는 전략적 산학연협력체계 구축 및 유망 중소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전략협력사업을 신설하고, 내역사업 개편으로 기존 도약협력의 산연전용, 연구마을 과제를 전략협력으로 편입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장비부족 문제해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을 동 사업 내역사업으로 편입하였다.

2018년에는 사업비 포인트제를 도입하고 지정회계기관 운영을 통해 사업비 정산 및 사용의 투명성·전문성을 높여 사업관리를 강화하였다.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은 2019년 일몰되어, '19년부터는 계속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 종료되었다.

표 N-4-1-8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예산	9,458	1,389	1,458	1,520	1,382	1,308	1,395	417	18,369
참여기업	38,250	2,041	1,965	2,179	2,082	3,457	4,034	883	52,935

* 2017-2018년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지원과제(수혜기업) 포함

① 전략협력

전략협력은 산학연협력이 우수한 대학,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고(산연전용, 연구마을과제) 지역의 유망한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지역유망중소기업과제) 사업이다.

특히 2014년에는 국가연구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산업별로 특화된 연구기관의 참여를 위한 산연전용과제를 신설하여 현재까지 832억 원, 712개 과제를 지원하였고 묶음예산 지원방식을 통해 연구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성과위주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자체 R&D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이를 집적하는 형태의 연구마을 사업을 2013년 시범 운영하여 현재까지 754억 원, 948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지역별, 산업별 분포 등을 고려한 30개 거점형 연구마을을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 R&D 특성화를 추진하였다.

2017년에는 지역의 유망한 중소기업이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지역경제를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유망 중소기업과제를 신설하였고, 지역별 산업 특색을 반영하기 위해 과제 공고부터 선정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지자체가 책임지고 일괄 진행하도록 하였다. 2017년 11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35개 기업에 42억의 국비를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13개 지자체로 확대하여 49개 지역 중소기업에게 8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였다.

2019년에는 13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79개 중소기업에게 57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였다. 2020년도에는 연구마을 98개 과제 및 지역유망 중소기업 46개의 총 144개의 종료과제를 지원하였다.

표 N-4-1-9 | 연도별 전략협력사업 추진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지원	과제수	400	669	355	144	'17년 연구마을, 산연전용과제 전략협력으로 편입 20년 사업종료
	금액	443	594	234	42	

6) 산학연 Collabo R&D 지원사업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대학의 연구인력 등 보유자원을 활용 지원하는 산학협력R&D, 연구기관의 전문 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지원하는 산연협력R&D 두 개의 내역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예비타당성 심의를 통과하여 2019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1단계(예비연구)를 도입하여 아이디어 및 기술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R&D를 지원하는 2단계(사업화R&D)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우수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신규사업으로 1단계(예비연구) 250개 과제(산학175개, 산연75개)를 지원하여 예비연구를 수행하였다.

2020년에는 1단계(예비연구) 295개 과제(산학206개, 산연89개)를 지원하였으며, 2단계(사업화R&D) 지원을 시작하여 127개 과제(산학89개, 산연38개)를 지원하였다.

표N-4-1-10 | 2020년 산학연(collabo R&D) 사업 지원 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2019년		2020년		
	지원 금액	지원 과제 수	지원 금액	지원 과제 수	
합계	123	250	317	422	
1단계	산학협력	88	175	102	206
	산연협력	37	75	44	89
2단계	산학협력	-	-	119	89
	산연협력	-	-	52	38

* 2단계의 경우 2020년 1단계 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지원

가)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전주기 R&D지원을 함으로써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신설되어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선도연구기관이 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상담과 진단을 지원하고 지원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R&D 및 사업화 성공을 위한 사업화R&D 지원의 총 3단계 프로세스로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전문역량을 가진 3개의 선도연구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지정하였으며, 2020년에는 대내외 환경 변화의 적시 대응 및 소재·부품·장비 부문 집중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개의 선도연구기관(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을 추가 지정하여 총 181개 기업을 진단 후 40개 기업의 산·연 협력 R&D과제수행 그리고 18개 기업 대상의 후속 사업화R&D를 지원하였다.

표N-4-1-11 | 2020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지원 금액	지원 과제 수
합계	60.8	239
1단계(기업진단)	1.8	181
2단계(산연협력R&D)	49	40
3단계(사업화R&D)	10	18

8) 연구기반 활용사업

연구기반활용사업은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전문 인력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을 강화하고자 연구 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중소기업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공유확산형과 연구집중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공유확산형은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이용료를 최대 5백만원 이내로 바우처를 지원하고, 연구집중형은 공유확산형을 수행한 중소기업 중 심도있는 연구 개발을 위해 연구장비 및 전문 인력의 활용이 필요할 경우 최대 7천만원 이내로 바우처를 지원한다. 또한 시급하게 연구개발 추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Fast-Track을 통해 연구집중형으로 즉시 진입을 할 수 있다.

2020년 총 지원규모는 13,682백만 원이며, 이 중 공유확산형이 2,426백만원, 연구집중형이 10,754백만원으로 편성되었다. 198개 운영기관이 10,435대 연구 장비를 등록하였으며, 2,435개 중소기업이 원활한 연구개발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서비스 25,516건을 지원하였다.

표 4-1-12 | 연구기반활용사업 실적 현황(2020년)

(단위: 개, 백만 원, 대)

구 분	예산	등록기업	추진기관	지원건수	접수대수
19년	13,644	1,888	174	20,097	9,280
20년	13,682	2,435	198	25,516	10,435

9)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지원

①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

2002년부터 기술개발 단계부터 안정적 판로를 보장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이를 상용화하여 판매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수요처 특성에 따라 구매연계형과제(공공기관, 대·중견중소기업 등 국내외 수요처) 및 공동투자형과제(공공기관, 대·중견기업 등 투자기업)로 구분되며, 구매연계형과제는 2년 이내, 5억 원 한도, 공동투자형과제는 3년 이내, 12억 원 한도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수요처(투자기업)에서 일정기간 구매를 보장해 주는 사업이다.

표 N-4-1-13 | 지원 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능형식
구매연계형	최대 2년, 5억원 이내	65% 이내	지능공모 /자유응모
공동투자형	최대 3년, 12억원 이내 (투자기업출연금 별도)	65% 이내	

국방 과제(13개)를 시범사업으로 2002년 시작한 동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0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9조,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 제5조, 제8조에 따라서 추진되었다.

표 N-4-1-14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추진 경과

- (2002년) 중기청-국방부간 「국방기술개발협력」 체결,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시범실시
- (2005년) 사업영역수요처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대기업 7개사 참여)
- (2008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내에 '민·관 R&D 협력펀드 과제'를 신설
- (2009년) 해외 우수기업 및 바이어 등을 수요처로 한 해외수요연계 기술개발 지원
- (2011년) '민·관R&D 협력펀드' 과제를 확대 개편하여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신설
- (2014년)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의 수의계약 근거 마련
- (2019년) '혁신지향 공공조달방안'의 '맞춤형 R&D사업'의 세부추진 과제로 추진
- (2020년) '구매연계형일반조달혁신소부장', '공동투자형일반R&D소부장'으로 개편

2002년부터 2020년까지 '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수요처는 총 1,260개에 이르며, 그간 총 1조 6,039억 원을 투자하여 총 6,129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전체 R&D 평균 사업화율(50.2%) 및 과제 매출액(19.7억)에 비해 높은 동 사업의 사업화율(68%) 및 과제 매출액(28억) 수치는, 동 사업이 연구개발의 기술적 성과를 넘어 중소기업의 매출발생이라는 경제적 성과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표 N-4-1-15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실적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억원)	1,386	1,420	1,436	1,438	1,668	2,130
지원과제수 (개)	510	565	500	385	518	687

성과조사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업화성공률 (%)	77.0	81.6	79.0	79.4	74.4	68.0
매출액 (과제당, 억원)	6.7	25.9	21.2	18	20.6	28

② 공동투자형(구, 민·관 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조성 확대

2008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민관공동R&D 투자협약 과제’를 신설한 이후, 그 재원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과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다.

2020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 총 19개사(신규참여 11개사, 추가조성 8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까지 총 88개 투자기업과 7,005억 원을 조성하였고, 총 1,081개 과제에 5,482억 원을 지원을 결정하였다.

표 N-4-1-16 |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조성 현황(누계)

(단위: 억원)

구분	03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조성기업(개)	22	38	53	57	62	66	70	77	88
조성금액 (억원)	4380	5608	6314	6814	8004.40	8265	8461.8	8533	7005
정부	2300.3	2936.2	3374	3666.40	3292.60	3465	3534.4	3530	3771
투자기업	2029.7	2571.8	2940	3157.60	2711.80	2830	2937.4	3003	3234
대기업	1524	1873	1896	1888	1,136.20	1,101	1,200.3	1,333	1,448
중견기업	116.7	303.8	521	576.6	345.6	993	801.1	679	735
공공기관	330	395	531	591	731	736	940	991	1,033

표 N-4-1-17 |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조성업체(2020년)

구분	합계건수	투자기업명
민간 (65)	4,839억원	포스코, 르노삼성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아이, 현대홀스핀, 삼성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롯데마트, 연세소프팅스튜디오, 영지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LS엠트론, SK텔레콤, 포스코에너지, 케이타, 케이씨씨건설, 인텔, 네이바, 한솔테크닉스, 주성엔지니어링, 인생정보, 크루셜텍, 경향산업, 중앙물산기업, 휴맥스, 오덕캐리어, 아진산업, 대동공업, 다이아씨, 톨텍, 국채종합기계, 세하, 아이즈비전, 에스에프에이반도체, 대상, 제이더블유홀딩스, 아모레퍼시픽, 삼지전자, 한국항공우주산업, 다산네트웍스, 파워로직스, 케이엔더블유, 미래노믹, 푸엔스, 대교, 이엘케이, 웅진에너지, 웅신, 미래에이엘에스, 에스에너지, 렉스코, 뉴프렉스, 필옵틱스, 엠씨넥스, 진영지엔터, 삼림첨단산업, 한백종합건설, 팀앤지니어링, JW바이오사이언스, 라이온첨택, 아세아텍
공공 (23)	2,168억원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에스일(SPT)

동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기술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수요처에 대한 구매실적 관리강화,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상용화율을 제고하여 투자효율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③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혁신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기술개발 및 시장환경에 적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기술개발환경의 대형화·복합화·고비용화 및 기술 수명주기의 단축 등으로 단독 R&D 수행이 가지는 부담과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협력으로 혁신역량의 상호 보완을 통한 환경변화 대응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으나, 중소기업은 아직 배색형 기술개발에 치우치고 있어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 R&D를 통한 고부가가치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R&D를 지원하였다.

동 사업의 기획지원 단계에서는 공동개발기관 배정, 사업화 전략수립, 상호협력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단계에서는 네트워크 협력체를 대상으로 정부출연금을 최대 6억 원까지 지원하여 네트워크 협력체가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고, 신시장에 진출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33개 과제, 2019년 62개 과제, 2020년 100개 과제에 대해서 기획지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 24개 과제, 2019년 36개 과제, 2020년 52개 과제를 선정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표 N-4-1-18 | 지원 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영역
기획 지원	최대 6개월, 3천만원	90%	자유응모
R&D 지원	최대 2년, 6억원	65% 이내	

동 사업은 기술개발의 전주기(기획-기술개발-사업화)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형 유망 과제 발굴 및 지원방식의 다각화로 개방형 산·산 협력 R&D 환경 구현에 앞장설 것이다.

10)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기술규제는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되고 있으나, 기업의 활동단계(기술개발, 제품생산, 상품판매·마케팅)에서 행정비용을 증가시키고 제품화 및 시장진입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특히 많은 제조기업들이 취득해야 하는 안전·성능·환경 관련 인증들은 연구개발결과와 사업화 및 수출에 실질적인 큰 장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이 제품화에 성공하였더라도 이러한 규제들을 통과하지 못하면 시장진입 및 제품판매에 지장을 초래하기에 때문에 기술규제 대응을 위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관련 규제를 고려하지 못해 R&D 결과물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R&D 기획·수행 단계부터 규제 대응을 위한 기획 및 R&D를 지원하는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이 2020년 신설·추진되고 있다.

동 사업은 규제 대응이 필수적인 R&D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획기관을 지정하여 1단계 기획단계 컨설팅(3주, 과제당 5백만원)을 수행하고 이 가운데 규제대응의 필요성, 기술개발 방법 및 사업화 계획이 우수한 과제를 선정하여 R&D 지원(2년, 과제당 5억원)을 실시하게 된다.

2020년 총 98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획지원 160개 과제, R&D 67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규제대응 기획기관의 전문가를 “규제도우미”로 지정하고, 협약기간 동안 인허가 등을 위한 컨설팅을 상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 관점의 중소기업 규제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이 제기한 각종 규제건의를 소관부처에 안내하는 등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표 N-4-1-19 | 2020년 기술규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개, 억원)

구분	신청과제	지원과제	지원금액
1단계(기획지원)	334	160	8
2단계(R&D)	175	67	67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대응 컨설팅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각 부처에 공유·협조하고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R&D 사업화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간담회 개최를 통한 주요 규제 해결방안, 전략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기술기준(규정) 개정사항, 인·허가 사례 등 최근동향 및 규제 전략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11)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2020년부터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중소사업장 및 생활밀착공간에 대한 특성화된 미세먼지 저감 개선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실용화 기술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 적용받는 시설, 학교, 음식점 등 총 27개에 적용 가능한 실내 공기질 개선 기술개발을 최대 1년간 2.5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총 43개 과제, 103억 원 중, 중소기업 분야에 10과제 23억원, 생활밀착공간 분야에 33개 과제, 80억원을 지원하였다.

12) 예비가젤형 기술개발사업

고성장 기업은 매출수출고용이 빠르게 성장하여 국가 경쟁력 및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국내 고성장 기업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에, 저성장 구조 탈피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후보군인 예비가젤형 기업이 고성장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신설되었다.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에서 20% 미만까지 성장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의 품목 중 향후 고성장이 유망한 품목(예비가젤형 기업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2년간 6억원까지 지원한다.

2020년 총 50개 과제에 75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고성장 기업 지원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표 N-4-1-20 | 연도별 예비가젤형 기술개발사업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개)

구분	지원과제수	지원액(억원)
2020년	50	75

13)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사업

지역중소기업, 조합, 대학·연구기관 등이 기술교류를 통해 지역중소기업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수요기술의 개발 및 보급·확산을 목적으로, 2019년 신설되어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컨소시엄(지역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 조합(합단체))을 구성하여 권역별(8개 권역 : 서울경가인천, 강원, 광주전남제주,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부산울산경남, 전북, 충북)로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1단계(과제기획), 2단계(공동수요기술 R&D), 3단계(사업화 R&D 및 보급·확산)로 단계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 64개 기업에(과제기획 44개, 공동수요기술R&D 22개) 과제기획 및 R&D를 지원하였다.

표 4-1-21 | 2020년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액원, 개)

구분	2020년	
	지원 금액	지원 과제 수
합계	83	64
1단계 과제기획	13	42
2단계 공동수요기술 R&D	50	22

* 3단계의 경우 2021년 2단계 완료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선정 후 지원예정

14)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 사업 지원

대학에 구축된 기술개발 인프라들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산학협력 거점으로 개발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역량향상을 견인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은 사업기간 동안 5개 권역의 거점대학 연구실에 1인 이상을 파견하고, 운영기관은 실협실·연구인력·장비·기술이전·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동 사업은 2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 중소기업 기술역량분석, 2단계 맞춤형 R&D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거점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R&D 3단계에 대하여 맞춤형에 대한 지원을 진행한다. 2020년도 신규 추진되었으며, 2022년도 종료된다.

표 N-4-1-22 | 운영기관별 참여기업 신청 및 선정 현황

(단위 : 개)

구 분		1단계 (기술 역량분석)			2단계 (맞춤형 R&D 수행)			
		신청	지원	경쟁률	추천	신청	지원	경쟁률
수도권	한국산업기술대학교	146	60	2.9:1	25	25	15	1.7:1
중부권	한밭대학교	91	58	1.6:1	25	25	15	1.7:1
대경권	금오공과대학교	54	40	1.4:1	25	25	15	1.7:1
동남권	창원대학교	58	46	1.3:1	25	25	15	1.7:1
호남권	전북대학교	63	52	1.2:1	25	25	15	1.7:1
합 계		411	248	1.7:1	125	125	75	1.7:1

① 기술역량분석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의 확보의 중요성 인지 및 기술개발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커지고 있으나, 중소기업 자체적인 기술개발 기획과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운영기관(대학)은 산학협력R&D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문가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맞춤형 지원전략을 기획을 지원하였다.

표 N-4-1-23 | 중소기업 기술역량분석 추진실적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20	2021	2022
기술역량분석(1단계)	과제수	246	-	-
	금 액	4	-	-

② 맞춤형 R&D 지원프로그램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음에도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연구개발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의 중소기업이 많다. 따라서 1단계에 수립된 맞춤형 지원계획을 참여기업 파견인력과 운영기관의 과제책임자를 중심으로 종합 지원하여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기업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N-4-1-24 | 연도별 중소기업 맞춤형 R&D 지원 추진실적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20	2021	2022
맞춤형 R&D 지원(2단계)	과제수	75(산규)	75(계속)	75(총요)
	금 액	56	112	56

15)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국가별 인증제도는 과거 미국이나 EU, 일본 등 선진국의 전유물이었으나 최근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들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국민의 안전과 산업보호를 위해 표준, 기술규정 등 무역기술 장벽을 경쟁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확보를 통한 수출동력 향상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성장환경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출제품이 해외시장에서 유통·판매되기 위해서는 해당시장이 요구하는 특성 및 생산방법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시장 진입의 선결조건이지만, 우리 중소기업은 해외시장 진입 시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의 기술적 목표달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소기업이 제품 생산 전 타겟 국가의 인증 및 규격에 적합한 기술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수출을 위한 추가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2020년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이 신설·추진되고 있다.

동 사업은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신제품 또는 기존제품의 타겟국가의 해외인증을 철저히 준비하여 수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제품 수출시 필요한 타겟 국가의 인증에서 요구하는 스펙에 적합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연계 지원한다.

2020년 총 72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93개 과제들 대상으로 과제당 최대 1년간 1.5억원을 지원하여 해외인증 취득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확대 및 사업화 성공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N-4-1-25 | 2020년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지원실적

(단위 : 개, 억원)

구분	신청과제	지원과제	지원금액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314	93	69.8

향후 성과확산을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과의 연계지원을 통해 동 사업 신청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연속성 있는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16)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제조기반 중소기업에 필요한 AI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0년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을 시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제품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여 기업의 혁신과 신제품 기술개발 창출이 가능한 기술을 중점 선정·지원 하였으며, 고객에게 새로운 제품을 제공하려는 기업의 니즈(고부가가치화)에 중점을 두어 최대 1년간 3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고부가가치 제품과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가치를 창출하고 시장지향적인 제품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총 77개 과제, 149억원을 지원하였다.

17) 빅데이터기반 서비스개발사업

민간 및 공공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의 신산업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0년 '빅데이터기반 서비스개발사업' 을 시행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자사 보유 데이터 포함) 및 공공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통해 데이터 수집·분석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완성도 높은 서비스 개발을 위해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신산업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0년에는 총 53개 과제, 625억원을 지원하였다.

18)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정부에서는 유라시아 역내 국가와 과학기술협력을 통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신북방 정책을 발표('17)하며, 러시아 및 인근국가와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주도의 혁신성장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협력 사업으로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을 '20년부터 신규 추진하였다.

① 상용화기술개발

신북방 국가의 혁신원천기술과 우리 중소기업이 강점을 가진 ICT·제조기술을 접목하여,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기술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현지의 핵심 기술을 국내 중소기업이 기술이전을 통해 도입한 후 후속 기술개발을 하는 공급기술 개발형과 현지에서 제안한 수요기술·제품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개발을 하는 수요 기술개발형으로 구분된다. 지원대상은 기술협력 대상국의 기관 또는 기업으로부터 기술협력 의향서를 확보한 중소기업이며, 최대 2년 간 4억원을 지원한다.

② 상용화지원기관

중소기업이 타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신북방 국가와의 기술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네트워크를 보유한 상용화지원기관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러 혁신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사업 참여희망 중소기업과 현지 기관 또는 기업 간의 기술협상, 의사소통, 기술 도입 및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한다.

동 사업은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며 러시아부터 시작하였으나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협력 수요를 고려하여 기술 선진국 등으로 기술협력 대상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19)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지원

① 수요기반 기술이전

2019년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19년,7월) 한국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정부는 공급 다변화 및 조기 국산화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동 사업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와 공급지 다변화를 통해 단일 국가에 대한 높은 해외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 기획되어, 2020년부터 기술이전 플랫폼인 Tech-Bridge를 통해 대학·연구소의 공공기술의 기술이전을 연결 해주고, 공공 R&D성과물의 이전부터 기술개발, 사업화 금융지원까지 One-Stop 패키지로 연계 지원하는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중소기업이 우수한 공공기술 이전을 통한 혁신성장과 이후 조기 국산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2년 이내, 8억 원 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부장 핵심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정공모로 지원하고 있다.

표 IV-4-1-26 | 지원 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료 비율	지원방식
수요기반 기술이전	최대2년, 8억원 이내	75%	지청공모

소부장 분야의 품목에 부합하는 RFP의 기술수요조사 및 과제기획을 통해 20년도 280여개의 RFP를 발굴하였으며, 평가절차를 통해 2020년 1차 31개, 2차 19개, 총 50개 과제를 선정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였다.

표 IV-4-1-27 | 2020년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개, 억원)

구분	신청과제	지원과제	지원금액
1차	70	31	89
2차	38	19	36

21년도 지원을 위해 200여개 RFP를 추가 발굴하였으며, 해외의존도 탈피 및 국산화 시급성이 높은 기술개발 과제를 신규 지원하고 우수한 공공기술 이전과 함께 공동연구를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

4차 산업혁명 및 스마트공장으로 인한 초지능·초연결 기반의 제조 산업 혁신을 위한 가장 일차적인 선행기술은 데이터의 생성을 담당하는 센서 산업이다.

센서는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과 결합하여 스마트공장, 로봇,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핵심 선행기술이다.

하지만 급성장하는 IoT 및 지능화 시장에 비해, 국내 센서 산업의 시장규모는 세계 시장을 1.6%,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64%로 경쟁력이 낮아, 센서 수요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혁신의 일환으로 22년까지 3만개의 스마트공장의 보급을 지원 중이다. 스마트공장 확산과 IoT 적용의 증가로 센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예정으로 국내 산업의 강점을 활용하여 센서의 국산화와 산업의 부가가치의 제고가 필요하다.

이에 제조산업의 지능화와 미래 신산업에 필수적인 스마트센서의 개발을 위해 2020년부터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하여 제조현장에 적합한 스마트센서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사업은 고부가가치 스마트센서 기술개발을 통해 스마트제조혁신의 핵심 부품과 솔루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현장의 고온·다습·민지 등의 환경에서 고신뢰성의 데이터 취득 및 저장·통신·자동보정·자가진단을 구현하는 스마트센서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미세한 신호를 감지하고 노이즈 캔슬링 등 신호일화를 방지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고신뢰성 데이터 취득이 가능한 센서를 개발하고, 취득한 데이터의 저장·전처리(보정)·분석·진단하여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센서의 지능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최대 2년간 6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80%내에서 지원한다.

표 N-4-1-28 | 지원 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제조현장맞춤형 스마트센서	최대 2년, 6억이내	80%	자유응모

표 N-4-1-29 | 2020년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지원 금액	신청 과제 수	지원 과제 수	성립률
제조현장맞춤형 스마트센서	45	124	21	6.2:1

2021년에는 다종의 센서를 융·복합하고 AI, 빅데이터 기술을 융합하여 고부가가치의 정보를 생산하는 지능화 개발의 지원을 강화하고, 제조업 현장에 적합한 센서 개발을 위해 현장상황을 반영한 평가체제를 도입하여 수요부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의 ICT, 시스템 반도체 역량을 결합하여 외산 의존도가 높은 산업용 센서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생산 현장에 바로 적용 할 수 있는 센서 부품·솔루션의 확산을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정부는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의 보급과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다. 2019년 까지 스마트공장 보급수준은 기초 단계가 79%로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단계로 이르는 공급기술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마트공장에서 생산 되는 데이터의 저장 공간 및 관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솔루션의 확보를 통해 스마트공장의 고도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조업 종사자의 연령이 갈수록 고령화 되고 청년의 제조업 기피로 인해 제조 공정 숙련자의 노하우 단절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숙련기술인의 보유기술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전수할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의 생산성향상의 도모가 필요하다.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은 제조데이터의 활용능력 및 관리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생산 현장에서 바로 적용가능한 스마트공장 솔루션의 상용화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내 제조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솔루션을 개발하고, 생산현장의 노하우를 디지털화 하여 스마트공장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한다.

표 N-4-1-30 | 지원 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비율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클라우드기반 데이터플랫폼 개발	최대 2년, 6억이내	80%	자유응모
K-엠시스트기술개발			

표 N-4-1-31 | 2019~2020년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지원 금액	신청 과제 수	지원 과제 수	경쟁률
2019년	36	67	19	3.5:1
2020년	117	102	33	3.1:1
합계	153	169	52	3.3:1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은 2022년 일몰예정으로 2021년부터는 2019년과 2020년에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의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개발 및 현장 노하우 데이터의 축적·분석·활용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의 제조혁신 및 관련 산업의 성장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22)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사업은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제조현장 스마트화,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위한 제조기술융합센터 및 테스트베드 구축을 목적으로 2020년 신설되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력산업의 중소기업 제조현장과 연계하여 클라우드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및 제조기술융합 분석서비스 제공과 제조현장에 적용가능한 DNA(Data, Network, AI)기술 도입, 제조데이터 저장·분석·수집을 통한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제조기업의 핵심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 등 핵심 성과지표(KPI) 향상을 위해 수행되고 있다.

2020년에 총 35.7억원(국비 14억, 지방비 21.7억)의 예산으로, 지역 주력산업 특화 연계 테스트베드 구축과 제조기술융합센터 건축을 지원하였다.

표 4-1-32 |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현황

구분	구축내용
주력산업 특화연계 테스트베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공정 스마트화 및 분석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 구축 - 시 기반 비전검사 시스템 구축 (1종) - 클라우드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1종) *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로깅관리 -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관리 장치 도입 (1종) - 설비데이터 수집 장비 도입 (1종)
제조기술융합센터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기술융합센터 신축 - 제조기술융합센터 신축 부지* 확보(5,000㎡) * 충남 R&D집적지구 2차 부지 확보(충남 보령시 서북구) - 제조기술융합센터 신축 기본계획** 수립 ** 지상 8층, 지하 1층 연면적 기본계획(기본계획 : 214, 실시설계 : 211, 적용 : 222, 환공 : 234)

23) 제조데이터 공동 활용플랫폼 기술개발

제조업은 코로나-19위기 국면에서 국내 성장둔화 최소화 및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였다.

향후,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및 “V자 반등” 시현 등 강한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용 인공지능 기술 확보·확산을 지원하는 등 사업을 2021년 신규로 기획하였다.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은 제조 현장에서 다수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공동활용모델 개발을 위해 연구소·대학의 전문인력과 중소기업의 공동 R&D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표 N-4-1-33 |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개)

구분		2021	2022	2023	합계
지원 과제수	신규	6	6	-	12
	계속	-	6	6	12
지원 예산		4,544	11,276	7,122	22,942

세계 산업용 인공지능 사용량이 많은 11개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기술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총 45개 기술 품목을 접수하였다. 기획위원회 → 경제성 분석 → 의견수렴 등 과제기획 절차를 통해 우선적 추진이 필요한 5개 분야, 6개 전략 품목을 도출(7:5:1)하여 사업에 착수하였다.

표 N-4-1-34 | 세계 산업용 인공지능 상위 11개 기술 및 지원계획

구분	2021	2022
지원 품목	①예지보전, ②품질보증, ③생산공정 최적화, ④공급망 최적화, ⑤디지털트윈	⑥시뮬레이션, ⑦자원최적화, ⑧데이터 자동관리, ⑨스마트작업보조, ⑩공정자동화, ⑪스마트유지보수

* (출처 : Industrial AI Market Report 2020-2025 & ResearchGate, 2019.10월) 향후, R&D를 통해 개발된 우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환경 등은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AMP)에 탑재하여 중소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제조업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

나.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1) 스마트공장 보급확대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경쟁력 향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크게 신규구축과 고도화로 구분되며, 신규구축은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을 지원하고 고도화 사업은 기 구축된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 및 연동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솔루션은 현장 자동화(센서, 컨트롤러 등),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MES : 제조현장운영시스템), 제품개발(PLM), 공급사슬 관리 최적화(수요예측, 생산계획수립 등), 기업자원 관리(ERP) 등으로 구분된다.

'18년부터는 대기업중소기업이 협력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주도의 스마트공장 구축이 확대되었으며, 정부 지원 기업수도 '19년도 2,820개 지원에서 '20년도 4,730개 지원으로 68%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N-4-1-35 | 민간·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현황

(단위 : 억원, %, 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	2020	합계
민간	133	304	546	525	679	1,937	2,409	6,533
정부	144	659	1,014	1,678	2,221	2,820	4,730	13,266
합계	277	963	1,560	2,203	2,900	4,757	7,139	19,799

2) 정부주도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정부주도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02년부터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14년-)과 지역특화산업육성('15년-)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어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였다.('17.7)

'20년도는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통해 정부에서 4,730개를 보급하였다.

표 N-4-1-36 | 정부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실적(중소벤처기업부)

(단위 : 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개)	-	308	649	1,218	2,127	2,820	4,730
생산현장디지털화(개)	144	137	147	193	-	-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개)	-	37	58	48	84	-	-

*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은 '16년부터,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은 '19년부터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으로 통합

'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지원금을 신규 구축은 최대 1억 원, 고도화 과제는 최대 1.5억 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 및 운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퇴직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지도·상담도 지원한다.

3) 민간주도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민간주도의 대표적인 사업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으로서 '20년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18개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총 262.5억 원을 출연하여 1,000개 기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년부터는 민간의 자발적 스마트공장 구축을 유도하고 스마트공장 고도화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수준확인 기관을 통해 '19년 914개, '20년 1,409개 등 총 2,323개 기업의 스마트공장 수준을 확인하였다.

4) 스마트공장 보급 성과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은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생산성은 28.5% 향상되었고, 불량률은 42.5% 감소, 원가는 15.5% 절감, 납기는 16.4% 단축되었다.

표 IV-4-1-37 : 스마트공장 지원 성과('14~'18년 7,903개 지원기업 대상)

(단위 : %)						
지 표	생산성	불량률	원가	납기	비율	고용
성 과	28.5%↑	42.5%↓	15.5%↓	16.4%↑	7.4%↑	2.6명↑

특히,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은 매출이 7.4% 증가하면서 고용도 평균 2.6명이 증가하여 제조 경쟁력 확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은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통해 산업재해율도 6.2%가 감소하는 등 근로환경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사례(아산유니텍)



우수사례(태광산업)



우수사례(오성전자)

5)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AMP) 구축

-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①제조 데이터 저장·분석 인프라, ②인공지능 개발·활용 도구, ③인공지능 데이터셋과 표준모형, ④상용화된 인공지능 제조 서비스(솔루션), ⑤전문가 컨설팅·실증과 교육 서비스 등 제공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22) 추진을 통해 스마트공장 지면이 확대되고,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97%가 제조데이터를 수집·저장하는 등 제조데이터의 활용 기반은 마련되었다.

특히,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89%가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해 제조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있으나, 인프라 미비·전문인력 부족 등 현실적 문제로 개별 중소기업이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미분석 사유('19.7): (1위) 데이터·AI 인프라 미비(91.3%), (2위) 데이터 장비·솔루션의 가격 부담(24.2%), (3위) AI 전문인력 부족(14.5%)

이에, 중소기업도 제조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 고도화된 인공지능 스마트공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동 사업을 2020년 신규 기획하였다.

-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 ('20) 116억 → ('21) 134억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은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AMP)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 인공지능 분석 도구, 인공지능 데이터셋, 교육 동영상, 전문가 컨설팅·기술도입(실증)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 KAMP 서비스 포털 홈페이지 메인화면



* KAMP 인프라 신청 화면

KAMP는 구축 초기 단계(2012오픈)임에도 인공지능 제조 컨설팅 및 실증 지원을 통해 100개 공장의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해결했으며, 업계가 주목할 만한 우수사례도 다수 창출하였다.

- * (엔티로조社) 인공지능으로 콘택트맨즈 가공공정 최적화: 도수 직중률 70→99%
- * (조선내회社) 내하물 품질검사에 인공지능 도입: 불량 판정 신뢰도 90→99% 향상 등

표4-4-38 | 2020년 인공지능 제조 컨설팅 및 실증 연계 지원과제 현황

(단위: 개)

구분	신청과제	신청과제	지원과제
도입기업	100	143개	100

2021년에는 실증성과, R&D 결과물 등 우수 인공지능 솔루션을 유통·활용할 수 있는 엡스토어를 운영하고, 이를 스마트공장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인공지능 제조 성과를 증소제조업 전반으로 확산에 나갈 계획이다.

다.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2017년 발표된 ICT 발전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76개국 중 2위(아이슬란드 1위, 미국 16위, 일본 10위)를 기록하였고, 세계경제포럼(WEF)의 네트워크준비지수에서는 2016년 조사대상 139개국 중 13위(싱가포르 1위, 미국 5위, 일본 10위)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IT 인프라의 보급 및 구축 수준에 비해 IT 활용 및 이를 통한 효과나 성과측면에서는 다소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화에 대한 접근도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지만 잘 갖춰진 IT 인프라를 경제발전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정확한 상황파악을 통해 중소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연 결시키기 위하여 2000년부터 매년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조사를 실시해 왔다.

2020년에는 총 4,600개 기업(중소기업 4,000개, 대기업 300개, 지원기업 300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정보화수준은 70.81점(100점 만점)으로 대기업 (78.18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중소기업 공통적으로 정보화 수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세부 분야에서는 '구축완료'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고, '전략 수립'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고 대기업과의 격차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N-4-1-39 : 중소기업 분야별 정보화 수준(100점 기준, 2020년)

구 분	정보화수준	전략수립	추진환경	구축완료
대 기 업	78.18 (기업간행력)	90.21	73.62	69.82
중소기업	70.81 (기업간행력)	84.00	67.74	61.91

- * 정보화 발전단계 : 정보화 도입 → 단위 정보화 → 기업 내 통합 → 기업 간 협력 → 전략적 혁신
- * 자료 : 중소기업부

표 N-4-1-40 | 연도별 정보화 수준(100점 기준)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대 기 업	72.78	72.92	75.48	77.37	78.18
중소기업	59.97	61.05	67.15	68.73	70.81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생산성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1년부터 경영·생산 현장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다양한 정보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사업이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보화를 위한 지원사업이다.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사업은 특정 업종이나 단체별로 공동사용이 가능한 맞춤형 솔루션과 다수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발굴·개발하여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급하는 지원사업으로 초기 정보시스템 구축비 및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정보화비용 감축 효과 달성은 물론, 시공간에 자유로운 접근성,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활용을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다. 2020년 12월 말 기준 대·중소기업간 정보화 격차 해소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 77개의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우리 중소기업들이 국내 대기업과의 정보화 격차를 줄여 나가고,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도 뒤처지지 않는 정보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 N-4-1-41 : 연도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실적

(단위 : 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구축	7	14	7	4	10	14	12	9

제5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

일반현황

중앙회는 2000년 8월 설립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등 시민을 위한 보증지원 전문 기관으로서 다양한 특례보증 및 맞춤형 보증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신보를 통해 총 632만건, 150.1조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였으며, 시민의 자금애로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보증공급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하여 총 28조 5,069억원 공급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인 재난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지원 보증을 포함하여 「스마트 소상공인 특례보증」, 「영세관광사업자 특례보증」, 「교육서비스 협약보증」, 「초저금리Ⅲ 협약보증」 등 총 11개의 특례보증을 시행함으로써 보증대상별 맞춤 지원과 보증대상 확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과 시민의 금융파트너로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행복 추구에 기여하기 위해 '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 '사회적 가치 실천 금융', '도전적 창업 생태계 조성', '경쟁력 있는 지역보증제도 구축'으로 구성된 4대 전략목표에 따라, 12대 전략과제를 추진하는 등 시민전문 보증지원기관서의 지위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특히, 소기업·소상공인에게 2020년 보증공급 중 업체수 기준 99.8%(1,100,645건), 공급액 기준 99.9%(282,991억원)를 지원하는 등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앙회는 기관의 미션 및 비전 달성을 통해 더 나은 소상공인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

사업별 추진실적

가. 경제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탄력적 보증지원

1)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증지원 강화

2020년 지역신보는 국내경제 안정화를 위해 28조 5,069억원의 보증을 공급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 최고의 소상공인 전문 지원기관으로서, 전체 보증공급의 96.4%인 27조 4,735억원을 소상공인에게 집중적으로 공급하였다.

표 N-5-1-1 | 연도별 총 보증공급 대비 소상공인보증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총 보증	소상공인보증	비 중
2015	업체수	448,844	441,160	98.3%
	금액	100,386	94,755	89.1%
2016	업체수	464,329	456,504	98.3%
	금액	111,849	100,564	89.9%
2017	업체수	478,419	470,643	98.4%
	금액	116,229	105,476	90.7%
2018	업체수	497,304	489,287	98.4%
	금액	120,743	111,774	92.6%
2019	업체수	570,247	557,195	97.7%
	금액	140,239	126,202	90.0%
2020	업체수	1,102,797	1,086,273	98.7%
	금액	265,069	274,735	96.4%

보증공급 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8조 3,730억원으로 총 보증공급 28조 5,069억원 중 29.4%를 차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주요 업종인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순으로 지원되었다.

표 N-5-1-2 | 업종별 보증공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기타*	계
2019	18,305	24,458	32,569	44,121	20,786	140,239
2020	29,604	61,832	69,552	83,730	40,351	285,069
비중	10.4%	21.7%	24.4%	29.4%	14.2%	100%
총합	11,299	37,374	36,983	39,639	19,565	144,830

주)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보증금액별 보증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3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액 비중이 68.9%로 나타나 보증수혜 고객의 과반이상이 소액보증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수의 보증이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N-5-1-3 | 금액별 보증공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3천만원이하	5천만원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계
2019	81,906	34,154	14,258	9,921	140,239
2020	196,489	56,567	24,096	7,917	285,069
비중	68.9%	19.8%	8.5%	2.8%	100%
총합	114,584	22,413	9,838	△2,004	144,830

지역신보의 주된 보증대상은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공급비중은 96.4%로 전체 보증공급 대상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보증공급이 중소기업에 비해 소상공인에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N-5-1-4 | 기업규모별 보증공급 금액

(단위 : 억원)

구분	소상공인	중기업	대기업	계
2019	126,202	11,845	2,192	140,239
2020	274,735	6,257	2,077	285,069
비중	96.4%	2.9%	0.7%	100%
총합	148,533	△3,588	△115	144,830

2) 주요 특례보증 제도시행

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신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를 회복하기 위한 긴급 유동성 지원

- 대상기업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정책자금을 별도 배정받은 기업
- 시행시기 : 2020년 2월
- 지원한도 : 최대 7천만원 이내 운전자금
- 공급실적 : 320,173건, 8조 7,581억원 (2020년말 누계 기준)

나)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신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인해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유동성 지원

- 대상기업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시행시기 : 2020년 9월
- 지원한도 : 최대 1천만원 이내 운전자금
- 공급실적 : 6,704건, 676억원 (2020년말 누계 기준)

다) 소상공인·지역업자 특별금융지원III(신규)

경기회복 지연 및 금융비용 부담 등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 저금리 자금지원으로 금융비용 절감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 후 가동중으로 대표자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인 기업
- 시행시기 : 2020년 1월
- 지원한도 : 최대 3천만원 이내 운전자금
- 공급실적 : 257,973건, 8조 8,428억원 (2020년말 누계 기준)

라) 영세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하여 관광기금 융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관광업계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경영안정 도모

- 대상기업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로서 대표자의 개인신용등급이 1-8등급인 중소기업
- 시행시기 : 2019년 5월
- 지원한도 : 1억 5천만원 이내 운전자금
- 공급실적 : 2,167건, 1,076억원 (2020년말 누계 기준)

마) 코로나19 피해 극복 등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보증(신규)

코로나19 확대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경영예보를 꺾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 및 국민은행 소호컨설팅과 연계한 금융 지원

- 대상기업 : 코로나19 피해기업과 국민은행 KB 소호컨설팅 연계기업(트랙별 구분)
- 시행시기 : 2020년 2월
- 지원한도 : 최대 5천만원 이내 운전자금
- 공급실적 : 1,378건, 349억원 (2020년말 누계 기준)

바) 교육서비스 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보증(신규)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경영예보를 꺾고 있는 교육서비스업 영위기업(교습학원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공급

- 대상기업 : 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대표자의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
- 시행시기 : 2020년 3월
- 지원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운전자금
- 공급실적 : 1,238건, 377억원 (2020년말 누계 기준)

사)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신규)

ICT환경, 소비트렌드 등 소상공인을 둘러싼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혁신하는 스마트 소상공인 육성 도모

- 대상기업 : 스마트 기술을 보유하거나 이용 중이며, 대표자의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
- 시행시기 : 2020년 8월
- 지원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운전자금
- 공급실적 : 1,342건, 288억원 (2020년말 누계 기준)

아) 외식업 자영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음식업종 영위 소기업·소상공인 중 사업성과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특별 금융 지원을 통해 경영예보 해소 및 내수경제 활성화 도모

- 대상기업 : 음식점업 사업자등록 후 가동중으로 대표자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이고 (2보충신청 접수일 현재 업력 1년 이상으로, (사)한국외식업중앙회로부터 본 협약보증을 추천 받은 개인사업자
- 시행시기 : 2019년 8월
- 지원한도 : 5천만원 이내 운전자금
- 공급실적 : 642건, 168억원 (2020년말 누계 기준)

재) 여성기업 금융지원 협약보증

여성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을 통해 여성 경제인 경영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및 실재경영자가 모두 여성으로서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며, 기보의 「여성기업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거래가 없는 기업
- * 시행시기 : 2018년 10월
- *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운전자금
- * 공급실적 : 858건, 212억원 (2020년말 누계 기준)

차)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안전망 서비스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하고 사회통합 지원

- * 대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 국인기초생활보장법 의한 자활기업
- * 시행시기 : 2018년 2월
- * 지원한도 : 4억원 이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 공급실적 : 1,038건, 494억원 (2020년말 누계 기준)

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재해 피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에 대하여 최대 2억원까지 신속한 보증지원으로 경영정상화 도모

- * 대상기업 :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파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 * 시행시기 : 2005년 12월
- * 지원한도 : 2억원 이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 공급실적 : 10,202건, 4,210억원 (2020년말 누계 기준)

타)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장애인의 창업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성장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

-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중인 장애인기업
- * 시행시기 : 2008년 7월
- *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 공급실적 : 5,487건, 1,566억원 (2020년말 누계 기준)

3) 코로나19 피해극복과 정부정책을 반영한 맞춤형 보증지원

중앙회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매출부진, 고정비용 부담 등 경영으로 상황에 직면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보증공급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하여 총 28조 5,069억원을 공급하였으며 정부·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선별적 지원이 필요한 보증대상을 발굴하고 적극적 지원을 가능케 하는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시행하였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특례보증」을 시행하였다. 2월 이후 코로나19 피해규모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지원규모를 당초 1천억원에서 8조 6천억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동 특례보증 지원 시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사업장 현장실사 간소화, 신속심사제도(fast-track)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빠른 보증공급을 위해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금융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기업은행과 초저금리를 협약보증(고정금리 1.5%)을 시행하였다. 특히, 2월초부터 급증한 보증신청 심사적체를 해소하는 등 협약보증의 전 과정을 위탁보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였다. 또한, 최초시행 공급목표였던 5,000억원이 조기 마감됨에 따라 보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6.8조원으로 보증공급을 확대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청의 휴원 권고에 따라 경영예로를 겪고 있는 교육서비스업 영위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위한 「교육서비스 협약보증」을 시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관광업이 위축됨에 따라 경영난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관광사업자 지원을 위한 「영세관광사업자 협약보증」 총 지원규모 300억원을 1,100억원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이외에도, ICT환경 및 소비트렌드 등 사회 구조적 변화에 적응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특례보증」,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여주는 「착한 임대인 특례보증」 등을 시행하였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창업 활성화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지원을 위한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을 450억원(누적)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취급금융회사 확대(신협, 새마을금고 추가)로 사회적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나. 고객편의 제고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

금융환경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고객 및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수요자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신속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

일정금액 이하 소액보증에 대해서는 심사항목을 간소한 신속심사제도(Fast-track), 신용과 업력이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특정업종(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현장실사 생략, 보증수요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보증상담·접수·약정)제결, 위탁보증 제도 등을 코로나19 피해 지원 상품에 반영함으로써 적기에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2) 창업환경 조성을 위한 유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 도입

사전보증제도를 통해 사업필요자금과 보증지원 가능금액을 미리 예상하고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창업자금을 즉시 받을 수 있어, 창업 초기에 겪는 자금조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창업교육·컨설팅을 이수하거나 지식재산권 보유 예비창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정함으로써, 고객으로 하이급 보다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3) 보증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재해피해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 운영을 위한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을 재해 발생일 이후 사업자등록 기업일지라도 특별재해의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재도전 특례보증」의 지원규모, 지원요건 완화, 보증한도 상향 등을 통해 재기의지가 있는 채무자에 대한 희생 지원 강화 하였다.

4) 창업리스크 경감을 위한 연대보증면제 확대

법인기업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함으로써, 원활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3차에 걸쳐 업무처리방법을 개정하였다. 1차 개정의 경우 이행약정을 위반한 면제인에 한하여 관련인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연대보증 면제자가 무분별하게 관련인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개선하였으며, 2, 3차 개정의 경우 기존 연대보증입보부 보증의 비보증분에 대한 금융회사의 연대보증 면제를 위한 특약을 부여하였다. 또한, '20년에는 법인기업과 더불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개인기업의 연대보증도 전면 폐지하였다.

5) 채무자 원금감면 범위 확대로 재기지원 도모

중앙회는 채무자에 대한 원금감면 범위를 최대 30%까지 확대함으로써 신용경색 채무자에 대한 재기지원을 도모하였다. 개정 전의 경우 감면등급(A-D)에 따라 30%~60%까지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후 40%~70%까지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 적용범위를 기존 6개 분류에서 10개 분류(상이등급판정자, 한부모가족, 다자녀부양자, 미성년자 추가)로 확대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였다.

다. 효율적인 재보증제도 운영

1) 재보증제도의 정책기능 강화

중앙회는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및 재기지원 등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 중점지원사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시행하였으며, 특례보증의 재보증비율을 상향(50%→60%)하여 지역신보 보증공급 확대를 유도하였다.

특히, 정부의 코로나19 위기극복 정책이행을 위해 '20.2월 시행한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7.6조원)"의 경우 재보증비율을 60%(1~6등급), 80%(7~10등급)로 이원하여 운영하였으며, 피해가 컸던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재보증비율 80%까지 상향하여 별도의 특례보증(6천억원)을 운영하였다.

2)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재보증한도(잔액)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보증수요 대응을 위해 선제적인 재보증한도(잔액) 확대조치를 시행하였다. 소상공인의 급격한 자금경색에 대응(긴급자금 지원)하기 위해 보증한도가 당초 25.5조원에서 43.27조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보증공급 규모도 16.7조원에서 32.57조원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추경(1.3차) 및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한 선제적 조치로 재보증한도(잔액)를 당초 14조원에서 24조원까지 확대하였다.

라. 보증수요 폭증에 따른 IT인프라 구축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탁보증 시스템 구축 등 전산서비스 지원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보증수요 폭증(일평균 접수건수 14.8배 증가)과 이로 인한 시스템 사용량 급증(일평균 거래건수 1.6배 증가)에 따라 정보화 서비스를 통한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였다.

보증수요 급증에 따른 자금지원 병목현상 발생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신보 방문 없이 원스톱(금융회사 방문만으로 보증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으로 지급 지원이 가능한 위탁보증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정부정책의 이행과 즉시 보증지원 정책을 위해 적극적인 시스템 개선작업을 진행하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해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을 지원하였다.

또한, 급격한 정보시스템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운영환경 마련을 위해 서버 증설 및 통신환경 개선 등 IT인프라 고도화를 수행하였다.

2) 신보중앙회 및 지역신보 공동발전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업무절차의 혁신, 정부·지자체 및 지역신보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현행 정보시스템 진단·분석 등을 통해 미래의 정보화전략 및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비대면 보증시스템 구축, 디지털강구 시스템 구축 등 15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신보중앙회 및 지역신보 선진 정보화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대규모 정보화사업 투자 리스크 감소 및 사업 추진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3) 비상상황을 대비한 재해복구센터 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

재해·재난 등으로부터 업무손실 최소화 및 안정적인 업무환경 확보를 위해 전문 IDC(경기도 평촌)에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하였으며, 재해복구절차 수립 및 비상 상황을 가정한 두 차례의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소기업부 사이버안전센터 및 자체 보안관제시스템 상시 운영을 통해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이버위기 대응 통합모의훈련 실시 등을 통한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였다.

정보시스템 취약점 및 지역신보 정보보호 실태점검을 통해 정보보안 미비점을 개선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을 통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운영현황

신용보증재단은 신용상태가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하여 원활한 자금유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공익법인이다. 주요 업무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경영지도, 기본재산의 관리, 구상권의 행사 등이며,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16개의 신용보증재단에서 156개 본·지점이 운영되고 있다.

표 N-5-1-5 | 지역재단의 지점 수 현황(2012년 기준)

(단위 : 개)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7	26	13	11	7	7	2	8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청	충북
27	5	7	11	8	3	7	6

1) 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속적인 신용보증지원을 위한 보증재원이며 적정한 대위변제를 위한 준비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금융기관의 출연금, 기타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다.

표 N-5-1-6 |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단위 : 억원)

구분	출연현황				이월 이익금 (B)	기본 재산 (A+B)
	지방재	상부	금융기관 등	계시		
2020년	26,395	7,878	26,923	60,195	△17,168	43,028

2) 지역재단의 신용보증지원 현황

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2020년 보증공급은 28조 2,705억 원, 보증잔액은 38조 7,26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보증잔액의 영향으로 1.9%대의 비교적 낮은 보증사고율을 기록했다.

표 N-5-1-7 | 신용보증재단 운영 현황

(단위 : 건, 억원, %, 배)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보증 공급	건 수	1,080,201	536,708	497,304	476,418	464,329
	금 액	282,706	136,475	120,743	116,229	111,849
보증 잔액	건 수	1,629,796	1,018,259	1,036,658	984,378	910,613
	금 액	387,263	221,865	204,808	191,673	179,713
보증 사고 수준	건 수	32,864	38,294	45,401	39,526	36,407
	금 액	5,948	6,371	6,424	5,834	5,149
	사고율	1.5	2.9	3.1	2.9	2.87
대위 변제 수준	건 수	26,621	28,473	32,947	29,116	26,189
	금 액	4,458	4,564	4,260	3,522	3,160
	변제율	1.2	2.1	2.08	1.84	1.76
운영배수		9.8	6.5	5.8	5.5	5.1
기본재산		40,213	33,897	35,387	34,977	34,970
재단 수		16	16	16	16	16

* 맞실론 제외

제6장

창업진흥원

1

일반현황

창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창업진흥전담조직(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 의거)으로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기반 창업을 촉진시켜 창업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8년 12월에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로는 청소년 및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교육,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및 국내외 진출지원, 창업자를 위한 자금·인력·판로지원 및 정보제공, 창업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 창업실태 통계조사 및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조직은 4본부 20부(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예산은 9,887억 원으로 창업 지원 확대, 창업사업화 지원, 민관협력 창업자 육성, 창업생태계 기반구축 등을 통해 유망한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년에는 창업 준비부터 도약까지 전주기 창업지원을 통해 8,773개의 창업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10년간 총 4.8만여개의 유망 기술 창업기업을 육성 하였다. 또한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약 241만 명(20년 기준)에게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창업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창업저변확대

1) 청소년 비즈쿨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대표적 사업인 비즈쿨(Bizcool)은 학교(School)내에서 경영(Business)을 배운다는 의미의 합성어로 기업가정신 함양 및 모의 창업교육을 통해 꿈·끼·도전정신·진취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밖 센터 등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2002년부터 시작하여 2019년 까지 총 4,278개교, 2,278천명을 지원하였다. 특히 평생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의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를 위해 2020년에는 초·중·고·학교 밖 비즈쿨 지정학교(센터) 487개 지원하였고 비즈쿨 캠프, 비즈쿨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였다.

표 IV-6-1-1 | 비즈쿨 운영실적

구분	02~12	13	14	15	16	17	18	19	20
지원예산 (억원)	216.1	45	50	60	83	76.65	76.65	76.65	62.5
비즈쿨학교 개교	1,027	135	200	412	446	513	561	495	487
창업학생수 (천명)	582	116	133	190	247	262	283	242	221
비즈쿨캠프 (명)	8,850	1,808	1,035	585	989	489	417	283	813
창업동아리 (개)	4,622	830	1,053	1,329	2,092	2,781	2,803	2,468	2,265



청소년비즈쿨 국내캠프



청소년비즈쿨 체험교육



청소년비즈쿨 페스티벌

2) 대학기업가센터

미래 예비창업자인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고취하고 융합 실천형 창업교육(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전국에 3개 대학기업가센터(30년 종료사업)를 운영하고 있다.

3개 대학기업가센터(서강대학교, 영남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창업콘텐츠 제작을 통해 우수한 창업전공강좌를 운영하여 대학생의 창업수요를 다양하게 충족시켰다.

표 N-6-1-2 | 대학기업가센터 연도별 지원성과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공강좌 수(개)	183	235	264	296	312	83
강좌수강생(명)	7,614	13,273	17,969	17,265	17,926	11,398
창업네트워킹건	243	337	558	571	496	203
콘텐츠제작건	64	68	62	58	77	18

3) 실천창업교육

실천창업교육은 핵심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비즈니스 모델 정립과 사업계획 도출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준비된 기술창업자를 육성하고자 2019년 신설되었다.

아이디어 개발 → 비즈니스모델 수립 → 린스타트업 단계별 지원을 통해 비즈니스모델 구체화와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자기주도적으로 BM 구성 요소들을 수립 및 변경해 가며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 하였다. 린스타트업 단계에서는 교육생 비즈니스모델의 핵심 기능만 최소한으로 구현하고, 잠재고객과 시장 대상으로 반응을 조사하여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였다.

표 N-6-1-3 | 실천창업교육 교육생 현황

구분	아이디어 개발 교육	비즈니스모델 수립	린스타트업 교육
2019년	3,060	1,222	323
2020년	3,267	2,413	320
총 계	6,327	3,635	643

4) 창업에듀

예비창업부터 재창업까지 단계별로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좌를 무료로 지원하는 창업에듀는 '09년 구축되어 '10년도부터 운영되어온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이다.

'16년 온라인 교육 트렌드를 반영하여 창업과 관련한 핵심 이론 및 실사례를 중심으로 핵심내용만 짧게 구성하는 강의로 신규 개편하고 스마트 기기 등에서도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였다.

창업단계별 역량 강화를 위해 수강생들이 필요한 주제별 강좌를 개발 또는 외부 기관과 제휴하였고, 사업계획서 작성, 세무·회계 등의 주제강좌 약 350개를 운영하고 있다.

표 N-6-1-4 | 창업에듀 성과현황

(단위 :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규회원	19,198	14,531	3,620	7,486	8,245	8,021	11,073	10,913	12,347	15,501	28,823
방문건수	91,414	70,740	108,601	147,716	178,460	212,693	252,775	186,932	225,663	272,916	612,966
수료생 수	3,075	17,017	34,170	54,979	56,143	27,881	40,968	161,192	303,125	300,658	694,154

개편 전('10~'16년) 평균 33,462명이던 교육 수료생이 개편 후 '19년 360,658명, '20년 694,154명(개편 전 대비 약 20배 성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편 시 도입된 기관별 맞춤형 교육서비스인 '패키지 과정'은 첫째 신청기관이 18개 기관(25개 과정)에서 '20년 182개 기관(383개 과정)으로 약 10배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표 N-6-1-5 | 창업에듀 강좌 구성예시)

(강좌 구성)

1. 인트로	2. 이론학습	3. 실무학습	4. 아웃트로
주제, 학습목표 안내	핵심이론(개념) 설명	실사례 위주의 설명	학습 내용정리
창업자 A씨의 고민 '투자유치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전문가 B교수의 강의 '투자 프로세스 및 투자유치계획서 작성법 안내'	선배창업자 C의 사례 '본인의 투자유치 사례 소개 및 노하우(Tip) 안내'	전문가 D교수의 정리 (원포인트 레슨) 'A씨의 고민해결을 위한 핵심정리'

5) 창업경진대회 등 기업가정신

가) 도전! K-스타트업

'도전! K-스타트업'은 범부처 창업경진대회로서 유망한 (예비)창업자와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창업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부터 진행해오던 '창업경진대회'가 2016년 중기부, 과기부, 교육부, 국방부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도전! K-스타트업'이란 브랜드로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점차 참여부처를 확대하여 2021년에는 총 10개 부처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창업경진대회로서 자리매김했다.

* 2021년 참여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특허청, 산림청

도전! K-스타트업은 각 부처별 특성을 살린 예선대회와 통합본선, 결선 그리고 최종 왕중왕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왕중왕전에서 수상한 팀에게 상금과 정부 시상을 수여한다. 2021년에는 관광과 환경, 산림 산업 분야와 함께 만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선리그를 신설하여 보다 다양한 산업분야와 계층의 유망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한다.

* 2021년 예선대회(9개) : 혁신창업리그(중기부), 학생리그(교육부·과기부), 국방리그(국방부), 여성리그(중기부·여가부), 관광리그(문화부), 환경리그(환경부), 지식재산리그(산업부·특허청), 산림리그(산림청), 청년리그(중기부)

2020년에는 총 7,112개의 대회 참가팀 중 각 예선리그를 통해 총 180개팀이 통합본선에 진출하였고, 최종 왕중왕전 20개팀을 선발하여 총 상금 15.8억과 대통령·국무총리 등 정부시상을 하였다.

* 2020년 예선대회 : 혁신창업리그(중기부), 학생리그(교육부·과기부), 국방리그(국방부), 여성리그(중기부·여가부), 시리그(중기부), 지식재산리그(특허청), 민간·지자체리그(지자체, 네이버 등)

* 총 접수건수 (7,112건) : 혁신창업리그(2,311건), 학생리그(886건), 국방리그(949건), 여성리그(1,388건), 시리그(1,305건), 지식재산리그(533건)

또한 대회 참가팀과 수상팀들을 대상으로 예비·초기·도약패키지, 기술보증, 판로지원 등 사업화 자금확보와 창업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에 후속연계 지원한다.

표 IV-6-1-6 | 도전 K-스타트업 주요 추진 성과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계
참가자 수(팀)	8,545	4,056	5,770	3,894	7,112	27,376
수상자 수(팀)	10	10	10	20	20	70
경쟁률 (%)	654:1	405:1	577:1	195:1	356:1	391:1



대회 홍보 포스터



인플루언서 홍보



왕중왕전·시상식

나) 글로벌스타트업 페스티벌컵업)

2001년부터 지속된 벤처창업박람회는 2019년 '컵업'으로 행사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스타트업 및 창업생태계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해외 진출과 글로벌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여 스타트업의 성장축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행사 컨셉을 전환했다.

본 행사는 민관의 역량을 종합하여 국내 우수 스타트업과 AC·VC 등 투자자, 대기업·증권·중소기업 등의 교류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연(컨퍼런스)



스타트업 IR(비대면 피칭)



온라인 행사장

2020년에는 전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가 코로나19로 커다란 변화를 직면하는 상황에서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하여 '온라인 스타트업 행사'의 기준점을 제시했다.

표 4-6-1-7 | 행사 참가규모(최근 3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지원 스타트업(수)	100개	80개	120개	300개
참관객	30,740명	21,102명	59,054명	110,896명

다) 비대면청년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비대면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산업을 이끌어갈 유망한 청년 (에비)창업자와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청년 창업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청콘(선배 청년 스타트업 CEO가 후배 청년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이끄는 콘테스트)'이란 대회명으로 개최한 이 대회는 6대 비대면 분야의 유망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만 29세 이하의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하고, 대회 진행 간 성공한 선배 청년 스타트업이 후배 청년 스타트업을 멘토링을 통해 선배의 성공 노하우를 전수하여 후배의 성장을 돕는 과정이 특징이다.

- * 스마트 헬스케어, 교육, 스마트 비즈니스 및 금융, 생활소비, 엔터테인먼트, 물류·유통
- ** 참가자격: 만 29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에비창업자(팀)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회 개최결과 총 738개의 대회 참가팀 중 60개 팀이 선·후배 멘토링 과정을 거쳐 최종 18개팀이 최종 파이널피칭에 진출하였으며, 총 상금 15억원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등 총 18점을 수여하였다.



대회 홍보 포스터



멘토링



파이널피칭

또한 대회 사후 수상팀들을 대상으로 초기창업패키지, 기술보증, 판로지원 등 사업과 자금 확보와 창업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후속 연계 지원하였다.

표 N-6-1-8 | 비대면 청년창업 콘테스트 추진 성과

구분	스마트 필스캐어	교육	스마트 비즈니스 및 금융	생활소비	엔터테인 먼트	분류유형	합계
참가자 수(명)	112	117	73	243	158	35	738
비중 (%)	15.2	15.9	9.9	32.9	21.4	4.7	100.0

6) 조사연구

창업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창업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20년에는 창업지원 3개년(21~23)계획 수립방안 등의 정책 자료와 창업기업 실태조사, 대학 창업인프라 실태조사 등의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등 30건의 과제(연구과제 : 12개, 창업통계 : 8개)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제 수행과 국내·외 창업 동향 분석 자료는 신규 정책개발 및 지원사업 고도화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2021년 추진 예정 연구과제는 총 21건(연구과제 : 15개, 창업통계 6건)으로 정책 자료 및 창업통계 제공을 위해 과제를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표 N-6-1-9 | 창업조사·연구 인도별 운영실적

(단위 : 건)

구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추진과제건	15	15	15	14	20	79

7) K-스타트업(K-startup)

K-스타트업은 창업정보에서 사업 신청 및 선정 사업비 청산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한 손쉬운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부처, 지자체 등 정부 창업 사업을 통합제공하는 창업포털(www.k-startup.go.kr)이다.

2015년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 등 131개 기관의 창업정보의 종합 제공과 수요자 관심분야를 고려한 분류체계 구성 및 맞춤형 간편검색 기능을 도입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창업정보를 온라인 창구로 단일화하여 (예비)창업자가 정보를 탐색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창업에 관한 애로를 해소하였다.

K-스타트업을 통해 창업교육부터 멘토링, 판로·해외진출까지 창업에 관한 제반 정보를 One-Way, One-Gate로 제공하고 있다.

2020년 창업단계별 맞춤형 공고 추천을 위해 창업메뉴판식 메인 화면을 개편하였다. 이 밖에 웹 클러그인 기술 전면 제거를 통해 이용자에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또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개선 및 시스템 고도화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정부24 홈페이지와 API 연계를 통해 창업정보 제공 및 K-스타트업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표 N-6-1-10 | 최근 3년간 K-스타트업 이용실적

구분	(단위 : 건, 명)			
	총 방문자수	접수건	입장건	회전수
2018년	4,925,304	410,442	13,494	309,731
2019년	6,835,397	599,817	18,727	366,003
2020년	7,380,070	615,006	20,500	466,145

8)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구축·운영

분산되어 운영 중인 법인 설립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창업자들의 법인 설립 시 겪어왔던 시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위해, 2010년 2월 온라인 제택창업시스템 (<http://www.startbiz.go.kr>)을 개통하였고, 2013년 9월,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으로 이름 변경하여 손쉬운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등기소, 지방세납부시스템, 국세통합시스템, 인터넷지로시스템, 4대사회보험 연계시스템 등을 통합·연계한 시스템으로 법인설립의 숲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N-6-1-11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구축 전후의 법인설립 절차 및 기간 비교

절차	기간(일)	절차	기간(일)
① 상호 검색	1	① 법인인감 제작	1
② 법인인감 제작	1	② 상호 검색	3
③ 자본금 확인	1	4대보험 등록	
④ 법인등록세 납부	1	취업규칙 신고	
⑤ 법인설립등기 신청	2	법인 등록면허세 납부	0
⑥ 사업자등록 신청	6	법인등기신청수수료	
⑦ 4대 사회보험 가입	1	③ 4대 사회보험료 납부	0
⑧ 취업규칙 신고	1		
8단계	14일	3단계	4일

2011년 상법 개정에 따라 무액면 주식발행기능을 추가 하였으며, 연계기관인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신청 시스템 개편에 따른 신규 프로세스 개발 등 지속적으로 타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법인설립만 지원하던 시스템을 대법원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으로 모든 유형의 법인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시스템 운영 이후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한 법인 설립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이후 총 60,122명의 창업자가 시스템을 통하여 법인설립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한해만도 1만 2천명이 넘는 창업자가 법인설립에 이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표 N-6-1-12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이용현황

(단위 : 건)

구분	법인설립	전화상담	인터넷접속
2010년	1,005	18,509	206,018
2011년	1,873	35,642	216,548
2012년	2,403	51,406	262,904
2013년	3,021	51,319	322,011
2014년	4,052	58,837	585,574
2015년	5,045	60,309	584,347
2016년	6,048	61,444	565,776
2017년	7,111	48,673	522,403
2018년	8,195	49,658	538,406
2019년	9,509	64,996	993,797
2020년	12,060	74,331	1,349,375
합계	60,122	575,242	6,147,159

9)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는 재무 상황이 열악한 초기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기술보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 창업자의 사업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청년 일자리 대책(18.3)」의 일환으로 '18년 신설되었다.

세무·회계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2개 주관기관(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을 통해 청년창업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20년에는 세무·회계 및 기술보호 부문에 총 20,115개사를 지원하였다.

표 IV-5-1-13 | 2020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 선정절차

모집공고	요건 검토	지원대상 확정	협약체결
K-Startup 선정	자격, 기타 요건 등 검토	우선 신청자 순으로 확정	3차 협약체결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기업

지원내용은 세무·회계 및 기술보호 부문의 바우처를 연 100만원 한도(최대 2년)로 지원하며, 세무·회계 부문은 기장대행 수수료 및 결산·조정수수료,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기술보호 부문은 기술임치 계약(갱신) 수수료로 사용할 수 있다.

'18년에 8,098개사를 지원한 이후 '19년 16,586개사, '20년 20,115개사를 지원하였고 복식부기 장부 대상자로 한정했던 지원범위를 '20년부터 간편 장부 대상자까지 확대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한 창업기업까지 지원하였다.

나. 창업사업화 지원

1)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제품 개발, 창업교육, 멘토링 등 초기 창업 사업화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모집을 위하여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선정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우수한 예비창업자들 선정하여 최대 1억원 한도로 초기 사업과 자금을 차등 지원한다.

사업계획에 따라 시제품 개발비, 재료비, 지적권화보비 등 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자금으로 협약기간(8개월)동안 사용 가능하며 창업경험이 없는 예비창업 단계임을 고려하여 창업에 필요한 기초지식 함양을 위해 단계별 창업 교육을 운영하고, 창업·경영 전반에 보유한 전문멘토를 예비창업자와 1:1로 매칭하여 사업계획 컨설팅, 외주 업체 추천 등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밀착 서비스를 지원한다.

표 IV-6-1-14 | 예비창업패키지 단계별 창업교육 내용

구분	교육시간	교육시기	운영주체	교육내용
사전교육	8시간	협약체결 전	전담기관	사업비 개화개설, 시스템 사용방법, 사업비 집행기준 등 안내
역량강화 교육	16시간	협약기간 중	주관기관	기업가정신, 회계, 법률, 지적권 등
심화교육	16시간	협약기간 중	전담기관	마케팅 / 시장조사 / 투자 /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 중 창업기업 희망분야 택 1

지원종료 후 우수한 성과 (매출, 투자, 일자리 등)를 달성한 이수기업에 초기창업 패키지·창업 R&D 사업 연계를 통해 지속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20년에는 추경을 통해 비대면 분야 예비창업패키지를 별도 신설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며, 유망 예비창업자 총 2,300명(일반분야 1,100명, 특화분야 600명, 비대면 분야 600명)을 지원하고 있다(20.5-).

표 N-6-1-15 예비창업패키지 주관기관 지정현황(20년 기준)

분야	일반분야	특화분야	비대면분야
주관기관	<p>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19개</p> <p>-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전북</p> <p>전국 소재 대학교17개</p> <p>- 강원대 건국대 김천대 계명대 대구대 동아대 부산대 성균관대 숭실대 연세대 원광대 인천대 성취대 한국상기대 한양대 한양대 호서대</p>	<p>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관광공사, 광주과학기술원 스마트도시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벤처지원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한국화학기술원), 한국표준협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원</p>	<p>창조경제혁신센터15개</p> <p>-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경북 충남 충북</p> <p>전국 소재 대학교18개</p> <p>- 강원대 건국대 계명대 대구대 동아대 부산대 성균관대 숭실대 연세대 원광대 인천대 한양대 한국상기대 한양대 호서대</p> <p>특화분야 주관기관3개</p> <p>-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표준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p>

2) 초기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유망 창업기업에게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초기 창업기업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초기창업기업의 사업안정과 및 성장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8년도까지 운영되던 "창업선도대학, 세대융합캠퍼스 및 장년서포터즈, 스마트벤처 캠퍼스" 사업을 초기단계 창업기업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19년부터 단계별(예비→초기→도약)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년에는 권역별 창업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여 주관기관을 정비(53개→40개)하여 전국에 균형있게 배치하였으며, 주관기관 소재 권역 내 창업기업 의무선발 비율(70%)을 적용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표 N-6-1-16 | 초기창업 패키지 주관기관 현황 (40개)

수도권(14)			비수도권(26)				
서울(4)	경기(4)	인천(3)	충청(4)	호남(4)	영남(4)	대중권(3)	기타(8)
건국대	가천대	인천대	대전장경센터	광주대	동서대	경북대	가톨릭관동대
고려대	경기대	인하대	순천향대	군신대	부경대	대구대	
서울대	단국대	인천IT	충북대	순천대	부산대	대구창경센터	
송실대	성균관대		한국수자원공사	전남대/기술지주	울산대		
씨엔티테크	수원대		한남대	진북대	영산대		
엔피프린	한국산기대		한밭대	전주대			
연세대				네스트셀린지			
인덕대							
한양대							

'20년도에는 1,145억원(추경 70억 포함)의 예산으로 40개 주관기관을 통해 1,111개 기업(추경 100개 포함)을 발굴 육성하였으며, 주관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초기 창업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였다.

* 특화프로그램 : 마케팅, 인증, 재무회계 및 지적권 보호, 네트워킹 및 교류회 등

표 N-6-1-17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지원성과 (추경 포함)

구분	(단위 : 억원, 명, 건)				
	예산	신청	지원	배출	일자리
2019년	118,080	8,898	1,078	489	4,199
2020년	114,500	13,103	1,111	-	-
합계	232,580	22,001	2,189	-	-

3) 창업도약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도약단계(3~7년차) 창업기업의 '스케일업' 및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선정된 창업자에게 사업모델(BM) 혁신, 국내외 시장진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을 50억 원 규모로 '15년부터 시작한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20년 1,275억 예산 규모의 사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 발굴·집중지원을 위해 사업화 지원 및 성장촉진 지원 등 다양한 후속지원을 하고 있다.

사업화(최대 3억원)의 경우 R&D연계(2년간, 2+2억원)를 통해 최대 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혁신성장과 스케일업이 가능토록 운영하였고, 성장촉진 분야는 최대 1억원의 사업비 지원으로 수출, 상장, 판로개척 등을 통해 마이너스(-)의 현금 흐름을 극복하고 빠른 수익창출과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도록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표 IV-8-1-18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지원성과

(단위 : 억원, 명,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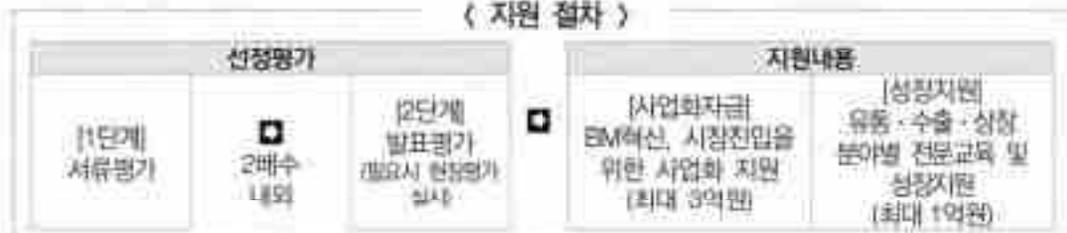
구분	신청	선정	비율	입자력
2016년	683	160	985	755
2017년	2,524	813	9,906	6,883
2018년	1,327	441	5,399	3,608
2019년	2,613	436	9,844	7,857
2020년	3,452	750	-	-
합계	10,599	2,596	26,136	19,413

* '20년 사업 진행 중(2.10월경 최종 성과조사 예정)

'19년 구글과 연계하여 게임·엔터테인먼트 창업기업의 콘텐츠 완성부터 글로벌 시장 안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구' 프로그램을 신설한 뒤, '20년에는 글로벌 협업 기업수를 확대(1개사→4개사, 구글, 엔비디아, 아마존, MS)하여, 신산업분야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였다.

표 IV-8-1-19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지원 체계도

〈 지원 절차 〉



4)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심의 기술 기반의 예비창업자 또는 기 창업자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2012년 신규로 도입되었다. 해외 액셀러레이터를 활용하여 창업자가 글로벌 진출 초기단계에 해외진출 가능성을 검증하고 현지에 성공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세계시장을 무대로 하는 글로벌 스타 벤처기업을 양성하고자 함이다.

동 사업은 해외 액셀러레이터가 직접 선발한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에게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도록 해외 비즈니스를 위한 사전역량 강화 교육 뿐만 아니라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글로벌 피칭경진대회까지 참가 지원한다.

2012년에 미국, 중국 등 2개국을 시작으로 점차 진출 국가를 확대하여 현재 국내 창업자들의 진출 수요가 높은 6개국 8개 지역(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베이징 및 상하이,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베트남 하노이, 러시아 모스크바)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N-6-1-20 | 국내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 성과

(단위 : 억원, 명)

연 도	예산	선정	투자유치	역출	고용
2011	6.3	20	109	88.3	11
2012	31	39	88.3	91.4	91
2013	20	28	91.1	25.9	30
2014	30	56	170.1	260	78
2015	33	62	91.5	249.4	235
2016	100	113	707.5	296.5	579
2017	33	66	101.9	370.3	316
2018	38.7	70	210.9	308.9	347
2019	27.9	58	59.7	101.5	85
2020	34	58	54.2	163.4	149
합계	355.9	589	1,684.2	1,955.6	1,919

* 현지진출유형 : 법인, 지사·사무소, 합작법인

동 사업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총 569개 창업기업을 지원하였으며 1,956억원의 매출액과 1,919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1,684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나타내었다.

33) 해외 액셀러레이터 : 해외에 거점을 두고 창업기업의 멘토링, 창업공간, 초기투자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창업육진 전문회사 및 기관으로 본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창업기업에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탐색 지원

5)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100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사업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 7. 14, 범부처)」의 일환으로 미래 기후변화·환경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녹색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을 '22년까지 100개사(중기부 50개사, 환경부 50개사) 육성을 하는 사업이다.

'20년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 152억원으로 그린벤처 20개사를 선정하였으며, 그린벤처의 신속한 성과창출을 위해 선정 후 최대 3년간 30억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17.5억원)과 R&D 자금(12.5억원)을 동시에 지원한다.

표 IV-6-1-21 | 그린뉴딜 유망기업 지원성과

(단위 : 억 원, 개사)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예산	152	-	-	-
지원기업	20	15(예정)	15(예정)	50

6)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아자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가가치 향상과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전반에 파급되어 제조업을 혁신하는 원동력이다. '01년 소재부품특별법 제정 이후,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생산 3배, 수출 5배 증가 등 외형이 크게 성장하였으나 범용제품 위주의 추격형 전략과 압축 성장으로, 핵심 전략 품목의 만성적 대외 의존 지속, 글로벌 경쟁도 증가, 부가가치 정체 등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의 자립화·국산화 등을 통해 대외 의존을 탈피하고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19년 8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스타트업 100 → 강소기업 100 → 특화 선도기업 100'으로 이어지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육성 로드맵의 첫 단계인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사업을 2020년에 신설하였다.

이후 대·중견기업의 수요와 연결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20개사를 2020년 11월 최초로 선정하였으며, 기술개발 및 자금 지원, 대기업의 멘토링 등을 통해 선정기업의 비즈니스모델 고도화와 사업화를 지원하였다.

표 N-6-1-22 | 20년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현황

(단위: 개)

구분	스타트업지니어인	시·군	신소재	바이오·화학	신재생에너지	합계
후보기업	15	12	12	12	9	60
최종기업	5	4	4	4	3	20

앞으로도 2024년까지 매년 20개사씩, 총 100개사의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자립도를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 핵심기술을 선점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다. 민간협력창업자 육성

1) 민간공동창업자발굴 육성

팁스(TIPS)는 기술창업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스라엘 TIP(Tech Incubator Program)을 벤치마킹하여 지난 '13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기술창업육성 플랫폼'이다. 민간의 유망 기술창업기업 선별, 보육역량을 활용하여, 민간투자 및 매칭한 기술개발 사업화자금을 연계지원하는 종합 육성지원 프로그램으로, 초기 기술창업기업에게 필요한 R&D 및 사업화·마케팅 자금은 물론 기술사업화를 위한 멘토링, 후속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 N-6-1-23 |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 사업 구조(TIPS)



* 성공한점 시, 정부 R&D지원금의 최대 20%(점심기술료) 상환

팁스(TIPS)에서는 엔젤투자사, 벤처캐피탈, 성공벤처인 등이 주도하는 민간 투자사 중 투자, 보육, 멘토링 역량이 우수한 투자사(창업기획자)를 팁스 운영사³⁴⁾ (최초 지정 3년 후 중간평가를 통하여 3년 연장 가능)로 선정하고 창업기업 추천권(TCO)을 부여한 후, 운영사가 투자 및 추천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선정평가를 통하여 팁스 지원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운영사는 유망한 기술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부여받은 창업기업 추천권 내에서 2억원 내외의 선투자³⁵⁾ 후 정부에 추천을 할 수 있으며, 선정된 창업기업은 운영사의 보육공간(BB) 또는 팁스타운에 입주하여, 밀착보육 및 성공사업화를 위한 멘토링을 받으며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한다.

팁스에 선정된 창업기업은 운영사가 투자한 엔젤투자금 이외에, R&D자금(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창업기업의 필요에 따라 평가를 통하여 창업사업화자금(최대 1억 원), 해외마케팅자금(최대 1억 원) 등 사업화자금을 연계 지원한다. 이는 초기 자본은 없으나 혁신 기술로 무장한 유망 창업기업에게 과감한 창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급 기술 인력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2021년에는 상하반기 신규 운영사 공모를 통하여 17개 내외의 신규 운영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총 9개의 운영사를 신규로 선정되어, 2020년 12월말 기준 61개 운영사, 1,234개 창업기업이 선정되어 엔젤투자 2,712억원, 정부R&D 4,800억원, 창업사업화자금 664억원, 해외마케팅자금 450억원이 투자 지원 되었다.

코스닥 상장사(디티엔씨)가 설립한 초기 벤처캐피탈인 '디티엔인베스트먼트', 성공벤처인인 권혁빈 의장(스마일게이트)이 참여하는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등 우수 역량을 보유한 운영사가 2)년에 신규로 참여하여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 보육 등 성공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지방 소재 운영사 3개사가 참여³⁶⁾함에 따라 비수도권 내 기술창업기업의 팁스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4) 성공벤처인 등 민간이 주도하는 액셀러레이터 및 엔젤투자회사법인연합체, 엔젤투자재단, 초기전문 VC 등 연구중심대학, 기술지주사, 출연연, 국내외 액셀러레이터 등 컨소시엄 포함

35) '투자량'도 추천 가능하나, 협약단계 이전 투자계약 및 투자금입금이 종료되어야 최종 협약이 진행됨(미디어형 시 협약 취소)

36) (경북) 포스코기술투자, 대전지연대학교융합기술지주, (충남) J8벤처스

엔젤투자회사(재단) 23개, 초기전문VC 18개 등으로 구성된 TIPS 운영사는 성공 창업인, 엔젤투자전문가, 보육·멘토링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어, 성공 창업에 대한 노하우를 창업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

표 N-6-1-24 | 운영사 및 보육공간 현황

구분	컨소시엄 운영사	대표	지원연차(인기) 및 운영기관	보육공간
1차 (13년 6월)	카이트창업가재단	김철현	김철현(아미지앤머티리얼스) + KAIST	카이스트(대전) 팁스타운
	카카오벤처스	정신아	김범수(카카오) + 서울대학교기술자주	서울대기술자주 팁스타운
2차 (14년 2월)	본엔젤스 벤처파트너스	강석훈	황병규(네오위즈) + 디엠피온행권청년창업재단	디엠프 팁스타운
	퓨처블레이	류종희	류종희(올라벨스) + KETI(전자부품연구원) + 네오블레이	전자부품연구원 팁스타운
	쿨리지코너 인베스트먼트	강신혁	BootstrapLabel실리콘밸리 엑셀러레이터 + 광주테크노파크	광주테크노파크 팁스타운
3차 (14년 7월)	씨엔벤처파트너스	심재희	낸벨스	팁스타운
	액트너랩	조인재	Lab IX(실리콘밸리 엑셀러레이터) + 인벨 + SK텔레콤	팁스타운
	포스코	최정우	포스코 계열사 + 모항창조경제혁신센터	포스코센터 (서울) 모항혁신센터
4차 (15년 3월)	플루포인트 파트너스	이용관	이용관(플라즈마트) + 미래과학기술자주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스테이션니오 + 시착점	스테이션니오 한국과학기술원 시착점 팁스타운
	BSK 인베스트먼트	백승권	차기철(인베디) + 이민재(메디슨) + 디지털병원수출사업협동조합 + 벤처기업협회SM	벤처기업협회 SM 팁스타운
	현대자동차	이원희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저체 R 광주혁신센터
	에트리올딩스	윤성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대전)
5차 (15년 11월)	인포뱅크	박태형	박태형(인포뱅크) + 덩블러 + 젠엑시스 + 크리스탈바이오사이언스 + 우정바이오	저체 BK(경기)
	카이스트 청년창업투자지주	김희훈	씨엔티테크 + 영복나눔재단(SK) + 카이스트창업핵심사업R&D센터 + 핀플레이 + SK사회적기치연구원	카이스트창업원 (서울) 팁스타운

37) 엔젤투자회사 23개, 초기전문VC 18개, 선도벤처 7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3개, 대기업 2개, 혁신센터 1개, 글로벌투자보육기관 3개로 구성

구분	컨설팅 주권사	대표	상장벤처인기업 협력기관	보유공간
6차 (16년 11월)	선보엔젤파트너스	최영찬 오종훈	울산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 + 부산TP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자세 B(부산) 울산과학기술원 울산혁신센터 광주과학기술원
	스프링엔젤	최인규	-	자세 B(서울)
	충북창조경제 혁신센터	인태성	LG전자 + LG생활건강 + LGU+ + 충북TP + 충북지식산업진흥원 + 충북신용보증재단 + 중소기업진흥공단충북지부 +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 청주상공회의소	자세 B(충북)
	케이런벤처스	권재중	이투스 + 성균관대 + 테크코드엑셀러레이터코리아	성균관대경기
	모스텍기술지주	유주현	모함공대 + 모스텍 기업협의회 + 모스텍 연합클럽 + 아이디어브릿지파트너스	모함공대 힐스타운
	시너지아이바투자	이건영	요즈마그렐코리아	자세 B(경기)
	유절	손치훈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LSK인베스트먼트	유전공학연구소 생명공학연구원 강원혁신센터
7차 (17년 7월)	마그나 인베스트먼트	박기일 김세현	동국재약 + (中)SCORE CAPITAL + 진학어플라이 + 연세대 + 한국자동차연구원 + 시공아이피씨	연세대(서울)
	빅뱅엔젤스	황병선	평화출당스 + 경북대	경북대
	아이발트	이준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고려대 + 충북수출클럽 + 비피메이커스클럽 + 이노보스 + HRG + 케이엑셀러레이터	자세 B(세종) 호서대
	에버그린 투자파트너스	홍종국	아이에셋 + 아이피텍코리아 + 숭실대 + 연세대 + 이그나이트 + Church&State	숭실대 연세대(서울)
	코맥스벤처스	변우석	코맥스 + 와디즈	자세 B(경기) 힐스타운
	김슬리벤처스	이정훈	한국기술벤처재단 + 전남대기술자주 + SV101벤처파트너스 + 어벤벤처스 + 라안국특허법인 + 케이디벤처필 + 서울대학교 벤처경영기업가센터	자세 B 케이디벤처스

구분	전소사업 주관사	대표	성장벤처인기업 협력기관	보육공간
	KBI인베스트먼트	김종필	KBI금융자주 + 로어인벤션랩	자체 BI(서울)
	고려대학교 기술자주	정재수	고려대의료원 + 아이파트너즈 +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 KU글로벌센터 +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자주회사	자체 BI(서울) 아이파트너즈
8차 (18년 6월)	매쉬업연결스	이백경	(미)빅베이스캐피탈 + 슈미트 + 패스트파이브	패스트파이브 립스타운
	메디톡스벤처투자	정현호	메디톡스	자체 BI(경기)
	서울대학교 기술자주	죽승환	서울대 + (미)Church and State Business Center	자체 BI(서울) 립스타운
	에이치지 이나서티브	남보현	드림플러스강남센터 + 투트임팩트	드림플러스 강남센터
	인라이트벤처스	유동기	대구경제혁신센터 + 광주경제혁신센터 + (프)EuraTechnologies + 와이엔어처 + 다래전략사업화센터 + 에이전트엑스	자체 BI(대구) 광주혁신센터 제주성장센터
한양대학교 기술자주	허성규	한양대 창업지원단 + 한양증권 + 벤처기업협회 + 코스닥협회 + (미)Founders Space + (싱가폴)Seamo Ventures + bric + The GAIN, Accrete Innovation + Bridge Partners + Forance Group + HATCH Ventures + Taiwan Accelerator + Inncub Asia	자체 BI(서울)	
9차 (19년 5월)	김기서랩	신명진	조이시티 + EST soft inc. + 워크엔을 + 공개임즈	자체 BI(경기)
	미래과학기술자주	김판건	카이스트 + WSV Capital	자체 BI 카이스트(대전)
	빅베이스캐피탈	윤필구	송영길(NComputing) + 신한성(TMON) + 이백경(매쉬업연결스) +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스타트업연구원	명지대(경기) 고려대(서울)
	씨멘티테크	전화성	-	자체 BI(서울)

구분	컨소시엄 주관사	대표	성공벤처연기회 참여기관	보유공간
	엔피프턴파트너스	양동민 허제 류선중	엔피프턴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세종벤처파트너스 + 아이디벤처스 + 고려대학교 크립스창업가센터, GS칼텍스 + 마인즈랩 + Harman Connected Services + Queen Consulting Group Private Limited + CampFire + 벌트코리아 + K판국민카드	자세 BI 인천테크노파크
	플래티넘기술투자	이창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케이타 + 태광경영자문차이나 + Nautilus Venture Partners	경기혁신센터
	대위벤처파트너스	이석훈	igniteX + 컴퍼니에이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더존홀딩스	김용우	더존비즈온 + 키캡 + 강원도청,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강원TP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자세 B(강원)
	레일리 파트너스	이승호	MARSInnovation + Longycapital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씨메치씨랩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경기바이오센터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창업보육센터	생명공학연구원 씨메치씨랩
	벤처스퀘어	영승은	Rebirth Vietnam +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 본투글로벌센터	르호봇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본투글로벌센터
10차 (19년 9월)	부산지역대학 연합기술지주	김종형	Seigon Innovation Hub + Able Advisors + 비스퀘어 + 스마트피어 + 부산관광공사	비스퀘어 스마트피어
	슈미트	김현준	DSC인베스트먼트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 PHANTOM AI Inc. + LVS Corporation	자세 B(서울)
	스파크랩	김유진	이산나눔재단 + 스파크플러스 + 한양대학교기술지주회사 + SparkMe Tape + 스파크벤처파트너스	마루180 스파크플러스
	켄스톤파트너스	송은강	코로프라 넥스트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힙스타운 경기혁신센터
	프라이어	권도균	Primer Sazze GP, LLC. + 대웅제약	대웅제약 (용인, 강남)

구분	천소시업 주관사	대표	상징벤처인기업 참여기관	보유공간
	플랜에이저벤처스	권민경	KITA Inc. + 네오위즈치이나 + 한국무역협회 + 한국수자원공사 + 내오플라이 + 전남대기술지주회사 + 부산대기술지주회사 + 울산과학기술지주 + 충남대학교창업재단	자체 B(서울) 한국무역협회
	한국과학기술지주	김훈	대전청조경제혁신센터 + SK Telecom Americas InnoPartners + 원익투자파트너스	대전혁신센터 팁스타운
11차 (20년 8월)	대경지역대학공동 기술지주	김현우	VentureNest Partners + 경북테크노파크 + 경북청조경제혁신센터 + 대구청조경제혁신센터 + 대구경북청년의료산업진흥재단 + 영남대학교의료원 + 에프엘씨인베스트먼트 + 삼성증권 대구기업금융지원	자체(대구) 경북테크노파크
	다벤처스	홍창성	Golden Equator Ventures + WFUNA	자체(서울)
	다터엔 인베스트먼트	이승석	COLOPL NEXT + InciLab Asia, 경기청조경제혁신센터 + 디터엔씨 + 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 + 아이피에스	경기혁신센터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남기문	스마일게이트비즈니스튜디오 + 스마일게이트홀딩스 + Smilegate West + 소문신식과개상해 + Smilegate Barcelona + 서강대학교 + 전북대학교기술지주회사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오엔지알 (서초, 신촌)
	아주아이피투자	김지현	Solasta Ventures + 스파크플러스 + 한국기술벤처재단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고려대학교의료원 +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 특허법인 다해	자체(서울) 한국기술 벤처재단
	연세대학교 기술지주	이승용	연세대학교 + 서울청조경제혁신센터 + 부산대학교기술지주 + 라피스 + 한국컴퓨터 + 대상창업투자 + PrimerGazzePartners	자체(서울) 서울혁신센터

구분	컨소시엄 주관사	대표	상장벤처인기업 협력기관	보육공간
	이노폴리스 파트너스	이상진	안랩 + 이다리서치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 Queen Mary Innovation + TueStar	생명공학연구원 대전혁신센터
	포스코기술투자	심동욱	POSCO INTERNATIONAL SHANGHAI + 포스코인터내셔널 +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 인덕대학교 + 숭실대학교산학협력단 + 소스코리아	인덕대 송실대
	J6벤처스	유상훈	충청남도 + 충남테크노파크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한국자동차연구원 + 순천향대학교기술지주회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 + 호서대학교창업지원단 + 오픈놀 + EPA + United Ventures Agency	자재대경북

TIPS 창업기업은 기술분야별로 정보통신 50개, 바이오·의료 342개, 전기전자 134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구성을 살펴보면 창업기업 대표자 기준으로 석·박사 비율은 60%이고, 삼성, 구글 등 국내외 대기업 경력자가 31%로 고급기술 인력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TIPS 창업기업이 20년 한 해 동안 M&A 10건, IPO 2건³⁸⁾(누적, M&A 26건, IPO 5건)을 포함하여 총 264개 창업팀이 약 1조 2천억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등 누적 후속투자 유치금액 누적 약 3조 8천억원을 돌파하는 괄목할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팀스의 보육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팀스타운은 지난 2015년 7월 개관하여, 팀스 창업기업, 운영사, 창업지원기관 등이 입주하고 있으며, 역량강화, 투자유치 설명회, 창업 네트워킹, 해외전출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및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38) M&A : 비닷투, 브릭스컴, 리모트몬스터, 임고플레이트, 아구루, 온코데그다아그노스틱, 이온벤처, 디어젠, 바이너리 브이알, 퓌키

IPO : 이오셀로유(2019년 코스닥 상장), 지놈엔터매(18.12월 코넥스 상장 후 20.12월 코스닥 상장)

2020년 12월 말 기준 총 5개 팀스타운(해성빌딩, 명우빌딩, 현승빌딩, 태광빌딩, 회성빌딩) 30개층이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팀스 창업기업, 팀스 운영사, 창업지원 유관기관 등 87개사 666명이 상주하며 성공창업에 관한 유용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2020년에는 중기부와 포스코가 체결한 '자살한 기업(자발적 상생기업) 협약 (19.5월)'의 후속조치로, 민간(포스코)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부(팀스 타운)와 함께 운영하는 최초의 민관협력형 팀스타운인 '체인지업 그라운드'를 개관(20.7월)을 시작으로 자생적 창업성장 생태계를 도모하고 있다. 더불어 서울 강남구 창업가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팀스타운(중기부), 강남스타트업센터(강남구), 체인지업그라운드(주)포스코, 마루180(재)아산나눔재단), 4개의 창업지원 운영 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창업가거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류 및 협력 활동을 추진하며 창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창업 네트워킹팀스서밋



역량강화 교육/팀스 아카데미



후속투자 연계팀스밋업

그간 수도권 집중의 창업벤처 붐을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지난 '18년 비수도권 중 팀스 참여 창업기업이 가장 많은 대전에 팀스타운 구축을 결정하여, '21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최종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³⁹⁾이다. 대전팀스타운에는 창업기업들을 위한 입주 공간 뿐 만 아니라 휴게시설, 공용카페 등 다양한 편의시설 및 중대형 행사 공간 등도 함께 구축되어 있으며, 주변 대학로 등 청년들이 생활하는 공간과 인접하는 등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제2 벤처붐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N-8-1-25 | 대전 TIPS타운 조성 개요

- (조성위치)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출범대 내)
- (조성예산) 총 110억원 (중기부 60억원, 대전시 50억원)
- (조성규모) 지하 1층~지상 5층 (입주공간 22개)
- (입주시설) 오픈형(77석), 독립형(22개실), 카페, 수면사위실, 전시공간, 공용회의실, 중대형 행사 공간 등



39) 대전 팀스타운은 21년 5월 24일 개관하여 8개 투자기관, 29개 창업기업, 총 100여명이 입주 중

2) 사내벤처 육성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대·중견·중소·공기업이 해당 기업의 혁신역량을 활용해 사내벤처팀과 분사 창업기업을 육성하면 정부가 사업화를 지원하는 만관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으로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기업의 신규 사업 모델 발굴 및 신시장 개척의 전략 중 하나로 사내벤처 제도에 대한 관심이 지속증가 되는 추세이며, '20년 총 3차례에 걸쳐 대기업 등 운영기업 42개사를 신규로 선정하였고, 사내벤처팀(기업) 201개를 지원하였다.

'20년 부터는 분사창업기업의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에 대한 검증은 통해 안정적인 시장 적응력(Market-Fit) 확보 지원을 위한 사업화 실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운영 하였다.

실증 지원 프로그램 지원기업 중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모바일 금융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기업 코스콤의 분사기업인 주식회사 한국금융솔루션의 경우 약 2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신한카드, 한국증권금융, KB캐피탈 등으로 부터 약 37억원의 투자 유치('20년 기준, 누적)를 받았다.

이외에도 스타트업 선순환 생태계 분야의 이해도가 높은 액셀러레이터 14개사를 선정하여 분사창업기업의 사업화 성공 및 스케일업을 위한 모의IR, 멘토링 등 액셀러레이터 연계 프로그램을 신설·운영 하였다.

'21년 부터는 선정된 사내벤처팀(기업)의 원활한 후속 지원을 위해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멘토링 등 사업모델 고도화를 활발히 지원할 계획이며, '20년과 마찬가지로 사내벤처팀(기업) 200개사 내외를 지원하게 된다.

표 N-6-1-26 | 2020년 사내벤처 운영기업 및 사내벤처팀(기업) 현황

구분	19기업	20기업	21기업	22기업	합계
운영기업수(%)	19(18.8)	16(15.8)	50(48.5)	16(15.8)	101
창업팀(기업)(%)	64(26.9)	21(10.6)	103(51.2)	23(11.4)	201

표 N-6-1-27 | 2020년 사후벤처 선정 운영기업 현황

구분	운영기업명(기업수)
대기업 (19개사)	현대자동차, ㈜엘지파워스, 롯데백화점리테일러, 엘에스전선, 신한카드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이노션,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에스케이하이닉스주식회사, SK텔레콤, 삼성전자인, 엘지이노텍, ㈜우리금융지주, ㈜두산디지털노베이션, ㈜케이티씨에스, 코오롱네트, 벤처벨리그룹(포스코),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지에스건설(주)
중견기업 (16개사)	㈜우리금융티아이, 주식회사 콘택스, ㈜코스콤, 대상주식회사, ㈜휴맥스, ㈜한솔교육,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인글, 한솔파인에스 주식회사, ㈜다날, 대웅제약, 케이비주식회사, 이앤드브레일, (주)티에이치엔, 모링메디앙스, ㈜디와이오토
중소기업 (50개사)	㈜성진엔앤디, ㈜유넷, ㈜케이팔렛, 헬스두대이, 주식회사 맥스퍼먼지, ㈜프론트, ㈜안라인, 주식회사 현대모러텍, ㈜에이치나인, ㈜씨아이그룹, ㈜에프엔가이드, ㈜이류, 주식회사 티제이이노베이션, ㈜버티고우계엄즈, ㈜엔티테크, ㈜비메스알코리아, ㈜스페이스솔루션, ㈜셀파트너스, 수산아이엔티, ㈜언커움, 이니스트바이오제약, ㈜리전, 아롬드림자신문통, ㈜오상벨스케어, ㈜이브자리, 나이스디앤일 주식회사, ㈜디파들, 워즈코어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씨넷, 주식회사 에이제이파트너스, ㈜산신사, ㈜후스라이프,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에이지이공일, 주식회사 크레마, ㈜유경시스템, ㈜아너스커뮤니티, ㈜우원eng, ㈜지플러스생명과학, ㈜유원지리정보시스템, ㈜드림에이스, 주식회사 글로벌헬딩스 서울신문사, (주)동해이엔티, 한솔인리큐브, ㈜신바디, 주식회사위지릭스튜디오, 주식회사 플레이오토, 동진개발, 케이씨글로벌스주
공기업 (16개사)	한국동서발전,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동부발전,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공정공사

3) 아키유니콘200 육성

정부는 벤처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기업가치 1조원 이상 후보기업을 집중 발굴하고 체계화된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아키유니콘200 육성사업은 K-유니콘 프로젝트의 1단계 사업으로 기업 가치 1천억원 미만의 기업을 1천억원 이상의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부터 신규 추진 중이다.

사업 지원대상은 누적 투자실적 20억 이상 100억 미만 기업으로 신시장 조사, 분석 및 협력 파트너 발굴 등을 위한 시장계획 자금과 우수 기업 홍보 및 후속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한다.

동 사업은 국민추천제와 국민심사단 등의 참여요소 도입을 통해 국민이 국내 유니콘기업 탄생을 응원 및 지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 혁신 창업기업 총 40개사를 선정하여 기업별 최대 3억원의 시장개척자금과 후속 투자유치를 위한 IR 등을 지원하였다.

라. 중소기업 재기지원(재도전 성공 패키지)

2015년부터 시작한 신규 사업으로 성실한 실패경험과 유망한 사업계획을 보유한 재도전기업인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교육 및 사업화 지원 등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493개의 재도전 기업을 선발하여 평균 42백만원 내외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였고, 동시에 실패원인분석, 마케팅 등의 교육 프로그램, 1:1 심층멘토링 지원 등 지원을 통해 재창업 성공률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우수한 사업계획을 보유하였으나 재무불이행 등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재도전 기업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를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등 재도전 기업인의 주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도전 성공패키지는 사업화 지원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도전 인식개선 홍보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매년 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을 개최하여 재도전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도전의 날 등 다양한 콘텐츠 생산 및 행사 개최를 통해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재도전 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재도전 기업인의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하여 사업화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며, 재도전 인식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실패사례 공모전 수상자 홍보영상

재도전의 날

마. 창업생태계 기반구축

1) 메이커 활성화 지원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창의적 융·복합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실제 창업으로 연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의 혁신성장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메이커 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창조적 혁신의 확산과 혁신성장·창업 촉진을 위한 거점 마련을 위해 2017년 11월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을 수립·발표한 후 2018년부터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을 시작하여 '20년 현재 전국에 총 192개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하였다.

2020년 공모를 통해 메이커 입문 교육과 창작활동 체험을 지원하는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 62개와 전문 메이커활동과 제조창업을 연계·지원하는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 4개를 선정하여 아이디어가 창업·사업화로 연결되도록 시제품 제작, 양산 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표 IV-6-1-28 |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현황('18~'20년, 누적)

(단위: 개)

구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대구
전문형	3	1	1	-	1	-	-	-	1
일반형	30	32	8	8	7	3	10	8	8
구분	경북	부산	광주	전남	충주	전남	전북	제주	계
전문형	-	1	-	1	1	1	1	-	12
일반형	9	12	6	10	9	8	9	3	180

또한 '20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과 병행하여 메이커의 지속 가능한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메이커 활동 및 네트워크를 적극 발굴·지원하여 메이커 문화의 사회적 지면을 확산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한 다양한 메이커 프로젝트를 선발·운영하였다.

메이커의 주도적 메이킹 창작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시제품 제작비 및 활동비를 지원하는 메이커 창작프로젝트 지원 120개, 실생활 문제를 다양한 창작활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메이커 프로젝트 동아리 지원 100개, 지역의 다양한 특징 및 규모의 메이커 행사 운영 지원 12개, 농산어촌, 도시 지역 등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5개 등 237개 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하였다.

특히 소멸위기 지역 교육 취약계층 학생 대상 4차산업, 환경 이슈, 재활용 관련 메이킹 체험 등의 교육 운영 등 소외지역·계층 대상으로 1,200여명에 메이커 교육과 창작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전국·지역 단위 12개 메이커 문화행사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전국적인 메이커 운동 불 확산을 유도하였다.

또한 온·오프라인 메이커 교육 자원을 위한 메이커 관련 교육 교안 15종, 온라인 메이커 동영상 콘텐츠 100여개를 개발하고,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인력, 메이커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현장교원 등 메이커 활동을 뒷받침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829명에 대한 메이커 아카데미 온라인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하였다.



메이커 교육 교재 개발

메이커 아카데미 온라인 연수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지원

메이커 행사 지원

그간 정부는 메이커 스페이스 집중 확산 위주의 정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일반 국민의 메이커 입문교육·체험, 장비·시설 이용을 적극 지원하며 메이커 지면을 확충해왔다. 다만, 일자리·혁신의 원천인 제조창업이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앞으로는 제조 창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조업 중심 메이커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의 창업 연계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숙련된 경험·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 있는 중장년(만 40세 이상)을 발굴하고 One-stop 형태의 창업 지원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총 27개 주관기관을 통해 우수 (예비)퇴직자를 발굴하고 중장년 (예비)창업자에게는 교육, 공간 및 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전국에 7개소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27개소까지 확대 설치하여 중장년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비퇴직자 기술창업 인식교육



투자 역량 강화교육



전담인력 통합워크숍

2020년에는 타부처 및 유관·민간기관 협업을 통한 유망 중장년 퇴직인력 발굴 하였다. 이를 통하여 1,026개사의 창업기업을 배출하고, 입주공간 및 주관기관 자율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각각 매출액 1,054억원 고용 506명을 달성했다.

2021년부터는 기 운영하였던 타부처 및 유관·민간기관 협업 확대를 통하여 중장년의 창업 생태계 유입을 유도하고, 고용위기지역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설치를 통해 중장년 창업지원의 신규 거점을 마련할 예정이다.

표 N-6-1-29 | 충청년 기술창업센터 주요성과(2020년)

구분	창업자수	고용인원	매출액	지식재산권 (특허등록건수)
2018년	보육 : 741명 교육 : 212명	476명	62,084백만원	237건
2019년	보육 : 748명 교육 : 209명	436명	60,397백만원	307건
2020년	보육 : 784명 교육 : 242명	506명	105,402백만원	282건

3)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지역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창업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다. 지역 혁신 창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교육, 네트워킹 등 일반적인 창업지원확대를 위한 프로그램부터 창업기업의 사업 아이템(비즈니스 모델) 및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과 혁신센터의 강점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까지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기획·변성·운영 중이다.

또한, 지역의 공공 액셀러레이터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투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업, 대학, 연구소, 창업지원 유관기관 등 파트너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N-6-1-30 |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현황

기관센터명	지역	기관센터명	지역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도 춘천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특별자치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도 성남시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라남도 여수시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	-

4) 1인 창조기업 활성화

1인 창조기업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표자가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대표(공동사업자)이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업으로, 기술지식 기반 1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11년 법을 제정하고 '19년에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1인 창조기업에게 사무 공간 제공 및 전문가 상담·교육·네트워킹 등 원활한 사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곳으로 '09년 전국에 21개의 센터를 지정하였고, '20년 50개의 센터를 운영 중이다.

표 N-6-1-31 | 2020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역별 운영 현황

년도	수도권							비수도권							합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충북	소계
20	12	2	8	22	2	4	1	3	4	4	1	3	1	1	2	1	28	50

2020년 50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1,430개사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1,364건의 경영 자문과 교육 및 세미나(10,104명 수혜), 네트워킹 프로그램(20,618명 참석)을 운영하였고, 1,002명의 고용 창출 및 1,760억원의 매출 성과를 달성하였다.

표 N-6-1-32 | 비즈니스센터 주요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주체
사무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데스크 (1인 전용 사무공간, 서비스드오피스) 편의시설(회의실, 빔프로젝트, 라운지, 프린트, 카페 등) 	주관기관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 회계, 법률, 창업 마케팅 등, 아이템 시장 멘토링 교육, 시업·유망산업, 파트너십 구축 정보제공 등 	
교육·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모델(BM) 개발 (사업계획서, 피보팅 등) 아이템 검증, 교육 투자 등 	
네트 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업종별 창조기업 네트워킹 확대 1인 창조기업-우수창업기업 간 입주-출입기업간 	현장기관 주관기관

나)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

우수한 아이디어나 제품을 보유하고도 자금과 인력 등이 부족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1인 창조기업에게 맞춤형 마케팅 및 다각적 판로채널을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유망 1인 창조기업들의 사업화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유망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지원을 위해 기업당 최대 12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디자인, 광고 홍보 등 1인 창조기업들의 보유한 제품과 아이디어를 홍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표 IV-6-1-33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요 지원 내용

구분	적용	세부 지원 범위
마케팅 지원	멀티미디어	홈페이지, 모바일 앱(앱), 홍보동영상, CM송제작
	디자인	전자·종이키랄로그, 포장·포스터·제품디자인, 브랜드개발
	광고 홍보	TV라디오·옥외 광고, 신문·전문지 홍보, 온라인 홍보
	전시참가	국내·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부스) 지원

표 IV-6-1-34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요 지원 내용

(단위 : 억원, 개사, 명)

연도	혁신	신성	신정	고용
2016	51.9	2,081	463	314
2017	40.0	1,829	437	752
2018	29.0	1,320	279	416
2019	15.0	1,432	150	198
2020	12.2	511	151	246

또한,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활동을 통해 1인 창조기업의 혁신제품들이 다각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상품설명회, 구매상담회, 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 마켓 입점 등을 통한 유통채널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투자 및 MD 상담회

온라인 마켓 입점지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온라인 마켓 기획전 운영
(네이버 해피빈)

5) 판교 창업존 운영

판교 창업존은 미래 신산업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입주공간 제공, 인프라 시설 지원, 보육 프로그램 등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 보육공간이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보육공간인 '창업존'을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창업기업을 모집·선발하여, '20년 12월 기준 신산업 분야 100여개 창업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스타 맨처기업으로의 도약을 향해 노력 중이다.

판교 창업존에서는 입주기업의 빠른 성장 및 안정적인 사업운영 지원을 위해 3D 제작보육실, 글로벌 테스트베드, 통·번역센터 등 다양한 인프라 지원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 창업기업 맞춤형 보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표 N-6-1-35 | 판교 창업존 누적 지원실적

구분	지원내용	'17-'18	'19	'20	합계
통·번역센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전문 통·번역 서비스 및 교육 제공	419	252	197	868
3D 제작보육실	디자인·설계 및 3D프린터 등 장비별 구축, 시제품 제작 지원	4,650	2,877	2,873	10,200
글로벌 테스트베드	해외 통신환경 구축 및 글로벌 상용망 테스트 서비스 제공	1,901	4,154	4,246	10,301
합 계		6,970	7,283	7,116	21,369

표 N-6-1-36 | 2020년 판교 창업존 보육프로그램 지원실적

구분	교육	멘토링	IP	마케팅	글로벌지원	네트워킹
참여자	1,838명(38회)	86개사	40개사	86개사	55개사	3,677명(45회)

6) 스타트업 파크 운영

스타트업 파크는 혁신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대학·연구기관 등과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 거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타트업 파크는 개방성, 집적화, 지속가능성 세 가치를 원칙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개방성) 건물 내부 개방공간 조성, 건물간 연결, 외부와 원활한 네트워킹, (집적화) 대학, VC, 대기업 등 혁신주체 집적, 창업 인프라 연계 (지속가능성) 지역·민간 주도, 집중 지원 프로그램(자금·R&D·판로 등) 운영, 입주자 징주여건 고려 (주거·문화·복지 시설, 친환경 기술 활용) 등이 그 내용이다.

스타트업 파크 조성지는 인천, 대전, 천안 세 지역이 선정되었다. 인천 스타트업 파크는 2020년 12월 조성 완료되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나머지 대전과 천안 지역은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 중에 있다.

표 N-6-1-37 | 스타트업 파크 조성지 현황

성립년도	광역지자체	대표협력기관	범위
2019	인천광역시	인천 테크노파크	인천 송도
2020	대전광역시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유성구 공동 (KAST-충남대)
	충청남도(천안)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천안역

인천 스타트업 파크는 210 여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 AC, 기업 등과 협력하여 AI·IoT 실증랩, 글로벌 진출 지원, 멘토링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7)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그린 스타트업 타운은 창업기업 입주·성장 지원 인프라와 주거·문화·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결합한 친환경 복합창업공간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및 청년층의 유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문화·복지·교육 등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도시에 조성한다. 충청남도 천안, 광주광역시가 서면 평가, 현장 확인, 발표평가 등의 평가 절차를 거쳐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두 지역 모두 건물 설계·건축 중에 있다.

표 N-6-1-38 |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지

시정/군도	광역자치체	대표입회기관	위치
2020	충청남도(천안)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천안역
2021	광주광역시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역

충청남도 천안은 스타트업 파크 복합형에 선정되어 스타트업 파크와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동시에 조성중(2개동 신축)이다. 어울림 타워, 이노스트 타워 일부 층에 그린 스타트업을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 천안은 친환경 모빌리티·정밀의료 등을 신성장 특화사업으로 정하고, 맞춤 지원을 위해 R&D, LAB, 테스트베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에 선정된 그린 스타트업 타운은 광주역 도지재생지구에 그린 스타트업 타운(복합허브센터), 스타트업 파크(스테이션 G), 기업혁신성장센터, 행복주택 등 대규모 창업집적클러스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친환경에너지·스마트 바이오·인공지능(AI) 분야를 특화사업으로 정하고 이에 맞춰 그린 스타트업 타운의 창업기업 지원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그린 스타트업 타운은 향후 인근의 연합기술지주회사, 대학교, 창업지원기관 등과 연계사업을 펼쳐나갈 거점이 된다.

바.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지역 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0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해 육성하고 있다.

-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

유망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7대분야로 구분하여 사업화자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역 기반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가치 창업가의 협업 프로젝트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 (지역가치 창업 7대 분야) ① 거점브랜드 ② 지역가치 ③ 로컬푸드 ④ 지역기반제조 ⑤ 자연친화활동 ⑥ 지역특화관광 ⑦ 디지털문화체험

2020년 2차례에 걸쳐 지역가치 창업가 280개팀을 선정했으며, 자금지원 외 지역 창업거점역할을 수행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지역중심 네트워킹과 판로확보 등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IV-6-1-39 |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티브 활성화 지원 선정현황

(단위 : 명)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원	21	22	12	19	11	15	12	18	27
구분	세종	충청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영국
인원	12	12	12	13	18	27	13	16	200

사.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1)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비대면서비스 바우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 산업 육성 및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원격근무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 일환으로 2020년 하반기에 신설되었다.

사업에 선정된 중소·벤처기업은 4백만원(자부담 10% 포함)의 바우처를 지원받고, 플랫폼에서 제공중인 6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표 IV-6-1-40 |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분야

비대면 서비스 분야	세부내용
① 화상회의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및 영상연결 등 비대면 재원관리 서비스
② 재택근무(협업 Tool)	기업 내 임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파일,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
③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해킹 방지 및 정보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④ 에듀테크 (비대면 직무교육 포함)	기업 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직무 등 교육서비스
⑤ 돌봄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이용 기업 돌봄 서비스
⑥ 비대면 제도·도입 컨설팅	원격근무 도입에 따른 인사·노무, 보안전략 컨설팅

'20년도에는 654개의 공급기업(비대면 서비스 제공기업)을 선정하고, 2,880억원(3차 추정)의 예산으로 78,779개사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였다.

2)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 회의실 구축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은 중소기업의 비대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화상 회의실은 전국의 주요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구축되며,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디지털 경제시대에 빠르게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 업종별 협·단체 등 전국주요 시설에 회의 장비 및 회의 공간 구축을 지원하며, 일반형 1,562개소, 확장형 5개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12월 말 기준 총 1,338개소가 선정되어 회의실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21년도 6월 까지 모든 화상회의실이 구축될 예정이다.

표 N-6-1-41 | 전국 화상회의실 선정현황

(단위 : 개소)

지역	선정결과	지역	선정결과	지역	선정결과
서울	248	충북	65	울산	39
경기	254	충남	58	광주	60
인천	45	대구	50	전남	73
강원	45	경북	71	전북	78
대전	50	경남	99	제주	21
세종	10	부산	72	총합	1,338

일반형 화상회의실은 10여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공용 회의실이며, 출장자, 원격 근무자 등 짧은 시간, 간단한 업무를 볼 수 있는 스마트워크 부스 설치도 지원한다. 확장형 화상회의실은 1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대규모 공간에 구축되어 수출 상담회, IR 대회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은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 가능하도록 '개방성'을 기본 원칙으로 기획되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 산업 분야의 디지털화 전환 속에서, 중소기업이 화상회의실을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비대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7장

한국벤처투자

1

일반현황

한국벤처투자는 '05년 6월 29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정부가 설립한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펀드') 투자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모태펀드 출범과 함께 개소하였으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07년 4월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⁴⁰⁾

모태펀드는 중소·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벤처캐피탈 등이 결성하는 자(子)조합에 출자하는 조합이다. 모태펀드는 '09년까지 '중소기업창업 및 전용기금' 6천억 원,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재정 4천억 원으로 총 1조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결성 이후 기존 출자자의 추가 출자금 납입 및 신규 출자자 참여(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를 통해 '20년 말 기준 5조 8,482억 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운용기간은 30년이며, 회수된 자금은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처럼 중소·벤처기업 투자 전용재원 풀(pool)에 넣어 운영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에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공급이 가능해졌다.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 운용 외에 창업활성화 및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VC 글로벌 펀드를 2013년부터 조성하였다. 미국, 중국, 싱가포르에 사무소를 개소하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화 및 유니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엔젤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R&D기술사업화에 기여하기 위해 엔젤투자매칭펀드, 일자리창출펀드, 하이테크 기술개발 사업화펀드를 직접 운용하고 있다.

40) '2008.12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현재는 창업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의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관으로 명칭 기관화 되었음

2

주요 사업 추진 실적

가. 모태펀드 운용을 통한 투자 중심의 벤처생태계 조성

1) 총괄

모태펀드는 벤처금융 전문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출자 및 관리를 담당하고, 창업 투자회사 등 민간 벤처캐피탈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투자재원은 공급하되 투자 의사결정은 한국벤처투자에 맡기는 시스템으로서 투자에 있어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단년도 예산배정 범위 내 지원방식에서 탈피, 회수재원의 재순환 방식(Revolving System)으로 운영됨에 따라 벤처투자 시장에 안정적으로 투자재원을 공급하고 있다.

표 N-7-1-1 | 모태펀드 운용 체계



2020년 말 기준 중기부, 문체부 등 총 10개 부처가 모태펀드에 출자하였으며, 그 규모는 5조 8,482억 원이다.

표 N-7-1-2 | 모태펀드 조성규모

(2020년 12월말 기준, 단위 : 억 원)

부 처	계 형	18년 이전	'17	'18	'19	'20	계
중기부	중신	12,101	5,000	575	2,400	5,100	25,176
	청년	-	3,300	-	-	600	3,900
	지방	100	-	-	-	-	100
	연경	2,060	-	-	-	-	2,060

부·처	과·장	연년 예산	17	18	19	20	합
	혁신	-	-	4,000	500	3,700	8,200
	소재부품장비	-	-	-	-	600	600
	소계	14,291	8,300	4,575	2,900	10,000	40,06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5,021	530	540	630	1,130	7,851
	영화	620	180	100	80	240	1,220
	관광	230	150	170	130	300	980
	스포츠	400	70	100	100	100	770
	소계	6,271	930	910	940	1,770	10,821
과학기술부	과학기술	1,470	200	150	150	150	2,120
	연구개발특구	-	-	-	-	95	95
	소계	1,470	200	150	150	245	2,215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	-	-	200	200	400
	국토교통혁신	-	-	-	-	300	300
	소계	-	-	-	200	500	700
특허청	특허	1,800	-	200	100	200	2,100
복지부	보건	800	-	-	-	-	800
교육부	교육	-	120	150	150	180	570
환경부	환경	-	200	130	280	200	610
해수부	해양	-	-	-	200	200	400
총 계		24,432	9,750	6,115	4,920	13,285	58,482

* '05~'16년 누계값

2) 벤처투자 자원 양적 확대

2020년 신규 벤처펀드 조성은 전년(4조 2,433억 원) 대비 54% 증가한 6조 5,676억 원, 신규 벤처투자액은 4조 3,045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4조 2,777억 원)에 이어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이는 지난 2016년 이후 5년 연속 투자금액이 증가된 수치이다.

이러한 실적 달성에는 모태펀드의 역할이 컸다. 모태펀드는 2020년 1조 3,960억 원을 출자하여 3조 5,854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였다. 이는 2020년 전체 벤처펀드 조성액 6조 5,676억 원의 54.6%에 달하는 수치이다. 모태펀드는 누적 기준으로는 9조 753억 원을 출자하여 자펀드 수 881개, 28조 4,473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였다.

코로나19 여파에도 2020년 모태펀드의 적극출자·재도개선 등으로 펀드조성 및 벤처투자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다. 또한,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혁신 기업의 대표적인 자금 조달 품목인 벤처투자 시장이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표 N-7-1-3 | 전체 신규벤처펀드 조성액(결성규모)

(2020년 12월 말 기준, 단위: 억 원)

구분	2016년 이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전체벤처펀드 조성액*	211,316	45,881	48,470	42,433	65,676	413,776
모태차펀드 조성액	165,850	34,403	31,456	26,910	35,854	294,473
모태비중	73.75%	74.98%	64.90%	63.42%	54.59%	68.75%

*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표 N-7-1-4 | 모태펀드 출자 계정별 자펀드 결성 현황

(2020년 12월 말 기준, 단위: 억 원, 개)

계정명	2016년 이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수	액	수	액	수	액	수	액	수	액	수	액						
중진	28	10,56	298	9	2,68	7,15	3	1,14	1,95	9	7,78	1,19	10	9,18	1,40	45	19,21	4,73
청년	3	1,57	285	2	1,34	2,61	6	1,01	88				5	1,12	60	81	11,97	1,52
지방	9	1,08	63	2	20	14	1	10	6	8	1,04	52	6	78	415	26	1,16	1,57
연말	14	2,90	280	-	-	-	-	-	4	30	18	6	98	318	29	1,93	1,18	3,18
혁신	-	-	-	-	-	-	2	1,21	180	19	1,51	381	19	4,13	4,01	10	10,94	11,51
소부장	-	-	-	-	-	-	-	-	-	-	-	-	4	1,25	60	4	1,53	60
문화	66	4,13	610	7	1,21	51	10	2,68	1,38	11	2,24	1,13	12	1,71	1,81	18	23,25	10,84
영화	8	1,70	70	2	40	20	1	17	10	1	10	6	2	44	31	14	2,17	1,20
관광	2	40	20	-	-	-	1	27	10	2	30	30	3	44	20	8	1,01	30

스모츠	3	55	30	2	20	10	1	170	100	-	-	-	2	29	200	3	1,021	770
과기	16	3,072	1,185	2	200	200	2	200	200	2	200	210	2	245	220	24	4,987	2,328
연구	-	-	-	-	-	-	-	-	-	-	-	-	-	-	-	-	-	-
도시	-	-	-	-	-	-	-	-	-	-	-	-	1	20	200	1	20	200
국토	-	-	-	-	-	-	-	-	-	-	-	-	1	170	60	1	170	100
특허	26	10,152	287	2	200	200	3	719	270	3	208	630	2	1,025	200	58	13,222	4,922
보건	4	430	600	-	-	-	1	200	180	-	-	-	-	-	-	5	432	300
교육	-	-	-	5	150	120	6	257	150	4	140	100	9	200	194	24	881	570
환경	-	-	-	1	40	200	-	-	-	2	40	200	2	571	200	6	1,428	810
해양	-	-	-	-	-	-	-	-	-	2	200	200	1	150	100	2	400	300
공동	5	1,200	500	-	-	-	1	180	100	1	400	240	1	410	600	8	2,730	1,530
계	48	15,280	4,728	20	2,420	11,820	20	21,426	1,270	23	2,210	3,570	18	3,629	1,320	89	29,473	10,714

* 공동계정: 중진·특허, 중진·과기성통·문화, 문화·과기성통, 중진·보건(스마트대한민국) 공동출자 지원드

모태 지원드는 2020년 3조 1,984억 원의 벤처 투자를 집행하였는데, 이는 2020년 전체 벤처펀드 투자금액 4조 3,045억 원의 74.3%에 달하는 수치이다. 모태지원드의 누적 신규 투자금액은 21조 4,033억 원이다.

표 N-7-1-5 | 벤처캐피탈 시장현황

(2020년 12월 말 기준, 단위: 억 원)

구분	2016년 이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정채벤처펀드 투자금액	155,235	23,803	34,249	42,777	43,045	299,109
모태지원드 신규투자액	108,823	17,945	24,389	30,891	31,984	214,033
모태비중	70.10%	75.39%	71.21%	72.21%	74.30%	71.56%

*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3) 벤처·스타트업 혁신 뒷받침을 위한 전용 모펀드 조성

한국벤처투자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따른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조성하였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K-뉴딜 핵심분야인 비대면, 바이오, 그린뉴딜 분야 등의 펀드에 출자하는 모펀드로 '20년 선정기준 비대면 6,444억 원, 바이오 7,690억 원, 그린뉴딜 1,506억 원, 총 1조 5,640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성공한 선배 벤처기업, 금융권이 후배 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후원자로서 펀드 조성에 참여한 것에 의미가 있는 벤토기업 매칭출자 분야의 경우 3,816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였다.

4) 투자촉진 제도 도입을 통한 유니콘 육성 기반 마련

한국벤처투자는 대한민국 벤처투자 생태계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년 기준 국내 유니콘 기업 수는 13개로 세계 5위권 안에 진입하였다. 국내 유니콘 13개사 중 11개사가 모태 자펀드 투자로 성장하였으며, 코로나19 하에서도 쏘카 등 새로운 유니콘을 탄생 시켰다. 또한 한국벤처투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웠던 벤처투자시장 환경에서도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였다. 특히 '20년 Fast-Closing 등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자금경색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새로운 유니콘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N-7-1-6 | 국내 유니콘 기업 수 현황수치

(2020년 12월 말 기준)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국내 유니콘 기업 수	3	6	11	13

5) 민간자금 유치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를 통해 벤처펀드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민간자금의 벤처펀드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시장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선두주자로서 자펀드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수행함에 따라, 민간 출자자들이 모태 자펀드에 대한 출자를 선호하고 있다.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한 콜옵션 부여 등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신규 민간 자금의 벤처펀드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모태펀드는 1조 3,900억 원을 출자하여 3조 5,855억 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약 2.6배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를 창출했으며, 누적적으로는 9조 753억 원을 출자하여 28조 4,473억 원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약 3.1배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를 창출했다. 신규 결성 벤처투자펀드의 민간출자 유입도 2016년 2조 2,599억 원에서 2020년 4조 3,211억 원으로 약 1.9배 증가하였다.

6) 취약분야 지원 강화

모태펀드는 수익성 뿐 아니라 정책 목적을 보유한 펀드로서 시장실패 영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출자심사 시 가점부여, 출자한도 및 성과보수 우대 등을 통해 창업초기펀드, 지방펀드, 여성펀드 등 정책 목적 조합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였다. 또한, 루키리그룹 통해 신설운용사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으며 창업초기조합에서 최소결성금액의 20%를 지방에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투자 확대를 추진했다.

표 N-7-1-7 | 모태펀드 취약분야 지원 현황(결성일 기준)

(2020년 12월 말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2016년 이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조항수	출자액(억 원)	조항수	출자액(억 원)	조항수	출자액(억 원)	조항수	출자액(억 원)	조항수	출자액(억 원)	조항수	출자액(억 원)
초기 지원	107	10,666	23	3,029	23	3,065	24	3,160	22	2,523	199	22,463
지방·여성	26	1,458	3	240	2	120	9	682	6	415	46	2,915
계	133	12,124	26	3,249	25	3,205	33	3,862	28	2,938	245	25,378

* 2016년 이전은 2005~2016년 자료

이외에도 '지역균형 뉴딜' 성공을 위한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20년 한국벤처투자'와 부산시가 참여한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MOU를 체결하였다.

7) 투자활성화 지원

한국벤처투자는 스타트업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20년 한국벤처투자는 투자유치 과정을 총 망라한' 투자유치 가이드북'을 제작하였다. 본 책은 실제 투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민간 투자사 '매쉬업엔젤스'와 스타트업 지원기관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공동 집필하였으며,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여 총 1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또한 유니콘 성장 지원을 위한 'K-유니콘 2020' 기업 POOL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내 스타트업의 IR 영상을 제작하여 국내외 투자자들과 연결하는 K-유니콘 투자유치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K-유니콘 기업 125개사에 대한 기업정보가 담긴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이외에도, 벤처시장 정보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MarketWatch를 25회 발간하였으며, 해외 VC 대상으로 국내 벤처시장을 소개하는 영문판 MarketWatch도 제작하였다. 뿐 만 아니라 시장에 유용한 벤처 투자 정보를 가독성 높은 콘텐츠로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뉴스레터 콘텐츠를 신규 도입하였다.

8) 일자리 창출

한국벤처투자는 일자리 매칭펀드 직접 운용하며 기관투자자와 매칭의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동 펀드는 투자기업의 고용성과에 따라 기업과 매칭투자자에게 펀드 지분이 대한 메입 권한을 부여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펀드다.

2020년 총 27개 기업에 467.5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기업은 '20년 4분기까지 누적 총 1,103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며 투자금 1억 원 당 2.36명 수준의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보였다.

9) 투자형 R&D 사업 확대

한국벤처투자는 기존 보조금 지급 방식의 R&D 지원에서 벗어나 투자형 R&D 사업을 도입하여, 기업 중심의 사업화 평가, 관리, 자금 사용의 활용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이테크 기술개발 사업화펀드'를 '20년 8월 결성하였다. 동 펀드는 기관투자자와 매칭의 방식으로 우수 R&D 기업에 대해 투자하고 있으며, 경제력, 사회적, 기술적 성과에 따라 기업과 매칭투자자에게 펀드 자본에 대한 매입권한을 부여하여 기업의 R&D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펀드다.

나. 중소벤처기업 외자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1) 해외VC 글로벌 펀드 조성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성공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지 네트워크가 뛰어난 해외VC의 투자유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벤처투자는 글로벌 우수 벤처캐피탈이 운영하는 해외VC 글로벌 펀드를 2013년부터 조성해오고 있다.

'20년 말 기준으로 Altos Ventures, Legend Capital, Northzone Ventures 등 해외 유명 33개 벤처캐피탈과 3조 3,641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기업 328개에 7,114억 원의 투자를 집행하여 누적 모태 약장금액 3,778억 원 대비 약 1.88배의 투자유치 효과를 시현하였다.

표 IV-7-1-8 | 해외VC 글로벌 펀드 조성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2015년미진	2018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펀드 조성액	7,192	6,288	3,248	8,015	7,596	3,384	33,641
모태 출자액	657	820	418	822	654	407	3,778
한국기업 투자액	2,420	823	1,100	758	1,073	940	7,114

2) 국가간 협력펀드 조성을 통한 해외 시장 진출 지원

한국벤처투자는 '20년 국제기구 Asian Development Bank(아시아개발은행, 이하 ADB) 펀드 조성에 참여하였다. 총 \$60M 규모로 조성된 ADB 펀드는 핀란드 및 북유럽 국가 등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한국벤처투자는 \$10M를 출자하였다. 이는 모태펀드 최초의 공익적 성격의 국제기구로의 출자로 ADB의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3)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유니콘 성장 지원

한국벤처투자는 미국('13년), 중국('14년), 싱가포르('15년)에 해외 사무소를 개소하였으며, 해외 사무소를 통해 국내 기업, 현지 벤처캐피탈, 한국 벤처캐피탈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 사무소에서 '18년 총 45건, '19년 총 88건, '20년 약 100건 이상의 국내기업-해외투자자 연결을 진행하였다.

국내기업 해외투자자 연결 및 해외VC 출자를 통해 '20년 DST Global, Hillhouse Capital, Sequoia Capital China 등 해외투자자에게 총 2,485억 원 후속투자를 유치하여 국내 유니콘 기업 탄생에 기여하였다. 또한, 대면미팅이 어려워진 환경을 감안하여 유니콘 후보기업들의 영상IR을 제작하고 해외투자자들과 공유하는 방식 등으로 국내 스케일업의 해외자본 유치를 지원했다. 특히 동남아VC와 국내기업간 투자유치 컨퍼런스 및 ACCMSME(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와 함께 진행한 '한-ASEAN 스타트업 컨퍼런스'를 통해 국내 49개사를 지원하였고 7건의 미팅을 성사시켰다.

4) 벤처펀드 운용 노하우 공유·전파를 통한 국내 벤처기업 해외 진출 지원

한국벤처투자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중소·벤처기업의 몽골 진출을 도모하고자, '20년 몽골 청년기업인위원회와 한국·몽골 스타트업 협업 및 모태펀드 정책 수출 등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운용 노하우를 전수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행사 초청 및 양국 간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다. 엔젤투자 촉진을 통한 창업초기기업 육성

1) 엔젤투자매칭펀드를 통한 창업초기 기업 투자

엔젤투자자 및 엔젤클럽 육성을 통한 창업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2011년 100억 원 규모로 출범한 엔젤투자매칭펀드가 '20년말 현재 16개 1,920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표 N-7-1-9 | 엔젤투자매칭펀드 조성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2014년말잔	2015년	2016년	2017-2019년	계
펀드 조성액	1,300	100	520	-	1,920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일정조건을 갖춘 엔젤투자자와 매칭의 방법으로 신주에 투자한다. 펀드의 투자대상은 총 기업가치가 70억 원 이하인 창업초기 기업이다. '20년 엔젤투자매칭펀드에서는 총 120건, 173억 원의 매칭투자 및 총 420건, 288억 원의 창업연계투자가 집행되었으며, 누적기준으로는 1,256건, 1,320억 원(창업연계투자 포함)의 투자가 집행되었다.

엔젤투자매칭펀드 운용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엔젤투자매칭펀드 투자대상기업 평균 매출증가율은 118.1%로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증가율인 4.2%대비 높은 매출액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표 N-7-1-10 | 엔젤투자매칭펀드 투자 집행현황

(단위 : 억 원, 개)

구 분	2014년말잔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매칭/연계	계
투자건수	374	113	62	67	101	120/420	1,256
투자금액	472	119	60	76	129	176/288	1,320

2) 엔젤투자자 육성 기반 구축

한국벤처투자자는 창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는 엔젤투자자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14년부터는 전문엔젤제도(관련 매뉴얼 제정 및 확인업무 수행)를 운영하고 있으며 엔젤클럽 활동실적 확인을 통해 엔젤클럽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엔젤투자자 회수 지원을 위해 853억 원* 16. 4월, 6월, * 18. 10월, * 20. 3월)규모의 엔젤세컨더리 펀드를 조성하였으며, 엔젤투자자 회수지원을 위한 엔젤 구주거래 정보망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엔젤투자자수는 '14년 6,691명에서 '20년 23,77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엔젤투자 금액 또한 '14년 905억 원에서 '20년 1,055억 원(20년 12월말기준이며, 해당 금액은 23년 6월까지 누적집계)으로 증가하였다.

표 IV-7-1-11 | 엔젤투자자 및 전문엔젤 수 추이 현황(엔젤협회, 엔젤본부)

(단위 : 명, 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엔젤투자자	7,060	9,468	12,536	14,827	17,857	21,175	24,139
전문엔젤	11	35	93	153	220	302	403
엔젤클럽	117	145	178	189	215	230	240

표 IV-7-1-12 | 엔젤투자 현황(소득공제 기준)

(단위 : 억 원, 명, 건, 개사)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01.01까지 집계	2019 02.28까지 집계	2020 03.31까지 집계
투자액	905	1,844	2,193	2,623	4,652	3,871	1,055
투자건수	1,254	2,877	5,175	8,019	15,798	14,409	4,624
기업수	231	413	441	506	862	861	275

* 공식적인 엔젤투자 규모를 '소득공제기준'으로 작성. 3년 주기의 통계('20년 12월말 기준)

제8장

(주)중소기업유통센터

1

일반현황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 종합마케팅 지원기관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거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판로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판매장 및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1995년 12월 21일에 설립되었다.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조직은 4본부 10실·3단 1센터 3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판로지원 채널 및 기능별로 마케팅관료본부, 소상공인지원본부, 유통사업본부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백화점사업단은 목동판매장(행복한 백화점)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판로를 지원하고, 홈쇼핑사업단은 홈쇼핑사(GS, CJ, 류&쇼핑, 공영홈쇼핑 등)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TV홈쇼핑 판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마케팅지원실은 브랜드K 육성관리, 발굴·연계시스템운영, 온·오프라인 기획전 지원, 대한민국동행세일 개최, 공동A/S 지원, 중소소모성자재 납품기업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지원본부는 소상공인 전담셀러 운영, 가치삼시디 플랫폼 운영, O2O 기획전, 온라인 쇼핑몰 입점지원, 라이브커머스 지원 등을 통한 소상공인 판로 개척 지원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구매지원센터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성능인증제도, 상생협력제도 등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및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벤처·소상공인 혁신성장을 위한 통합유통플랫폼'을 목표로 신규 판로지원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제 7홈쇼핑인 공영홈쇼핑(15.7 개국)을 설립하는 등 사업추진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유통시장 진출 및 판로지원 확대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기능 수행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높은 시장 진입장벽 및 마케팅 역량 부족 등 판로개척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국내·외 On/Off-Line 판로지원 및 전시·홍보지원 등 중소기업 종합 마케팅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 중소기업 백화점(목동판매장) 운영

1999년 12월 3일 중소기업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목동 판매장(행복한 백화점)을 개점하여 2020년까지 총 2만 6천여 개 업체에 대해 1조 4,576억 원의 판매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민간 백화점과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아이디어 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해 HIT500 PLAZA(550평)를 '아임쇼핑(700평)'으로 확대·개편('15.10)하여 1,479개('20.12) 업체의 우수제품을 진시판매하고 있다. 입점업체는 초기 창업기업(창업사관학교, 창업·벤처기업), 우수 중소기업(인증·특허상품), 기관 및 지자체(지역특화사업, 장애인지원센터 등), 브랜드K 등 새내기 기업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다.

입점 중소기업에게는 낮은 수수료 지원, 매장 판매사원 인건비 및 인테리어 비용 지원, 판매전 및 상담회 등을 통한 대형유통채널 연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목동 판매장에 입점하기 어려운 지방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우수 중소기업 제품 특별판매전 등 공익성 기획행사를 개최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매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표 N-8-1-1 | 백화점·옥동판매장 판매지원 현황

(단위 : 억원/개)

구분	2014년 이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판매지원액	11,279	620	624	662	469	473	369	14,375
지원업체수	12,108	2,636	2,968	2,410	2,493	2,646	1,632	26,891

• 정책매장(층) 개편 현황 : (11.8) 99명 → (12.3) 390명 → (12.9) 590명 → (15.10) 790명

2)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IM Shopping) 확대(정책매장사업단)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유통센터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민간시설 등과 연계하여 신기술·벤처·창업·수출 우수중소기업 등 단일매장으로 구성하기 어려운 초기·영세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전용판매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전용판매장(IM Shopping)의 판로지원 효과 증대를 위하여 낮은 판매수수료, 판매사원 및 인테리어 비용지원, 타 유통망 연계 등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표 N-8-1-2 |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IM Shopping) 운영 현황 (2020년)

구분	오픈일	배정면적	지원상품수
인천공항(서면)연세점	'12. 6. 27	76㎡(23명)	546개 품목
인천공항(동면)연세점	'15. 11. 6	42㎡(13명)	498개 품목
인천공항(T2)연세점	'18. 1. 18	84㎡(25명)	666개 품목
신세계연세점(센텀)	'16. 3. 1	66㎡(20명)	498개 품목
신세계연세점(본점)	'16. 5. 18	53㎡(16명)	521개 품목
현대 무역센터점	'18. 11. 1	19㎡(4명)	100개 품목
신세계백화점(영등포)	'17. 9. 8	52㎡(16명)	333개 품목
현대백화점(판교)	'16. 11. 9	89㎡(21명)	492개 품목
KTX 부산역사	'13. 2. 5	42㎡(13명)	699개 품목
화성휴게소(국포행)	'11. 12. 1	165㎡(50명)	233개 품목
행복한백화점 4층	'11. 3. 1	2,313㎡(700명)	7,916개 품목

3) 홈쇼핑 판로지원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다양한 판로지원을 위해 6대 홈쇼핑사(GS, CJ, 현대, 롯데, NS, 홈앤쇼핑) 및 공영홈쇼핑사, T-커머스사(K쇼핑, SK스토아, 신세계 쇼핑, 쇼pping엔터, W쇼핑)와의 업무계약을 통해 2013년까지 5,1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조 6,448억 원의 홈쇼핑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표 N-6-1-3 | 홈쇼핑사업 판매지원 현황

(단위 : 억원/개)

구분	2015년 이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판매지원액	19,182	3,136	3,594	3,163	3,194	4,239	36,448
지원업체수	3,082	373	361	406	442	456	5,100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전용홈쇼핑인 공영홈쇼핑(최대주주), 홈앤쇼핑(3대 주주)에 주요주주로 참여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홈쇼핑 유통망 진입 및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 마케팅 판로 지원기능 수행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온·오프라인 유통망 개척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 확대뿐만 아니라, 혁신제품 통합유통플랫폼 운영, 온·오프라인 기획전 지원, 대한민국 동행 세일 개최, 공동A/S지원 등 중소기업 제품의 신뢰도 향상 및 판로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1) 혁신제품 통합유통플랫폼(www.imstars.or.kr)운영

혁신제품 통합유통플랫폼이란, 중소기업 상품을 모아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대형유통업체로 판로를 연계하는 데 기반이 되는 종합 판로지원 시스템을 말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간소화·표준화하고, 정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민간 유통MD와의 교류를 통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2) 온라인시장진출

국내 온라인쇼핑몰 연동에 기반을 둔 판매관리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라인을 통합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진입 및 판매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필요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용을 위한 제품 홍보동영상 제작, 홈쇼핑시장 진출을 위한 TV홈쇼핑 방송, 온라인쇼핑몰 홍보·판매 활성화를 위한 기획전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지원하고 있다.

3) 중소기업 전용 판매장 운영

입지가 우수한 곳에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을 운영하여 창업 및 아이디어 혁신기업의 초기 제품에 대한 시장검증을 가능하게 하고 유통시장으로의 진입 촉진을 통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판로확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4) O2O연계 기획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및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을 진행, 중소기업에게 효과적인 마케팅 기회 및 대형유통업체 입점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의 판로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5) 대한민국 동행세일

코로나19로 특수상황으로 인한 내수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 중소·소상공인, 전문시장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관측행사를 전개하여 실질적인 판매성과를 창출하고 디지털 캠페인 및 언론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등을 추진하며 전국적 내수활성화 캠페인을 확산하고 있다.

6) 대한민국 마케팅 Fair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애로해소에 모범적으로 기여한 유공자 등을 발굴표창하여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발전을 도모한다.

7) 중소기업 공동 A/S센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인 A/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A/S센터를 운영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 A/S센터는 기본적인 고객 응대부터 불만 해결, 사용법 안내 등 각종 소비자 민원사항을 처리해 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A/S 서비스망 구축 지원을 통한 A/S대행 처리와 기업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A/S역량 강화 교육까지 지원하고 있다.

8) 브랜드K 육성관리

제품품질 인증 중심의 국가주도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육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형성된 신뢰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확대 등 판로개척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9) 중소소모성자재 납품기업 지원

대기업 MRO사에 비해 열악한 여건으로 판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납품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자생력 배양을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 내 '중소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표 10-8-1-4 마케팅 판로지원사업별 주요 지원현황 (2020년)

사업명	주요 지원현황
혁신제품 통합유통플랫폼 운영	· 우수제품 DB발굴 성과 : 3,018개 제품
온라인시장진출	·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V-커머스 등 144회 / 262개사 지원
중소기업전문판매장 운영	· 11개소, 1,612개 기업의 12,0020개 품목의 제품 판매지원
CEO연계 기획전	· 대형유통망, 팝업스토어, 지자체 및 기관 등 현대, 롯데, 신세계 등 68회 / 722개사 / 4,609개 제품 지원
대한민국 동행세일	· 서울, 부산, 창원 등 6개 지역별 O2O 비대면 홍보판매관, 라이브커머스, 판촉 이벤트 등 진행
대한민국 마케팅 Fair	· 445개사 참여, 198부스
중소기업 공동 A/S센터	· 총 563개 중소기업의 A/S 인프라 및 A/S역량강화(교육) 지원
브랜드K 육성관리	· 133개 중소기업에 '브랜드K' 사용권한 부여 및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
중소소모성자재 납품기업 지원	· 총 1,031개 중소납품업체 지원

다. 공공구매지원 기능 수행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판로지원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술개발제품 등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구매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시장 판로 지원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역량 강화와 혁신성장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가 공공기관의 구매의사결정을 대행하여 통해 구매 가능한 제품을 선정하고 참여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부담 없이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창업기업 및 초기 기술개발제품의 원활한 조달시장 진출 환경을 구축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는 기술개발제품의 구매활성화를 통해 시범구매 선정제품 구매실적이 '18년 268억원, '19년 1,775억원에서 '20년 2,647 억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 성능인증제도(EPC)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 및 중소기업 R&D를 촉진하는 제도이다. 특허·실용신안 사업화제품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제품 등 신청 대상제품이 다양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초기 공공관료를 지원하는데 대표적인 인증제도 중 하나이다. 성능인증을 취득하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이 되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3)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되는 중소기업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핵심소재·부품 기업의 판로를 촉진하는 제도로서, 판로지원법 및 그 시행령 등에 근거를 두어 '20년 처음 도입되었다.

지원 대상 과제로는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역량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혁신성장과제', 소재·부품 국산화 및 중기제품 혁신을 제고하는 '소재부품과제', 서로 다른 기술·서비스 간 융합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기술융합과제' 등이 있으며, '20년 1월, 1차 모집을 시작으로 지속적 제품 수 확대 및 품목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표 IV-B-1-5 | 공공구매지원제도 제도별 주요 지원현황 (2020년)

제도명	주요 지원현황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 선정 제품 252개, 구매금액 2,647억 원, 참여공공기관 444개
성능인증	· 신규·연장 신청제품 948개, 신규·연장 인증서 발급건수 394건
공공조달 상생협력	· 28개 과제, 101개 제품 선정, 신규 확인서 발급건수 47건

4)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운영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은 공공구매 수요자(공공기관) 및 공급자(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 정보를 양방향으로 제공하는 공공판로 지원 대민 포털 사이트이다. 공공구매 관련 제도운영,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각종 확인서신청 및 발급, 공공입찰·구매 관련 정보제공 등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효율성을 높이고 구매를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표 IV-B-1-6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최근 5개년 운영 현황 (2020년)

구분	18	19	20	21	22	
방문자수(천명)	1,772	1,133	1,123	1,614	2,170	
회원수(명)	중소기업	164	182	207	232	250
	공공기관	40	48	46	55	56
입찰청보(건)	982	1,001	1,061	1,002	918	

5) 공공구매촉진대회

공공구매촉진대회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에 기여한 공공기관과 조달제품 품질 향상에 노력한 모범 중소기업인을 포상 격려하여 공공구매를 촉진하는 대회이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0년부터 본 행사를 주관하여 유공자포상, 공공구매 우수사례 발표 등 본 행사 및 시범구매-상생협력제품 비대면 컨сили, 구매상담회 등 부대행사를 진행하였고, 계속해서 유공자 포상 및 격려를 통한 공공구매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표 IV-8-1-7 | 공공구매촉진대의 유공자포상 현황 (2020. 11. 12)

구분		계	우수기업	기반-유공자	모범중소기업인
정부포상	대통령표창	4	2	2	—
	국무총리표창	6	3	3	—
기관장표창	총기부장관	36	-	25	10
	환경부장관	1	-	1	-
	조달청장	4	-	-	4
합계		50	5	31	14

라. 소상공인 신규 유통채널 진출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중소기업유용센터는 역량강화, 기반조성, 진출지원, 라이브커머스 4개의 카테고리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전환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표 IV-8-1-8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카테고리별 세부지원사업 현황 (2020년)

구분	비율
역량강화	소상공인 전담셀러, 소상공인 제품 상품성 개선
기반조성	가치삼시다 플랫폼 구축-운영,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지원, 크리에이터 매칭 및 육성지원
진출지원	TV홈쇼핑 및 T-커머스 입점지원, V커머스 입점지원, 온라인 쇼핑몰 입점지원, 해외쇼핑몰 입점지원, O2O 기획전 지원
라이브커머스	라이브커머스 지원

1) 소상공인 전담셀러 운영

상품성은 있으나 온라인 진출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을 위해 전문가(전담셀러)를 매칭,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전담셀러 지원상품의 매출증대 및 홍보 활성화 등을 위해 '온라인거획전', '라이브커머스'를 후속지원하고 있다.

2) 소상공인 제품 상품성 개선 운영

온라인 진출역량은 있으나, 상품성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소비자 선호도 반응 조사, 디자인개선, 상표등록 출원 등 전문가의 상품 컨설팅 진행을 통해 소상공인 상품의 온라인 시장 경쟁력 확보지원을 하고 있다.

3) 가치삼시다 플랫폼 구축운영

저렴한 수수료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촉진 및 라이브커머스 등 새로운 판매방식에 대한 경험을 지원하고 있다.

4)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가치삼시다 플랫폼 입점 또는 입점예정 소상공인 제품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다양한 형태의 영상 콘텐츠(전문영상 및 PPL 등)를 제작 지원하고 있다.

5)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지원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온라인 시장 진출 및 자원에 필요한 제반 시설·장비를 구축 및 지원하고 있다.

6) 크리에이터 매칭 및 육성지원

소상공인, 크리에이터 등의 V-커머스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 진행을 통해 교육생의 온라인 시장진출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7) TV 홈쇼핑 및 T-커머스 입점지원

소상공인의 민간 TV홈쇼핑(7개), T-커머스(5개) 입점 등을 통한 소상공인 제품 판매 지원 및 방송준비, 사후관리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다.

8) V커머스 입점지원

채널 소속 전문 쇼호스트, 크리에이터 등이 소상공인 상품 홍보·판매 동영상(VOD, 생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쇼핑몰 내 온라인 기획전을 마련하여 판매지원하고 있다.

9) 온라인 쇼핑몰 입점지원

온라인쇼핑몰에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개설 및 쇼핑몰 메인화면에 기획전 노출로 제품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10) 해외쇼핑몰 입점지원

해외진출 희망 소상공인의 해외쇼핑몰 진출 교육 및 입점지원, 판매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11) O2O 기획전 지원

지역 상권과 온라인 시장을 연계한 마켓을 마련, 우수한 온라인상의 소상공인 제품을 오프라인에서 홍보·판매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2) 라이브커머스 지원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을 발굴하여, 가치Day 정기방송(매주 월·수) 라이브 기획·제작·송출을 지원하고 있다.

표N-8-1-9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별 주요 지원현황 (2020년, 중복포함)

사업명	주요 지원현황
소상공인 전담셀러	• 총 2,182개 업체 전담셀러 매칭지원
소상공인 제품 상품성 개선	• 총 400개 업체 상품보완 및 컨설팅지원
가치삼시다 플랫폼 구축·운영	• 총 2,061개 업체 가치삼시다 플랫폼 입점지원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 총 1,067개 업체 콘텐츠 제작지원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지원	• 총 2,322개 업체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활용지원
크리에이터 매칭 및 육성지원	• 총 557명 크리에이터 육성 및 매칭지원
TV홈쇼핑 및 T-커머스 입점지원	• 총 211개 업체 TV홈쇼핑 및 T-커머스 입점지원
V커머스 입점지원	• 총 2,000개 업체 V커머스 입점지원
온라인 쇼핑동 입점지원	• 총 4,677개 업체 온라인쇼핑동 입점지원
해외쇼핑동 입점지원	• 총 405개 업체 해외쇼핑동 입점지원
O2O 기획전 지원	• 총 3,451개 업체 O2O 기획전(K-MAS 라이브마켓) 지원
라이브커머스 지원	• 총 368개 업체 라이브커머스 제작지원

제9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1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개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국내외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평가를 통해 이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이를 널리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기관 운영의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다.

2004년 민법에 의거한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2015년 중소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20년에 설립근거를 변경하는 사항이 반영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근거한 법정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으로 거듭나게 되었다(21.6.9부 시행).

조직은 2020년 말 기준, 8실 3단 8센터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197억원으로 중소기업 관련 조사와 분석, 다각적 연구와 사업을 수행 중이다. 주요사업은 크게 연구 사업과 조사평가 및 교육 사업으로 나뉜다. 중소기업 관련 기초연구, 중소기업의 국제화 및 대·중소기업 협력관련 사업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며, 조사평가 및 교육 사업에는 중기정책 지원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 분석효율화,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규제자유특구 및 규제영향평가사업, 사업주·근로자 성과공유 확산 등이 포함된다.

2

분야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중소기업정책 연구 분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부문의 현안과 중장기 과제를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비전 및 대안 제시와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향상을 선도하는 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자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실천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여 이론과 현장의 균형 감각을 배양하고 연구품질 제고를 통해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며,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지향하는 연구기관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1) 정책연구

정책연구 사업의 주된 목적은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 연구·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방향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다. 2020년에는 중소기업부(이하 중기부) 주요 국정과제 관련 기본과제 연구를 포함하여 총 38개의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한 결과물은 중장기 정책수립 등 정책개선에 폭넓게 반영된 바 있다.

향후에도 중소기업연구원은 자체 및 중기부 연구과제 제안을 토대로 정부정책 방향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 성과의 질과 정책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연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표 N-9-1-1 | 2023년 정책연구 추진 현황

번호	보고서명
1	데이터 기반의 수요자 중심 정책자금 모델 개발 연구
2	신산업 확산성장과 스케일업 강화를 위한 투자 플랫폼 구축방안
3	공적운영유동채널에 4차 산업기술 적용 모델 연구
4	산업 생태계 시·리오 분석 : 디지털전환, 코로나19, 기후변화, 고령화 사회 양극화를 중심으로
5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의 도입방안 연구
6	지원기업 성공 후 사회 환원 제도 정책도입 방안 연구
7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참조모델 개선에 관한 연구
8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방안 연구
9	중소기업 정책 60년사 3차년도 사업
10	중소기업의 리소어링 촉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통계분석을 기반으로
11	중소기업 생산성향상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
12	남북경협 지원체계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13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역량개발을 통한 2·3차 협력네트워크 확산방안 연구
14	시기별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15	혁신창업거점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구
16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의 효과적인 적용·확산방안 연구
17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사업 성과지표 개선방안 연구
18	중소기업 규제순응력 제고를 위한 화학물질 유사중복 규제합리화 방안
19	중기업 및 소기업 범위기준 개편 연구
20	중앙부처 지원사업과 연계 등을 통한 지역특구 활성화 방안
21	중소기업 통계 생산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22	자동차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23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24	1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의 업종별·지역별 분포 특성과 경쟁력 분석
25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강화방안 연구
26	채도전 기업과 연대보증, 정점과 해소방안
27	국내외 유니콘 기업 분석 및 국가별 유니콘 생태계 연구
28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성장 지원정책 수립 연구
29	대기업의 사업전술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
30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31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수출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지원방안 연구
32	뉴딜 인프라·스마트시티 융합의 소상공인 디지털 상권 모델 개발 및 정책방향
33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방안 연구
34	전통시장 비대면 거래(온라인) 진출방안 연구
35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 분석 연구
36	장수 소상공인의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37	플랫폼 노동을 통한 인력활용과 중소기업 정책대응
38	SMS데이터 활용한 중소기업지원사업 및 지원한도제 개선 재정립

2) 현안연구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진단·제언 및 학술연구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안연구의 주요 결과물(발간물)로는 「중소기업 포커스」, 「KOSBI 경제동향」, 「중소기업 정책연구」 등이 있다.

가) 중소기업 포커스

「중소기업 포커스」(연 25권 발간)는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적기 분석을 통해 시사점 또는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외부기관의 보고서 활용도 제고를 지향한다. 코로나19, 미국 대선과 같은 주요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중기부 장관관 참석 토론회와 정책 개발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또한 총 487건의 언론보도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표 N-9-1-2 | 2020년 「중소기업 포커스」 발간 현황

번	제 목	연	제 목
1	중소기업 청년 R&D 인력 현황 분석과 정책과제	14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트렌드의 변화 및 시사점
2	혁신성장 걸림을 제거를 위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	15	비대면 비즈니스(서비스)의 유형과 활성화 방안
3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에 대비한 중기정책과제	16	코로나 이후 중소기업유동성을 위한 정책체계 개편방안
4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정착을 위한 실행방안	17	포스트코로나19 시대의 중소기업 수출 촉진 방안
5	스케일업 촉진을 위한 벤처대출 도입 방안	18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개편 및 활용 시사점
6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서 스마트 비즈니스 정책으로	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벤처투자 시장의 변화 전망
7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효과성 분석 및 정책과제	20	한국과 영국의 신사업 규제혁신 정책비교 및 시사점
8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 및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의 영향과 시사점	21	국내외 기업승계 지원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9	생존과 도약의 추구: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 대응 방향	22	미대선 이후 미중 무역분쟁의 전망과 중소기업 영향 및 시사점
10	포스트 코로나 선제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회복 지원 방안	23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전망과 정책과제	24	중소기업 정책 총괄 조정 기능 강화 방안
12	포스트 코로나 대비 규제 혁신: 21대 국회의 역할	25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변화와 과제
1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영업 생태계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	-

나) KOSBI 경제동향

「KOSBI 경제동향」(연간 12회 발간)은 중소기업 관련 통계 데이터의 생산·가공 분석을 통해 각종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300개 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액, 수익률 등 실질 경영환경을 조사하고 있는 「중소기업 패널조사」, 경기 종합지수를 기업규모별로 구분하여 매월 작성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기종합지수」가 대표적이다. 그 밖에 「중소기업 업종별 부가가치 분석」, 「해외중소기업 통계현황」 등이 있다.

다) 중소기업 정책연구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학문적 개념 확립과 논리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발간된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중소기업 맞춤형 학술연구지로서 기존 학회지와 차별화된다. 2022년 KCI 등재(후보)지 선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술지 발행규정을 제정하고, 심사요건을 강화하여 학술지 정책영향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표 IV-9-1-3 | 2020년 「중소기업 정책연구」 주제 및 논문 구성 현황

구분	주요 연구 논문 구성 현황
(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 혁신과 조직의 혁신역량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 Empirical Analysis on the Financial Attributes of Corporate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for KOSDAQ-listed SMEs · 후계자와 경영자 사이 4대 경영요인이 승계과정과 절차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협박없이 성과였다 : PSBP 기반 매개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의 소유권 구조와 협력 네트워크가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 비재무정보가 소성공인 신용평가 개선에 미치는 영향 · 경영위험과 유효법인세율과의 관련성에 있어 중소기업의 영향 · 중소기업의 학습조직 수준과 조직몰입 관계
(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외국인노동자의 고용과 기업성과 : 기업이익을 중심으로 ·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에 관한 검토 : 증거에 근거한 정책결정방법을 중심으로 · 중소기업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디지털변혁이론과 중소기업의 디지털변혁을 위한 정부의 역할

3) 연구기반 구축

정책 DB 콘텐츠 확대 및 정보보안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정책연구의 인프라 환경 구축 등이 포함된다. 관련 주요 과업으로는 정책동향 모니터링 및 DB 업데이트(수시), 해외 중소기업 정책동향 발간(월간), 웹진 발행(주간), 주요국 정책브리프(수시) 작성 등이 있다.

가) 정책 DB 내실화

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 정책비교 및 해외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심층분석 보고서 제공이 대표적이다. 보고서는 주요국(미국, EU,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의 법령, 정책지원 기관 현황, 정책 정보 등을 조사·정리한 자료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각국의 대응 및 정책내용을 반영한 유용한 자료를 제작하고, 중소기업 정책 연구 자료의 지속적 등재를 통한 정책연구 DB 내실화 작업도 꾸준히 수행 중이다. 그 결과 2020년 정책DB 접속자수 149,627명, 정책정보 다운로드 건수 71,357건으로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다.

나) e-NewsLetter 개편

연구원 발간물, 국내외 중소벤처기업 동향 등 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e-NewsLetter는 15,982명의 회원에게 온라인 형태로 격주 간격 발송된다. 2020년에 뉴스레터의 전체 디자인 및 UX/UI를 대폭 개편하고, 기존 텍스트 나열식 구조에서 영상 또는 인포그래픽 형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연구결과물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다) 연구포털 개선

연구행정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 단순 업무망 기능에서 나아가 연구과제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선하였다. 과제정보, 참여율, 성과 및 회계관리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연구기반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4) 정책 공유

중소기업 정책의 당위성 확보 및 연구교류 기반 확대,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집단지성 활용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정책공유 사업을 수행 중이다. 정책 공유 사업의 경우, 크게 정책연구회와 학술 세미나 등으로 구분된다.

가) 정책연구회

정책연구회는 분과별 시의적절한 현안이슈를 선정하고 이슈에 대한 정책관계자들 간의 정보공유 및 토론이 핵심이다. 2020년에는 7개 분과(서비스융합플랫폼화, 스마트공장, 모험자본시장고도화, 데이터뉴딜, 포용성장, 규제혁신, 비대면수출)에 걸쳐 총 21회를 실시했다.

나) 학술세미나

분야별 전문기관과 공동 포럼세미나 개최를 통한 대외기관과의 소통강화를 위하여 학술세미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총 20회를 수행하였고, 유관기관 중심의 공동세미나에서 확장하여 주무부처, 국회의원, 학회 등 다양한 유형의 기관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외연을 확대할 수 있었다.

특히 학술세미나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중소기업 관련 산업경제 변화에 대한 다각적 문제해결 방안 및 정책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비대면 시대 유튜브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학술행사에 대한 내국민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다) 정책토론회

정책연구, 포커스 등의 학술성격을 확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국회의원실 등과 공동 정책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하였다. 공공기관 연대보증 이슈,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현안 관련 적극적인 토론과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 재개정(안) 도출 등이 성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표 N-9-1-4 | 2020년 학술세미나 및 정책토론회 수행 실적

일 자	행 사 명	공동주최기관
'20.05.15.	제1회 신사업·신기술 세미나 :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변화	-
'20.05.22.	SIMS 데이터 구조 및 지원정책의 효율화 연계방안	한국전략경영학회
'20.05.29.	제2회 신사업·신기술 세미나 :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와 Insight	-
'20.06.26.	제3회 신사업·신기술 세미나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과 인프라, 블록체인 기술개발 현황 및 산업화 동향	-
'20.06.29.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스타트업 생태계 정책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20.07.01.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기업가정신학회
'20.07.10.	제4회 신사업·신기술 세미나 :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및 지속성장을 위한 리걸테크 지원 방안	-
'20.07.16.	비대면기업 육성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정태호 국회의원실
'20.07.24.	제5회 신사업·신기술 세미나 : 배달의 민족은 왜 로봇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
'20.09.18.	'커뮤니티 기반 소셜 벤처의 조직적 지속 가능성' 정책 세미나	-
'20.09.23.	중소기업 R&D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이성만 국회의원실
'20.09.25.	제6회 신사업·신기술 세미나 : 조선보부상단을 통해 보는 소상공인의 역사적 가치, 그리고 현재	-
'20.09.28.	사회적 경제기업의 창업과 육성 과제 심학 세미나	-
'20.10.26.	제7회 신사업·신기술 세미나 : 중소기업을 위한 인공지능 적용 전략	-
'20.11.05.	중소기업연구원 및 한국전략경영학회 공동 추계학술대회 개최	한국전략경영학회
'20.12.02.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를 위한 토론회	이성만·강훈식·김경만·이규민·이동주·이수진·정태호 국회의원실
'20.12.14.	바이든 정부와 국내 중소기업 정책대응 정책좌담회	-
'20.12.15.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중소벤처기업부
'20.12.23.	벤처생태계 조성 방안 정책좌담회	-
'20.12.23.	소상공인 디지털화 대응과제 정책좌담회	-

나. 중소기업 지원사업 조사평가 및 교육 사업

중소기업 지원사업 조사평가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효율화, 규제영향평가 등이 있다.

1)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부처·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및 지원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을 구축운영 중이다. 분석 대상 사업에는 중소기업 직원이 주 목적이거나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30%이상인 사업들이 포함된다.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은 초기에 중기부 및 중앙부처 일부 사업에 대한 지원이력 구축에서 시작하여 분석범위를 순 중앙부처와 지자체(광역) 사업까지 확대 하였고, 나아가 수요자 맞춤형 정책정보 전달체계 구축을 목표로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력 정보의 신뢰성이 기존에 비해 크게 제고되면서 2020년에는 관리대상사업을 1971개(내역사업 기준)로 보다 확대하였으며, 317만개 기업, 905만 건(730조 원)의 지원이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는 상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2020년 총 10,138건(사업광고)을 제공하였고, 정책 페이지뷰(Page View)는 2억 2천만 건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조회수가 15.3% 증가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기업바탕 방문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1,667만 건, 누적 가입회원 수 14.8만 명을 기록하였다.

표 N-9-1-5 | 통합관리시스템 정책정보 제공건수/페이지뷰 및 기업바탕 활용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제공건수	7,481건	8,313건	10,138건
페이지뷰	176백만 건	198백만 건	226백만 건
방문수	1,145만 건	1,653만 건	1,687만 건
누적 가입회원수	12.1만 명	13.6만 명	14.8만 명

2)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및 효율화

통합관리시스템의 객관적 자료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한 지원효과, 운영 효율성 등을 분석하여 정책개선 및 효율화 방안 도출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대상을 9개 사업군으로 구분하여 공통 지표, 만족도 지표, 자체 성과지표를 적용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자금, 수출 사업군 대상 전주기적 실증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재정효율성 및 정책 효과성을 점검하였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중기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 사전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전 부처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만족도 조사를 통해 해당 정보 분석 결과를 각 수행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측면에 일조하였다.

3) 규제영향평가사업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분석서 작성) 및 총리훈령(제638호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부 규제영향평가 위탁업무를 수행 중이며, 이는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규제동향 파악 등 관련 연구수행을 통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2020년 신산업 규제현안과 같은 중소기업 관련 핵심규제에 대한 주요 쟁점 및 국내외 동향, 중소기업 영향, 규제대안 등을 실증 분석하고, 화평·화관법 등 환경 분야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4)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연구원에서는 규제자유특구 관련 자료 조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사전컨설팅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규제샌드박스 검증조정 회의 지원, 지자체 특구계획에 대한 사전컨설팅 추진, 규제자유특구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와 신기술 신산업 분야 경쟁 규제 발굴 등이 있다. 실제로 국내외 신기술 분야 규제샌드박스 관련 입법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였고, 신산업 분야 신제품 서비스의 가치사슬 단계별로 문제가 되는 규제를 발굴하여 단계별 규제혁신방안을 제시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5) 사업주-근로자 성과공유 확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컨설팅, 성과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성과공유 CEO 교육은 일반 교육, 전문 교육, 사례 교육으로 나누어지며,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 및 도입을 위한 올바른 기업가 정신, 동반성장 관련 내용으로 구성된다. 2020년에는 집체교육 및 순회교육을 통해 총 7,100명의 인원이 참여하였으며, 성과공유 도입을 위한 인식 전환, 유형별 도입 효과와 성공 사례 등에 대해 교육이 실시되었다.

아울러 성공적인 성과공유 도입을 위해 총 50개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특히 잠재수요가 많은 경영성과급, 스톡옵션 유형을 중심으로 집중 컨설팅하고, 기업 상황에 맞게 실무형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또한 성과공유기업과 일반기업의 통계적 비교를 통해 성과공유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기업별, 업종별, 유형별로 적합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제10장 (주)공영홍쇼핑

1

일반현황

공영홍쇼핑은 중소기업제품 및 농축수산물의 판로개척과 홍보를 지원하고, 공정한 유통거래 선도 및 상생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상법」 제4장에 의거하여 2015년 3월 5일에 설립되었다. 2015년 7월 14일에 채널명 '아임쇼핑'으로 개국 후, 2018년 11월 1일에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책임 의지를 담아 '공영쇼핑'으로 채널명을 변경하였다.

공영홍쇼핑의 조직은 4본부 14실 40개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및 농축수산물의 판로개척과 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기능 및 채널별로 영업1,2실, 마케팅실, M(모바일)운영실, 스마트고객센터, 방송기술실, 방송제작실, 디자인아트센터, 미래사업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6개 홍쇼핑사와는 다르게 중소기업제품 및 우리 농축수산물로만 100% 판매 방송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타사 홍쇼핑 대비 평균 10% 이상 낮은 20% 판매 수수료율로 운영하고 있다. ('18. 4월부터 판매수수료율 20% 시행)

TV 채널 중심에서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3 스크린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사업 및 판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직매입 판매·해외 수출 등의 다양한 판로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지자체·유관기관 등과 상생·협력 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상품개발에서부터 입점·홍보 지원 및 창업 상품의 명품화 육성까지 초기 창업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가. 중소기업 제품 및 우리 농수축수산물 판매지원기능 수행

공영홈쇼핑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높은 시장 진입장벽 및 마케팅 역량 부족 등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발굴하여 TV 채널을 중심으로 온라인 판로지원 및 상품개발·홍보지원 등 중소기업 종합 마케팅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 TV홈쇼핑공영쇼핑채널 운영

2015년 7월 14일 중소기업제품 및 우리 농수축수산물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개국 후 2020년까지 총 9,316개 상품에 대하여 3조 5,599억 원의 판매 지원을 하고 있다. 다른 홈쇼핑사 대비 10% 이상 낮은 최저 판매수수료율로 운영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며 상생협력의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채널로 자리 매김하였다.

표 IV-10-1-1 | 공영쇼핑 채널의 판매지원 현황

(단위 : 억원/개)

구분	2015.7.14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공산품	농수 수산물	공산품	농수 수산물	공산품	농수 수산물	공산품	농수 수산물	공산품	농수 수산물	
판매 지원액	3,835	2,622	3,339	2,489	3,319	3,063	3,481	3,675	4,405	5,271	35,599
지원 상품수	1,348	1,029	1,039	720	949	700	973	764	990	804	9,316

‘공영쇼핑’ 채널 운영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제품 및 우리 농수축수산물만을 100% 판매방송 편성을 원칙으로 하여, 수익보다는 상생협력·지역발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경영 최우선 순위 목표로 하고 있다.

2) 창업·벤처기업 제품들의 시장 진입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

기술력과 품질은 우수하지만, 높은 시장 장벽과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초기 창업·벤처기업들의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혁신제품들을 개국 후 6년간 2,795개 발굴하여 7,936억 원의 판매 지원을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용 판매 프로그램 방송 및 일반 프로그램 상시 운영을 통해 판매방송 편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표 N-10-1-2 | 창의혁신 제품 판매지원 현황

구분	2015.7.14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판매지원액	740억원	916억원	1,631억원	2,019억원	2,630억원
지원상품수	360억원	508개	552개	662개	713개
편성비중	22.3%	21.9%	28.3%	33.0%	31.8%

* 20년 창의혁신제품 편성비중 목표 30%로 1.8%p 초과달성함

표 N-10-1-3 | 판매지원 중인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창의혁신 상품들

구분	주요 내용
스타트업 상품	○ 창업초기(창업 5년 이내) 기업 상품
벤처기업 상품	○ 벤처기업 등 신기술 개발 상품
정책지원 상품	○ 정부부처 및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육성 상품 * 창업지원, R&D지원, 마케팅지원, 자금지원 대상 상품
정부시행 각종 인증 수상기업 상품	○ 정부기관 인증기업 및 인증기업의 상품 *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굿디자인 인증, NET인증, NEP인증 등
국제규격 인증 상품	○ 국제·해외 규격 인증 상품 * ISO, CE, FCC, UL 인증 등 / 국내·외 발명대전 수상 상품
각종 특허 상품	○ 특허출원 및 등록,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 디자인등록 등 ○ 기술 또는 기능 및 디자인 개선 상품
문화창달 상품	○ 국내 지자체 축제, 관광지 등과 연계한 문화여행 상품 ○ 국내 농·어촌 체험 및 문화 체험상품
전통시장 상품	○ 전통시장 연계판매 상품
사회적기업 상품	○ 사회적 기업 생산 공익 상품
국가기술이전상품	○ 국가기술 사업화 종합정보망 등을 통해 생산한 상품 ○ 농업기술원 등의 기술이전을 통한 상품 등
소비자 추천 상품	○ 소비자 아이디어 공모 상품, 크라우드 펀딩 상품
거대 창의혁신 상품	○ 기능 또는 디자인 등 창의혁신성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상품

3) 중소기업 제품들의 명품화를 위한 우수 상품 육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품들을 집중 판매홍보를 통해서 6년간 736개의 우수상품들 (연 취급 매출액 10억 원 이상)로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제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고 있다.

표 N-10-1-4 : 우수상품 판매지원·육성 현황

(단위 : 개)

구 분	10~20억	20~30억	30~50억	50억 이상	합계
2015년	22	1	0	0	23
2016년	87	23	9	1	120
2017년	79	27	10	3	119
2018년	77	16	16	7	116
2019년	74	37	15	10	136
2020년	130	44	30	18	222
소계	469	148	80	39	736

4) 온라인 채널(인터넷·모바일) 육성을 통한 판로지원의 확대

TV홈쇼핑 채널의 판매방송 편성시간의 클리직 계약과 성장률이 둔화되어 가는 시장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판로지원 확대를 위하여, 2015년 10월 12일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하였다. 외부 제휴 확대 및 광고 활성화로 연간 약 2,000억 원 채널로 성장하였고, 모바일 화면개선·소비자 이용편의 제고·프로모션 강화·상품 확대 등의 집중 육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판로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표 N-10-1-6 : 온라인 채널의 판매지원 현황

구 분	2015.10.12.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판매지원액	648억원	1,010억원	1,506억원	1,633억원	2,089억원
운영상품수	64,001개	335,076개	330,640개	480,109개	252,277개

나. 상생협력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

공영홍수방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및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서,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상품개발·마케팅 코칭 지원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 상생협력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판로개척·마케팅 지원

판로개척 지원 및 상생협력을 위해 6년간 36개의 정부기관·지역자치단체·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개발·지역특산물 홍보·마케팅 지원·판로확대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표 IV-10-1-6 |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현황

체결일	업무 협약처	체결일	업무 협약처
'15. 8. 31	농협 중앙회 전북지역본부	'17. 5. 12	충주시
'15. 10. 2	서울산업진흥원	'17. 7. 11	충청남도
'15. 10. 13	충청북도	'17. 7. 21	한국농어촌공사
'15. 10. 29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의회	'17. 8. 21	파주시
'16. 1. 26	산림조합중앙회	'17. 11. 9	인제군
'16. 1. 27	한국우면사업진흥원	'18. 1. 2	대한상공회의소
'16. 4. 28	경상북도	'18. 8. 31	장매인기업종합지원센터
'16. 5. 10	경기도	'18. 10. 19	경상북도
'16. 5. 25	제주테크노파크	'18. 11. 29	담양군
'16. 6. 17	민권활동 창조경제추진단	'19. 1. 31	Kotra
'16. 6. 20	창업진흥원	'19. 6. 27	한국미래클러스터
'16. 7. 15	제주도	'19. 7. 1	아리랑국제방송
'16. 9. 9	소상공민진흥공단	'19. 7. 17	전라남도
'18. 10. 19	하동군	'19. 9. 9	군포시
'18. 11. 3	경주시	'19. 11. 26	공정거래위원회
'18. 11. 9	경상남도	'20. 6. 18	한국문화재단
'17. 2. 6	양산시	'20. 8. 7	해양환경공단
'17. 2. 20	강원도	'20. 11. 25	한국소비자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제약이 있었지만, 매년 중기부 및 농림부·지자체와 협력하여 우수상품 발굴 확대를 위해 전국 각 지역에서 입점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박람회 등 전시관을 운영하여 상품홍보 및 판로개척을 지원해오고 있다. 20년에는 정책기관과 협력하여 상품 품평회에서 29회의 마케팅 코칭 등을 지원하였다.

2) 기획 판매방송 프로그램의 고정 운영을 통한 홍보 및 판로 지원

방송품질 개선 및 차별화된 테마 등을 개발하여, 공영쇼핑 채널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면서 마케팅이 필요한 상품들에 대해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8개의 고정 판매방송을 운영하였으며, 특별 기획전 등을 운영하여 상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표 IV-10-1-7 | 고정 판매방송 프로그램 운영 현황(20년 생방송 기준)

(단위:백만원)

프로그램명	연말을 원수	주요실적	주요상품
THE 직한마켓	22회	2,850	해남고춧가루, 부여왕대추 등
TV아나모아트	99회	18,038	순창세척오미자, 온재향기만발삼 등
상생정보통	21회	1,493	흙새라신발건조기, 트레비비데 등
스타일#	51회	10,327	아키지퍼브라, 신강식나염티 등
어림쇼	71회	13,658	한입금계장, 굴다리젓갈 등
창의혁신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43회	3,180	황도친공저장고, 이노스TV 등
필머트	5회	740	생일품(물타슈, 세제, 화장지 등)
해미하우스	51회	8,240	타이거에초기, 선황시마스크 등
합계	363회	58,527	

* 20년 특별기획 판매방송 프로그램 운영 현황

특별기획
판매방송 프로그램

○ 원데이특집전(3/1), 동행세일 특집전(5/14-7/25), 발대이(8/18),
김장특집전(10/21), 농업인의 날(11/11) 특전 5일전(11/12-11/15)

3

향후 추진방향

가. 기관 고유의 공공성 제고

공영홍소빙은 중소기업제품 및 우리 농축수산물의 100% 방송판매 편성과 업계 최저 수수료를 2% 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판로지원을 확대하고, 정책사업을 강화하여 중소기업들이 시장 진입부터 우량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인큐베이팅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1) 첫걸음기업의 시장진입 촉진

첫걸음기업들의 홍소빙 진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혁신 제품들의 초기 판로개척의 디딤돌 역할 수행하여 중소·창업 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첫걸음 기업들의 방송 최소 횟수를 정책적으로 보장하고 판매방송 편성비중을 '21년 50% 목표로 초기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자 한다.

• 첫걸음기업 : TV홍소빙 및 공영홍소빙에서 방송 판매 경험이 없는 생산업체

2) 벤더 납품거래 구조개선

민간 벤더 거래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일부 대형벤더 거래 집중현상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과도한 벤더 수수료를 적용 및 납품대금 지급 지연/미지급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피해들을 방지하고자 '직거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직거래 편성비중을 '21년까지 60% 편성 목표로 하며, 민간 벤더사를 통한 홍소빙 입점 행태의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 직거래 비율 : ('17년) 41% → ('18년) 49.6% → ('19) 63% → ('20) 69.3%

나. 비즈니스 모델 리뉴얼을 통한 흑자전환 시도

1)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추진

TV채널 성장이 정체되고 온라인채널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중이며, 온라인 매출 중 모바일 비중이 '15년부터 인터넷(웹) 비중을 추월하는 상황 속에서 공영홈쇼핑은 차별화된 라이브 커머스를 추진하고 있다. 생방송 이원화 방송, 라이브호스트 지원, 라이브콘텐츠 교육, 공공콘텐츠 운영 등 차별화된 상품 및 기반시설을 활용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반 지원을 통해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를 추진하고자 한다.

2) 방송 품질 개선 및 방송 차별화 시도

미디어별 도입 및 C스튜디오 활용을 통한 슬립화, 단순화, 고급화된 세트운영을 추진하여 화면 품질을 향상시키고 고객들에게 상품정보 전달력과 가독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이색적인 고정 기획 프로그램 개발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상품 무료 방송 등을 추진하여 효과적인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방송 차별화 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3) 소비자중심경영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공영홈쇼핑은 2020년 소비자중심경영(CXM), 환경경영, 정보보호 인증 지속 유지 및 공공모바일 서비스 운영 조사결과 1위(715개 조사기관 중 98점 최고점)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였다. 전화응대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한 ARS(자동주문전화) 셀프시스템 도입, CS전용번호 도입, 고객상담전화 회선 확충 등 다방면의 개선 노력으로 고객 응대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장애인 편성 의무송출 기관이 아님에도 '19년 장애인 방송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여 '20년 270시간을 운영하였으며, 향후 이를 지속 확대하여 책임 있고 건전한 홈쇼핑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자 한다.

제11장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

일반현황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를 근거로 설립된 장애인기업 전문 지원기관으로 장애인 창업 촉진 및 기업육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장애인의 경제 참여율을 제고하고 비장애인과의 상생협력 및 공존 실현에 기여하고자 '08년 2월에 설립되었다.

조직은 2본부 6개 팀 2추진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기업육성사업은 센터 운영, 장애인기업 성장기반 구축, 장애인 창업육성의 3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업무로는 장애인 창업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운영, 우수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 및 창업보육실 제공 등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 활동 참여 기회 확대, 판로(수출 등) 및 기술사업화 지원, 장애인기업 제품 인식개선 및 우선구매 활성화 등 장애인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 장애인기업 실태 조사를 통한 통계 관리 및 관련 정보 제공, 비장애인과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정책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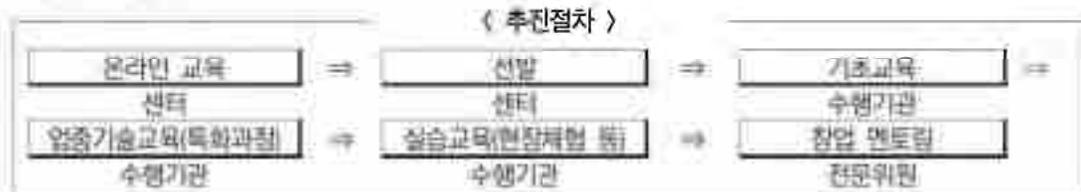
가. 장애인 창업촉진 및 창업성공률 제고

정부는 경제주체로서 장애인의 위상을 정립하고 장애인기업을 통한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고용창출을 위해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은 장애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종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창업 인식 개선 및 창업저변 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그림 33 | 창업교육 프로세스



* 08년부터 운영되어온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의 수료생은 연평균 19.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N-11-1-1 | 연도별 창업교육 수료생 수

(단위 : 명)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수료생	187	181	241	534	664	953	976	984	1,157	1,400	1,553	1,530	1,533

* 20년의 경우 총 277명이 창업멘토링을 수료하고, 이 중 80명이 창업하여(창업률: 35.2%) 전년 대비 약 3%p 창업률이 상승하였다.

* 창업멘토링 프로그램 이수 후 창업률(18년 26.5%, 19년 32.4%)

그림 34 | 창업멘토링 프로세스



이 밖에도 대·내외 환경변화에 부합하기 위해 혁신성장 선도사업(드론, 1인 크리에이터 등) 교육을 확대 실시하였고, 발달장애인 창업을 위한 버섯 스마트팜 등 영농 창업과정을 운영하였다.

‘19년까지 진행하던 오프라인 창업 기초교육을 폐지, 상시 수강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 확대로 교육 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표 N-11-1-2 | 20년 혁신성장 선도사업 기술교육 현황

연번	기관명	기술 아이템	교육 신청	교육 완료	창업률 (%)	창업자
소계			191	185	96.9%	21
1	가톨릭상지대학교	버섯영농창업/발달장애인	15	15	100%	-
2	국립공주 대학교	곤충 스마트팜	37	34	92%	4
3	성희시각장애인복지관	증증 안마 창업	31	31	100%	3
4	조선대학교	드론자격증+항공촬영면접	51	51	100%	12
5	한국얼라이언스아카데미	1인크리에이터+이커머스	57	54	95%	2

‘21년에는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스마트 팜, 팝샵어, 드론 촬영, 3D미디어 창업(신규)을 운영하며,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4차 산업기반의 스마트 창업과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 및 멘토링 시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설명서 등을 개발하여 편의를 지원하고, 온라인 플랫폼 신규 구축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통한 접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2)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한 창업아이디어 및 아이템을 발굴·포상하여 창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림 36 |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프로세스



총 11개의 아이템에 대한 시상 및 포상을 하며, 대상 상금 10백만원 포함 총 32백만원의 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장애인 창업 및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 시 우대 지원한다.

1차 신청서를 통한 서류심사, 2차 모의크라우드 펀딩심사, 3차 PPT 발표심사 과정으로 세분화된 과정을 통해 신청아이템의 시장성 및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한다. 모의크라우드 펀딩은 시스템을 통한 전문평가단을 통한 창업아이템의 가상투자 방식으로, 대상자별 IR자료를 구축·검토하는 모의투자 방식을 통해 아이템의 가치를 평가하여 창업아이템의 시장성과 사업성의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다.

그림 36 | 모의크라우드 펀딩 자료



* 20년에는 모의크라우드 펀딩 결과를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여 시장성과 사업성 검증을 강화하고, 점수 산정 기준을 기존 5구간에서 6구간으로 확대하여 보다 세분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여성장애인, 청년장애인, 센터 온라인 창업교육 또는 관련자격증 보유 가점항목을 추가로 신설하여 발표심사 평가점수 기준 변경에 따라 우대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20년에는 7명의 신청자 중 6.4:1의 경쟁률을 거쳐 최종 11명이 선정되어 ‘전국 장애경제인대회’와 연계해 시상식 행사를 진행하였다. ‘20년부터 예비창업자 쿼터제를 운영해 구분하여 모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예비창업자 6명(대상포함), 기창업자 5명이 수상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 창업 분 조성에 기여하였다.

3)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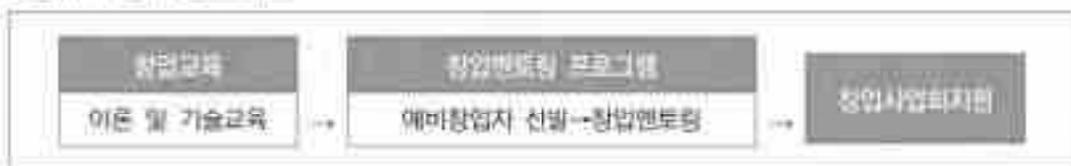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은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초기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배상 모델링, 기술개발 및 업개발, 집기 및 설비구입, 마케팅 비용에 최대 20백만 원 한도로 지원하였으며,

‘20년은 65명의 창업자 중 중증 장애인 35명(53.8%), 저소득 장애인 4명(6.1%)으로 취약 계층 창업에 대한 수요집중이 가능하였다.

특히 장애인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은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과 연계되어 교육에서 컨설팅, 창업까지 패키지프로그램 형식으로 운영되어 통합 창업지원을 수행하였다.

그림 37 | 창업지원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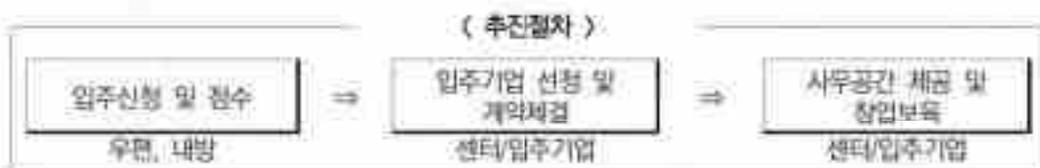
‘20년의 경우 선정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자율이었지만 ‘21년부터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원을 필수 제출로 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대상자 선정 심사 시 비대면 화상 면접심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코로나19 대응 및 교통약자 대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4) 창업보육실 운영

장애인기업 대상의 창업인프라 지원을 위해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광주, 부산, 대전 등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장애인 맞춤형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총 124개 보육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 장애인기업만 입주 가능하다.

그림 38 | 창업보육실 프로세스



입주 시 사무공간 및 편의시설, 판로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제공하며, 입주기업은 3.3㎡당 1만원의 저렴한 임대비용으로 창업보육실을 이용할 수 있다. 20년 창업보육실 입주기업은 평균 매출액 269백만원, 평균 고용인원 3.05명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표 N-11-1-3 | 창업보육실 현황

지역센터	규모(㎡)	보육실 수(개)	지원시설
서울	본관 2,158.94	14	창업보육실(본관 11개, 별관 3개), 대강당, 회의실, 재단사무처 등
	별관 933.45		
대구	502.65	6	창업보육실, 회의실 등
광주	524	9	창업보육실, 창업준비실, 대강당, 회의실 등
부산	887	9	창업보육실, 창업준비실, 회의실 등
대전	420.33	6	창업보육실, 회의실 등
경기	662.78	8	창업보육실, 회의실 등
인천	487.20	8	창업보육실, 회의실 등
경남	523	8	창업보육실, 회의실 등
울산	815	6	창업보육실, 대강당, 회의실 등
전북	527.07	8	창업보육실, 회의실 등
강원	537.09	8	창업보육실, 회의실 등
제주	414.27	6	창업보육실, 회의실 등
전남	334.88	4	창업보육실, 다목적교육장, 회의실 등
충북	326.12	8	창업보육실, 회의실 등
경북	730.67	6	창업보육실, 대강당, 회의실 등
충남	370.39	4	창업보육실, 회의실 등
합계	10,814.64	124	

5)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공동창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 기회 제공 및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발달장애인에게는 직업훈련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가족에게는 창업교육과 기술교육을 1년간 제공하며, 창업팀에게는 창업 준비공간을 최대 2년간 제공한다.

‘20년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경상북도 안동시가 선정되어 ‘21년 하반기 원공을 목표로 2개소를 구축 중에 있으며, ‘21년에는 4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연내 4개소 구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1개소당 20팀(발달장애인 20명, 가족 20명)의 교육생을 선발하고 이 중 5개의 창업팀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39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추진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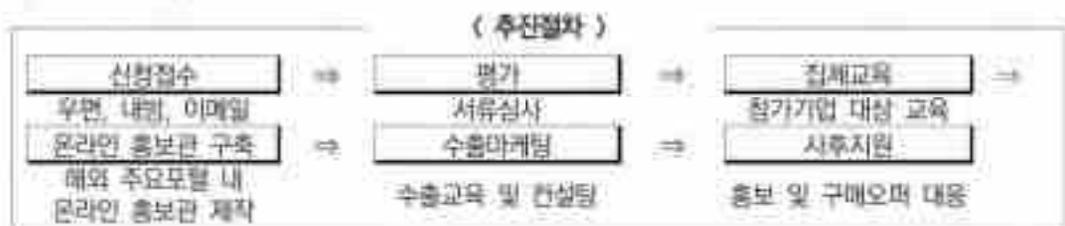


나. 장애인기업 성장기반 구축

1) 수출 및 판로지원

수출 및 판로지원은 민간(해외) 및 공공관료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출지원 사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수출이 유망한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지원을 통해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림 40 | 수출역량강화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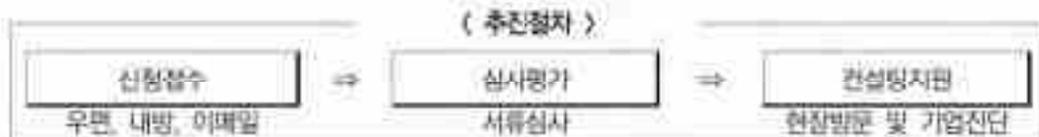


‘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기존의 무역사절단을 화상상담회와 1:1 개별화상 상담으로 대체하여 총 44개사를 지원하였으며, 총 291만\$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다.

또한, 글로벌 온라인 홍보관 구축, 바이어 타겟 마케팅 등을 통한 제품 홍보 및 해외 구매오피 대응 원스톱(One-Stop) 지원 등의 해외 온·오프라인마케팅을 23개사에 지원하여 8개사가 수출에 성공하여 95만\$ 수출실적을 달성하였다.

다음으로 판로지원사업은 국내외 입찰정보 제공 시스템, 공공판로(입찰 및 MAS)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공공판로 확대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41 / 판로지원사업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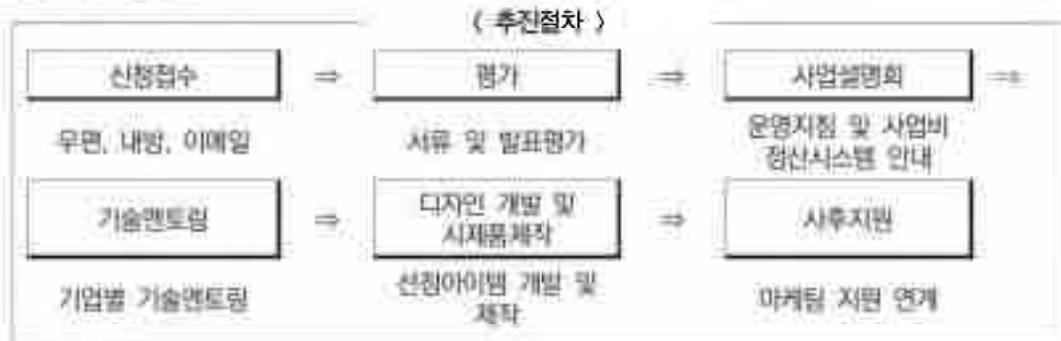
국내외 입찰정보 제공 시스템(판로지원시스템)은 공공기관의 납품을 희망하는 장애인기업의 1순위 애로사항인 입찰정보 확보의 어려움(‘19년 장애인기업 실태 조사)을 해소하고 있다. 판로지원 시스템은 나라장터 외 학교장터, 정부투자기관, 해외입찰정보 등을 총망라해서 기업별 맞춤형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년 판로지원시스템의 입찰정보 제공을 통해 발생한 낙찰 건수는 1,054건이며, 총 낙찰 금액은 1,350억 원에 달한다.

또한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은 입찰참여 희망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입찰 및 MAS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년에는 다수공급자 계약(MAS)컨설팅을 48개사에 지원하여 30개사가 등록 등록을 하였으며, 입찰컨설팅 48개사 지원을 통해 19개사가 낙찰에 성공하여 총 154억 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하였다.

2)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사업화지원은 장애인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기단계 기술개발 비용 지원을 통해 기업부담 절감 및 기술사업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제작비용의 최대 90%,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 목업 분야, 시제품 급형분야로 나뉜다. ‘20년은 총 29개사(제품디자인 및 목업 18개사, 급형 11개사)를 지원하였다.

그림 42 |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3) 장애인기업등록 및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기업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우선물품구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에 의거, 공공분야에서 장애인기업 물품구매를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해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조건 및 비율을 1%(의무사항)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기업 공공구매시장에 대한 판로기반을 조성하였다.

표 IV-11-1-4 | 장애인기업 등록절차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은 '17년 전체 123.4조원 대비 1.5조원(1.2%), '18년 전체 123.4조원 대비 1.7조원(1.4%), '19년 전체 134.9조원 대비 2.0조원(1.6%), '20년 전체 145.7조원 대비 2.3조원(1.6%)을 달성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N-11-1-5 | 연도별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액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공공구매	1,234,078	1,234,134	1,340,802	1,457,992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	15,409	17,677	20,962	23,275
총액 대비 비율	1.2	1.4	1.5	1.6

또한 장애인기업 등록업체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우선구매제도 활성도가 예상된다.

표 N-11-1-6 | 등록 장애인기업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등록 장애인기업 수개	3,457	3,839	4,580	6,049

제12장 중소기업중앙회

1

일반 현황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경제력 기회 균등과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1962년 5월에 설립되었으며 2020년 말 기준 575개 협동조합(51,947개 업체)과 48개 중소기업 관련단체(614,871개 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조직화, 협동조합 운영지도 및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증진, 중소기업 국제협력기반 구축 및 수출 지원, 산업별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공제사업 운영, 중소기업 인력 및 판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가. 중소기업 조직화 및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중소기업은 부가가치 창출, 생산, 고용, 수출 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경제적 지위가 취약하기 때문에 상호부조장산에 입각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기업간 협업, 공동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조직화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한 결과 2020년 20개 협동조합이 신규 설립되고 협동조합 기능을 상실한 34개 조합을 해산 조치하여 937개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표 N-12-1-1 | 중소기업협동조합 현황

(단위 : 개)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합회	24	23	23	23	23	23
전국조합	222	229	228	224	226	218
지방조합	339	327	325	323	313	311
사업조합	366	354	366	373	389	385
계	941	933	942	943	951	937
조합원수	72,119	71,648	71,902	72,031	71,886	70,962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법률안 2건이 입법 완료되었다. ①임원의 결석 사유를 강화하고 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주체를 주무관청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였으며, ②조합과 연합회가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대해 독점규제법에 따른 부당 공동행위 적용을 배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고, 12개 기초자치단체까지 조례 제정을 확산시켜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 근거를 토대로 6개 광역 지자체(부산, 대구, 강원, 충북, 전북, 제주)에서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7개 광역지자체(서울,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제주)에서는 조합 전용 지원예산을 확보하여 지자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실행력을 강화시켰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과 조직운영에 있어 더 많은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자로서 지위를 인정 받게 하였다. (法개정, '20.10.20.)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현장에서 제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시스템 마련을 위해 공동사업 자금조달, 교육강화, 규제완화 및 유연성 강화에 중점을 둔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19.12 - '21.12) 수립을 통해 협동조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나. 협동조합 운영지도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조합원 관리, 총회 개최, 예·결산, 정관·규약·규정 제·개정 등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도하였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각종 보고사항 및 제반 의무사항을 이렇듯 지도함으로써 안정적인 조합운영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특히 2019년, 업무환경 및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맞추어 노후화된 '협동조합 포털, 재구축('21.5월 완료)을 추진하여 법정보고의 친산화·업무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모바일 앱 구축 등을 통해 조합업무의 표준화와 효율화를 높이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또한, 협동조합의 회계·세무, 규정 제·개정 등 일반운영과 공동사업운영 등을 현장밀착 지원하여 협동조합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을 설치(2002.5)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준비조합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개발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을 '설립·운영지원단'과 '공동사업SOS지원단'으로 분야별 특화 설치(2020.6)하여 협동조합의 일반운영과 공동사업 발굴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3,466개 조합에 5,252회 방문하여 협동조합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해소하였다. 이외에도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개발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총 59개 조합이 업종별 특성 및 환경, 중소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을 받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09년부터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타 조합의 모범이 되는 협동조합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대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상부문은 종합대상과 8개 부문별 대상(공동구매, 공동판매, 일자리창출, 해외시장개척, 유통물류, 사회공헌, 특화사업, 신규부문)으로 나뉘고, 많은 협동조합들이 수상 조합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조합발전과 활성화에 활용하고 있다.

표 IV-12-1-2 | 중소기업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 지원 현황

(단위 : 회, 개)

구분	2015년 이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지도회수	2,423	344	384	369	430	651	5,252
지도조합	1,787	211	230	205	285	384	3,466

다.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협동조합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원부자재의 공동구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성장기반자금 내 협동화자금을 활용하여 2020년 31개 조합, 243.6억원을 추천하였다.

표 IV-12-1-3 |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자금) 추천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추천조합	162	4	6	3	11	31	217
추천액	1,319	22	25	25	43	243.6	1,677.6

또한 공동사업 추진의지가 있으나 재원 및 인력부족으로 고유목적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13년 1월 중소기업 DMC타워에 “협동조합 활성화센터”를 개소하였다. 활성화센터에 입주한 협동조합은 임차보증금, 임대료, 비품 등을 지원받으며, 최대 10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2015년 9월 강원 지역, '16년 1월 제주지역, '19년 3월 전북지역 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운영 중이며, 서울 15개, 강원 3개, 제주 2개, 전북 3개 조합이 입주중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신보기보·신보중앙회, 기업은행은 구매물량이 적고 현금, 신용, 담보 등 구매력이 부족하여 높은 원부자재 단가를 부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공동구매를 통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 보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전용보증제도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

재단중앙회가 참여희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기업은행은 참여 기업의 구매자금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동조합은 참여기업의 소요 원부자재를 공동구매하여 저렴하게 공급하게 된다. 2018년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이 보증재원을 매칭 출연하여 총 600억 원 규모 보증을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며 '22년까지 총 6,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표 N-12-1-4 :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특징

구분	중소기업	협동조합
보증기관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상 최고 운용배수 적용(20배수) → 보증발급 확대 - 보증비율 95% 이상(일반보증 80~85%) → 은행 할인수수료 인하 - 5년간 보증수수료 0.5%p 인하, 업체당 보증한도 무대 - 소속 협동조합의 공동구매에만 결제 가능하도록 제한 	
기업은행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인수수료(대출금리) 1.0%p 자동감면 - E2B 은행결제수수료 면제 - 만기 지급보증수수료 면제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으로 저금리 구매자금 확보 - 공동구매를 통한 구매단가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구매 수수료 수입발생 - 현금결제로 단가협상력 제고

라. 협동조합 단체표준제도 운영지원

단체표준·인증의 효율적 운영·관리·감독 및 협동조합의 표준화 역량 제고를 위해 단체표준 제·개정을 지원하는 단체표준심의회와 분쟁협의위원회들 운영하고(20년 제정 23건, 개정 23건, 폐지 37건, 분쟁조정 1건), 활용도가 없는 단체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를 통한 정비를 실시하였으며(20년 적부확인 473개), 신규 단체표준 제정 건설당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20년 협동조합 20개 지원) 또한 단체표준 인증의 신뢰성·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기업의 인증신청에서부터 조합의 인증서 발급·인증 사후관리까지 ONE-STOP으로 지원하는 단체표준인증종합포털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단체표준 인증단체에 대한 업무 지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단체표준 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표준화법령 개정안 마련 연구 및 중소기업 표준 정책 수립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기업의 단체표준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품질교육과정 개발, 인증단체의 합리적인 인증업무 수행 유도를 위한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가이드라인 2.0 제작·배포 및 단체표준 인증 신뢰성 향상을 위한 인증단체 소품 간담회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표 N-12-1-5 | 단체표준 등록 및 인증현황(20년 12월말 기준)

(단위 : 개)

구 분		조 회	비영리법인	합 계
등록	단체	70	71	141
	표준수	638	3,117	3,755
인증	단체	28	15	53
	보유표준수	348	487	833
	인증표준수	197	77	274
	인증업체수	3,334	1,148	4,542
우수	단체	15	2	17
	인증용역	77	10	87

3

중소기업 정책개발 및 현안조사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 해소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책 발굴 및 건의 활동을 지속하였다.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여 즉각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동향조사와 현안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중소기업이 우리경제 활력 회복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환경을 조성하였다.

가. 중소기업 경영애로 발굴 및 정책건의

1)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발 및 건의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다양한 경영애로와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건의가 더욱 시의성 있게 정부부처에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금융·세제 및 규제 분야에 대한 정책개발 및 건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고용·투자 등 중소기업의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책 등을 건의하였으며, 두 차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연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특별보증 확대, 간이과세 매출액 기준 상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 연장 등 다수 과제가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과세에 적극 대응하여 배지를 이끌어내는 등 총 437건의 정책건의를 발굴·건의하였다.

2) 중소기업 정책 관련 토론회 등 회의 개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세청장 등 정부부처와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표 등 국회 및 정당,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정책개선 방안을 직접 건의하였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중소기업 정책과제 전달식을 개최하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의 재도약 방안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 개선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안을 이슈화하고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나. 중소기업 관련 통계 생산

원부자재 구매, 설비투자, 연구개발, 제품판매, 수·위탁 거래, 인력, 재무구조 등 중소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연간 경영실태 전반을 파악하는 중소기업실태조사(21,000개사)와 기술개발투자, 기술 인력 등 기술개발 관련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4,000개사)를 실시하여 중소기업 관련 기본통계와 중소기업 지원 및 구조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고,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1,400개사)를 2회 실시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기동향 및 전망을 신속히 파악하여 업계의 경영계획 수립과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3,150개사)를 매달 실시하였다.

중소기업 정책수립 및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산업별, 기업규모별, 시도별로 가공하여 '2020년 중소기업현황(2018년 기준)'을 발간하였고, 중소기업의 현 위상과 경제발전 공헌을 정확히 알리고 중소기업 정책지표로 활용하고자 '중소기업 위상지표'를 발간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실적을 분석하여 중소기업 정책개발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지표'를 발간하였고,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중소기업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해외 주요국 중소기업 통계'를 발간하였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장여로를 발굴하기 위하여 2020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예로 실태조사(500개사), 2020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예로 실태조사(500개사),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250개사), 경기부진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사정 실태조사(300개사), 전자어음 이용 중소기업 의견

조사(500개사), 중소기업 실 자금 수요조사(800개사), 중소기업 추석 자금 수요조사(1,075개사),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500개사), 중소기업 신용평가기준 의견조사(300개사), 2020년 중소기업 부단금 실태조사(300개사) 등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실태를 파악하였고, 특히 코로나19와 관련, 중소기업 피해현황 및 의견조사(250개사), 중소기업 경영실태 조사(300개사), 중소기업 업종별 피해실태 조사(1,234개사), 중소기업 인력수급 실태조사(300개사),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500개사),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조사(500개사), 중소기업 경영상황 및 POST코로나 대응 의견조사(630개사) 등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현황 및 필요한 정부시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하였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 고용으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600개사), 4차 추경 및 소상공인 경영상황 조사(500개사), 화관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9월) 종료에 따른 실태조사(300개사) 등 정책기획조사를 통해 각 분야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이 정책과 접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유러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제1회 중소기업 통계데이터 활용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본회 생산 중소기업 조사통계 4종(실태조사/기술통계조사/임금조사/경기전망조사)을 개방하였고, 참가자 110팀 중 6팀을 시상하였다.

다. 공정거래질서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확산

1) 공정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공정경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대·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 집단으로의 과도한 정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 하고자 조사·연구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부·국회에 건의하는 등 정부 정책에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납품단가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영세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대신하여 대기업에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20.1), 협력이약공유제 중소기업 인식조사(20.6), 자동차산업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20.10),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20.11), 납품대금 조정협의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의견조사(20.12)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고,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방안(20.6), 중소기업의 담합 제재 면제방안(20.7), 공공기관의 하도급법 적용 및 납품대금 조정협의 방안(20.8), 기업규모별 과징금 차등화 방안(20.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개선방안(20.8), 식품산업에서의 불공정거래 개선방안(20.8), 중소기업 경영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20.8), 합리적 과징금 부과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방향(20.12) 등의 연구들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부·국회에 개선을 촉구하였다.

더불어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고 건강한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환경 개선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한국경제사에 유례가 없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양 기관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공동으로 설치하고 현장조사, 연구 등을 추진하여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였다.

2)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정착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실효성 제고를 위한 동반성장지수 실무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신뢰성 있는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평가대상 기업 확대 로드맵 수립에 기여하고, 동반성장주간 기념식(20.12)을 개최하여 동반성장 유공자를 포상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3)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대·중소기업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위한 적합업종 제도 도입을 건의하여 '11년 제도 도입 이후 '13년 상생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적합업종 실무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적합업종 110개 업종·품목 합의를 완료하였다.

또한 현행 적합업종제도 실효성 강화 및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지난 2018년 도입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관련, 협동조합단체 대상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안내 및 신청을 지원하는 한편 실무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2020년까지 26개 업종이 신청, 이 중 10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다.

더불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일로부터 지정일까지 대기업의 사업참여 제한 등의 내용으로 국회와 협력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4) 우수 중소기업 유통판로 지원

중소기업중앙회는 (주)홈앤쇼핑과 공동으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 TV홈쇼핑 방송 입점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 소재 중소기업 제품을 지원하는 '일사천리 사업'을 통해 '20년 110개사를 지원, 총 45.9억 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하였으며 본부에서 진행하는 '상품추천위원회'를 통해서도 37개사를 선정, 방송을 진행하였다.

또한, 대형유통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증진코자 신세계백화점 연계 중소기업 제품 특별전을 총 다섯 차례 개최했다. 또한 롯데백화점 중소기업상생관 입점 품평회를 개최하여 총 12개 업체가 다양한 유통 채널에 입점하는 등, 중소기업 입점 확대 및 판로 확보에 기여하였다.

라.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1)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기존 대면 방식의 해외전시회, 수출상담회 위주의 수출권소사업사업의 운영 방식을 ①오프라인 전시회 직접참가 ②오프라인 전시회 간접참가 ③온라인 전시회 참가 ④화상 수출상담회 참가로 다변화하여 지원, 총 126개 사업(3,295개사)를 155.5억원 규모로 지원하였다.

아세안(베트남 하노이 소재) 사무소를 통하여 아세안(ASEAN) 시장 진출 중소기업 지원, 현지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실시하였다. 또한 해외민간대사제도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힘쓰고 있다.

2) 해외 정부 및 기업인 네트워크 구축

주한인도대사 내방(2월), 주한중국대사 내방(8월), 주한베트남대사 내방(9월), 주한일본대사 내방(12월) 등 주요국 주한공관장들과 만나 양국 중소기업 간 교류협력 강화 및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대사관 및 해외 유관기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18회)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10월에는 경남 거제에서 백두포럼을 개최, '코로나믹스 시대, 중소기업의 길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 토론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교류가 단절되고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맞이할 새로운 글로벌 환경을 전망하고 전략을 모색하였다.

3) 통상현안 정책기능 강화 및 환경변화 대응

관세청장 초청 간담회(2월), 업종별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6·7월), 코로나19에 따른 입국제한 수출영향 조사(3월), 미중분쟁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조사(6월), FTA 활용 관련 중소기업 애로 조사(8월), RCEP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9월),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영향 조사(10월) 등을 실시하여 대정부 건의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였다. 또한 통상현안 이슈에 대해 중소기업계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통상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 국제통상포럼을 3회 개최하였다.

또한 수입급증 및 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무역구제 절차를 진행시 필요한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상사분쟁 해결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였다.

4)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한 남북경협시대 준비

개성공단 입주사 경영에로 실태조사(2월), 개성공단 입주기업 금융에로 조사(6월)를 실시하여 입주사의 경영상황, 정책지원 희망분야, 정부 보상 관련 기업의견 등 개성공단 기업 현안을 언론보도를 통해 이슈화하고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켰다.

개성공단협회 실무 간담(2월), 남북경협 관련 간담(4월),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에로 해소 추진을 위한 간담(4월), 남북경협위원회 위원장단회의(6월), 개성공단 기업인과 간담회 개최(9월)를 통해 남북경협 관련 현안을 분석하고 대정부 건의 활동등을 전개하였다.

마.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

장기간 건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16.9)를 도입한 이후 '17년부터 '20년까지 명문장수기업 총 19개사를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기업승계 활성화 국외 세미나('20.7), 기업승계 활성화위원회 개최('20.8), 장수기업 희망포럼('20.11), 기업승계 실태조사('20.12), 중소기업 기업승계 세계해설 책자 제작, 명문장수기업 홍보 영상 제작 및 유튜브 광고 등을 실시하였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차세대 (E) 스톨을 운영하는 등 제도개선 및 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바. 중소기업뉴스 발간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제도, 최신산업트렌드 등 경영정보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제공하고 중소기업 현장르포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하는 등 중소기업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홍보를 위하여 연간 48회 중소기업 뉴스를 발간하고 있다.

주요 보도내용으로는 '코로나19 속 중소기업 현장르포 및 주요현안', '공공조달제도 개선 필요성', '주52시간, 최저임금 등 정부 노동정책 관련 이슈제기 및 업계 애로' 등이 있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협동조합, 정부 및 유관기관 등에 배회 41,000부의 신문을 배포하고 있다.

4

산업별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

가. 산업정책 개발 및 업종 경쟁력 제고

1) 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중심의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과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건의, 입법과 추진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24개 산업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고, 각 산업의 현장으로 수렴, 업계 현안과제 및 애로사항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이슈 선점과 선제적 대응정책 개발을 추진하였다.

표 N-12-1-6 | 산업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원로자문위원회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위원회	부리산업위원회
기획정책위원회	남북경제위원회	농식품산업위원회
회원자격심의위원회	소상공인정책위원회	비금속광물위원회
중소기업우수상품추천위원회	공정경제위원회	산산업위원회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	표준원기위원회	전통제조업위원회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국방조달위원회
공공구매위원회	물류산업위원회	자동차서비스산업위원회
노동인력위원회	유통산업위원회	문화경영위원회

2) 산업·특별위원회 운영 통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개선 촉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발굴 및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해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중소기업 스마트워크 구축현황 조사 및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의 현주소와 과제 강연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중소기업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 회의실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産·學·研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한 「2020년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모임 횟수를 축소, 전체 회의를 1차례 개최하였으나, 각계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질 높은 회의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가 9명(학·연구계 2, 협회 4, 업계 1, 조합 2)을 신규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 대응방향'을 주제로 각계 현안 및 대응방안을 공유하였다.

「뿌리산업위원회」는 제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뿌리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인력난 해소 방안을 주로 모색하였다. 특히 뿌리산업 전문인력 교육센터 설치,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등 코로나19 이후 뿌리산업 애로해결을 위한 여러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산업동상자원부-중소기업중앙회-한국생산기술연구원(MKI) 체결 이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협업사업을 논의하였다. 이후 중소기업중앙회는 뿌리산업 밀크런 협약식에 참여하며 밀크런 확산을 통한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미래형 구조로의 전환에도 적극 협력하였다.

「농식품산업위원회」는 식품제조업을 중심으로 '식품진흥기금 사용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HACCP 의무적용 시행일 연기방안 검토 요청' 등의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초청 간담회' 개최를 통해 중소기업 현안 과제를 전달함으로써 빵류, 떡류 등 영세업체에 대한 HACCP 의무적용 유예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비금속광물위원회」는 비금속업계 현장 중심의 정책과제 '경도 굴진 광산의 배출수 폐수에서 제외, '가평광산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등을 발굴하여 산업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에 건의하며 업계애로 개선을 지원하며, 코로나19 시대 중소기업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가 초청 '건설자재 시장 전망' 강연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전통제조업위원회」는 섬유, 금속, 염색 등 전통제조업을 중심으로 전통제조업의 혁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카이스트 교수들 초청하여 '클라우드 기반 실시간 생산관리시스템'에 대해 듣고, 실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오토스웍을 방문하여 위원들 간에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인증 관련 애로가 많다는 의견이 있어 '중소제조사의 인증취득 현황 및 애로조사'를 실시하여, 국조실, 국표원, 조달청 등과 함께 개선과제 80개를 발굴하고, 59건을 개선키로 협의했다.

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스마트서비스 보급·확산

중소제조업의 디지털화와 지속적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8년 시작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에 기존 삼성전자와 더불어 포스코가 신규 참여하여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지원하였고, 선정기업 CEO를 초청하여 대기업의 스마트공장 벤치마킹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개별 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때 겪는 자금난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협동조합 활성화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유사 업종 기업이 공동 구축하는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을 추진하였다.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도입 사례를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과 우수사례 해지클 제작 및 배포하였고, 스마트공장 수요기업이 쉽게 공급기업(IT) 정보를 찾고, 직접 선택 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혁신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소비트렌드가 언택트로 전환됨에 따라 AI(인공지능), AR(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스마트서비스 제품을 전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의, 혁신 마인드 고취 등을 위해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현장체험 전시를 추진하였다.

다. 환경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사항 개선 지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취급시설 설치 시 적용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기준이 일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중소기업들이 대거 부적합 판정을 받아 영업허가가 취소될 우려에 처했다. 이에 따라, 본회는 정기검사 1년 유예와 업종별 현장 상황에 맞는 기준 마련을 국회, 환경부 등에 지속 건의하였다. 그 결과, 취급시설 관련 애로가 가장 많았던 표면처리와 염색업종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고시가 별도로 제정되어 정기검사 시에 현장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시 제정 이후에도 지속 보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파악하고, 타 업종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마련을 위해 장례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구미 불산 누출사고 등을 계기로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제정, 「환경책임보험」이 신설(16.7.1일)되었다. 동법에 따라, 특정 대기·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과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다. 그러나 환경책임보험의 도입 이후 손해율은 고작 7% 수준에 불과했다. 타 보험과 비교했을 때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107.7%, 실손 보험의 손해율은 104.3%로 환경책임보험을 통한 5대(DB, AIG, NH, 삼성, 현대) 보험사가 현재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납부된 보험료는 1년 단위로 소멸하며, 환경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료를 납부한 해당 사업자의 피해는 보장되지 않아 기업에게는 부담금이나 세금으로 체감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환경부 장관 간담회, 중소기업환경정책현의회 개최 시 기존보험의 효율을 인허하고, 할인을 대폭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를 요청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라.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코로나19 극복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캠페인 추진, 유통시장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근거 마련, 소상공인 관련 실태조사 실시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관련하여 입점 소상공인의 현황과 문제점 등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산업별 위원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각종 소상공인 관련 현장애로를 발굴하였고, 분야별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소상공인 경영 애로를 해소하였고, 17건의 사업조정을 실시하여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및 자생력 강화의 기틀을 조성했다.

마. 중소기업 전문 연구

공정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수행 등을 위해 2019년 9월 KIBIZ중소기업연구소를 신설하여 현장 기반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중소기업계 현안에 대한 리포트 및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 사업에 대한 연구보고서 11편이 담긴 「중소기업협동조합 발전방향과 정책과제」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인정, 정부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담부서 설치, 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 참여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 부여 등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연구보고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등 입법발의 및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납품단가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걱정이온 보장 및 교섭력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중소기업 납품단가 재감받기 지원을 위한 적정대가 자가산출 시스템 구축 및 활용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주요 생산품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중 등을 조사, 시스템에 탑재하여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무매뉴얼을 제작하여 중소기업 현장 및 조합 등에서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공공조달 시장 공정단가 확보를 위한 예정가격 등 제도 개선,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표준 공동기술개발 계약서 개발, 중소기업 거래공정성 지수 개발, 유통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혁신방안, 중소기업 리소어링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을 위한 부동산 공급정책 등 상생, 혁신분야에 대한 현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연구들은 정부, 국회에 대한 정책건의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아울러 연구결과를 활용, 정부, 학계 등이 참여하는 KMZ정책포럼을 3회 개최하여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공유하였고, 중소기업 관련 경제동향, 연구결과 등이 담긴 종합정보지 KMZ정책브리프를 9회 발간,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학계, 연구원,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KMZ정책연구단」을 운영, 해외 중소기업 정책 동향 파악, 최신 중소기업 연구 결과 논의 등 중소기업 정책 네트워크를 확대하였다.

5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가.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운영

중소기업자간 상호부조에 의하여 도산을 방지하고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1981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그동안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 여건 조성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였다.

공제사업기금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과 정부 등의 출연금 및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1998년 정부출연 중단 이후에는 각종 홍보 강화, 가입촉진 캠페인 활동 및 경영상담사의 기업유치 활동 등 재원 확충을 위한 가입촉진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2020년 12월말 현재 15,926개 업체가 가입하고 있으며, 총 5,800억 원의 재원이 조성되었다.

표 N-12-1-7 | 공제사업기금 조성내역

(단위 : 억원, %)

구분	공제부금	정부출연금	대손보전금	이익잉여금 등
조성액 (비중)	4,084 (70.6)	1,400 (24.1)	146 (2.5)	180 (3.0)

공제사업기금은 부도매출채권대출(제1호 대출,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부도, 회생,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한 연체도산 방지), 어음·수표대출(제2호 대출, 어음 및 수표의 결제 지원에 따른 도산 방지), 단기운영자금대출(제3호 대출,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 및 단기운영자금 부족 지원) 등 3종류가 있다.

총 대출금액의 98.9%인 4,544억 원(2020년 대출액 기준)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원함으로써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은 물론 중소기업의 상호부조를 기반으로 한 자율적 금융지원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표 N-12-1-8 | 공제사업기금 대출 현황

(단위 : 천, 억원)

구 분	부도대출채권 (1호대출)		어음·수표 (호대출)		단기운영자금 (호대출)		대출채권담보 (호대출)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6이전	12,964	6,788	229,574	52,707	79,648	30,722	117	31	322,323	90,248
2017	25	17	1,458	397	5,294	2,968	-	-	6,775	3,382
2018	32	28	1,370	400	6,409	3,499	-	-	7,811	3,927
2019	9	10	1,149	337	8,950	3,909	-	-	8,117	4,256
2020	15	9	781	248	6,862	4,339			7,958	4,506
계	13,065	6,852	234,330	54,089	105,172	45,437	162	45	352,729	106,423

공제사업기금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하여 대출이자의 일정 부분(1.0~3.0%p)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4개 기초자치단체와 협력사업으로 실시하여 2020년 총 2,117개 업체에 약 19억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완화하였다.

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영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적 공제제도이다. 2007년 9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시행되어 2020년 말 제적 가입자는 1,384,038명이고, 부금 14조 8,308억 원을 조성하였다.

가입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이고,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공제사업센터)·시중은행·상당사·홈페이지(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납부 공제부금은 월 5만원~100만원까지이고,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부금전액과 적립이자를 받을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공제금의 압류가 금지되며, 2017년부터 공제부금 납부액에 대해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납부부금은 전액에 대해 연복리 이자율(분기 변동)을 적용하고, 또한 가입 후 2년간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발생 시 월부금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0년 12월부터는 무이자 의료대출 및 재해대출을 시행하여, 질병·상해 또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의 일정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말까지 폐업 또는 사망사유로 398,022명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3조 532억 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고, 운전자금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725,019건 6조 6,774억 원의 공제계약대출을 지원하였다.

표 N-12-1-9 | 연도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건수 및 부금조성 현황(누계기준)

(단위 : 건, 억원)

2017년 이전		2018년		2019년		2020년		총 계	
건수	부금액	건수	부금액	건수	부금액	건수	부금액	건수	부금액
102,952	85,332	271,783	29,486	237,167	33,258	274,094	37,857	1,915,515	185,933

다. 중소기업 이행보증공제 운영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이행보증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5월 도입된 「중소기업보증공제」는 2020년 12월말 현재까지 총 2,015개 업체에 86,991건의 공공조달계약에 대해 보증증권을 발급하여 약 6조 3,004억 원을 보증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민영보험사 및 업종별 공제조합이 보증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음에 따라 보증기관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으나, 「중소기업보증공제」 출범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보증증권을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공급 독과점이 개선되는 등 보증 소비자인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부담이 완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였다.

「중소기업보증공제」는 저렴한 비용과 편리한 이용절차 및 협동조합의 적극적인 조합원 지원을 통해 공공조달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적절한 신용을 공여하는 자율적 금융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중소기업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수요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N-12-1-10 | 중소기업보증공제 운영현황(2020.12.31. 현재기준)

(단위 : 개사, 건, 억원)

이용업체 수	유관법규 건수	모용 금액
2,015	86,991	63,004

* 이용업체 수의 경우, 중복업체 제외

라. 중소기업 손해공제 운영

중소기업이 경영과정에서 노출되는 각종 위험에 대해 저렴한 비용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2013년 11월부터 중소기업 손해공제(파란우산공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재산손해에 대해서는 화재·재신종합·기업종합공제·간편실손화재공제·소상공인풍수해공제, 배상책임 손해에 대해서는 영업배상책임·근로자재해·건설기계안전공제, 생명·신체 피해에 대해서는 단체상해공제의 9가지 공제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손해공제는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료 대비 10~25% 저렴하게 공제료를 받고 있으며, 단체적 가입 추진을 통하여 중소기업 일부 위험업종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인수제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N-12-1-11 | 연도별 손해공제 가입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378	2,875	1,618	3,286	3,041	4,123

마. 중소기업 제조회책임(PL) 단체보험 운영

2002년 7월 「제조회책임(PL)법」 시행에 따라 1999년 8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PL단체보험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손해보험사와의 PL단체보험 계약체결을 통해 중소기업의 개별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PL사고에 대한 신속·공정한 처리를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 PL대책 수립에 효율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표 IV-12-1-12 | 민도법 유효계약 보유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건수	금액								
4,071	12,436	3,911	11,753	3,774	12,121	3,979	11,212	4,889	11,760

6

중소기업 인력 및 판로 지원

가. 중소기업 인력지원

1)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1997년에 설립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중소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지식서비스와 인프라 제공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현장 밀착형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2012년 상암동 중소기업 DMC 타워에 교육장을 신설하여 교육 수요자의 편의성 증대 및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였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2016년)에 발맞춰 교육을 통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대면교육(ZOOM, 유튜브)을 병행하여 디지털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였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힐링캠프, 재기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2020년 연 9,145명이 수료하였다.

표 IV-12-1-13 | 중소기업인력개발원 교육운영 현황

(단위 : 명)

구분	협동조합 인식원	지현시의 연계교육	맞춤형 교육 등	계
2018년	2,714	1,296	4,081	8,071
2019년	2,607	8,558	5,311	16,874
2020년	1,527	5,270	2,348	9,145

2)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고용허가제(점수제)의 행정대행기관 및 취업교육기관으로서 최초 입국에 총 3년간 근무하는 '신규 외국인근로자' 및 1년 10개월 연장된 '재고용근로자', 취업기간 동안 사업장변경이 없었던 근로자는 출국 1개월 후 재입국할 수 있는 '재입국특례자(구 성실근로자)', 현지에서 특별한국어시험을 합격해 종전 사업장으로 재입국하는 '특별한국어시험 재입국자' 등 연간 5만여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중소기업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 '유통업종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확대' 등 중소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다.

2020년 4월 코로나19 확산사태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중지되었을 때 코로나 방역상황이 양호한 국가의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재개,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1년 연장을 이끌어 내는 등 중소기업 현상의 인력공백 피해를 줄여줬으며, 향후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및 편의제고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임금 적용', '국민연금 사업자부담분 지원', '숙식비 사전공제 마련'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 판로지원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촉진 유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권의, 주요 공공구매 담당자와의 간담회 및 교육, 정부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홍보 등을 통하여 공공부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유도함으로써, 2020년 정부 등 공공기관의 제품구매 총액 145.8조원 중 79.9%인 116.5조원이 중소기업제품으로 조달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구매 실적 대비 11.0% 증가된 규모이다.

2021년 구매목표는 849개 기관에서 총구매 145조 4천억 원의 78.0%인 113.4조원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다.

표 N-12-1-14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계획

(단위 : 조원, %)

구분	2020년 구매실적			2021년 구매목표		
	총구매 (A)	중소기업 (B)	비율 (%)	총구매 (C)	중소기업 (D)	비율 (%)
총계	145.8	116.5	79.9	145.4	113.4	78.0
물품	47.7	38.2	80.1	47.6	38.6	76.9
공사	67.2	53.7	79.9	67.7	52.1	77.0
용역	30.9	24.7	79.9	30.1	24.7	82.1

2)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2016년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이후 2018년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한·지명경쟁 조항 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반영하였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교육·홍보를 강화한 결과 2020년말 기준 약 349억 원(계약금액 기준)의 조달규모가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을 통해 조달되었으며, 294개 세부제품에 대해 총 66개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한 소기업 수주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직접생산확인제도 운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및 물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tmpp.go.kr)을 통한 직접생산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비롯해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실태조사를 통한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조달시장 참여 희망 중소기업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2020년은 32,282건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발급되었다.

표 N-12-1-15 | 직접생산확인 주요연혁

구분	주요내용
2007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운영 시작
2010	10. 21부터 직접생산증명서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2011	유효기간 변경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폭 감소
2012	2010년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발급 대폭 증가
2016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고도화 원료로 이용자 편의 개선
2017	1000여개 직접생산확인 상세 기준에 대한 전산화 작업 완료
2018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유료화

직접생산확인제도는 2007년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g.go.kr) 운영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2010.10.21일부로 기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의 증명서 발급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였다. 또한 2016.2.1.일부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시스템을 개편하여, 사용자별 맞춤형 정보를 구성하고 업무처리속도 및 메뉴의 접근성,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표 N-12-1-16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현황

(단위 : 개)

구분	2016년 이전누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	총 누 계
업체수	194,528	27,395	28,365	28,511	32,282	311,081
제품수(제품동목)	943,830	112,119	118,996	106,696	125,572	1,407,213

4) 지방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제품판매장 운영

지방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2008년 4월 16일 대구에 중소기업제품판매장을 연면적 4,673㎡(1,413평) 규모로 개설하였으며 지역 우수 중소기업제품과 특화상품의 홍보와 판매를 지원하고 우수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와 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7

중소기업 위상 제고 및 사랑나눔문화 확산

가. 중소기업 사기진작 및 위상 제고

'202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2020.1.6)를 개최하여 약 780여명의 전국·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여 함께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구축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국무총리가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직접 참석하여 함께 신년하례의 시간을 나누었다.

중소기업 주간행사(2020.5.11-15) 기간 동안에는 코로나19 시기를 감안하여, 핵심 행사 위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중소기업 관련 44건의 행사가 개최되어 중소기업들과 국민이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31회를 맞이한 '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는 8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였으며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유공자에 대해 포상식이 거행되었다.

나. 중소기업 사랑나눔문화 확산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계의 사회공헌을 위한 동참과 나눔은 더욱 활발히 추진되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이 심했던 영남권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개학이 2주 연기되어 급식공백이 발생한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세소상공인의 식당에서 도시락을 주문하여 전달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기여와 결식위기아동의 식사를 지원하였다.

매년 명절에 진행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나눔은 인생경제 활력을 위해 5월에 추가 진행함으로써 전통시장 상인을 응원하였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따뜻한 미담과 희생으로 우리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준 영웅을 발굴하여 감사패를 전달함으로써 중소기업계의 사랑나눔을 실천하였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여름철에는 소상공인 가족을 초청하여 숙박과 식사 등 2박 3일 일정의 휴가를 지원하였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삼계탕을 전달하며 매출에 타격이 큰 시장상인을 응원하였다.

연중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재단은 중소기업과 함께 다양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였다. 중소기업계가 기부한 성금을 활용하여 아동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키트를 3차에 걸쳐 제작하여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아동 1만3천명에게 전달하였다. 그 외에도 국제백신연구소에 백신개발을 위한 성금전달, 의료진 및 환자를 위해 분당 서울대병원 방역물품 전달, 복지시설에 갑장검치 전달 등 코로나19를 위한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에 꾸준히 동참하였다.

역대 최대 장마가 있었던 여름에는 전국 34개 수재민 대피소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여 수재민 지원에 동참하였으며, 코로나19로 지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아름다운 중소기업 나눔콘서트'를 개최하여 문화 소외 계층의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였다.

다. 중소기업 인식개선

중소기업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하였다. 해당 플랫폼은 지도를 활용해 우수 중소기업 현황과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에는 정식 플랫폼 런칭을 통해 정부·지자체 인증 우수기업 중 약 3만개 업체를 선정하여 채용·교통·복지·여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웹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역별 우수 중소기업의 소재와 채용현황의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성화고·산업정보고 등 직업계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교육'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과 올바른 진로교육 부재로 인해 비롯되는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였다. 전체 276학급, 4,40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교육 이후 중소기업 인식도 제고가 확인되었다(3.08→4.07, 5점 척도).

'행복한 증기씨'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대학생의 시각에서 콘텐츠를 제작·홍보하여 중소기업 사회문제와 편견해소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블로그 콘텐츠는 월평균 조회수 2.9만회, 누적 조회수 650만회를 기록하였으며, 그 외에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문 콘텐츠 제작 및 홍보사업을 진행하였다.

'제11회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IDEA 공모전'을 개최하여 동영상·포스터·아이디어기획서·지도자보고서 이상 4개 부문 총 164점의 작품을 접수하였으며, 그 중 80팀(130명)을 시상하였다. 수상작품은 본회 3층 포토월 및 엘리베이터, BK기업은행 광고 전광판을 포함해 온/오프라인에 전시되었으며,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전로교육 활용을 위한 기관 등에 배포되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N행시 공모전'을 개최하여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전환 계기 마련과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였다. '코로나극복', '함내라중소기업', '일자리인식개선', '청년희망일자리'라는 주제로 전체 3,254점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우수 작품 200점을 선정하여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물로 활용하였다.

라. 지방 중소기업 지원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전국 13개 지역본부와 5개 공제사업센터에서는 지방중소기업 육성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핵심 이슈 반영을 위해 총 511건의 중소기업계 경영애로 및 건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달하였다. 또한 지방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실태파악을 위한 동향조사를 94건 수행하였으며, 애로파악 및 정책건의를 위한 지자체장 간담회 등 각종 회의를 287회 실시하였다. 아울러 지역중소기업 육성시책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신규설립·기능활성화·사업계획 편성 등 조합 운영지도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조직화에 기여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사업도 전개하였다.

제13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

일반현황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04년 12월 27일 설립되었으며, 대·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 및 문화 확산을 통해 명실 공히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기업간 협력사업 추진

1) 공동투자형 기술개발구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조성

2008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R&D 시장밀착형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이 투자기업으로 참여하는 기금매칭형 R&D사업을 시작하였다.

대·중견기업, 공공기관의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 수요가 있는 R&D 과제에 투자할 자금을 사전에 정부와 공동으로 조성한 후,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기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이 일정기간 구매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은 향후 반로까지 확보할 수 있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재단은 88개 투자기업과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투자협약 기금을 7,005억원 조성하였고, 1,081개 과제 총 5,431억원을 집행하였다.

표 N-13-1-1 |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협력기금 조성 현황(2020년도 말 기준)

구분	공동투자 협력기금	투자기업명
민간 대·중견기업 (65)	4,839억원	포스코, 르노삼성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롯데마트, NS쇼핑, 스템코, LG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LS엔트론, SK텔레콤, 포스코에너지, 케이티, KOC건설, 한화시스템, 네이버, 인텔, 한솔테크닉스, 주성엔지니어링, 인성정보, 크루셜텍, 경향산업, 중앙통신기업, 휴맥스, 오택캐리어, 아진산업, 대동공업, 다이이씨, 롯데, 국제종합기계, 세아, 아이즈비전, SFA반도체, 대상, JW홀딩스, 이모레퍼시픽, 삼지전자, 한국항공우주산업, 다산네트웍스, 파워로직스, 케이엠더블유, 미래나노텍, 루멘스, 대교, 이엘케이, 웅진에너지, 용산, 아래아아엠에스, 에스에너지, 렉스코, 뉴프렉스, 필온, 티스, 엠씨넥스, 진영지앤디, 성림첨단산업, 한백종합건설, 탐연지니어링, JWB이모사이언스, 라이온켄텍, 아세아텍, 남양엑스모, 토비스
공공 (23)	2,166억원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인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조해공사, 한전KDN, 메스밀

재단은 지속적인 투자기업 발굴을 통해 기금조성을 활성화할 예정이며, 사업의 투자기업 관리기관으로서 과제를 발굴하고 효율적 기금집행을 위한 사업수행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2)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사업은 우수한 기술·제품을 보유하고도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이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중소기업 공동의 수출활동을 지원한다.

주요 동반진출 과제유형은 글로벌 국내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해외거점형”, 국내 TV홈쇼핑사의 해외플랫폼을 활용한 “해외홈쇼핑 연계형”, 글로벌 한류문화 행사와 연계하여 판촉전, 수출상담회, 스타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한류연계형”으로 구분된다.

해외거점활용 지원사업은 대·공기업이 갖고 있는 글로벌 거점과 네트워크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대기업이 수주한 글로벌 프로젝트에 국내 중소기업이 참여하거나, 해외유명전시회에 대기업의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한 대·중소기업 공동부스(Booth in Booth) 형태로 지원한다.

해외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은 국내TV홈쇼핑사가 보유한 13개국 26개 채널에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고, 해외 홈쇼핑사 MD(메이커)들과의 비방을 통해 현지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얻어 제품 수출전략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류연계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한류로 인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외국인들이 한국 제품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콘텐츠관련 대기업과 협업하여 KCON⁴¹⁾ 등을 통해 새로운 수출 비즈니스 기회창출을 제공하고 있다.

표 N-13-1-2 | 해외동반진출 지원 현황(2020년도 말 기준)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주관기업 과제수(개)	48	39	45	75	108	65	380
지원중소기업수(개)	1,162	1,386	1,250	1,189	1,865	1,111	7,963

41) Merchandiser의 약자로, 유통기업군에서 판매할 제품의 구매, 추천 등을 수행하는 직무

42) CJ&M이 해외에서 주관하는 K-pop문화연계 Concert, Convention, Contents의 약자

3)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운영

본 사업은 상생협력 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등 참여기업과 함께 1차 및 2차 이하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종합 지원한다.

정부와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협력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써 9년간 총 307개 컨소시엄, 1,699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하였다.

표 N-13-1-3 |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사업 참여 현황(2020년도 말 기준)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누계)
컨소시엄 수(개)	10	12	18	16	20	22	30	39	40	207
중소기업 수(개)	125	143	121	108	159	183	198	332	360	1,699

사전 진단을 통한 맞춤형 혁신과제 수행으로 성과분석 결과 부가가치생산성은 15.7% 달성, 매출액증가율은 12.8%, 영업이익률 4.1%, 부가가치율 18.6%로 조사되었고, KPI 개선율은 95.7%, 달성률 111.5%로써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환경 개선에 기여하였다.

나.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1) 성과공유제 확산

성과공유제란 대기업·공공기관·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신제품 개발,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공동협력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계약대로 공유하는 모델이다. 2004년 포스코에서 최초 도입 후 민간자율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2012년 4월부터 성과공유 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확인제 운영 이후 2020년 말 기준으로 성과공유제 등록기업은 총 499개, 등록과제 19,923건, 확인과제 9,035건, 참여 수탁기업은 10,548개로 지속 확대되고 있다.

표 N-13-1-4 | 성과공유 확인제 현황(2020년도 말 기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등록기업개	221	49	23	103	73	469
등록과제건	6,719	2,077	2,079	2,338	3,189	10,923
확인과제건	2,312	993	1,281	1,351	1,482	9,305
참여 수탁기업	3,487	894	1,195	1,192	1,656	10,548

재단은 제도화산을 위해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성과공유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기업에게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맞춤형 제안과제 운영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업종별 협의회를 통해 산업계의 의견을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의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에 따라 협력이익공유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 성과공유화산추진본부를 협력성과화산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기존의 성과공유제가 수용할 수 없는 협력 유형으로서 제도 도입여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수행한다.

협력이익공유제는 2018년 11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등록기업(누적)은 2018년 5개사로 시작하여 2019년 56개사, 2020년 106개사로 확대되었으며, 등록과제(누적)는 2018년 6개에서 2019년 561개, 2020년 1,992개로 증가하였고, 참여 협력기업(누적)은 2018년 6개사에서 2019년 506개사, 2020년 1,685개사로 확대되었다.

2)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舊 동반성장 투자자원) 운영·관리

2010년 정부는 민간중심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정착·확산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2011년 삼성전자가 출연한 1,000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 말 누적 기준 279개 기업으로부터 1조 4,646억원을 조성하였으며, 157,2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조 2,777억원이 지원되었다.

표 N-13-1-5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조성현황

(단위 : 억원, 개, 2020년도 말 기준)

구분	출 연				지 원			
	대기업	공기업	중소기업 등	합 계	대기업	공기업	중소기업 등	합 계
금 액	10,655	2,469	1,502	14,646	9,437	2,291	1,049	12,777
기 업	133	58	88	279	122,538	10,392	24,272	157,202

2019년 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일몰 예정이었던 기금 출연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출연금의 10%) 혜택을 2022년까지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 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힘쓰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임에도 기업들이 사회적 역할과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등으로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2,572억원을 출연하여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출연기업 유형에 따라 대기업 2,069억원, 공공기관 445억원, 기타 국내 합단체 등에서 58억원을 출연하였다.

상생협력기금은 성과의 공평한 배분,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관리, 혁신창업지원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에게 방역물품, 임차료·경영안정자금으로 365억원이 지원되어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이 이루어졌다.

또한 재단은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의 재원관리 기관으로서 2020년에 216억원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 N-13-1-6 | 2020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사용용도별 출연규모

(단위 : 억원, 2020년도 말 기준)

구분	투자재원	기술협력	스마트 공장	생산력 향상	성과배분	관리지원	창업지원	기타	합계
출연금액	1,575	206	216	169	269	22	49	66	2,572
비율	61.2%	8.0%	8.4%	6.6%	10.5%	0.9%	1.9%	2.6%	100.0%

* 투자재원 : 내국법인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동

3)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구축·운영

본 사업은 대기업, 공공기관, 협력사 간 상생협력 관련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고 자사 협력사 외 비거래 중소기업에도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기업별 자율적 상생협력 활동 및 협력사 등록절차를 안내하여 상생협력 종합 플랫폼(상생누리) 정착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표 N-13-1-7 | 지원 범위별 프로그램 등록 현황(2020년도 말 기준)

구분	지원 범위	등록	
		건수	비율
협력사 지원	기존 협력사	1,660	28.0%
계열사 오픈	기존 협력사+계열사 협력사	53	0.9%
부분 오픈	기존 협력사(%)+머거레 기업(%)	375	6.3%
전체 오픈	모든 중소기업	3,837	64.8%
합 계		5,925	100.0%

표 N-13-1-8 | 지원 분야별 프로그램 등록 현황(2020년도 말 기준)

부문	2016-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누적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교육	221	24.3%	222	27.3%	598	32.4%	633	26.8%	1,672	28.2%
관료	136	15.0%	155	19.0%	251	13.6%	340	14.4%	882	14.9%
컨설팅	117	12.9%	61	7.5%	153	8.3%	190	8.0%	521	8.8%
기술	95	10.5%	67	8.2%	152	8.3%	257	10.9%	571	9.6%
특허	32	3.5%	5	0.6%	23	1.2%	30	1.3%	90	1.5%
금융	107	11.8%	68	7.1%	202	11.0%	317	13.4%	684	11.5%
창업	31	3.4%	34	4.2%	62	3.4%	84	3.6%	211	3.6%
인력	21	2.3%	31	3.8%	59	3.2%	90	3.8%	201	3.4%
네트워킹	14	1.5%	20	2.5%	41	2.2%	18	0.8%	93	1.6%
기타	134	14.8%	161	19.8%	302	16.4%	403	17.1%	1,000	16.9%
합 계	908	100%	814	100%	1,841	100%	2,362	100.0%	5,925	100.0%

4) 상생결제제도 운영

2차 이하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 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 결제환경 개선을 목표로 「제3차 내·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발표(14.11.17)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20년까지 총 운용액 527조 7,237억원, 구매기업 434개(민간기업 341개, 공공기관 93개), 거래기업 216,842개가 상생결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총 11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상생결제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상생결제의 정의(제2조의 제8호의2) 및 협력재단의 제도 운영 업무(제20조제2항제8호)를 추가하였으며, 결제환경 개선을 위해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 의무화(제22조제5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표 N-13-1-9 | 상생결제제도 운용현황(2020년도 말 기준)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총 운용액(억원)	245,931	660,643	935,891	1,074,324	1,155,713	1,198,635	5,277,237
구매기업-1차(억원)	242,716	658,026	925,797	1,061,231	1,138,789	1,177,051	5,203,611
1차 이하(억원)	3,215	8,617	10,193	13,092	16,924	21,583	73,625

표 N-13-1-10 | 부차별 정책 추진현황(2020년도 말 기준)

[소관부처]정책명	상세내용
[산업부] '14. 11. 17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 본계획 중점과제	2. 2,3차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2-3. 중소기업의 수입 안정화를 위한 결제제도 혁신 - 대기업 신용을 활용한 '상생결제시스템' 자율 구축 및 확산
[공정위] '15. 1. 13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통한 시장 경쟁력서 회복안	4.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 대기업 신용을 활용한 '상생결제시스템'의 자율 확산을 통해 2 -3차 협력사의 신속한 납품대금 회수를 지원
[관계부처합동] '15. 12. 16 2016년 경쟁정책방향	2-1 기초가 흔들린 경제 ⑤ (대·중소기업 상생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지속 하고 대·중소기업간 원활한 자금순환 유도 - 대기업 신용이 기반인 매출채권 담보로 2·3차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에 대한 상생결제유무에 따른 영업경계대의 0.1~0.2%
[공정위] '16. 4. 7 공공공사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	2. 직불 유형 □ 하도급대금 직불 유형으로는 ① 하도급자정보조달청 운영, '상생 결제시스템(신입부 운영)', '대금(비리)서로서 운영' 등 대금지급시 소비를 활용한 직불 - 등이 있음
[공정위] '17. 6. 26 하도급 지급 보증연계 지정고시제 (2017-6호)	II (하도급법 제13조의2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대 금지급보증 연계 요건 중 상생결제시스템이 유일한 하도급 대금 자금관리시스템으로 지정 고시됨
[기재부] '17. 12. 19 초세특례제한법 개정	○ (조특법 제7조의4제1항)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 중소기업 → 중소·중견기업
[중기부] '18. 9. 2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II (상생협력법 제2조의제8호의2) 상생결제 정의, (제20조제2항제4호) 협력채권 업무 추가, (제22조제5항)상생결제 의무화, (제27조 제3항 및 제4항) 포상 및 세제지원 등 신설 및 개정
[관계부처합동] '19. 12. 16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2.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증진 ① 상생결제 활성화 △2차 협력사 이하로의 상생결제 활성화 △ 공공기관이 상생결제 확산을 선도할 수 있도록 참여 확대 △ 상생결제의 법적 안정성 확보 및 인프라 확충
[관계부처합동] '20. 5. 15 건설현장 체불근절을 위한 임금직 접지급제 개선방안	II. 임금직접지급제 강화. 1.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② 중소·중견기업부 상생결제시스템 △ 모든 선금선지급이 상생결제 예외 계좌를 거쳐 처리함으로써 상생결제시스템 기능 개선 등

5) 동반성장 커뮤니티 구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일반 국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11월 첫째 주를 동반성장 주간으로 정하여 상생협력 관련 다양한 행사 집중 개최하고 있다.

표 N-13-1-11 | 연도별 동반성장 주간 개최 현황(최근 5개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개최일자	'16.11.1(화)	'17.11.1(수)	'18.10.31(수)	'19.11.6(수)	'20.11.4(수)
개최장소	인터컨티넨탈호텔 스심상막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

동반성장 주간 행사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유공자를 발굴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보상을 시상함과 동시에 대기업·공공기관의 상생협력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공공기관의 특성과 경영여건을 반영하여 경영목표에 부합한 자율적 동반성장 협약 체결 및 이행 지원하고 있다.

표 N-13-1-12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 실적(2020년도 말 기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동반성장 포상(명)	172	44	51	56	58	381
동반성장 협약사건	35	11	28	32	26	132

6)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 사업

본 사업은 2020년도 신규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 3대 신산업 등 정부의 핵심 프로젝트의 성공을 관인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대·중견·강소기업 등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전문기술인력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사업 공고(3차)를 통해 최종 332개사(439명)의 배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확보에 기여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표 N-13-1-13 | 업종별 지원 현황(2020년도 말 기준)

구분	건설	기계	정보통신	전기전자	자동차조선	기타	합계
기업수(개)	59	35	80	50	24	84	332
비중	17.8%	10.5%	24.1%	15.1%	7.2%	25.3%	100.0%
인원수(명)	83	41	112	64	34	105	439
비중	18.9%	9.3%	25.5%	14.6%	7.7%	23.9%	100.0%

* 기타 : 식품, 서비스, 기타 제조업

다.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

1)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을 위탁 받아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이나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공정거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근거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N-13-1-14 |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현황(2020년도 말 기준)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사전분쟁조정건	20	22	33	31	34	38	47	225
법률상담·자원건	303	391	449	548	731	667	601	3,690

2) 중소기업 기술보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4.11)에 근거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14.12)되어,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탈취, 유출 등을 근절하고 기술보호역량 수준 강화를 통해 기업 간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기술보호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술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보호 상담·자문,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을 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위원회, 기술보호지원반,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기술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대기업·공공기관, 중소기업 임직원 및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지원 사업 브로슈어, 기술보호 가이드, 피해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표 N-13-1-15 | 중소기업 기술보호 사업 지원현황(2014년도 말 기준)

(단위: 건)

구분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기술보호 상담·자문	3,761	4,672	5,929	8,545	6,772	7,507	35,176
기술자료 임치	25,165	9,467	9,216	9,522	9,378	9704	72,472
기술분쟁 조정·중재	22	17	19	19	21	30	128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97	44	34	46	55	58	332
기술보호지원반	-	-	-	24	30	169	223
법무지원단	-	-	-	60	47	164	271

3) 중소기업 적합업종

본 제도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2010년 9월)의 일환으로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를 합의 도출하고, 대기업의 자율적인 확장자제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된 2011년부터 325개 업종·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신청하였으며, 동반성장위원회는 총 121개 업종·품목을 합의·권고(최초 합의·권고 기준 적합업종 110개, 시장감시 3개, 상생협약 8개) 하였다. 2020년에는 신규로 1개 업종·품목(상생협약 체결) 및 제한의로 1개 업종·품목(적합업종 합의·권고)을 운영하였고, 상생협약 기간이 도래한 16개 업종·품목에 대해 협약기간을 연장하여 체결하기로 합의를 이끌었다.

표 N-13-1-16 | 2020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권고 현황(2020년도 말 기준)

신청업종 (A+B+C+D)	진행중 E	합의 권고업종 F			합계 G	합의·반려 H
		적합업종	지정업종	생계형업종		
325	1	8	1	51	61	203

4) 생계형 적합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민간 자율 기반의 한시적 권고로 운영되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소상공인 업계를 중심으로 지속되어 왔고, 2018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18.6.12)·시행(18.12.13) 되었다.

2019년 특별법 제7조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는 26개 업종·품목을 접수하였으며, 신청·접수된 해당 업종·품목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대기업등 및 소상공인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0개 업종·품목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하였다.

표 N-13-1-17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고시 현황(2020년도 말 기준)

구분	업종·품목명
제조업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차매기 운영업」, 「LPG가스연료 소매업」
서비스업	「간장 제조업」, 「된장 제조업」, 「고추장 제조업」, 「장국장 제조업」,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국수 제조업」, 「냉면 제조업」

5)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

본 사업은 적합업종 제도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동시에,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는 중·소상공인이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업종·품목별 공동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2015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영세한 업종·품목의 중·소상공인이 공장·경영 개선, 원가·비용절감,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업종·품목 공동의 자생력 확보할 수 있도록 25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표 IV-13-1-18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현황(2020년도 말 기준)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원과제수	11개	20개	11개	15개	28개	25개

· '19년도 이후 지원예산 확대에 지원과제 수 증가

제14장

신용보증기금

1

일반현황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함)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동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이다.

신보는 1976년 6월 설립 이후 신용보증, 신용보험, 산업기반신용보증, 경영지도 등을 주요 업무로 하여 지난 40여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유동과 국가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같은 국가 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통해 금융시장의 급격한 신용경색을 차단하고, 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경제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지원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보증지원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하여 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견인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등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여 산업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해 상가대 신용지수를 개발하고 상환정구권 없는 팩토링 사업을 시범 운용하는 등 혁신금융 추진 노력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 신보는 총 65.4조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여 국가경제기반 강화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역대 최대 규모인 20.4조원의 신용보험을 인수하여 중소기업의 거래안전방 화충에 기여하였으며, 2.1조원의 산업기반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2

사업별 추진실적

가. 신용보증

1) 2020년도 기본방향 및 신용보증현황

가) 2020년도 기본방향

신보는 2020년 주요 추진과제로 '정책금융 활성화', '혁신성장 주도', '포용적 금융 강화', '안정적 채원 관리'를 천명하였다.

나) 신용보증현황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보증',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총 66.4조원의 보증을 공급하였고, 2020년 말 기준 총보증잔액은 67.2조원이다.

표 N-14-1-1 | 최근 3년간 신용보증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총보증잔액	505,317	522,161	671,531
총보증공급	470,550	490,878	653,758
보증업체수	207,912	209,765	424,060

2) 추진과제별 주요 추진 실적

가) 정책금융 활성화

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제조업 혁신의 원동력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분야 경쟁력강화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하여 정책금융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② 해외진출기업 단계별 지원제도 확충 및 해외사무소 신설

정부의 신(新)남방정책 지원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진출에서 복귀까지 단계별 지원제도를 운용 중에 있으며, 특히 2020년에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확대 및 수요발굴 노력 강화를 위해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를 개소하였다.

③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피해기업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도입

코로나19 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특례보증,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속·전액보증,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17.7조원의 신규보증을 공급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견·대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대응 유동화회사보증'을 신설하여 3.6조원의 유동화회사보증을 신규 지원하였다.

④ 주력산업 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력산업 지원을 중점정책부문으로 운영하고, 2019년 도입한 자동차부품산업 유동화회사보증을 주력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중소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조선기자재 특례보증'의 대상기업요건을 완화하여 금융지원을 확대하였다.

나) 혁신성장 주도

① 공동 프로젝트 보증 프로그램 도입

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미래산업 분야 진출을 지원하고자,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트 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과의 공동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였다.

② 기술평가 업무 수행

2018년 9월 "발명의 평가기관(특허청)" 선정에 이어 2020년 3월 "기술평가기관(산업통상자원부)"으로 지정되었고, 전문 기술평가 기관으로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③ 대표성 있는 혁신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지원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크레딧라인 설정 등을 통해 기업자금 수요에 맞춤형으로 보증지원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혁신 아이콘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 중에 있다.

④ U-CONNECT 프로그램 운영

혁신스타트업을 위한 민간투자유치 플랫폼과 투자유치 성공 이후 지속성장을 위한 연계지원 보증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결합한 U-CONNEC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⑤ 상거래 신용지수 구축 및 연계 보증상품 출시

기업 간 상거래 결제기간, 기업 활동성, 결제능력 등 동태적 정보를 바탕으로 상거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대인평가시스템 '상거래 신용지수(한국형 Paydex)'를 구축하였고, 상거래 신용지수와 연계한 보증상품을 출시하여 과거 절차이 부족하거나 재무상태가 취약한 경우에도 상거래 신용도가 양호한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을 공급하였다.

⑥ 비대면 전용 상품 Easy-One 보증 출시

기업이 온라인으로 보증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신용보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라인 전용 상품인 Easy-One 보증을 출시하였다. Easy-One 보증은 고객의 비대면 신청·상담·전자약정과 신보의 현장심사가 결합된 보증상품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환경에서도 보증을 신속하게 지원하였다.

⑦ 기술건설팀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권역별 공학건설팀센터와의 협업 확대를 통해 기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건설팀을 제공하여 기술 애로사항 해결, 기술역량 강화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였다.

다) 포용적 금융 강화

① 연대보증 폐지 지속 추진 및 정착

기(既) 보증기업에 대한 점진적인 연대보증 면제를 통해 연대보증제도 폐지의 안정적 정착을 추진하는 한편, 책임경영심사를 도입하여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사전 부실 예방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②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구축

사회적금융 중개·지원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 평가체계로, 기업철학, 사회적 서비스 제공, 사회 환원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경영역량, 재무활동 등을 통해 기업 운영을 평가한다.

③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지원

정부의 일자리 중심 경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신청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유망 서비스 부문 영위기업 등 일자리 창출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중심으로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고용창출·유지 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대표산업 우대보증 제도를 통해 지역의 핵심 육성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④ 기업 성장단계 등을 고려한 재기지원 활성화

위기기업의 부실예방 및 제도약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벨류업 프로그램」 및 회생 기업의 성공 재기 전인을 위한 신규자금 지원방안을 확대하여, 기업 성장단계와 채무자의 환경을 고려한 재기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⑤ 제도약·제도전 비금융지원 활성화

제도약·제도전 프로그램 지원기업에 대한 비금융지원(컨설팅, 사후관리 등)을 강화하여 (재)실제 방지 등 성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적극적인 홍보활동 강화로 실패기업의 제도전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제도약·제도전 지원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⑥ 취약채무자에 대한 재기지원 확대

기업경영과 무관한 제3자 단순 연대보증채무자의 채무감면을 확대하였고,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장기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 및 사회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단계적 청리방안을 개선하였다.

라) 안정적 자원 관리

① 사전·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안정적 사업기반 마련

리스크인수율을 관리한도 이내로 유지하여 부실률을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한편, 부실징후를 조기에 파악하여 부실 확산을 차단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부실 정상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부실률(2.4%)을 달성하여 보증사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 리스크인수율 : 보증금액에 내재한 리스크를 나타내는 지표로, 신용등급별 부도확률(PO)을 등급별 보증금액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② 맞춤형 채무감면을 통한 구상권 회수기반 강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채무자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을 실시하여 원금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회수 기반을 강화하였다.

나. 신용보험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 2에 따라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의 거래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을 방지하여 사회·경제적 거래안전망을 제공할 뿐 아니라 기업의 신규 거래처 확보를 지원하는 등 기업 경쟁력 향상에 일조하여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도입 첫 해인 1997년에 어음보험 업무를 개시한 뒤, 2004년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대상을 외성매출금까지 확대한 매출채권보험을 시행하였고, 2015년 보험가입 대상기업을 일부 부적합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였으며 2019년 보험 가입대상은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모든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2020년 신용보험 인수총액은 총 20조 3,511억원으로 연간 목표 20조 2,000억원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보험 수요 및 경제 상황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인수규모를 확대해 나간다는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기업을 위해 총 3차례의 특례우대보험 9,625억원을 인수하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였고, 지자체 협약보험을 11곳의 광역기초 지자체로 확산하여 보험 가입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 하였다.

또한,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보험 계약 후 3회에 걸쳐 계약내용이 변경 가능한 하이 옵션 보험을 출시하여 기업의 경영안정 효과에 따른 상거래 위축 해소에 기여하였고, 빅데이터 기반의 동태적 데이터를 활용한 '상거래신용지수 연계보험' 도입으로 재무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까지 보험 가입 혜택을 확대하는 등 고객중심의 신상품 도입과 함께 정책보험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표 N-14-1-2 | 신용보험 보험 인수 및 보험금지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수총액	179,873	196,977	201,805	201,442	203,511
보험금지급	732	574	788	785	603

다. 산업기반(인프라)신용보증

신보는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용자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보증하여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균형 있는 국토개발을 통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4년 8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주요업무로는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민간투자채도의 연구·개발, 금융컨설팅, 보증채무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 등이 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2020년 총 12개 사업에 2조 513억원의 보증 공급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특히 금리 하락 시기에 수요 증가를 보이는 리파이낸싱보증(사업재구조화 포함)을 4,254억원 공급함으로써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경영 애로 사업의 정상화 지원, 민자시설 사용료 인하 등의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였다.

그 밖에 대학교 생활관·군 병영시설·생활체육시설 등에 보증을 공급하여 국민 생활 밀착형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였고, 비수도권 지역 인프라사업 지원 확대(55.7%)로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민자시장 수요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응하였다.

표 N-14-1-3 | 산업기반인프라신용보증 현황

(단위 : 억원,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보증공급	20,832	16,102	20,513
보증잔액	105,539	111,559	114,001
사업수	11	7	12

라. 문화산업완성보증

신용보증기금은 물적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지원을 목적으로 2018년 6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의2에 따라 문화산업완성보증(이하 "완성보증"라 함)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완성보증은 문화상품 제작기업이 콘텐츠 제작 완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을 지원하고, 제작기업은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전담조직 신설, 문화콘텐츠평가모형 개발 등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2020년 총 55건의 제작 프로젝트에 대해 205억원의 완성보증을 공급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2020년 총 55건의 제작 프로젝트에 205억원의 완성보증을 공급하였다. 프로젝트의 완성 가능성과 흥행성을 외부자문과 내부평가단을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문화콘텐츠 장르별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등 사고 발생과 채무 불이행 없이 안정적으로 완성보증 계정을 운용하였다.

또한, 방송/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공연, 영화 등 다양한 장르에 대해 신규 보증을 지원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였다.

제15장 금융감독원

1

일반현황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現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 설립되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금융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해소하는 데 힘쓰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 유도

1)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

2020년 말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836.3조원이며, 전년 말 대비 증가 규모는 89.6조원이다. 중소기업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모두 증가하였고, 개인사업자 비중은 2019년 말 45.3%에서 2020년 말 46.2%로 늘어났다.

표 N-15-1-1 |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2019년 말	2019년 말(사)	2020년 말(리)	증감(리-사)
중소기업 자금지원	606.3	746.7	836.3	89.6
중소법인대출	362.5	408.3	450.2	42.0
개인사업자대출	313.8	338.5	386.1	47.6

2) 관계형금융

관계형금융은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하지만 사업전망이 양호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계량정보 뿐만 아니라 비계량정보를 포함한 모든 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장기여신, 자본투자, 컨설팅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안정적인 자금 조달, 대출금리 측면과 기반산업 지원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020년 말 국내은행의 관계형금융 취급 실적(잔액기준)은 10조 2,944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조 2,531억원 증가하는 등 기존의 재무정보 위주의 대출취급 관행에서 벗어나 비재무정보를 폭넓게 활용하는 새로운 대출취급 프로세스로 정착되었다. 특히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대부분 단기자금 위주로 취급되는데 비해 관계형금융은 모두 3년 이상으로 취급하고 있고 평균대출금리(2020년 말 2.45%)도 전체 중소기업 대출 평균금리(2.80%)보다 낮은 수준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지원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비중이 33.6%로 기반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 노력

1) 금융애로 상담 등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이 언제든지 금융애로를 상담 받고 해결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2018년 조선업 구조조정, 2019년 일본 수출규제 및 2020년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상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연초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애로가 심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은행장 간담회, 금융지원 이행상황 점검 및 현장지원(3-5월) 등을 통해 금융권의 적극적 지원을 유도하였으며,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운영(연중)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기부금을 전달(4월)하는 등 자체적인 지원노력도 병행하였다.

2) 개인사업자대출 119 프로그램

'개인사업자대출 119'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만기연장, 이자유예, 이자감면,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도입된 사전적 지원제도로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위기극복을 위해 운영실적 및 체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안내 및 홍보 강화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20년 중 지원건수는 14,699건으로 전년(12,831건) 대비 1,838건(14.3%) 증가하며 코로나19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제16장 대한상공회의소

1

일반현황

대한상공회의소는 1884년 한성상공회의소 창립 이래 우리나라 상공업의 태동과 발전을 함께 해왔다. 전국 18만 대중소 상공인을 대변하는 국내 대표 종합경제단체로서 전국 73개 상공회의소와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세계 190여 개국 상공회의소와 글로벌 연계망을 바탕으로 범세계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대한상의는 국가산업 발전과 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정부 정책 제언, 경제현안 조사·연구, 국제통상 진흥 등의 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각종 공모전과 시상식 개최를 통해 기업인의 지위 향상 도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조직은 6본부 및 32개 팀과 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 지속성장이니셔티브 연구소를 비롯하여 '규제개선추진단', '민관협동투자지원단', '혁신성장음부즈민지원단', '산업혁신운동중앙추진본부' 등 정부와의 협력 사업에서 민간 대표 역할 수행을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중소기업 경영지원 활동

1) 코참경영상담센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위해 연간 약 15,000건의 경영애로 관련 전문가 무료 상담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실무 애로를 해소하고 보다 나은 기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영애로 관련 상담 방법은 전화, 온라인, 방문을 통해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서울시 25개구 상공회에 상주하는 전문위원을 통해 상담의뢰인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 방문하여 전문위원과 대면하여 상담할 수 있다.

(2019년 경영상담 실적)

연사·노무	세무·회계	법률·영문	인건·인명	유연·건설	특허	총합계
4,854	4,405	2,110	2,311	1,035	457	15,272

2) 계약서 검토 서비스

경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난해한 계약서를 전문가가 검토하고 조언하여 불필요한 분쟁과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이다.

서비스 분야는 크게 4개 영역으로 경영 일반, 노무, 무역, MOU 등으로 구분하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 야	주요 내 용
경영일반	구매, 공급, 납품, 용역 등 관련 계약서
근로	채용, 연봉계약 등 관련 계약서
무역	수출, 수입, 위탁판매, 판매대리, 대행 등 관련 계약서
MOU	업무협약

검토위원은 대한상의가 위촉한 변호사, 노무사, 관세사, 증재인, 경영지도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계약서를 검토 지원하고 있다.

3) 정부지원제도 활용 지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별로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 하다. 또한 지원을 위해서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원시에도 사업계획서를 비롯하여 여러 문서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잘못된 방법으로 지원을 하다 신청과정에서 탈락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문 경영 컨설팅 업체와 협력하여 기업에게 알맞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고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준비와 사업계획서 작성 검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지원제도 활용 컨설팅'을 서울시와 함께 운영 중에 있다.

2018년 첫 시행을 하였으며 60개 중소기업들이 참여하였다. 참여 중소기업들은 R&D, 마케팅, 창업 등 다양한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최종 20개 업체가 선정 되었다. 선정 기업들은 자금지원부터 역량강화 교육 등의 기회를 얻었다. 2019년에는 64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신청 준비 중에 있다.

4) 올댓비즈 (allthatbiz.korchem.net)

'올댓비즈'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정부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기업판결·판례, 경제·경영 리포트, 입지정보 등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집결한 정보제공 포털사이트이다.

지난 2016년 첫 오픈한 이후 정부지원제도, 경영 최신정보 제공 서비스와 더불어 '경영상담', '계약서 검토 서비스' 등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공 중인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신청 장구 역할도 겸하고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약 1만여 건이 정보를 게재하여 제공하였으며, 올 해도 6천 건이 넘는 정보를 기업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2019년 정보 제공 현황)

정부지원 사드	경제산업 사드	기업지원 정책포럼	기업현황 판례	업지정보	인간 서비스
7,978건	571건	444건	554건	573건	22건

5) 중소기업정책협의회

대한상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정책협의회'를 2018년 9월 14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정책협의회는 정부와 중소기업간의 만남을 정례화하여 현장 중심의 정책 입안을 지원하고, 정부-중소기업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관련 각종 규제개선 및 현장예외 해소를 위해서도 활동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운영

대한상의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임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휴양/여행/건강검진/자기개발/경조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 : 전국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서비스 분야) : 휴양소/여행, 취미/자기개발, 건강관리, 생활안정, 상품물 등

(이용 방법)

- welfare.korcham.net에서 기업관리자 회원가입
- 회원가입 승인 후 전체 임직원 정보 등록
- 임직원 아이디 자동발급 및 개별 이용

다.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채용예정자, 재직근로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 9개 개발원에서 실업자를 위한 전문인력양성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1) 실업자를 위한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위탁 받아 취업에 필요한 기술/기능을 교육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실업자 대상의 기계, 전기, 전자 등 뿌리산업 분야와 스마트 팩토리,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분야 중심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실업자 양성훈련 실적(93년~20년)〉

(단위 : 명)

구분	계	수료인원		
		93년	13년	19년
인원	63,728	26,332	27,214	10,182

2) 재직근로자 향상훈련

재직근로자의 직무 능력향상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협약기업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훈련과정의 설계 및 운영지원과 고용유지 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재직근로자 향상훈련 실적(93년~20년)〉

(단위 : 명, 회)

구분	계	전소기업	사업주회차
인원	896,507	668,776	327,732

3) 기업 맞춤형 현장 훈련지원

산업인력 부족 등으로 근로자가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사업장 내에서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과정의 설계, 사내훈련교사 역량지원, 컨설팅 및 행정지원을 실시하였다.

〈기업맞춤형 현장훈련지원 실적(18년~20년)〉

(단위 : 개사)

구분	훈련 연내 및 3월	직능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현장훈련지원
참여기업	2,210	106	165	167

라. 기타

1)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 중소기업 지원

제품 결함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제3자(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제조업자가 PL보험을 가입할 경우, 손해보험사에 개별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최대 40% 저렴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 대한상공회의소 PL보험 혜택 〉

- 단체보험 할인적용 및 중소기업 보조금 지원으로 최대 40% 보험료 할인
- 손해보험사와 제휴, 개별가입과 동일한 보험 서비스 제공
- 가입업체 입장을 최대 고려한 신속한 사고처리
- 온라인 접수시스템(모바일 포함) 도입으로 편리한 보험료 안내

* 홈페이지 : <http://pl.kscham.or.kr> (대한상공회의소 PL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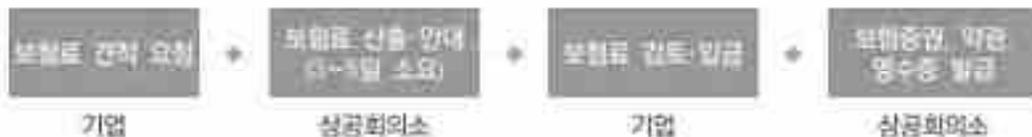
〈 가입대상 〉

- 완성품·부품의 제조, 공급 및 판매업체
- 수출·수입업체, 명의를표시 판매업체, OEM업체
-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업체 등

〈 가입종목 〉

-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 : 가전, 생활용품, 의료기기, 식품 등
- 서비스용역 : 승강기, 정수기, 주차시설 등 설치, 해체 및 유지보수작업

〈 가입절차 〉



- 참여보험사 : 현대해상화재보험(주거사), KN손해보험, MG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 문의처 〉

- 대한상공회의소 PL센터(Tel. 02-6050-3875-8 / Fax. 070-7614-3422)
- E-mail : plcenter@korcham.net
- 홈페이지 : <http://pl.korcham.net>

2)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스마트 마이스터 사업은 대기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전수하여 스마트공장 도입 성과를 제고하고 중장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대기업 출신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400명을 선발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중소·중견기업에 총 779개사를 지도하였다. 기업에 파견된 스마트 마이스터는 스마트공장 구축과 관련된 사업계획 수립, 구축과정 지도, 구축 후 운영성과 제고 및 제조현장 개선, 기술예보 해결 등을 수행했다.

3)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 운영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는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해 기업의 제조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고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참여 후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를 추진한 기업이며, 지원 내용은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하고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진단 보고서 및 로드맵을 제시했다.

4)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대기업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9개사가 출연하여 329개 중소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 '21년 사업규모 : 사업규모 100억원(민간출연 92억원, 정부지원 68억원)

또한 자동차, 기계, 전자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특화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총 92.7억의 정부자원을 통해 90개 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제17장 중소기업은행

1

일반현황

중소기업은행(이하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 중소기업자의 경제 활동을 원활히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1년 8월 1일 설립되었다. 주요 기능으로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과 여信的 할인, 예·적금의 수입 및 유가증권 등의 발행,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 국고대리점 / 지급 송과, 정부·한국은행 및 기타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출범 초기인 1960-70년대에는 외화 획득에 기여하고 시설재 도입과 원자재 구입에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선진화된 경영 기술 지도를 병행 하여 중소기업 선담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1980-90년대 들어서는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기초 속에서 중소기업 창업과 신기술 기업화를 지원 하여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한 국가 균형 성장에 기여하였다. 1998년 외환위기,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중소기업 전문 정책 금융기관으로 '비율 대 우산'을 씌워주는 은행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리고 2020년 「IBK혁신경영」을 시행, '혁신금융'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바른경영'을 통한 신뢰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IBK기업은행은 2020년 말 기준 자산 335조원(선탁자산 제외), 당기순이익 1조 2,632억원을 기록하였으며, 개인금융(개인예금, 가계대출) 100조원 돌파, 英 The Banker紙 선정 글로벌 100대 은행 진입, 2019년도 국정은행 경영평가 A등급 달성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가. 자금조달

2020년 말 IBK기업은행의 자금조달 잔액은 2019년 말에 비하여 40조 1,851억원 증가한 334조 9,588억원을 기록했다.

자금조달 잔액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예수금이 2019년 말 대비 22조 7,951억원 증가한 136조 7,832억원을 기록하였다. 중소기업금융채권은 121조 1,934억원으로 6조 3,184억원 증가, 차입금은 35조 3,270억원으로 6조 7,229억원 증가, 자본은 23조 5,961억원으로 2조 956억원 증가하였다. 그밖에 기타 재원은 18조 904억원으로 2조 2,531억원 증가하였다.

자금조달의 잔액별 구성비는 예수금 40.9%, 중소기업금융채권 36.2%, 차입금 10.5%, 자본 및 기타 부문 12.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N-17-1-1 | 자금조달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년말		2020년말		증감액
	잔액	구성비	잔액	구성비	
예수금	113,988,099	38.7	136,783,217	40.9	22,795,116
중소기업금융채권	114,875,021	38.9	121,193,448	36.2	6,318,425
차입금	28,604,145	9.7	35,327,044	10.5	6,722,899
(정부 및 기금)	(16,936,736)	(5.7)	(17,887,601)	5.3	(950,865)
(한은 등 기타차입)	(11,667,409)	(4.0)	(17,439,363)	5.2	(5,771,944)
자본	21,500,581	7.3	23,596,142	7.0	2,095,551
기타	15,805,882	5.4	18,058,982	5.4	2,253,100
합계	294,773,738	100.0	334,958,831	100.0	40,185,093

나. 자금공급

2020년 중 KBK기업은행은 공급액 기준으로 2019년 중 대비 14조 5,204억원 증가한 87조 9,164억원의 자금을 공급하였다. 이 중 대출금 공급액과 투자 공급액이 각각 14조 4,097억원, 1,197억원 증가하였다.

2020년 말 대출금 잔액은 2019년 말 대비 27조 4,213억원 증가한 235조 4,639억원, 투자 잔액은 2,625억원 증가한 1조 5,667억원을 기록했다.

표 N-17-1-2 | 자금공급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공급			잔액		
	2020년 중	2019년 중	증감액	2019년 말	2020년 말	증감액
대출금	730,053	874,150	144,097	2,060,426	2,334,639	274,213
투자	3,817	5,014	1,197	13,042	15,667	2,625
합계	733,870	879,164	145,294	2,073,468	2,350,306	276,838

1) 지원대상별 대출현황

2020년 중 K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금대출로 68조 1,051억원을 공급하였고 44조 555억원을 회수하였다. 그 결과 2020년 말 중소기업자금대출 잔액은 2019년 말 대비 24조 496억원 증가한 186조 7,769억원으로 전체 대출금의 80%를 차지하였다.

가계자금대출은 16조 2,674억원이 공급되었고 13조 1,532억원이 회수되면서 잔액은 38조 5,151억원으로 전체 대출금의 16.5%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대기업 및 공공기타 대출은 2020년 말 기준 8조 1,718억원을 기록하였다.

표 N-17-1-3 | 지원대상별 대출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년말		2020년중		2020년말		증감액
	잔액	구성비	공급	회수	잔액	구성비	
중소기업자금	162,727,377	79.0	88,105,060	44,055,509	186,776,928	80.0	24,049,551
가계자금	35,400,910	17.2	16,267,446	13,153,208	38,515,147	16.5	3,114,237
대기업 및 공공기타	7,914,284	3.8	3,042,516	2,786,026	8,171,775	3.5	257,491
계	208,042,571	100.0	87,415,022	59,993,743	233,463,850	100.0	27,421,279

2) 자원별 대출현황

2020년 중 자원별 대출 실적을 보면 금융자금은 81조 1,609억원을 공급하고 54조 4,866억원을 회수하였다. 기금 및 재정자금은 5조 9,283억원을 공급하고 5조 1,397억원을 회수하였으며, 외화자금은 3,249억원을 공급 및 3,675억원을 회수하였다.

2020년 말 기준 자원별 대출금 잔액은 금융자금이 214조 7,171억원으로 총 대출금의 92.0%를 차지하였고, 기금 및 재정자금이 17조 1,757억원으로 7.4%, 외화자금이 1조 5,711억원으로 0.7%를 차지하였다.

표 N-17-1-4 / 자원별 대출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년말		2020년중		2020년말		증감액
	잔액	구성비	공급	회수	잔액	구성비	
금융자금	188,042,848	91.3	81,160,897	54,466,601	214,717,144	92.0	26,674,296
기금및재정 자금	16,386,058	8.0	5,929,272	5,130,679	17,175,851	7.4	789,593
차관자금	-	-	-	-	-	-	-
외화자금	1,613,865	0.8	324,853	367,483	1,571,055	0.7	△42,810
합계	206,042,771	100.0	87,415,022	59,963,743	233,463,850	100.0	27,421,279

가) 금융자금대출

IBK기업은행의 대출금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금융자금대출의 2020년 말 잔액은 214조 7,171억원으로 2019년 말보다 26조 6,743억원이 증가하였다. 잔액 구성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자금대출이 168조 8,535억원으로 총액의 78.6%, 중소기업 이외의 자에 대한 일반자금대출은 45조 8,636억원으로 총액의 21.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N-17-1-5 / 금융자금 대출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년 말		2020년 중		2020년 말		증감액
	잔액	구성비	공급	회수	잔액	구성비	
중소기업자금	145,866,899	77.5	61,972,210	38,814,611	168,853,498	78.6	23,157,599
일반자금	42,348,949	22.5	19,188,687	15,671,990	45,863,648	21.4	3,516,697
합계	188,042,848	100.0	81,160,897	54,466,601	214,717,144	100.0	26,674,296

나) 기금 및 재정자금대출

2020년 말 현재 각종 기금 및 재정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의 잔액은 17조 1,838억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7,873억원 증가하였다. 대출잔액 구성별로는, 온렌딩 자금이 6조 6,606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38.8%)을 차지하였으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3조 5,444억원(20.6%), 해외온렌딩자금이 2조 6,139억원(15.2%), 지방 구조조정자금이 1조 6,995억원(9.9%), 에너지융합리화기금이 6,046억원(3.5%), 환경정책자금이 4,954억원(2.9%)순으로 구성되었다.

3) 용도별 대출현황

2020년 중 IBK기업은행의 용도별 대출현황을 살펴보면 운전자금으로 64조 2,157억원, 시설자금으로 23조 2,014억원을 공급하였다. 2020년 말 기준 운전자금 잔액은 2019년에 비해 18조 4,433억원 증가한 143조 8,933억원이고, 시설자금은 8조 9,780억원 증가하여 89조 5,706억원을 기록하였다. 전체 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운전 자금이 2019년 말 61.9%에서 2020년 말 61.6%로 증가한 반면 시설자금은 39.1%에서 38.4%로 감소하였다.

표 IV-17-1-6 | 용도별 대출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년 말		2020년 중		2020년 말		증감액
	잔액	구성비	공급	회수	잔액	구성비	
운전자금	125,449,977	60.9	64,213,636	45,770,364	143,893,279	61.6	18,443,302
(금융자금)	(117,146,863)	(56.9)	(59,866,875)	(42,276,540)	(134,739,218)	57.7	(17,600,335)
(기금및재정자금)	8,024,759	3.9	(4,201,408)	9,373,702	19,652,461	3.8	(827,709)
(외화대출금)	(276,339)	0.1	(146,383)	(121,122)	(301,603)	0.1	(25,264)
시설자금	60,592,594	39.1	23,201,356	14,223,379	89,570,571	38.4	6,977,977
(금융자금)	(70,893,966)	(34.4)	(21,296,023)	(12,211,062)	(79,977,966)	34.3	(9,083,961)
(기금및재정자금)	8,961,303	4.1	(1,727,864)	(1,765,977)	19,323,190	3.8	(△38,113)
(외화대출금)	(1,337,309)	0.6	(178,493)	(246,340)	(1,269,466)	0.5	(△67,871)
(차관자금)	(-)	(-)	(-)	(-)	(-)	(-)	(-)
합계	206,042,571	100.0	87,415,022	59,993,743	233,463,850	100.0	27,421,279

4) 산업별 대출현황

2020년에는 산업별 대출잔액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였다. 2020년 말 산업별 잔액 및 비중 변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전년 말에 비해 8조 7,945억원 늘어난 104조 7,714억원을 기록했지만 비중은 44.9%로 다소 하락하였다. 한편,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2019년 말 대비 7조 2,050억원 증가한 34조 8,761억원을 기록하였으며, 비중은 1.9%p 증가한 14.9%를 차지했다.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의 2020년 말 잔액은 2019년 말 대비 3조 7,260억원 증가한 27조 7,049억원을 기록하였고 비중은 11.6%에서 11.9%로 0.3%p 상승했다.

표 N-17-1-7 | 산업별 대출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년말		2020년말		증감액
	잔액	구분비	잔액	구분비	
농업임업 및 어업	249,225	0.1	304,580	0.1	55,356
광업	202,180	0.1	224,066	0.1	21,886
제조업	95,976,885	46.6	104,771,432	44.9	8,794,547
(음식료업)	(3,935,783)	(1.9)	(4,688,360)	(2)	(750,577)
(섬유, 의복 및 가죽)	(5,653,317)	(2.7)	(6,294,883)	(2.7)	(641,566)
(목재, 나무제품 및 가구)	(1,275,914)	(0.6)	(1,324,845)	(0.6)	(48,931)
(종이, 종이제품, 인쇄출판)	(3,516,842)	(1.7)	(3,941,347)	(1.7)	(424,505)
(석유·화학물·고무·플라스틱제품)	(15,143,501)	(7.3)	(16,508,694)	(7.1)	(1,365,193)
(비금속광물제품)	(2,803,703)	(1.4)	(2,946,852)	(1.3)	(143,149)
(제1차금속)	(5,840,569)	(2.8)	(5,972,303)	(2.6)	(131,734)
(조립금속제품, 기계및장비)	(55,130,677)	(26.9)	(59,950,834)	(25.8)	(4,820,157)
(기타제조업)	(2,676,589)	(1.3)	(3,145,514)	(1.3)	(468,925)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2,678,658	1.3	2,796,966	1.2	118,308
건설업	5,791,520	2.8	6,199,758	2.7	408,23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7,670,157	13.4	34,876,057	14.9	7,205,900
운수·창고 및 통신업	7,047,744	3.4	9,091,349	3.9	2,043,605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23,978,857	11.6	27,704,858	11.9	3,726,001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7,046,435	3.4	8,979,638	3.8	1,933,203
기타개인대출)	35,400,910	17.2	38,515,148	16.5	3,114,238
합계	206,042,571	100.0	233,463,850	100.0	27,421,279

주 : 은행계정 총대출금 잔액 기준 (개인대출은 카드론 제외)

5) 투자 현황

2020년 중 IBK기업은행은 2019년 중에 비해 1,197억원 증가한 5,014억원을 투자하였다. 그 중 일반 부문에 대한 투자는 2019년 중 대비 1,073억원 증가한 3,348억원을 공급하였고, PEF는 236억원 증가한 1,445억원을 공급하였다. 문화콘텐츠 부문은 2019년 중 대비 112억원 감소한 221억원을 공급하였다.

한편, 잔액 기준으로는 일반 부문에 대한 투자가 2019년 말에 비해 2,371억원 증가한 1조 58억원을 기록하였고, PEF는 266억원 증가한 4,981억원을 기록하였다. 반면, 문화콘텐츠 부문은 12억원 감소한 628억원의 잔액을 기록했다.

표 IV-17-1-8 | 투자실적

(단위 : 억원)

구분	공급			잔액		
	2019년 중	2020년 중	증감액	2019년 말	2020년 말	증감액
일반투자	2,275	3,348	1,073	7,687	10,058	2,371
문화콘텐츠	333	221	△112	640	628	△12
PEF	1,209	1,445	236	4,715	4,981	266
합계	3,817	5,014	1,197	13,042	15,667	2,625

주 : 간접투자는 실행금액 기준

다. 주요 정책금융

1) 시책별 중소기업자금 지원

IBK기업은행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부응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 지원자금은 13조 4,026억원을, 창업·성장 초기기업 지원자금은 28조 5,317억원을 공급하였으며, 영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23조 6,109억원을 공급하였다. 또한 유망 서비스업 지원자금은 9조 6,814억원을 공급했으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자금은 25조 2,983억원을 공급했다. 기술개발자금은 3조 7,682억원을 2020년 중 지원하였다.

표 N-17-1-9 | 사책별 중소기업자금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 중		계획 대비
	계획	공급액	
중소·벤처기업 지원자금	110,000	134,026	24,026
창업·성장초기기업 지원자금	224,000	285,317	61,317
영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	140,000	236,109	96,109
유망 서비스업 지원 자금	50,000	96,814	46,814
소재·부품·장비 산업자금	200,000	252,983	52,983
기술 개발 자금	22,000	37,882	15,882

2) 온렌딩자금에 의한 지원

온렌딩자금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게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수출기업, 지방소재기업, 창업·벤처기업지원,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등의 용도로 연중 2조 5,318억원 공급되었으며, 2020년 말 잔액은 6조 6,606억원을 기록했다.

해외온렌딩자금은 해외사업 수주 및 수출입실적을 보유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지원한 자금으로 연중 1조 4,769억원 공급되었으며, 2020년 말 잔액은 2조 6,139억원이다.

표 N-17-1-10 | 온렌딩자금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8년 말 잔액	2020년 중		2020년 말 잔액
		공급	회수	
온렌딩자금	6,230,637	2,531,795	2,110,871	6,660,561
해외온렌딩자금	2,452,577	1,476,888	1,315,557	2,613,908

3)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의한 지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추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기업지원, 제도약지원, 신성장기반 조성 등에 연중 8,683억원을 공급하였다.

표 N-17-1-11 | 중소기업창업 및 진출자금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년 말 잔액	2020년 중		2020년 말 잔액
		공급	회수	
중소기업창업 및 진출자금	3,289,107	668,295	563,001	3,544,401

라. 주요 추진업무

1)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금융 지원 확대

IBK기업은행은 코로나19로 경기침체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은행권 최초로 180조원을 돌파하여 186.8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시장점유비도 23.1%로 은행권 1위를 유지하며 중소기업금융 리더뱅크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였다.

특히 설비투자 촉진 및 침체원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성 시설자금 상품',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소상공인 전용상품' 등 선방위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밖에도 자금공급이 소상공인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조업, 수출입기업, 고용유지기업, 혁신성장 영위기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감면 등의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출시하여 2020년 중 10조 8,031억원을 지원하였고, 부동산 위주의 담보관행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동산금융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여 은행권 전체 동산담보대출(1조 6,149억원)의 55.2%인 8,909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N-17-1-12 | 중소기업대출 잔액 및 점유비

(단위 : 억원, %, %p)

구분	2019년 말	2020년 말	전년말 대비
잔액	1,627,274	1,867,769	240,495
점유비	22.59	23.10	0.51

2) 수출·해외진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IBK기업은행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 따른 무역 영업환경 악화에도 수출·해외진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면서, 외국환 실적 1,235억불 및 영업이익 1,341억원을 달성하였다.

세부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 신중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컨설팅과 환율·수수료 우대를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금융권 최초로 해외 제휴은행과 연계한 온라인 수출입박람회 개최하였다. 그리고 아마존 등과 협업하여 글로벌 진출 웹세미나를 추진하였으며, 해외온라인 쇼핑몰 판매대금 정산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였다.

한편,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수출입금융 특례를 실시하여 해당 수출입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하였고, SWIFT GPI(Global Payments Innovation) 송금 서비스의 비대면 채널 확대 시행, 인터넷 무역대전 대량송금 거래 신설, 제46회 On-Tact IBK 무역실무 Academy 개최 등을 통해 대고객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또한 레그테크(Regulation Technology) 기반 위규방지시스템 개발,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활용한 금융제재 사전점검 확대로 외국환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외국환업무 관련 약관(빠른송금 약관 등)을 고객 관점에서 개정하였고, 해외송금 시 비대면채널 내 e-mail 해킹 및 사기송금 예방 안내절차 신설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KOTRA·삼성SDS와 '온라인 수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디지털 상생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3)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가)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선도

IBK기업은행의 일자리 사업은 2009년 「중소기업 청년취업 프로젝트」로 시작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실업난 해소에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 기업의 경제적 효용을 제고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매년 2만명 이상의 취업자 매칭을 목표로 「신일자리창출 10만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2020년 말 기준 62,405명의 구직자를 매칭하였다.

나) 다양한 일자리 지원 사업 전개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채용 전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한 일자리박람회 총 4회 개최하였다.

한편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위해 2018년 총 6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채용펀드를 조성하여 정규직원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게 채용직원 1인당 50만원의 금융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총 104억원의 일자리 채용펀드를 지원하였다. 또한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 탐방, 기업 홍보영상 제작 등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다) 중소기업 전문 취업포털 「i-ONE JOB」 운영

IBK기업은행은 기존에 운영해오던 취업포털 Job World를 리뉴얼하여 2018년 새롭게 「i-ONE JOB」 사이트를 구축하였다. 「i-ONE JOB」은 중소기업에게 윈스탑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채용인력 및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도 채용공고 게시에서 입사지원서 접수, 합격자 등록 등 채용의 전과정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2020년에는 구직자를 위해 현직자 멘토링, AI자기소개서 분석 등 '온라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앞으로도 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채용공고 확대 등 중소기업 전문 취업포털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표 N-17-1-13 | 일자리창출 사업 주요 실적

사업명	주요 실적
신일자리창출 10만명 프로젝트('18~'20년)	2020년 취업자 수 20,334명 ('18~'20년 누계 취업자 수 62,405명)
비대면 일자리박람회	박람회 홈페이지 누적 방문자 수 25만 2천명, 참가기업 250개사, 연간 채용인원 1,113명
일자리채용펀드	2020년 지원액 669개사 5,542백만원 ('18~'20년 누적 지원액 992개사 10,389백만원)

4) 기업인 명예의 전당 운영 및 중소기업 교류의 장 마련

가) 기업인 명예의 전당 운영

IBK기업은행은 2004년부터 기업이 정신을 가지고 회사를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시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기업인 명예의 전당」 현액자로 매년 선정해 왔다. 지금까지 총 17회에 걸쳐 36명의 기업인을 현액하였으며, 2020년에는 세계 5위, 국내 1위 점유율의 동관 제조 기업인 능원금속공업(주) 이장원 회장을 현액하였다.

나) IBK최고경영자클럽

IBK기업은행은 거래하는 중소기업 CEO들이 상호 교류를 통한 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1993년 「IBK최고경영자클럽」을 창립하였으며 약 1,300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클럽에서는 회원들의 교류 증진과 경영정보 공유를 위한 세미나와 지역분회 모임, 회원사 모범사원 선발 등 유익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성공한 CEO들이 가장 가입하고 싶어 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교류 모임으로 인정받고 있다.

다) IBK여성경영자클럽

IBK기업은행은 거래하는 여성경영인들의 상호 교류를 통해 여성의 리더십과 경영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2년 금융권 최초로 「IBK여성경영자클럽」을 창립하였으며 약 260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클럽에서는 심세함과 부드러움으로 대한민국 경제 혁신을 이끌어나가는 여성 경영인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경영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명사 초청강연, 우수기업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나라를 대표하는 여성CEO 모임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라) IBK미래경영자클럽

IBK기업은행은 거래하는 젊은 경영인들의 상호 교류를 통해 리더십과 경영능력을 강화하고 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5년 「IBK미래경영자클럽」을 창립했으며 약 500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클럽에서는 패기와 열정, 도전 정신으로 가득한 젊은 경영인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경영정보 제공을 위해 명사 초청강연, 우수기업 탐방, 지역분회 간담회 등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경영인들의 대표적인 교류 모임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5) 모험자본 전문은행 기반 마련

IBK기업은행은 2020년 7월 혁신금융그룹을 신설하여 "모험자본 전문은행"이라는 비전 아래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하고 2022년까지 디지털과 친환경 등 신산업 분야에 모험자본 1조 5천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3,307억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하였으며,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IBK창공을 통해 124개의 혁신창업기업을 육성하였다. 금융 이용기회가 부족한 창업 벤처기업과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28.5조원을 공급하였으며, 1,200건이 넘는 컨설팅 제공(창업컨설팅, 경영&세무컨설팅, 혁신전환컨설팅, 기업승계컨설팅 등)을 통해 성장단계별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IBK BOX는 생활 속에 금융을 녹이는 IBK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고도화시키기 위해 혁신기업투자BOX, BOX POS 등 서비스를 다변화하여 그룹 차원의 디지털 전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6) 기술금융대출·IP담보대출 공급

IBK기업은행은 2020년 코로나19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기술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한 결과 은행권 기술금융대출 점유비 1위(잔액 기준 30.6%, 81.7조원)를 기록하였다. 기술금융 선도은행으로서 기술금융의 내실성장을 위해 기술우수기업(IBK테크기업) 발굴, 기술이전·기술매칭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였고, 최신 기술 Trend를 은행 내 교류하며 대출·투자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 위주의 담보관행 개선을 위해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IP사업하자금대출'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기업의 특허권을 주담보로 취득하여 고객에게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특허가치평가비용을 지원하는 등 IP금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2020년 한 해 동안 은행권 최대 수준인 2,909억원을 공급하였다.

7) 성장 초기기업 금융지원 강화

IBK기업은행은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가장 큰 고민인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0년 22.4조원의 자금공급 목표를 수립하였는데, 코로나 19에도 적극적인 창업기업 자금지원 노력에 힘입어 역대 최대인 28조 5,317억원의 창업기업 자금을 공급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8) IBK창공(創工)을 통한 혁신 창업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

IBK창공(創工)은 기업의 성장단계별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IBK기업은행만의 중소기업 금융 노하우, 컨설팅 역량 등을 바탕으로 혁신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IBK형 창업육성플랫폼으로, 선발 기업에게 투·융자 연계, 1:1 맞춤형 멘토링, 컨설팅, 판로개척, 사무공간 무상제공 등 타 기관과 차별화된 육성프로그램(2019년 10월 BM 취득)을 제공하고 있다.

IBK창공(創工)은 2017년 12월 마포 개소를 시작으로 2018년 1월 구로, 2019년 5월 부산 지역에 추가로 개소하여, 2020년 12월 말까지 총 243개의 혁신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였으며, 투·융자 금융지원 1,867억원(누계기준), 멘토링, 컨설팅, IR 등 비금융서비스 3,192회(누계기준)를 지원하는 등 금융권 대표 창업육성플랫폼으로 자리 매김하며, 위상을 견고히 다져나가고 있다.

표 N-17-1-14 | IBK창공(創工) 육성기업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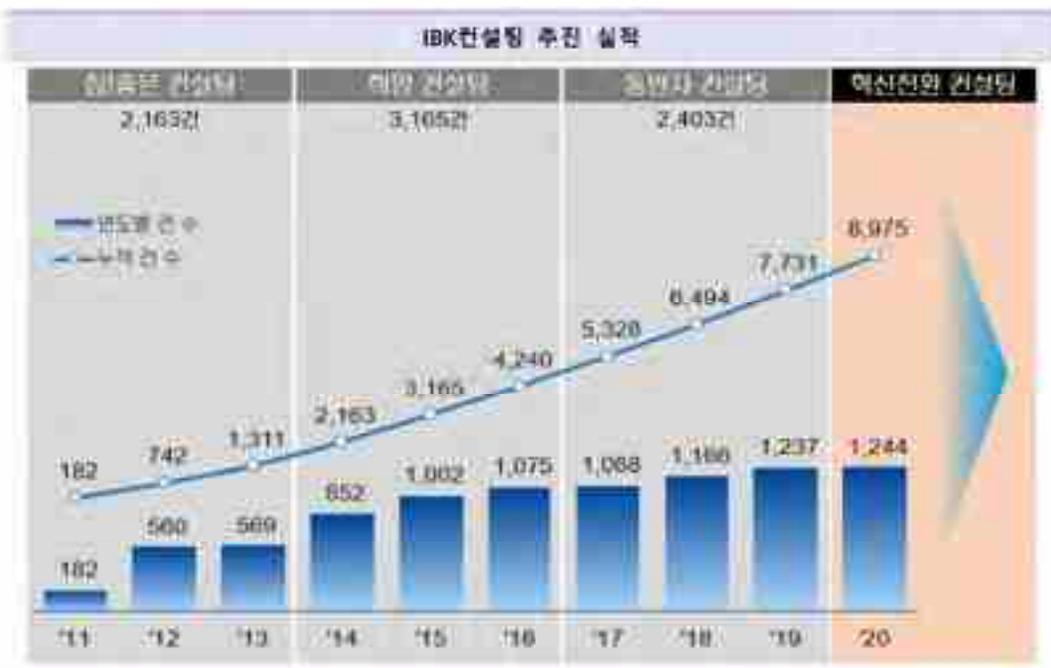
(단위 : 억원, 회, 개)

구분		주요 실적	
금융	투자	1,300	1,867
	융자	567	
비금융	멘토링·컨설팅	2,581	3,192
	IR	611	
육성기업 수		243	

주 : 2020년 12월말 기준

9)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IBK컨설팅 수행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육성과 보호라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2011년 이후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컨설팅팀 출신의 경영컨설턴트, 대형 회계법인 출신 회계사 등 50여명의 전문가를 보유, 경영 전략, 인사·노무 등을 포함하는 경영컨설팅 및 기업승계, 세무·회계, M&A, 법률 등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현장중심의 중소기업 특화 컨설팅을 제공하여, 2011년 이후 총 8,975건의 중소기업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였다.



10) 기업 디지털금융 강화

가) 기업디지털 업무 프로세스 혁신

2020년 상반기 IBK기업은행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 완전 비대면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도 기업뱅킹에서 보증 신청부터 여신약정서 작성, 대출 실행까지 수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 고객 편의 증대 및 영업점 창구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였다.

나) 소상공인을 위한 기업디지털서비스 출시

IBK기업은행은 2020년 1월 은행권 최초로 기업뱅킹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세무신고를 지원하는 「IBK알파 세무신고」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카드 매출, 계좌 거래내역 등 데이터를 수집해 세무장부를 자동 작성하고 세액계산, 세무신고도 자동으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2020년 11월에는 소상공인의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 쉽고 편리한 금융을 접목하여 기업생활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iCONE소상공인」 앱을 출시하였다. 하나의 앱으로 개인 및 기업계좌 통합 조회, 이체, 노무/법률/세무 등 경영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다양한 생활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11)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상생 실현

IBK기업은행은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상생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가)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을 위한 '장학금·치료비' 지원

IBK기업은행은 2006년 3월 대기업에 비해 복지수준이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공익재단인 'IBK행복나눔재단'을 설립해 지금까지 총 552억원을 출연했다.

2020년까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8900여명에게 152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대상은 어려운 형편에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이다. 2020년 상반기에는 대구·경북 지역을 포함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우선 선발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을 대상으로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등 2006년부터 2020년까지 2800여명에게 치료비 120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2020년 장학금과 치료비 지원에는 은행장과 임원들이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원마련에 동참했다.

이밖에도 멘토링, 경제교육,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나)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중소기업어린이집 운영

IBK기업은행은 공단지역에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고자 금융권 최초로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로 협약하고, 2018년 4월 인천 남동공단에서 금융권 최초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어린이집인 IBK 남동사랑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2019년 3월 구미공단에 두 번째 어린이집인 IBK 구미사랑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립에는 근로복지공단·해당 지자체가 참여했고, IBK기업은행이 은행 점포의 유휴공간을 무상 제공하고 설치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했다.

2020년 기준으로, 남동공단 소재 34개 중소기업, 구미공단 소재 43개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컨소시엄 참여기업 근로자 자녀라면 누구나 입원 가능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편의를 고려하여 오후 9시 30분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도움으로써 중소기업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아어나가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12) 중소기업 조사연구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 제33조의4(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와 기업지도 업무를 수행한다.)에 따라 IBK경제연구소를 은행장 직속 조직으로 두고, 현장 중심 및 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IBK혁신경엽' 시행 및 '코로나19' 대응을 주요 미션으로 하여 각종 경제·경영 현안과 중소기업 이슈를 연구하였다.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경영환경과 중소기업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전망한 「2021년 경제 및 경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등 여러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었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세 등 24건의 「IBK경제브리프」 소식지와 매월 글로벌 경제 지표를 분석한 「IBK경제나침반」을 생산하여 경제·금융 관련 현황 정보를 적시 제공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신남방·신북방 지역 진출 지원을 위한 현지 동향 파악 및 분석 연구도 지속하였다.

한편, 월간지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리포트」를 매월 63,000부 이상 발행하여 중소기업 CEO가 원활한 경영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국가승인통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중소기업 지원 및 중소기업금융 연구에 활용 가능한 최신 통계자료를 발간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자리창출 등 사회공헌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선정·시상하는 「참! 좋은 중소기업상」(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개최하여 바람직한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분야 우수연구자를 대상으로 「IBK학술상」을 시상하여 중소기업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전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 조사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제18장 한국수출입은행

1 일반현황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1976년 설립되었다.

수은은 공적수출신용기관(ECA)으로서 해외 건설·플랜트, 선박 등 주요 수출 산업과 해외자원개발산업 등 국민경제에 긴요한 해외투자 사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으로 국가 수출촉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수은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시장의 실패와 불균형 성장의 보완에도 힘쓰고 있다. 상업금융 제공이 어려운 대외거래 관련 리스크를 수용하여 국가 수출 진흥에 기여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으로 국가경제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수은은 그동안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던 전통적인 수주산업의 입황 약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을 위하여 ICT, 미래차 등 혁신성장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수은은 대출, 보증 및 투자의 형태로 거래기업 앞 여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대출 63조 8,363억원, 보증 9조 3,140억원, 투자 1,626억원 등 총 73조 3,129억원의 금융을 지원하였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중소기업·중견기업 여신지원 현황

수은은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중견기업 앞 여신지원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여 왔다. 2014년 수은법 개정 당시 제18조(업무)에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을 업무 분야로 명시하며, 중소기업·중견기업 지원 의무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지원으로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중견기업 앞 여신지원 규모는 확대되어왔다. 2020년에는 수은 설립 이래 최대규모인 30조 5,313억원을 중소기업 앞 지원하였고, 신용대출 위주의 여신운용을 통해 대기업 대비 담보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중견기업의 담보제공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다. 2020년 중소기업·중견기업 앞 대출 중 신용대출 지원 비중은 96.9%로, 지원한 대출 대부분을 신용으로 취급하였다.

또한, 수은은 2020년 코로나19 피해 수출입 중소기업 앞 신속대출 프로그램 도입으로 중소기업 140개사 앞 1,695억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였다.

표 IV-16-1-1 | 중소기업·중견기업 여신지원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은행 전체 여신	691,998	808,750	870,757	899,161	733,129
중소기업 여신 (비중)	82,603 (11.9%)	92,835 (15.3%)	98,340 (17.0%)	106,511 (17.8%)	117,493 (16.0%)
중견기업 여신 (비중)	154,570 (22.3%)	155,547 (25.6%)	142,596 (24.8%)	161,478 (27.0%)	187,820 (25.6%)
은행 전체 대출	567,809	513,001	487,454	514,066	638,363
중소기업 대출 (비중)	81,230 (14.3%)	91,519 (17.8%)	97,720 (20.0%)	105,536 (20.5%)	116,435 (18.2%)
중견기업 대출 (비중)	140,500 (24.8%)	146,989 (28.6%)	133,845 (27.5%)	152,258 (29.6%)	181,173 (28.4%)

나.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은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금융·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를 지원하여 우리나라 대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표 N-16-1-2 |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지원현황

(단위: 개사, 억원, 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선정	4	-	7	4	13
선정인정취소	37	8	9	9	15
육성기업	249	241	239	234	232
금융지원 금액	61,601	72,702	68,059	74,129	76,609
맞춤형 경영정보 서비스 지원	1,047	1,022	844	872	896

수은은 히든챔피언 육성기업 앞 급리우대 및 수출실적 인정판도 확대 등의 우대 지원을 제공하고 제품개발, 생산, 해외판매에 이르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다. 해외 온렌딩 프로그램

해외 온렌딩 프로그램은 중개 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건설플랜트, 해양기자재 및 혁신성장 영위 중견기업 포함)의 대외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간접대출 프로그램이다. 중개 금융기관의 영업망을 활용하여, 정책자금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 지면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2015년 4월 도입되었다.

2020년말 기준 17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과 온렌딩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총 3조 4,655억원의 온렌딩 자금을 중소·중견기업 앞 지원하였다.

표 N-18-1-3 | 해외 온렌딩 프로그램 지원현황

(단위: 개사, 억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중개 기관수	11	14	17
지원 금액	24,265	30,184	34,655
중소기업 지원 금액	23,439	25,308	26,664

라. 상생금융 프로그램

상생금융 프로그램은 대기업-중소·중견기업의 상생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대·중소·중견기업의 상생협력 거래에 대하여 금리우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제고하고 나아가 자립적 경쟁력을 확보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거래 형태에 따라 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상생자금대출로 나뉘며, 2020년 중 3조 5,356억원의 상생금융을 지원하였다.

- 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상생대기업(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포함)과 해외에 동반진출한 협력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상생자금대출 :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상생대기업(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포함)이 추천하는 수출 프로젝트에 지원대상 물품을 공급하는 협력 중소기업 대상으로 수출이행에 필요한 자금 지원

표 N-18-1-4 | 상생금융 프로그램 지원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상생금융 지원금액	18,520	29,886	35,356
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7,799	8,324	8,923
상생자금대출	10,721	21,562	26,433

마. 수출단계별 맞춤 지원 프로그램

수출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내수기업의 글로벌화부터 경쟁력 있는 수출 중견기업의 육성까지 기업의 수출규모 증가에 따른 빈틈없는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1)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프로그램

정부 선정 수출유망 내수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환위험관리 설명회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수출기업화를 위한 맞춤형 바금융서비스를 함께 지원하고 있다.

2) 수출초보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연간 해외 직수출 1백만 불 이하의 수출 초기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초보 중소기업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한 수출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금리우대 및 대출한도 확대(수출실적의 100%까지) 등 금융 서비스와 환위험관리 설명회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의 바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출초보졸업 중소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승인신청 직전년도 연간(1월-12월) 직수출 규모가 1백만 불 초과 10백만 불 이하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초보 중소기업 요건을 졸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이다.

4) 중견전환가능 중소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중견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앞 우대지원 지속으로 업체가 피터팬 증후군 없이 견실한 중견기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출금리 우대 등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승인신청 직전년도 연간매출액 규모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이다.

바. 환위험관리 지원 프로그램

수은은 수출 중소기업·중견기업의 대외거래에 따른 환위험관리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금융 및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금융서비스

수은은 대출만기 1개월 전까지 대출통화를 '외화 ↔ 원화(중소·중견기업 대상) 또는 '외화 ↔ 여타 외화(중소기업 한정)로 전환할 수 있는 통화전환옵션을 무상으로 부여하고 있다. 또한, 선물환 거래를 통해 중소기업이 수출·입계약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 비금융서비스

대기업 대비 환위험 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은은 환위험관리 전문업체와 연계하여 환위험관리 필요성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한 주기적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하여 업체의 환위험을 진단하고 맞춤형 환위험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19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일반현황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거 1962년 6월에 설립되었다.

1995년부터 무역과 투자의 상호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KOTRA에는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협력 지원기능이 추가되었다. 2003년부터 무역, 투자 분야의 노하우를 활용한 연수교육을 담당하였으며, 2008년에는 해외 전문 인력의 유치를 위한 Contact KOREA 기능을 수행하면서 병설상부한 국가단위 무역·투자·인재유치 전문기관으로 성장하여 왔다. 또한 2009년 10월부터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방산물자 등의 수출에 대한 지원을 위해 수출계약 체결 시 당사자 지위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2013년부터는 해외 인프라를 활용한 우리 청년의 해외창업·취업 지원 업무를 수행중이다. 최근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ICT, 콘텐츠, 서비스, 의료·바이오, 친환경산업의 해외진출지원을 통한 신성장동력분야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0년부터는 세계적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계기로 무역투자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전사적으로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증·소상공인,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까지도 지원하고 있다.

KOTRA는 2021년 6월 현재 국내 12개 지원단과 해외 84개국 127개 무역관을 통해 국내외에서 무역·투자·인재유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1) KOTRA 지사화 사업

지사와 사업은 해외무역관에 소속된 전담직원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해외 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지사와 사업을 통하여 수출중소기업은 해외 시장진출에 필요한 시장조사, 바이어 조사, 현지 출장 지원, 인증취득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사와 사업은 참가기업별 전담직원이 현지에서 직접 지원함으로써 마케팅 노하우 축적이 가능하고, 원거리에 위치한 바이어와 지리상의 한계뿐만 아니라 언어, 시차 등을 극복할 수 있어 유용한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N-19-1-1 | 지사와사업 연도별 주요실적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사와 업체 수(개사)	3,273	3,506	3,444	3,584	3,888
수출 실적 실적(백만불)	2,956	3,348	2,711	2,414	3,021

2) 해외 공동물류센터 운영

KOTRA는 해외 현지에 독자적인 물류센터 확보가 어려워 직수출에 따른 물류비 과다 지출 및 현지 물류 인프라 부재로 수출확대에 예로가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지속적인 현지 거래기반 마련을 위해 「해외 공동물류센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KOTRA 해외무역관이 현지 물류 기업과 협력하여 통관, 입·출고, 보관, 포장, 배송, 반품지원 등 맞춤형 물류 서비스와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은 물류비 절감과 신속한 현지배송 등이 가능하다.

표 N-19-1-2 | 해외 공동물류센터 연도별 주요실적

구분	2019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참가기업수(개사)	202	202	146	176	724
수출실적(실적액인쇄)	565	361	162	168	1,158

3)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www.buykorea.or.kr)

KOTRA는 B2B 사이트인 바이코리아를 통해 국내기업에게는 해외 바이어 오фер를 공급하고, 해외 바이어에게는 한국기업의 상품정보를 홍보하여 국내기업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표 N-19-1-3 | buyKOREA.or.kr의 서비스 제공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수출상품 등록	- 계정당 1개 상품 등록이 원칙으로 유튜브(YouTube)에 등록된 상품 동영상도 바이코리아에 등록 가능
바이어오피 조회	- KOTRA 및 해외 바이어가 등록된 구매 오피 검색 가능
인콰이어리 수발신	- 관심 오피에 대한 인콰이어리 발송 기능과 해외 바이어로부터 등록상품 별 인콰이어리 수신 가능
수출대금 결제	- 바이코리아 상품정보에 대해 해외 바이어는 수출거래대금을 온라인상에서 결제 가능 (별도 계약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PS 카드결제 (VISA, MASTER, JCB) • PAYPAL (IBK 기업은행 페이고스 가입 필요)
수출상품 발송	- EMS, DHL, 할인택배 이용 가능 (별도 계약 필요, 할인은 변동 가능)
비즈니스행사	- KOTRA 오프라인 사업신청 가능
온라인 전시관	- KOTRA 오프라인 사업과 연계하여 비즈니스 매칭 등을 위한 온라인 전시관 운영
해외기업정보	- 기업당(연간 300건 무료) 해외기업정보 조회 가능
화상상담	- 바이어와 국내업체간 화상상담 지원

KOTRA는 바이어 구매 오버의 신뢰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바이코리아 회원가입 전 해외무역관이 바이어의 진위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부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바이코리아에 등록된 중소기업을 위해 원거리 바이어와의 화상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기술 및 테마 별로 중소기업 상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온라인전시판도 운영 중이다.

참고로 바이어 및 국내 기업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이트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 바이어용 사이트(www.buykorea.org), 셀러용 사이트(www.sellers.or.kr)

표 N-19-1-4 | 바이코리아 사이트 운영실적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승인문자수(천명)	13,604	11,433	15,082	11,029	20,258
페이지뷰(천회)	96,770	120,542	126,470	84,416	173,939
바인도퍼 등록 건수(건)	21,745	23,691	24,798	27,312	32,746
신규 상품 등록(건)	28,591	22,315	20,111	18,725	35,147

4) 수출상담회 개최

한국 상품(및 서비스)의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개별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업체와의 1:1 상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업체의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KOTRA의 광범위한 해외 조직망을 활용, 한국제품 수입을 희망하는 세계 유수의 바이어와의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내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바이어를 상대로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표 N-19-1-5 | 해외 마케팅 추진성과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개최횟수(회)	71	75	73	69	92	111
참가 바이어(개사)	4,190	4,572	3,313	3,232	3,653	7,354
참가 국내업체(개사)	11,269	12,316	8,832	8,116	8,083	8,401
계약추진액(백만원)	15,265	62,549	12,738	11,520	27,150	2,639

5)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KOTRA와 지자체, 유관 기관이 협력하여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무역사절단을 구성하여 파견하고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시장조사,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및 사후 A/S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표 N-19-1-6) 무역사절단 최근 추진성과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파견횟수(회)	174	164	209	218	205	124
- 선진/신흥	35/139	34/130	45/164	52/166	49/156	31/93
파견업체개사	1,465	1,577	1,779	1,925	1,777	1,272
수출상담액(백만원)	6,338	8,307	12,336	5,504	9,172	1,241

6)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

국내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개척과 무역거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유망 무역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가기업에 대해서는 현지 무역관을 통해 유력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주선, 시장정보 제공 등 다양한 해외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경비지원(총 참가 직접경비의 최대 70% 지원)과 행정서비스 지원(전시 부스 임차 및 잡치, 전시품 운송 및 현지통관 등), 전시마케팅 교육, 그리고 바이어 대상 현지 홍보 등 박람회 관련 마케팅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표 N-19-1-7) 전시회 한국관 참가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시회 참가횟수(회)	124	140	153	120	120	136	51
참가업체개사	2,469	2,806	3,538	3,149	2,924	2,865	968
상담액(백만원)	7,110	7,241	9,284	8,983	8,684	9,543	2,061

7) 국내 전시회 바이어 유치 지원사업

연간 25개 내외의 국내 유망 전시회를 선정하여 세계 각국에서 해외바이어를 유치하고, 전시 참가기업과 1:1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는 사업이다. 또한 전시 참가기업의 KOTRA Buy KOREA 온라인 전시관 입점지원 및 화상상담을 통해 온라인 수출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표 N-19-1-8 | 국내전시회 바이어 유치지원 사업 결과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원회수(회)	29	28	24	26	19
유치 바이어(개사)	1,558	1,491	1,255	1,232	723

· 코로나19로 인한 전시회 미 개최 등으로 축소

8)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개별 기업의 요청에 따라 기초 마케팅 자료를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로 사업파트너 연결, 항목별 시장조사,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등이 있으며 해외 수입업체 연락처 확인은 연간 6회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표 N-19-1-9 | 해외시장조사서비스 지원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파트너연결(건)	3,992	3,410	3,211	2,767	2,883
항목별시장조사(건)	1,921	1,413	1,460	1,255	1,453
원부자재공급선조사(건)	109	136	187	125	83
해외수입업체 연락처확인(건)	875	854	820	541	472
합계(건)*	6,697	5,813	5,478	4,688	4,891

* 수출대금 미결제 조사(건), 거래선 관심도 조사(건) 제외

9) 해외 비즈니스 출장 사업

세일즈 출장과 투자환경 조사 출장으로 구분되는 유료사업으로 세일즈 출장은 거래선 확대를 위해 개별출장을 시행하는 국내기업에게 잠재 바이어와의 상담주선을 지원한다. 투자환경 조사 출장은 투자 진출을 위한 조사 출장을 시행하는 국내기업들을 위해 관련 기관, 현지 로펌 등과의 상담주선을 지원한다.

표 N-19-1-10 | 해외비즈니스출장 사업 지원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세일즈출장권	191	213	303	207	14
투자환경조사출장권	27	26	36	32	2
합계권	218	241	339	239	16

10) 개별 방한바이어 수출상담 지원

한국제품 수입 수요가 있는 해외 바이어가 개별 일정으로 방한하는 경우 수출전문위원들의 발차 컨설팅 후 국내 적격업체와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국내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표 N-19-1-11 | 개별 방한 바이어 지원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바이어 지원권	212	144	172	174	12

나. 전략산업별 해외 마케팅 지원

1) 디지털뉴딜 해외마케팅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및 ICT산업 융합 가속화 등이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가 글로벌 산업질서 재편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KOTRA는 혁신기술분야 DNA(Data, Network, AI), 혁신산업·인프라 분야 글로벌 현지화 및 시장 선점 지원 등 디지털 뉴딜 분야 글로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략산업 및 시장에 대한 조사 분석을 시행하여, 진출전략보고서 발간, 전략시장 및 전략품목을 도출하였으며 특히, 해외 48개국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시장 환경·정책·기업·진출전략 등 심층 보고서를 국내 최초 발간하여 유관기관 및 국내기업에 배포하였다.

2020년에는 DNA 융합산업 시장진출 및 3대 스마트산업(스마트시티·스마트팜·스마트팩토리) 전략시장 진출 강화를 위해 산업 분야별 정부·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효율적 해외진출을 위한 협업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지 특색 및 현안 사항에 따른 차별화, 서비스/기술적 관점에서의 분야별 진출지원을 추진하였다.

또한, 협력수요가 높은 4개국에 스마트시티 협력센터(하노이, 자카르타, 방콕, 이스탄불)를 구축하여 현지 프로젝트 발굴·전파, 시장조사, 상시마케팅 지원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스마트팜 해외진출협의회(농림식품부·유관기관·기업 등 90개사)를 발족하여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하였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국내 대표 ICT분야 전시상담회인 GMV(Global Mobile Vision) 및 아웃바운드 ICT 융복합 마케팅사업인 K-Global@ 사업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여 더 많은 기업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 상담추진 시스템을 통한 국내기업-바이어간 사전 정보교환 후 상담을 진행하여 성과를 제고하였다.

이와 함께, 보안(데이터), 5G, AI 등 분야 국내기업 온·오프라인 전시회 참가, 웨비나, 온라인 파트너링 등 비대면 마케팅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국내기업 디렉토리북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디지털 마케팅도 추진하였다.

중소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해 스마트시티, 전자정부, 스마트팩토리 등 분야로 구성된 IT전소시엄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협회, 기관을 포함한 전소시엄을 구성하여,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활동을 연중 지원하고 있다.

끝으로, KOITA 본사에는 우리 ICT 기업의 해외 진출 관련한 문의 및 상담이 가능하도록 ICT 글로벌 멘토링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중국·일본에는 현지에서 IT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에 필요한 거점구축(법인설립, 사무공간 등) 및 현지화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2) 지식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

KOITA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분야뿐 아니라 의료, 프랜차이즈 등을 포함한 지식서비스 분야, 해신서비스 분야(VRAR, 에듀테크 등)로 지원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KOTRA 서비스산업실은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사업 및 서비스 해외거점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하여 서비스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돕고 있다.

에듀테크, 콘텐츠, 프랜차이즈 분야 등의 온라인 상담회 및 사절단을 통해서 해외 서비스 바이어와 진출 및 수출 상담을 확대하고 있다.

3) K-의료 해외진출 지원

KOTRA에서는 차세대 수출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의료산업(의료기기, 제약, 병원 서비스 등)의 수출지원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에서 1:1 상담을 진행하는 수출상담회의 경우,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KIMES와 연계한 글로벌 의료기기 상담회를 개최하여, 세계 각국 유망 바이어와의 상담기회를 제공한다. (2020년 197개사 상담)

또한, 분야별 유망전시회에 대한 한국관 참가와 더불어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전략 시장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의료사절단도 파견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 사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며 메디컬 코리아 거점공관 사업을 지방 지원단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바이코리아 온라인 특별관을 구축하는 등 상품을 해외 바이어에 홍보하고 화상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기 및 제약업계 유망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해외 마케팅 서비스인 '의료 수출 전문 기업 육성사업' 바우처 보유기업은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한 '메디스타 이니셔티브'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및 의료서비스의 해외 진출 지원은 국내외 상담회 및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사업' 서비스 등으로 지원 중에 있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 대응을 위해 진단방역물품 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우리 기업의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4) 그린뉴딜 해외진출 지원

KOTRA는 해외무역관을 활용해 동남아,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전략시장의 유망 환경 및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발주처(바이어) 정보, 입찰 및 수주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 이래 글로벌 환경, 에너지 포럼, 프로젝트 설명회 및 상담회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GGHR, Global Green Hub Korea)'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동 사업은 전 세계 유망 프로젝트 발주처와 바이어를 초청해 국내기업과의 1:1 상담을 통한 국내기업의 해외 환경 및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내기업의 세계 환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 수주사업단 파견하고 있다. 2020년에는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서남아, 중국, 중남미 지역에 프로젝트 수주사업단을 파견, 환경, 플랜트, 교통기술 등 분야로 진출이 유망한 국가를 대상으로 사업 발굴 및 수주 활동을 지원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중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제조업 연계성과 고용 유발효과가 큰 해상풍력 분야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글로벌 해상풍력 프로젝트 디벨로퍼, 사공사, 엔지니어사 및 터빈 제조사 등을 초청하여 국내기업과 제3국 프로젝트 공동진출 등을 위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중소기업의 그린뉴딜 해외진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상설전시관을 운영하여 유망 해외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의 온라인 상담을 연중 지원하고 있다.

5) 건설, 플랜트, 엔지니어링 해외시장 진출 지원

KOTRA는 건설, 플랜트,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에서 발굴되는 각종 프로젝트를 주기적으로 해외수주협의회 회원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 프로젝트 설명회 및 상담회, 수주단 파견 및 플랜트 수주지원센터(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KOTRA는 건설,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업 682개사 1,994여 명을 회원사로 하는 해외수주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해외수주협의회 회원사의 57%는 중소기업이다. 수주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수집하는 프로젝트 정보를 수시로 전파한다. 또한, 업계 정보교류와 해외 동향 파악을 위해 해외수주협의회 수요포럼을 분기 1회 개최한다. 이 밖에도 해외수주협의회 소속의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해외 수주 애로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현지 파트너사 조사, 프로젝트 정보, 입찰, 세무, 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애로 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이래 국내 최대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상담회인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GPP, Global Project Plaza)'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동 사업은 국내기업의 개별적 접근이 어려운 글로벌 유망 프로젝트 발주처를 초청하고 국내기업과의 상담회를 개최하여 국내 건설, 플랜트, 엔지니어링사의 해외 수주성과 제고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우리 기업 중에는 금융조달 경험과 실적 부족으로 투자개발형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단순 도급형 프로젝트 위주 수주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OTRA는 2013년부터 'MDB 프로젝트 플라자'를 개최하여, 다자개발은행 투자 담당자와 발주처를 국내로 초청해 투자 개발형 프로젝트를 우리 기업에게 소개하고,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다자개발은행의 투자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6) 일반물자 정부 간(G2G) 교역 지원

2012년 페루 지능형 순찰차 800대의 정부 간(G2G) 거래가 계기가 되어 2014년 1월 21일 대외무역법에 「정부 간 수출계약」 제도가 도입되었다.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KOTRA는 정부 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이 되었으며 일반물자에 대한 정부 간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G2G 교역지원단을 신설하였다.

KOTRA는 국내기업을 대신하여 또는 국내기업과 함께 외국 정부에 불품용역을 유상으로 수출하는 계약 당사자의 역할을 하며, 새로운 무역 방식을 통한 수출 먹거리 창출 사업으로 외국 정부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해외 무역관, 유관기관 등과 공조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판로를 지원하며, 거래 가능 주요 품목 유형으로는 특수 목적 차량 및 운반 장비, ICT, 각종 인프라 및 관련 운용 시스템 등이 있다.

2020년에는 2019년 공공기관,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국토부, KOITRA가 팀코리아로 연합하여 수주한 페루 친체로 산공항 사업을 이행하는 한편 페루의 신규 인프라 사업 수요 (메트로 3호선, 메트로 4호, 중앙고속도로, 산타로사 고가도로 및 해군기지 이전)에 적극 대응하였다.

또한, 두 번의 기업 간담회를 통해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G2G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이행능력평가' 제도를 거산하였고, G2G제도 설명회를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현재 정부 간 거래관리실은 정부 간 거래 프로젝트 발굴, 외국 정부와의 계약 협상 및 체결 과정 지원 등 정부 간 거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7)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KOITRA는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무역관에 조달 진출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국 정부 및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와 정부 조달 멘터 초청 1:1 상담회 개최, 조달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해외 사절단 파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6개 해외 공공 조달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조달시장 진출 정보수집, 사업기회 발굴, 현지 조달 멘터와의 파트너링, 멘티 등록 지원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8) 글로벌기업 기술협력 지원

KOITRA는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을 지원하는 글로벌 파트너링 (GP)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부품공급, R&D, 기술세후 수요를 발굴하고, 대응 가능한 국내 소재부품(중간재) 중소기업을 매칭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년 국내외 권역별로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링 기회를 논의하는 종합 상담회를 개최하며, 국내 행사로 GP Korea를 연다.

GP사업은 2010년 시작 이후 총 983회 상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총 154건의 정부 R&D를 지원하였다.

표 N-19-1-12 | GP사업 개량 실적 현황

연도	GP상담회회		참가기업개사		R&D지원 (건)	R&D지원 (액천)
	총합	신은 (신호일트)	해외기업	국내기업		
2010년	8	9	322	715	1	22
2011년	14	5	549	706	12	89
2012년	3	20	133	382	16	95
2013년	6	62	249	805	28	77
2014년	12	74	507	1,352	31	92
2015년	8	115	783	1,161	20	90
2016년	12	116	697	1,275	15	57
2017년	14	111	996	1,605	15	63
2018년	8	108	979	1,497	5	23
2019년	6	102	1,343	2,125	5	25
2020년	8	172	1,664	2,183	6	17

다. 중소기업 수출 애로해소 및 글로벌 역량 강화

1) 글로벌 역량 진단(GCL Test)

기업의 글로벌 역량(Global Competence Level)을 진단하여 성장 단계에 따라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이다. 또한, 기업요청 시, 수출전문위원이 역량진단에 참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선 컨설팅 및 방문 컨설팅을 하고 있다.

표 N-19-1-13 | 글로벌 역량진단(GCL 테스트) 제공 건수

구분	2010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진단기업(개사)	9,066	7,657	7,694	9,803	8,942

2) 이동 KOTRA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애로 해결 지원을 위해 전국 13개 지역(서울, 경기, 경기 북부, 인천, 부산, 경남, 대구·경북, 울산, 대전 충청, 충북, 광주전남, 전북, 강원)에 찾아가는 수출 상담 서비스인 이동 KOTRA를 시행하고 있다. 글로벌 역량 진단(GCL)과 연계 각 기업의 역량과 수출단계에 맞는 해외거래선 발굴, 수출지원 사업 안내, 계약서 검토, 기타 수출 애로 해소 등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표 N-19-1-14 | 아동 KOTRA 서비스 제공 건수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방문 기업개사	2,303	2,703	3,304	3,770	3,910	4,015	3,095
방문 권수건	-	3,098	4,169	4,601	4,823	4,712	3,830

3) 온·오프라인 무역투자 상담센터(Trade Doctor)

무역투자 상담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무역 및 투자 진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전 세계 지역 담당 전문위원이 전화, 내방, 모바일, 온라인으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N-19-1-15 | 온·오프라인 무역투자상담 서비스 제공 건수

구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무역상담건	27,501	27,829	30,582	30,219	32,616
투자진출상담건	11,476	10,304	11,344	10,855	6,356
합계건	38,977	38,133	41,926	41,074	38,974

4)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은 국내 내수기업 및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여 수출 유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이다. 많은 중소기업이 경영 여건상 해외시장 진출의 어려움으로 제한적인 내수시장에 치중하고 있으며, 수출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글로벌 시장으로의 도전이 쉽지 않다. 이러한 내수 중소기업을 위해 퇴직 무역 전문인력인 수출전문위원과 참가기업을 '멘토·멘티'로 지정하여 무역 실무에서 수출계약 이행까지 1년간 1:1로 밀착 지원하고 있다.

표 N-19-1-16 | 신규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참가 업체 지원현황

구분	참가기업 수	2019 상향 기업수	2020 상향 기업수
내수기업	3,000개사	1,370	1,482
초보기업	1,200개사	837	954
계	4,200개사	2,207	2,436

* 공사 전체 신규 수출기업수(개사) : 2,670개사(신규 수출기업화사업 1,482 + 기타 공사 마케팅 1,188)

· 초보기업이란 전년도 소액수출(전년도 실적 US\$ 10만)기업으로 수출준단 방지 지원

5) 감소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기업 중심의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방식을 도입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감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감소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수출이 전무하거나, 수출액 비중이 매출액 대비 10% 미만인 내수 위주의 수출초보 감소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내수중견 수출도약사업'을 추가로 신설하여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는 부족한 해외네트워크를 KOTRA에서 보완하고, 참가기업별 제품특성, 수출 성숙도, 현지 시장 상황 등 글로벌 현황진단을 거쳐 기업별 맞춤형 해외 진출 로드맵을 수립 후, 최장 5년에 걸쳐 참가기업과 KOTRA 수출전문위원, 그리고 KOTRA 무역관이 삼각 체계를 구축, 공동으로 해외 마케팅 활동을 추진한다.

2021년 6월 기준 331개사가 참가하고 있으며, 사전에 수립된 사업계획에 따라 시장조사, 해외 전시회 참가, 단독 로드쇼 개최, 현지 마케팅 인력 운용, 광고 등 현지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참가기업은 수출확대, 해외 진출, 해외 거래처 증대 등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체계적인 시장개척 방법을 습득하여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높일 수 있다. KOTRA는 향후 국내 감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접근방식 고도화에 맞춰 지원서비스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표 N-19-1-17 | 로드맵에 기반한 해외 마케팅 지원유형

마케팅 전략목표	주요 마케팅 활동
영업망 구축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마케팅 인력 발굴 및 운영 지원 현지 유통망 구축 및 활성화 지원(대리점/일러)계약 영업활동 지원등
맞춤형 시장조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겟 시장조사 또는 시장정보 보고서 구입 지원 관련 산업 DB 확보 타겟 바이어 발굴 및 해외 마케팅 실시 현지 타겟 고객 대상 설문조사 및 분석 등
마케팅 활동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전시회 및 연계 행사 : 전시회 참가 지원 및 단독 IR, 기술설명회, 신제품 런칭쇼 등 개최 지원 현지 세미나, 로드쇼, 시연회 등 개최 현지시장 Test Marketing 사업 유력 바이어 방한초청사업 등

홍보 활동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홍보, 광고 대행사 발굴 • 스폰서십 마케팅 • 유력 전문지&매체 광고 • 문화 마케팅 사업 • 수출 위한 각종 판촉물 및 홍보물 제작
글로벌 기업과의 제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기업 Supply Chain 진출 사업 • 해외유망 기업 M&A 지원 사업 •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또는 투자유치 사업 • 글로벌 기업 관계자 방한 초청 사업 등
현지 진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법인 설립 & 공장 설립 관련 사전 타당성 법률/컨설팅 • 합작 파트너 발굴 지원 • 인증 및 특허, 상표 등 등록 및 획득 지원

6)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KOTRA가 운영하는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은 수출 품목의 다양화와 미래 수출동력 확충을 위해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과 생산 기업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참가기업은 세계일류상품 인증 로고 사용과 함께 해외 홍보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갖는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정 방법은 우선 우리나라가 해외시장 점유율의 5% 이상, 상위 5위 이내인 품목 중, 세계시장규모가 연 5천만 달러 이상(국내시장 규모의 2배 이상)이거나 수출 규모가 연 5백만 달러 이상인 상품을 세계일류상품(현재 세계일류)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품목의 생산기업 중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또는 수출점유율이 1위(또는 동종 상품 중 30% 이상)인 기업을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현재 세계일류)으로 인증한다. 아울러 향후 7년 이내 세계일류상품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하여 후보군으로 육성하고 있다. 매년 7-8월 신규 품목과 생산기업 선정을 위한 공모 및 신청접수가 이루어지며, 3-4개월간의 검증을 거쳐 11-12월경에 인증 여부를 확정한다. 2020년도 기준으로 674개 품목 963개 기업이 선정되어 있다.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직·간접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출지원 유관기관을 통해 금융, 컨설팅 등의 분야에 대한 간접적인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라. 중소기업 해외투자 진출 및 국내복귀 지원

1) 해외투자 진출 정보 제공

KOTRA는 해외투자 진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투자 실무가이드, 해외 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발간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해외투자를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실무적 도움을 주기 위한 해외투자 실무가이드를 국가별로 발간한다. 2020년에는 필리핀, 몽골, 브라질 투자 실무가이드를 발간하였으며, 2021년에는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투자 실무가이드를 발간할 예정이다.

각년으로 발간되는 디렉토리 자료는 해외투자 진출기업의 현황을 조사한 자료로서 각종 공공기관, 연구단체, 학교, 기업 등으로부터의 이용도가 높고 각종 조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2020년에는 세계 편, 동남아·대양주 편, 중국 편이 3권으로 발간되었으며, KOTRA 해외시장뉴스 사이트에 기업 목록이 공개되어 있다. 해당 기업의 연락처 등 상세정보는 파일 또는 책자 형태의 자료 구입을 통해 가능하다.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의 투자정보 및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한다. 2020년에는 2회에 걸쳐 신북방, 신남방 투자진출 포럼을 개최하였다.

2)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4년 KOTRA 베이징무역관에 처음 개설되었으며, 2021년 기준 중국 6개소(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다롄, 광저우, 선양), 베트남 3개소(호치민, 하노이, 다낭), 아시아지역 8개소(자카르타, 미널라, 뉴델리, 양곤, 방콕, 프놈펜, 쉐나이, 쿠알라룸푸르), CIS지역 3개소(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울란바토르), 유럽지역 3개소(바르샤바, 프랑크푸르트, 부다페스트), 북미지역 2개소(뉴욕, 달라스), 중남미 지역 2개소(멕시코시티, 상파울루) 등 17개국 27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주요 지원 서비스로는 센터별 자문 회계, 노무, 변호사 상담 지원 등 해외진출 희망기업 및 기진출기업의 현지운영과 관련된 상담, 세미나 개최를 통한 현지 경영 지원, 현지 정보 발굴 및 제공이 있다. 이밖에도 진출기업의 내수판로 시장개척을 위한 상담회 개최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현지 정착을 지원한다.

3) 해외지식재산센터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는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권 이슈가 많은 주요국가에 설치, 현지 지식재산권 창출보호 및 애로사항 해결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전담 데스크이다. 현재 중국 6개소(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홍콩), 미국 2개소(LA, 뉴욕), 베트남(호치민), 태국(방콕),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인도(뉴델리),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필리핀(마닐라), 러시아(모스크바), 멕시코(멕시코시티) 각 1개소로 총 11개국 1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식재산권 상담, 지식재산권(상표권 및 디자인권) 출원 비용 일부 지원사업,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사업 등이 있다.

IP-DESK 미소재 국가에 대해서는 22개국*에 한해 해외 상표권 및 디자인권 출원 지원, 분쟁대응,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단속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 IP-DESK 미소재 22개국 : 대만, 몽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콜롬비아

표 IV-19-1-18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원 유형

구분	지원내용
지식재산권 법률상담	• 해외 진출(예정)기업에 대한 현지 지식재산권 법률 애로 상담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 현지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 출원비용 지원(90%한도)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 현지 지식재산권 (피침해 조사, 행정단속, 법률의견서·경고장, 침해감정서 등) 작성비용 일부 지원(70%한도)
해외 지식재산권 설명회	• 현지 단속 공무원 등 대상 한국 유명상표 설명, 진품 식별 방법 등 교육 • 현지진출 한국기업 대상 현지 지식재산권 제도 및 진출 시 유의사항 안내
해외 지식재산권 관련 공무원 초청연수	• 해외 주요국가의 지식재산권 관련 공무원을 초청하여 한국 지식재산권 제도 소개 및 지식재산권 유권 기관 교육 활성화 •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를 통한 현지국가에 대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직접 전달

4)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는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국내복귀 의향기업 발굴, 국내복귀 종합 상담, 신청접수/심사 등 국내복귀 전(全) 과정에 걸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국, 베트남,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태국 등 8개국 소재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현지법인 구조조정(매각, 양도, 축소 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만 달러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30~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투자지원을 위해 입지/설비 보조금, 고용 보조금 등 각종 인센티브 신청 시 상담서비스 제공 및 지자체/유관기관연결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기업이 국내복귀 단계에서 겪는 각종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6) 글로벌 M&A 지원사업

KOTRA는 해외 M&A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13.2월 '글로벌 M&A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올해로 8년 차를 맞이하였다. 2020년 기준, 해외 M&A 거점무역관(43개소)이 구축한 현지 부티크 및 자문사 네트워크를 통해 유망 M&A 매물을 발굴하고, 국내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KOTRA는 해외 M&A 매물 발굴, 현지 법·제도 조사를 포함하여 M&A 프로젝트 전 단계에 걸친 애수 자문을 직접 수행한다. 특히,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한 매물 발굴에 강점이 있으며 M&A 실사 수행기관 발굴도 지원한다. 그 외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달 소싱 설명회·상담회도 개최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은 '글로벌 M&A 지원사업' 참가를 통해 해외 생산거점·영업망 확보, 원천기술 및 IP 확보, 신사업 발굴 등의 경영목표를 단시간 내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표 IV-19-1-19 | 글로벌 M&A 지원사업 절차

① M&A 팀에 사업 참여 신청(담당자와 유선 협의 후 신청서 작성) → ② M&A 팀 전문가와 개별 면담으로 지원내용 수립 → ③ 비밀유지협약 체결 → ④ 연간 달 지원 → ⑤ 사후 관리

마. 글로벌 시장정보 제공 및 교육

1) 해외시장정보 조사·전파

KOTRA는 84개국, 127개 해외부역관을 통해 전 세계 산업·상품정보, 통상현안, 경제 동향, 마케팅 정보 등 수출 관련 정보를 비롯하여 취업·창업 등 일자리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KOTRA 해외시장뉴스 포털(news.kotra.or.kr)을 통해 생생한 해외 시장 동향을 전파하고 있으며, 세계 84개 국가의 경제산업 동향, 수입규제제도, 투자환경, 출장 시 유의사항 등 각 국가별 삼층 정보를 담은 국가·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장수요 및 현지 여건변화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국가별 진출환경, 시장분석, 유통품목 등의 정보를 수록한 권역별·국별 진출전략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경제 및 시장 조망, 권역별 이슈 점검을 위한 세계 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매년 개최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이슈가 발생할 경우, 현지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토대로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조사·전파하고 있다. 또한, 우리 기업이 새로운 산업과 소비자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를 매년 발간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KOTRA 해외시장뉴스 포털(news.kotra.or.kr)과 함께 뉴스레터, 무역자료실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네이버·다음 등 국내 유력 포털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하고, 영상뉴스를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재하는 등 고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KOTRA 해외 시장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채널을 다각화하고 있다.

2) FTA해외활용지원센터

KOTRA는 해외에서의 FTA 활용지원을 위해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다롄, 톈진, 하노이, 호치민, 뉴델리, 첸나이, 자카르타, 방콕, 마닐라, 프놈펜, 중남미(멕시코시티) 등 8개국 15개 지역에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우리 진출기업 및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FTA 활용 상시 상담, 현지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기능별(통관·회계·법률 등), 산업별(유통·농식품·IT·서비스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표 N-19-1-20 |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운영 지역

국가	지역	상장사유
중국	베이징	· 중 수도 소재지, 국내기업 투자 진출 거점
	상하이	· 동부W연안 경제중심지, 국내기업 투자 진출 거점
	칭다오	· 중 물류중심지, 중국진출 국내 중소기업 밀집 지역 (전체 진출기업의 30%)
	광저우	· 중 최대 경제중심지(GDP 중국 1위), 한-중 교역 핵심 거점
	다롄	· 중 동북 3성 경제 중심지, 국내기업 투자 진출 거점
	톈진	· 중 한중교역 물류 중심지, 국내기업 투자 진출 거점
베트남	하노이	· 베트남 수도 소재 지역, 북부 물류 거점도시
	호지민	· 베트남 경제 핵심지역, 남부 물류 거점도시
인도	뉴델리	· 인도 수도 소재지이자 거대소비시장, 신남방정책 핵심국가
	첸나이	· 인도 남부 경제 중심지, 국내기업 투자 진출 거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인도네시아 수도 소재지, 신남방정책 핵심국가
태국	방콕	· 태국 수도 소재지로 아세안 물류거점 도시, 신남방정책 핵심국가
필리핀	마닐라	· 필리핀 수도 소재지, 신남방정책 핵심국가
캄보디아	프놈펜	· 캄보디아 수도 소재지, 성장잠재력이 높은 메콩지역의 허브 국가
중남미	멕시코시티	· 중남미 경제 핵심 국가, 중남미 광역센터 기능

3) 경제외교 활용모델 웹사이트 / 모바일앱

해외 순방/국빈 방한 시 국가 간 합의사항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하고, 경제외교로 창출된 비즈니스 기회를 우리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외교 종합정보 DB를 구축, 2014년 2월 경제외교 활용포털(舊정상외교 강재활용 포털)을 오픈하였다.

경제외교 활용포털은 2015년 이후 진행된 정상회담 공동선명, 합의 내용(MOU) 등 경제외교 종합정보와 경제사절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제외교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정부 부처 및 수출 지원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 등 다양한 해외 비즈니스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또한, 경제외교를 활용하여 해외 진출에 성공한 중소기업의 성과사례들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제외교 및 경제사절단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16년 1월, 경제외교 활용포털 모바일앱이 출시되었다. 우리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상시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정상회담 종합정보, 후속 조치·사업, 경제사절단 및 순방 연계 각종 경제행사, 해외시장정보, 경제외교 기업 활용 사례 등을 우리 기업들이 모바일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4) 무역·투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

KOTRA 아카데미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해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 글로벌 지역 전문인력 육성과정, 기업역량별 맞춤형 과정 등을 운영 중이다. 또한, 투자유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교육과 지방소재 수출 기업을 위한 지방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KOTRA가 쌓아온 해외 마케팅 및 투자유치 노하우를 고객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며, 2020년 기준 총 97회 과정을 운영하였고, 교육생 3,000명이 강의를 수료하였다.

표 N-19-1-21 | 교육과정 운영 현황(2020년 기준)

구분	주요내용	회수	교육생
국가별 과정	- 해외 마케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지역별 진출전략 과정 * 베트남, 파인아, 러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등	21회	515명
산업별 과정	- 산업별 해외 수출 마케팅 역량 강화 과정 * 화장품, 자동차 부품, 식품, 의류기기 등	7회	137명
기업역량별 맞춤형 과정	- 중소기업인, 사회적 경제기업, 수출 초보, 유망, 중간기업 대상 역량별 맞춤형 교육과정 * 수출 첫걸음 과정,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과정 등	16회	421명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분야별 실무 역량강화 과정 * 글로벌 비즈니스 협상, 영업역량 향상과정 등	23회	574명
FTA 전문인력 양성과정	- 기업의 FTA 활용에 필요한 실무인력 양성 과정 * FTA총괄 컨설팅 교육, 기업별 FTA 실무별 맞춤형 등	13회	750명
해외진출 컨설팅트 양성 자격과정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분야별 실무 역량 강화 과정 *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팅트(GBC) 4기-6기	3회	82명
해외 심화연수	- 글로벌 기업 벤치마킹 연수 * 미국 CES연계 4차 산업혁명 연수	1회	23명
기타교육 과정	- 지방 맞춤형 연수과정, 산업방지역의 미래 빅데이터 활용 수출마케팅 과정, 온라인 수출 마케팅 과정 등	14회	490명
총계(기타과정 포함)		97회	3,000명

* 투자유치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2020년 코로나19로 미개설, 2021년 재개설 예정

바. 외국인 투자유치

1) 투자유치 정보 포털 운영

Invest KOREA는 국내 투자유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IK 홈페이지(www.investkorea.org)를 운영하고 있다. IK 홈페이지는 메인 및 10개 광역시도별 투자유치 홈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문, 영문, 중문, 일본 4개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다. 반응형 웹 기술이 적용되어 모든 기기 및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하고 있다.

IK 홈페이지는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서 한국의 투자여건 및 투자유치 기회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한국 투자환경, 외국인투자기업 성공사례, 유망 산업정보, 부자기이드, 인센티브 정책정보 등 투자 관련 제반 정보와 한국정착을 지원하는 정주 여건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20년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통해 국내복 귀기업지원 사업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유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 및 기관의 외국인투자유치 수요를 지원하고 있다.

2) 대한투자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유치활동 전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KOTRA 내에 설치된 Invest KOREA는 국가 투자유치 전담기구(IPA)이다. Invest KOREA는 각종 대한 투자 상담서비스 및 투자유치활동과 36개의 해외 투자유치활동 무역관에서 현지 유망기업들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투자유치 활동 등을 통해 2019년 233억 달러(신고기준)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다.

KOTRA의 Invest KOREA 조직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하여 대상 지역별로 잠재투자자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통해 투자가 실현될 때까지 해외무역관·본사·중앙/지방정부 간에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밀착 지원하고 있다.

Invest KOREA는 국가 경제에 파급효과가 높아 범정부적인 유치활동이 필요한 국가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무자로 실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년에는 코로나 상황 하에서도 해외무역관 본사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유망 잠재투자가 발굴에 주력한 결과, 2020년 총 3,035건의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관리하였으며,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표 N-19-1-22 | 연도별 핵심 투자유치 프로젝트 관리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투자유치 프로젝트건	1,891	2,010	2,108	2,207	2,380	2,760	3,035

3)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방한 투자사절단 지원

Invest KOREA는 외국기업의 성공적인 한국진출과 사업 활동을 위한 활동을 연중 수행하고 있다. 유망 잠재 투자가와 투자 유망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해외에서 투자 전담관이 지속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발굴된 유망 투자유치 프로젝트는 해외무역관 투자전담관과 함께 본사의 투자유치 프로젝트 매니저(PM)가 전담으로 지정되어 한국진출에 따른 법인설립, 공장 부지 물색, 인센티브 설명 그리고 유관단체 면담 등 방한 활동을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방한하는 투자가에 대해서는 입지부터 행정 수속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기존 오프라인 유치활동이 제한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투자유치 사업을 집중 전개하였다. 다국 투자가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유망산업별 비대면 IR 10회 및 지자체별 비대면 IR 14회를 수행하였다. 또한, 우리 혁신벤처스 타트업 기업들과 외국인 투자가와의 화상상담을 연중 지원하는 한편, Invest Korea Week 투자상담회 행사를 통해서도 총 321건의 온라인 투자유치 상담을 지원하였다.

4)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 처리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경영 활동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도한다. 1999년 10월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 사무소 개소 이래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331건, 2020년 말 기준 357건의 고충을 처리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결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 세무·회계, 노무, 지적권, 법률, 인증, 환경 등 분야별 홈닥터가 상주한다. 홈닥터는 현장방문, 상담, 온라인, 이메일 등을 통한 1:1 맞춤형 무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영 자문, 나아가 법규 및 행정 관련 고충 해결 지원을 수행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소그룹·분야별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 정보 포털 서비스를 운영하여 정부 입법·의원입법 사전단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 모기업의 고충 현안 발굴 및 증액투자 유도를 위해 해외 모기업 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표 N-19-1-23 | 연도별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 유형별 동향 (5개년)

년 도 별	외 리 청 황		처 리 유 형 주 비		
	건 수	증감률(%)주1)	제도개선	행정처리	기타처리
2016년	403	△11.5	16	106	287
2017년	291	△26.9	12	92	187
2018년	269	△7.6	7	107	155
2019년	332	23.4	24	232	76
2020년	357	7.5	17	240	100

주1) 전년대비 증감률

주2) 처리유형은 정부 기관의 법규개정을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 현행 법·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조치를 수반하는 '행정처리', 자문제공 등 자체 인력을 통해 해결하는 '기타처리'로 구분됨

5) 외국인투자 종합행정지원서비스

외국기업창업지원연구센터(Invest Korea Plaza, IKP)에 위치한 투자종합상담실(Investment Consulting Center, ICC)에는 KOTRA 전문위원과 함께 7개 중앙정부 부처, 9개 지자체, 2개 유관기관에서 파견 나온 22명의 공무원 및 직원이 투자신고부터 법인설립, 비자발급 등 각종 민원처리, 조세·법률·노무·인센티브 등 분야별 전문컨설팅, 생활정착지원 등 외국인투자 전 과정에 걸쳐 외국인투자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으며,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유턴 기업을 위한 지자체별 입지 및 인센티브 정보 등을 제공한다.

표 N-19-1-24 | 투자종합상담실 통합행정지원서비스

관세	국세	임대	외국 신용	정보	채무 회계	노동	비자	영위	환경	유한 기업	보상 면제	국립 대규모
현행투자 특혜 발급/ 관세조정	사업자 등록 및 조세환	임대청 임대계약/ 공공주택 신청	외국신용 등록/연계	정보제공 찾아보기/ 별첨신청	조세 및 인보험 신청	노동 상담	비자발급/ 갱신/연장	영위신청/ 연속경영 서비스	환경 관련 인증/ 신청	유한 기업 대상 장려 제공	유한 면제 관련 발급	국립 임대 지원/ 차량장려/ 세종평 발급 안내
관세청	국세청	신도청	KOTRA 전주지원	영재부/ KOTRA 전주지원 연말사	KOTRA 전주지원 (회계)	고령부/ KOTRA 전주지원 (노동)	법무부	KOTRA 전주지원 영위, 중외 청에	환경부	유한 차세대 기업	도로 보통 공민	유한 지자체

6) Invest Korea Plaza 운영

외국기업창업지원연구센터(Invest Korea Plaza, IKP)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성공적인 조가정착 지원을 위해 사무실 임대 및 각종 행정 지원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투자가 전용 인큐베이팅 시설로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이다. IKP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해 있는 외국인투자가 전용 사무실(7-9층)과 KOTRA 투자종합상담실지자체투자유치 유관기관은행 등이 입주하여 IKP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잠재 외국인 투자자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 및 행정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다.

개관 시부터 2020년 12월까지 IKP 외국인 투자가 전용 사무실을 이용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총 216개 업체가 이용하고, 총 30억 달러의 투자신고 실적을 나타냈다. 최근 5년간은 신규기업의 80%가 창업에 성공하고 평균 82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입자리 창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N-19-1-25 | IKP 인큐베이팅 실적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용업체개사	20	19	20	21	23
신규업체개사	6	12	13	10	11
창업률(%)	66.7	91.7	100	80	81.8
상주인원	97	89	75	62	88
투자신고액(US\$ 천 달러)	113,290	96,639	70,307	20,187	61,220

7) 산업별 투자유치활동 전개

Invest KOREA는 국내 제조업 고도화와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 혁신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4차산업 혁명 관련 기술 보유 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복합리조트, 문화콘텐츠, 물류 등 고부가가치 투자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외국인투자유치 패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별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투자유치 활동체계를 구축하였다.

2019년 한 해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과 전략 및 중점산업별로 3개 분과 16개 분야 총 64명의 산·학·연 전문가를 Invest KOREA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자문위원은 Invest KOREA의 국내 투자유치 유망프로젝트 발굴사업에서 심사 및 평가하고, 잠재투자자의 심층적 인파이어리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지원하고 있다. IK 작문단과의 분야별 투자유치 간담회를 통하여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유치 프로젝트 발굴 방안, 바이오 헬스케어, 미래형 자동차, 기능성 화학소재, ICT 분야의 투자유치 현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체계 구축을 위하여 IK 자문단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사. 해외 전문인력 발굴 및 일자리 창출

1) 해외 전문인력 발굴·공급

KOTRA 해외취업팀은 중소·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글로벌 인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인재 발굴, 인터뷰 주선, 이력확인, 고용추천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글로벌 인재 발굴 서비스

해외전문인력 DB가 구축되어있는 해외전문인력유치센터 포털사이트 (contactkorea.kotra.or.kr)에 글로벌 인재 발굴을 신청하면 해외무역관을 통해 특정 인재를 발굴, 의뢰 처에 인재정보를 제공한다.

표 N-19-1-26 | 글로벌 인재 유치지원 절차

- ① 인재발굴 신청 → ② 해외무역관 인재 발굴 → ③ 인재정보 송부 → ④ 채용 인터뷰 →
⑤ 이력확인 → ⑥ 고용계약 체결 → ⑦ 비자추천

2020년에는 91개 기업, 115명의 글로벌 인재 채용을 지원했다.

나) 해외 전문인력 고용추천서 발급

글로벌 인재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고용추천서를 발급하고, 특정 활동비자 (E-7) 발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추천서 신청은 해외전문인력유치센터 포털사이트 (contact@res.kotra.or.kr)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표 N-19-1-27 |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

- ① 발급 대상 여부 확인 → ②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③ 1차 서류 검토 → ④ 이력 확인 →
⑤ 외부청사 → ⑥ 홈페이지에서 고용추천서 다운로드 → ⑦ 출입국사무소에 제출

2020년도에는 119명의 고용추천서 발급을 지원하였다.

2 해외 일자리 창출

KOTRA 해외취업팀은 해외무역관을 통해 양질의 글로벌 일자리를 발굴하여 한국 청년 인재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N-19-1-28 | 국내인력 해외취업 지원 절차

- ① 해외기업의 국내인력 구인수요 발굴 → ② 월드잡포털(<https://www.worldjob.or.kr/>)에 구인공고
게시 → ③ 해외 취업희망 구직자 모집 → ④ 서류합격자에 대해 면접 일선

가) 해외 구인수요 발굴

16개의 해외무역관을 통해 한국인재에 대한 구인수요가 있는 해외 구인 처를 발굴하고 있다.

* K-Move 센터(16개소) : 뉴욕, LA, 밴쿠버, 프랑크푸르트, 도쿄, 오사카, 나고야, 싱가포르, 자카르타, 호치민, 하노이, 서드니, 베이징, 홍콩, 두바이, 멕시코시티

나) 국내외 해외취업 박람회

(국내) 양질의 해외기업을 초청하여 국내 구직자와의 1:1 면접 기회 제공하는 글로벌 일자리대전(연 2회)을 개최한다.

(해외) 현지 유학생, 국내 청년을 대상으로 현지 기업, 진출기업과의 취업을 지원하는 해외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다) 핀포인트 채용 설명회 및 상담회

해외 구인기업의 채용수요를 발굴하여 국내 구직자와의 채용 설명회 개최 및 1:1 면접, 필기시험 등을 지원한다.

라) 해외취업자 사후관리

국별 취업카페 및 멘토단 운영을 통해 해외 취업 정보를 전파하여 해외취업자의 현지 정착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를 돕는다.

아. 신흥국 상생 협력 기반 구축

1) 글로벌 CSR 사업

KOTRA는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도와 기업 인지도를 제고하고, 현지 사회문제 해결과 인력육성에 기여하여 신흥국과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글로벌 CSR 사업에 관심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이들과 공동 사업이 가능한 대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창업 벤처기업,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며, KOTRA는 참가 기업에게 사업의 기획·실행, 홍보, 사업바탕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KOTRA 사업신청 ▶ 사업영역소개 ▶ 국제개발협력 ▶ KOTRA CSR ▶ CSR 게시판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csr@kotra.or.kr로 송부하면 된다.

표 IV-19-1-29 | 주요 사업내용 및 2023년 실적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우리기업의 해외 CSR 활동 지원	A형 자사제품 - 서비스 체험형 CS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우리 기업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려해 아카데미 소비자 체험 및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사업 ○ (예시) 크루니의 발레 및 워터파크 다만 엔터테인먼트는 건강검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키는 2위에 있어 한이노텍자금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개발하여 현지 수출 확대 기반 마련 및 한국 기업 이미지 제고
	B형 해외 기술 - 경영 학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우리 기업-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을 선중국 정부나 발주처를 대상으로 공유하여 네트워크 구축 ○ (예시) 차미 크로기 기술 및 위생안전의 기술력을 보유한 W사는 조선 연세 한중 합작 차미엔원과 협력하여 현지우 간호사 및 간호학과,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현지 채용시 양성 교육 및 자소독출 무료검진을 하여 현지 진출 기반 조성 및 사회공헌을 통한 이미지 제고
	C형 실용가치 창출형 CS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현지 사회에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를 돕는 상생 가치 창출 ○ (예시) 우리 기업이 인도내수하의 특산물인 코코넛 상품을 개발, 가공 및 판매를 지원하여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동시에 기업의 원료 공급처 확보 및 상생 다짐화
	D형 유류장비 신중국 이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한국의 시험-인용 연구개발, 제품생산, 공공서비스 등의 분야 장비의 운영 경험 선국에 제공 ○ (예시) 국내 A등급과 동급인 한국과 품질 양국 간 비즈니스 협력 확대를 위해 품질 전문인력에게 분석 장비 사용 및 설치 후 장비 운영 및 분석 방법 등을 교육하여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전수하고 산업화 촉진 및 기술 혁신 장려
	크리아케어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크루니케어 디테일러 구매지원 및 의료용품 시장구입에 기부, 구매지원금 지원형으로 모세 재단 지원 및 의료 강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상생 협력 기반 구축 ○ (예시) Kase Care 사업으로 모세케어 사재해발 발원지 크루니9 분석센터 2곳 및 진단부트 30개 기부

2)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OTRA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무역투자진흥정책 및 경제발전 경험을 협력대상국과 공유함으로써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KSP (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협력국의 수출 진흥, 외국인투자유치,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자문과 비즈니스 연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협력국에 친한국적 제도 수립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확대하는 윈-윈(win-win)형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에는 에콰도르, 모잠비크, 브라질, 페루, 인도 등 총 9개국, 9개 사업에 대해 KSP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국별 정책자문 주제는 다음과 같다.

표 N-19-1-30 | 2020년 KOTRA KSP 사업 주요국 수행내역

국가명	수행 내용
몽골	○ (자문주제) 한국의 스마트 물류 및 운송 부문 정책 경험공유
벨라루스	○ (자문주제) 관세청의 업무 효율화 증진 방안
베트남	○ (자문주제) 전자세금계산서(E-invoice) 시스템 도입 마법
파키스탄	○ (자문주제) 중소기업의 발전 및 글로벌 유통채널 구축 방안
케냐	○ (자문주제)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관리 방안
브라질	○ (자문주제) 네트(Net)이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쿠바	○ (자문주제)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 경험 교류
모잠비크	○ (자문주제) 코로나19 및 전염병 대비 역량강화 방안
에콰도르	○ (자문주제) 코로나19 및 전염병 대비 역량강화 방안

제20장

한국무역보험공사

1

일반현황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정부출연기관으로 우리나라 수출·수입 보험제도를 전담 운영하고 있다. 수출보험은 수출 및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자의 파산, 대금지급 지연, 수입국의 전쟁, 환거래 중지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자금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수입보험은 국내 수입업자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해외수출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력기에 화물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선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국내기업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수출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비영리 정책보험제도이다.

정부에서는 1968년 수출보험법 제정 후 대한재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에서 대행체제로 수출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1992년 7월 효율적인 수출보험지원을 위해 수출보험 전담기관으로서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수출보험기금의 확충, 신규보험종목 개발,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수출보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이에 따라 1992년 약 1조 8,000억 원에 불과하던 수출보험 인수실적은 2020년 말 기준 165조 576억 원을 달성하였고 국내수출의 약 22%를 무역보험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2020년말 기준 2조 4,534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책보험으로서의 공신력도 크게 증대되었다. 2010년에는 수출보험법 개정(2010.7.6자 시행)을 통해 공사명칭을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에 중요물자 수입거래,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거래 및 수출기반조성 효과가 예상되는 거래를 추가하여, 수출용 원자재 수입거래 지원 및 중요 광물이나 원유 등 수입이 불가피한 주요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공사는 총 18개 국내지사⁴⁾ 운영을 통해 권역별 중소수출기업 전담지원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지방수출기업의 수출증대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밀착형 수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전세계 18개 해외지사 운영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지원과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및 채권회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 16개 국내지사 및 2개 출장소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공급확대

공사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비상경영계획을 시행함으로써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하였고 중소중견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2020년에는 ① 긴급수출안정자금, ② 보험(증)료 할인, ③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총력지원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인수실적은 2019년 56조원, 2020년 60조원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 20,060개, 2020년 28,952개 중소중견기업에 무역보험을 공급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대외경쟁력 확충을 위한 무역보험 지원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2008년 인수실적 18.6조원 및 중소기업 지원업체 수 6,952개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표 N-20-1-1 | 연도별 중소·중견기업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중소중견기업 인수실적	519,663	562,276	696,362

나. 중소기업 육성방안 시행

공사는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수출이행 및 신규 수출기회 확보를 위해 다양한 중소기업 전용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선정기업,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 기업, 자금부족으로 수출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초기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출 초보 기업 육성을 위한 무역보험 특별지원방안'을 통해 한도 우대, 보험(보증)료 최대 30% 할인 및 해외신용조사 서비스 무료 이용(최대 5회/년)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다. 무역보험 아카데미 운영

2009년부터 중소기업 및 국내외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참석자 특성에 맞는 제도 해설과 사례 및 실무 중심으로 무역보험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제공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무역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외부 전문강사진 확충을 통해 무역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고, 2019년부터 수출 예비/초보 기업에 대한 온라인 교육강좌를 추가하여 잠재 수출기업의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보험(증)료 지원사업 확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보험(증)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수출보험을 통한 위험 관리 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9년부터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증)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험(증)료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2020년 2,000백만 원, 업체당 수혜한도는 연간 5백만 원이다.

또한 무역협회와 '중소중견기업 Plus+ 단체보험 보험료 지원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직 수출실적 US\$3,000만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수출기업들이 보험에 가입하여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 중이다. 중소기업 Plus+ 단체 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의 2020년 예산은 총 150백만 원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표 IV-20-1-2 : 보험(증)료 지원 운영내역(서울시 및 무역협회)

(단위 : 백만원, 개사)

구	내	2019년	2020년
서울시 중소기업 수출보험(증)료 지원	지원금액	650	2,000
	수혜업체수	1,193	2,032
무역협회 중소중견기업 Plus+ 보험료 지원	지원금액	104	137
	수혜업체수	525	666

* 단체보험 지원 포함

마. 무역보험 컨설팅 서비스 제공

수출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이행 지원을 위하여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분야별(금융(무역보험), 수출입, 법무, 회계) 컨설턴트가 1:1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바. 중소기업 지원제도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제도 운영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은 외국환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에 따라 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수출업체가 수출물품의 제조 및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히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금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수출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2)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매입, 포괄매입) 제도 운영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은 공사가 발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수출자가 외국환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에 선적서류 매입을 통해 수출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출자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지급하는 제도이다.

수출신용보증(매입)과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은 수출신용보증(선적후)과 유사하게 수출기업이 물품 선적 후 금융기관에 선적서류를 매각하여 수출대금을 대출받는 경우, 해당 대출금 상환 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이다. 수출신용보증(매입)은 수출신용보증(선적후)과 달리 중계부역을 보증대상거래로 포함하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수출(대출)통지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수출신용보증(매입)은 은행에 대한 변칙조항 축소로 수출신용담보력이 강화되었으며, 단기수출보험 연계 가입의무가 없다. 다만 결제기간이 1년 이내인 거래에 한해 가입 가능하다.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은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매입)과 달리 수입자 제한이 없어 보증서 1개로 모든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해 매입외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서 담보부 대출의 대출기간은 180일 이내, 보증한도는 최대 250만 달러 이내이며, 신용우량 기업의 경우 통관 수출거래 뿐만 아니라 비통관 수출거래에 대해서도 매입외환 대출이 가능하다.

3)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제도 운영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는 중소기업들이 수출거래에서 해외 수입자로 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때의 손실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단기수출보험(선적후)와 비교하여 해외 수입자 신용평가 의무가 생략되는 등 가입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으며, 가입 후에도 통지절차 등이 생략되어 관리가 용이하다. 기업은 보험 가입 시 등쪽한 수입자(50개사 이내)와 보험계약기간동안 이행한 수출 거래에 대해 최대 100만 달러까지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나의 수입자당 최대 손실보장 금액은 30만 달러 이내) 보험계약 갱신 및 보험료 납부는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수출 유관기관과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환변동보험 제도 운영

환변동보험(일반형)은 수출을 통해 유입되는 외화금액 또는 수입을 통해 유출되는 외화금액을 사전에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하는 상품이다.

수출거래의 경우, 공사가 보장하는 환율보다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환율하락에 따른 손실을 수출기업에게 보상하지만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수출 기업이 환율상승에 따른 이익을 공사에 납부하게 된다. 수입거래의 경우, 수출거래와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손실을 보상하고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환율하락에 따른 수입기업의 이익을 회수하게 된다.

환변동보험(음전형)은 공사는 환율 상승시에는 이익금 납부의무를 면제하되, 환율 하락시 하락분의 전액 또는 일정수준까지 환차손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2013년부터 운영 하고 있다. 환율상승시 발생하는 환수금이 부담스러운 영세수출기업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공사는 환원등보험 제도를 통해 환위험 관리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환위험을 손쉽게 헤치하여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환위험관리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한 투기적 환헤지 수요 차단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안정적 실헤지 유도를 위해, 공사는 유관기관·외환전문가 등과 연계한 온라인 외환포럼 개최, 환율전망 및 이슈분석 제공, 개별기업 1:1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표 IV-20-1-3 | 환원등보험 지원실적 및 원차손 보험금 지급내역

(단위 : 억원, 개사)

구분	2019년	2020년
환원등보험 지원실적	9,101	9,888
보험금 지급액	63	138
보험금 지급업체수	209	268
대기업	-	-
중소·중견기업	209	268

5) 지방자치단체 보험(중)료 지원

공사는 수출 중소기업이 무역보험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조를 통해 보험(중)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기관별로 연도별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장 위치, 수출실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 내 수출중소기업에게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보험(중)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종목은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원등보험 등으로 지원기관별로 지원대상 및 지원종목에 차이가 있다. 공사는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지원받고자 하는 수출중소기업은 관할 지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6) 무역협회 보험료 지원사업

공사는 무역협회와 업무협조를 통해 2009년부터 무역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년도 수출실적 US\$3,000만 이하 중소기업 중 무역협회의 비환납 회원사 대상으로 중소중견기업 Plus+ 단체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며, 업체별 연간 수혜한도는 100만원이다. 이는 최근 세계경제 침체로 기존 수입자 및 신규 수입자와의 수출거래에서 대금이 결제되지 않을 위험이 증가하고 환율 변동폭이 커짐에 따라 적극적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기업들이 대금미회수 위험과 환변동 위험을 키버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7)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KAT) 보험료 지원사업

공사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업무협조를 통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농식품 수출업체 대상이다(업체별 대표 수출품목 기준 HS-Code 제1-22류, 24류(농식품), 수산물·임산물·연초류 제외). 지원종목은 단기 수출보험 및 환변동 보험이며 종목별 한도는 업체당 연간 8,000만원이다.

8) 산림조합중앙회 보험료 지원사업

공사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임산물 수출(목재, 석재류 제외) 중소중견기업으로 지원종목은 단기수출보험 및 환변동보험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연간 1,000만원이다.

9) 해외 미회수채권 회수대행 사업

공사는 수출 또는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자의 대외채권에 대해 회수대행 서비스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대외미수채권 회수대책을 강구하는 중소기업 수출자는 공사의 대외채권추심대행 상담 서비스를 통해 미수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해 타진해 볼 수 있다.

대외채권회수 노하우가 풍부한 국외보상채권부에서 동 사업 관리를 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역별로 협약을 맺은 해외주심기관 및 해외네트워크를 통해 회수대행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0)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기업Plus+) 단체보험 운영

공사는 단체(유관기관, 지자체, 협회 등)의 구성원인 회원사·중소중견기업들이 보험료 부담 없이 간편하게 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단체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단체보험은 무역협회·코트라 등 수출 유관기관과 지자체 등 단체를 보험계약자로, 그 구성원(10개 이상의 수출 중소기업)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중소기업 전용보험이며, 중소기업들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수출거래에서 해외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통상 5만 달러 범위 내). 이와 관련, 보험료는 지자체 등의 수출 중소기업 지원예산 등으로 충당, 중소기업들에게 보험료 부담 없이 무역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11) 기타 중소기업 우대제도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대기업의 부보율이 95%(중견기업은 97.5%)인데 반해 중소기업의 부보율을 100%로 우대함으로써 대금미화수 발생 시 중소기업의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 시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금 지급시한은 2~3개월로 대기업에 대한 보험금지급시한 3~4개월에 비해 신속하게 보상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가지급 비율이 보험금액의 60%이내(중견기업 70%)인데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가지급 비율은 80% 이내로 우대하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은 전 보험종목에서 10~20%의 보험료 할인을 받고 있으며, 특히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추가로 보험료를 10~20%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도 책정 시에도 우대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제21장 한국무역협회

1

일반현황

한국무역협회는 무역진흥을 통한 국가발전을 위해 1946년에 설립된 단체로서, 우리나라 무역업계를 대표하는 민간 경제단체로서, 회원사(무역업체)의 권익을 옹호하고 있다. 그리고 무역센터 운영 수익을 기반으로 수출확대와 무역진흥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무역협회의 주요 회원사는 수출입을 하는 무역업체들이 있으며, 현재 무역업체 대다수가 협회에 가입하여 각종 무역 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회원사 수는 창립 초기 105개사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약 7만 4,000 여 개의 무역업체들이 협회와 함께 하고 있다.(20.5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무역 현장 지원 서울사무소 및 전국 13개 지역본부를 통한 수출입 기업 실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애로 건의, 무역실무 상담 - 무역현장 자문 서비스 - 통번역 지원, FTA 컨설팅 	해외시장 개척 지원 바이어-셀러 매칭, 수출상담 주선을 통한 국제 비즈니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전시회/ 국가관(지자체관) 참가 지원 -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주요 역할	
무역정보 제공 및 전자상거래 지원 수출입 활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및 B2B/B2C 온라인 플랫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TA.net - tradeKorea - TradeNAV - Korea24 	무역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 수행 심도있는 연구를 통한 우리 무역의 방향성 제시 및 정책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시장/ 최신동향 무역연구서 발간 - 민간 통상협력 활동 - 무역동계 작성

2

회원지원 프로그램 현황

가. 회원 혜택

KITA 수출바우처 서비스

혜택소개	<p>업체별로 필요한 수출 부대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50~100만원)</p> <p>· 수출 단계별로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여 비용을 선지출한 후 90% 환급(자부담 10%) *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는 100% 청산 가능</p>																			
세부내용	<p>(1) 수출준비</p> <p>① 외국어 통·번역 이용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무역협회 통번역서비스 센터에서만 이용 가능 · 이용가능 언어 : 영어, 미얀마, 중국어, 불어, 독일어 등 18개 언어 · 서비스 범위 : (번역) 무역서신, 수출계약서, 채증 기밀로그 등 (통역) 전시회, 공장방문, 국제전화 등 · 바우처 지원금 협회 직접 청산, 나머지 업체부담금만 별도 청산 <p>② 외국어 카탈로그·홈페이지·홍보동영상 제작비</p> <p>③ 수출상품 광고비</p> <p>④ 무역아카데미 On/Off-line 강의 수강료</p> <p>(2) 시장개척</p> <p>⑤ 해외시장조사 바이어 발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이용기관 : KCOMPASS, KOREA, EC21 <p>⑥ 해외바이어 신용조사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이용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다앤비 <p>⑦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 이용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이용기관 : Alibaba, EC21, KCOMPASS, Amazon, eBay · 이외 이용 희망 시 사전협의 필수 <p>⑧ 코엑스 주차비</p> <p>(3) 바이어 발굴</p> <p>⑨ 수출 운송비 ⑩ 관세사 수출 통관수수료</p>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은 지정 이용기관에서만 청산 가능</p>																			
	<p>· 연차별 바우처 지원 한도</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로얄 (회원가입 21년차 이상)</th> <th>골드 (회원가입 11~20년차)</th> <th>실버 (회원가입 1~10년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지원사양</td> <td>① 기본</td> <td>90 만원</td> <td>70 만원</td> <td>50 만원</td> </tr> <tr> <td>② 추가</td> <td>10 만원</td> <td>10 만원</td> <td>10 만원</td> </tr> <tr> <td>지원한도 (①+②)</td> <td>100 만원</td> <td>80 만원</td> <td>60 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로얄 (회원가입 21년차 이상)	골드 (회원가입 11~20년차)	실버 (회원가입 1~10년차)	지원사양	① 기본	90 만원	70 만원	50 만원	② 추가	10 만원	10 만원	10 만원	지원한도 (①+②)	100 만원	80 만원
구분	로얄 (회원가입 21년차 이상)	골드 (회원가입 11~20년차)	실버 (회원가입 1~10년차)																	
지원사양	① 기본	90 만원	70 만원	50 만원																
	② 추가	10 만원	10 만원	10 만원																
	지원한도 (①+②)	100 만원	80 만원	60 만원																

	* KITA 멤버십카드를 발급한 기업에 한해 ※ 10만원 추가 지원
신청절차	① (회원사) 예산 배정 신청(온라인) → ② (무역협회) 예산배정 → ③ (회원사) 서비스 이용 후 비용 지체 감영 → ④ (회원사) 정산 신청 및 증명제출(온라인) → ⑤ (무역협회) 정산금 지급
이용안내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 포털 : membership.kita.net

KITA 무역진흥자금 융자 추천

핵심소개	수출마케팅과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에 대줄			
신청자격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			
자금용도	① 수출마케팅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수출상담회 참가, 바이어 초청/영문, 해외 특하/규격인증 획득, 해외 홍보/시장조사 등 ② 수출이행에 필요한 원자재(국내, 해외) 혹은 원재료(국내) 구매			
세부내용	- 융자기간 : 3년2년 거치 후 年 4회 균등 분할상환			
	회원등급	로얄 (기업 21년차 이상)	골드 (기업 11~20년차)	실버 (기업 1~10년차)
	융자금리	2.50%	2.25%	2.00%
	융자한도	2억원	2.5억원	3억원
신청절차	① (회원사) 융자추천 신청(온라인) → ② (무역협회) 추천업체 선정 → ③ (회원사) 은행에 추천서 제출 및 융자심사 → ④ (무역협회) 심사 통과 시 은행에 자금 전달 → ⑤ (은행 회원사에) 대출 실행 * 융자 신청 전 주거/연말 이신분도에 대한 사전 확인 권장 ※ 신청가능 은행 : 기업,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씨티, SC제일,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이용안내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 포털 : membership.kita.net			

수출단체보험료 지원

목적소개	무역보험공사 수출단체보험(중소중견플러스, 수출안전망) 가입시 보험료 지원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플러스 : 전년도 수출실적 3,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 · 수출안전망 : 전년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하인 기업 		
세부내용	· 수출보험 2종 중 선택하여 가입		
	구분	중소중견플러스	수출안전망
	연간 보상한도	5만 달러	2만 달러
	보험료	200달러	20달러
지원액	모임(21년이상)	100%(전액 지원)	100%(전액 지원)
	골드(11-20년)		
	실버(10년이하)	80%(업체 부담금 4만원)	
신청절차	① (회원사) 수출단체보험 신청오라인 → ② (회원사) 자부담금 입금 → ③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청약 → ④ (무역보험공사) 심사 및 결과안내 → ⑤ (무역협회) 탈락업체 자부담금 환급		
이용안내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 포털 : membership.kita.net		

무역아카데미 교육 수강료 할인

목적소개	무역 실무 단기교육 수강 시 수강료 20% 할인	
세부내용	분야	개설 강좌
	무역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실무기초 단기숙성 과정 - 무역 심의대경선신청, 운송/통관 관세환급, 수출입 리스크 관리 등 - FTA 원산지관리, 사후검증 과정 - 전문가 과정(화장품/ 의류섬유/ 식품 / 기계 / 자동차 부품 등) - 창업과정
	무역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 전략 & 실무 과정 (브랜드 마케팅, 수출마케팅 실습, 비즈니스 협정, 환위험관리 등) -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해외진출전략 과정 - 비즈니스 외국어 과정
이용안내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 tradecampus.com	

트레이드벤처플라자 입주

해당스케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서울 삼성동) 2층에 마련된 사무공간에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														
신청자격	사업자등록번호 발급일 또는 협회 회원 가입일로부터 3년 미만 경과한 회사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공간 현황 <table border="1"> <thead> <tr> <th>장소</th> <th>구분</th> <th>개수</th> <th>면적(㎡)</th> <th>월 이용료(면, 부가세 별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트레이드 타워(2층)</td> <td>1인실</td> <td>13</td> <td>4.95~7.59</td> <td>148,500~227,700</td> </tr> <tr> <td>2인실</td> <td>4</td> <td>7.92~10.56</td> <td>273,200~364,30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기간 : 1년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심사 후 최대 1년 연장 가능) · 비용 : 12개월 이용료 및 관리운영예치금(선납) · 제공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 사무기기 및 인터넷 무료 이용 가능 - 업무보조 서비스(우편물 수취, 내방객 안내 등) · 모집방법 : 공개 경쟁 및 심사를 통한 입주사 선정 · 모집시기 :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 	장소	구분	개수	면적(㎡)	월 이용료(면, 부가세 별도)	트레이드 타워(2층)	1인실	13	4.95~7.59	148,500~227,700	2인실	4	7.92~10.56	273,200~364,300
	장소	구분	개수	면적(㎡)	월 이용료(면, 부가세 별도)										
트레이드 타워(2층)	1인실	13	4.95~7.59	148,500~227,700											
	2인실	4	7.92~10.56	273,200~364,300											
이용안내	한국무역협회 입주지원 포털 : membership.kita.net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 참석

해당스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회원유료 가입 후, 매월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초청하는 조찬회에 참석하여 강연 청취 · 경제·인문사회·과학 등 분야별 경영지식 습득 및 참석 기업 대표 간 네트워킹 가능 · 강연 참석 시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호텔의 조찬 식사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 장소는 변동 가능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찬회 연회원에 가입한 회사 대표 및 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찬회 연회원제는 무역협회의 회원제와 별도로 운영되며, 협회 회비 납입사만 가입 가능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매월 중·하순경 07:20 ~ 09:00 (年 10회, 8월/12월 제외)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조찬회 회원 구분</th> <th>비용</th> <th>대상인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연회원 (10회 참석)</td> <td>개인회원</td> <td>20만원</td> <td>1명</td> </tr> <tr> <td>법인회원</td> <td>50만원 100만원</td> <td>3명 7명</td> </tr> <tr> <td rowspan="3">1회 참석</td> <td>협회 회원사</td> <td>10만원</td> <td>1명</td> </tr> <tr> <td>협회 비회원사</td> <td>20만원</td> <td>1명</td> </tr> <tr> <td>협회 신규회원사*</td> <td>무료</td> <td>2명</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회 신규회원은 가입 연도에 한해 1회 무료참석 가능 · 조찬회 연회비 중도환불 불가 	조찬회 회원 구분		비용	대상인원	연회원 (10회 참석)	개인회원	20만원	1명	법인회원	50만원 100만원	3명 7명	1회 참석	협회 회원사	10만원	1명	협회 비회원사	20만원	1명	협회 신규회원사*	무료	2명
	조찬회 회원 구분		비용	대상인원																		
연회원 (10회 참석)	개인회원	20만원	1명																			
	법인회원	50만원 100만원	3명 7명																			
1회 참석	협회 회원사	10만원	1명																			
	협회 비회원사	20만원	1명																			
	협회 신규회원사*	무료	2명																			
이용안내	한국무역협회 입주지원 포털 : membership.kita.net																					

비즈니스센터 이용

혜택소개	무악센터 트레이드타워(서울 삼성동) 내 위치한 회의실을 무료로 이용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트레이드타워 지하 1층 3 코엑스 1층 - 이용시간 : 09:00~18:00 (월~금, 공휴일 제외) - 이용시설 		
	구분	이용범위	
	회의실 (10개)	트레이드타워 (지하 1층)	2인실 1개, 4인실 2개, 6인실 1개, 8인실 1개
		코엑스 (1층)	4인실 4개, 8인실 1개
구분	이용범위		
사무기기	PC인터넷 포함, 복사기, FAX, 화상회의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전예약 또는 현장신청 (단, 온라인 사전예약자 우선 이용) 		
이용안내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 포털 : membership.kita.net		

KITA 멤버십카드 이용 (신용/체크카드)

혜택소개	연간 사용실적에 따른 회비 대비 혜택이 있는 회원사 전용 법인카드 (신용/체크, 연회비 없음)
------	--

구분	현대카드 (VISA/Master/Unionpay)	BC기업은행 (BCVISA/Master)	KB국민카드 (VISA/Master)	하나카드 (VISA/Master)
공동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엑스를 주자할인연간 15회, 1일 1시간 * 현대카드 추후 도입 예정 - 인천공항 ↔ 한국도심공항 리무진 요금 2,000원 할인 - 인터컨티넨탈호텔(그랜드/코엑스) 객실 10%, 레스토랑 식음료 15% 할인 - 코엑스 주차/주관 전시회 무료입장 			
포인트 적립	신용 0.2%, 체크 0.4%	신용 0.2%	신용 0.1%	Master 0.2%, Visa 0.1%
무역협회 회비지원	연간 실적 전인원부터 차등 지원	연간 실적 3천만원 중속 시 잔액 지원	연간 실적 전인원부터 차등 지원	연간 실적 3천만원 중속 시 잔액 지원
호텔	-	호텔예약 최대 10% 할인	해외호텔 7-8% 할인	국내 특급호텔 객실, F&B 할인

렌트카/항공	카세어플 달카 5% 할인	Hertz 최대 10% 할인	국제선 항공권 5% 할인	Hertz, AVS 렌트카/항공권 할인
안전공항 라운지	주 3회 (미타나, 스카이하브)	-	주 2회 (미타나, 스카이하브 등)	VISA - 무료(PP카드), Master - 주 2회(아시아)
발렛파킹	주 3회 (호텔·안전공항)	-	-	주 3회 (호텔·안전공항)
여행자 보험	최대 8억원	최대 3억원	최대 1억원 * 항공여행자보험 결제시	최대 6.5억원(MSA)
기타 혜택	- 해외부가가치세 환급 서비스 - 법인카드영수증 무증빙 경비처리 도입비연계 (1,500만원)	- 현대오일뱅크 리 타달 25원 할인 - 공항 운송서비스 (ZIMZOM) 25% 할인	- 세무정보 지원서비스 (부가세 환급지원, 전자세금계산서, 가맹점 휴/폐업 조회 등)	- 동화연세형, 위커할연세점 최대 15% 할인

* 카드사별 이용혜택은 추후 변경가능

혜택소개	① (회원사) 온라인 신청 → ② (무역협회) 카드사에 신청서 전달 → ③ (제휴 금융기관) 전화상담 → ④ (회원사) 제휴 금융기관 방문하여 서류제출 → ⑤ (제휴 금융기관) KITA 멤버십카드 발급
이용안내	- 온라인 :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포털(membership.kita.net) - 전화 신한카드 (1544-7000) IBK기업은행(1566-2506) KB국민카드(1588-1688) 하나카드(1800-1111)

KITA 회원 할인서비스

혜택소개	수출 부대비용 절감을 위한 무역 관련 서비스 제휴 할인
------	--------------------------------

유형	제휴업체	할인혜택
국제특송	FedEx 코리아	전세계 배송비 최대 60% 할인
	DHL 코리아	전세계 배송비 최대 60% 할인

	우체국 EMS	전세계 배송비 최대 33% 할인
	셀리노트(Shipd)	① 중국, 동남아로부터 소량화물 수입 시 예상운송 기본료 15% 할인 ② 국내창고 보관료 7일 무료
	수령 익스프레스	중국 배송비 20% 할인
통번역	중앙통번역센터	번역비 30% 할인
	팬트랜스넷	번역비 30% 할인
	에버트란	번역비 최대 30% 할인
	플리트	번역비 최대 15% 할인
	한글과컴퓨터	인공지능 통번역기 30% 할인(지니톡 G2)
출장 (항공·호텔·보험·로잉)	더라운지멤버스	전세계 공항라운지 이용료 30% 할인
	호텔패스	호텔예약 최대 77% 할인
	현대해상	해외출장·여행보험료 20% 할인
	레드캡투어	항공권 최대 20% 할인
	이와이드모바일	휴대용 와이파이 단말기·와이파이도스팩 임대료 20% 할인
	신라스테이	전국 11개 지점 숙박비 60~75% 할인
	롯데시티호텔 / L7 호텔	전국 8개 지정 숙박비 일일 최저가 대비 20% 추가 할인
IT환경	다우데이터	비즈니스용 소프트웨어 최대 20% 할인
	한국무역정보통신 (KTNET)	정보보안 서비스(모인1번지) 10% 할인 범용공인인증서 발급비용 50% 할인
특허	특허법인 이봉리온	국내 대리인수수료 20% 이상 할인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국내 대리인수수료 20% 할인

법률상담	로앤굿	① 변호사 수임료 10% 할인 ② 4가지 법률서비스 무료 제공 * 고문변호사 매칭 / 근로계약서 검토 / 8개 분야 법률리스크 검진 / 법인 주소변경 등기
무역 대금회수	나이스 신용정보	① 해외미수채권 회수서비스 접수비 최대 87% 할인 ② 성공보수 수수료 최대 20% 할인
해외기업 조사	나이스 다엔비	① 국제사업자등록증 발급수수료 최대 20% 할인 ② 해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20% 할인
	나이스 평가정보	해외기업 실시간 신용분석보고서 (글로벌 키스라인) 20% 할인
금융수수료 우대	하나은행	① 해외 송금환율 최대 90% 우대 ② 보증서 담보대출 시 보증료 최대 80% 지원
	KB국민은행	각종 금융수수료 최대 80% 할인 및 면제 * 신용정통지, 수출한어음매입, 신용장개설 등
CEO 전용	SEPI CEO	① SEPI CEO/FFRO 2개월 무료수강 ② 연회비 20% 할인
직원복지	코엑스 아쿠아리움	회원사 임직원 입장료 30% 현상할인
	효당상조	회원사 임직원 상조서비스 30% 할인

* 최신 제휴현황은 홈페이지 참조

이용절차	① (회원사) 온라인 신청 → ② (제휴사) 회원사 상담(전화, e-mail) → ③ (회원사) 제휴 할인 서비스 선택 및 이용
이용안내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 포털 : membership.kita.net

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

서비스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무역협회 해외지부에서 1:1 타겟마케팅 후 발굴된 관심 바이어에 대한 정보 제공 ※ 관심바이어는 제품 특성 및 현지시장규모 등에 따라 발굴이 어려울 수 있음
서비스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대상 : 회원사 중 tradeKorea.com 기업회원 신청조건 : 1회 신청 당 3개 지역/年 최대 3회 신청지역 :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전 국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 서비스 대상 지역은 변동될 수 있음
신청절차	<p>① (회원사) 트레이드코리아 영문페이지 회원 가입 → ② (회원사) 영문 상품 등록 → ③ (회원사) 트레이드코리아 국문페이지 접속 → ④ (회원사) 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 선택 → ⑤ (무역협회) 해외바이어 발굴 결과 안내</p>

My Trade - 맞춤형 무역정보 서비스

서비스개	우리 회사 수출입 정보에 대한 분석 서비스 및 맞춤형 무역정보 제공
서비스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회사 수출입 실적을 품목/국가별로 조회 가능 상담·컨설팅/ABTC 카드 발급 등 협회 서비스 신청 현황 확인 가능 국내총생산(GDP), 인구, 산업도, 수입규모, 점유율 통계정보에 기반한 종합 유망시장 추천 관심 시장별 세관/규제, 전시회, 해외오피 정보 등 제공 검색 품목과 관련된 국내 수출 유관기관 지원사업, 교육정보, 멘토링 서비스 등 맞춤 추천서비스 제공
이용안내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kta.net) → 메인화면 내 추천서비스 아이콘 클릭

나. 무역상담

TradeSOS 무역실무 상담

서비스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실무 분야별로 국내 최고 전문가와 실시간 전화 및 온라인 상담 가능 · 무역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실시간으로 질의응답 · 수출입 절차, 관세율, 계약체결, 대금결제, 해외인증 등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전문 답변 제공 			
상담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레이드 콜센터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 membership.kita.net ※ 방문상담 가능 			
세부 상담분야	구분	상담요일	상담시간	컨설턴트
	수출입절차/신용장/대금결제	월-금	09:00-18:00	전문 상담역
	통관/관세환급/HS분류	월-금		관세사
	무역분쟁 대응	월		국내 변호사
	국제계약/클레임	화-목		국제 변호사
	세무/회계	수		공인회계사
	위험/판리스크	목		위험 전문가
	해외규격/인증	월-금		인증 전문가
	전자상거래	목		글로벌 파워셀러
	인사/노무	온라인		공인노무사

TradeSOS 무역현장 자문서비스

서비스 소개	수출 30년 경력의 무역현장 자문위원이 기업을 방문하여 무료 1:1 컨설팅 제공	
상담안내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 : membership.kita.net	
세부 상담분야	해외마케팅	· 해외시장 진출전략, 해외거래선(바이어) 발굴, 바이어 상담 등 해외시장 진출 관련 전반적으로 상담
	무역실무	· 무역서식 및 계약서 작성·검수 · 운송/보험/통관, 대금회수, 무역 클레임 상담 · 무역실무 현장교육
	무역지원제도 안내	· 무역금융, 환원동보형, 신용조사 등 · 무역유관기관의 각종 지원제도
	경영자문	· 경영컨설팅(재무, 인사, 회계, 경영전략 등) · 비즈니스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무역애로의 상담 및 해결

TradeSOS 무역 애로사항 건의

서비스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유관기관 협의 및 대정부 건의를 통하여 해결 지원 • 접수, 검토, 처리결과, 완료 등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애로건의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레이드 플랜터 1596-5114 •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포털 membership.kita.net ※ 방문상담 가능 															
이용절차	<table border="1"> <tr><th>1단계</th></tr> <tr><td>애로 접수</td></tr> <tr><td>온라인, 플랜터, 간담회 등을 통한 무역 현장 애로 접수</td></tr> </table>	1단계	애로 접수	온라인, 플랜터, 간담회 등을 통한 무역 현장 애로 접수	<table border="1"> <tr><th>2단계</th></tr> <tr><td>(무역협회 애로 검토)</td></tr> <tr><td>사실관계 확인 및 해결방안 검토</td></tr> </table>	2단계	(무역협회 애로 검토)	사실관계 확인 및 해결방안 검토	<table border="1"> <tr><th>3단계</th></tr> <tr><td>(무역협회) 조치 및 애로해소</td></tr> <tr><td>협회 자체해결, 유관기관 협의, 대정부 건의 등 실시</td></tr> </table>	3단계	(무역협회) 조치 및 애로해소	협회 자체해결, 유관기관 협의, 대정부 건의 등 실시	<table border="1"> <tr><th>4단계</th></tr> <tr><td>(무역협회) 결과 공유</td></tr> <tr><td>건의 기업/기관에 처리결과 통보 및 건의내용 공유</td></tr> </table>	4단계	(무역협회) 결과 공유	건의 기업/기관에 처리결과 통보 및 건의내용 공유
1단계																
애로 접수																
온라인, 플랜터, 간담회 등을 통한 무역 현장 애로 접수																
2단계																
(무역협회 애로 검토)																
사실관계 확인 및 해결방안 검토																
3단계																
(무역협회) 조치 및 애로해소																
협회 자체해결, 유관기관 협의, 대정부 건의 등 실시																
4단계																
(무역협회) 결과 공유																
건의 기업/기관에 처리결과 통보 및 건의내용 공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서비스 소개	수출 경력 30년 이상의 무역현장 자문위원이 집중 멘토링과 현장 컨설팅을 통해 수출 달성까지 밀착지원
지원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거래선 발굴, 수출 계약, 이행 등 수출에 필요한 제반 실무 • KOTRA, 법무부, 서울세관,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 • 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10만 달러 미만인 기업
이용절차	① 참가신청 → ② (무역협회)서류접수 → ③ (무역협회)현장방문 → ④ (무역협회)결과안내
이용안내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kita.net

FTA 원산지관리·비관세장벽(해외인증, 지재권) 컨설팅 및 정보제공 서비스

서비스 소개	(FTA 원산지관리) 관세율, 원산지기준 등 FTA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및 교육 (비관세장벽) 해외인증과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 및 컨설팅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80 · 온라인 : FTA종합지원센터 okfta.kita.net · 내방 : 트레이드타워 3층 FTA종합지원센터 (서울 삼성동) 												
지원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style="width: 30%;">분야</th> <th style="width: 70%;">세부 지원사항</th> </tr> </table>		분야	세부 지원사항									
	분야	세부 지원사항											
	FTA 원산지 관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20%;">방문 컨설팅</td> <td style="width: 80%;">· 1380을 통한 전화 상담만으로 FTA관련 애로 해소가 곤란한 경우, FTA종합지원센터 및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전문가가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컨설팅 제공</td> </tr> <tr> <td>FTA 교육</td> <td>· 품목분류, 원산지관리, 사후경증 대응 등 FTA 활용 관련 교육 개최</td> </tr> <tr> <td>중국 특화</td> <td>· 대중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일 범위에서 FTA 활용실무(품목분류, 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 등) 및 중국인증, 지식재산권, FTA 시스템 분야 맞춤형 컨설팅 제공</td> </tr> <tr> <td>FTA 정보 제공</td> <td>· 협정명 · 품목별 수출 및 수입 관세율, 원산지기준 등 정보제공 · FTA 협정도, 연구 · 조사자료, 정책자료, 최신뉴스 등 정보제공</td> </tr> </table>	방문 컨설팅	· 1380을 통한 전화 상담만으로 FTA관련 애로 해소가 곤란한 경우, FTA종합지원센터 및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전문가가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컨설팅 제공	FTA 교육	· 품목분류, 원산지관리, 사후경증 대응 등 FTA 활용 관련 교육 개최	중국 특화	· 대중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일 범위에서 FTA 활용실무(품목분류, 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 등) 및 중국인증, 지식재산권, FTA 시스템 분야 맞춤형 컨설팅 제공	FTA 정보 제공	· 협정명 · 품목별 수출 및 수입 관세율, 원산지기준 등 정보제공 · FTA 협정도, 연구 · 조사자료, 정책자료, 최신뉴스 등 정보제공			
		방문 컨설팅	· 1380을 통한 전화 상담만으로 FTA관련 애로 해소가 곤란한 경우, FTA종합지원센터 및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전문가가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컨설팅 제공										
		FTA 교육	· 품목분류, 원산지관리, 사후경증 대응 등 FTA 활용 관련 교육 개최										
		중국 특화	· 대중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일 범위에서 FTA 활용실무(품목분류, 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 등) 및 중국인증, 지식재산권, FTA 시스템 분야 맞춤형 컨설팅 제공										
	FTA 정보 제공	· 협정명 · 품목별 수출 및 수입 관세율, 원산지기준 등 정보제공 · FTA 협정도, 연구 · 조사자료, 정책자료, 최신뉴스 등 정보제공											
	비관세 장벽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20%;">해외 인증</td> <td style="width: 80%;">· 해외인증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해외인증 관련 기초/최신 정보, 인증 취득을 위한 세부절차 및 신청서류 작성 관련 컨설팅 제공 · 컨설팅 분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50%;">해외인증 기초교육</td> <td style="width: 50%;">인증 취득절차 세부안내</td> </tr> <tr> <td>신청 문서 작성 지원</td> <td>해외 기술기준/표준 상담</td> </tr> </table> </td> </tr> <tr> <td>지재권</td> <td>· 변리사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지재권 관련 기초/최신 정보, 지식재산 권리화 및 지재권 침해 이슈 대응 방안에 관한 컨설팅 제공 · 컨설팅 분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50%;">지재권 관련 기초 교육</td> <td style="width: 50%;">지적재산 권리화 방안</td> </tr> <tr> <td>지재권 보호 및 리스크 관리</td> <td>지재권 침해 대응 솔루션 제공</td> </tr> </table> </td> </tr> </table>	해외 인증	· 해외인증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해외인증 관련 기초/최신 정보, 인증 취득을 위한 세부절차 및 신청서류 작성 관련 컨설팅 제공 · 컨설팅 분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50%;">해외인증 기초교육</td> <td style="width: 50%;">인증 취득절차 세부안내</td> </tr> <tr> <td>신청 문서 작성 지원</td> <td>해외 기술기준/표준 상담</td> </tr> </table>	해외인증 기초교육	인증 취득절차 세부안내	신청 문서 작성 지원	해외 기술기준/표준 상담	지재권	· 변리사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지재권 관련 기초/최신 정보, 지식재산 권리화 및 지재권 침해 이슈 대응 방안에 관한 컨설팅 제공 · 컨설팅 분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50%;">지재권 관련 기초 교육</td> <td style="width: 50%;">지적재산 권리화 방안</td> </tr> <tr> <td>지재권 보호 및 리스크 관리</td> <td>지재권 침해 대응 솔루션 제공</td> </tr> </table>	지재권 관련 기초 교육	지적재산 권리화 방안	지재권 보호 및 리스크 관리
해외 인증		· 해외인증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해외인증 관련 기초/최신 정보, 인증 취득을 위한 세부절차 및 신청서류 작성 관련 컨설팅 제공 · 컨설팅 분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50%;">해외인증 기초교육</td> <td style="width: 50%;">인증 취득절차 세부안내</td> </tr> <tr> <td>신청 문서 작성 지원</td> <td>해외 기술기준/표준 상담</td> </tr> </table>	해외인증 기초교육	인증 취득절차 세부안내	신청 문서 작성 지원	해외 기술기준/표준 상담							
해외인증 기초교육	인증 취득절차 세부안내												
신청 문서 작성 지원	해외 기술기준/표준 상담												
지재권	· 변리사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지재권 관련 기초/최신 정보, 지식재산 권리화 및 지재권 침해 이슈 대응 방안에 관한 컨설팅 제공 · 컨설팅 분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50%;">지재권 관련 기초 교육</td> <td style="width: 50%;">지적재산 권리화 방안</td> </tr> <tr> <td>지재권 보호 및 리스크 관리</td> <td>지재권 침해 대응 솔루션 제공</td> </tr> </table>	지재권 관련 기초 교육	지적재산 권리화 방안	지재권 보호 및 리스크 관리	지재권 침해 대응 솔루션 제공								
지재권 관련 기초 교육	지적재산 권리화 방안												
지재권 보호 및 리스크 관리	지재권 침해 대응 솔루션 제공												

수출입 운송비 할인 및 컨설팅 서비스

서비스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협회 물류 협력업체를 통한 물류비 할인 • 수출입 물류 관련 모든 상담 제공 										
지원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76 442 562 491">구분</th> <th data-bbox="562 442 1233 491">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76 491 562 589">물류비 할인</td> <td data-bbox="562 491 1233 5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협회 협력업체 이용 시 운대요금 적용 (포워딩, 3자물류, 내륙운송) • 운임 및 각종 물류요금 견적 서비스 </td> </tr> <tr> <td data-bbox="376 589 562 658">전화/이메일 상담</td> <td data-bbox="562 589 1233 6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비 책정성 검토 및 물류예외 상담 </td> </tr> <tr> <td data-bbox="376 658 562 883">방문컨설팅</td> <td data-bbox="562 658 1233 8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수출입 물류 컨설팅 제공 <p>(주요 컨설팅 분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출입 물류 체계 진단 및 효율화 2) 수출입 운송비 절감 3) 전반적인 수출입 물류 절차 4) 징고 이용 효율화 및 부대비용 절감 </td> </tr> <tr> <td data-bbox="376 883 562 932">수출입물류 정보</td> <td data-bbox="562 883 1233 9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항공 시장운임 정보 (매월 시장참고가격 공개) </td> </tr> </tbody> </table>	구분	세부내용	물류비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협회 협력업체 이용 시 운대요금 적용 (포워딩, 3자물류, 내륙운송) • 운임 및 각종 물류요금 견적 서비스 	전화/이메일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비 책정성 검토 및 물류예외 상담 	방문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수출입 물류 컨설팅 제공 <p>(주요 컨설팅 분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출입 물류 체계 진단 및 효율화 2) 수출입 운송비 절감 3) 전반적인 수출입 물류 절차 4) 징고 이용 효율화 및 부대비용 절감 	수출입물류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항공 시장운임 정보 (매월 시장참고가격 공개)
구분	세부내용										
물류비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협회 협력업체 이용 시 운대요금 적용 (포워딩, 3자물류, 내륙운송) • 운임 및 각종 물류요금 견적 서비스 										
전화/이메일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비 책정성 검토 및 물류예외 상담 										
방문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수출입 물류 컨설팅 제공 <p>(주요 컨설팅 분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출입 물류 체계 진단 및 효율화 2) 수출입 운송비 절감 3) 전반적인 수출입 물류 절차 4) 징고 이용 효율화 및 부대비용 절감 										
수출입물류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항공 시장운임 정보 (매월 시장참고가격 공개) 										
이용안내	한국무역협회 물류포털 : shippersgate.kita.net										

다. 해외시장 개척

해외마케팅 지원

서비스 소개	구분	지원사항
	KITA 해외바이어 초청 화상수출상담회	코로나 19로 해외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바이어를 초청하여 1:1 온라인 화상상담회를 개최 생반기 격주 개최, 하반기 코로나 상황에 따라 탄력운영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매칭 수출상담회	전문무역상사와 제조기업의 1:1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매칭 상담을 앞선하여 수출 전문기업으로 하여금 노하우가 부족한 우수 제조기업의 수출대행을 지원
	국내 전문 전시회 개최 및 연계 마케팅 지원	국내 전문전시회 개최를 통해 해당 업계의 국내외 마케팅 및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이와 연계한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을 통해 거래선 확보를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망 수출기업들의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신규 바이어 발굴, 기존 바이어 관리, 제품 홍보 현지 시장 트렌드 파악, 국내외 동종산업 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
* 전시회상담회 일정은 연중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일정은 아래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 기업 지원

서비스 소개	구분	지원사항
	Fortune 500 Connect	· 해외 대/중견기업과 국내 스타트업 간 연결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국내외 복합쇼핑몰 테스트베드 사업	· 국내외 복합쇼핑몰에서 스타트업의 제품/솔루션에 대한 시연 및 테스트 지원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 해외진출 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에게 최대 3,00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원
국내 대/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 국내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1:1 비즈니스 상담 지원	
이용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kita.net)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openbranch.com) 스타트업브랜치(startupbranch.kita.net)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exportvoucher.com) 	

tradeKorea - 국내 최대 온라인 B2B e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年평균 1500만명 방문 및 25,000건의 인콰이어리 접수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매칭 지원 • tradeKorea 가입 후, tradeKorea만의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 상품 무료 홍보 가능 																
신청지역	tradeKorea 기업회원 * 개인회원은 일부 서비스만 이용가능																
세부내용	국내 tradeKorea 회원 전용 무료 수출지원 서비스(kr.tradeKorea.com)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82 619 708 674">분야</th> <th data-bbox="708 619 1222 674">세부 지원사항</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82 674 708 785">바이어DB 타겟마케팅</td> <td data-bbox="708 674 1222 785">무역협회 보유 185만 개 바이어DB 접속하여 직권 희망국가/품목의 바이어 검색 후 거래제 인쇄C/나 발송</td> </tr> <tr> <td data-bbox="382 785 708 897">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 (회원사 전용)</td> <td data-bbox="708 785 1222 897">미국, 중국, 일본 등 주력시장 맞춤형 바이어 발굴 지원</td> </tr> <tr> <td data-bbox="382 897 708 981">영문 홈페이지 제작</td> <td data-bbox="708 897 1222 981">tradeKorea 도메인활동 미니사이트 무료 제작 지원</td> </tr> <tr> <td data-bbox="382 981 708 1066">해외바이어 구매오피</td> <td data-bbox="708 981 1222 1066">해외바이어 소장정보를 공개하여 매칭 희망 국내 기업 공개모집</td> </tr> <tr> <td data-bbox="382 1066 708 1150">빅바이어 상시거래합선</td> <td data-bbox="708 1066 1222 1150">매월 3개 글로벌 유통 빅바이어 소싱지원 (IKEA, Watsons 등)</td> </tr> <tr> <td data-bbox="382 1150 708 1234">샘플 소액결제 서비스</td> <td data-bbox="708 1150 1222 1234">샘플 주문 간편 결제 지원</td> </tr> <tr> <td data-bbox="382 1234 708 1338">외환수수료 우대서비스</td> <td data-bbox="708 1234 1222 1338">수출입 계약 및 내국신용장 외환결제시 하나은행 외환수수료 할인</td> </tr> </tbody> </table>	분야	세부 지원사항	바이어DB 타겟마케팅	무역협회 보유 185만 개 바이어DB 접속하여 직권 희망국가/품목의 바이어 검색 후 거래제 인쇄C/나 발송	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 (회원사 전용)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력시장 맞춤형 바이어 발굴 지원	영문 홈페이지 제작	tradeKorea 도메인활동 미니사이트 무료 제작 지원	해외바이어 구매오피	해외바이어 소장정보를 공개하여 매칭 희망 국내 기업 공개모집	빅바이어 상시거래합선	매월 3개 글로벌 유통 빅바이어 소싱지원 (IKEA, Watsons 등)	샘플 소액결제 서비스	샘플 주문 간편 결제 지원	외환수수료 우대서비스	수출입 계약 및 내국신용장 외환결제시 하나은행 외환수수료 할인
	분야	세부 지원사항															
	바이어DB 타겟마케팅	무역협회 보유 185만 개 바이어DB 접속하여 직권 희망국가/품목의 바이어 검색 후 거래제 인쇄C/나 발송															
	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 (회원사 전용)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력시장 맞춤형 바이어 발굴 지원															
	영문 홈페이지 제작	tradeKorea 도메인활동 미니사이트 무료 제작 지원															
	해외바이어 구매오피	해외바이어 소장정보를 공개하여 매칭 희망 국내 기업 공개모집															
	빅바이어 상시거래합선	매월 3개 글로벌 유통 빅바이어 소싱지원 (IKEA, Watsons 등)															
샘플 소액결제 서비스	샘플 주문 간편 결제 지원																
외환수수료 우대서비스	수출입 계약 및 내국신용장 외환결제시 하나은행 외환수수료 할인																
서비스 신청	www.tradeKorea.com																

Kmail24 - 한류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 콘텐츠 홍보(다국어 지원) · 간편 회원가입, 해외PC 결제수단 적용 등 해외 판매 최적화 														
신청지역	· Kmail24 입점가입 회원 (Kmail24.co.kr 에서 입점신청)														
세부내용	<p>(사이트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입점비, 운영 수수료 등의 비용 없음 (단 해외로가기 등 유지비용은 추가에 필요) · 중소기업 상품 콘텐츠 온라인 매거진 형태로 홍보 · 간편 회원가입 및 해외결제로 해외 고객 대상 판매 최적화 <p>(주요 지원사항)</p>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상품판매 지원</td> <td>해외판매 전용 셀러 독점몰 개설 (입점/판매 수수료 없음)</td> </tr> <tr> <td>콘텐츠 제작 지원</td> <td>숏비디오, SNS 콘텐츠, 홍보기사 등 제작</td> </tr> <tr> <td>온라인마케팅 지원</td> <td>SNS 광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리빙 바이럴 마케팅, 이벤트·프로모션 참여 등</td> </tr> <tr> <td>물류 지원</td> <td>국내 집하지 활용 해외배송 및 선입고FF&O 지원 등</td> </tr> <tr> <td>기타 운영 지원</td> <td>B2B 인콰이어리 수신, 고객문의 응대지원(CS) 등</td> </tr> <tr> <td>교육 지원</td> <td>분기별 온라인마케팅 웨비나 개최</td> </tr> </tbody> </table>	분야	세부내용	상품판매 지원	해외판매 전용 셀러 독점몰 개설 (입점/판매 수수료 없음)	콘텐츠 제작 지원	숏비디오, SNS 콘텐츠, 홍보기사 등 제작	온라인마케팅 지원	SNS 광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리빙 바이럴 마케팅, 이벤트·프로모션 참여 등	물류 지원	국내 집하지 활용 해외배송 및 선입고FF&O 지원 등	기타 운영 지원	B2B 인콰이어리 수신, 고객문의 응대지원(CS) 등	교육 지원	분기별 온라인마케팅 웨비나 개최
분야	세부내용														
상품판매 지원	해외판매 전용 셀러 독점몰 개설 (입점/판매 수수료 없음)														
콘텐츠 제작 지원	숏비디오, SNS 콘텐츠, 홍보기사 등 제작														
온라인마케팅 지원	SNS 광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리빙 바이럴 마케팅, 이벤트·프로모션 참여 등														
물류 지원	국내 집하지 활용 해외배송 및 선입고FF&O 지원 등														
기타 운영 지원	B2B 인콰이어리 수신, 고객문의 응대지원(CS) 등														
교육 지원	분기별 온라인마케팅 웨비나 개최														
서비스 신청	kmail24.co.kr														

라. 무역정보

국제 무역/통상정보 제공

서비스 소개	· 무역과 관련된 각종 연구 보고서 발간	
	주요 서비스	보고서 예시
	국내외 무역현안/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 관련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 정보 제공 · 중동 불만이 국제유가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 미중 무역분쟁의 수출 영향
	수출입 동향 분석/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수출입 동향에 대한 현황 정보 제공 · 2020년 1/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 2019년 수출입 평가 및 2020년 전망
유망 수출산업/시장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수출이 유망한 산업 및 국가에 대한 정보 제공 · 세계로 뻗어가는 차이나머니, 도전과 기회 · 신남방지역 무역 및 서비스분야 진출 방안 · 감치 (유망품목 시리모트) 	
서비스 소개	· 통상 정보 제공, 현안 분석 및 컨설팅 실시	
	주요 서비스	세부내용
	통상리포트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통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련 보고서 발간 · 미국 철강 일부마냥 파생 제품에 대한 232조 조치 확대 · 영국 조기홍선 결과 및 향후 브렉시트 논의 전망 · 기업의 통상전략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통상전략 2020
	뉴스레터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로빙·차류·학술지 및 위신 정보 선별 후 정리하여 제공
	교육·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교육과정 개설 운영 - 통상 실무 공무원 과정, 수출기업 통상실무, CEO 대상교육 ○ 중소기업에 위한 맞춤형 통상·산업 통합전략 컨설팅 제공
수입규제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수입규제(반덤핑, 심계관세, 세이프가드) 정보 제공 ○ 전문가 그룹(회계, 법률)과의 연계를 통한 심화 컨설팅 제공 ○ 수입규제 관련 종합 대책 마련 및 안관 공동대응을 위한 수입규제협의회 사무국 운영 	
이용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kita.net)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it.kita.net) 	

K-stat - 글로벌 무역통계 서비스

서비스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61개국 수출입 통계를 품목별, 국가별로 다양하게 분석하여 제공하는 무역 통계 데이터베이스 - 한국, 북한 및 중국·미국·일본·EU28개국·호주·캐나다·아세안·중남미 등 총 61개국 무역통계 DB 보유 - 세계무역통계, 해외무용소재통계 등 주제별 무역통계 DB 보유 - 순위통계, 매트릭스통계 등 맞춤 분석할 통계정보 제공
이용안내	<p>stat.kita.ne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무역통계의 품목별·국가별 통계 등 일부 서비스는 회원사에게만 제공

온/오프라인 무역 자료 이용

서비스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TA 전자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협회 및 유관기관 발간자료를 전자책(eBook) 형태로 무료 제공 - 정보자료실(회원사 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 관련 4만여 권의 온/오프라인 자료에 대한 무료 열람 제공
이용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 한국무역협회 전자도서관 (ebook.kita.net) - 방문 : 트레이드타워 6층 603호(서울 삼성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예약 필수(문의 : 02-6000-5109) * 운영시간 : 14:00-16:00(월-금, 공휴일 제외)

마. 무역교육 및 인력매칭

무역실무 단기 교육과정

과정소개	· 무역실무 분야별로 온/오프라인 실무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분야	세부 교육과정
	기초무역실무	장규무역실무, 신입사원 무역실무, 무역실무기초 단기특성, 초스피드 무역스타트업 등
	무역실무심화	신용장, 운송/통관, 수출입리스크관리, 관세환급 등
	마케팅·외환	브랜드 마케팅, 수출마케팅 실습, 비즈니스 협상, 환위험관리 등
	비즈니스 외국어	영문 이메일 작성기법
	FTA	FTA종합무역실무, FTA편인지역리, FTA시후검증 대응전략 등
	주력산업 전문가과정	화장품/의류섬유/기계부품/자동차부품 수출 전문가 양성과정
해외시장 진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해외시장진출 전략과정 등	
* 협회 해외 판남사의 경우 단기 교육과정 수강료 20% 할인		
수강연내	·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trade-campus.com) · 무역아카데미 e러닝(cyber-trade-campus.com)	

무역 자격시험

시험소개	· 국제무역사 1급/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무역 업무에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무역 지식을 검증 - 특전 : 주요 무역상사, 금융기관 등 인사고과 가점 부여, 무역협회 주관사업 모집, 선발 시 가점부여 등 - 일정 : 1급 연 2회(2월, 8월), 2급 연 1회(9월) 실시
시험연내	· 외환관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기업의 환위험관리 및 파생금융상품 실무전문가 양성 - 취득방법 : 외환관리사 자격 취득과정(5시간) 이수 후, 과목별 평가시험 최종 합격 시 자격증 수여 - 일정 : 연 3회(3월, 5월, 10월) 실시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 trade-campus.com

무역 인력양성 및 구인/구직자 매칭

과정소개	· 분야별로 특화된 무역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취업	프로그램명	세부 교육과정	
	취업연계	국내	무역마스터 과정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한 글로벌 무역 전문인력 양성
		해외	SMART Cloud IT마스터 과정	ICT 지식 및 외국어 교육을 통한 글로벌 IT 인재 양성
KITA 일본취업학교 과정			일본취업 맞춤형 교육 및 장래성을 통한 일본전문가 양성	
실무역량		일본취업 스텝업 과정	일본채용박람회 연계 단기 일본취업 집중교육 과정	
		글로벌무역인턴십	무역 실무 및 글로벌 감각을 갖춘 청년무역전문가 양성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GTEP)	산·학·관 연계 교육을 통한 맞춤형 무역 전문인력 양성	
		무역캠프 (대학생·특성학교)	실제 무역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특화 체험 프로그램	
신청안내	· 수출기업 구인/구직자 매칭을 통한 무역인력 취업 지원			
	사업명	주요 지원사항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인기업·구직자 지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 취업포털잡투게더 운영 - 각종 취업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제공 		
해외 일자리 지원사업(K-Move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취업 구인·구직을 앞선하는 해외취업 지원센터 (K-Move센터) 운영 - 중국, 일본, 베트남 등 국가별 채용공고 검색 지원 - 국가별 취업정보 제공 및 화상연결 지원 			
·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tradecampus.com) 잡투게더(jobtogether.net)				

글로벌물류 최고경영자 과정(GLMP)

* Global Logistics Management Program for CEO

과정 소개	인하대학교 유통전문대학원과 공동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물류전문 최고경영자 과정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 혁신/투자/경영전략 및 정책 트렌드 강의, 국내/해외 연수, 부부동반 특강, 총동창회 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 물류분야 전문가와 고위 공무원, 언론인, 문화계 인사를 총망라하는 1,200여 명 원우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과정안내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tradecampus.com)

바. 수출입 실적 증명 및 활용

수출입실적증명서 발급

서비스 소개	다양한 형태의 수출입에 대한 실적증명서를 24시간 온라인 발급	
발급 대상	구분	실적인정 대상
	수출입실적증명서	· 물품의 착수출/착수입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세물 수출입실적증명서	· 용역 : 경영 상담업,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연차나 어플 서비스업,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운수업, 문화사업, 관광사업 등 · 전자적 형태의 무세물 : 소프트웨어, 영상물, 음성물, 전자서적 등
외국인 외화영수부 국내수출자 공급 물품 수출실적	· 외국인으로부터 대금물 영수하고 물품 등을 외국으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 보세구역 내의 지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발급안내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포털(membership.kita.net)	

무역업고유번호 발급

서비스 소개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무역업고유번호 부여 * 근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4장 제24조	
신청요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 무역협회 회원가입 시 무역업고유번호 자동 부여	
필요서류	온라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파일첨부)
	방문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본은 원본대조됨 남인) 내정자 신분증 사본, 채직증명서 또는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kita.net) · [회원/업무지원]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 참조 · 방문 : 트레이드타워 1층 회원서비스센터(서울 삼성동) 및 국내지역본부 	

무역분야 추천서 - 해외지사 설치인증/ 외국인 비자발급 추천

서비스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입제의 해외 영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해외지사 설치 인증 추천 외국인력 채용을 위한 외국인 비자 발급 추천 무역업체가 해외바이어 초청 시 외국인 비자 발급 추천
발급 대상	<p>공통 조건 : 무역업고유번호를 보유한 업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수출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인 업체 10만 달러 이상의 취소불능신용장 수취 또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업체 해외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수출실적 유무, 수출경험, 수출매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 비자(사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력 채용 시) 연간 수출실적이 10만달러 이상인 업체 * 대상 외국인 : 무역관련 전공(경제, 국제통상, 경영학 포함) 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또는 국내외에서 1년 이상 무역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해외바이어 초청 시) 연간 수출실적이 50만 달러 이상인 업체
발급안내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포털(memberShip.kita.net)

기타 증명서 발급

서비스 소개	회원사 또는 임의 사업에 참여한 자에게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	
발급 대상	구분	발급 증명서
	회원/회비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협회 회원증 발급(국/영문) 회비납부영수증(입금표) 발급
	무역아카데미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과정 수료증 온라인(WTC) 수료증 자격증(국제무역사, 외환관리사) * 2003년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온라인 발급 가능
기타 확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은행 외환수수료 무대확인증 수출의 담 수심확인증 	
발급안내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포털(memberShip.kita.net)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서비스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PEC 회원국 중 APEC 가입 19개국 방문 시 별도의 비자 없이 신속하게 출입할 수 있는 카드 발급 가입국 공항 내 전용 수속라인(Fast Track) 이용
발급 대상	<p>기업자적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수출입실적 또는 해외 직접투자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해외건설업연허를 보유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기업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등 <p>개인자적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국적이며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심층 목적으로 비번하게 왕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간 APEC 회원국 4회 이상 방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출국 금지 또는 범죄경력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발급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무역협회 ABTC업무포털 (http://abtc.kita.net)

APEC 19개 회원국

 브루나이	 미얀마	 말레이시아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호주	 태국	 필리핀
 뉴질랜드	 대만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국
 베트남	 러시아	 대한민국	 라오스	 캐나다

비회원국 (Non-member)

 북마리아나	 세인트키츠네비스
---	--

* 입국 시 별도의 비자가 필요하며, 공항에서 전용 수속라인(Fast Track)만 이용가능

신청절차	<p>서류제출(신청기업) 서류 검토 및 추천무역협회 발급심사(범무부) 국가별 승인(APEC 19개국) 카드발급 신청(신청기업) 카드발급(무역협회)</p>
발급 수수료	정당 3만원
카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5년
신청안내	한국무역협회 ABTC업무포털 (abtc.kita.net)

사. 우수 무역기업 시상

무역의 날 수출의 탑 및 수출유공자 포상

시상 소개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기여한 업체 및 수출유공자를 선정하여 시상	
시상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의 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상 대상 : 연간 각 탑 해당금액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업체 실적산정 기간 : 전년도 7월 1일 - 당해연도 6월 30일 종류 : 백만 불/천만 불/억 불 등 총 44종 	
	구분	종류
	백만 불대(4종)	1, 3, 5, 7백만불
천만 불대(5종)	1, 2, 3, 5, 7천만불	
억 불대(30종)	1~9억불(9종), 10~99억불(9종), 100~900억불(매 50억불 단위, 17종)	
시상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유공자 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상 대상 : 수출업체 대표자 및 임직원 등 종류 : 산업훈장, 산업포장, 표창(대통령/국무총리/산업부장관/무역협회장) 	
	신청기간	7월 중순 - 8월 중순(예정)
	신청안내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포털(membership.kita.net)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시상

시상 소개	신기술 및 미디어로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한 우수 수출기업을 선정하여 시상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신문 공동 주관
시상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상 대상 : 무역업체 CEO 시상 주기 : 매월 1명(8월, 12월 제외) 신청 기준 : 연간 수출실적 500만 불 이상 달성한 업체 중 수출증가율, 사회공헌 활동 등 공적사항을 고려
신청안내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kita.net) 공지사항 참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온라인 무역협회 서비스

1) 글로벌 비즈니스 포털 KITA.net

주요 서비스

- 무역뉴스, 연구보고서, 무역실무매뉴얼 등 각종 무역홍성정보 조회
- 해외무역 통계, 해외부품소재 통계, 맞춤형석 통계 등 무역통계 조회
- 협회 사업, 공지사항, 국내외 지역본부 등 협회 관련 소식 조회

이용안내

- PC버전 : 국문 서비스 kita.net / 영문 서비스 kita.org
- 모바일 앱 : Smart KITA (IOS, Android 지원)

2) 회원 업무 종합안내 업무지원포털

주요 서비스

- 무역 애로사항 건의, 무역실무 상담 등 각종 전문상담/컨설팅 이용
- 수출입실적, 회원/외비, 아카데미 등 각종 증명서 발급
- 협회 지원사업 및 회원 전용 시설/서비스 이용 신청

이용안내

-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포털 membership.kita.net

3) 국가무역 정보포털 TradeNAVI

주요 서비스

- 최신 관세율/무역규제 정보 조회, 무역정보 안내지도 이용
- 키워드/HS코드/국가/업종별 무역정보 통합검색 이용
- 특정 국가/업종 관련 무역 보고서 조회

이용안내

- TradeNAVI 통합무역정보서비스 tradefnavi.or.kr

4) 글로벌 무역통계 서비스 K-stat

주요 서비스

- 세계 81개국 수출입 통계를 품목별/국가별로 조회
- 세계무역통계, 해외부품소재통계 등 주제별 무역통계 조회
- 순위통계, 매트릭스통계 등 맞춤 분석형 통계 이용
 - * 해외무역통계의 품목별/국가별 통계 등 일부 서비스는 회원사 전용으로 제공

이용안내

- K-stat stat.kita.net

나. 수출입 단계별 제공 서비스

① 무역정보 수집	② 수출 준비	③ 상품 홍보 및 바이어 발굴
해외 시장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TA.n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 TradeNAV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신 해외 시장정보 - 국제 무역 통상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tat * 글로벌 무역통계 서비스 기업 맞춤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y Tra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회사 수출입 정보 조회 및 유망시장 추천 무역실무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하게 세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 수출입요령 * 무역협회 홈페이지(kita.n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통상정보 참고 	무역 실무교육 및 인력 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이무재미 교육 수강료 할인 - 무역인력 양성 및 구인/구직자 매칭 수출입 부대비용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TA수출바우처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번역, 홍보물 제작 등 - KITA 멤버십카드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류 법인카드 - KITA 회원 할인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특송, 해외출장, 인증 등 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TA 무역진흥자금 융자 추천 - 수출단체보험료 지원 	해외시장 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 - 해외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화상등해 무역부대비용 등 온라인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de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B2B 마켓플레이스 - Kmail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온라인 쇼핑몰

④ 계약 체결 및 수출

수출입 상담/건의

- TradeSOC 무역실무상담
- TradeSOC 무역 애로사항 건의

▶ 수출입 컨설팅

- TradeSOC 무역현장 자금 서비스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FTA / 통관 활용 컨설팅

⑤ 수출입 실적 활용

증명서 발급

- 수출입 실적증명서

편의서비스 추천

- 무역알고유번호 발급
- 무역분야 추천서 발급
 - * 해외지사 설치인증 추천
 - * 외국인 비자(사증) 발급
- APFC 기업인 여행카드 (ABTC) 발급

우수 무역기업 시상

- 무역의 날 수출의탑 및 수출 유공자 표창
- 한국인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시상

제22장

한국생산성본부

1

일반현황

한국생산성본부는 우리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 32조에 의거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건설병 사업, 교육훈련사업, 지수사업, 조사연구사업, 자동화·정보화 등 생산성향상을 위한 기법의 개발 및 보급사업, 생산성향상을 위한 정부위탁사업, 아시아생산성기구(APC)와 관련되는 정부업무의 대행, 공장자동화·사무자동화·공장관리합리화·물류합리화에 관한 연구·건설병·교육훈련·기술개발 및 설비의 책임감리, 국가공인 정보기술자격증 발급, 정보시스템 감리 및 평가 등 정보화 진흥사업, 생산성향상 전문요원 양성 및 자격증발급 사업, 생산성향상 및 경영합리화에 관한 시정각교재, 정기 간행물, 도서 등의 제작·발간 및 각종 정보자료의 개발 보급, 생산성향상과 관련된 기술조사 및 연구용역, 중소기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도상담·교육사업, 생산성회원제도의 운영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홍보사업 및 전문요원 양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11본부(단·소), 33센터·팀, 4지역본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에 소재하며, 경기도 이천의 연수원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다년간에 걸쳐 우리 산업 현장 및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생산성경영체제 보급과 산업혁신운동, 대·중소기업간의 생산성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래지향적 건설병 방법론 제시와 고품질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산업 체질 강화와 새로운 생산성 제고 요구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국가생산성 향상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ESG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솔루션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컨설팅/교육/자격 부문에서도 지속적으로 신규 모델과 방법론을 개발하고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업 및 인력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생산성향상 사업

1) 국가 생산성대상, 생산성 향상 유공자 시상

한국생산성본부는 1962년 생산성상을 제정하여 경영의 발전과 생산성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업을 표창하고 있다. 국가생산성대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 산업계에 요구되는 이슈들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소개하여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혁신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산업계의 인식제고 및 근로자의 참여 도모를 이끌어 냈고 동시에 측정된 경영, 평가된 경영, 체계화된 경영 기법을 보급·전파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생산성향상의 강력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범국가적 생산성 의식의 확산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국가생산성대상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산업동상자원부장관표창을 포상하고 기업 및 소속단체에서 생산성향상 운동과 경영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그 성과가 탁월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경영자 및 임직원을 추천받아 생산성 향상 유공자로 선정·포상하고 있다.

표 N-22-1-1 | 생산성 향상 유공자 시상 현황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생산성대상·유공자 포상사·명	81	77	85

2) 생산성관련 조사·연구 및 경영생산성모델 개발

한국생산성본부는 경제정책 수립 및 기업의 경영전략, 임금정책의 기초가 되는 노동생산성통계와 상장기업의 노동생산성분석 등을 분기별로 편제·발표하여 생산 효율화, 기술투자, 성과배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케 하고 있으며, 외국선진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재구성·보급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서비스업 지역별 노동생산성, 서비스업 기업규모별·업종별 노동생산성, 제조업 지역별 노동생산성, 기업단위 노동생산성 장기 시계열 DB 구축 등 5종에 대하여 2020년부터 네트워크 생산성 연구를 새롭게 실시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초 데이터 구축에 힘쓰고 있다.

표 N-22-1-2 | 생산성 통계 방간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생산성 통계 방간종	6	11	12

3) 생산성경영체제(PMS) 인증

한국생산성본부는 생산성경영체제(PMS : 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 등급 인증제도의 보급을 통하여 중소기업 경영시스템의 생산성 혁신역량 수준을 진단·인증하고 맞춤형 컨설팅/교육을 통해 생산성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PMS인증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개발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동 노력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는 이상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사원과 역량수준을 감안, 생산성 향상에 핵심적인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에 집중하여 진단함으로써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표 N-22-1-3 | 생산성경영체제 보급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PMS보급·확산 기업사	195	202	145

4) 대중소기업 생산성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

한국생산성본부는 대중소기업 생산성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대기업이 핵심파트너로 육성할 1·2·3차 협력사에 대해 경영·제조현장·기술 등 업체적 현장진단, 혁신환경 조성, 제조혁신방법 제공, 기술기반 구축, 교육훈련 등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생산성향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22개 컨소시엄, 232개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네트워크 생산성향상 활동에 이바지하고 있다.

5) 산업혁신운동 지원사업

한국생산성본부는 2013년부터 자발적인 동반성장의 기치아래 현장진단 및 컨설팅을 통한 참여 중소기업의 생산성혁신활동을 관리·지원하고 있으며 한국형제조혁신 방법론(KPS)모델을 제공함과 더불어 인력지원 등 산업혁신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산업혁신운동은 2019년부터 2단계(5차년) 사업을 새로 시작하였으며, 2단계 2차년(7차년)에 한국생산성본부는 101개 기업을 지원하여, 참여기업들의 낭비제거와 원가 절감, 품질개선 및 임직원의 혁신의식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산업생태계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6) 상생형스마트공장 보급·확산

한국생산성본부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협력하여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및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020년에는 8개 컨소시엄, 132개 기업에 대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7) 일터혁신 지원사업

한국생산성본부는 우리 중소기업 근로조건 향상과 중소기업 경쟁력 극대화를 위하여 다년간에 걸쳐 임금·평가체계 개선, 노사협력, 작업환경 및 근로 조건 개선, 고용안정 등 일터혁신건설당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터혁신건설당을 통해 2020년 한해 216개 기업에게 470개 건설당 영역을 지원함으로써 노사파트너십 기반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나. 컨설팅 사업

한국생산성본부는 1958년 현대적 경영의 불모지였던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영컨설팅을 시작한 이래 선진이론을 도입·정착시켜왔고, 인사·조직, 전략, 성과측정 등에 대해 전략수립에서 관리시스템 설계에 이르기까지 산업별, 기능별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글로벌 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새로운 ESG, 지속가능경영 패러다임에 적합한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하고 ESG 세부 주제별 심도 깊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에 ESG, 지속가능경영 추진기반 구축 솔루션을 보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신력을 바탕으로 객관성이 요구되는 공공분야 컨설팅을 비롯 제조 현장 합리화, 품질관리, 에너지효율화 컨설팅에서 나아가 데이터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업특성과 최신 경영 트렌드에 적합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정책 및 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산업정책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등 정책연구컨설팅도 수행하고 있으며, CS전략수립, CS측정모델구축, CS경영시스템 구축 등의 고객만족 컨설팅과 기업 및 제품 브랜드 전략, 브랜드체계 전략 수립 등의 브랜드 컨설팅도 수행하고 있다.

표 N-22-1-4 | 컨설팅 지원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컨설팅지원건	941	3,121	3,394

다. 교육훈련 사업

한국생산성본부는 기업 경쟁력의 원천인 인력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인적 자원의 고급화,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다. 새로운 이론과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고객들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파악하여 개인 맞춤형 학습과정을 제시, 도입하고 지속적인 교육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품질 향상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편 경영관리, 생산품질, 정보화 등 직무직능분야별로 특특성 다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모집교육과 기업의 요구에 맞추어 관리능력 및 조직개발 등 주요 테마별 주문식 교육인 수탁교육, 인터넷, 우편통신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인 스마트러닝 교육 등의 과정을 두어 교육하고 있다.

표 N-22-1-5 | 교육 및 훈련실적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공개/수탁교육(회)	6,077	5,514	4,070
스마트러닝교육(명)	29,681	21,602	23,561

라. 아시아생산성기구(APO) 협력 사업

생산성향상을 통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개발을 목표로 아시아생산성기구(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 APO)와 상호협력사업을 통해 각국의 생산성관련 정보 및 인적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이를 국내 중소기업 등에 보급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APO 회원국간의 경험 및 정보를 상호교류하기 위해서 매년 수차례의 APO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 사례를 회원국에게 전파할 수 있는 인바운드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표 N-22-1-6 / 세미나 개최실적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국내 주관 APO 프로그램(개)	4	3	4

마. 정보기술자격검정 사업

기업종사자 및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정보처리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국가 공인 정보기술자격인증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정보활용능력을 제고하여 기업의 정보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시대적 흐름과 기업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자격, SW코딩자격, 데이터사이언티스트 인증 등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서비스업 및 개인의 정보화 생산성 향상이라는 정책과제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표 N-22-1-7 / 정보기술자격인증 실적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ITC 등 자격인원명	1,069,874	1,148,743	991,110

제23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

일반현황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생산기술 분야의 산업원천 기술개발 및 실용화,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지원 및 성과확산 등을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9년 국가에서 설립한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이다.

그림 43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요 연혁



3대 중점 연구영역(청정·융합·뿌리)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지역분산형 기술 지원 및 지식기반 기술 지원 체제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등 관련 산업계 협력 지원과 기술사업화 역할을 수행하고 주요 임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기술 정책 수립 지원한다.

그림 44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요역할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기관 R&R 연계 생산기술 R&D 및 실용화 지원 서비스 제공

1)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을 통한 기업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고유의 기업혁신성장 사다리 체제(초기탄탄 → 성장도약 → 혁신성장)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및 핵심기술 상용화를 집중지원 하고 있다. 더불어, 해외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현지진출기업 대상 예도기술 해결 및 신규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2) 생산기술 기반 중소·중견기업의 제조혁신 지원

제조공정 기반 지능화 기술 노하우를 제조현장에 적용하여 핵심기술화 하고, 주요 산업별 지능제조 플랫폼 대표 성공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제조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온도, 습도, 압력, 전류, 전압, 유량 등)를 활용하여 제조공정을 지능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조공정의 개선 및 최적화를 지원하고 있다.

3) 지역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 지원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7개 본부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산업과 관련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 지원하고 있다. 지역 특화산업별 첨단 핵심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성공사례가 산업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그림 45 | 지역분부를 활용한 지역 미래특화산업 육성 지원



나. 제조 중소기업·중견기업 혁신성장 지원 강화

1) IP-R&D 연계 운영체계 고도화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성과 제고

IP-KNavi* 전략을 통해 우수IP 창출 → 관리 → 활용(사업화)으로 이어지는 IP-R&D 프로세스 체계를 고도화하고, 사업화 성공률(특허출원 대비 기술이전 비율)을 높여 실제 사업화로 연계되는 질적 성과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IP-KNavi (Intellectual Property KITECH Navigator) : R&D 전 과정에 단계별·목적별로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제공하여, 빠르게 최적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IP 창출·관리·활용 전략

2) R&D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업지원 활동을 2가지 유형으로 나눠, 일반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수요 맞춤형 범용성 현장지원을 실시하고, 유망 중소기업(핵심 파트너기업) 대상으로는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표 N-23-1-1 |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	지원 세부내용	지원
일반 중소·중견 기업	지역 수요기반 현장일착형 지원	○지역특화센터 및 개방형실현실 기반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 ○연구장비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및 시험분석 ○기술자문 및 기술정보제공 ○수요 대응형 단기 예로기술 지원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범용성 지원
핵심 파트너기업	지역 특화산업 연계 R&D지원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핵심기술에 대한 개발 지원 ○기업현장 진단을 통한 R&D·사업화 지원 ○중장기 기술컨설팅, 특허분석, 타 기관 연계 기술 매칭 등	유망 중소기업 대상 집중지원

3) 아세안 해외사무소의 신남방 핵심거점화를 통한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해외사무소(베트남, 인도네시아) 기능 강화를 통해, 신남방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해외 진출한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공정혁신, 예로기술 해결을 지원하고 신규 진출 예정인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공동연구, 기술교육,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 정부 정책 연계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체계 개선

1) 정부정책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부서 개편 및 관련 기능 강화

글로벌 탄소중립 전환 트렌드에 맞춰,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산하 부서* 개편(21.1.)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탈탄소 신산업 육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저탄소 전환 등을 추진하여 정부 환경정책에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다.

* 청정기반기획실 → 기획평가조정실, 자원순환기술정책실 → 순환경제실, 환경규제대응실 → 탄소중립실

2) 제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중소·중견기업들의 적응 지원

제조업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기 위해 기존 '스마트제조 혁신전략단'을 '디지털전환추진단'으로 개편(20. 8.)하여 기관 차원의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 제조공정에 데이터분석, 인공지능, IoT 등 IT시스템을 결합하여 공정효율 개선

라.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1) 파트너기업 육성 지원

연구원과 공동연구, 기술지원 등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생기원 - 파트너 기업」으로 자칭하여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지원하고 있다.

표 N-23-1-2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파트너기업 운영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신규기업	271	292	245	
전체기업	3,780	3,829	4,028	

그림 48 | 파트너기업 선정절차 및 내용



2) 중소기업테크컨택센터 운영

중소기업 기술애로 집수를 위한 중소기업지원 전용 상담창구인 “중소기업 테크컨택센터”를 구축하여 온-오프라인으로 기업생산현장의 문제를 상담하고 효율적으로 찾아주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림 47 | 중소기업테크컨택센터 지원 절차



표 N-23-1-3 | 맞춤형 기술지도/상담 지원 실적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기술지도 수	4,016	5,383	9,088	
기술상담 수	662	1,045	1,651	

3) 공동R&D지원

지역 중소기업과의 커뮤니티채널(파트너기업 교류회, 중소기업테크컨택센터, 중소기업 해피플릭 등)을 통해 접수된 기업 기술 수요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과의 공동 R&D, 기업 매칭 R&D 등을 수행하고,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시까지 박사급 연구원이 전담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표 N-23-1-4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R&D지원 사업 현황

구분	내용
파트너기업 수요대응 생산기술 지원사업	파트너기업의 현장메로기술을 흡수받아 생기원 인력 및 장비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단기 집중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기술적 문제 해결을 통한 기술역량 강화
Go Together Program 사업	파트너기업, 대기업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기술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하고 전략적 R&D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
기업주문형 R&D 사업	기술사업화 가능한 기업 맞춤형 수요기술을 조사하고, 생기원 연구체 임자와의 매칭을 통한 상용화 R&D 발굴·지원 * “생기원 보유 원천기술”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스펙으로 최적화하여 생산적 용 가능기술로 제공

표 N-23-1-5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요기술 현황

지역	인천	경기	충청	서남	대전	충남	강원	울산	전북	제주
주요 기술	부리 산업 기술	융합 생산 기술, 지능형 로봇 섬유	생산 시스템, 그린 공정 소재	동력 부품, 공관련 기반 기술	극한 제조 기술, 건설 기계 부품	해양 플랜트 기자재, 지능형 정밀 기계 부품	비철 금속 기반 소재 공정	제조 현장 ACE화, 기후 변화 대응 기술	농기계 특화 기술, 친환경 융합 공정	천연생태 자원 가공

· 광역경제권 지역본부 내에 특화보유기술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그림 48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역조직 및 기술분야 현황



4) 인력지원

가)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사업

기업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핵심 애로사항인 고급인력 부족문제 완화를 위해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장기(3년 이상) 파견하여 핵심R&D 인력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IV-23-1-6 | 공공연 연구인력 지원 실적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비고
지원인력수명	47	41	34	
지원기업 수	47	41	34	

나) 기업현장출장 지원

파트너기업 등 중소·중견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지원 책임자가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지원 및 자문수행을 통해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 기업현장출장 지원 기준

- 기술커뮤니티 참여기업, 파트너기업, 연구원과 과제수행(예정)기업, 연구책임자 개별관리 중소·중견기업 등(대기업은 지원 제외)
- 중소기업테크리넥터 및 기업지원전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요(애로)기술이 접수되어 기술성당 후 현장 자문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그림 40 | 기업현장출장 지원절차 및 내용



표 N-23-1-7 | 기업현장출장 지원 실적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지원 건 수	1,193	1,316	1,294	
지원기업 수	384	398	229	

5) 중소기업 전용 연구시설(Rental Lab.) 지원

중소·중견기업에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 연구공간 입주 및 연구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한 근접지원으로 기업의 생산성 및 기술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표 N-23-1-8 | 중소기업 전용 연구시설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입주기업 수	9	20	27	· 기술 및 공동연구개발 지원 · 연구공간 및 연구인프라 (장비, 시설 등) 활용지원

6) 장비 활용 지원(개방형 실험실)

연구원 보유 장비를 지역본부 47개 개방형 실험실에 배치하여 연구장비 등의 기반 시설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게 개방함으로써 장비의 효율적 이용과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표 N-23-1-9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개방형 실험실 현황(47개)

지역본부	개방형 실험실
뿌리기술연구소 (12)	재료물성분석/재로시험 공용실험실, 주철기술지원 공정실험실, 화학분석 공용실험실, 뿌리기술분석평가 공용실험실, 도금기술지원 공정실험실, 디지털제조기술지원 공정실험실, 소재·표면분석 공용실험실, 열처리기술지원 공정실험실, 용접접합기술지원 공정실험실, 정밀금형기술지원 공정실험실, 한국최소금속산업기술센터 공용실험실, 소성가공기술지원 공정실험실
융합기술연구소 (7)	유해물질 화학분석 공용실험실, 정밀측정 공용실험실, 산업용성유 공정실험실, 섬유소재 공정실험실, 의료기술지원 공정실험실, 패키징기술센터 공정실험실, 기능성 광응답소재 공용실험실
정정기술연구소 (4)	에너지설비성능인증 공인실험실, 스마트자동화 공정실험실, 음향진동 공용실험실, 자분형침청소재 공용실험실

지역본부	개방형실험실
서남본부 (5)	조정일 측정 및 재료물성분석 공용실험실, 나노기술집적 공정실험실, 에너지환경(FAH) 공용실험실, 정밀 금형TRYOUT 공정실험실, 정밀모터시험 분석 공용실험실
동남본부 (6)	융합플래티넘 공용실험실, 플랜에너지 공용실험실, 주철기술지원 공용실험실, 첨단하이브리드 공용실험실, 초정밀가공 공용실험실, 전주부리기술지원센터 공용실험실
대경본부 (7)	바이오메디칼기술센터 공용실험실, 성형기술/첨단장비지원 공용실험실, 시스템설계기술지원 공용실험실, 건설기계부품시험평가지원 공용실험실, 고령구조기술지원 공용실험실, 항공부품 환경시험평가 공용실험실, 전자파(EMC) 공용실험실
강원본부 (1)	비철금속 공용실험실
울산본부 (2)	친환경청정기술 공용실험실, 울산부리기술지원 공용실험실
전북본부 (3)	농기계신뢰성 시험연구센터 공용실험실, 탄소경량소재 공장실험실, 김제부리기술지원 공용실험실

표 N-23-1-10 | 개방형실험실 장비활용 실적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기술지원 (장비활용)	시험/검사/분석	45,067	43,589	41,384
	시착물제작지원 등	18,737	11,972	17,402
	소 계전	63,804	55,561	58,676

7)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시장수요에 기반한 생산기술의 산업화·실용화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기술 개발 지원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IP 시스템 고도화(온라인 IP 마켓 구축 등), R&BD 관련 사업 확대(예산 증액) 등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기관 비활용(휴먼)특허 중 활용가능성이 있는 특허를 선별하여 연구원 파트너기업 등 중소·중견기업에 소개 이전하여 기술이전에 따른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표 N-23-1-11 | 기술이전 실적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이전건수	240	232	255

8) 파트너기업 기술커뮤니티 지원

기술분야별, 지역별, 업종별 유사기술·산업중심의 산·학·연간 기술커뮤니티 구성을 통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보유기술 및 노하우의 확산 저점을 마련하고, R&D성과공유, 기술수요발굴, 기술협력, 정보공유 등의 활동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림 50 | 파트너기업 기술커뮤니티 지원



표 N-23-1-12 | 기술커뮤니티 운영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기술커뮤니티 구성	31	32	31	
참여기업 수	451	454	440	

제24장 산업연구원

1

일반현황

산업연구원은 국내의 산업·기술, 중소기업 등과 관련된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하여 정부의 경제/산업/중소기업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이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산업연구원은 그동안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우리 산업과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중점 연구 분야를 시의적절하게 변화시켜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전략인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연구조직은 중소벤처기업연구분부를 비롯하여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등 7본부 2센터의 연구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연구분부는 중소·벤처기업 정책과 관련하여 시의성 있는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조사·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중소·벤처기업 관련 연구는 창업, 벤치, 금융, 기술, 인력, 판로, 상생협력, 글로벌화, 중견기업, 소상공인 정책 등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디지털 전환 등에 중소기업이 대응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중소기업정책 분야별 주요 연구

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의 안정성장 기반 구축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전략 및 정책방안을 연구해오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9년 중소기업연구본부의 연구 인력과 기능을 확대하였다.

1)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 중소기업의 중장기 발전비전 및 세부 전략 수립, 중소기업 종합 지원체제 구축 및 정책평가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 분야의 주요 연구결과로는 중소기업 정책 및 지원체제 개선방안, 21세기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실효성 평가 등이 있다.

중소기업 정책의 발자취를 정리하고 향후 바람직한 좌표와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중소기업 발전 비전과 육성전략(도전과 혁신 도약의 길), 중소기업 지원 체제 발전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중소기업 관점에서 정부 규제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장기 성장추세 둔화 실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중소기업 성장 둔화의 원인을 규명하였다.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소기업 혁신성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추진하였다. 제조 중소기업의 기업규모별 발전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 융합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및 경쟁력 실태분석, 중소기업 성장장벽 유형과 정책과제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대한 체계적 점검과 진단·분석을 추진함으로써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실태를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 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특히 문제인 정부 출범과 함께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혁신상장이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 체제의 한계와 중소·중견기업의 신성장 동력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동안 수행한 대표적 연구로는 수요 특점적 대·중소기업 생태계에서 중소기업 혁신, 혁신성장을 위한 경쟁정책의 역할, 중소기업 공장거래 기반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역량의 정책 적용 방안, 장수 중소기업의 경영 특성 및 성과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60년사 정책사례 연구 등이 있다.

2) 혁신형기업 및 창업 정책에 관한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엔진인 벤치기업 육성과 우리 경제의 최대 이슈인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벤처·이노비즈 등 혁신형 중소기업과 창업정책에 관한 연구를 강화해오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벤치기업 실태 및 육성전략, 벤치기업 육성정책의 평가와 개선 방안,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지방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창업 환경 분석, 국내 벤처캐피털 시장의 수급구조 분석 등이 있다.

특히 창업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기업가정신 육성 및 기업친화정책을 통한 잠재성장을 제고방안, 기업가정신의 발현 실태 및 과제, 창업절차 간소화의 성과와 과제,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용성과와 정책과제, 고성장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성과 및 시사점, 일자리 창출형 가젤기업의 입지 및 성장 특성,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성과 및 정책과제, 기술창업기업의 지방 입지촉진 및 고용창출 활성화 방안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창업원의 다양화 및 창업 관련 규제완화 차원에서 여성 지식·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원스톱 온라인 창업시스템의 국제비교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여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를 내실화하고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며 일자리 창출의 핵심 원동력인 벤치기업의 제도약 가능성을 진단하고, 벤처생태계의 과거와 현재를 점검함과 아울러 벤치기업 정책의 진화과정과 공과를 살펴본 후 미래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한국벤처정책 20년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은 혁신창업 활성화에 있으며, 혁신창업은 벤처창업을 주축으로 하는 일자리 대책이라는 전체 아래 창업정책 추진실태와 효율화 방안, 창업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지역 창업 혁신 생태계 스코어보드 지표개발 및 정책제언, 스타트업 파크 조성방안 연구, 창업기업의 지속성장 역량 분석과 생존을 제고 방안,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엔젤투자 활성화 방안, 청소년 비즈를 장기발전 방안 수립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2020년에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기술에 기반한 기업발 창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스피노프 창업의 실태와 발전과제, 시니어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수행에 주력하였다.

3) 중소기업 경영인정 및 금융활성화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이 구조적·탄성적으로 겪는 금융, 인력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하게 수행해오고 있다.

금융 분야의 주요 연구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및 운영체계 개편방안, 중소기업 금융 원활화 방안, 중소기업의 소매금융 이용 활성화 방안, 신용보증제도의 운용성과 및 발전방안, 벤처캐피털산업의 구조변화와 발전과제 등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금융기관 자금 간 지원방식 차별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정책자금과 일반 금융기관 자금 간 차별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성과 향상사업 성과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중소기업 정책금융 운용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력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층인력 수급 애로요인 및 개선방안, 중소기업 고용 문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광양만권 중소기업연수원 유치 타당성 확보 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편 갈수록 중요성이 강조되는 인력 문제와 관련하여 고성과 작업제도의 활용 실태와 중소기업 인재확보 지원방안, 고급 연구 인력의 중소기업 활용과 직무발명 보상제도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정책의 성과 및 과제, 중소기업 고용 변화의 세 가지 논점과 향후 정책과제, 경력경로 연장을 통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부족 해소방안 등을 통해 중소기업 R&D 인력 및 질 좋은 인력 활용 방향을 제시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소기업 금융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 발전과제, 자금조달 유형을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 성과요인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4)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심화와 후발개도국의 빠른 추격이라는 틈바구니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과제로 부상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강화하였다.

주요 연구성과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구조 및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의 산학협력 실태 및 발전방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현황과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유형화와 정책적 시사점 등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 R&D 특성분석 및 혁신역량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중소기업의 R&D 특성과 혁신역량을 규명하고 정책대상의 합리적 설정과 함께 혁신역량별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중소기업의 R&D투자에 따른 효율성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성과 결정요인 및 시사점 연구를 통해 기술적 혁신성과와 상업적 혁신성과를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하여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KOSPIR 제도와 운영상 나타나는 과제들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R&D자금 지원과 중소기업계의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이 최근 수년간 세계 최고 대비 70% 내외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 따라 현행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측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기술수준 측정방식 개선방안,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캐널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개발기술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간 협력기술개발 활성화 및 성과제고 방안,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전략 수립, 중소기업 기술사업화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중소기업의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2020년에는 중소기업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R&D투자, 개발인력, 설비투자 간 관계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혁신투자 구조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5)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관한 연구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연구도 강화하였다.

주요 연구성과로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실태 및 강화방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조사연구 및 평가체계 구축방안 등이 있다.

특히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국제원자재 가격 및 환율 변동으로 상호 간 이해가 대립된 납품단가 문제에 대해 바람직한 접근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구매조건부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의 이론과 논리, 동반성장지수 구성요소에 관한 예비연구 등을 수행하여 동반 성장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또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 개발, 동반성장 프로그램의 성과분석 및 개편 방안, 대·중소기업 간 공급사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방안, 주요 산업별 대·중소기업 성과 및 거래구조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여 대·중소기업 간 공동 번영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대·중소기업 산업연관표의 작성과 분석, 성과공유제 확산 시행효과 분석, 동반성장지수 평가체계 개편방안, 동반성장 자율평가제 평가체계 구축 방안,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원인 분석, 대·중소기업 불균형 개선 및 상생협력 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 등 동반 성장에 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켰다.

2020년에는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서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메커니즘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 반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6) 지방화·글로벌화에 관한 연구

지방화·글로벌화 시대를 맞아 지역산업과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및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성과로는 중소·벤처기업의 중국 진출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 방안, 중소기업의 글로벌역량 강화방안,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FTA의 중소기업 과급영향 및 정책수요 조사·분석, 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추진 실태와 시사점 등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글로벌화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와 강소기업 육성방안 연구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범부처 자원의 효율적 수출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을 수행하였다.

글로벌화에 부응한 중소기업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창업 실태 및 전략적 육성방안, 뉴노멀 하의 중소기업 글로벌화 특성과 정책방향, 혁신기업의 중국 진출전략, 중국 일대일로 대응정책 등을 연구하였다.

한편,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FTA 유망품목 선정 체제 구축 및 정책과제, 혁신기업의 중국 진출 전략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새로운 글로벌 수출환경에서 기존 수출지원제도의 유효성을 점검해보고 개편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지원 효율화 방안,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구축방안,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 중소 지식서비스 기업의 수출 실태 분석 및 정책적 육성방안 등을 수행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프라인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에 중소기업이 대응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생태계 분석 및 정책과제,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7) 시의성 있는 주요 현안과제 연구

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및 디지털 전환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4차 산업혁명 등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현안을 진단하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대책에 부응하기 위해 시의성 있는 연구도 수행하였다.

우선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현안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중소기업 고용문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일자리대책 종합 평가, 중소기업 간 지식·기술융합화와 신사업창출 촉진방안, 중견기업 육성방안, 중소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의 가능성과 정책과제 등의 연구를 추진하였다.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원으로서 고부가가치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6차 산업화 정책의 추진실태와 발전과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9988에 도달하기까지의 성장과정을 평가하고 그 의미를 재해석함과 아울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도 수행하였다.

기업구조조정,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등에 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소기업의 구조조정 실태와 촉진방안, 최근 10년간 중소기업의 구조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내수기반 확충을 통한 경제구조의 역동성 강화, 한계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협력 실태와 발전과제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우리 기업이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이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과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에너지이용 효율성 제고 방안, 4차 산업혁명이 한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4차 산업혁명의 중소기업 수출영향 및 정책방향, 현장 경험을 통해 본 중소기업의 AI 발전방향 등을 연구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기 파악의 적시성 제고방안,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하여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였다.

나. 향후 추진 방향

산업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슬기롭게 대처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소상공인 및 중소벤처기업의 수용성 제고, 성장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혁신형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전략, 플랫폼 경제 시대의 공정경제 및 상생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 과제로는 빅스트 노멀 하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 구조 분석 및 정책체계 구축,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전략과 정책과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점에서 본 스마트공장의 주요 이슈와 정책과제, 중소기업의 개방혁신 실태와 정책과제, 경제위기가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이 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중소기업 대응전략 연구과제로는 주요국의 코로나19 중소기업 정책과 시사점,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 성장구조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등이 있다.

다. 국내외 주요 지원사업

1) 싱크 탱크로서의 대정부 지원업무

산업연구원은 중소·벤처기업과 업무 연계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한 토론회, 포럼, 간담회 개최를 통해 축적된 연구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정책수요가 높은 연구과제는 사전 기회에서부터 최종 결론 도출에 이르기까지 정책 관계자를 참여시켜 실천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거나 개최되는 각종 중소기업 관련 위원회 및 세미나, 공청회 등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정책의 수립 및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의견을 개진하여 정부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수행한 대표적 연구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사전조정,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전략, 중소·벤처기업의 문제와 개선대책,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현황 점검 및 과제,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대응과제, 지식재산권 기본계획 수립, 창업정책의 추진실태와 발전과제, 기업활력촉진법 상의 일정 규모 이하 중소기업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 시행계획 검토, 창업정책 관련 정책제언 등 다수가 있다.

2) 중소·벤처기업 정책 수립 관련 의견수렴

산업연구원은 중소·벤처기업에 관한 주요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중소·벤처기업 대표, 관련 조합 및 협회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책협의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거나,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심층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연구에 반영함으로써 수요자 맞춤형 중소·벤처기업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실시한 대표적인 정책협의회 또는 토론회로는 중소기업 경영성과 장기부진의 원인과 대책,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6차 산업과 정책과 창업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구조변화 실태와 정책과제, 창업정책 추진실태와 효율화 방안, 엔젤투자 촉진을 통한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 등이 있다.

3) 국내외 중소기업 유관기관과의 교류 활성화

산업연구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과의 지식 공유를 위해 상호 교류 및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연구포럼에 유관기관 및 대학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중소·벤처기업 연구를 위한 지식 기반의 확대와 함께 전문가 네트워크의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지식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추어 외국과의 교류도 활성화하고 있다. 대외경제협력 기금사업(EDCF)의 일환으로 후발 개도국의 경제 관련 정책담당자를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연수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또한 OECD, APEC, ASEM, G20 등 해외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 관련 국제회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중소·벤처기업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선진국의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국제교류·협력사업이 증대되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 사례 등에 대한 외국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중소기업 관련 연구 결과를 영문으로도 발간하고 있다.

주요 발간자료로는 Experiences of Korean SME Policies, Development and Policy Issues of SME Scope, Finance Mechanisms for the New Industry Growth,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Global SME and Policy Implications, Comparison of Technology Innovation Patterns Depending on the Innovative Capability of SME and Policy Implications, High-growth SME's Job Creation Performance and Its Implications, R&D Support Policy and Its Strategic Direction in Korea, Measures to Promote Youth Start-ups 등이 있다.

최근에는 What Factors Lead Korean SMEs to become Global Hidden Champions?, Determinan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of Korean SMEs and their Implications, Policy Considerations for SME Globalization in the Creative Economy, Status of Convergence among SMEs and Policy Implications, Status of Women Knowledge and Technology-based Start-ups and Policy Implications, The Current Status of the 6th Industrialization and Policy Tasks, The Status of SME Structural Change and Policy Tasks, The Status of SM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Policy Tasks, The Status of Start-up Policy and Tasks, Policies for revitalizing venture startups in the post-COVID-19 era 등을 발간하였다.

제25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

일반현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5,733호)」에 근거하여 과학·기술 및 관련 산업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고 정보의 관리 및 유통에 관한 기술·정책·표준화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며 연구개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국가 과학 기술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산업기술정보연구원과 연구개발정보센터가 통합되어 2011년 1월에 설립되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국가의 정보은행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산업발전 및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국내외 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 및 공동활용 체제 구축
- 지식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화 촉진과 관련 산업 육성·지원
- 정보의 통합유통체제 구축운영
- 정보의 분석·관리 및 유통에 관한 기술정책표준화 등의 연구개발 및 자문
- 국내외 과학기술 및 이와 관련된 산업 동향의 조사·분석·예측
- 과학기술 연구망 등 글로벌 첨단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관련 기술 개발지원
- 초고성능 컴퓨팅 기반 구축·운영 및 관련 기술개발·지원
- 과학기술분야 정보보안체계 구축운영 및 지원(산실 2014. 10. 21)
- 정부, 민간, 법인, 단체 등과 연구개발 협력 및 기술협력 수탁·위탁
- 지방 과학기술 진흥 및 중소·중견기업 등 관련 산업계 협력·지원과 기술시연화
- 정보관리·유통시스템 보급 및 정보인프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술정책 수립 지원
- 부대사업, 지역정보화 체제 구축·운영,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1) 과학기술정보 수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국가 R&D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분야 핵심학술지, 학술회의자료, 연구개발보고서, 특허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 16개국 46개 기관과 과학기술 정보협력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글로벌 과학기술정보의 지속적 연계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45개 유관기관과의 정보협력을 통하여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2)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구축

국내외에서 수집한 각종 과학기술 및 관련 산업기술 문헌정보를 국내 학계, 연구계, 산업계가 신속·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제작 및 구축하고 있다.

표 N-25-1-1 | KISTI 정보서비스 보유자원 현황

(기준 : 2021년 6월)

구분	보유량	비고
국내외 과학기술 논문	102,158,795건	국내외 학술지, 학술회의 수록논문, 학위논문
국내외 특허정보	38,960,494건	한국, 미국, 일본, 유럽, 국제특허
연구보고서	347,885건	국가연구개발보고서, 분석리포트
과학기술 동향	30,279건	글로벌동향브리프, 동향자식지
저널/프로시딩	392,939건	국내학회 저널, 해외 인쇄 및 전자저널, OA저널
연구자/연구기관 정보	782,346건	연구자/연구기관 정보 및 연구실적
합계	142,672,537건	

3)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kisti.re.kr)은 연구데이터⁴⁴⁾의 중요성과 가치가 증가되고 연구데이터의 공유와 융합을 통해 새로운 과학적 발견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연구데이터를 공유와 활용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44)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과정의 최종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공동관리규정 제2조 정의)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들이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연구데이터 데이터셋(유발과제, 생산자등의 메타 데이터 및 파일)을 등록하여 공유 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 검색기능을 제공하여 국내외 연구데이터에 대한 검색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국내외 연구데이터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51 |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x) 서비스 개념도



또한 클라우드 분석환경(CPU/GPU 등 계산자원 지원)을 제공하며 워크 플로우 및 CLI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커뮤니티 기능 제공을 통해 연구자들이 연구 주제별 연구데이터의 원활한 공유·활용을 지원하여 커뮤니티 기반 융합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은 국내 전문센터와 출연연, 해외 선진 연구데이터플랫폼(OpenAIRE(유럽), ARDC(호주) 등)과의 연구데이터 연계를 통해 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기반을 확보한다.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연구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표 N-25-1-2 |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주요 제공 연구데이터

(2021.06.16. 기준)

구분	내용
국내 연구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시설장비 : 거대 현미경 관측 데이터(4셋) - 인체영상 데이터(317셋), 도시환경 IoT 데이터(2셋) • NIA 인공지능 데이터(21셋) ※ 특허/법령/일반상식/이미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 조사 결과 데이터(2,421셋) • 한국표준연구원 참조표준데이터(59셋)
해외 연구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enAIRE EU 연구데이터(약 86만 셋) • ARDC 호주 연구데이터(약 10만 셋) • NII-ROOS 일본 연구데이터(약 5.8만 셋)

나. 과학기술 지식인프라 융합·연계 서비스

1) ScienceON(사이언스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ScienceON 서비스를 통해 과학기술정보, 국가R&D 정보, 연구데이터, 슈퍼컴퓨팅 자원, 정보·데이터 분석 기능 등 다양한 과학기술 지식인프라를 융합·연계하여, 연구 전주기에 필요한 KISTI의 전체 정보와 기능을 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0년 12월 현재 ScienceON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주요 과학기술 지식인프라 40종(300여 개 기능)에 대한 안내·검색·활용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52 | ScienceON 서비스 개념도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특히 R&D 활동 전주기의 연구목적별(동향조사, 기획, 실험, 평가, 사업화 등)로 차별화되어 서비스 되는 KISTI 개별 지식인프라(또는 서비스)의 핵심고객 전체를 ScienceON의 잠재 핵심고객으로 설정하여 개인 연구목적별 시나리오 기반 정보 활용, 데이터 분석, 컴퓨팅 자원 기반 실험환경을 연계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cienceON은 과학기술정보 통합 검색기능을 마련하여 국내 과학기술 연구 개발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과학기술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약 1.4억 건의 과학기술 정보 및 특허, 동향정보, 연구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표 IV-25-1-3 | ScienceON 정보 제공 유형별 서비스 내용

유형	서비스 내용
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KISTI의 학술정보 공동활용사업에 참여한 학술지/프로시딩 KESQJ에 포함되는 국내 전자저널 해외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KESQJ에 포함되는 해외 전자저널(Elsevier, Wiley, Science, Cell, IEEE 등) 국내의 대학, 연구소 기업 등 260여 기관에서 소장한 인쇄/전자저널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에서 목차정보를 구축한 저널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 저널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에서 제공하는 핵심저널 프로시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EEE 발행한 해외 프로시딩 영국국립도서관에서 구축한 해외 프로시딩
특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특허 (1948년 이후 공개/등록, 약 3백만 건 이상) 미국, 일본, 유럽 특허, WIPO 특허 (1976년 이후 공개/등록) <p style="text-align: center;">↑ ↓ 검색 - 원문입수까지 한 번에 가능</p>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R&D 연구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8년 이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으로부터 인쇄 또는 전자로 납본, 수집된 연구보고서 2009년 이후: 국가연구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보고서, 각 부처·청 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전자원문을 제공받은 연구보고서 분석리포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SEN 분석리포트 ReSEAT 분석리포트(2004~) KISTI MARKET REPORT(2011~) iCON 지식리포트

분 류	서비스 내용
저널/ 프로시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STI의 학술정보 공동활용사업에 참여한 학술지 프로시딩 - KESLI에 포함되는 국내 및 해외 전자저널 (ScienceDirect, Springer, IEEE, ACM 등) -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 500여 기관에서 소장한 인쇄/전자저널 -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에서 목차정보를 구축한 저널 -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 저널 -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에서 제공하는 핵심저널 · 프로시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STI의 학술정보 공동활용사업에 참여한 프로시딩 - IEEE 발행한 해외 프로시딩 - 영국국립도서관에서 구축한 해외 프로시딩
연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 정보 · 연구자의 논문, 특허, 보고서 연구실적
연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관 정보 · 연구기관의 논문, 특허, 보고서 연구실적

2)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는 국가R&D사업 기획에서 성과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R&D사업에 관련된 18개 부처·청과 연계하여 사업·과제정보, 인력정보, 성과정보 등을 한 곳에서 서비스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R&D정보 지식포털(<https://www.ntis.go.kr>)이다. 2008년 3월 31일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림 54 | NTIS 서비스 개념도



표 IV-25-1-4 | NTIS 주요 제공 정보

(기준 : 2021년 6월)

구분	건수
국가R&D 사업·과제(2002년~)	90.9만 건
국가R&D사업 참여인력 및 평가위원 정보	19.4만 건
국가R&D성과정보(논문, 특허, 보고서 등)	논문 10,963.8만 건, 특허 4,090.1만 건, 보고서 36.7만 건 등

NTIS 서비스 개시 후 기업 회원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가입회원 약 18만 명 중 36%인 약 6.8만 명이 기업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2021년 6월 기준). 기업 회원은 NTIS 서비스 가운데 사업공고, 인력, 특허, 기업지원R&D정보 등에 관한 수요가 많다.

기업지원R&D정보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기업이용자의 국가 R&D 과제 참여를 위한 기반지식습득, 협업을 위한 연구자·연구기관 탐색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기업이용자 관심정보 기반의 국가R&D 맞춤형 정보 패키지 제공을 통해 기업이용자의 과제 기획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맞춤형 정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국가R&D수행기관에 대한 정보를 모아 탐색할 수 있도록 국가R&D참여기관서비스를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국가R&D참여 기관에 대한 간략한 소개정보와 기관이 수행한 과제정보와 성과정보등을 별도로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NTIS 맞춤형교육」 및 「NTIS 이용자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이용자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고품질 정보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용자와 쌍방향 소통하는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e-Asia Award 2011, UN 공공행정상 2012, 공공서비스 분야 대상 수상 2015,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유공장관표창 2017, WITSNA(세계정보기술 서비스연맹) 공공부문 Winner 수상 2018,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매일경제미디어 그룹) 수상 2021 등 국내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다. 중소기업 정보지원 사업

1) 연구용역 및 사업타당성분석

연구원 자체의 정보분석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유망 아이템 발굴, 기술기획을 위한 산업·시장 분석, 보유기술의 확산을 위한 기술가치 평가 등의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기술 기획 및 사업화 과정에 요구되는 다양한 의사결정을 객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방법론을 연구용역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연구용역 사업은 주로 기업이나 연구계 또는 관련 정부부처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계의 기술개발 및 경영활동, 정부의 과학 및 산업·기술정보,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타당성분석 사업인 R&D기획지원 사업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 아이디어에 대해 기술/시장성분석, 사업 타당성 진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수립 등의 종합적인 R&D 기획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가능성을 높여주고, 해당 기업의 기술·경영능력과 시장성을 바탕으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업체의 신기술 개발에 따르는 위험을 제거하고 신규시장 진출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료나 타 기관의 소장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는 한편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의 공동 분석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2) 산업·기술동향정보 연구

정보분석 연구를 통해서 특정주제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연구보고서 형태로 제공한다. 연구보고서는 산업·기술 전반의 시사성 있는 주제를 다루고, 국내외 산업·기술동향 및 특정기술의 개발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연구한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기술가치평가, 유망아이템 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지적재산권이나 기술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CTO를 핵심고객으로 설정하고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기술 조사, 유망아이템 발굴, 사업화 평가 및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필요한 선진 기술·제품·산업동향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한다. 또한, KISTI가 축적한 분석 역량과 데이터 자원을 결합한 인사이트를 담아 미래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산업 트렌드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보고서(KISTI DATA Insight)를 발간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기술기획역량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선진기술 도입 및 국내우수기술의 해외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가치평가 교육과 중소기업의 R&D 기획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3) 정보분석시스템 구축사업

산업·시장에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기술사업화 과정에 요구되는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경영기법과 정보시스템기술의 융합을 통해 기술사업화 정보조사·분석업무의 고도화를 꾀하여 고부가가치 고급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

KISTI는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자원 및 분석역량을 활용하여, 유망아이템과 관련된 분석형 정보, 통계 데이터 기반의 산업·시장 정보 및 보유기술에 대한 기술 가치평가를 웹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산업·시장정보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단순정보지원에서 지식정보지원 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시스템(BCSS, <http://bcss.kisti.re.kr>)은 글로벌 벤처캐피털 투자, M&A동향 정보로 중소기업에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기술, 시장, 제품, 기업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분석된 KISTI가 발굴한 유망 사업화 아이템 정보와 함께 아이템 발굴 및 추천을 지원한다.

데이터 기반 기술사업화지원 플랫폼(SMART K2C, <http://smark2c.or.kr>)은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성장 하는데 필요한 기술사업화 전 과정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구체화하고 데이터 기반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한 개별 중소기업 맞춤형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이다.

산업·시장 분석 시스템(KMAPS, kmaps.kisti.re.kr)은 산업·시장에 관련된 다양한 공공 통계정보를 연결하여 기업의 기술사업화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재 산업·시장에 대한 규모, 경쟁환경, 미래 수요 등의 분석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기술가치평가 시스템(STAR-Value, www.starvalue.or.kr)은 KISTI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정보와 기업 재무정보, 특허정보, 기술수명주기 정보 등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연계 활용하여,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웹기반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산학인 간의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경쟁정보시스템(COMPAS, <http://compas.kisti.re.kr>)은 기술경쟁 현황의 손쉬운 파악을 위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 또는 관심을 두고 있는 기술의 경쟁자와 경쟁기술을 손쉽게 분석하고, 기회와 위협요인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술기회발굴시스템(TOD, <http://tod.kisti.re.kr>)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포착을 위해 기업이 보유한 제품과 기술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제품과 기술의 기회, R&D혁신 활동의 출발점을 효율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처럼 내부적으로는 중소기업에게 기존의 단순정보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 정보와 인텔리전스 분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외부적으로는 기업 스스로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축적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 중소기업 근접지원 및 협력

KISTI는 정보분석서비스와 시스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신기술 탐색부터 기술 이전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역균형 발전과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사업화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교류를 통해 지역의 산·학·연 연구개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지역별 대학, 산업체, 국공립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15개 지역협의회와 1만 2천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의 산학연정 '과학기술정보협의회(ASTI)'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림 55, 56 | 전국 15개 ASTI 지역협의회, 고객정보 및 지원전략



2012년부터 ASTI를 통해 기술개발, 제품개발, 과제기획 등 산하인정 공동연구를 위해 연간 16개 지역기반 협력커뮤니티(지식연구회)를 구축·운영하여 지역협력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매년 KISTI 패밀리기업들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R&D 활동을 개선시켜 기술경쟁력을 갖도록 기업의 기술예로 해결지원, R&D 기획지원, 맞춤형 정보 분석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사업화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시키고, 출연연의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표 IV-25-1-6 | 지역별 패밀리기업 및 지식연구회 운영 현황

지원	패밀리기업수			유형별 지식연구회 운영 현황		
	18	19	20	지역특화산업형	4차 산업혁명대응형	지역사회문제해결형
수도권	37	43	46	뷰티헬스, 항노화	기업R&D데이터, 3D프린팅, ESS안전관리 등	-
충청	16	20	24	태양광음복합	바이오시, 디스플레이	-
호남	13	20	24	친환경바이오	탄소복합소재	미세입자 및 공기질
대구경북	20	22	26	-	스마트 기능성복합소재	음산업
부울경	18	20	30	기능성 화학소재, 스마트 제조	-	-
계	104	125	150	6개 연구회	8개 연구회	2개 연구회

5) 중소·중견기업 슈퍼컴퓨팅 M&S(Modeling and Simulation) 기술지원사업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인력 및 장비부족을 극복하고 슈퍼컴퓨터를 비롯한 첨단 연구장비 활용을 통해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부터 인력, 장비, 예산 등 자체 자원과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제품기술개발을 위한 M&S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슈퍼컴퓨팅 M&S 기술지원 사업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고급 전문인력과 슈퍼컴퓨팅 자원 및 해당 분야 해석 기술 등을 중소기업에게 제공하여

신기술 개발, 제품 성능 향상 등을 돕는 사업이다. 본 사업에서는 CAD/CAE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물리적 제품 제작 및 실험을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의 제품 제작 (Modeling) 및 공학해석(Simulation)으로 대체함으로써, 실험 시험 횟수를 최소화하여 제품개발 시간 및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기관의 주요사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 등의 수탁 사업의 형태로 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총 591개 기업을 지원하였다.

표 N-25-1-6 : 중소·중견기업 슈퍼컴퓨팅 M&S 기술지원사업 현황

(기준 : 2020.12.31 현재)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합계
중기형 사업	-	-	-	48	42	30	5	25	14	11	-	2	2	1	-	1	-	161
산업부 사업													6	5	6	-	10	29
KSTI 주요 사업	슈퍼컴 M&S	-	21	25	-	-	-	15	23	16	42	42	37	29	18	21	21	310
	단순 기술 지원	24	-	-	-	-	10	-	24	1	-	-	-	-	-	-	-	59
기타사업											4	-	4	3	1	-	-	12
합계	24	21	25	48	42	30	15	40	61	28	46	44	51	38	25	22	31	591

* 슈퍼컴 M&S : 슈퍼컴퓨팅 기반 Modeling & Simulation을 통한 제품개발 건설형(장기)

- 단순 기술지원 : 제품설계 및 시뮬레이션에 대한 자료, M&S 교육 등 단발성 기술지원

한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협의회(ASIT) 회원 기업 및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설계 과정에서의 애로기술에 대한 슈퍼컴퓨팅 기반의 공학해석 건설형을 수행하였다.

중소기업들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다양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자체 인력 및 인적 네트워크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첨단 고급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첨단 제품 개발, 기술경쟁력 확보,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세계적 수준의 슈퍼컴퓨터와 ANSYS·FLUENT·CFX·ABAQUS 등의 다양한 구조 및 열유체 해석 소프트웨어들을 중소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 전문 해석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자체 인력을 투입하여 직접 설계할 도와준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서는 성능이 검증된 공개프로그램 및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에서 쉽게 제품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맞춤형 M&S 소프트웨어(HEMCS)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가시화 전문 장비를 활용한 제품의 가상 플랫폼을 제공받을 수도 있고 공학해석 전문 기업이나 250여명으로 구성된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의 기술 지원 및 자문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담당자들이 첨단 기술개발 장비인 슈퍼컴퓨터 및 고가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구현한 HEMCS-Cloud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본 사업을 통해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들은 자동차, 선박, 건축 및 생산 설비, 생명공학, 반도체, 항공우주, 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지원 수에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제품 개발 시간을 약 52.7% 단축하고 제품 개발 비용을 약 58.1% 절감함으로써 55.3%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17여 년 간의 슈퍼컴퓨터 활용기반 제품설계 시뮬레이션 지원으로 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매출증대는 총 1,500억 원 이상에 이르렀으며, 중소기업에서의 고용창출도 약 500여명 달성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제26장

한국디자인진흥원

1

일반현황

가. 설립목적

한국디자인진흥원(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은 국내 유일의 국가주도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기관으로, 디자인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 정책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디자인 산업기반을 조성하며, 디자이너의 권익보호와 더불어 디자인을 통한 국민행복과 산업성장을 이끌어 가기 위해 설립되었다.

나. 주요사업

진흥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해외 디자인 비즈니스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우수 디자이너 인재양성을 위한 인재육성 및 실무디자이너 교육 지원, 디자인, 기술 융합 상품 기획 플랫폼개발, 디자인 해외진출 지원 및 신흥시장 개척 비즈니스 교류,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디자인코리아페스티벌 및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등 진흥사업, 기타 산업디자인과 관련한 정부의 연구, 위탁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다. 조직 및 예산규모

- 1) 조직현황 : 3본부 12실 8팀 2센터 1사무국(정원: 181명, 현원: 165명)
- 2) 예산규모 : 47,145백만원(2020 결산, 매출액 기준)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디자인전문회사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1) 디자인 전문회사 육성지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하고 있는 디자인 전문회사 육성 지원은 디자인에 관한 개발, 조사, 분석, 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를 육성 하여 디자인 수요에 부응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92년 시행 그간 디자인산업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2020년 말 기준 9,199개 사가 전문회사로 신고 되어있다. 그러나 양적 성장을 이룬 산업규모에 비해 디자인산업의 기반을 체계화하고 디자인전문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 마련 등 디자인 전문회사의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자인산업 고도화에 맞는 신고제도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디자인전문회사의 수요에 맞춰 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한 체계적인 글로벌 디자인 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디자인 전문회사의 신고요건은 신고분야별 디자인 전문 인력 1인 이상이며, 종합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 전문 인력 3인 이상, 직전사업년도 매출액 2억 원 이상 또는 직전 3개연도 평균매출액 2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회사의 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억압적 규제가 되지 않도록 2017년 10월 신고요령 확대 개정을 통하여 1인 기업도 신고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표 N-26-1-1 | 연도별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실적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회사 수(누계)	4,023	4,604	5,228	5,458	5,610	6,582	7,852	9,199

또한, 우수디자인기업의 발굴·선정을 통해 디자인기업의 역량강화를 장려·육성 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으며 국가 디자인 산업발전과 국가 브랜드 위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우수 디자인 전문회사를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디자인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대형화·전문화된 디자인기업의 부재에 따라 정부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글로벌 리딩 디자인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을 통해 우수 디자인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집중 발굴, 지원하고 디자인 비즈니스 창출 극대화를 위한 홍보가 절실한 시점이다.

표 N-26-1-2 | 연도별 우수 디자인 전문회사 선정실적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회사 수	35개사	30개사	39개사	32개사	20개사	20개사	(미 선정)	20개사

2)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출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에 필요한 홍보디자인 및 제품디자인 개발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와 수출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기업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구 분	지원내용
지원분야	외국어홈페이지, 외국어전자카탈로그, 외국어동영상, 외국어포장디자인, 외국어모바일앱, 외국어홈페이지, 소품물상홈페이지, 제품디자인, C/B/I

전체 12개 서비스 분야 중 디자인개발/홍보동영상 분야 수행기관 선정 및 서비스 결과를 검수, 기타 서비스 관리를 통한 참여기업의 서비스 수혜 만족도 제고.

표 N-26-1-3 | 연도별 전문회사 보유 현황 및 지원 과제 수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월~12월, 271개사)
수행기관 수	521개사	654개사	587개사	634개사
지원 과제 수	7,790개	5,363개	6,343개	5,009개

* 2개년 사업으로 20년도 사업은 현재 과업 진행중

** 수행기관 활동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간임으로 누적 기업 수 의미, 활동기간 만료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

3) 중소·중견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중소·중견기업에 경력디자인인력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창출과 디자인 투자 시 발전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전문인력 채용연계 및 인건비 보조

구분	지원내용
지원유형	인력지원(디자이너 채용연계 및 인건비 보조)
지원인력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디자인 인력
지원기간	협약일(지원인력 근무시작일) -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지원규모	정부예산 범위 기업당 1명, 70개사 내외
지원금액	디자이너 노임단가에 근거하여 직급별 50% 지원

나. 국내 디자인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

1) 디자인코리아페스티벌 2020 (DKfestival 2020) 개최

2003년부터 시작된 디자인코리아페스티벌은 국내 최대 규모의 디자인 종합 박람회로 세계 디자인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우수 디자인 상품을 비롯한 글로벌 디자인트렌드를 한눈에 관망할 수 있으며, 참가 기업에게 맞춤형 비즈니스 기회를 지원하고 우수디자이너와 기업 간 네트워킹 환경을 제공하여 디자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디자인코리아는 기술과 융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산업 혁신을 주도하는 디자인의 역할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범국민적인 디자인 행사로 문화 가치 확산 및 창의적인 디자인 강국을 구현하고 디자인산업의 역량증대에 그 목적이 있다.

「디자인코리아 페스티벌 2020」는 COVID-19 대응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 추진한 하이브리드형 디지털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세계 30개국 680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11월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국내 디자인계 최초 온라인 전시(VR) 6개관 운영과 다양한 부대행사의 실시간 스트리밍 시스템 운영, 해외 바이어 온라인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 운영 등 전시 기간 중 약 20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그림 57 | 2020 디자인코리아 전시장 전경



▲ DKFestival 2020 인트로 및 전경



▲ DKFestival 2020 Key visual

다. 디자인 저변확대를 위한 디자인문화 확산

1)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근거하여 198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수디자인 상품선정사업은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을 선정·홍보함으로써 기업의 디자인 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상품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다양한 욕구충족 및 국민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디자인 선정 제도이다.

외관구성, 사용목적, 재료사용, 상업생산 등을 기준으로 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 제품디자인 외 6개 분야의 우수디자인(Good Design) 상품에는 GD상품이 부여된다. 1993년도부터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을 신설하여 우수디자인에 대한 국내 최고 상격 시상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06년에는 호주와 한국 양국 간 굿디자인 상호인정 MOU를 체결하여 선정상품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며, 2013년에는 유니버설 디자인 분야를 신설하는 등 선정 범위와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국내 또는 해외에서 판매 중이거나 출시 예정인 상품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상품은 조달청이 시행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우수제품 지정 신인도 심사 시 가점부여를 통해 우대하며 국내·외 전시 참가를 통한 홍보기회 제공 등 각종 우대 지원혜택이 주어진다.

그림 58 | 2020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전시장면



▲ DPOAval 2020 Award 2019

그림 59 | 2020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주요성과

▲ 대상(Grand Prize) 대동광삼
엘지전자(주)
플러케어 듀얼 찬수기▲ 금상(Gold Prize) 국무총리상
삼성전자(주)
갤럭시 Z-Flip▲ 금상(Gold Prize)
마우비엔솔베니
인공치장 다용모션데스크

표 IV-26-1-4 | 우수디자인상품 선정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출품건수	1,349점	1,120점	1,146점	875점	1,041점	1,208점
선정	520점	443점	472점	339점	420점	484점

2)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는 1966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최고 권위의 디자인 어워드로, 미래를 선도할 새롭고 혁신적인 디자인 컨셉을 제시한 디자이너를 발굴하여 글로벌 디자인 영재 및 차세대 디자이너로 육성한다.

특히, 올해에는 청소년디자인전람회가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청소년에서부터 프로디자이너에 이르기까지 디자이너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디자인 인재 양성 제도 및 등용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Covid-19영향으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홍보와 더불어 디자인코리아페스티벌 2020에 수상작 온라인 VR전시 및 온라인 화상회의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시상식을 운영하였으며, 최고의 영예인 대상에게는 '대통령상'과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이 외에도 수상자들에게는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지원, 선진사례견학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상자들의 디자인이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높이고 있다.

표 IV-26-1-6 | 최근 5년간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출품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일반및대학생	1,439	1,703	1,789	1,488	1,440
청소년	3,235	3,216	2,288	2,238	215
추천·초대	446	469	466	478	1,455

그림 60 | 제55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시상식 및 전시 (2020.11)



제27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1

설립목적 및 기능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창업을 촉진하여 경제영역에 있어서 실질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며,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여성경제인의 능력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이 국가경제발전에 공헌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일반현황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는 1971년 10월에 설립된 대한여성경제인협회가 전신으로, 1999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다. 당시 여성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후 2007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설립되었다. 현재 협회는 본회와 전국 17개 지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사는 2,600여개이다. 또한 센터는 전국 17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협회는 '여성기업의 성공을 돕는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비전 아래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경영능력 향상 지원,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여성기업 제품 판로확대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 여성경제인단체와의 교류 협력, 여성경제인을 위한 제도 및 시책에 대한 대정부 건의,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자료 및 통계의 조사 수집 등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첫째, 여성창업 촉진 지원을 위해 여성창업경진대회,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장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여성경제인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여성기업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및 구매지원, TV홈쇼핑 입점지원,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을 수행 중이다. 넷째, 여성기업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여성경제인DESK 운영,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플랫폼 운영,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여성기업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고 있다.

◀ 주 요 사 업 ▶

- 여성창업촉진지원 : 여성창업경진대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장창업자금 지원사업
- 여성경제인 혁신역량 강화 :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 여성기업 판로확대 지원 :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및 구매지원, TV홈쇼핑 입점지원,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 여성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 여성경제인DESK 운영,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플랫폼 운영,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여성기업 조사연구

3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여성창업 촉진 지원

여성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은 여성창업경진대회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확장,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등이 있다.

1) 여성창업경진대회

가) 개요

여성창업경진대회는 창의적이며 우수한 창업아이템 발굴로 여성의 창업활성과 분위기를 확산할 목적으로 시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예비 여성창업자 또는 창업 후 5년 미만 여성기업이다. 여성창업경진대회는 총 32명의 우수 팀에게 시상 및 포상을 하며 수상자에게 상금 및 도전 K-스타트업 본선 진출 (상위 15팀), VC·AC 투자유치 연계, 홍보, 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을 지원한다.

표 N-27-1-1 |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아이디어, 창업아이템 등 우수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단체팀 및 창업 후 5년 미만의 여성기업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상 및 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1명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및 상금 1,000만원 최우수상2명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및 상금 각 500만원 우수상3명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및 상금 각 300만원 장려상4명 : 신원은행장상 및 상금 각 200만원2명 우리은행장상 및 상금 각 200만원2명 특별상2명 : IBK기업은행장상 및 상금 각 200만원 인상20명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상 및 상금 각 30만원 수상자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전K-스타트업 본선진출상위 15팀, VC·AC 투자유치 연계, 홍보, 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벤처기업부 정책홍보과 : 042-481-4375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09-0943

나) 현황

여성창업경진대회는 사업계획 공고, 참가자 모집, 심사 및 선정, 후속지원, 시상식 및 결과보고로 진행된다. 홍보는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여성경제인의 날에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표 IV-27-1-2 |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프로세스



2021년 여성창업경진대회의 참가자는 총 1,292팀으로, 지역별로는 서울이 577팀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263팀이 참가하여, 전체 참가자 중에서 약 65% (2021년 기준)가 서울 및 경기도에서 참가하였다.

표 IV-27-1-3 |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역별 참가 현황(2021년도)

(단위: 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청	인천	울산	강원	경기	충청	전북	경남	제주	합계
참가수	577	84	72	47	50	65	14	22	263	22	20	45	11	1,292

다) 성과

여성창업경진대회의 참가팀 수는 2019년 1,147팀, 2020년 1,288팀, 2021년 1,292팀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수상자는 93팀으로 지난 3년간 수상팀의 약 97%가 창업하였다.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창업은 대부분 검증된 아이템을 가진 기술창업으로 현재 일반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 창업보다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표 IV-27-1-4 |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성과

(단위: 개)

구분	연도별 실적		
	2019년	2020년	2021년
참가팀수	1,147	1,288	1,292
수상팀수	30	31	32
창업업체수	29	31	30

2)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가) 개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창업보육 공간·정보·인프라 제공을 통해 여성의 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원센터 내 입주기업(창업 후 3년 이내의 여성기업 및 여성예비창업자) 및 여성경제인이며, 여성기업 창업보육시설 및 전문가 컨설팅, 각종 인증획득 지원, 판로지원과 정부 지원 정책 및 지원사업의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 IV-27-1-5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8개 센터 입주기업 및 여성경제인 •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 창업보육공간 및 지원시설(사무실, 사무기기, 인터넷, 보안장치) 등 • 경영 회계/세무, 재무 등 전문가 컨설팅 제공 • 산업디자인 개발비, 산업지적재산권 및 각종 인증획득 지원 • 마케팅 및 판로지원 • 중소기업 지원사업·여성기업 지원사업 정보 제공 • 성공 여성CEO와의 네트워킹 등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부 정책홍보과 : 042-481-4376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000

나) 현황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보육실 운영, 전문가 컨설팅, 시제품제작, 성공한 여성 CEO와의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으로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창업 유망업종을 입주기업으로 선정하여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여성기업 경영 활동 촉진을 위한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교육·훈련·연수, 경영 활동 및 판로지원, 애로상담 등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보육센터 입주하는 입주사 모집 공고, 입주신청 및 접수, 심사 및 발표, 입주 및 지원 등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표 N-27-1-6 | 센터의 창업보육실 입주프로세스

입주사 모집 공고 (해당 지역센터)	입주신청 및 접수 (해당 지역센터)	심사 및 발표 (접수센터별 심사발표)	입주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센터별 공보 발생 시 입주기업조사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신청서 등 제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www.vbc.or.kr) 다운로드하여 접수신청 및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1차 서류심사 → 2차 PT심사 • 각 센터별 운영위원회에서 평가·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기간: 3년 (1년의 2회 연장가능) • 공동사무기기 사용, 초고속 인터넷 및 보안센터 등 무요청 • 지원정책 정보 및 경영컨설팅 제공

현재 전국 18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총 보육실 238개 중에서 190개의 보육실이 입주된 상태로서, 지역적으로는 인천센터의 보육실수가 19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남 18개, 서울, 대구, 울산, 충북이 각각 16개, 광주, 경기북부가 각각 15개 순으로 각 지역 센터 내에 보육실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입주한 업체의 업종은 IT, 패션 및 생활용품, 일반제조, 뷰티, 섬유 의류, 출판광고 등으로 다양한 업종에서 입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육실 입주 여성기업을 위해 다양한 정보,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표 N-27-1-8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성과

(단위 : %, 천)

구분	연도별 실적		
	2016년	2018년	2020년
업체평균 매출액증가율	19.4	19.6	19.8
입주업체 만족도	90.0	90.0	90.0

3)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가) 개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 여성가장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여성가장이며, 연 2.0% 이자율에 최대 1억 원까지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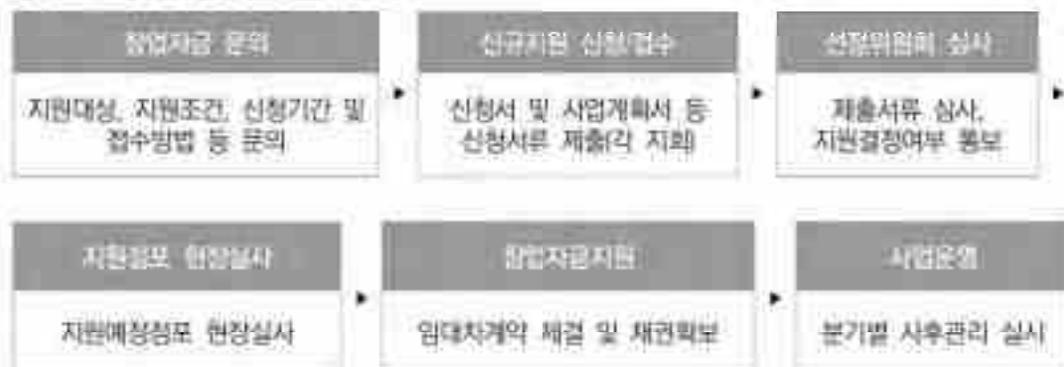
표 N-27-1-9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 여성가장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지원요건 저소득계층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 지원제외대상 : 주정업, 사치·향락업종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등 사업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금을 지원받은 자 등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1억원, 연 2.0% 이자율, 최대 6년연장 2회 가능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홍보과 : 042-461-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3

나) 현황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 17개 지회 및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가 지원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사에서 최종 선정되는 자에 한해 창업자금(점포 임대보증금)을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지원자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지원기간 내 분기별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사업운영사항 개선, 매출증대 등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림 61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프로세스



다) 성과

1999년부터 시작한 동 사업은 2020년까지 저소득 여성가장 총 731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신규지원자 9명, 기존 지원자 중 기간연장 신청자 11명에게 지원하여 총 20명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표 N-27-1-10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성과

(단위 : 명)

구분	연도별 실적		
	2017년	2018년	2019년
	지원인원	지원인원	지원인원
신규지원	14	9	9
기간연장	12	12	11
합계	26	21	20

나. 여성경제인 혁신역량 강화 사업

여성경제인 혁신역량강화 사업은 여성기업의 경영안정화, 여성경제인 경쟁력 강화 및 네트워킹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되며,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국제회의 파견 지원 사업 등이 있다.

1)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dvanced Management Program)

가) 개요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은 전문 경영인으로서 경제현안 및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경제인 특성에 맞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여성CEO MBA 교육 사업을 전면 개편하여 2018년 1기를 시작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여성CEO 및 임원, 예비 창업자이며 강사로, 교재비 등을 일부 지원한다. 또한 2020년 하반기부터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주재별 전문 교육 과정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영전략 수립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표 N-27-1-11 |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전국 여성 CEO 및 임원 예비 창업자
지원사항	• 강사로, 교재비 등 • 교육회수 및 시간: 연간 주재별 4회 교육, 주재별 평균 4주 과정
교육내용	• 전문 운영기관과의 협력 및 교육과정의 일원화로 여성기업에 특화된 임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전국 여성경제인에게 제공
문의처	• 중소기업부 정책홍보과 : 044-204-7431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99-0924

나) 현황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은 매년 경영트렌드를 반영하여, 여성 경제인의 교육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여성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유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 교육 뿐 아니라 비대면 교육 솔루션을 바탕으로 온라인 교육 과정을 정규 개설 및 확대하여 학습 효과 극대화 하고, 전국 여성 경제인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마련하여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절차는 신청자 모집단계, 교육실시, 결과보고로 수행된다.

그림 62 |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사업 프로세스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2006년 4개 지역(서울, 부산, 광주·전남, 대전·충남)으로 시작하여 2020년 전국 7개 지역에서 동시에 교육을 진행하였다.

표 N-27-1-12 |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사업 개최 현황

(단위: 개, 주)

구분	연도별 실적			
	2018년	2019년	2020년	
			오프라인	온라인
개최지역 수	16개	14개	7개	비행 온라인 9명
지역별 개최기간	12주	12주	6주	4주 x 2회 개최

개최 지역별로 참가자 수를 살펴보면, 2018년에는 기존 여성CEO MBA 교육 사업을 전면 개편하여 AMP 1기로 새롭게 운영하였는데, 서울이 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42명, 경기 41명 순으로 참가자 수를 보였다. 2019년 역시 서울이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경북 25명, 경기북부 25명 순을 보였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개최지역 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여전히 서울이 8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8명, 충북 24명 순을 보였다.

표 N-27-1-13 |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사업 지역별 개최 내역

(단위: 명, %)

지역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오프라인	온라인
수도권	서울	124	63	81	
	경기	41	22	38	
	경기북부	25	25	21	
	인천	18	21	-	
대구/경북 (17, 18 통합운영)	대구	34	19	-	
	경북		25	-	
대전/충청	충북	24	21	24	
	대전	30	20	-	
	세종충남	24	16	-	
광주/전남/전북	광주	23	-	-	2개과정 총 312명
	전남	24	-	-	
	전북	20	24	16	
부산/울산/경남	부산	29	9	-	
	울산	14	-	13	
	경남	42	16	-	
강원		20	-	-	
제주		37	14	18	
합계		529	295	211	312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신규개설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경우 2개 과정에 총 312명이 수강하였다.

다) 성과

교육 수강생 수는 2018년 529명, 2019년에는 양질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수강료 인상으로 전체 수강자 수는 295명으로 감소하였지만 교육 효과와 수강생들의 만족도는 꾸준한 성과를 보였으며,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오프라인 교육 수강자 수는 211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하반기 2번의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정을 신규 개설하여 총 523명의 성과를 보였다. 교육 수강생 만족도는 2018년 83점, 2019년 90점, 2020년 92점으로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만족도 수치를 꾸준히 높이고 있다.

표 N-27-1-14 |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사업 성과

(단위: 명, 점, %)

구분	연도별 실적		
	2018년	2019년	2020년
교육 수강생수	529	295	523
교육 수강생 만족도	83.1	90.0	92.0

2)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가) 개요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은 전국 여성경제인들에게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정보교류와 네트워킹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여성CEO로, 강사료 및 교재비 등의 참가비를 지원하며, 초청강연, 정책토론회, 경영애로 상담, 네트워킹 등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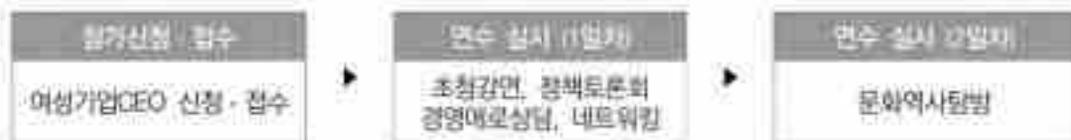
표 N-27-1-15 |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여성CEO
지원사업	• 강사료, 교재비, 임차료 등
연수내용	• 초청강연, 정책토론회, 경영애로 상담, 네트워킹 등
문의처	• 중소기업부 정책홍보과 : 044-204-7431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99

나) 현황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강연을 비롯하여 1박 2일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여성기업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 기회가 제공된다. 특히, 여성기업의 경영으로 상담 및 정책건의를 위한 여성경제인 DESK를 운영하였으며, 정책토론회를 통해 여성기업 성장을 위한 방안에 대한 여성 기업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림 63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 프로세스



다) 성과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의 참가자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행사장 최대 수용가능 인원(19년) 및 코로나19 방역지침(20년)에 따라 인원수 조정 또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여 진행되었다. 전국단위로 지역별로 돌아가며 개최되며, 지역별 특성 및 상황에 맞는 연수 프로그램 구성으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표 IV-27-1-16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 성과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실적		
	2018년	2019년	2020년
참가자 수	1,037	800	비대면 온라인 연수로
개최지역	부산	충주	진행

*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연수 진행 (참가자 수 610명)

다. 여성기업 판로확대 지원

여성기업 판로확대 지원사업으로는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 여성기업 와인제도 운영,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및 구매 지원, TV홍쇼빙 입점지원, 공동브랜드 '아름' 운영 등이 있다.

1)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

가) 개요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사업은 수출초보 여성기업을 경쟁력 있는 수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동 사업은 수출교육, 수출기업화,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 여성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N-27-1-17 |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 여성기업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교육: 무역실무, 품목별·시장별 진출전략 등 해외 마케팅 교육 수출기업화 전문가 1:1 컨설팅 및 홍보물제작, 해외인증비 등 수출 준비에 필요한 작업비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여성기업 특화품목 전문 해외 전시회 발굴 및 참가 지원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벤처기업부 정책홍보과 : 044-204-7427 02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53-0944

수출교육은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역실무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특정한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품목별 맞춤 전략 교육을 통해 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표 N-27-1-18 | 수출교육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여성기업 대표 및 실무자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초보 무역실무 교육 유망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지역별 마케팅 교육

수출기업화 사업은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의 수출단계에 맞춰 1:1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단계별 수준준비를 위한 직접사업비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을 육성한다. 또한 유관기관의 수출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한다.

표 N-27-1-19 | 수출기업화 사업

구분	내용
지원대상	(내수) 전년도 직수출액이 없는 수출준비 기업 (수출초보기업) 전년도 직수출액 10만불 미만 여성기업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전문가의 1:1 기업별 맞춤형 멘토링 (02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DESK 전문위원 활용) 해외마케팅 직접비 지원 (홍보물·패키지 제작, 해외인증비, 해외전시회 지원 등)

해외전시의 참가사업은 여성기업 특화품목인 뷰티·푸드·리빙을 주 수출품목으로 하는 여성기업을 발굴하고, 타깃 국가별 전문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수출여성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최신 트렌드와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여성기업 제품의 글로벌시장 판로확대를 지원한다.

표 N-27-1-20 |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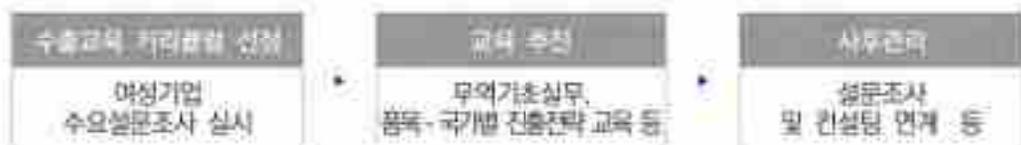
구분	내용
지원대상	수출여성기업
지원사항	• (해외 전시회 유망전시회 한국여성기업만 참가 지원으로 현지 바이어 발굴 및 현지 마케팅 지원 등

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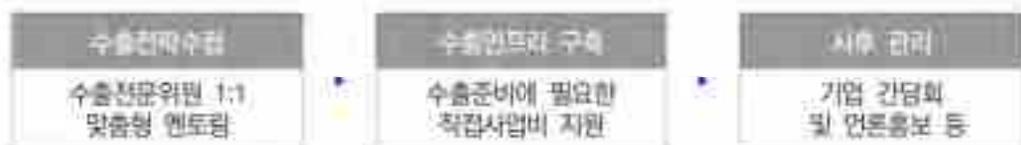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사업은 여성기업 수출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첫 수출과 수출유망기업으로의 도약을 촉진한다. 예비수출기업과 수출초보기업을 위해 무역실무와 트렌드를 반영한 마케팅 전략 교육으로 수출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수출기업화를 위해 1:1 컨설팅 및 수출준비를 위한 직접사업비를 지원하고, 여성기업 특화품목 유망전시회 참가 지원으로 여성기업의 현지 개척을 지원한다. 특히, 각 사업 추진 전 여성기업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여성기업의 수요와 수출 단계에 적합한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그림 64 |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사업 프로세스

① 수출교육



② 수출기업화



③ 해외전시회 참가

참가전시회 발급	전시회 참가	선호 권리
여성기업 특화품목 타깃국가별 전시회 발급	바이어 발급 현지 프로모션 등	기업 간담회 및 컨설팅 연계 등

다) 성과

수출기업과 지원사업은 2020년에 25개사를 지원하여 이 중 18개사(72%, 총 65만 달러)가 수출에 성공하였다.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26개사를 선정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전시회 참가가 취소되어 선정기업 대상으로 비대면 콘텐츠 제작 대체 지원을 추진하였다. 또한 해외진출 역량강화를 위해 수출마케팅 교육을 5회 실시하여 128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표 N-27-1-21 |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사업 주요성과

구분	지원 실적			주요 성과
	신청	지원	성공률	
수출교육	220명	128명	2 : 1	- 만족도 94점
수출기업화	230社	25社	9 : 1	- 수출성공률 : 72%(16개사) - 수출성공액 : 65만 달러
해외전시회 참가	255社	26社	10 : 1	- 수출성공률 : 62%(16개사) - 수출성공액 : 70만 달러 * 코로나19로 비대면 마케팅 직결비 대체지원(35건)

2)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가) 개요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은 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 여성기업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경쟁입찰 시 도움을 제공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표 N-27-1-22 |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
문의처	· 중소기업본부 정책총괄과 : 042-461-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32

지원대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이다.

나) 현황

여성기업 확인접수는 온라인(www.snpp.go.kr)을 통해 진행되며, 서류접수 후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검토 후 여성기업 확인서가 발급된다.

그림 65 |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프로세스



다) 성과

여성기업 확인제도에 따른 발급건수는 2018년 12,541, 2019년 16,178건, 2020년 20,650건으로 2019년 대비 약 27.6%가 증가하였다.

표 N-27-1-23 |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성과

(단위 : 건)

구분	연도별 실적		
	2018년	2019년	2020년
확인서 신청건수	14,409	19,367	23,860
확인서 발급건수	12,541	16,178	20,650

3)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및 구매지원

가) 개요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및 구매 지원사업은 공공기관 여성기업 제품 구매 촉진과 여성기업 확인제도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확인서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 전자입찰 실무교육과 공공기관 구매상담회 안내 등을 지원한다.

표 N-27-1-24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업체 공공구매 업무 담당자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기업 대상 전자입찰 실무교육 제공 공공기관 구매설명회 개최 안내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벤처기업부 정책홍보과 : 042-481-4376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32

나) 현황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및 구매 지원사업은 여성기업제품 홍보사이트 운영과 여성기업 대상 전자입찰 실무교육을 제공하여 여성기업의 판로 확대에 기여한다. 여성기업제품 홍보사이트 운영 지원사업은 온라인 제품등록, 승인, 완료 및 게시 등 총 3단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자입찰 실무교육은 입찰방법 및 입찰실습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66 | 여성기업제품 홍보사이트 운영



다) 성과

공공구매 제도 홍보사업을 통해 여성기업의 전자입찰 실무교육 수강생이 전년에 비해 385% 증가하였다.

표 N-27-1-25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 성과

구분	연도별 실적		
	2017년	2018년	2019년*
전자입찰 실무교육 수강생	97명	374명	1,176명

* 2019년부터 실습교육과정이 추가되어 전산교육점 수용인원에 맞추어 교육진행에 따라 전년 대비 31% 수강생 감소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은 2016년 116.9조원, 2017년 123.4조원, 2018년 123.4조원, 2019년 135.0조원, 2020년 145.9조원이며 그 중에서 여성기업제품의 구매액은 2016년 8.34조원, 2017년 9.9조원, 2018년 10.58조원, 2019년 11.9조원, 2020년 12.5조원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은 각각 7.1%, 8.0%, 8.6%, 8.8%, 8.6%로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비율은 2020년 기준 전년대비 구매실적이 2.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며 전체 공공기관 제품 구매에 있어서 여성기업제품 구매액은 증가 추세를 알 수 있다.

표 N-27-1-26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

(단위: 조원, %)

구분	연도별 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구매액	116.9	123.4	123.4	135.0	145.9
여성기업제품구매액	8.34	9.9	10.58	11.9	12.5
구매비율	7.1	8.0	8.6	8.8	8.6

자료: 공공구매통합정보, 중소기업 공공구매실적

4) TV홈쇼핑 입점 지원

가) 개요

TV홈쇼핑 입점 지원사업은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판로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기업제품을 발굴하여 TV홈쇼핑 입점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홈쇼핑 방송에 적합한 상품을 보유한 여성기업을 선정하여 홈쇼핑 입점 교육, 제품별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상품분별회를 개최하고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인서트 영상제작비, TV홈쇼핑 입점 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표 N-27-1-27 | TV홈쇼핑 입점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 규모	• 여성기업 200개
지원 대상	• 홈쇼핑 방송에 적합한 상품을 보유하고 성장이 기대되는 여성기업
지원 내용	• 홈쇼핑 입점교육 전문가 코칭, 홈쇼핑 방송수수료 인서트영상 제작비 등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여성기업인서, 제품소개서, TV홈쇼핑 입점희망 신청서 ※ 신청서류는 여성기업통합정보망(www.wbiz.or.kr)에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in.kim@wbiz.or.kr)
문의처	• 중소기업부 정책홍보과 : 042-481-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13

나) 현황

TV홈쇼핑 입점 지원사업은 방송에 필요한 홈쇼핑 방송프로세스, 제품카테고리별 상품전략 교육 및 전문가 코칭을 통해 방송에 적합한 상품으로 리뉴얼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방송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품평회를 거쳐 최종 지원 업체를 선정한다. 지원금 중 방송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해당 TV홈쇼핑사에 지급하며, 여성기업에게 직접 지급하는 영상제작비 지원금은 방송 송출이 완료된 후 각 기업별로 협회의 지원금 지급절차에 맞춰 신청할 수 있다.

그림 87 | TV홈쇼핑 입점 지원 프로세스



다) 성과

TV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은 2017년 처음 시작한 지원사업으로 4년간 835개사가 교육 및 품평회를 통해 홈쇼핑 및 제품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받았고, 78개사가 186회 방송을 진행하였으며, 사업참가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 6.5% 상승에 기여하였다.

표 N-27-1-28 | TV홍소팅 입점 지원 사업성과

(단위 : 개사, %)

구분	내용								
	2017			2018			2019		
	목표 기업 수	지원 기업 수	목표 대비 기업 지원률	목표 기업 수	지원 기업 수	목표 대비 기업 지원률	목표 기업 수	지원 기업 수	목표 대비 기업 지원률
홍소팅 입점모독 및 품평회	200	206	103	150	231	154	150	163	107
방송 지원	15	16	106.7	16	22	137	15	16	107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부 정책홍보과 : 042-481-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13 								

5) 인증브랜드 '여움'

가) 개요

인증브랜드 '여움'은 일반 국민들에게 여성 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홍보를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품질은 우수하나 자체 브랜드 인지도가 비교적 낮은 제품을 보유하여 지원이 필요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중소기업 회원사가 대상이다. 사업이 활성화되면 점차적으로 전체 여성기업인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표 N-27-1-29 | 인증브랜드 여움 운영 추진내용

구분	2017	2018	2019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업체 회원사모집 • 일반소비자 대상 홍보 • 국내 유통채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업체 회원사확대 • 국내 및 수출 유통채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업체 회원사확대 • 국내 및 수출 유통채널 확대 • 국내외 판로지원사업 실행회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움몰: www.yeoum.co.kr • 여움 홍보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B1 개관 (2018년 3월)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24 		

나) 현황

2016년 인증브랜드 '여름' 개발 이후 현재 여름 3기까지 선정되었다. 연 1회 정규 모집 외 상시 모집도 받고 있다. '여름'에 선정된 기업은 기수에 관계없이 활동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며, 여름몰과 여름홍보관에 입점 가능하다.

그림 68 | 인증브랜드 선정절차



다) 성과

인증브랜드 '여름'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영상과 인터넷 및 모바일 앱 배너광고를 통해 홍보하여 일반 소비자들을 여름몰로 유입시켰다. 2017-2019년 3년 연속으로 '여름 브랜드전'을 개최하였고, '여름 브랜드전'을 통해 참여 업체가 대형마트에 입점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또한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판로개척 및 수출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온라인으로는 여름몰을 개발하여 다양한 유통채널의 MD와 벤더들이 '여름'에 선정된 기업의 상품을 론칭하기 위해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여름 홍보관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본회에 개관하였으며, 현재 약 70개사의 상품이 전시중에 있다.

6)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가) 개요

국제회의 한국 대표단 파견 지원 사업은 각 국가별 정책 공유 및 세계 여성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매년 각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한국 여성 대표단을 파견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여성 기업 대표이며 회의 참가비, 차량 임차료, 통역비 등 공동경비를 지원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공식회의 및 세미나, 워크숍, 현지 여성 단체와의 간담회 참가를 통한 네트워킹 형성이며, 전 세계 여성경제인 간담회, APEC 여성경제포럼(APEC-WEF), 세계여성경제인대회(FCEM) 등 국제회의의 참가를 지원한다.

표 IV-27-1-30 | 국제회의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 대상	• 여성기업 대표
지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참가비, 차량임차료, 통역비 등의 공통경비 지원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막식, 본회의 및 세미나 등 공식행사 참가 - 주제별 워크숍 참가 및 발표 - 네트워크인 런치 및 안전 정가를 통한 해외여성경제인과 교류 - 주최국 업무협약(MOU) 및 간담회 참여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본부 정책총괄과 : 044-204-7431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39-0924

나) 현황

국제회의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은 공식회의에 참가하여 국가별 여성지원 정책을 공유하며 주최국과의 업무협약(MOU) 및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비즈니스 교류를 확대한다. 절차는 참가자 모집단계, 파견 준비단계, 대표단 파견단계, 결과 보고단계로 수행된다.

표 IV-27-1-31 | 국제회의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 프로세스



국제회의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여성기업과 지원정책을 공유, 멘치마킹하여 국내 여성기업에게 도입하고 수출협력 등의 우호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 협력이 필요한 기업에게 유용한 고급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 성과

2018년도는 FCEM 세계여성경제인협회 총회 참석 및 대만여성경제인협회 간담회(대만, 타이베이)를 개최 하였고, 2019년은 처음으로 아랍-아프리카 포럼에 참여하여 유럽, 아시아, 중동지역의 20여개국가 여성기업 대표들과 교류하고, 전시부스 참여 및 현지 바이어들과의 B2B 미팅을 진행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회의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국제회의의 한국대표단 파견이 취소되었다.

표 N-27-1-32 |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성과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실적		
	2018년	2019년	2020년
참가자 수	17	16	-
파견회의	FCEM 제86회 회의	2019 아랍-아프리카 투자포럼	코로나19로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취소
	대안여성경제인협회 간담회	-	

라. 여성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여성기업지원 인프라 확충·재정비 지원사업은 여성경제인DESK운영, 여성기업 알자리 허브 플랫폼 운영,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여성기업 인구조사 등이 있다.

1) 여성경제인 DESK 운영

가) 개요

여성경제인 DESK는 여성경제인이 현장에서 제기하는 경영애로와 정책 아이디어를 접수·해결하기 위한 창구의 필요성을 제기(2014.12, 대통령 주관 「여성기업인 초청 오찬간담회」)하여 여성기업 정책건의 전용창구로서 「여성경제인 DESK」를 설치하였다. 지원대상은 예비 여성창업자 및 경력단절 여성 등 예비 여성경제인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성경제인이다.

표 N-27-1-33 | 여성경제인 DESK 신청 및 상담 분야

구분	내역
창업	창업철차, 사업계획,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번서 등록 등
법무/규제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회출, 신용회복 등
금융/환위험관리	정책자금 안내, 환위험 관리, 자금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
인사/노무	인사관리, 조직개발, 목표관리, 연봉제, 직무분석, 노동조합관리 등
세무/회계	재무분석, 세무/회계관리, 세법·조세법령 검토, 회계감사 자문 등
경영전략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등
기술/특허	기술자문, 기술융합, 지식재산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R&D역량강화 등
정보화/융합기술	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화교육, 정보화 융합기술 등
생산관리	기술지도, 직업개선, 품질개선, 원가관리, 공정개선 등
마케팅/수출입	마케팅·수출입

나) 현황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들은 6곳에 지점을 두고 지역센터에서 여성 경제인들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있다.

그림 69 : 여성경제인 DESK 프로세스

단계	수행 방법	비고
여성기업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아이디어 및 현장경영 애로사항 신청 (홈페이지, 전화, 방문 등) 	여성기업
여성경제인 DESK 접수 (해당지역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건의 및 현장 경영애로, 규제 신청접수 	17개 지역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접수
전문위원 상담 (센터 방문 또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야별 전문위원 상담 및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멘토링 필요시 여성기업 대사단 연계 	
관계부처 협의 및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결과제 접수 및 해결 정책건의 및 현장 경영애로, 규제 개선 및 부처협의, 필요사항 이관해결 	중소벤처기업부
결과 안내 (여성경제인 DE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리결과 종결 및 회신 	

다) 성과

여성경제인 DESK는 ① 중앙·대전, ② 서울, ③ 경기·인천, ④ 광주, ⑤ 대구, ⑥ 부산으로 총 6개의 기점지역에 전문위원이 배치되어 1,706건을 상담했다

이와 더불어 성공한 선배 여성기업인 또는 여성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기업 대사단 사업을 실시하여 중소·벤처·초기창업 여성경제인에게 114건의 멘토링을 실시했다.

표 N-27-1-34 | 연도별 여성경제인 DESK 상담실적

구분	상담건수	연말정산수	고객만족도점수
2020년	1,708건	114건	95.3점

2)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플랫폼 운영 (<http://www.ijarhub.or.kr>)

가) 개요

여성기업 일자리허브는 여성기업이 필요로 하는 업무를 물리적 제약 없이 전문지능력을 가진 인적자원과 매칭이 가능하도록 연계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여성기업 일자리허브는 프로젝트 등록부터 완료까지 단위별 1:1로 전담 관리하여 초기 상담 및 조율 등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인계 추천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표 N-27-1-35 |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개요

구분	내용
추진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인력을 물리적 제약 없이 합리적 비용으로 매칭하여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채택근무 시스템 도입 등 유연한 업무환경 제공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통해 경력단절 예방
주요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좋은일자리 창출 여성기업 프로젝트 집모형 홍보 지원 업무용 SW를 클라우드 방식 (SaaS)으로 제공하고 채택근무 시스템 도입 결제대금에서제에스크로 Escrow), 보증보험증권 발행 등 안전결제 지원 수행평가, 경력증빙, 경력개발 등 사후관리 ※ 일자리허브 참가기업을 위한 공동지원 혜택 : BK기업은행 대출금리 추가감면,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 등
참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기업 : 중소기업·벤처·초기창업 여성경제인 전문인력 : 전문가·경력자, 개인·프리랜서,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고경력자 등 ※ 주요분야 : 디자인 / IT개발 / 홍보마케팅 / 수출무역 / 회계재무 / 인사총무 등
참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플랫폼(www.ijarhub.or.kr) 회원가입 여성기업 : 회원가입 및 프로젝트 등록 전문인력 : 회원가입 및 프로필 등록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Tel. 02-360-0983, E-mail: ijarhub@mblz.or.kr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홈페이지 : www.ijarhub.or.kr

전문 인력이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 여성기업과 전문인력이 프로젝트 계약부터 완료까지 신뢰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구축 지원하고 있으며, 평가 및 경력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및 전문인력의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여성기업회원이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사이트에 프로젝트를 등록하면 일자리허브에서 지원자를 모집하고, 전문인력을 검증하여 계약에서 전문인력의 프로젝트 수행 후 안전결제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프로젝트 수행시 업무용 s/w와 클라우드를 제공함으로써 재택근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문인력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그림 70 |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플랫폼 개념도



나) 현황 및 성과

여성기업 일자리허브는 2017년 11월 3일 여성경제인의 날에 론칭되어 전국 설명회, 유관기관·단체와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인지도를 확산하였다. 2018년에는 백업 솔루션 도입 및 모바일 실시간 관리 기능 확대로 운영환경을 개선하였다. 2019년에는 여성기업회원-전문인력간 맞춤형 구인, 구직 정보를 제공하여 여성기업 회원은 보다 쉽고 빠르게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고 전문인력은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의 구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화상연결

45) 여성경제단체한국여성경제인협회·한국여성발명협회·한국여성벤처협회·IT여성기업연합회,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KIC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여성가족부, 증권사실선드, 한국창업기술지도사회, 한국어성면호사회, 인쿠브트(주),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등

시스템을 도입하고 환류체계 강화를 위하여 실시간 피드백 서비스를 실시하여 기업 회원 1,741개사, 전문인력회원 5,101명 가입, 프로젝트 등록 1,927건 및 832건을 배정 지원하였다.

표 IV-27-1-36 | 2020여성기업 일자리허브 성과

구분	기업회원 수	전문인력 수	프로젝트 수	배정자원 수
성과	1,741개사	5,101명	1,927건	832건

그림 71 |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홈페이지(http://www.ijrtaub.or.kr)



3)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가) 개요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은 여성경제인 및 예비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정보, 여성기업 관련 통계 자료 제공 등 여성기업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였다. 효율적 운영·관리체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기업의 경영지원 및 창업여성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통합 관리·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카테고리별 정보 분류·업데이트를 통한 사이트 이용자의 정보 취득의 신속성 및 효율성이 향상 되었다. 포털시스템 최적화로 온라인 사업 등록·신청 및 여성기업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현황파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또한 2014년 1월부터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물품·용역 5%, 공사 3% 이상 여성기업 제품 구매)의무화에 따라 여성기업 제품만을 홍보할 수 있는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사이트를 구축하여 여성기업의 성장과 판로 확대에 이바지 하고 있다.

표 IV-27-1-37 |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여성경제인 및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여성창업자
지원내용	• 포털사이트를 통한 사업 지원 및 경영정보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를 통한 여성기업제품 홍보 및 판로확대
문의처	• 중소기업부 정책홍보과 : 044-204-7431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620

나) 현황

① 여성기업 제품 판로확대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의무화⁴⁴⁾에 따라 여성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가 가능한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웹사이트를 구축 하여 온라인 마켓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경제인의 판매채널 다변화 및 여성기업 제품 홍보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1,784여개의 업체가 상품 등록 및 홍보를 하고 있다.

② 그 외 다양한 여성기업 정보

여성기업 통합 DB구축 및 검색시스템 도입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유형별, 생산 제품별, 산업분류 등을 통한 여성기업을 검색할 수 있으며, 사내 인트라넷 구축으로 통합로그인,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일정관리, 설문조사, 전자결재, 문서함, 주소록 관리, 회계 관리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44)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계획을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행 2014. 1.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067호, 2013. 7. 30. 개정)

그림 72 |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홈페이지



다 성과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은 3개년 추진 프로젝트로서, 1차년도(12년)에는 통합망 기반 구축단계, 2차년도(13년도)에는 통합망 고도화 단계, 3차년도(14년)에는 통합망 운영·개선 사업단계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12년도에는 대내 통합시스템인 사내 인트라넷과 기업정보관리, 지원사업관리 부문, 대외 통합시스템, 여성기업지원정책 정보, 온라인 기업 마케팅, 민원처리, 여성기업 관련 각종 자료를 제공하였고, 2013년도에는 포털사이트 업데이트 및 지원사업관리 기능개선을 위해 창업, 교육, 여성가장 창업자금, IIR 지원사업 등에 대한 신청접수, 심사 및 선정 시스템, 설문조사 및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 구축, 그룹웨어와 결제 연동 가능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사업비 관리를 하도록 구축하고, 통합관리 및 운영하도록 하였다. 2014년도에는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 업데이트로 여성기업 제품 등록 및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여성기업 제품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였다. 2015년도에는 공공기관의 DB연계 개발로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콘텐츠를 보강하고, 사업 이력관리시스템 및 통계시스템 개발로 운영 환경이 개선되었다. 2016년도에는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모바일 서비스 개발을 진행하여, 사용자 접근 및 편의성을 증대 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여성기업 종합 정보포털 DB 서버 업데이트를 통한 사이트 안전성 및 보안성이 향상 되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회원 수는 26,736명이며,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사이트에 등록된 여성기업 수는 1,744개, 등록 제품 수는 15,798개이다.

4) 여성기업 조사연구

가) 개요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연구조사를 위해 여성경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목적은 여성기업 관련 통계생성·관리 및 여성기업 정책기반 자료 제공, 정기조사를 통한 여성기업 현황 제시 및 연구보고서 발간이다.

표 N-27-1-38 | 여성기업 여성경제연구소 운영

구분	내용
소개	•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연구조사를 위해 여성경제연구소 운영
주요목적	• 여성기업 관련 통계생성·관리 및 여성기업 정책기반 자료 제공 • 정기조사를 통한 여성기업 현황 제시 및 연구보고서 발간
주요성과	• [여성기업 조사연구 여성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기업 관련 동향 분석 등 종합적 연구 및 조사 수행 - (연고보고서) 여성기업 백서, 여성기업 실태조사국가순환체계, 여성기업 관련통계 자료집, 여성기업 애로실태조사 등 - (정기간행물) WFE 브리프뉴스, 통계 정백 - (통계구축) 수출 여성기업 DB 등 - (정책공유) 세미나, 토론회 개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
문의처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연구소 02-369-0900

나) 현황

여성경제연구소에서는 여성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기업 관련 동향 분석 등 종합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연구보고서 체계를 정비하여 정기연구, 수시연구, 연구용역으로 나누어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여성기업에 대한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며, 매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여성경제인들과 소통을 통해 상호성 있는 정책제안을 하기위한 방안 마련을 하고 있다.

다) 성과

2018년부터 성과관리를 세분화하여 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연구·용역보고서 7건, 이슈·동향브리프 15건을 발간하였다.

표 N-27-1-39 | 여성경제연구소 실적

(단위 : 건)

구분	연도별 실적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보고서발간 수	8	연구· 운영 보고서	브리프	토론회· 세미나	연구· 운영 보고서	브리프	토론회· 세미나	연구· 운영 보고서	브리프	토론회· 세미나
		10	15	2	6	15	2	7	15	1*

*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되어 정책포커스 발간으로 대체함

** '19년도의 경우, 예산 범위내 따라 보고서 수 조정

제28장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1989년 7월부터 전국각지에서 결성되기 시작한 민간 주도의 중소기업이업종교류그룹을 대표하기 위해, 1994년 11월 23일 전국 이업종교류 연합회로 창립하였다. 이후, 1994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5조 및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1995년 6월 중소기업청의 허가로 설립되었으며, 2005년 6월 (사)한국중소기업이업종교류연합회로 명칭을 변경, 2009년 3월 (사)중소기업이업종중앙회로 명칭을 변경, 2011년 11월 현재의 명칭인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11년부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 융복합 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중소기업의 기술융복합화를 이끌어 왔다. 2020년에는 해외연합회를 설립하여 전국 13개 지역연합회, 3개 해외연합회와 271개 융합회(6,451개 중소기업)를 회원으로 하여 이업종중소기업간 교류와 협력으로 중소기업간 부족한 경영 및 기술자원의 공유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성장동력화를 촉진하고, 국내 기업 간 교류 협력을 넘어, 해외 한인기업인들과의 국제교류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간 교류협력 강화사업, 중소기업간 네트워크기술개발 사업 사전기획지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지식산업센터 입주 중소기업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1

중소기업간 교류 및 협력활동 지원

가. 개방적 지원체계 구축

1994년 12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 이업종교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1995년 8월 중소기업진흥공단 내 교류지원부를 설치하여 이업종교류 지원업무를 확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업종 단위교류회 신규 결성 및 참여기업 확대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CEO포럼 등의 사업을 보조하고 매년 단위교류회 및 참여기업의 교류협력 사례를 발굴하여 전시하는 중소기업융합대전 개최를 지원하여 중소기업간 교류·협력 문화조성 및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표 IV-28-1-1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합회	13	13	13	13	13	13	13	16
교류회	329	332	315	315	301	289	267	271
회원사	7,029	7,141	6,546	6,546	6,078	6,058	6,199	6,451

중소기업융합대전은 2004년부터 이업종교류회 소속 기업의 단합과 교류성과 공유를 위해 전국을 순회 개최하였던 중소기업 한마음대회를 2014년 정부의 융합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중소기업융합대전으로 격상시켜 매년 기업 간 교류와 협력활동의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발굴하여 정부포상 수여를 통해 기업 간 교류와 협력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표 IV-28-1-2 | 중소기업 한마음대회 현황

(단위 : 명)

연 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개회기간	6.21	5.22-23	9.4-5	5.21-22	4.22-23	4.14-15	5.12-13	4.26-29	5.15-16	6.10-11
개회지역	대전 충남	제주	강원	광주 전남	전북	충북	제주	대구 경북	울산	강원
참가규모	290	400	550	550	1,100	1,200	1,400	1,560	1,558	1,800

표 IV-28-1-3 중소기업 융합대전 현황

(단위 : 명)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개최기간	9.26-27	10.28	10.19	10.23	10.30	10.16-17	12. 07
개최지역	천안	대전	서동	익산	대전	안동	대전
참가규모	1,500	1,000	1,000	1,000	800	2,000	500여명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축소운영



내빈환담



행사내부



김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환영사



박영선 중기벤처기업부장관 축사



포상수여



비전선포



코로나19 극복 동참 캠페인



성과전시

나. 교류·융합 기반의 혁신적 성과 창출

글로벌 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의 개방·공유 기반 네트워크 전략을 통해 혁신역량을 확충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국내 많은 중소기업들은 치열해지는 경쟁과 열악한 경영환경으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소기업은 동종 또는 이업종 기업 간 경영·기술 정보교류를 통해 구축된 신뢰를 기반으로 상호 보완·협력을 위해 각자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전문화를 추진하면서 보완적인 기능을 보유한 기업과 역할을 분담하고, 자원의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하나의 사업체처럼 경영활동을 하는 협업으로 위험과 성과를 분담하여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1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중소기업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7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협업사업 계획 승인제도를 도입, 협업자금 융자지원 등을 실시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협업 승인제도를 협업 선정으로 완화하여 사업신청·선정절차를 간소화 하였고, 전담기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협업 지원사업은 2개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제품개발·생산·디자인·판매 등에서 역할분담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협업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여 기술 및 제품 개발, 원자재 구매, 시제품 제작 및 국내외 판로개척 등에서 기업 간 핵심역량을 연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간 교류활동을 기반으로 한 성과 창출을 위해 「교류-사업기획-R&D-사업화」 등 단계별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표 N-26-1-4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현황

구분	2011-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승인수	145	21	19	23	18	13	16	14	22
참여기업수	339	80	47	54	42	29	59	31	59

또한, 중소기업간 교류활동을 기반으로 한 성과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간 생산적 교류활동(협업과제발굴 소그룸)지원을 통한 협업과제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협업 과제에 대해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화 지원, 협업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협업 신사업 창출을 위한 기획지원, 네트워크형

R&D 이후 사업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애로사항 해결 지원 등 협업생태계 조성 및 확산을 위한 기업지원중심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 N-28-1-6 / 기업지원 사업내용 및 20년 실적

사업명	주요내용	20년 지원실적
협업과제 발굴을 위한 소그룹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별 그룹을 구성하고, 구성원 간 다양한 교류활동을 지원하여 기술융합 관련 아이디어 및 과제 발굴 ○ (내용) 워크숍·세미나 등 정보교류 활용과 시장전문가·기술전문가 매칭을 통해 협업과제 및 기술&비즈니스 로드맵 구축 지원 	19개 협업체 (280백만원)
협업비즈니스 모델(BM) 개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교류 활동을 통해 발굴된 협업과제에 대하여, 비즈니스모델 및 협업사업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여 공동사업화 성공률 제고 ○ (내용) 협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평가·선정하여 사업모델링, 기술·시장 분석, 사업성 검토, 협업계획서 작성 등을 지원 	16개 협업체 (400백만원)
협업 R&D 원로기업 애로사항 후속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협업 R&D수행 원로예정기업에 대한 후속지원으로 상용화과정의 애로사항 해결과 실질적 R&D성과창출에 기여 ○ (내용) 네트워크형 R&D 이후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직책활동비 지원 	5개 협업체 (40백만원)

2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단독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술융합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중소기업 성장단계 에로사항 해결과 상호 간 시너지 및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협력체를 대상으로 R&D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형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기업 간 협력 사업이다.

그림 73 |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협력 유형



중소기업융합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네트워크 사전기획지원은 기술개발 실효성 검증에 위한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고 2단계 R&D사업에 진입하도록 아이디어 구체화와 수평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네트워크 R&D 사업계획서 도출, 공동개발기관 매칭, 상호협력 표준계약체결 등을 지원한다.

표 IV-28-1-6 |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사전기획지원 현황

구분	지원기업	합업체 구성						상호협력계약서 및 공동추진	비고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2017년	61개	30	11	2	2	1	46	61개	
2018년	32개	20	4	5	2	1	32	32개	
2019년	37개	23	5	6	2	1	37	37개	
2020년	35개	30	5	-	-	-	35	34개	1개 기업 부적려 탈락

사전기획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네트워크 구축부터 사업화 전략수립까지 R&D 및 사업화 전단계를 포괄하는 협업기획 추진을 통해 R&D기간을 단축시키고 기술개발 이후에 빠른 상용화 추진을 위한 사전기획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표 IV-28-1-7 | 네트워크 기획지원 프로그램 구성

구분		주요내용
네트워크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핵심역량 분석을 통한 협업체 구성 네트워크 밸류체인 구성 및 네트워크 구성 기업의 적격여부 검토
환경 분석	기업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소개 및 사업현황, 보유기술 및 제품 개요, 경영현황 분석, 재무현황 분석, 기업역량분석 종합
	시장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동향, 시장현황 및 전망, 시장특성, 목표시장선정, 시장 분석 의견 종합
	해외시장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국 결정, 국가현황 및 정책방향, 산업동향, 시장현황 및 전망, 시장특성
기술 분석	기술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기술개요, 기술현황 및 전망, 기술수명주기 분석, 핵심기술 분석, 기술의 위치 분석, 기술 분석 의견 종합
	지적재산 전략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주요 선행특허 분석, 지적재산 확보 전략, 보유 지적재산의 보강 전략, 지적재산권 방어 전략
경제성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매출액 분석, 예산원가 추정, 수익성지표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전략 수립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 기술개발 전략기술개발정도 및 사업화일정, 일정별 결과물, 인력운용, 개발자금계획, 목표달성평가지표 인증전략 수립
	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환경기업환경기술, 인력, 생산-시장환경 분석, 수요처 발굴 및 마케팅 전략/계획 수립, 사업화 추진전략/계획 수립, 해외진출전략수립
네트워크 협력 계약 체결/공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주체별 도출 성과물에 대한 정의 및 표준계약에 따른 합의사항 도출 (공증지원, 수익배분 방안 등)

앞으로도 협업기반 개방적 혁신 R&D창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사업 분야 진출, 연구개발 리스크 분산 및 기간 단축, 개발비용 절감 등의 기업 간 협력사업의 기술개발 성과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전기획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하고 전문적 역량을 통해 기술융합의 중소기업의 협업성공 모델 창출에 이바지 할 예정이다.

3

중소기업 인력 지원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15년 5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인력공동관리협의체로 지정받아 특성화고 산학 맞춤형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인력공동관리협의체는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특성화고의 졸업예정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학교와 중소기업 사이에서 인력채용에 관한 매개활동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현장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20년도에 7개교 186명을 대상으로 취업역량을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94명의 특성화고 졸업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데 일조하였다.

그림 74 | '20년도 공동교육프로그램 교육



'20년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따라 악화된 사업여건 하에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홍보를 위해 지역연합회 사무국 건담회 및 융합회 간부 대상 워크샵 등 주요행사 시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홍보를 실시하고 특성화고와의 공동교육 과정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대외홍보활동과 외원사 대상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및 청년층 인력수요 및 채용 애로사항 조사를 통해 청년층과 구인 수요기업 간 채용연계를 통해 특성화고생 및 청년층의 취업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림 76 | 20년도 사업홍보 활동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취소된 교외 활동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온라인 취업박람회 등을 통한 취업지원을 위해 업종 릴레이특강에 참여하여 특성화고 재학생들에게 업종별 산업동향, 주요 업무 등 취업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림 76 | 20년도 온라인 취업박람회 업종 별 릴레이 특강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2020년부터 중소기업의 숙련기술자 구인에로를 완화하고 청년층 실업 해소를 위한 현장코칭숙련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명장 등 전문가를 활용한 1:1 현장코칭으로 바숙련공이 기업현장에 빠르게 적응하여 숙련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은 신규채용 인력에 대해 3일 이내 직무교육과 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의 12회 이내 코칭 및 최대 3개월 간 훈련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회원사 등 중소기업의 구인수요 614건과 숙련기술인력으로 성장을 희망하는 구직자 556명을 발굴하여 176개 수요기업에 329명의 사업 참여자를 매칭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우수숙련기술인력 63명이 진행되는 현장코칭을 통해 미래 숙련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림 77 | 20년도 한창코칭숙련인력양성사업 현장코칭



4

중소기업 간 교류 및 협력 생태계 구축 지원

가. 중소기업 간 교류 및 협력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산하 전국의 13개 연합회는 매년 1회 융복합기술개발 및 융합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 융합플러자를 개최하고 있다. 매년 말 1년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회원사의 제품과 기술홍보의 장을 제공하여 지역의 중소기업인들 간 교류 및 협력문화 조성 및 확산을 기하고 있다.

2020년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롯데리조트부여에서 개최된 리더 합동 워크샵에서는, 주영섭 前 중소기업청장의 '초변화의 시대 기업혁신' 관련 주제로 발표 시작으로 중소기업간 융합교류 30주년 기념과 Vision 2030 선포 등 재도약의 비전제시와 우수사례 발표 및 토의를 통해 우수 운영사례 발굴하고 확산의 촉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1년도는 코로나-19인하여 별도 리더워합동 워크샵을 개최하지 않았다.



리더합동 워크샵



리더합동 워크샵



리더합동 워크샵

나. 중소기업 간 협력생태계 구축 지원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중소기업 간 교류·협력 및 혁신을 통해 지식·기술융합 및 협업으로 중소기업의 성장동력화·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화 등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회원사의 회원수 확대와 더불어 해외 판로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연합회 설립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내의 중소기업이 협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5

지식산업센터 입주 중소기업 지원

가. 지식산업센터 연계활용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발전 및 지역특화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과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20년 4월부터 비수도권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지원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림 78 | 20년도 공공활용지원 프로그램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비수도권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우수인력 유치 및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 공공활용 지원프로그램 및 입주기업 맞춤형 단계별 기업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표 N-28-1-8 | 20년도 기업지원 프로그램 실적

사업명	주요내용	'20년 지원실적
공동활용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지식산업센터 편의·휴게 공간 조성률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이공편의 제공으로 입주 만족도 제고 ○ (내용) 4개 지식산업센터에 휴게실, 체력단련실, 이노카페, 출퇴근 버스 운영 등 6개 프로그램을 선정·지원 ○ (성과) 근무 환경개선을 통하여 입주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및 생산성 향상 도모 	4개 센터 입주시정 개선 6개 과제 지원
맞춤형 단계별 기업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단계별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입주기업의 지속성장 지원 ○ (내용) 5개 사업 분야 20개 세부 지원 과제 선정을 통한 입주기업 지원 및 사업화 매출 등의 성과 창출에 기여 ○ (성과) 홈페이지 제작, 홍보 영상 제작, KC 인증 획득 확대 등의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11개 입주기업 선정 과제 지원

나.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신속 대응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주요 거점에 화상회의실 구축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각 지역TP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수요 발굴 및 1567개소의 화상회의실을 구축하여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주변 중소기업의 비대면 업무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화상회의실 정보를 조회·예약할 수 있는 화상회의실 예약 포털을 구축하여 이용자에게 전국 화상회의실의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고 관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표 IV-28-1-9 | 전국 화상회의실 구축현황

(단위 : 개소)

지 역	화상회의실		스마트워크루스
	필방형	확장형	
서울	297	2	16
경기	296	1	6
인천	51	-	1
강원	53	-	3
대전	66	-	-
세종	11	-	-
충북	77	-	3
충남	66	-	2
대구	60	1	3
경북	90	-	1
경남	107	-	4
부산	84	-	7
울산	44	-	1
광주	70	-	1
전남	87	-	3
전북	82	1	3
제주	25	-	1

앞으로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운영 효율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 활성화방안 연구 등을 통해 비수도권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체계적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다. 또한,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지원 등과 같은 관련사업 추진으로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제29장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1

일반현황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는 2002년 중소벤처기업부의 허가와 「민법」 제32조를 근거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2001년부터 시행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를 운영·관리하는 기관이다.

* INNOBIZ :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 기술 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조5의2)

협회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기업) 간 상호교류 및 경영,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이노비즈 인증 제도 운영, 정부 위탁사업 수행(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이노비즈기업의 국내외 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 및 경영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본회, 경기 판교 소재)과 전국 9개(강원, 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부산울산, 전북, 충북, 제주) 지역협회를 보유하여 지역 이노비즈기업의 애로해결 및 정책지원 등 현장 밀착형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일자리 창출과 해외 진출 지원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2010년에는 민간 최초로 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하였고, 전국 최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실적을 달성하는 등 이노비즈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2013년 일자리 창출 국무총리 표창, 201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2015년 일자리 창출 대통령 표창, 2017년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대상 등을 수상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5년 중국(베이징장성) 대표사무소, 2016년 한-이란(테헤란) 기술교류센터, 2017년 한-베트남(하노이) 기술교류센터, 2018년 한-인도네시아(자카르타) 기술교류센터 설립 등 해외 거점도 확대하면서 기업들의 해외 판로개척에도 힘을 쓰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최근 전 세계는 혁신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면서 제품부터 기획·개발·생산·서비스까지 기업 내 모든 활동이 급격히 변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꾸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기술혁신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부합하는 기업이 바로 '이노비즈기업'이다.

이노비즈기업은 2001년 약 1,000여개에 불과했지만 참여정부(03~08년) 시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 육성' 정책기조 하에 본격적으로 발굴·육성되어 2020년 현재 약 19,000개 규모의 거대 기업군으로 성장했다.

전체 매출액은 292조원으로 국내 실질 GDP(1,849조원)의 약 15.8%를 차지하며 같은 해 삼성전사(230조원, 12.5%)보다 높은 성과를 보여줬다. 또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연평균 3만개 이상 총 30만 9천여 개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 이노비즈기업 수 변화추이 : (01) 1,000개사 → (06) 7,185개사 → (11) 16,944개사 → (16) 17,798개사 → (17) 18,091개사 → (18) 18,095개사 → (19) 18,345개사 → (20) 18,920개사
- 이노비즈기업 일자리 창출총 누적 399,696개 : (10) 32,009개 → (11) 30,744개 → (12) 35,896개 → (13) 57,367개 → (14) 30,264개 → (15) 32,658개 → (16) 34,259개 → (17) 35,009개 → (18) 18,607개 → (19) 24,288개

또한, 일반 중소제조기업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 R&D투자비율에서 2~3배의 성과를 나타내고, 중소기업 수출액의 약 50%를 차지하는 등 국내 중소기업의 선도적인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이노비즈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협회는 다양한 정부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가. 이노비즈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술혁신 지원사업

1) 혁신형기업(이노비즈기업) 경쟁력강화 사업

혁신형기업(이노비즈기업) 경쟁력강화 사업은 이노비즈기업의 발굴과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기업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① 이노비즈기업 정밀실태조사, 종합정보망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이노비즈기업 발굴·선정 등 관리와 정보를 제공하는 ② 이노비즈넷 운영·관리, 기술혁신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기술혁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전시 및 부대행사를 개최하는 ③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중소기업의 자발적 혁신활동을 유도하여 정부사업 참여 시 혜택을 주는 ④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① 이노비즈기업 정밀실태조사

이노비즈기업 정밀실태조사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매년 직전연도 12월말 기준의 이노비즈기업 중 2,000개의 표본을 추출하고 기술혁신, 수출현황 및 애로사항과 지원정책 평가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며, 경영성과/재무 현황 등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일반 중소기업, 대기업 등과 비교를 실시하고 있다.

표 N-29-1-1 | 2020년 이노비즈기업 정밀실태조사 주요 결과

구분	평균 매출액	평균 영업이익	평균 종사자	평균 수출액	수출기업 비율	평균 R&D 투자비율
결과 값 ('19.12기준)	159.0억원	6.4억원	42.6명	81.7억원	54.1%	3.17%

* 간접수출 포함, 수출액은 1억 원 이상 기업 대상으로 조사

② 이노비즈넷 운영·관리

이노비즈넷 운영·관리는 2004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이노비즈기업 선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노비즈기업 신청 및 평가, 확인서의 (재)발급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 상담원 배치, 관련 유관 기관(기술보증기금,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담당자 업무 협조 등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림 79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화면



③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은 2000년부터 기술혁신 관련 전시회와 포상을 위해 매년 정부 주도로 개최되어 왔는데, 2005년부터는 이노비즈협회 등 민간이 주도하여 진행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K-중소기업, 혁신기업의 지력으로 디지털경제 선도”라는 슬로건 하에 12.10(목) 임페리얼팰리스서울 7층 두베룸에서 개막식을 진행하였고, '20.12.09(수)~21.01.31(일) 54일간, 국내 최고의 온라인 전시관을 개최하였다.

개막식 주요 참석자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유관기관 임직원, 중소기업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처음으로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하였지만, 180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고, 24,000여명이 참관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2020년 포상규모는 기술혁신 및 기술인재 분야 훈·포장 등 191점(정부포상 52점, 기관포상 139점)이 수여되었고, '스마트공장 고도화모델 시연',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온라인 피칭' 등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각종 부대행사도 진행하였다.

그림 80 | 2020년 제21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주요 스틸 컷



④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중소기업 임직원이 경영혁신 관련 교육 참가 및 활동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정부사업 가점(마일리지 500점 당 가점 1점)으로 환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마일리지 시스템(www.mileage.or.kr)을 운영하여 참여기업 관리, 교육기관 및 과정 등록, 가점 활용 안내 등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업의 경영혁신 활동 및 신규 교육기관 심의 등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표 N-29-1-2 |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운영 실적('14년~'20년)

사업연도	참여기업	지원기업	활동기업	교육기관	교육과정
2014년	183개사	0개사	0건	32개	722개
2015년누적	1,002개사	793개사	3건	43개	2,289개
2016년누적	8,084개사	5,818개사	50건	49개	3,928개
2017년누적	12,325개사	8,113개사	112건	52개	4,889개
2018년누적	18,307개사	13,368개사	181건	56개	5,755개
2019년누적	22,352개사	15,788개사	250건	60개	6,206개
2020년누적	26,561개사	18,047개사	322건	66개	6,529개

2)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확산 사업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확산 사업은 전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내외 우수 클라우드 서비스를 국내 기업들이 손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 사용료를 지원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클라우드 시장 확산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다.

본 사업은 2017년 시작으로 현재까지 491개 공급기업의 876개 클라우드 제품을 선정하여 6,335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표 IV-29-1-3 :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확산 사업의 지원 실적(17년~20년)

구분	서비스 원천 실적		도입 실적		비고
	공급기업 수	클라우드 서비스 수	대상	도입실적 수	
2017년	101개社	177개 서비스	산업단지	1,200개	
2018년	106개社	203개 서비스	중소기업 (소상공인)	1,560개	
2019년	135개社	242개 서비스	중소기업 (소상공인)	1,606개	
2020년	150개社	254개 서비스	중소기업 (소상공인)	1,979개	

3)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중, 유사 제조공정/업종을 공유하는 기업들에게 적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데이터 수집'단계에 해당되는 과정으로써, 향후 AI 구현을 위한 기초 환경 수련이라고 볼 수 있다. 「소재·부품·장비」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공장의 업스케일링(Upscaling)을 지원하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제조데이터를 확보·가공하여 실질적인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특히, 2020년 이노비즈협회는 27개 컨소시엄을 통해 신규(기초) 17개(기업당 최대 1억원), 고도화 10개(기업당 최대 1.5억원)를 협약하여, 총 29.5억원을 지원하였다.

4)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은 AI 기반의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을 통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AI 도입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AI 솔루션 실증을 연계 지원하여 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을 통한 중소 제조기업 경쟁력 제고에 목적이 있다. 1단계 AI컨설팅은 제조현장 내 문제를 AI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AI마스터(전문가)를 매칭하여 공장 문제 정의 및 진단, 기업별 최적 상용 AI 솔루션 추천 등을 지원한다. 2단계 AI 솔루션 기술검증은 컨설팅 결과물을 토대로 공정 및 품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AI 기술 및 솔루션을 제조현장에 적용하여 도입기술 및 솔루션에 대한 실증을 지원한다.

이노비즈협회는 본 사업의 1단계인 AI컨설팅 관리기관으로 20년도 부터 AI 컨설팅을 운영하였고, 21년도 2차년도 사업까지 누적 200개 수요기업을 지원, 1개사 당 2천만원씩 총 40억원을 지원한다.

표 IV-29-1-4 |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 지원 실적(20년~21년)

구분	AI마스터 선정		수요기업 선정		중소기업 선정	비고
	AI전문가	공정전문가	모든	지원기업수		
2020년	77명	113명	146개사	100개사	97개사	
2021년	146명	154명	206개사	100개사	평가 중	

나. 이노비즈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1)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이노비즈협회는 2016년 7월부터 중소기업 청년재직자의 장기근속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본 사업은 비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장기 근속 유도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청년공제는 청년 재직자가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청년납부금(300만원)과 정부 지원금(900만원) 등 총 1,200만원의 만기공제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협회는 참여기업의 편의성 증대 및 사업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2017년부터 '사업 운영 및 참여기업 관리'를 위한 전용시스템을 독자 개발·운영하고 있다. 참여기업이 본 시스템을 통해 사업 관련 알림 및 공지, 서류 제출 등을 편리하게 윈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스스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준비하도록 기업별 참여단계 및 지원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20년 12월 기준 총 5,770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적을 달성했으며, 본회 및 7개 지회와 함께 전체 운영기관 169개 중 전국 최대 규모로 사업을 운영, 앞으로도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표 N-29-1-5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실적(16년~20년)

구분	추진 목표	추진 실적								합계
		분리	지회							
			강원	경남	대구 경북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충주 전남	전북	
2016년	1,040명	518명	25명	240명	62명	158명	-	37명	-	1,040명
2017년	3,400명	2,230명	187명	232명	229명	240명	220명	177명	124명	3,639명
2018년	7,870명	4,377명	443명	550명	492명	773명	637명	584명	-	7,873명
2019년	3,770명	1,323명	-	410명	521명	600명	444명	544명	-	3,842명
2020년	5,725명	2,222명	405명	450명	597명	770명	687명	618명	-	5,770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16년 7월부터 실시

2)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

이노비즈협회는 2018년 6월부터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 촉진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본 사업은 정부·기업·청년의 3자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납입해 5년 이상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3,000만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즉, 청년은 월 최소 12만 원 이상 60개월 납입(5년간 720만원), 기업은 월 최소 20만 원 이상 60개월 납입(5년간 1,200만원)하게 되며, 정부가 3년간 총 7회 1,000만원을 직접해주는 구조이다.

특히, 본 사업은 기업의 납입금 전액을 비용(일반연구·인력개발비)으로 인정하고, 공제금 수령 시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등 혜택을 마련하여 기업과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이노비즈협회는 본회를 비롯, 전국 8개 지회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 및 유치 활동을 펼친 결과, 2020년 12월 기준 총 1,519명의 실적을 달성했다.

표 N-29-1-6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 실적(18년~19년)

구분	주식 적립	공제금 지 회									합계
		경기	강원	충청	대구 경북	대전충 청	충청	경주 경남	전북	경상 북부	
2018년	430명	629명	60명	-	182명	300명	119명	148명	80명	-	1,718명
2019년	1,400명	675명	49명	66명	110명	250명	110명	158명	47명	79명	1,538명
2020년	1,689명	666명	21명	337명	73명	136명	90명	124명	16명	57명	1,519명

* 2019년도부터 경기, 부산울산지의 사업 신규 시작

3)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이노비즈협회는 2020년 하반기부터 전국 이노비즈기업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청년고용시장 악화에 따른 단기충격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IT직무 관련 청년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인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을 추진했다.

본 사업은 IT활용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 신규 채용 시, 최대 6개월간 인건비(월 보수 총액 200만원 이상 18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 임금의 90%)와 간접노무비 10만원이 지급되는 사업으로 상사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하며,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시 지원 가능하다.

이에 이노비즈협회는 본회 및 5개 전국지회와 함께 총 2,493개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달성했다.

표 N-29-1-7 | 청년다지달일자리 사업 실적(2012년)

구분	추진 목표	연비	추진실적					합계
			경기	충남	대구지역	광주지역	부산/울산	
2012년	3,200명	1,371명	150명	403명	170명	257명	132명	2,493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지원

4) 이노-마이스터 채용연계 사업

이노-마이스터 채용연계 사업은 체계적인 기술인력 육성 및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마이스터고 3개교(구미전자공고, 부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의 우수 기술 인력을 우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기업에 채용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2010년 국립마이스터고 이관(교육부 → 중소벤처기업부)

협회는 지난 2012년부터 총 787명의 채용연계를 진행했으며, 우수한 고졸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1기~8기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와 NH농협은행, 이노비즈협회, 국립마이스터고 3개교의 기업육성자금 및 장학지원에 관한 다자간 협약체결(2011년 8월)을 통해 장학금도 지급되었다.

표 N-29-1-8 | 이노-마이스터 채용연계 실적(1기~8기)

구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합계	
추진목표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0명	70명	70명	60명	800명
추진실적	80명	85명	65명	90명	84명	86명	99명	99명	99명	787명

* 1기(13.2월졸업), 2기(14.2월졸업), 3기(15.2월졸업), 4기(16.2월졸업), 5기(17.2월졸업),
6기(18.2월졸업), 7기(19.2월졸업), 8기(20.2월졸업), 9기(21.2월졸업)

5)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 협의회

이노비즈협회는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인 인력공동관리 협의회로 지정받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우수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동참하고 있다.

인력공동관리 협의회는 전문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아 전국 각지의 특성화고 졸업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학교·구인기업·당사자 사이에서 인력 채용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협회는 2013년부터 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까지 8년째 수행 중이다.

특히 2020년에는 4개교와 함께 86명의 공동교육(취업역량 및 소프트스킬 함양)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이노비즈기업에 우수 기술기능 인력 채용연계를 위하여 현장 실습기업과 선도기업(교육부) 발굴 등 특성화고등학교와 긴밀한 협조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부 지정 200여개 특성화고등학교 역시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표 IV-29-1-9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실적(13년~20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추진목표	100명	100명	100명	100명	80명	80명	60명	60명	680명
채용연계	100명	100명	104명	94명	82명	82명	81명	44명	667명

6)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사업

이노비즈협회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무 교육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업 현장 인턴 및 취업을 지원하는 민간기업 맞춤형 일자리 뉴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본 사업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구직자 모집 → 전문교육(2개월) 실시 → 기업과 교육수료자 간 인턴 매칭 → 인턴근무(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의 순서로 채용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인턴기간 동안 인건비(최대 741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생활임금 기준

특히, 동 사업의 경우는 기업에서 담당할 업무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직무 교육 뿐만 아니라, 조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 교육 및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의지를 함양하는 인성교육을 통해 입사 후 기업에 안정적인 적응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44명을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89명을 정규직 채용연계 했다.

표 IV-29-1-10 |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사업(17~20년)

구분	교육	인원	취업
2017년	24명	14명	14명
2018년	51명	38명	29명
2019년	49명	22명	33명
2020년	20명	16명	13명
합 계	144명	90명	89명

* 취업의 경우 민선 과정 없이 정규직 채용연계도 진행

7) IT·SW 우수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이노비즈협회는 2020년 3월부터 수도권 소재 우수 중소기업 대상으로 ICT분야 직무중심의 맞춤형 채용연계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본 사업은 수도권 소재 우수 중소기업 홍보 및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혁신 프로젝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채용연계 플랫폼 구축 및 취업 전문 코디네이터 운영을 통한 직무중심의 1:1 맞춤형 채용연계 지원을 주축으로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요구하는 소프트스킬 교육을 통해 구직자역량제고, 정부 및 지자체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코칭/컨설팅 지원, 참여기업의 채용정보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 채용정보의 효율적인 제공하는 등의 연계사업을 펼쳐나갔다.

이에 총 15개사의 대학별 채용플랫폼 구축, 1,540명의 참여자 발굴, 360명의 채용연계와 306명의 MBI* 교육을 실시했으며 50개사 기업경쟁력 강화 컨설팅 완료 및 60개사의 채용정보 영상을 제작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 MBI : Mind & Behaviour Innovation

표 N-29-1-11 | IT-SW 우수 강소기업 청년일자리 창출사업(20년)

구분	목표	실적
대학별 채용플랫폼	15개	15개
참여재구직자 발굴	1,300명	1,540명
MB교육	300명	306명
수요기업 발굴	800개사	607개사
채용연계	280명	360명
기업경쟁력강화	50개사(11개사)	50개사(11개사)
채용정보영상제작	60개사	60개사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연계지원

다. 이노비즈기업 글로벌 지원 사업

1) 융·복합기술교류촉진사업

이노비즈협회는 해외기업과의 기술 융·복합 활성화 및 기술수출을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혁신 및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 기술교류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이노비즈협회가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교류 국가 증가에 따라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19년부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공동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협회는 베트남, 이란, 인도네시아, 독일, 터키,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기술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지원내용은 ① 해외 기술교류단 파견 기회 제공 ② 통역, 현지 차량 등 기술수출 활동 지원 ③ 국내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기술전문가 진단 ④ 현지 기업과의 교류 성과 달성 가능 기업의 경우는 별도 평가를 통해 수출지원 컨설팅 등 사후지원 서비스 등이 있으며, 2020년에는 COVID-19의 영향으로 국내기업과 현지기업 간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로 전환하여 운영하였다.

동 사업은 일반적인 상품부역을 지양하고, 고부가가치의 성과 창출이 가능한 기술 교류 비즈니스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차별화된 것이 특징이다.

2016년 6월 한-이란 기술교류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2017년 베트남, 2018년 인도네시아 기술교류센터가 차례로 설립되었고, 현재 총 6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개도국을 중심으로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표 IV-29-1-12 | 용·복합기술교류촉진사업 실적 ('14년~'20년)

구분	교류실적			
	기술교류일	협력기업매칭	금전제약강제	성과금제약률
2014년	50개사/5회	20건	1건	2.4
2015년	43개사/3회	32건	2건	25.6
2016년	101개사/8회	34건	4건	2.5
2017년	139개사/8회	133건	2건	7.9
2018년	105개사/11회	78건	6건	32
2019년	83개사/7회	91건	4건	60
2020년	146개사/11회	92건	6건	42.5
합계	656개사/74회	480건	25건	173.1

2) 한-러 혁신플랫폼

한-러 혁신플랫폼 사업은 한-러 정상회담('18.6월)에서 '한-러 혁신 플랫폼' 협력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2019년부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술협력, 창업 교류 등 혁신 분야별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창업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러혁신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코트라 등 한-러 혁신플랫폼 지원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러시아 정부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조성한 스몰코보 혁신센터와 협력하여 혁신기술을 보유한 한국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 및 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① 한-러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회, ② 현지 진출을 위한 단기보육(소프트랜딩) 참여, ③ 현지 투자유치 활동 등이 있다.

그림 81 | 한-러 혁신플랫폼 우수사례

<p>◎ '19년 러시아 진출지원 5개사 중 4개사 진출 성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윙코(WECO)-(러) Optosystems, Ltd. • 스폰코보 주관 소프트웨어(당기보육) 과정 참여 러시아 법인설립 및 스폰코보 입주 완료(20.2) • 러시아와 기술협력을 통해 Laser 마이크로 장비 사업화 추진 	
<p>◎ '20년, 러시아 대기업 협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MOU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씨유박스(CUBOX)-(러) Lanit Integration • 칼루가주* 內 기술혁신단체에 공동R&D를 위한 JV 법인설립 합의 • Lanit 그룹은 '03년도 설립, 러시아 IT분야 선도기업 3위에 선정 	

3) 한-인니 자동차부품 미래선도 기술협력 사업

이노비즈협회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국내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산용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자동차 부품 기업 기술협력을 지원했다.

주요 지원내용은 ① 인니 자동차 부품 수요기업 발굴, ② 인니 자동차 부품 기관 및 관련 부처와 국내 공급기업 간의 교류 지원, ③ 한-인니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회 ④ 양국 기업 간 교류를 통한 사업화 및 기술협력 유형별 제공 등이 있다.

4) 수출컨소시엄 사업

수출컨소시엄 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전문 업종 위주로 수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타겟(Target)시장 파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노비즈협회는 2008년부터 매년 3~4개의 해외전시회 한국공동관 구성 및 파견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내셔널 하드웨어 전시회, 베트남 하노이 전자제조 전시회, 인도네시아 국제 플라스틱 및 고무산업전 등 총 3개 전시회에 24개 중소기업의 참여를 지원했다.

표 N-29-1-13 | 해외전시회 이노비즈 공동관 지원 실적(19~20년)

전시명	일지	장소	품목	참가규모
2019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 플라스틱 및 고무산업전	'19.11.20~11.2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플라스틱 성형기계, 플라스틱 금형 등	8개사 9개 부스
2019 베트남 하노이 전자제조 전시회	'19.08.14~08.16	베트남 하노이	베어링 나사 금속 등	9개사 10개 부스
2019 미국 라스베이거스 내셔널 하드웨어 전시회	'19.05.07~05.09	미국 라스베이거스	건축, 주택	7개사 6개 부스

5) 경기도 해외전시회 사업

경기도 해외전시회 사업은 해외 유망 전시회에 경기도관을 구성하여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참가를 지원하고,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2020년 이노비즈협회는 '2020년 베트남 호치민 기계전시회(METALEX VIETNAM 2020)'에 온라인 경기도관을 구성하여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11개사 대상으로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참가기업의 온라인 상담회 활동 및 봉의 등을 지원한 바 있다.

표 N-29-1-14 | 해외전시회 이노비즈 공동관 지원 실적(20년)

전시명	일지	장소	품목	참가규모
2020 베트남 호치민 기계 전시회	'20.10.22~10.24	베트남 호치민	전동기계, 공작자동화, 펌프밸브 등	11개사 11개 부스

6) 글로벌연수사업

글로벌연수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에 필수인 인적 자원 개발 및 제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노비즈협회는 본 사업을 통해서 페루, 캄보디아, 콜롬비아 등 3개국을 대상으로 이노비즈 인증제도, 패키징기술, 콜롬비아형 정책지원제도 전수를 위한 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다.

표 IV-29-1-15 | 20년 글로벌연수사업 운영현황

연수명	연수일정	연수규모	주요 수관기관	총 연수기간
페루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인증제도 전수	20.09.14-09.23	24명	페루 생산부	2019년-2021년
콜롬비아 신청부 고위공무원 대상 한국개발경험 지식공유	20.09.07-09.16	21명	콜롬비아 국제협력청	2020년-2021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패키징기술 개발 교육	20.11.12-11.20	15명	캄보디아 과학기술혁신부	2020년-2022년

그림 82 | 글로벌 연수사업



글로벌연수사업(페루)

글로벌연수사업(캄보디아)

제30장

한국인터넷진흥원

1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현황

지역의 열악한 정보보호 현황을 개선하고자 지자체와 연계하여 2020년 현재 전국 10개 정보보호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인식과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인식제고 활동과 기술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구축 현황 〉

지역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10개소)



2

2020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추진방향

가.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세미나 및 전문교육 지원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해 지역 학계·산업계와 협업을 통한 정보보호 세미나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구, 인천, 울산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 매년 개최하는 '정보보호 전문 컨퍼런스'가 있다. 정보보호 전문가의 보안강연부터 패널토의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400여명이 참석하는 큰 규모인 행사이다. 해당 컨퍼런스를 통해 정보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킬 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활동을 위한 기초 가이드 역할도 제시하고 있다.

정보보호 전문교육은 중소기업 재직자 및 정보보호 관련학과 대학생에게 무료로 지원하며, 초급과 중급수준으로 교육을 분류하여 참석인원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2020년도까지 총 8,195명의 인원에게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점점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는 교육 분야를 더욱 세분화하여 지원자들이 더욱 폭넓게 필요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 주요 운영 실적〉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 정보보호 전문교육	-	1,210명	1,419명	952명	1,299명	1,535명	1,780명
○ 정보보호 세미나	9회	45회	90회	72회	65회	96회	93회

나. 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한 기술서비스 지원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3대 주요 기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정보보호 현장진단으로써 정보보호 컨설턴트가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시스템·네트워크 등 ICT 전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취약점 점검을 지원한다. 두 번째는 웹 취약점 점검으로써 기업이 보유한

홈페이지에 대한 주요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호조치를 지원한다. 마지막 서비스는 민감정보보호 조치로써, 기업이 보유·관리하는 고객정보 또는 기업의 민감 정보에 대한 관리를 점검하고, 조치방안을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위 서비스 외에도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과 서비스를 수행 중이다. 지역 전자산업 제품·서비스에 대한 정보보호 내재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운영과 지역 정보보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상생협의체 운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의지가 있으나 예산·인력 부족으로 인해 자발적인 정보보호 활동이 어려운 ICT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컨설팅(700만원 상당) 및 컨설팅 결과조치를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비용(최대 800만원)을 지원하였다.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 주요 운영 실적)

구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 정보보호 서비스	254건	1,433건	3,296건	3,665건	4,003건	4,974건	5,047건
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107건	485건	909건	1,030건	1,119건	1,306건	1,457건
협약자형 점검	130건	820건	1,280건	1,553건	1,653건	1,918건	2,085건
기업 민감정보보호 조치	24건	328건	1,048건	1,082건	1,221건	1,650건	1,505건
○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	-	-	-	195건	266건	775건

다. 2021년도 추진방향

금년도부터 중소기업 스스로 정보보호 수준진단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 제공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도에는 ICT중소기업 600개社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700만원 상당) 및 보안솔루션 도입비용(최대 800만원)을 ICT영세기업 670개社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최대 30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수혜기업들의 피드백을 받아 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연차보고서 작성자 및 연락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제1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연구실	이지현	055-751-9380
제2장 기술보증기금	미래혁신연구소	최원석	051-806-7342
제3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미래기획팀	이학주	042-363-7613
제4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기획실	석재웅	044-390-0416
제5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경영전략부	장서민	042-480-4096
제6장 창업진흥원	기획조정실	곽길화	044-410-1567
제7장 한국벤처투자	기획관리팀	김근호	02-2156-2173
제8장 중소기업유동센터	기획혁신팀	강원구	02-6678-9133
제9장 중소기업연구원	경영기획실	김인혜	02-707-9869
제10장 경영총서팀	기획조정팀	최규진	02-6360-8025
제11장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획조정팀	서지은	02-2181-6563
제12장 중소기업총연합회	기획조정실	박주현	02-2124-3032
제13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획운영부	진성룡	02-388-8781
제14장 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권준형	053-430-4115
제15장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지원사업지원팀	이인성	02-3145-8414
제16장 대한상공회의소	지역경제팀	정철은	02-6060-3454
제17장 중소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이현호	02-8322-6109
제18장 한국수출입은행	정책기획팀	김 왕	02-3779-6268
제19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획혁신팀	남연경	02-3460-7065
제20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기획팀	이연우	02-399-7059
제21장 한국무역협회	정책협력실	임지훈	02-6000-6194
제22장 한국생산산업본부	기획재무센터	이재욱	02-724-1012
제23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기전담지원실	동승화	041-589-8315
제24장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	양한봉	044-287-3171
제25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획실	손해범	042-889-0787
제26장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정의수	031-780-2263
제27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영기획팀	진행복	02-389-0922
제28장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류협업팀	신만영	042-331-0577
제29장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정책연구원	신 의	031-828-9674
제30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역정보보호센터	복재준	061-820-1329

중소기업 연차보고서

| 발행일 | 2021년 8월

| 발행처 | 중소벤처기업부

| 발간등록번호 | 11-1421000-000002-10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기흥로 180
(우 30121)

| 문 의 | 중소기업 연차보고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전화 044-204-7420)로
연락바랍니다.
